발 간 등 록 번 호
11-1383000-100044-12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2024. 12.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2024. 12.

연 구 기 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 배 호 중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정 가 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 정 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권 도 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강 경 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여성가족부

본 보고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여성가족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연구요약

Ⅰ. 서론

1. 서론

가. 연구배경 및 목적

□ 한부모가족은 우리사회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도 상당함.

○ 2022년 통계청 「등록센서스」를 통해 살펴보면, 18세 이하 미성년자녀가 있는 한부모가구의 수는 35.5만 가구로 2022년 기준 전체 가구(2,177.4만가구)의 1.63%, 18세 이하 미성년자녀가 있는 가구(469.1만 가구)의 7.57%를 차지함.

○ 모든 한부모가족이 양육 또는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나 그간의 실태조사 결과 등을 살펴보면 한부모가족은 고립된 양육과 생계의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을 가능성도 상당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처럼 양육과 생계를 혼자서 감당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상당한 것으로 이야기되는 가운데 한부모가족을 위한 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였고, 관련 정책 발굴을 위한 근거자료로서 신뢰할만한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

□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추세연구(trend study)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규정된 법정 조사이자 통계청 승인(승인번호 제154016호)을 받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대표성을 가진 조사임.

○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는 2012년 최초의 조사 이후 3년 주기(2015년, 2018년, 2021년)로 네 차례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2024년에는 다섯 번째 조사가 진행됨.

○ 이에 본 연구는 2024년을 기준으로 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존의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충실히 이어가며, 신뢰도 높은 추세 통계자료를 재생산하는 것으로 목표로 삼고 있음.

나. 연구내용

□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24년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의 결과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실태와 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치를 제공함.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및 한부모가족을 둘러싼 정책방안을 제시함.

2. 조사대상 및 조사내용

가. 조사개요

□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의 조사개요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표 1〉「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조사개요

구 분	내 용
조사기간	2024년 6월 ~ 2024년 8월 (약 3개월)
조사대상	만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전국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부자가족) 가구주 3,315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1:1 가구방문 면접조사
조사주기	3년 주기
기준시점	2024년 6월 1일 0시
표본설계	- 표집틀: 통계청의 「2022년 등록센서스」에서 파악된 한부모가구의 지역별, 가구유형별 및 분포 활용 - 표집방법: 지역, 가구유형에 따른 층화추출
조사내용	조사내용(8개 분야/18개 항목/127개 세부항목) → 자녀 돌봄, 생활세계 및 사회적 지지망, 경제활동, 건강, 소득 및 지출, 자녀의 비양육부모와의 관계 및 양육비, 주거환경, 지원 사업 등
조사기관	- 주관기관 : 여성가족부 - 전담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조사기관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작성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6조(실태조사 등) -『통계법』 제15조(통계작성기관의 지정)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나. 조사내용

□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는 8개 분야, 18개 항목, 127개 세부항목에 대해 질문함.

〈표 2〉「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조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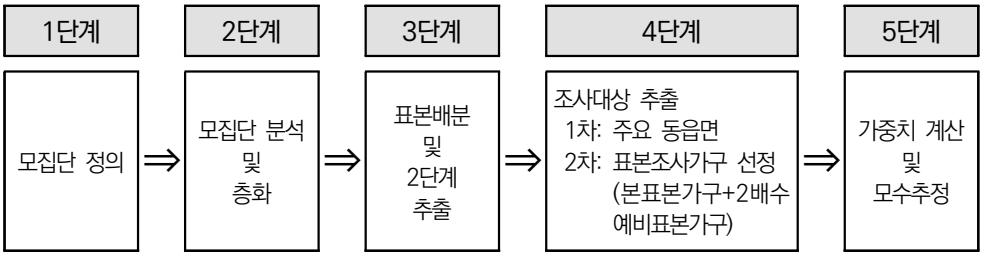
분야	항목	세부항목
Ⅰ. 자녀 돌봄	가족 구성원	전체 가구원 수, 한부모(=응답자)와의 관계, 성별, 연령, 교육 정도, 장애 여부
	미취학자녀	돌봄 유형-미취학자녀, 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 자녀가 혼자 있을 때 바라는 서비스, 평균 양육비 지출, 자녀양육의 어려움
	초등학생	돌봄 유형-초등학생, 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 자녀가 혼자 있을 때 바라는 서비스, 자녀양육의 어려움, 평균 양육비 지출, 자녀와의 여가활동
	중·고등학생	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 자녀양육의 어려움, 평균 양육비 지출, 자녀와의 여가활동
Ⅱ. 일상생활 및 사회적 지지	생활세계 및 사회적 지지망	도움을 구할 사람/기관, 부당한 일, 차별 경험(본인/자녀), 한부모가 된 후 달라진 점
Ⅲ. 경제활동	직업 현황	취업 여부, 직업, 종사상 지위, 현재 직장 종사자 수, 부업여부, 근로시간-주업/부업, 월평균 근로 소득, 일주일 중 휴무 일수, 직업을 구할 때 느낀 어려움, 일을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
	구직현황	구직 여부, 구직 경로,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운 점, 원하는 직장/일자리(종사상 지위), 일을 원하지 않는 이유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직업훈련 경험여부, 교육훈련이 취업에 도움이 된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
Ⅳ. 건강	건강	건강상태, 우울감 경험 정도, 우울감 해소방식, 건강검진 여부, 병의원에 가지 못한 경험, 병의원에 가지 못한 이유, 운동 빈도
Ⅴ. 소득 및 지출	소득 및 지출	월 평균 가구소득, 가구 주 소득원, 가구 월 평균 지출, 부담이 되는 지출 항목, 자산 및 부채, 빚을 지게 된 이유, 자동차 소유여부, 소유한 자동차 현황, 노후를 위한 경제적인 준비 여부, 노후를 위한 경제적인 준비 방법응답)
Ⅵ. 자녀의 비양육부모와의 관계 및 양육비	결혼/동거 시작 및 종료 시기	결혼/동거 시작 시기, 결혼/동거 종료 시기
	이혼 상황	이혼 방법, 양육권 여부
	양육비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경험 여부,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지원 도움 여부, 양육비 이행확보절차 진행 여부, 양육비 이행확보절차가 양육비 수령에 도움 여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도움 여부, 법적으로 결정된 양육비 지급 방식, 양육비를 주고받지 않거나 비결정 여부, 양육비 수급 경험 여부, 받기로 한 양육비 자녀의 수, 받기로 한 양육비 지급 금액, 실제 양육비 받은 형태, 실제 받은 양육비 자녀의 수, 전 배우자에게 받은 실제 양육비,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개선 시급한 제도, 양육비이행관리원 이용 경험 여부, 양육비 이행관리원 서비스 이용 의사,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려는 이유
	전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 비양육부모(전 배우자) 간의 연락 여부, 비양육부모(전 배우자)와의 연락 여부 및 연락 방식
Ⅶ. 주거환경	주거형태	거주형태, 주택면적, 주거환경
	주거서비스	주거서비스를 지원받은 경험, 공공임대주택 등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
Ⅷ. 지원 사업	기초생활보장 제도	한부모가 된 후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여부, 지원받는 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예상 기간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가 된 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여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대상 예상 기간, 지원사업에서 벗어나도 계속 받고싶은 지원, 지원서비스 이용 시 불편했던 점, 지원사업 정보 획득 경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지원책

□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서도 2015년, 2018년, 2021년 조사의 연속성을 이어가되, 정책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가독성이 낮은 설문 및 보기항목들을 수정하는 등 부분적인 수정을 진행함.

다. 표본설계

□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의 표본설계는 다음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짐.

○ 「2022년 인구총조사(통계청)」를 기준으로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전국 한부모가구를 조사 모집단으로 하여 표본을 추출함.



[그림 1] 표본설계 과정

-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위해 추출하고자 한 표본은 한부모 3,300명으로, 모자가족, 모자기타가족(모자와 기타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 부자가족, 부자기타가족(부자와 기타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의 가구유형으로 분류함.

○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의 개요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3〉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조사 설계 개요

- 한부모의 개념: 미혼자녀를 양육하는 법적으로 미혼, 이혼 및 사별인 모 또는 부 (원거리 거주 부부 제외)
- 모집단: 만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전국 한부모 가구
- 조사 대상: 만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한부모 가구주
- 표본 크기: 3,300가구
- 조사 방법: 조사원에 의한 가구방문 면접조사
- 표본 할당: 층별(시도별, 가족유형별) 우선배분 후 비례배분

Ⅱ.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한부모의 평균 연령은 43.6세로 40대가 57.2%로 절반 이상이었고, 학력은 고졸 이하 50.3%, 대학 이상 46.7%, 중졸 이하 3.0% 순이었으며, 혼인 상태는 이혼 84.2%, 사별 10.4%, 기타(미혼·비혼·별거 등) 5.4%로 대부분 이혼한 상태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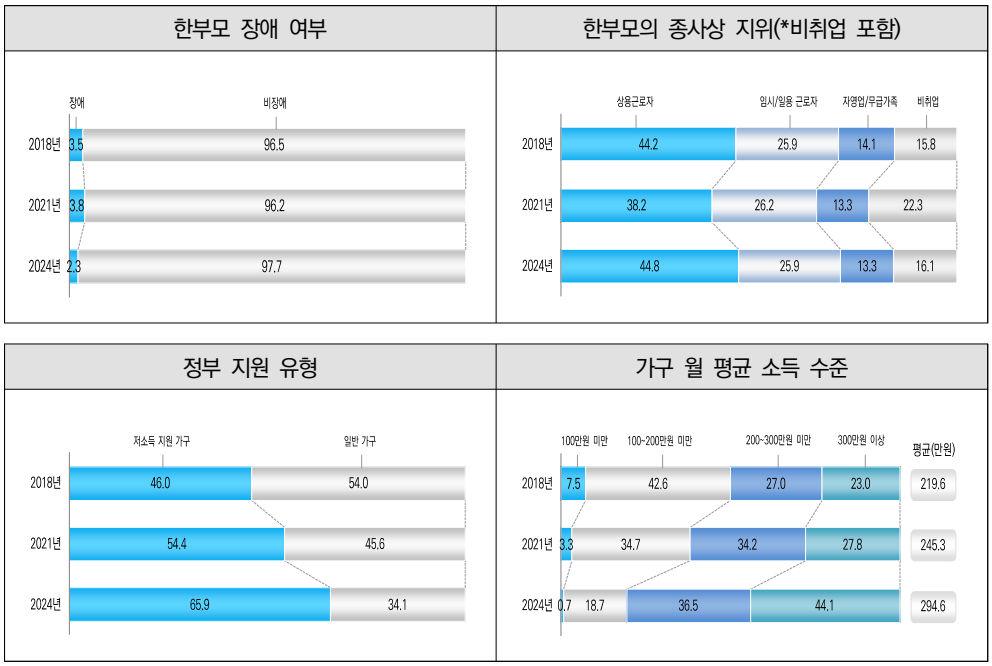
○ 가구 구성은 모자가구 53.5%, 부자가구 20.3%, 모자+기타 15.2%, 부자+기타 11.0%로 절반 이상이 모자가구였고, 가구원 수는 평균 2.9명이었음. 자녀 수는 평균 1.5명이며, 막내자녀의 연령은 평균 11.8세, 자녀 외 가구원 수는 평균 0.4명으로 나타남.



[그림 2] 한부모가족 특성(1): 연령, 학력, 혼인상태, 가구구성, 자녀 수

○ 한부모 본인이 장애가 있는지 여부에서는 장애가 없다 97.7%, 장애를 가지고 있다 2.3%로 대부분이 장애가 없었지만 장애 한부모도 확인할 수 있었음. 일을 하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 84.0%로 상용근로자가 44.8%, 임시/일용근로자 25.9%, 자영업/무급가족 13.3%였고, 비취업자는 16.1%였음.

○ 정부의 지원을 받는 저소득 지원 가구는 65.9%, 일반 가구는 34.1%로 절반 이상이 정부 지원을 받고 있었고, 가구 월 평균 소득은 전체 평균 294.6만원이며, 300만원 이상 44.1%, 200~300만원 미만 36.5%, 100~200만원 미만 18.7%, 100만원 미만 0.7% 순임. 한부모가 된 기간은 5년 미만 42.7%, 5~10년 미만 40.1%, 10년 이상 17.2% 순으로 한부모가 된 기간이 짧은 경우의 비중이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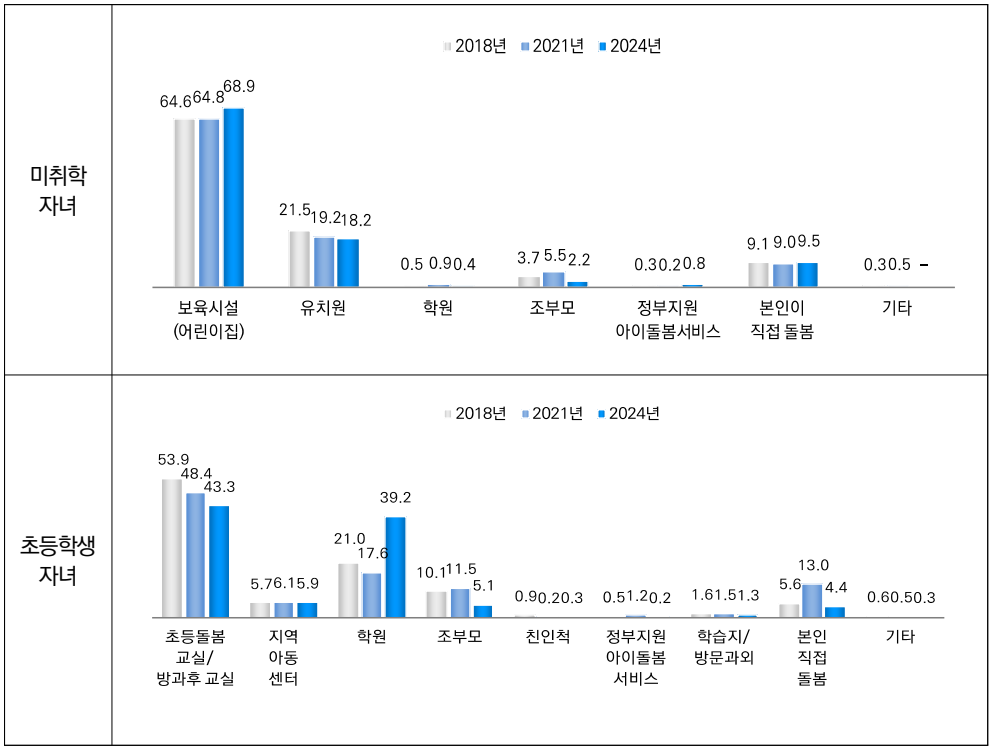


[그림 3] 한부모가족 특성(2): 장애 여부, 종사상 지위, 정부 지원 유형, 소득 수준

2. 자녀돌봄

○ 한부모 자녀의 돌봄 유형은 미취학 자녀는 보육시설(어린이집)이 68.9%로 가장 높았고, 유치원(18.2%), 본인 직접 돌봄(9.5%), 조부모 돌봄(2.2%) 등의 순으로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 비율이 87.1%였고, 초등학생 자녀는 초등돌봄교실/방과후교실이 43.3%로 가장 높았고, 학원(39.2%), 지역아동센터(5.9%), 조부모 돌봄(5.1%), 본인 직접 돌봄(4.4%) 등의 순임.

-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 2018년 대비 2024년 학원을 이용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18.2%p 증가)하였음.



[그림 4] 자녀 돌봄유형(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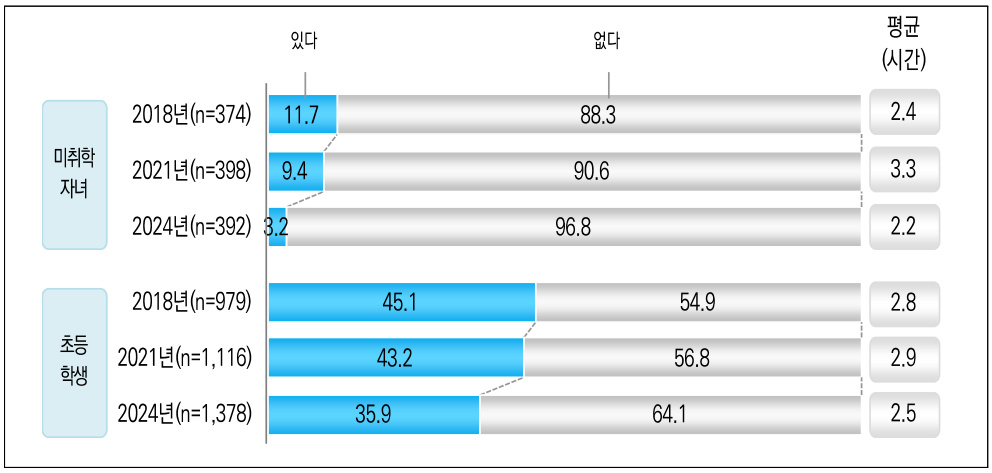
○ 최근 1년 동안 자녀와의 여가활동으로는 초등학생 자녀는 외식(14.1회), 운동 및 나들이(9.6회), 쇼핑(5.0회)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중·고등학생 자녀는 외식(11.2회), 운동 및 나들이(5.1회), 쇼핑(3.0회) 등의 순으로 초등학생 자녀가 활동별 횟수가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여가활동의 양상은 전반적으로 동일하였음.

- 2018년 대비 2024년 운동 및 나들이, 여행 활동은 증가하였고 그 외 활동은 모두 감소함.

○ 평일 일과 후 돌봐주는 어른 없이 자녀가 혼자 보내는 시간은 미취학 자녀는 '없다' 96.8%, '있다' 3.2%로 평균 2.2시간을 혼자 있었고, 초등학생 자녀는 '없다' 64.1%, '있다' 35.9%로 평균 2.5시간을 혼자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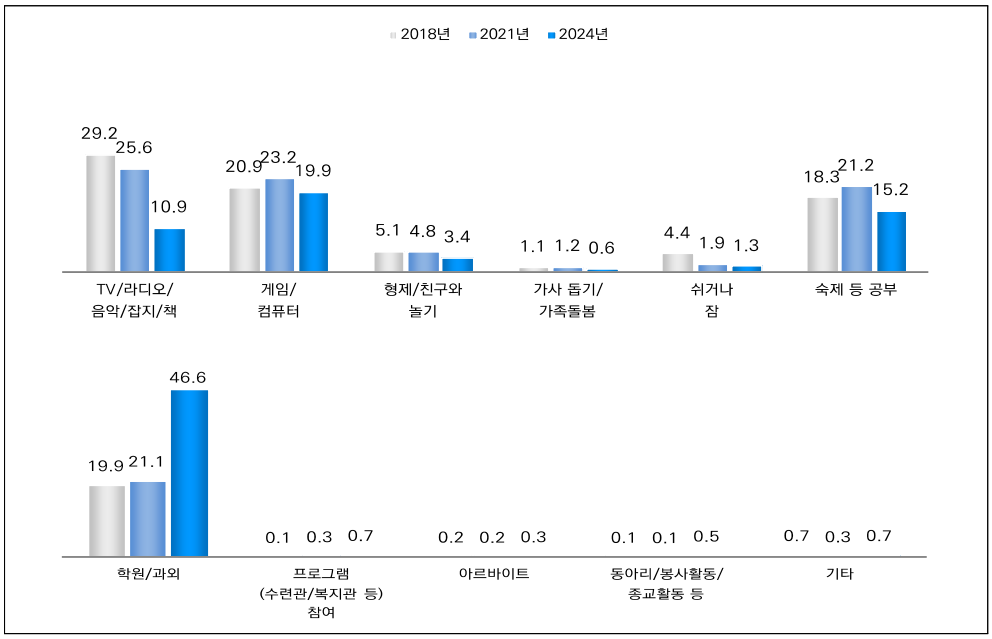
- 미취학 자녀와 초등학생 모두 혼자 있는 시간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며, 2018년 대비 2024년 미취학 자녀와 초등학생 자녀 각각 전체 평균 0.2시간, 0.3시간 혼자 있는 시간이 줄었음.



[그림 5] 자녀가 혼자 보내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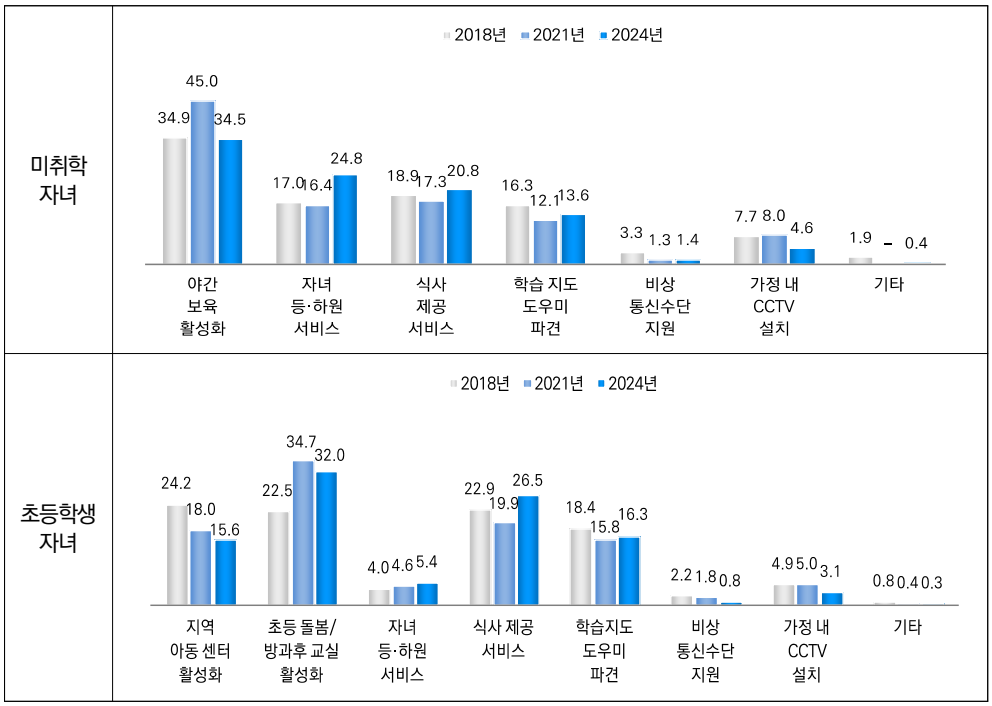
○ 중·고등학생 자녀의 평일 일과 후 주요 활동(1순위)은 학원/과외가 46.6%로 가장 높았고, 게임/컴퓨터(19.9%), 숙제 등 공부(15.2%), TV/라디오/음악/잡지/책(10.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8년의 주요 활동은 TV/라디오/음악/잡지/책이었지만 2024년은 학원/과외 비중이 26.7%p 증가하면서 주요 활동이 변함.



[그림 6] 일과 후의 활동(1순위): 중·고등학생 자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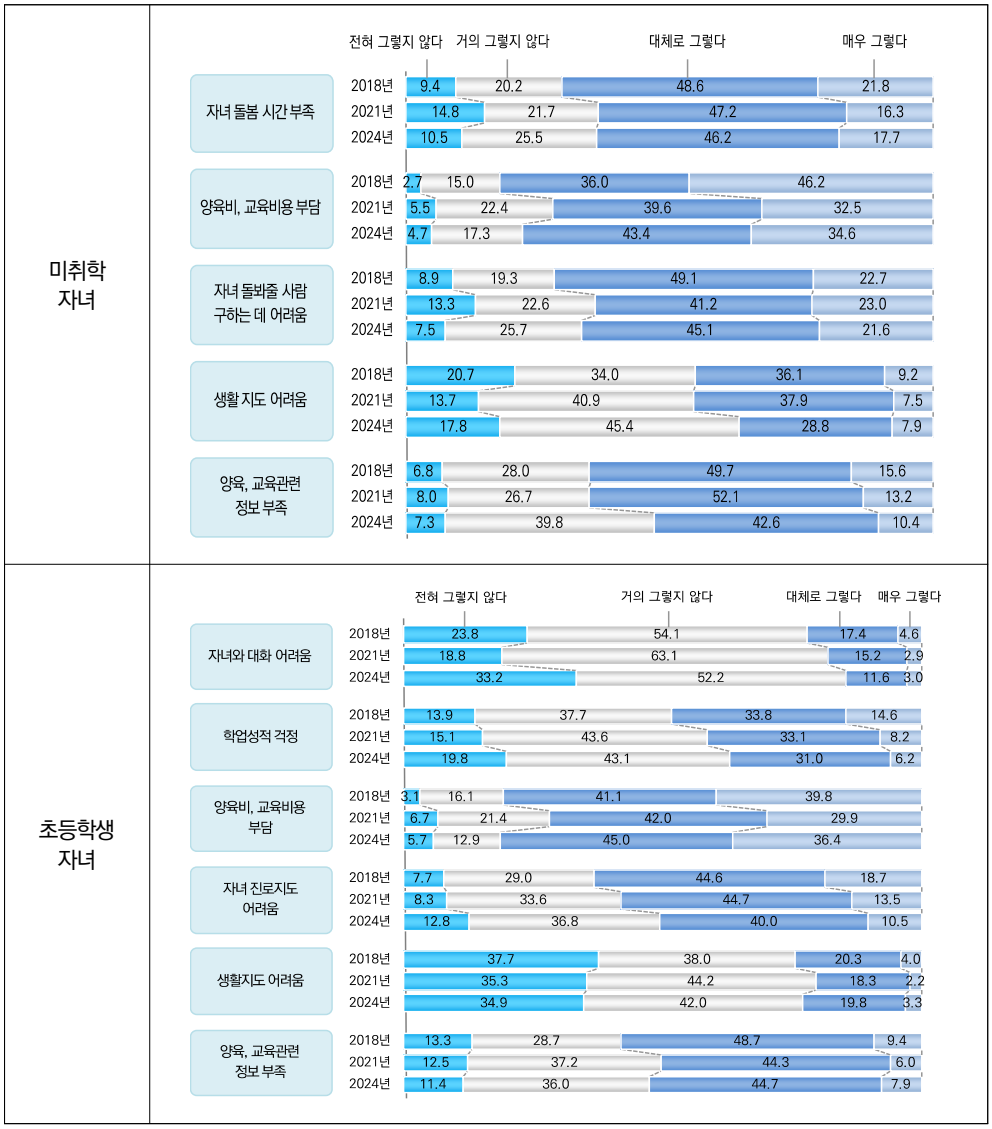
○ 자녀가 혼자 지내는 시간에 필요한 서비스로는 미취학 자녀는 야간보육 활성화가 34.5%로 가장 높았고, 자녀 등·하원 서비스(24.8%), 식사 제공 서비스(20.8%), 학습지도 도우미 파견서비스(13.6%) 등의 순이며, 초등학생 자녀에게 필요한 서비스로는 초등돌봄/방과후교실 활성화가 32.0%로 가장 높았고, 식사 제공 서비스(26.5%), 학습지도 도우미 파견서비스(16.3%), 지역 아동센터 활성화(15.6%), 자녀 등·하원 서비스(5.4%) 등의 순으로 나타남. 따라서 한부모 자녀의 경우 추가적인 보육 및 돌봄에 대한 욕구가 강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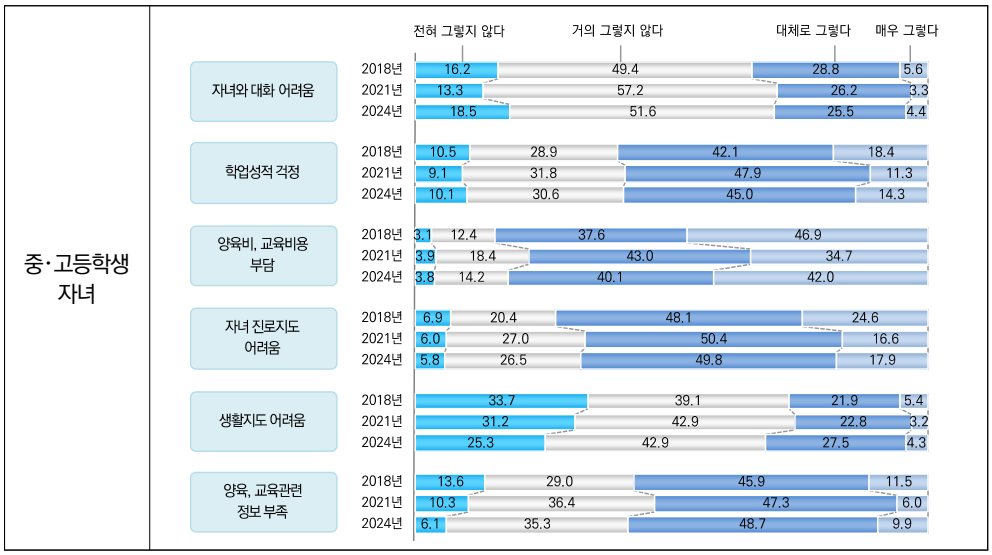
[그림 7] 자녀가 혼자 있을 때 바라는 서비스

○ 한부모의 자녀양육 어려움에 대해 가장 큰 어려움은 양육비, 교육비용 부담으로 미취학 자녀 78.0%, 초등학생 자녀 81.4%, 중·고등학생 자녀 82.1%였음. 다음으로는 미취학 자녀는 자녀 돌봄에 있어 필요한 시간과 사람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초등학생 자녀는 양육, 교육 정보 부족과 자녀 진로지도에 대해, 중·고등학생 자녀는 진로지도, 자녀 학업성적, 양육, 교육 정보 부족에 대해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 2018년 대비 2024년 미취학 자녀는 모든 항목에서 어려움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양육, 교육관련 정보 부족과 생활 지도 어려움이 각각 12,3%p, 8.6%p 감소함.
- 초등학생 자녀는 양육비, 교육비용 부담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어려움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양육비, 교육비용 부담은 0.5%p 조금 높아졌고, 자녀 진로지도 어려움과 학업성적 걱정이 각각 12.8%p, 11.2%p로 크게 감소하였음.
- 중·고등학생 자녀는 양육비, 교육비용 부담, 자녀 진로지도의 어려움, 자녀 학업성적, 자녀와 대화 어려움은 비율이 조금 낮아졌지만, 생활지도 어려움과 양육, 교육관련 정보 부족은 각각 4.5%p, 1.2%p 높아졌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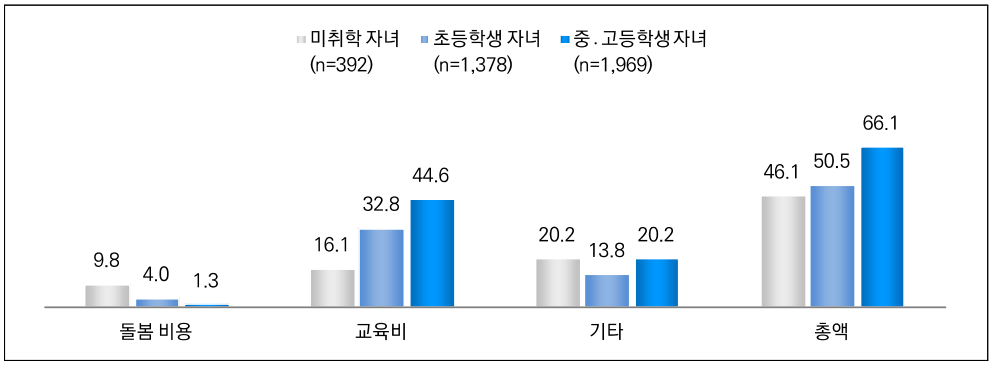
[그림 8] 자녀양육의 어려움



[그림 9] 자녀양육의 어려움(계속)

○ 자녀의 월 평균 양육비 지출은 미취학 자녀 46.1만원, 초등학생 자녀 50.5만원, 중·고등학생 자녀 66.1만원임.

- 항목별 자녀 양육비는 미취학 자녀는 의복, 장난감, 교통비 등 기타 지출액이 20.2만원, 교육비 16.1만원, 돌봄 비용 9.8만원이며, 초등학생 자녀는 교육비 32.8만원, 기타 지출액 13.8만원, 돌봄 비용 4만원, 중·고등학생 자녀는 교육비 44.6만원, 기타 20.2만원, 돌봄 비용 1.3만원으로 나타나 자녀의 학력이 올라갈수록 교육비에 대한 지출액이 매우 커졌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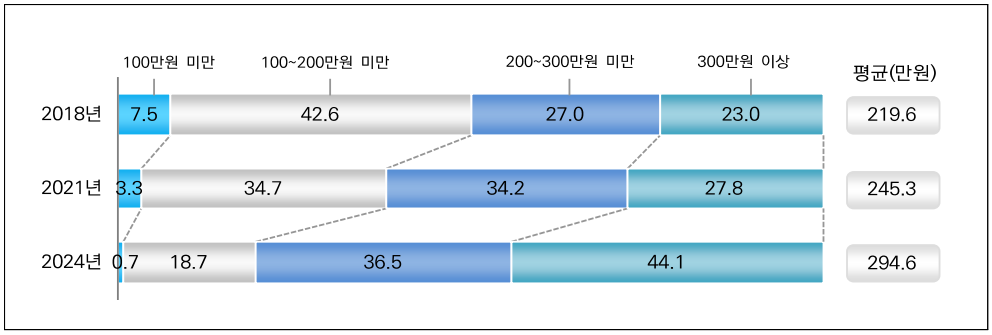
[그림 10] 자녀양육비 항목별 평균 지출 금액

3. 소득 및 지출

○ 지난 1년간 함께 사는 모든 가구원의 월평균 소득(세금, 사회보험료 제외)은 평균 294.6만원임.

- 2021년 조사(245.3만원) 및 2018년 조사(219.6만원)에 비해서는 증가한 수치이나,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계 집계된 처분가능소득(전년도)의 월평균액(488.7만원)과 비교하면 60.3%에 불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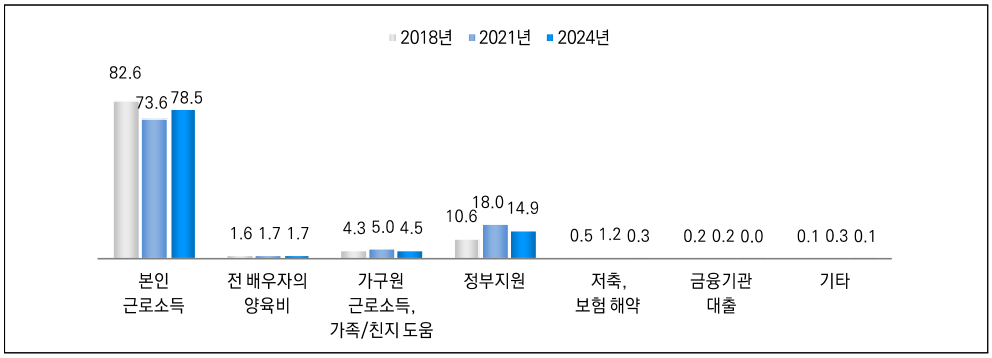
(단위: %, 2018년: n=2,500, 2021년: n=3,300, 2024년: n=3,315)



[그림 11] 가구 월 평균 소득

○ 지난 1년간 가구의 주요한 소득원(1순위)을 파악한 결과, 전체 가구 소득 금액 중 본인 근로소득이 78.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다음은 정부 지원(14.9%), 같이 사는 타 가구원 근로소득(4.5%), 전 배우자의 양육비(1.7%) 순으로 높게 나타남.

(단위: %, 2018년: n=2,500, 2021년: n=3,300, 2024년: n=3,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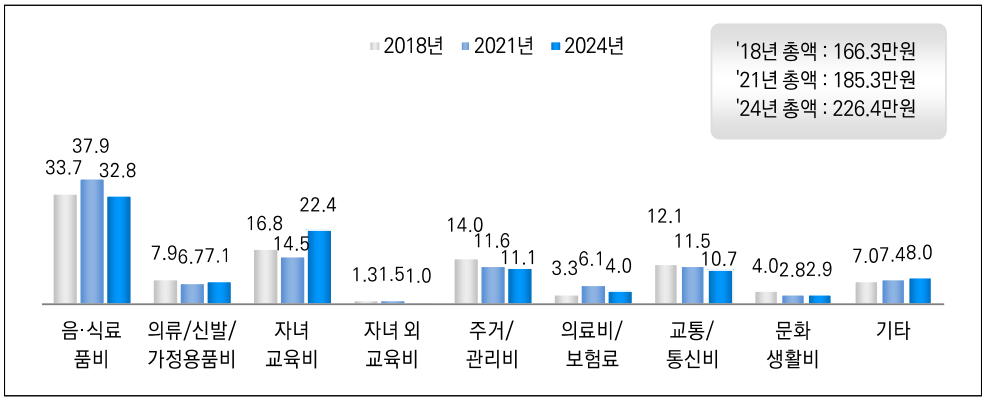


[그림 12] 가구 주 소득(1순위)

○ 한부모가구의 월평균 지출은 226.4만원으로 조사되었고, 월평균 소득대비 76.8%에 달함.

- 음·식료품비에 전체 지출 중 32.8%를 할애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자녀 교육비에 22.4%, 주거/관리비에 11.1%, 교통/통신비에 10.7% 순으로 지출 비중이 큼.
- 지난 2021년 조사와 비교해보면, 가구 월평균 지출액은 2018년에 166.3만원, 2021년에 185.3만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

(단위: %, 2018년: n=2,500, 2021년: n=3,300, 2024년: n=3,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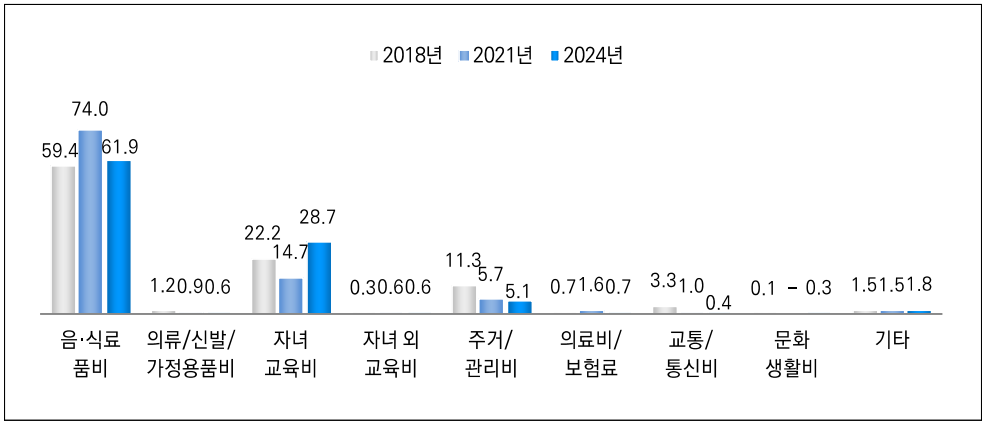


[그림 13] 가구 월 평균 지출

○ 지난 1년 동안 가구의 소비지출 항목 가운데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을 1순위로 지목한 결과를 살펴보면, 음·식료품비가 61.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뒤이어 자녀 교육비(28.7%), 주거관리비(5.1%) 순으로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높았음.
- 음·식료품비가 가장 부담이 된다는 응답은 2018년에 59.4%, 2021년에 74.0%에 달해 지난 조사대비 감소하는 추세

(단위: %, 2018년: n=2,500, 2021년: n=3,300, 2024년: n=3,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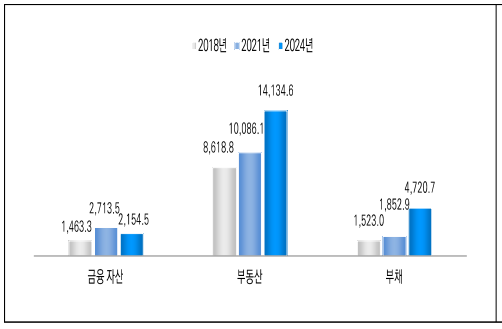


[그림 14] 부담이 되는 지출 항목(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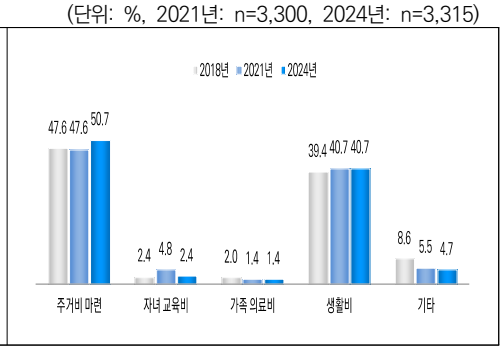
○ 한부모 가구의 자산 및 부채규모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2,154만원의 금융자산, 14,134만원의 부동산, 4,720만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난 조사와 비교해보면, 금융자산은 감소한 반면 부동산과 부채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음.
- 빚을 지게된 주요한 이유가 주거비 마련(50.7%)으로 조사되어, 금융자산의 감소와 부동산액 및 부채의 증가는 주거비 마련과 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음.

(단위: %, 2021년: n=3,300, 2024년: n=3,315)



[그림 15] 자산 및 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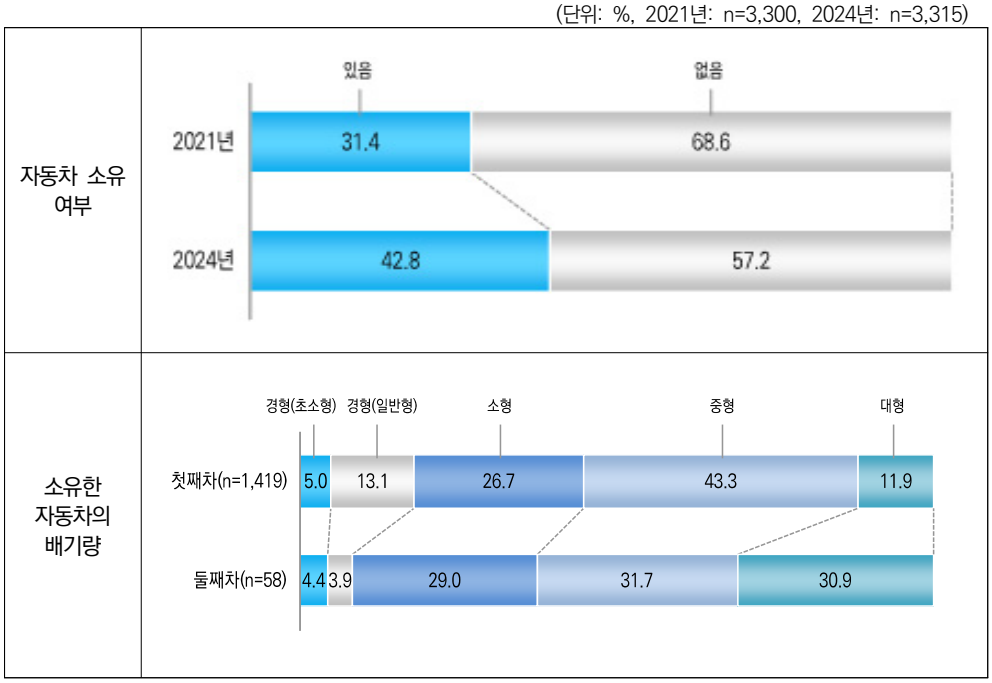


[그림 16] 빚을 지게된 이유

○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42.8%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동차를 소유한 응답자에게 자동차(첫째차 기준)의 주요한 용도를 질문한 결과, 가계용이 95.0%, 생업용이 5.0%로 조사됨.
- 소유한 자동차(첫째차 기준)의 차종은 승용차가 73.7%로 대부분을 차지. 배기량은 중형(43.3%), 소형(26.7%)순으로 많았음. 연식은 5-10년 미만이 39.6%, 3-5년 미만이 27.9%로 뒤를 이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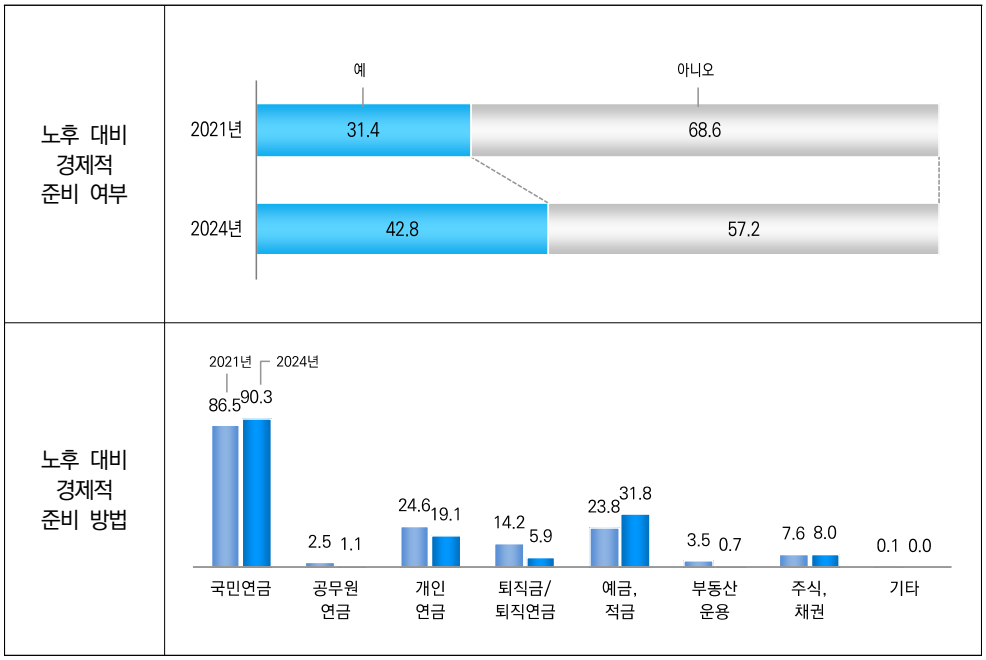
(단위: %, 2021년: n=3,300, 2024년: n=3,315)



[그림 17] 자동차 소유 여부 및 소유한 자동차의 배기량

○ 노후를 위한 경제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응답이 42.8%로 절반에 약간 못미침.
-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에게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추가로 질문(복수응답)한 결과, 국민연금을 통해 준비한다는 응답이 90.3%로 대다수를 차지함. 그 다음으로는 예금, 적금(31.8%), 개인연금(19.1%) 순으로 높게 나타남.

(단위: %, 2021년: n=1,035, 2024년: n=3,315)



[그림 18] 노후 대비 경제적 준비 여부 및 노후 대비 경제적 준비 방법(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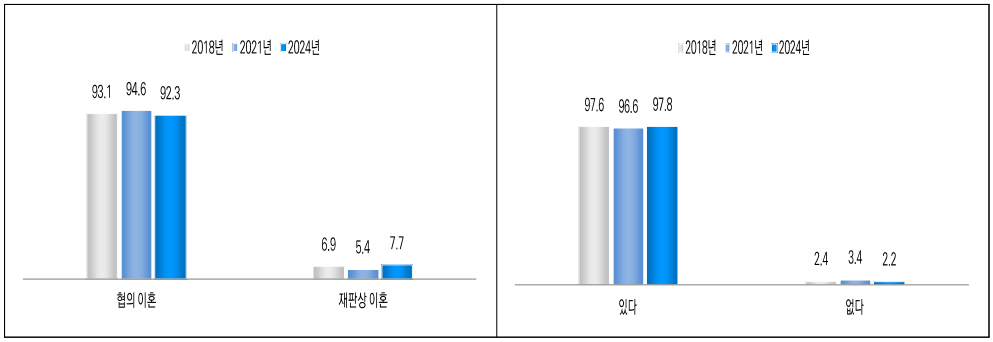
4. 자녀의 비양육부모와의 관계 및 양육비

○ 이혼한 한부모(2,793명)를 대상으로 이혼 형태 및 양육권 여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이혼 형태는 협의 이혼을 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92.3%로 대다수를 차지함.

- 협의 이혼을 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8년 93.1%, 2021년 94.6%, 2024년 92.3%로 연도별 조사에서 10명 중 9명 이상은 협의 이혼을 한 것으로 집계됨.

○ 자녀에 대해 법적으로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는 비율은 97.8%였음.

(단위: %, 2018년: n=1,939, 2021년: n=2,692, 2024년: n=2,793)



[그림 19] 이혼한 한부모의 이혼 형태 및 양육권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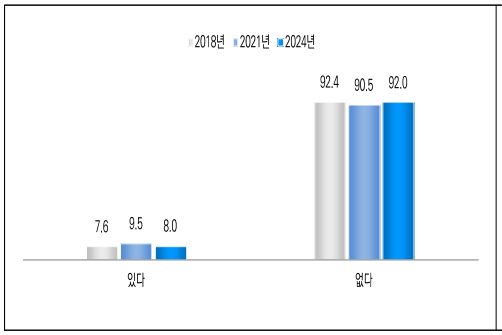
○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0%임.

- 이는 2018년 조사(7.6%)에 비해 0.4%p 높고, 2021년 조사(9.5%)에 비해서는 1.5%p 낮은 수준임.

○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경험이 없거나 소송결과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법적으로 양육비 이행확보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7.9%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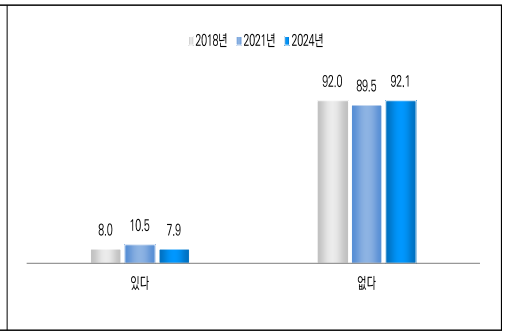
- 이는 2018년(8.0%) 및 2021년(10.5%) 조사결과에 비해 약간 낮은 수치임.

(단위: %, '18년: n=2,039, '21년: n=2,848, '24년: n=2,951)



[그림 20]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경험

(단위: %, '18년: n=1,772, '21년: n=2,449, '24년: n=2,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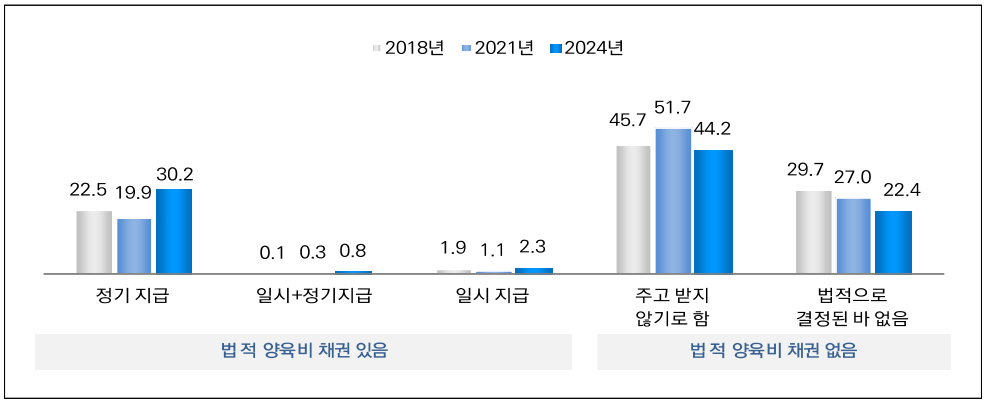


[그림 21] 양육비 이행확보절차 진행 경험

○ 자녀양육비 지급방식을 살펴보면 주고 받지 않기로 함 44.2%, 정기지급 30.2%, 법적으로 결정된 바 없음 22.4%, 일시지급 2.3%, 일시+정기지급 0.8%의 순으로 집계됨.

- 법적 양육비 채권이 있다는 응답자들(33.3%)의 경우, 정기지급이 30.2%, 일시지급이 2.3%, 두 가지가 모두 있는 경우가 0.8%였음.
- 정기지급을 받기로 하였다는 응답은 2018년 22.5%에서 2021년 19.9%로 하락하였다가 2024년 조사에서는 30.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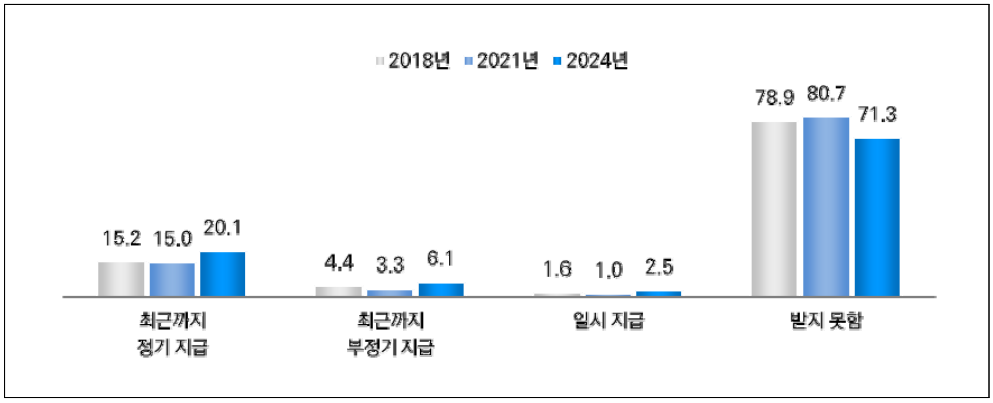
(단위: %, 2018년: n=2,039, 2021년: n=2,848, 2024년: n=2,951)



[그림 22] 법적 양육비 채권 여부 및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한 형태

○ 양육비를 실제로 받은 형태를 살펴보면 전체 미혼·이혼 한부모 10명 중 7명 이상(71.3%)은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함.
- 받지 못함의 비율은 2018년(78.9% *한 번도 받은 적 없음 73.1% + 최근 1년 받지 못함 5.7%) 및 2021년(80.7% *한 번도 받은 적 없음 72.1% + 최근 1년 받지 못함 8.6%)에 비해 각각 7.6%p와 9.4%p 감소
- 양육비를 지급받았다고 한 이들의 응답을 살펴보면 정기지급(20.1%), 부정기지급(6.1%), 일시지급(2.5%)의 순으로 집계됨.
- 양육비 실제 지급 형태는 2018년 및 2021년에 조사한 결과와 전반적으로 유사한 양상을 보인 가운데 정기지급, 부정기지급, 일시지급 모두 약간씩 증가했음을 알 수 있음.

(단위: %, 2018년: n=2,039, 2021년: n=2,848, 2024년: n=2,9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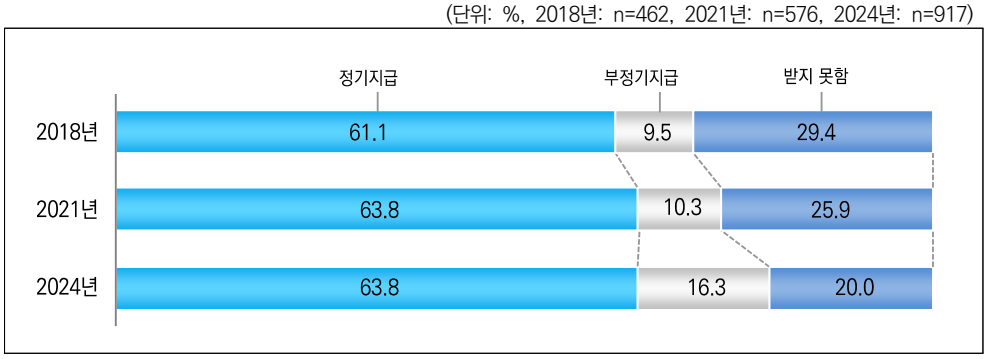
주: 이혼·미혼 한부모 대상

[그림 23] 실제로 양육비를 지급받은 형태

○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정기지급을 받기로 한 이혼·미혼 한부모(n=917) 중에서 63.8%가 정기적으로 받았다고 응답함.

- 이는 2018년(61.1%) 및 2021년(63.8%) 조사결과와 비슷한 수준임.

(단위: %, 2018년: n=462, 2021년: n=576, 2024년: n=9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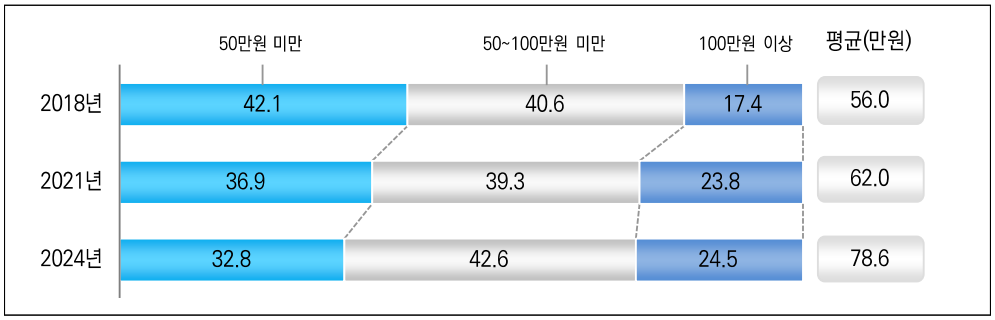


주: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이 있는 사람 대비 비율, '정기지급'은 일시+정기지급 포함

[그림 24] 실제로 지급받은 양육비: 정기·부정기지급 받은 비율

- 양육비지급액은 2018년 조사(56.0만원) 및 2021년 조사(62.0만원)에서의 평균액에 비해 높은 78.6만원 수준으로 나타남.

(단위: %, 2018년: n=326, 2021년: n=418, 2024년: n=7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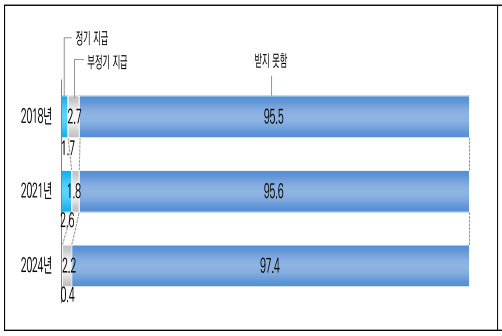
주: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이 있는 사람 중 양육비 정기·부정기지급을 실제로 받은 사람 대비 비율

[그림 25] 실제로 지급받은 양육비: 정기·부정기지급액(월평균)

○ 한편 양육비 채권이 없는 한부모가 실제로 받은 정기·부정기 양육비를 조사한 결과, 평균 27.1만원을 받는 것으로 집계됨.

- 이는 2018년(39.3만원) 및 2021년(52.5만원)에 비해 낮은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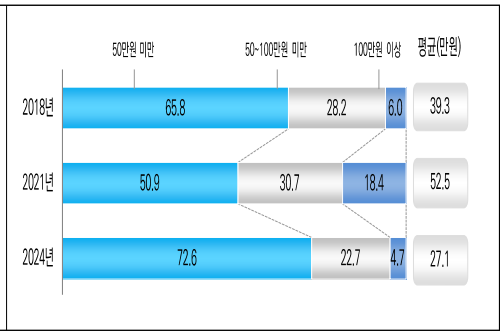
(단위: %, '18년: n=1,538, '21년: n=2,241, '18년: n=1,966)



주: 양육비 채권이 없는 사람 대비 비율, '정기지급'은 일시+정기지급 포함

[그림 26] 실제로 지급받은 양육비(무채권): 정기·부정기지급 받은 비율

(단위: %, '18년: n=69, '21년: n=96, '24년: n=41)



주: 양육비 채권이 없는 사람 중 양육비 정기·부정기지급을 실제로 받은 사람 대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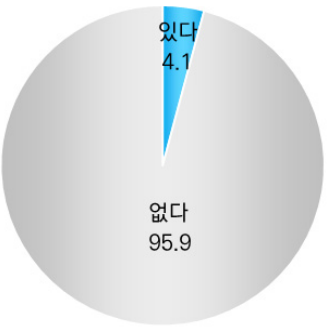
[그림 27] 실제로 지급받은 양육비(무채권) - 정기·부정기지급액(월평균)

○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 이용 경험을 살펴보면 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4.1%, 없다는 비율이 95.9%로 대부분 이용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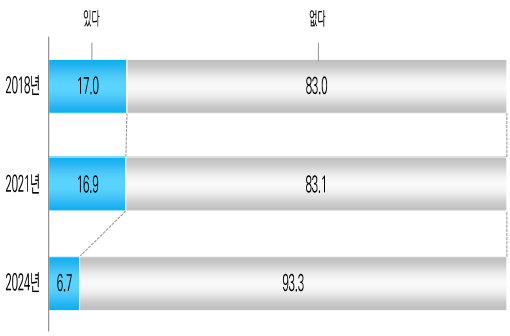
- 양육비이행관리원 이용경험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앞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제공

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를 조사한 결과 6.7%가 있다, 93.3%가 없다고 응답함.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8년(17.0%) 및 2021년(16.9%)에 비하여 10%p 이상 낮은 수치를 나타냄.

(단위: %, n=2,951)



(단위: %, '18년: n=2,039, '21년: n=2,848, '24년: n=2,8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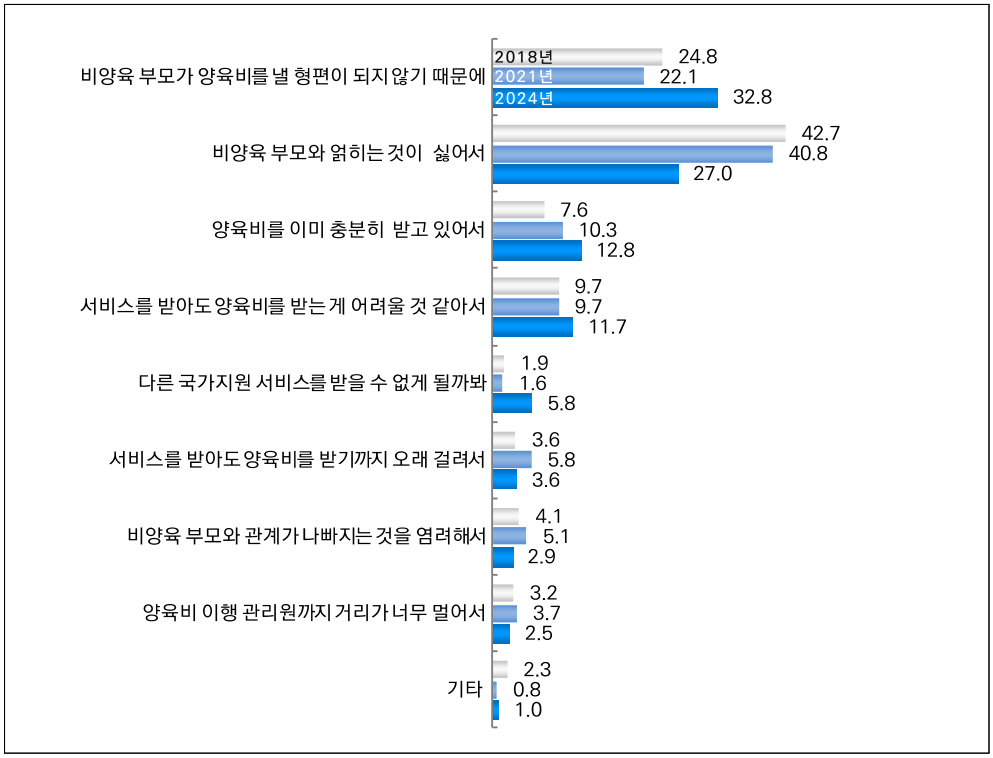


[그림 28] 양육비이행관리원 이용 경험 [그림 29]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 이용 의사

○ 양육비이행관리원 이용경험과 이용할 의사가 없다고 한 이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양육비를 낼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32.8%), 비양육부모와 얽히는 것이 싫어서(27.0%), 양육비를 이미 충분히 받고 있어서(12.8%), 서비스를 받아도 양육비를 받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11.7%)의 순으로 나타남.

-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 이용 의사를 저해하는 요인들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됨.

(단위: %, 2018년: n=1,693, 2021년: n=2,367, 2024년: n=2,6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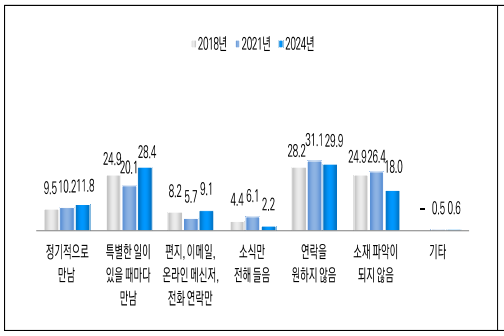


[그림 30]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려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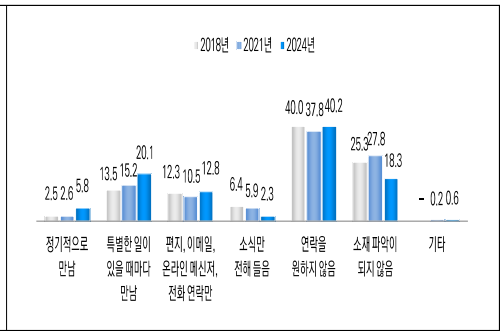
○ 자녀와 비양육부모와의 교류 정도를 보면 절반가량의 한부모가족이 비양육부모와 연락을 원하지 않거나(29.9%)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18.0%) 교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자녀와 비양육부모가 정기적으로 만난다는 비율은 11.2%에 그침.
- 응답별 비율을 살펴보면 '연락을 원하지 않아서 연락하지 않는다(29.9%)'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만나고 있음(28.0%)',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전혀 연락이 닿지 않음(18.0%)',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11.8%)', '편지, 이메일, 온라인 메신저, 전화 연락만 하고 있음(9.1%)', '양가 친척 등을 통해 소식만 전해 들음(2.2%)'이라는 응답 순으로 집계됨.

○ 한부모와 전 배우자와의 교류정도 또한 '연락을 원하지 않아서 연락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40.2%),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만나고 있음(20.1%)',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전혀 연락이 닿지 않음(18.3%)' 등의 순으로 집계됨.
- 한부모와 비양육부모가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는 비율은 5.8%였음.

(단위: %, '18년: n=2,039, '21년: n=2,848, '24년: n=2,951)



(단위: %, '18년: n=2,039, '21년: n=2,848, '24년: n=2,9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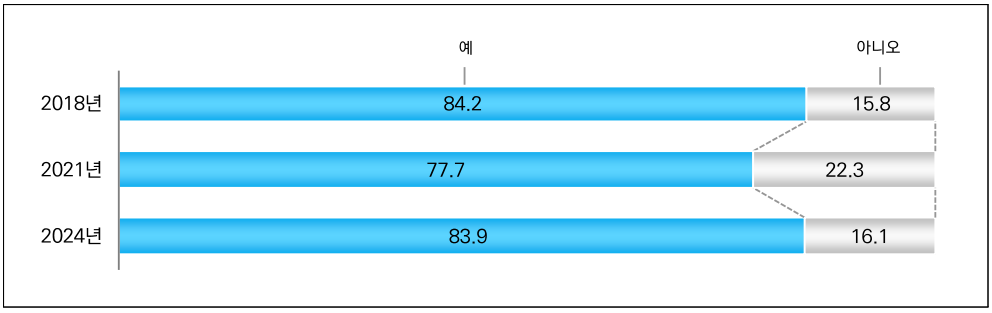
[그림 31] 자녀와 비양육부모와의 교류 정도 [그림 32] 한부모와 전 배우자와 교류 정도

5. 경제활동

○ 조사 당시 취업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한부모들은 83.9%로 한부모 10명 중 8명 이상은 취업상태 있는 것으로 집계됨.

- 이는 「2023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의 15~64세 인구의 고용률(69.2%)이나 30~39세(78.9%), 40~49세(78.6%)의 고용률에 비해 높은 수준인데 단순히 고용률만 놓고 보았을 때 한부모 가운데 취업자 비율 자체는 높은 편이라 할 수 있음.
- 2024년 조사결과(83.9%)는 2018년 조사(84.2%)에 비해서는 0.3%p 낮지만 2021년 조사(77.7%)에 비해서는 6.2%p 높은 수치인데 코로나19가 2019년 말부터 전세계를 휩쓸었음을 염두에 둔다면 2021년 조사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상당했을 것이며, 2024년 조사에서는 그 이전과 유사한 양상으로 회귀한 것으로 판단됨.

(단위: %, 2018년: n=2,500, 2021년: n=3,300, 2024년: n=3,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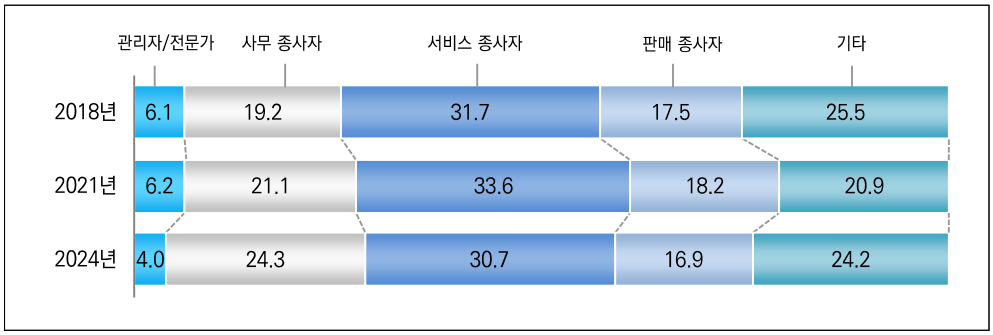


[그림 33] 취업 여부

○ 취업 중이라고 응답한 한부모의 직종 분포를 살펴보면 서비스 종사자(30.7%)가 가장 많았고, 사무종사자(24.3%), 판매 종사자(18.6%), 관리자/전문가(4.0%) 순으로 집계됨.

- 2018년과 2021년 조사결과와 비교했을 때 취업 중인 한부모들의 직종 구성에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음.

(단위: %, 2018년: n=2,106, 2021년: n=2,565, 2024년: n=2,7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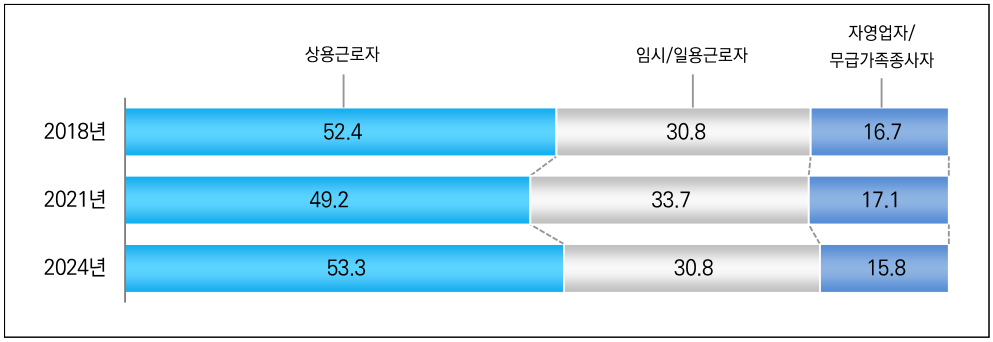


[그림 34] 한부모가 하는 일(직종)

○ 근로 중인 이들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절반을 약간 웃도는 53.3%가 상용근로자였고, 임시/일용근로자는 30.7%였으며,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는 15.8%를 차지함.

- 2018년 및 2021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상용근로자의 비율(53.3%)이 2018년(52.4%)에 비해서는 0.9%p, 2021년(49.2%)에 비해서는 4.1%p 높아진 것으로 나타냄. 임시/일용근로자의 비율(30.8%)은 2018년과는 동일한 수준이었고, 2021년(33.7%)에 비해서는 2.9%p 낮은 것으로 집계됨.
- 「2023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서는 전체 취업자의 56.9%(16,170천명)는 상용근로자였으며, 19.9%(5,659천명)는 임시/일용근로자였음.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는 23.2%(6,588천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두 조사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취업 중인 한부모의 경우 상용근로자(53.3%와 56.9%)와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23.2%와 15.8%)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고, 임시/일용근로자의 비율(19.9%와 30.8%)이 10%p 이상 높음을 확인할 수 있어 취업 중인 한부모의 경우 불안정한 고용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판단됨.

(단위: %, 2018년: n=2,106, 2021년: n=2,565, 2024년: n=2,7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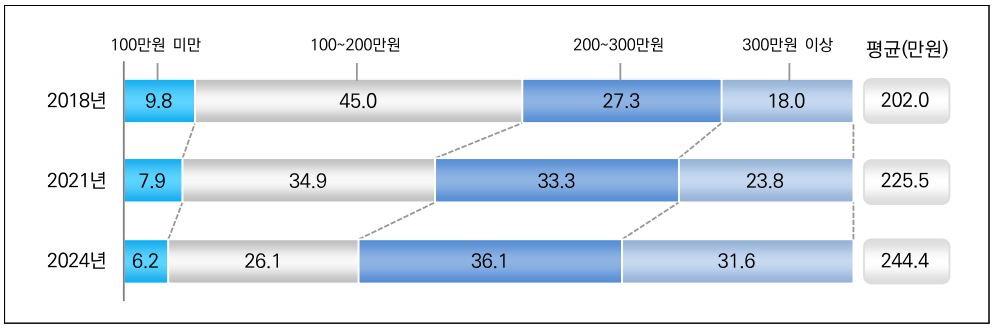


[그림 35] 종사상 지위

○ 취업한 한부모들의 평균 근로·사업소득은 244.4만원이었음. 이는 2018년과 2021년 조사에서의 평균 근로·사업소득(각각 202.0만원과 225.5만원)과 비교할 때 단순 평균 금액은 높아졌음을 알 수 있음.

- 취업한 한부모들의 근로·사업소득을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에 속한 비율은 6.2%, 100~200만원 미만에는 26.1%, 200만원~300만원 범주에는 36.1%가 속해 있었으며, 월평균 근로·사업소득이 300만원 이상이라고 한 취업자는 31.6%를 차지함.

(단위: %, 2018년: n=2,106, 2021년: n=2,565, 2024년: n=2,781)



[그림 36] 월평균 근로·사업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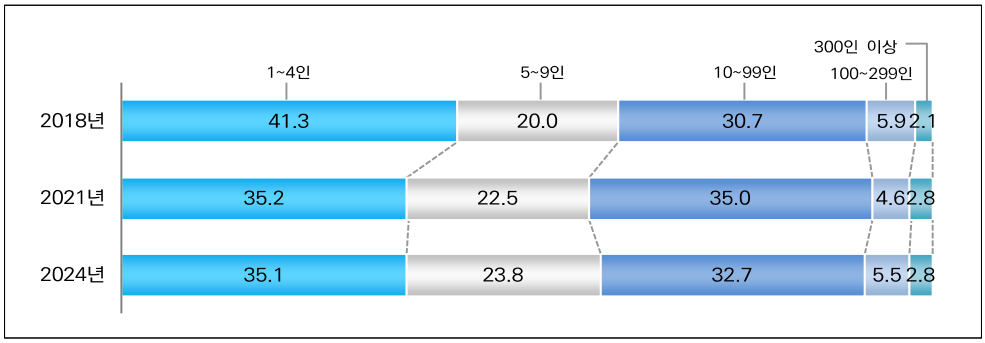
○ 사업장 규모별로는 응답자의 35.1%가 종사자 수 1~4인 규모의 직장을 다니고 있는 등 대다수가 소규모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었음.

- 10~99인 규모에 재직 중인 비율이 32.7%로 뒤를 이었고, 5~9인과 100~299인은

각각 23.8%와 5.5%였고, 300인 이상 대기업에 재직 중인 비율은 2.8%를 차지함.

- 2018년 및 2021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이들의 비율은 감소하였고, 100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비율은 이전의 조사결과에 비해 약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단위: %, 2018년: n=2,106, 2021년: n=2,565, 2024년: n=2,7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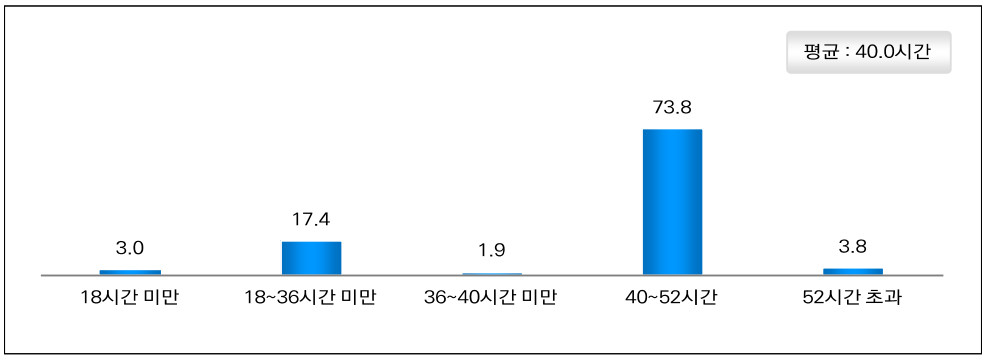


[그림 37] 현재 직장 종사자 수

○ 현재 경제활동 중인 한부모의 주업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살펴본 결과 평균 40.0시간으로 분석됨.

- 취업자 4명 중 3명가량(73.8%)은 50-52시간 범주에, 17.4%는 18~36시간 범주에 속함. 주당 52시간을 넘게 근로를 하고 있는 취업자는 3.8%였고, 3.0%는 18시간 미만 근로를 하고 있음.

(단위: 시간, n=2,7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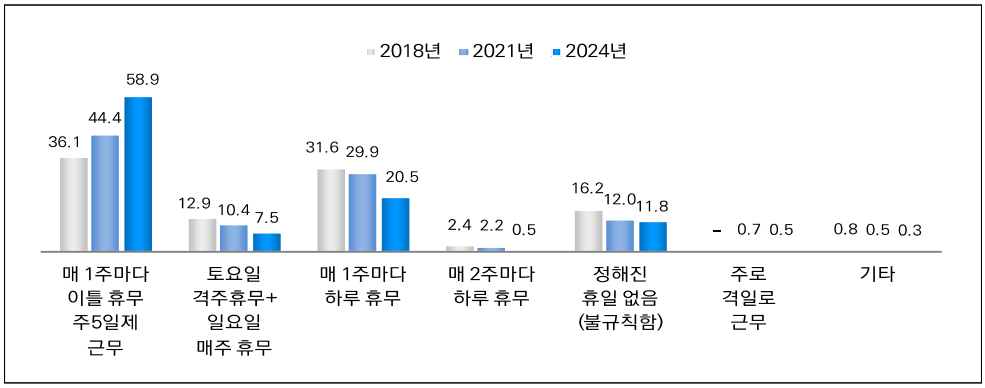


[그림 38] 실근로시간: 주업

○ 근로를 하고 있는 한부모들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쉬는 날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살핀 결과 10명 중 6명가량(58.9%)은 '매 1주마다 이틀 휴무(주5일제 근무)'를 하고 있음.

- 이어 '매 1주마다 하루씩 쉰다(20.5%)', '정해진 휴일이 없음(불규칙함)(11.8%)', '토요일 격주 휴무+일요일 매주 휴무(7.5%)'의 형태의 근로 순으로 나타났으며, 2주마다 하루를 쉰다는 비율과 주로 격일로 근무한다는 비율은 각각 0.5%임.
- 2018년 및 2021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주5일제 근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 조사에서 꾸준히 늘었고, '매 1주마다 하루 휴무', '토요일 격주 휴무+일요일 매주 휴무' 등의 근로형태는 그만큼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단위: %, 2018년: n=2,106, 2021년: n=2,565, 2024년: n=2,7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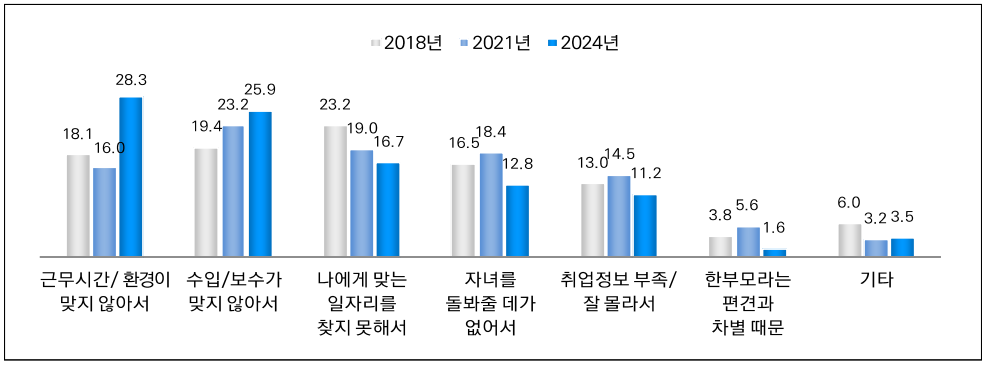


[그림 39] 일주일 중 휴무 일수

○ 한부모들이 현재의 직업을 구할 때 겪었던 어려움으로 '근무시간/환경이 맞지 않아서(28.3%)'와 '수입이나 보수가 맞지 않아서(25.9%)'가 절반 이상을 차지함.

- 이어 '나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16.7%)', '자녀를 돌봐줄 데가 없어서(12.8%)'를 꼽은 비율이 높게 나타남.
- 2018년 및 2021년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가장 많은 이들이 선택한 '근무시간/환경이 맞지 않아서'를 선택한 비율은 이전 조사에 비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수입이나 보수가 맞지 않아서'를 꼽은 비율 또한 증가세를 보임.
- 이는 근무시간/환경 또한 한부모를 위한 일자리 정책발굴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 할 수 있으며, 돌봄서비스의 지속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녀 돌봄이 취업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암시함.

(단위: %, 2018년: n=2,106, 2021년: n=2,565, 2024년: n=2,3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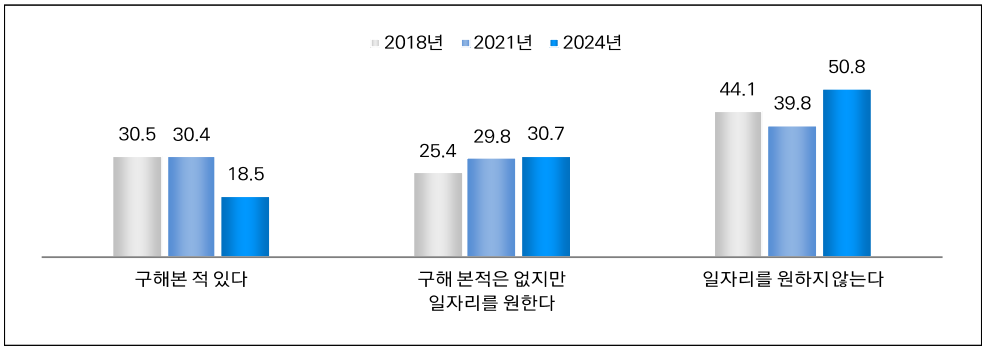
주: 2024년부터는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에게만 질문

[그림 40] 일을 구할 때 느낀 어려움

○ 현재 미취업자인 한부모들의 18.5%가 지난 4주 내에 일자리를 '구해본 적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30.7%는 '구해본 적은 없지만 일자리를 원한다'고 응답하였음. 절반 이상(50.8%)은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가장 높게 나타남.

- 이전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구해본 적 있다'는 비율은 10%p 이상 낮아짐.

(단위: %, 2018년: n=394, 2021년: n=735, 2024년: n=5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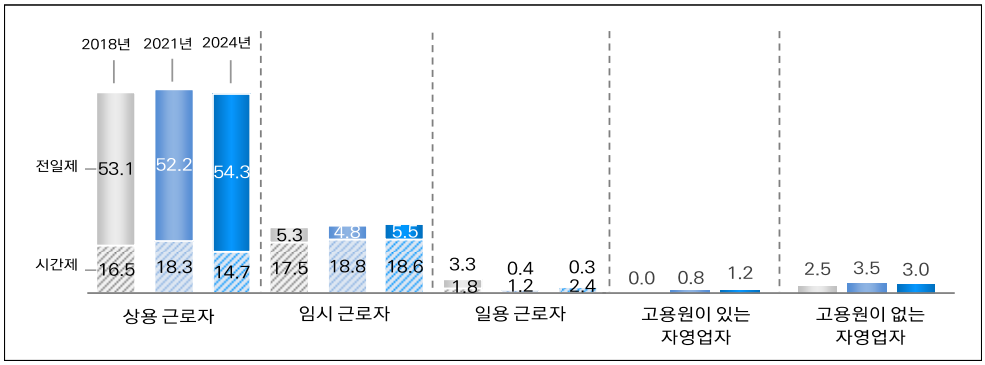


[그림 41] 구직 여부

○ 일자리를 '구해본 적이 있다' 또는 '구해본 적은 없지만 일자리를 원한다'라고 응답한 한부모가 가장 원하는 일자리의 유형을 살펴본 결과 69.0%는 '상용근로자'를 원하고 있었으며 24.1%는 '임시근로자'의 형태로 일하기를 원한다고 응답함.

- 2021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상용근로자를 원하는 비율이 약간 낮아졌고(70.5%→69.0%), 임시근로자를 원하는 비율은 소폭 증가(23.6%→24.1%)하였으나 전반적으로는 크게 주목할 정도의 차이는 아님.

(단위: %, 2018년: n=221, 2021년: n=442, 2024년: n=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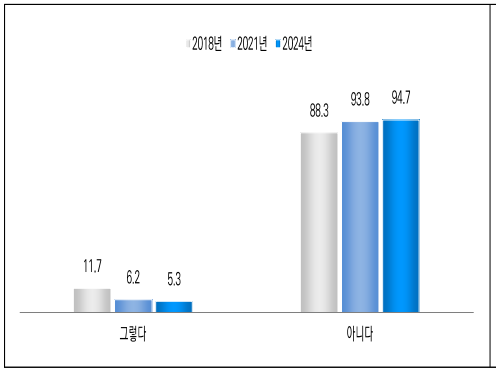


[그림 42] 원하는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

○ 최근 3년 간 취업 혹은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5.3%에 그쳐 대다수의 한부모들이 직업훈련 경험이 없는 것으로 집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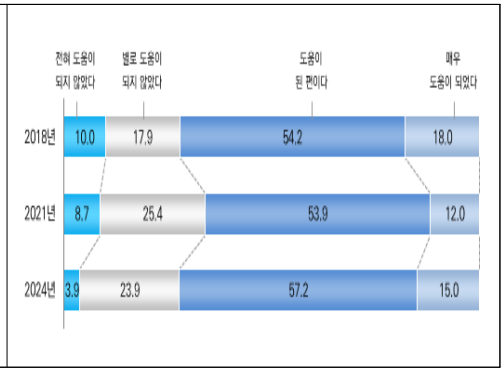
- 직업훈련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72.2%는 교육훈련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함.
- 직업훈련 경험여부는 2018년(11.7%) 및 2021년(6.2%) 조사에 비해 낮은 수치이며, 최근으로 올수록 낮아짐.

(단위: %, '18년: n=2,500, '21년: n=3,300, '24년: n=3,315)



[그림 43] 직업훈련 경험 여부(최근 3년)

(단위: %, '18년: n=293, '21년: n=204, '24년: n=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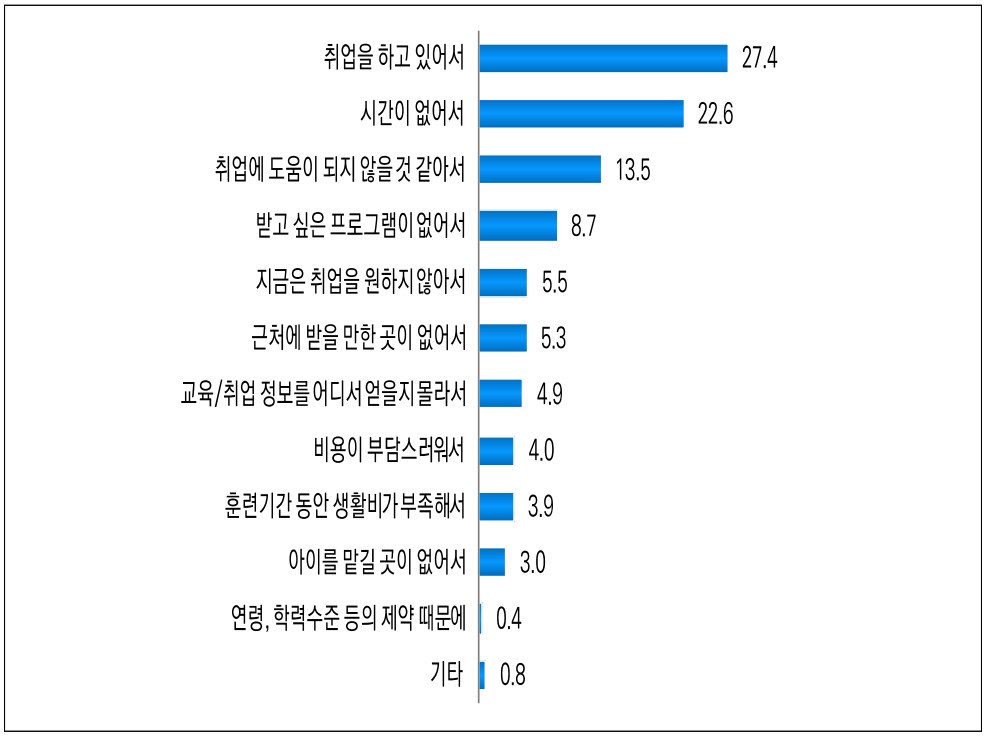


[그림 44] 직업훈련이 취업에 도움이 된 정도

○ 직업훈련 경험이 없는 한부모들이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22.6%)'이였고, 이어서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13.5%)', 받고 싶은 프로그램이 없어서(8.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금은 취업을 원하지 않아서'는 5.5%를, '근처에 훈련을 받을 곳이 없어서'와 '교육이나 취업정보를 어디서 얻어야 할지 잘 몰라서'는 각각 5.3%와 4.9%를 차지하였으며, '비용이 부담스러워서'와 '훈련기간 동안 생활비가 부족해서'와 같은 경제적 문제를 꼽은 비율은 4.0%와 3.9%로 집계됨.

(단위: %, n=3,139)



[그림 45]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

6. 건강 및 주거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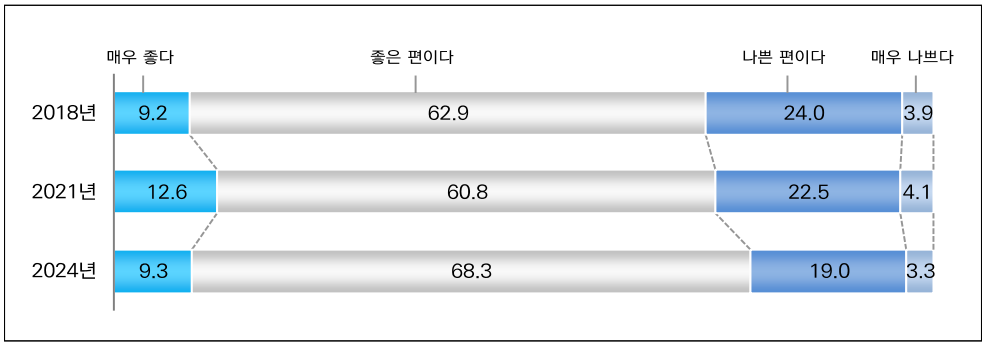
1) 건강상태

○ 한부모의 건강상태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의료서비스 이용현황, 규칙적 운동 수행 여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음.

○ 본인이 지각하는 평소 건강상태의 경우 '좋은 편이다'라는 응답이 68.3%로 가장 많았지만, 자신의 건강상태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나쁜 편이다'(19.0%)라는 응답과 '매우 나쁘다'(3.3%)는 응답이 전체의 1/5에 해당함.

-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와 비교하면 본인의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의 수가 소폭 증가하였음.
- 응답자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비취업 상태이거나 임시·일용직에 근무하는 응답자인 경우 등 경제적 상황이 열악한 한부모가 그렇지 않은 한부모보다 자신의 건강상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남.

(단위: %, 2018년: n=2,500, 2021년: n=3,300, 2024년: n=3,315)



[그림 46] 건강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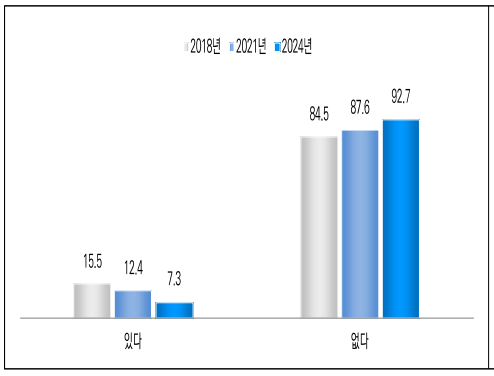
○ 우울증선별도구(PHQ-9)를 활용하여 한부모의 우울장애 유병률을 확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3%가 우울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우울감 경험률(만 19세 이상)이 5.0%로 나타난 「2022년 국민건강통계」 자료 수치와 비교할 때 다소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음.

- 우울감 경험 여부는 50대의 응답자가 다른 연령대 응답자에 비해, 교육수준이 중졸 이하로 낮을수록, 한부모가 비취업인 경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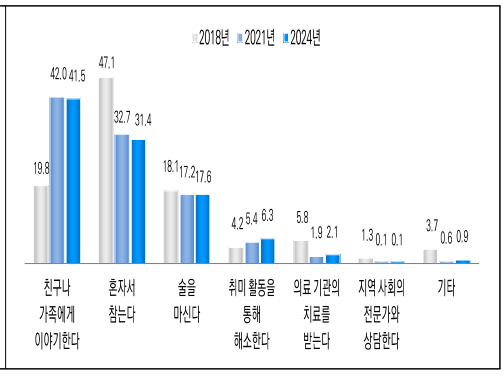
○ 한부모들이 이러한 우울감을 느낄 때 해결하는 주된 방법은 '친구나 가족에게 이야기한다'(41.5%), '혼자서 참는다'(31.4%), '술을 마신다'(17.6%),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사회의 전문가와 상담한다'는 응답은 0.1%로 매우 낮음.

- 우울감 해소방식으로, '친구나 가족에게 이야기한다'는 비율이 2018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지역 사회의 전문가와 상담한다'는 응답은 여전히 매우 적어 전문가 등 외부자원 활용을 통해 우울감을 해소하기 보다는 가족이나 친구, 혹은 혼자 참는 등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울감을 해소하려는 경향을 보임.
- 지난 조사와 비교해보면, 혼자서 참는다는 응답은 2018년에 47.1%로 약 절반 정도를 차지했었던데 반해,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 반면 술을 마신다는 응답은 2018년과 2021년과 비교했을때 거의 변화가 없고,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는다와 지역사회의 전문가와 상담한다는 응답은 2018년과 2021년에는 감소하다가 올해는 비중이 유지되었음.

(단위: %, 2018년: n=386, 2021년: n=3,300, 2024년: n=3,315)



[그림 47] 우울감 경험 여부



[그림 48] 우울감 해소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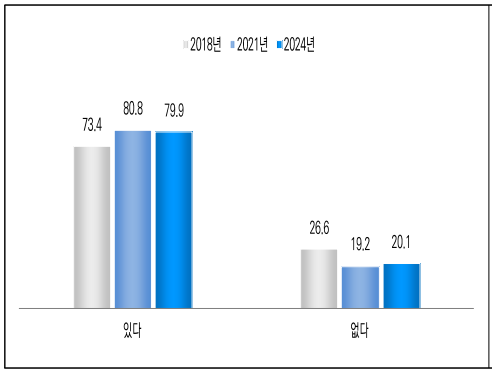
○ 한부모들의 건강검진 수진율은 79.9%로, 2022년 건강검진통계연보에서 제시한 일반 수검율 75.4%에 비하면 비교적 높게 나타남. 2018년의 73.4%에 비교하면, 한부모의 건강검진 경험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건강검진 중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일반 건강검진(62.9%)이 가장 빈도가 높았고, 뒤이어 무료 건강검진이 23.0%, 사업장 특수 건강검진이 8.1%, 본인부담 종합 건강검진이 7.9%로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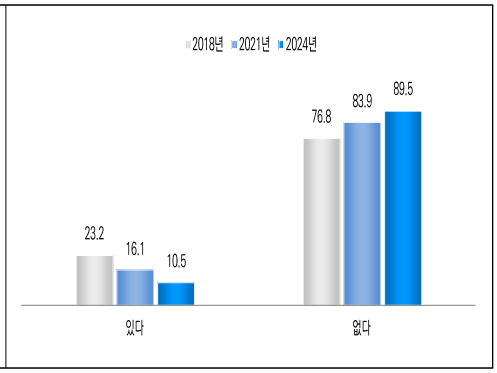
○ 최근 1년간 응답자가 병의원에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한 경우는 10.5%로 조사되었고, 지난 조사와 비교해보면 가지 못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018년에 23.2%, 2021년에 16.1%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임.

- 병의원을 이용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로'(51.9%), '시간이 없어서(원하는 시간에 문을 열지 않아서, 직장 등을 비울 수 없어서,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등)'(44.7%), '병의원 등에 예약하기 힘들어서' (2.7%) 순으로 나타나 한부모 중 상당수가 시간 및 경제적인 이유로 병의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됨.

(단위: %, 2018년: n=2,500, 2021년: n=3,300, 2024년: n=3,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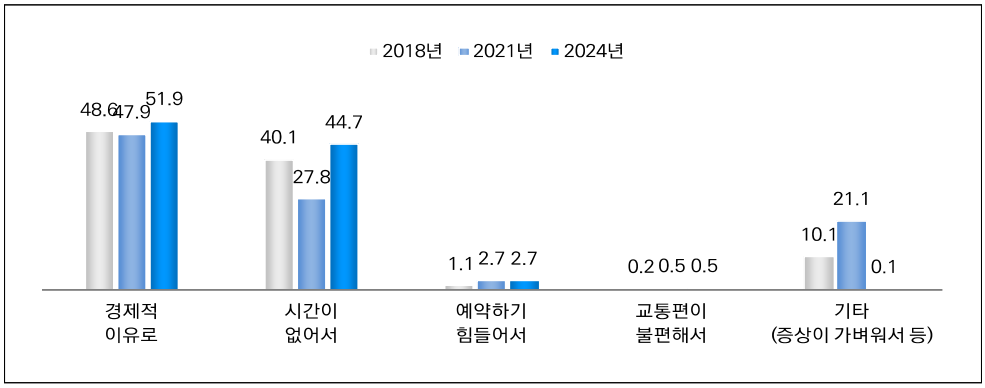


[그림 49] 건강검진 경험(최근 2년)



[그림 50] 병의원에 가지 못한 경험(최근 1년)

(단위: %, 2018년: n=580, 2021년: n=532, 2024년: n=3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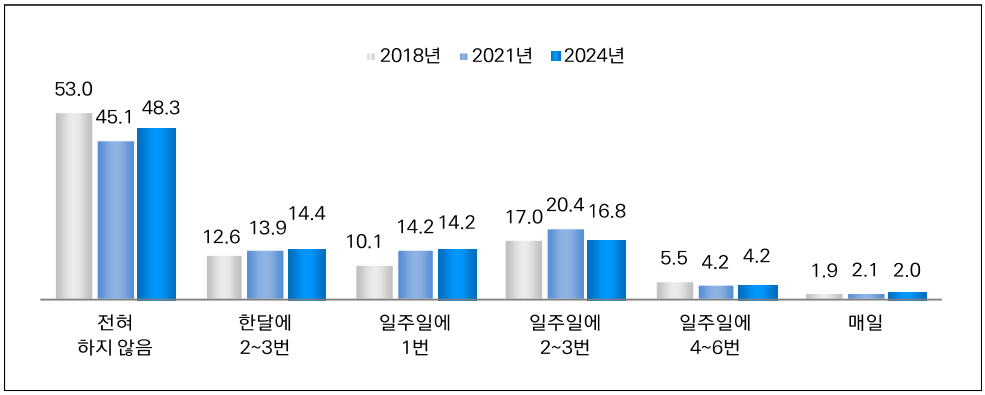


[그림 51] 병의원에 가지 못한 주된 이유

○ 전체 한부모의 48.3%는 현재 규칙적인 운동(예: 걷기, 등산, 헬스 등)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일주일에 1번 이상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의 51.7%인 것으로 조사됨.

- 일주일에 2~3번 한다는 응답이 16.8%, 한달에 2~3번이 14.4%, 일주일에 한번은 14.2% 순으로 집계되었음.

(단위: %, 2018년: n=2,500, 2021년: n=3,300, 2024년: n=3,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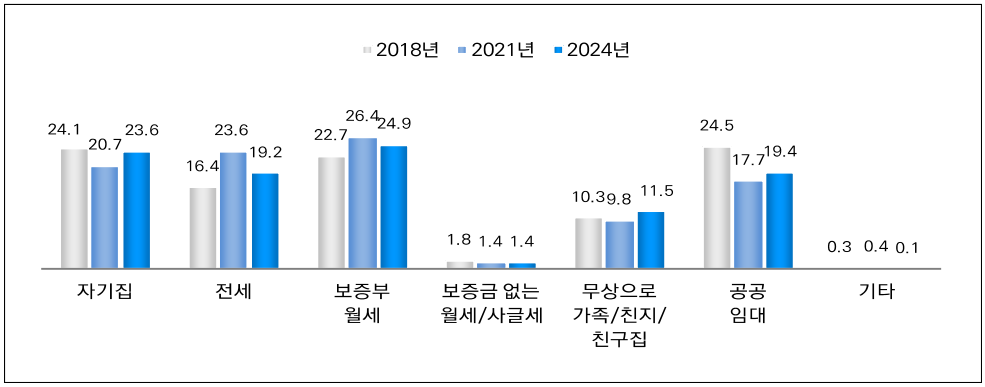
[그림 52] 규칙적인 운동 현황

2) 주거 및 주거환경

○ 현재 거주 중인 집의 형태에 대해 질문한 결과, 보증금 있는 월세로 살고 있다는 비율이 24.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기집(자가)가 23.6%, 공공임대가 19.4%, 전세가 19.2%로 뒤를 이었음.

- 이는 자가 점유율이 57.5%로 나타난 「2022년도 주거실태조사」의 수치와 비교하면, 한부모가구의 자가 마련 수준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주거 안정성이 상당히 낮은 수준임.
- 자가 비율은 2018년에 24.1%, 2021년에 20.7%로 소폭 감소했다가 2024년에 다시 증가해 2018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2018년 대비 전세 비중은 2.8%p 증가했고 월세 비중은 2.2%p 증가한 반면 공공임대는 5.1%p 감소함.

(단위: %, 2018년: n=2,500, 2021년: n=3,300, 2024년: n=3,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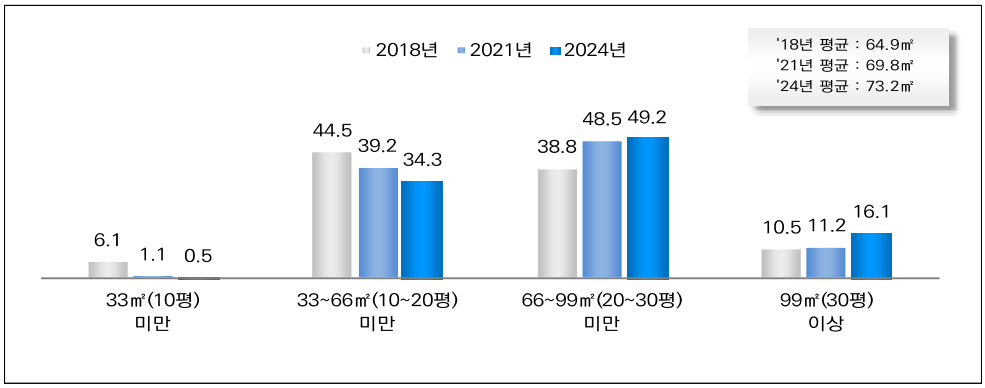


[그림 53] 거주 형태

○ 주택 면적에 대해 조사한 결과, 평균은 73.2㎡으로, 2018년에 64.9㎡, 2021년에 69.8㎡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 구간별로 살펴보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평형은 20~30평에 해당하는 66~99㎡으로 전체의 49.2%에 달했고 뒤이어 10~20평에 해당하는 33~66㎡가 34.3%를 차지함.

(단위: %, 2018년: n=2,500, 2021년: n=3,300, 2024년: n=3,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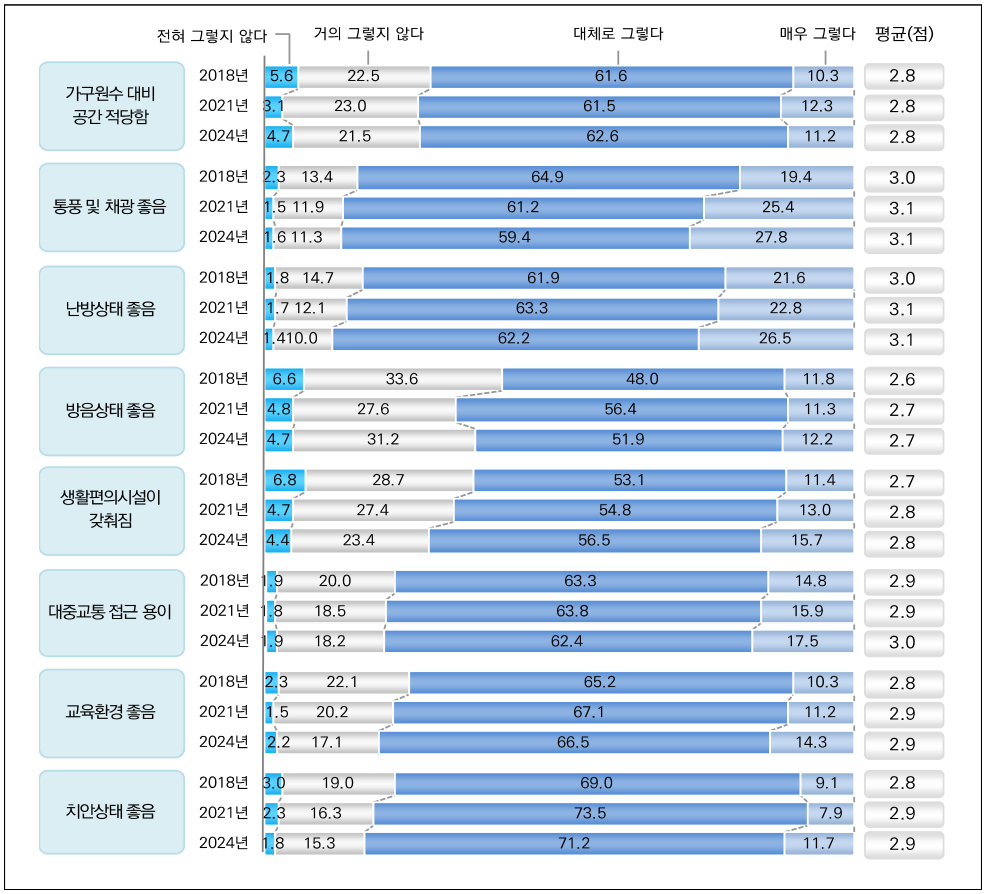


[그림 54] 주택 면적

○ 8개 영역(공간의 적정성, 통풍 및 채광, 난방, 방음, 생활편의시설, 대중교통 접근성, 교육환경, 치안)으로 분류하여 주거환경을 살펴본 결과, '대중교통 접근 용이'는 2021년에

2.9점, 2024년에는 3.0점으로 유일하게 상승한 문항이었고, 나머지 영역은 지난 조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음.

(단위: %, 2018년: n=2,500, 2021년: n=3,300, 2024년: n=3,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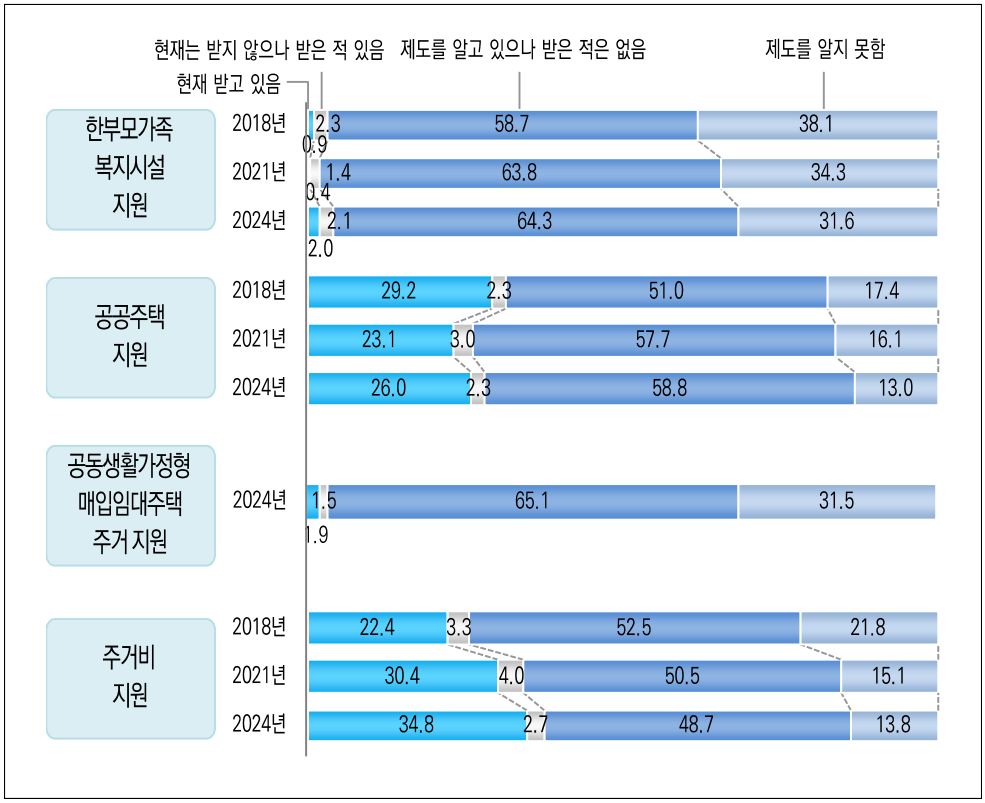


[그림 55] 주거환경

○ 한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정부의 주거지원정책 중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경험에 대해 살펴본 결과, 2024년 기준으로 제도를 알지 못한다는 비중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이 31.6%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이 31.%로 나타났고, '주거비 지원'이 13.8%, 공공주택 지원이 13.0%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지난 조사 대비 제도를 모른다는 비중은 모든 제도에서 감소하는 추세임.

(단위: %, 2018년: n=2,500, 2021년: n=3,300, 2024년: n=3,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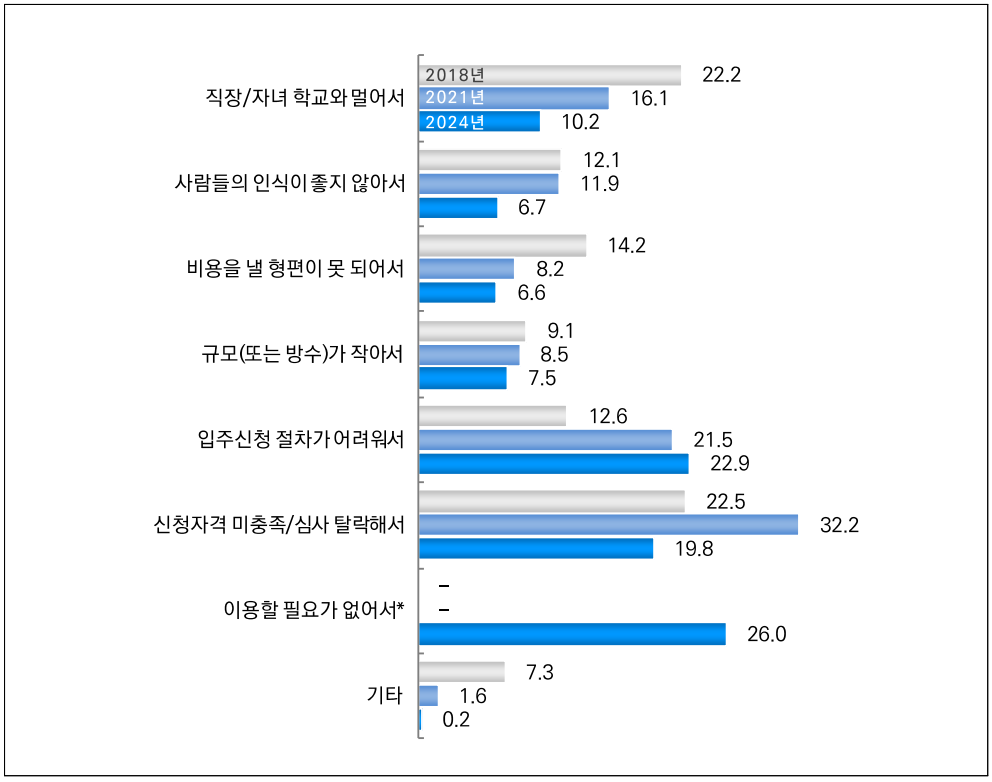


[그림 56]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경험

○ 앞서 공공주택 지원제도를 알고 있으나, 현재 이용하고 있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질문하였음. 그 결과, '자기 집(자가), 전세 등으로 이용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26.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입주신청 절차가 어려워서'가 22.9%,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심사에서 탈락해서'가 19.8%, '직장 또는 자녀들의 학교와 거리가 멀어서'가 10.2%를 차지함.

- 지난조사와 비교해보았을 때, '직장 또는 자녀들의 학교와 거리가 멀어서', '공공임대주택단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좋지 않아서',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 관리비를 낼 형편이 못 되어서'의 응답은 2018년 대비 2024년 조사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 감소함.

(단위: %, 2018년: n=1,334, 2021년: n=2,006, 2024년: n=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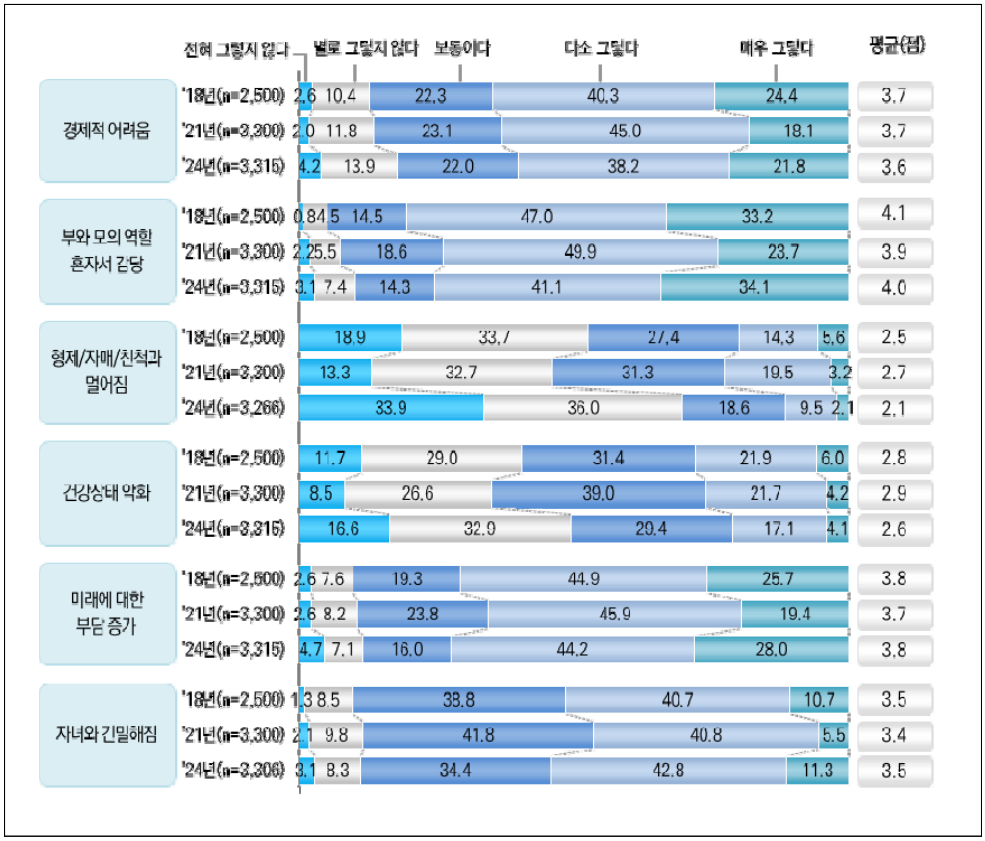
[그림 57] 공공임대주택 등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1순위)

7. 일상생활 및 사회적 지지

○ 한부모가 된 후 달라진 점을 경제적 어려움, 부와 모의 역할 혼자서 감당, 형제/자매/친척과 멀어짐, 건강상태 악화, 미래에 대한 부담 증가, 자녀와 긴밀해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음.

- 6개 항목의 평균을 비교해보면, '부와 모의 역할을 혼자서 감당'(4.0점), '미래에 대한 부담 증가'(3.8점), '경제적 어려움'(3.6점). '자녀와 긴밀해짐'(3.5점) 순으로 평균이 높게 나타나 홀로 자녀 돌봄과 경제적 부담 등을 동시에 감당해내야 하는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21년 조사와 비교할 때, '경제적 어려움', '부와 모의 역할을 혼자서 감당', '미래에 대한 부담 증가', '자녀와 긴밀해짐' 등에 대한 어려움의 체감에 변화가 거의 없어 한부모가족의 가족생계와 돌봄의 이중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단위: %, 2018년: n=2,500, 2021년: n=3,300, 2024년: n=3,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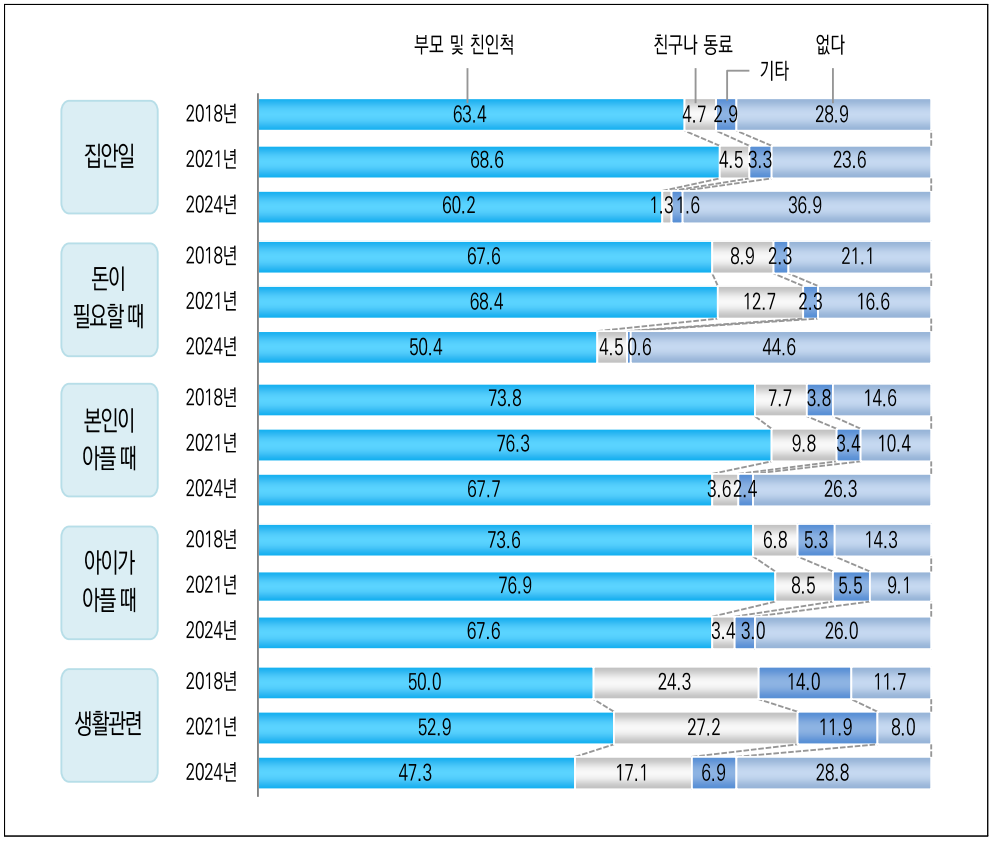


[그림 58] 한부모가 된 후 달라진 점

○ 사회적 지지망과 관련해서는 집안일 관련(60.2%), 돈이 필요할 때(50.4%), 본인이 아플 때(67.7%), 아이가 아플 때(67.6%), 생활 관련(47.3%) '부모 및 친인척'으로부터 도움을 구하는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았음.

-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기관이나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항목별로 20~40%대로 이전 조사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사회적 지지망이 부재한 한부모가족이 상당히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집안일 관련해서는 36.9%, 돈이 필요할 때에는 44.6%, 본인이 아플 때에는 26.3%, 아이가 아플 때에는 26.0%, 생활관련은 28.8%로, 돈이 필요할 때와 집안일 관련해서 도움을 구할 곳이 없는 경우가 가장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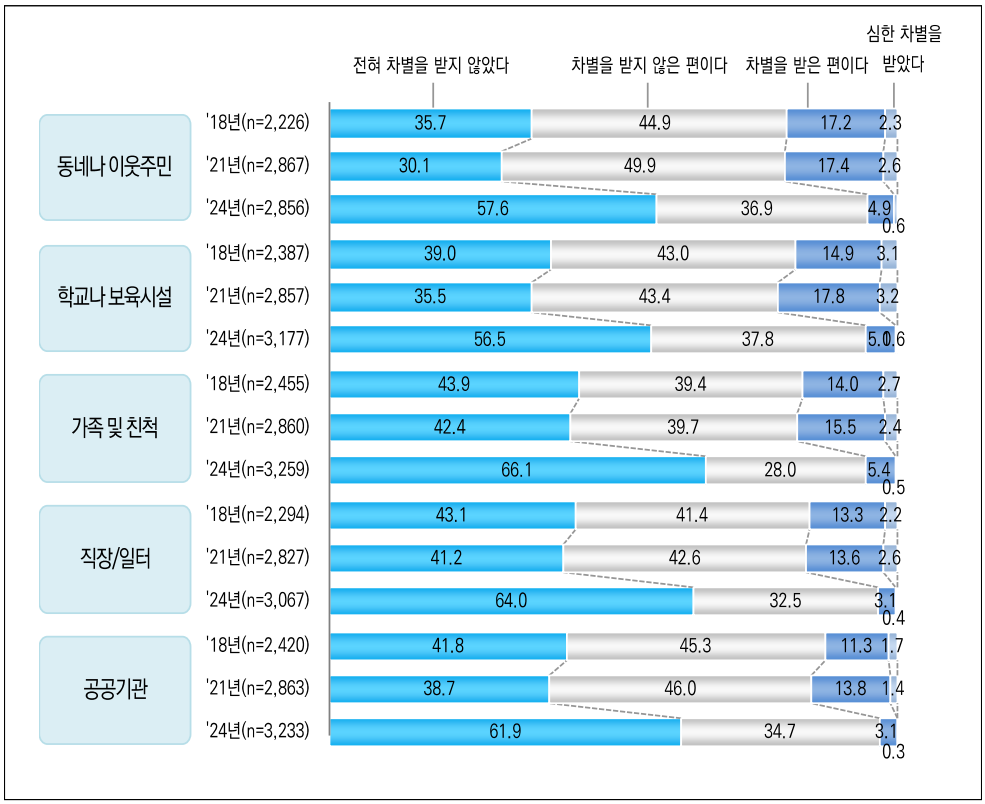
(단위: %, 2018년: n=2,500, 2021년: n=3,300, 2024년: n=3,315)



[그림 59] 도움을 구할 사람/기관(1순위)

○ 한부모 본인과 자녀의 차별 경험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한부모 본인이 차별을 받지 않았다(전혀 차별을 받지 않았다+차별을 받지 않은 편이다)고 응답한 비율은 5개 항목 모두에서 90% 이상이며, 이전 년도 조사결과(2018년 및 2021년)와 비교할 때 크게 증가해 한부모로서 겪을 수 있는 사회적인 차별 분위기가 완화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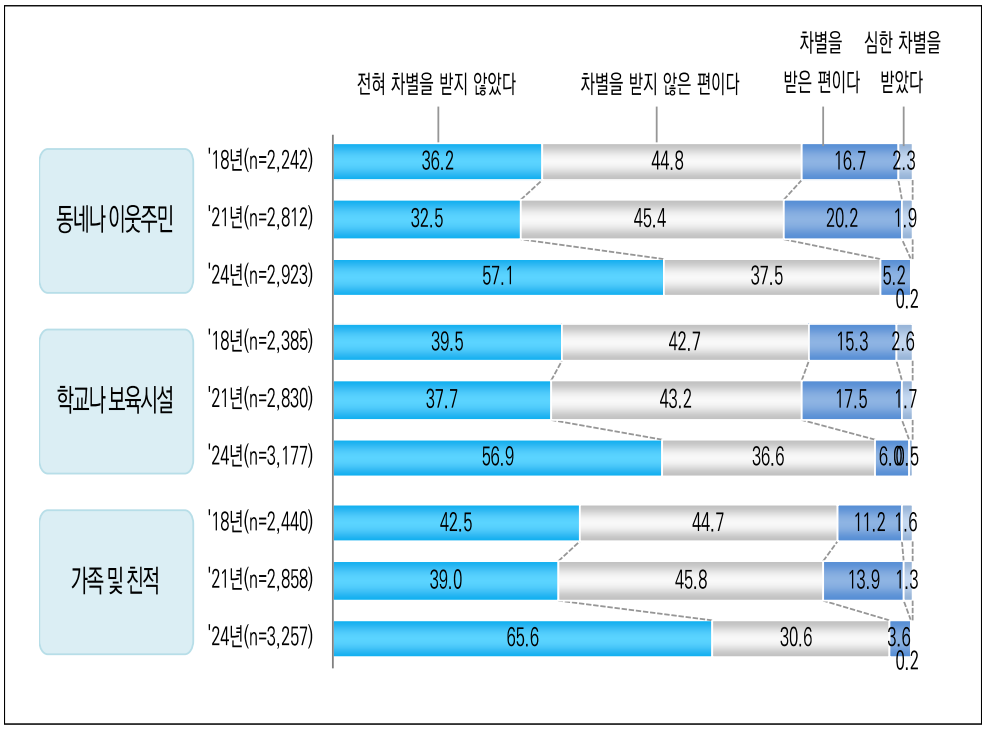
- 반면, 5개 생활영역에서 본인이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동네나 이웃주민으로부터 차별('21년 20.0% → '24년 5.5%), 학교나 보육시설에서 차별('21년 21.1% → '24년 5.7%), 가족 및 친척으로부터 차별('21년 17.9% → '24년 5.9%), 직장/일터에서 차별('21년 16.2% → '24년 3.5%), 공공기관에서 차별('21년 15.2% → 3.4%), 모든 항목에서 감소함.



[그림 60] 부당한 일, 차별 경험(본인)

○ 한부모 자녀의 경우도 차별을 받지 않았다(전혀 차별을 받지 않았다+차별을 받지 않은 편이다)고 응답한 비율은 3개 항목 모두에서 90% 이상으로, 이전 년도 조사결과(2018년 및 2021년)와 비교할 때 크게 증가함.

- 반면, 3개 생활영역에서 자녀가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동네나 이웃주민으로부터 차별('21년 22.1% → '24년 5.4%), 학교나 보육시설에서 차별('21년 19.2% → '24년 6.5%), 가족 및 친척으로부터 차별('21년 15.2% → '24년 3.8%), 모든 항목에서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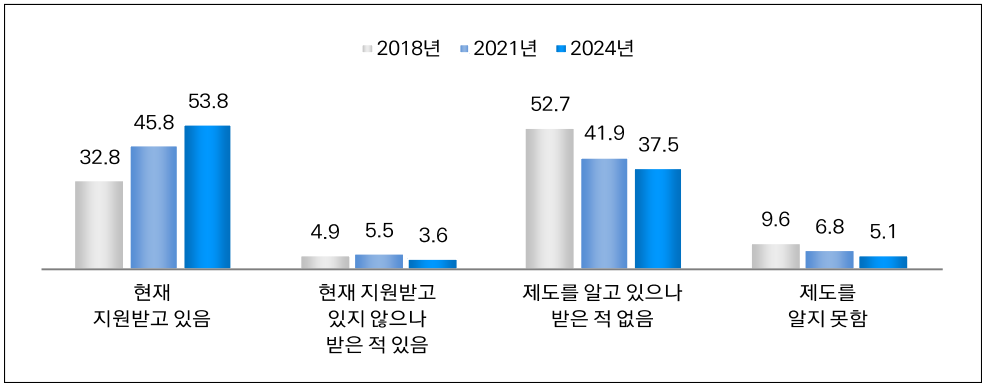
[그림 61] 부당한 일, 차별 경험(자녀)

8. 정책욕구

○ 한부모 가족의 기초생활보장 지원 수급 경험에 대해 살펴보면, 현재 지원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8년 32.8% → 2021년 45.8% → 2024년 53.8%로 점차적으로 수혜율이 증가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금년도 조사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반면, 제도를 알고 있으나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8년 52.7% → 2021년 41.9% → 37.5%로 감소하는 추세임. 이를 종합해 보면, 한부모 가족의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대한 인식과 수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단위: %, 2018년: n=2,500, 2021년: n=3,300, 2024년: n=3,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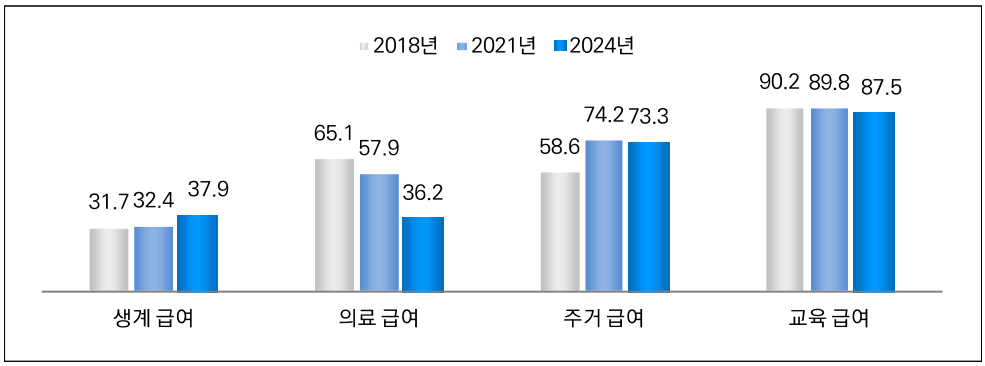


[그림 62] 한부모가 된 후 기초생활보장 지원 서비스 수급 경험

○ 현재 지원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를 살펴보면, 교육급여의 비율가 87.5%로 가장 높고, 주거급여(73.3%), 생계급여(37.9%), 의료급여(36.2%)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이 중 교육급여(2021년 89.8% → 2024년 87.5%)와 주거급여(2021년 74.2% → 2024년 73.3%) 수혜율은 2021년 조사결과에 비해 1%p 내외의 소폭 증가/감소하는 수준으로 변화하였고, 생계급여는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그 수혜율이 증가해 금번 조사에서는 수혜율이 37.9%로 2021년 조사(32.4%)에 비해 5.5%p 상승함.
- 반면, 의료급여의 경우, 2018년 이후 감소해오다가, 금년도 조사에서는 36.2%로 2021년 직전조사 응답률(57.9%)과 비교해도 21.7%p나 감소했다는 점에서 주목이 필요함.

(단위: %, 2018년: n=820, 2021년: n=1,512, 2024년: n=1,7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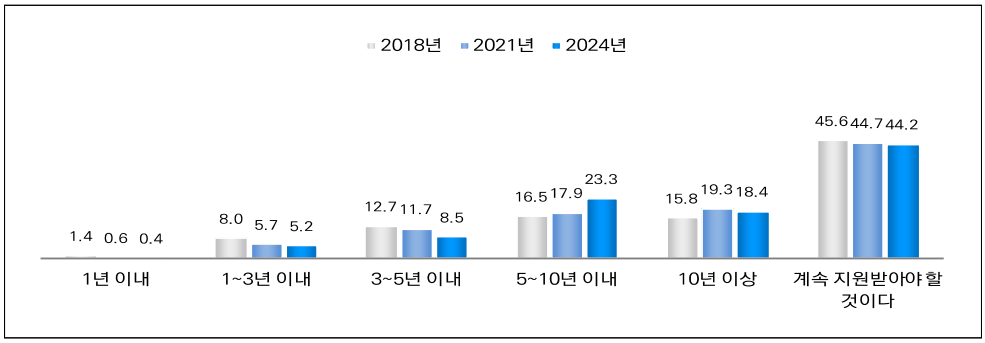


[그림 63] 현재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지원 서비스 급여(복수)

○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을 받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향후 얼마 후에 수급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계속 지원받아야 할 것이다'로 응답한 비율은 44.2%로 2021년의 44.7%에 비해 매우 소폭 감소함.

- 반면, '5~10년 이내'로 응답한 비율은 23.3%로 2021년에 17.9%에 비해 5.4%p 증가하였고, '1~3년 이내'(2021년 5.7% → 2024년 5.2%)나 '3~5년 이내'(2021년 11.7% → 2024년 8.5%)의 경우 소폭 감소해 2024년 조사에서의 탈수급 전망이 더 부정적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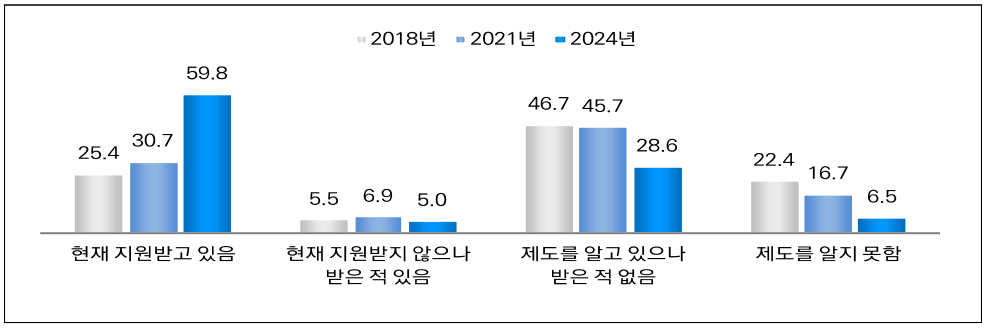
(단위: %, 2018년: n=820, 2021년: n=1,512, 2024년: n=1,784)



[그림 64] 기초생활보장제도 탈수급 예상 기간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해 '현재 지원받고 있다'는 응답률이 59.8%로 이전의 조사결과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반면, '제도를 알고 있으나 받은 적 없음'과 '제도를 알지 못함'으로 응답한 비율은 각각 28.6%와 6.5%로 크게 줄었음.

(단위: %, 2018년: n=2,500, 2021년: n=3,300, 2024년: n=3,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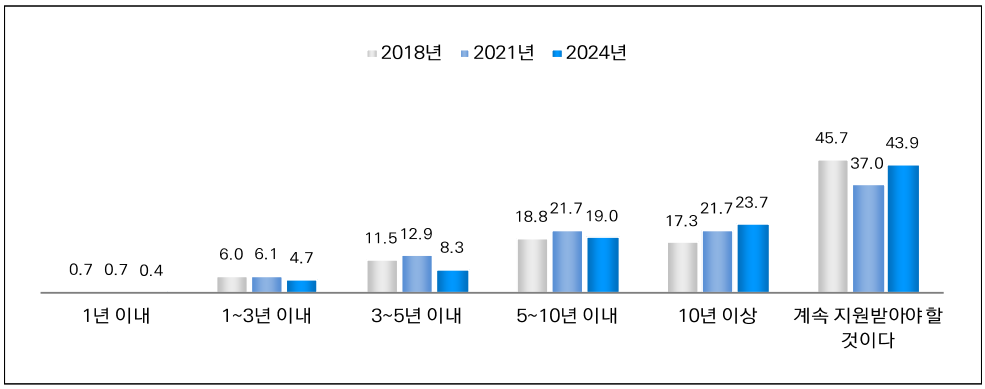


[그림 65] 한부모가 된 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수급 경험

○ 현재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고 있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향후 얼마 후에 지원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계속 지원 받아야 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3.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10년 이상'(23.7%), '5~10년 이내'(19.0%), '3~5년 이내'(8.3%), '1~3년 이내'(4.7%) 순이었음.

- 이전 년도 조사와 비교해 보면, '계속 지원받아야 할 것이다'라는 응답한 비율이 '21년 37.0%에서 '24년 43.9%로 증가했고, '10년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 역시 '21년 21.7%에서 '24년 23.7%로 상승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탈지원에 대한 전망이 다소 더 부정적인 것으로 보임.

(단위: %, 2018년: n=634, 2021년: n=1,014, 2024년: n=1,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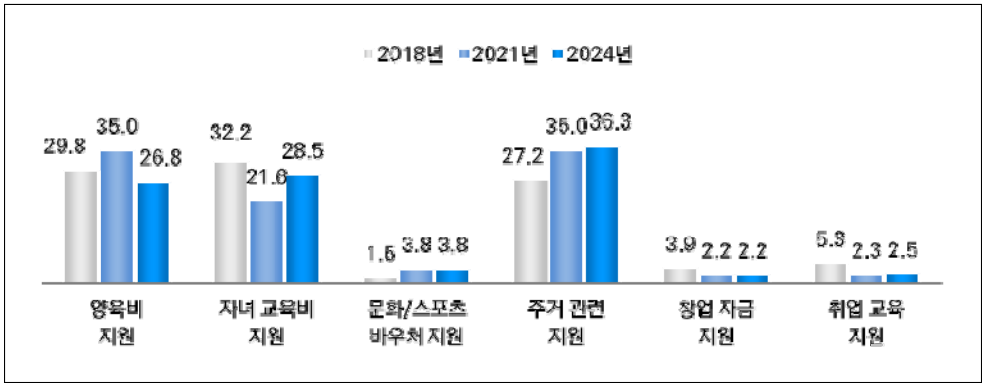


[그림 66]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탈수급 예상 기간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더라도 계속 받고 싶은 지원으로는 '주거 관련 지원'이 응답률 36.3%로 제일 응답이 많았고, '자녀 교육비 지원'(28.5%)과 '양육비 지원'(26.8%)이 그 다음으로 높은 응답률이 나타난 항목임.

- 특히 '주거관련 지원'의 경우, 2018년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수요가 증가·높게 지속되고 있으며, 자녀 교육비 지원과 양육비 지원 역시 2~3순위로 높은 응답률이 지속되고 있는 항목들로 지원 지속에 대한 정책수요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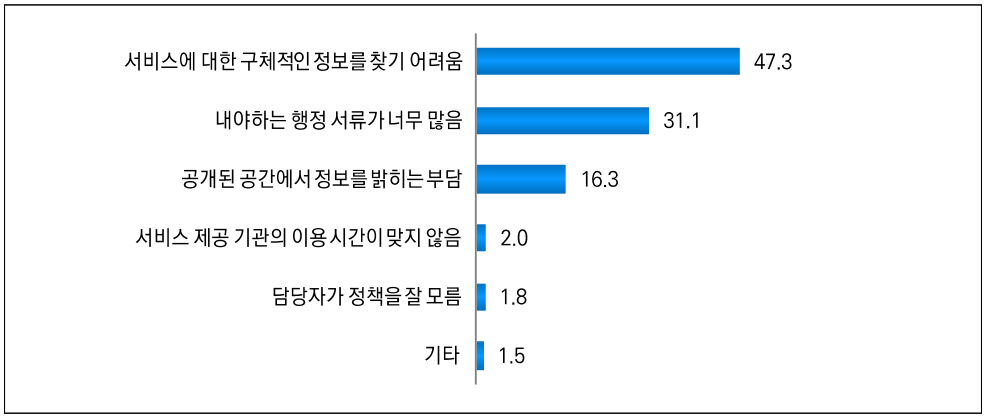
(단위: %, 2018년: n=634, 2021년: n=1,014, 2024년: n=1,984)



[그림 67] 지원사업에서 벗어나도 계속 받고 싶은 지원

○ 한부모관련 지원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n=2,151)를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 시 가장 불편했던 점을 살펴본 결과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찾기 어렵다'는 응답률이 47.3%, '내야하는 행정서류가 너무 많음' 31.1%, '공개된 공간에서 정보를 밝히는 부담'(16.3%) 순으로 높게 나타남.

(단위: %, 2018년: n=772, 2021년: n=1,241, 2024년: n=2,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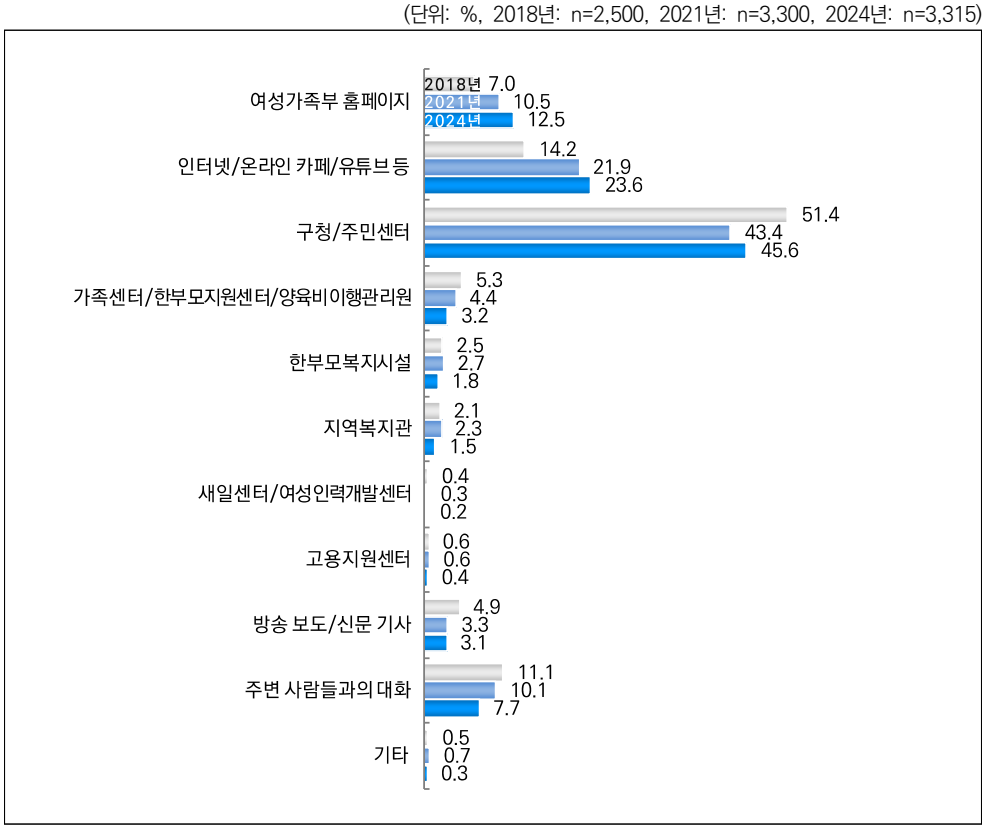
[그림 68]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이용 시 불편한 점

○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관련 정보를 습득하는 경로를 살펴보면 '구청/주민센터'가 45.6%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고, 인터넷/온라인 카페 23.6%,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12.5%,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7.7%, 건강가정지원센터/한부모가족지원센터/양육비

이행관리원 3.2%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복지관'이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방송 보도 및 신문 기사'를 통한 정보 습득 응답 비율은 지속적으로 낮았음.

(단위: %, 2018년: n=2,500, 2021년: n=3,300, 2024년: n=3,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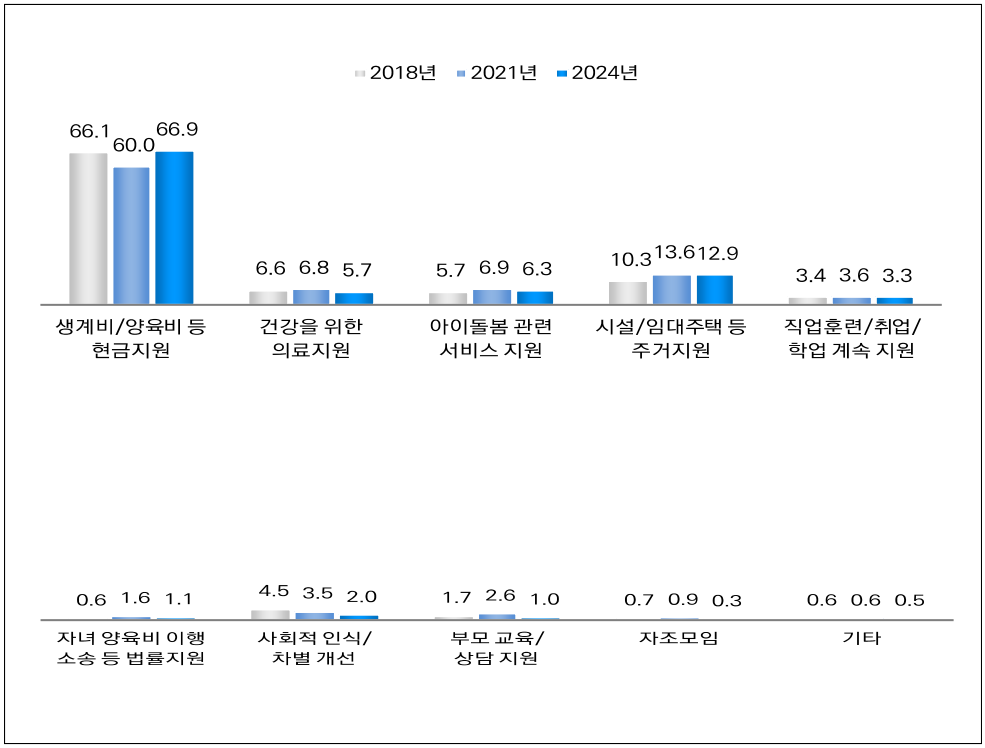


[그림 69]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정보 습득 경로(1순위)

○ 한부모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지원에 대한 1순위 응답은 '생계비, 양육비 등 현금지원'이 66.9%로 가장 높았으며 '시설/임대주택 등 주거지원'(12.9%), '아이돌봄 관련 서비스 지원'(6.3%), '건강을 위한 의료지원'(5.7%), '직업훈련/취업/학업 계속 지원'(3.3%)의 순으로 많이 응답됨.

- 직전 조사(2021년) 결과와 비교하여, 금번 조사에서도 생계비/양육비 등 현금지원 응답비율이 가장 높고, 2021년 조사(60.0%)에 비해서 가장 큰 증가폭(6.9%p)을 보인 응답으로 해당 정책 수요가 높게 지속·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단위: %, 2018년: n=2,500, 2021년: n=3,300, 2024년: n=3,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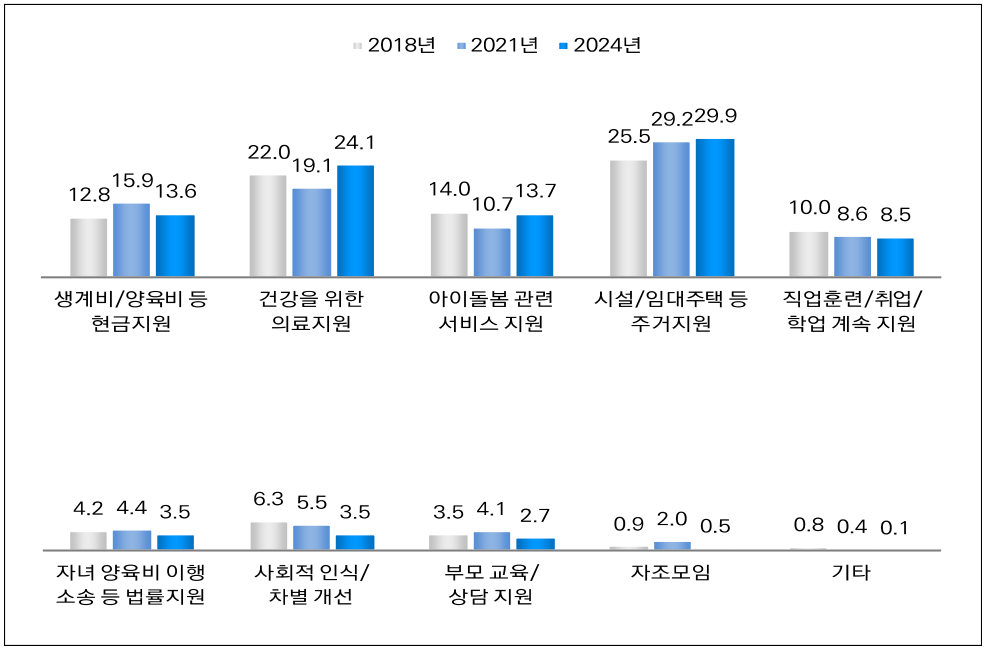


[그림 70] 필요하다고 느끼는 지원(1순위)

○ 한부모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지원에 대한 2순위 응답은 '시설/임대주택 등 주거지원'이 29.9%로 가장 높았으며 '건강을 위한 의료지원' 24.1%, '아이돌봄 관련 서비스 지원' 13.7%, '생계비양육비 등 현금지원' 13.6%, '직업훈련/취업/학업 계속 지원' 8.5%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시설/임대주택 등 주거지원'은 2순위로 느끼는 정책 수요에 가장 응답률이 높은 항목인데, 2018년 조사 이후로 높은 응답률이 증가·지속되는 추세임.

- 직전 2021년 조사결과와 비교해 금년도의 경우, '건강을 위한 의료지원'(2021년 19.1% → 2024년 24.1%, 5.0%p 증가)과 '아이돌봄 관련 서비스 지원'(2021년 10.7% → 2024년 13.7%, 3.0%p 증가)은 2순위 필요정책으로서의 수요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단위: %, 2018년: n=2,429, 2021년: n=3,228, 2024년: n=3,177)



[그림 71] 필요하다고 느끼는 지원(2순위)

Ⅲ. 정책적 논의

○ 저출생 경향의 지속과 맞물려 한부모가족(및 자녀)의 수 또한 꾸준히 감소하고는 있으나 한부모가족 및 이들의 자녀를 위한 정책 또한 정책범위가 지속적으로 확장되었고, 각종 지원제도의 종류나 금액 또한 확대되어 온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이와 같은 사업량이나 예산의 증가가 물가의 상승폭이나 (아동의 양육 등과 관련한) 여타의 지원제도 등의 확대와 관련했을 충분한 정도의 자원투입이 이루어진 것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한부모가족을 위한 일부사업의 경우 사업량 또는 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피고 그와 관련한 어려움이나 문제를 해소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고민이 필요함.

○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홍보 노력도 꾸준히 이어져야 할 것임.

-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기초생활보장 지원 서비스나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53.8%와 59.8%로 나타나는 등 이전의 조사와 비교했을 때 꾸준히 높아짐. 반면 '제도를 알지 못함'을 꼽은 비율은 각각 5.1%와 6.5% 수준으로 이전에 비해 상당히 큰 폭으로 낮아져 두 제도와 관련해서는 상당수의 한부모들이 이를 이용한 경험이 있거나 알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음.

- 다만, (저소득)한부모가족을 위해 비교적 오래 전부터 운영되어 온 위의 두 제도 외에 한부모 또는 자녀의 연령대 등 특성에 맞추어 이용가능한 지원제도들도 존재하며, 새롭게 시행되거나 개편되는 제도들도 존재함.
- 제도의 개선과정에서 단기간의 확대, 확장도 필요하지만 아동의 발달 단계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효과적이고 체감도 높게 집중지원하는 방안 등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또한 한부모가족을 위한 제도와 여타의 지원제도(부/모의 교육훈련, 아동의 학습·발달 지원 등) 간의 연계를 통해 제도의 효과성을 더욱 높이고 사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다양한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고민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음.

○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경제활동 유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

- 한부모 가운데 80% 이상이 40대 이하로 나타나는 등 대다수가 핵심근로연령층(25~54세)에 속해 있으며, 대부분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어 이들의 활발한 경제활동참여는 해당 가구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국가전체적인 인적자본 활용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코로나19의 여파가 상당했던 2021년(77.7%)에 비해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3.9%로 코로나19 이전의 조사(2018년, 84.2%) 결과 수준으로 회복된 점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음. 아울러 비슷한 연령대의 고용률과 비교했을 때도 한부모의 고용률은 높은 수준으로 집계되었는데 단순히 고용률만 놓고 보았을 때 한부모 가운데 취업자 비율 자체는 높임.
- 다만, 이들의 직종, 종사상 분포나 소득수준, 재직 중인 사업장의 규모 등을 종합해 보면 전반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열악한 지위의 근로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와 관련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고민이 필요함.
- 일을 원하지만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는 직업상담, 취업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소개, 개발하고 그 과정에서의 자녀돌봄이나 생계유지 등과 관련한 어려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일을 원하지 않는 이들은 건강문제를 제외하고는 '자녀를 돌봐줄 데가 없어서(21.9%)'였고, '현재 받고 있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할까봐(7.7%)'를 꼽은 비율이 높게 나타난 만큼 이러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양육비 이행을 위한 제도 발굴 및 개선 노력이 요구됨.

-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통해 살폈을 때 상당수(84.2%)는 이혼 한부모가족임.
- 이전의 조사결과에 비해 양육비를 받지 못하였다는 비율은 감소('18년: 78.9%→'24년: 71.3%)하였고,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증가('18년: 15.2%→'24년: 20.1%)하는 등 이전에 비해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가능성은 다소 개선되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전체 미혼·이혼 한부모 10명 중 7명 이상(71.3%)은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는 등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들이 적지 않을 것임.
- 양육비이행관리원 설립('15년), 양육비 미지급 시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신용·보험정보 조회 가능('21), 출국금지 요청 및 명단공개, 형사처벌 가능('22) 등의 제도마련이 이루어졌고, 2025년 7월부터는 양육비 채권이 있지만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양육비 지급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시행도 예정되어 있는 등 양육비 이행을 위한 제도적 노력은 고도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양육비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존재함.
- 향후에도 이를 보완한 양육비 정책 개선이 요구되며, 이후에 진행될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서는 양육비 선지급제와 관련한 실태나 효과 등을 살펴보는 질문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 다각적 측면에서의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고민이 필요함.

-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가능성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높은 우울감, 미충족의료의 가능성, 주거부담 및 취약한 사회적 지지망 등을 엿볼 수 있었음.
- 이와 함께 한부모가 된 후 부와 모의 역할을 혼자서 감당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나 미래에 대한 부담감 등도 나타났으며, 이전의 조사에 비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나 한부모 또는 그들의 자녀가 차별을 경험했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존재함.
- 홀로 생계와 자녀 양육을 책임지는 한부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도 높으며, 시간의 부족이나 고립감 등을 경험할 가능성도 상당할 것임을 생각해 본다면 경제적 측면의 지원정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다각적인 측면의 지원정책이 요구됨.
- 가족정책의 경우 현금지원, 시간지원, 서비스지원의 측면이 존재할 수 있는데 한부모가족을 둘러싼 논의나 지원책의 상당수는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박탈감에 초점을 두고, 경제적 지원의 범위나 금액의 증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 경우가 많아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다각적 측면에서의 고민도 필요함.

○ 한부모가족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의 발굴 및 연구 수행이 요구됨.

-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사자들의 생활전반을 구체적이고 다각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증거기반 경제·사회 정책 수립에 대한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가구 및 개인의 특성 또한 다양해짐에 따라 이를 담아낼 수 있는 자료에 대한 요구 또한 증가하고 있음.
- 한부모가족의 삶 또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만으로 파악하기에는 아쉬움이 따르며,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발굴해 여러 연구를 통해 이들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보장 데이터나 조세, 소비, 이동 등 다양한 원천의 자료를 통한 분석·연구가 이어진다면 한부모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발굴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목 차

Ⅰ. 서 론 ····· 1

1. 서론 ····· 3
가. 연구배경 및 목적 ····· 3
나. 연구내용 ····· 7
2. 조사대상 및 조사내용 ····· 9
가. 조사개요 ····· 9
나. 조사내용 ····· 10
다. 표본설계 ····· 26

Ⅱ.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 39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41
2. 자녀돌봄 ····· 71
가. 자녀돌봄 실태 ····· 71
나. 자녀양육 어려움 ····· 98
3. 소득 및 지출 ····· 138
가. 소득 ····· 138
나. 지출 ····· 145
다. 자산 및 부채 ····· 155
4. 자녀의 비양육부모와의 관계 및 양육비 ····· 178
가. 한부모가 된 기간 ····· 178
나. 양육권 ····· 184
다. 자녀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 186
라. 자녀양육비 이행실태 ····· 193
마. 비양육부모와의 관계 ····· 226
5. 경제활동 ····· 232
가. 직업현황 ····· 232
나. 구직현황 ····· 269

다. 직업훈련 ····· 281
6. 건강 및 주거환경 ····· 290
가. 건강 ····· 290
나. 주거 ····· 312
7. 일상생활 및 사회적 지지 ····· 339
가. 한부모가 된 후 달라진 점 ····· 339
나. 사회적 지지망 ····· 355
다. 한부모로서 겪은 부당한 일이나 차별 경험 정도 ····· 364
8. 정책욕구 ····· 375
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경험 ····· 375
나.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경험 ····· 385
다. 한부모가족지원사업 관련 정보 습득 경로 ····· 396
라. 정책지원 욕구 ····· 400
9. 조사결과 요약 ····· 407
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407
나. 자녀돌봄 ····· 407
다. 소득 및 지출 ····· 409
라. 자녀의 비양육부모와의 관계 및 양육비 ····· 410
마. 경제활동 ····· 412
바. 건강 및 주거실태 ····· 415
사. 일상생활 및 사회적 지지 ····· 418
아. 정책욕구 ····· 419

Ⅲ. 한부모가족지원 정책개선방향 ····· 421

1. 한부모가족지원 정책현황 ····· 423
가. 자녀돌봄서비스 지원 ····· 423
나. 현금급여 지원 ····· 437
다. 양육비이행 지원 ····· 442
라. 직업훈련·교육 및 고용지원 ····· 446
마. 주거지원 ····· 450
바. 건강 및 상담서비스 지원 ····· 459
2. 정책개선방향 ····· 466

■ **참고문헌** ····· 475

■ **부　　록** ····· 479

〈부록〉「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설문지 ····· 481

표 목 차

〈표 Ⅰ-1-1〉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 ····· 3
〈표 Ⅰ-1-2〉 연도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개요(2015년, 2018년, 2021년) ····· 5
〈표 Ⅰ-1-3〉 연도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비교(2015년, 2018년, 2021년) ····· 8
〈표 Ⅰ-2-1〉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조사개요 ····· 10
〈표 Ⅰ-2-2〉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조사내용 ····· 12
〈표 Ⅰ-2-3〉 2021년 및 2024년 조사표 간 변경 내용 ····· 17
〈표 Ⅰ-2-4〉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조사 설계 개요 ····· 26
〈표 Ⅰ-2-5〉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모집단(요약) ····· 28
〈표 Ⅰ-2-6〉 '2022년 인구총조사(통계청)'로 살펴본 한부모가족 모집단 분포 ····· 29
〈표 Ⅰ-2-7〉 2021년 조사 한부모 가족유형별 가구소득 분석결과 ····· 30
〈표 Ⅰ-2-8〉 시도별 20가구 우선할당 후 비례배분한 결과(=표본할당안 Ⅰ) ····· 31
〈표 Ⅰ-2-9〉 시도별 30가구 우선할당 후 비례배분한 결과(=표본할당안 Ⅱ) ····· 32
〈표 Ⅰ-2-10〉 시도별 40가구 우선할당 후 비례배분한 결과(=표본할당안 Ⅲ) ····· 33
〈표 Ⅰ-2-11〉 3가지 표본할당방안의 비교 ····· 34
〈표 Ⅰ-2-12〉 시도별 행정동읍면수와 할당된 표본규모 및 표본동읍면수 ····· 35
〈표 Ⅰ-2-13〉 가구 통계 유의사항 표기 및 해석 ····· 38
〈표 Ⅱ-1-1〉 응답자 특성 ····· 41
〈표 Ⅱ-1-2〉 한부모 연령 ····· 44
〈표 Ⅱ-1-3〉 한부모 학력 ····· 47
〈표 Ⅱ-1-4〉 한부모 혼인 상태 ····· 49
〈표 Ⅱ-1-5〉 가구 구성 ····· 51
〈표 Ⅱ-1-6〉 가구원 수 ····· 53
〈표 Ⅱ-1-7〉 가구 내 자녀 수 ····· 56
〈표 Ⅱ-1-8〉 가장 어린자녀 연령 ····· 58
〈표 Ⅱ-1-9〉 자녀 외 가구원 수 ····· 59
〈표 Ⅱ-1-10〉 한부모 장애 여부 ····· 62
〈표 Ⅱ-1-11〉 한부모 종사상 지위 ····· 64

〈표 Ⅱ-1-12〉 정부 지원 유형 ····· 67
〈표 Ⅱ-1-13〉 가구 월 평균 소득 수준 ····· 69
〈표 Ⅱ-2-1〉 돌봄 유형: 미취학 자녀(1순위) ····· 72
〈표 Ⅱ-2-2〉 돌봄 유형: 초등학생 자녀(1순위) ····· 76
〈표 Ⅱ-2-3〉 자녀와 함께 여가활동을 하는 정도: 초등학생 자녀 ····· 80
〈표 Ⅱ-2-4〉 자녀와 함께 여가활동을 하는 정도: 중·고등학생 자녀 ····· 82
〈표 Ⅱ-2-5〉 자녀가 혼자 보내는 시간: 초등학생 자녀 ····· 86
〈표 Ⅱ-2-6〉 일과 후의 활동(1순위): 중·고등학생 자녀 ····· 89
〈표 Ⅱ-2-7〉 자녀가 혼자 있을 때 바라는 서비스: 미취학 자녀 ····· 92
〈표 Ⅱ-2-8〉 자녀가 혼자 있을 때 바라는 서비스: 초등학생 자녀 ····· 96
〈표 Ⅱ-2-9〉 자녀양육의 어려움: 미취학 자녀 - 자녀 돌봄시간 부족 ····· 100
〈표 Ⅱ-2-10〉 자녀양육의 어려움: 미취학 자녀 - 양육비, 교육비용 부담 ····· 101
〈표 Ⅱ-2-11〉 자녀양육의 어려움: 미취학 자녀 - 자녀 돌봐줄 사람 구하는 것 ····· 102
〈표 Ⅱ-2-12〉 자녀양육의 어려움: 미취학 자녀 – 생활 지도 ····· 103
〈표 Ⅱ-2-13〉 자녀양육의 어려움: 미취학 자녀 – 양육, 교육관련 정보 부족 ····· 104
〈표 Ⅱ-2-14〉 자녀양육의 어려움: 초등학생 자녀 - 자녀와 대화 ····· 107
〈표 Ⅱ-2-15〉 자녀양육의 어려움: 초등학생 자녀 - 학업성적 걱정 ····· 110
〈표 Ⅱ-2-16〉 자녀양육의 어려움: 초등학생 자녀 - 양육비, 교육비용 부담 ····· 111
〈표 Ⅱ-2-17〉 자녀양육의 어려움: 초등학생 자녀 – 진로 지도 ····· 114
〈표 Ⅱ-2-18〉 자녀양육의 어려움: 초등학생 자녀 - 생활 지도 ····· 115
〈표 Ⅱ-2-19〉 자녀양육의 어려움: 초등학생 자녀 - 양육, 교육관련 정보 부족 ····· 117
〈표 Ⅱ-2-20〉 자녀양육의 어려움: 중·고등학생 자녀 - 자녀와 대화 어려움 ····· 120
〈표 Ⅱ-2-21〉 자녀양육의 어려움: 중·고등학생 자녀 – 학업성적 걱정 ····· 121
〈표 Ⅱ-2-22〉 자녀양육의 어려움: 중·고등학생 자녀 - 양육비, 교육비용 부담 ····· 123
〈표 Ⅱ-2-23〉 자녀양육의 어려움: 중·고등학생 자녀 - 진로 지도 ····· 125
〈표 Ⅱ-2-24〉 자녀양육의 어려움: 중·고등학생 자녀 - 생활 지도 ····· 126
〈표 Ⅱ-2-25〉 자녀양육의 어려움: 중·고등학생 자녀 - 양육, 교육관련 정보 부족 ····· 128
〈표 Ⅱ-2-26〉 자녀양육비 항목별 평균 지출 금액: 미취학 자녀 ····· 132
〈표 Ⅱ-2-27〉 자녀양육비 항목별 평균 지출 금액: 초등학생 자녀 ····· 134
〈표 Ⅱ-2-28〉 자녀양육비 항목별 평균 지출 금액: 중·고등학생 자녀 ····· 136
〈표 Ⅱ-3-1〉 가구 월 평균 소득 ····· 140

〈표 Ⅱ-3-2〉 가구 주 소득(1순위) ····· 143
〈표 Ⅱ-3-3〉 가구 월 평균 지출 ····· 146
〈표 Ⅱ-3-4〉 항목별 가구 월 평균 지출 ····· 149
〈표 Ⅱ-3-4〉 항목별 가구 월 평균 지출[계속] ····· 150
〈표 Ⅱ-3-4〉 항목별 가구 월 평균 지출[계속] ····· 151
〈표 Ⅱ-3-5〉 부담이 되는 지출 항목(1순위) ····· 153
〈표 Ⅱ-3-6〉 자산 및 부채 ····· 157
〈표 Ⅱ-3-7〉 빚을 지게 된 이유 ····· 160
〈표 Ⅱ-3-8〉 자동차 소유 여부 및 평균 소유 대수 ····· 163
〈표 Ⅱ-3-9〉 소유한 자동차의 주된 용도(첫째차) ····· 165
〈표 Ⅱ-3-10〉 소유한 자동차의 차종(첫째차) ····· 167
〈표 Ⅱ-3-11〉 소유한 자동차의 배기량(첫째차 기준) ····· 170
〈표 Ⅱ-3-12〉 소유한 자동차의 연식(첫째차) ····· 173
〈표 Ⅱ-3-13〉 노후 대비 경제적 준비 여부 ····· 176
〈표 Ⅱ-4-1〉 결혼/동거 기간 ····· 179
〈표 Ⅱ-4-2〉 한부모가 된 기간 ····· 182
〈표 Ⅱ-4-3〉 이혼 형태 ····· 185
〈표 Ⅱ-4-4〉 양육권 여부 ····· 186
〈표 Ⅱ-4-5〉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경험 ····· 187
〈표 Ⅱ-4-6〉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지원 이용 여부 ····· 188
〈표 Ⅱ-4-7〉 양육비 이행확보절차 진행 경험 ····· 190
〈표 Ⅱ-4-8〉 양육비 이행확보절차 도움 여부 ····· 191
〈표 Ⅱ-4-9〉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이용 여부 ····· 192
〈표 Ⅱ-4-10〉 법적 양육비 채권 여부 및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한 형태 ····· 194
〈표 Ⅱ-4-11〉 양육비를 주고받지 않거나 법적으로 결정된 바 없는 이유 ····· 197
〈표 Ⅱ-4-12〉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한 자녀 수 ····· 200
〈표 Ⅱ-4-13〉 지급받기로 한 양육비: 정기 지급액(월평균) ····· 202
〈표 Ⅱ-4-14〉 실제로 양육비를 지급받은 형태 ····· 205
〈표 Ⅱ-4-15〉 실제로 양육비 지급받은 자녀 수 ····· 208
〈표 Ⅱ-4-16〉 실제로 지급받은 양육비: 정기·부정기지급 받은 비율 ····· 211
〈표 Ⅱ-4-17〉 실제로 지급받은 양육비: 정기·부정기지급액(월평균) ····· 213

〈표 Ⅱ-4-18〉 실제로 지급받은 양육비: 정기·부정기지급 횟수(연) ····· 214
〈표 Ⅱ-4-19〉 실제로 지급받은 양육비(무채권): 정기·부정기지급 받은 비율 ····· 216
〈표 Ⅱ-4-20〉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개선이 시급한 제도 ····· 219
〈표 Ⅱ-4-21〉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 이용 경험 ····· 220
〈표 Ⅱ-4-22〉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 이용 의사 ····· 222
〈표 Ⅱ-4-23〉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려는 이유 ····· 224
〈표 Ⅱ-4-24〉 비양육부모와의 교류 정도: 자녀 ····· 227
〈표 Ⅱ-4-25〉 비양육부모와의 교류 정도: 한부모 ····· 230
〈표 Ⅱ-5-1〉 취업 여부 ····· 234
〈표 Ⅱ-5-2〉 부업 여부 ····· 235
〈표 Ⅱ-5-3〉 한부모가 하는 일(직종) ····· 238
〈표 Ⅱ-5-4〉 종사상 지위 ····· 242
〈표 Ⅱ-5-5〉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살펴본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 244
〈표 Ⅱ-5-6〉 월평균 근로·사업소득 ····· 247
〈표 Ⅱ-5-7〉 한부모 직장 종사자 수 ····· 251
〈표 Ⅱ-5-8〉 주당 실 근로시간: 주업 ····· 255
〈표 Ⅱ-5-9〉 일주일 중 휴무 일수 ····· 259
〈표 Ⅱ-5-10〉 일을 구할 때 느낀 어려움 ····· 263
〈표 Ⅱ-5-11〉 일을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 ····· 267
〈표 Ⅱ-5-12〉 구직 여부 ····· 271
〈표 Ⅱ-5-13〉 원하는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 ····· 275
〈표 Ⅱ-5-14〉 일을 원하지 않는 이유 ····· 279
〈표 Ⅱ-5-15〉 직업훈련 경험 여부(최근 3년) ····· 282
〈표 Ⅱ-5-16〉 직업훈련이 취업에 도움이 된 정도 ····· 284
〈표 Ⅱ-5-17〉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 ····· 288
〈표 Ⅱ-6-1〉 건강상태 ····· 291
〈표 Ⅱ-6-2〉 우울감 경험 여부 ····· 294
〈표 Ⅱ-6-3〉 우울감 해소방식 ····· 297
〈표 Ⅱ-6-4〉 건강검진 경험(최근 2년) ····· 300
〈표 Ⅱ-6-5〉 수혜 건강검진 종류(복수응답) ····· 302
〈표 Ⅱ-6-6〉 병의원에 가지 못한 경험(최근 1년) ····· 305

〈표 Ⅱ-6-7〉 병의원에 가지 못한 주된 이유 ····· 307
〈표 Ⅱ-6-8〉 규칙적인 운동 현황 ····· 310
〈표 Ⅱ-6-9〉 거주 형태 ····· 314
〈표 Ⅱ-6-10〉 주택 면적 ····· 317
〈표 Ⅱ-6-11〉 주거환경 - 가구원수 대비 공간 적당함 ····· 321
〈표 Ⅱ-6-12〉 주거환경 - 통풍 및 채광 좋음 ····· 322
〈표 Ⅱ-6-13〉 주거환경 - 난방상태 좋음 ····· 323
〈표 Ⅱ-6-14〉 주거환경 - 방음상태 좋음 ····· 324
〈표 Ⅱ-6-15〉 주거환경 - 생활편의시설이 갖춰짐 ····· 325
〈표 Ⅱ-6-16〉 주거환경 - 대중교통 접근 용이 ····· 326
〈표 Ⅱ-6-17〉 주거환경 - 교육환경 좋음 ····· 327
〈표 Ⅱ-6-18〉 주거환경 - 치안상태 좋음 ····· 328
〈표 Ⅱ-6-19〉 주거지원정책 인지도 및 이용 경험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 331
〈표 Ⅱ-6-20〉 주거지원정책 인지도 및 이용 경험 – 공공주택 ····· 332
〈표 Ⅱ-6-21〉 주거지원정책 인지도 및 이용 경험 -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 333
〈표 Ⅱ-6-22〉 주거지원정책 인지도 및 이용 경험 – 주거비 지원 ····· 334
〈표 Ⅱ-6-23〉 공공임대주택 등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1순위) ····· 337
〈표 Ⅱ-7-1〉 한부모가 된 후 달라진 점 - 경제적 어려움 ····· 342
〈표 Ⅱ-7-2〉 한부모가 된 후 달라진 점 - 부와 모의 역할 혼자서 감당 ····· 344
〈표 Ⅱ-7-3〉 한부모가 된 후 달라진 점 - 형제/자매/친척과 멀어짐 ····· 346
〈표 Ⅱ-7-4〉 한부모가 된 후 달라진 점 - 건강상태 악화 ····· 348
〈표 Ⅱ-7-5〉 한부모가 된 후 달라진 점 - 미래에 대한 부담 증가 ····· 351
〈표 Ⅱ-7-6〉 한부모가 된 후 달라진 점 - 자녀와 긴밀해짐 ····· 353
〈표 Ⅱ-7-7〉 도움을 구할 사람/기관(1순위) - 집안일 ····· 356
〈표 Ⅱ-7-8〉 도움을 구할 사람/기관(1순위) - 돈이 필요할 때 ····· 358
〈표 Ⅱ-7-9〉 도움을 구할 사람/기관(1순위) - 본인이 아플 때 ····· 359
〈표 Ⅱ-7-10〉 도움을 구할 사람/기관(1순위) - 아이가 아플 때 ····· 361
〈표 Ⅱ-7-11〉 도움을 구할 사람/기관(1순위) - 생활관련 ····· 362
〈표 Ⅱ-7-12〉 부당한 일, 차별 경험(본인) - 동네나 이웃주민 ····· 366
〈표 Ⅱ-7-13〉 부당한 일, 차별 경험(본인) - 학교나 보육시설 ····· 367
〈표 Ⅱ-7-14〉 부당한 일, 차별 경험(본인) - 가족 및 친척 ····· 368

〈표 Ⅱ-7-15〉 부당한 일, 차별 경험(본인) - 직장/일터 ····· 369
〈표 Ⅱ-7-16〉 부당한 일, 차별 경험(본인) - 공공기관 ····· 370
〈표 Ⅱ-7-17〉 부당한 일, 차별 경험(자녀 관련) - 동네나 이웃주민 ····· 372
〈표 Ⅱ-7-18〉 부당한 일, 차별 경험(자녀 관련) - 학교나 보육시설 ····· 373
〈표 Ⅱ-7-19〉 부당한 일, 차별 경험(자녀 관련) - 가족 및 친척 ····· 374
〈표 Ⅱ-8-1〉 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 375
〈표 Ⅱ-8-2〉 한부모가 된 후 기초생활보장 지원 서비스 수급 경험 ····· 377
〈표 Ⅱ-8-3〉 현재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지원 서비스 급여(복수) ····· 381
〈표 Ⅱ-8-4〉 기초생활보장 지원 서비스 탈수급 예상 기간 ····· 384
〈표 Ⅱ-8-5〉 한부모가 된 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수급 경험 ····· 386
〈표 Ⅱ-8-6〉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탈수급 예상 기간 ····· 389
〈표 Ⅱ-8-7〉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수급 대상에서 벗어나도 계속 받고 싶은 지원 ····· 392
〈표 Ⅱ-8-8〉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이용 시 불편한 점 ····· 395
〈표 Ⅱ-8-9〉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정보 습득 경로(1순위) ····· 398
〈표 Ⅱ-8-10〉 필요하다고 느끼는 지원(1순위) ····· 402
〈표 Ⅱ-8-11〉 필요하다고 느끼는 지원(2순위) ····· 405
〈표 Ⅲ-1-1〉 보육료 지원 개요 ····· 424
〈표 Ⅲ-1-2〉 유아학비 지원제도 ····· 425
〈표 Ⅲ-1-3〉 아이돌봄 지원사업 ····· 427
〈표 Ⅲ-1-4〉 가정양육수당 지원 ····· 430
〈표 Ⅲ-1-5〉 지역아동센터 ····· 431
〈표 Ⅲ-1-6〉 초등돌봄교실 ····· 433
〈표 Ⅲ-1-7〉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 436
〈표 Ⅲ-1-8〉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개요 ····· 438
〈표 Ⅲ-1-9〉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 등 지원 내용 ····· 440
〈표 Ⅲ-1-10〉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현금급여) ····· 441
〈표 Ⅲ-1-11〉 자녀양육비 이행 관련 법·제도 현황 ····· 442
〈표 Ⅲ-1-12〉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업 내용 ····· 445
〈표 Ⅲ-1-13〉 취업 및 직업훈련 지원 제도 ····· 446
〈표 Ⅲ-1-14〉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교육비지원 ····· 449

〈표 Ⅲ-1-15〉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별 지원내용 ····· 450
〈표 Ⅲ-1-1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개요 ····· 452
〈표 Ⅲ-1-17〉 지역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수 ····· 453
〈표 Ⅲ-1-18〉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 454
〈표 Ⅲ-1-19〉 저소득한부모가족 주거지원 ····· 455
〈표 Ⅲ-1-20〉 주거급여 및 주택 전월세 자금 지원 ····· 457
〈표 Ⅲ-1-21〉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주요 내용 ····· 458
〈표 Ⅲ-1-22〉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내 영양플러스사업 ····· 459
〈표 Ⅲ-1-23〉 출산지원시설의 입소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 460
〈표 Ⅲ-1-24〉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사업 ····· 461
〈표 Ⅲ-1-25〉 온가족보듬사업 ····· 462
〈표 Ⅲ-1-2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의료 지원 ····· 464
〈표 Ⅲ-1-27〉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사업 ····· 465

그 림 목 차

[그림 Ⅰ-2-1] 표본설계 과정 ····· 26
[그림 Ⅱ-1-1] 한부모 연령 ····· 43
[그림 Ⅱ-1-2] 한부모 학력 ····· 46
[그림 Ⅱ-1-3] 한부모 혼인 상태 ····· 48
[그림 Ⅱ-1-4] 가구 구성 ····· 50
[그림 Ⅱ-1-5] 가구원 수 ····· 52
[그림 Ⅱ-1-6] 가구 내 자녀 수 ····· 55
[그림 Ⅱ-1-7] 가장 어린자녀 연령 ····· 57
[그림 Ⅱ-1-8] 자녀 외 가구원 수 ····· 59
[그림 Ⅱ-1-9] 한부모 장애 여부 ····· 61
[그림 Ⅱ-1-10] 취업 중인 한부모의 종사상 지위 ····· 63
[그림 Ⅱ-1-11] 정부 지원 유형 ····· 66
[그림 Ⅱ-1-12] 가구 월 평균 소득 수준 ····· 68
[그림 Ⅱ-2-1] 돌봄 유형: 미취학 자녀(1순위) ····· 71
[그림 Ⅱ-2-2] 돌봄 유형: 초등학생 자녀(1순위) ····· 74
[그림 Ⅱ-2-3] 자녀와 함께 여가활동을 하는 정도: 초등학생 자녀 ····· 78
[그림 Ⅱ-2-4] 자녀와 함께 여가활동을 하는 정도: 중·고등학생 자녀 ····· 79
[그림 Ⅱ-2-5] 자녀가 혼자 보내는 시간 ····· 86
[그림 Ⅱ-2-6] 일과 후의 활동(1순위): 중·고등학생 자녀 ····· 87
[그림 Ⅱ-2-7] 자녀가 혼자 있을 때 바라는 서비스: 미취학 자녀 ····· 91
[그림 Ⅱ-2-8] 자녀가 혼자 있을 때 바라는 서비스: 초등학생 자녀 ····· 94
[그림 Ⅱ-2-9] 자녀양육의 어려움: 미취학 자녀 ····· 99
[그림 Ⅱ-2-10] 자녀양육의 어려움: 초등학생 자녀 ····· 105
[그림 Ⅱ-2-11] 자녀양육의 어려움: 중·고등학생 자녀 ····· 118
[그림 Ⅱ-2-12] 자녀양육비 항목별 평균 지출 금액 ····· 131
[그림 Ⅱ-3-1] 가구 월 평균 소득 ····· 138
[그림 Ⅱ-3-2] 가구 주 소득(1순위) ····· 142

[그림 Ⅱ-3-3] 가구 월 평균 지출 항목 ····· 145
[그림 Ⅱ-3-4] 부담이 되는 지출 항목(1순위) ····· 152
[그림 Ⅱ-3-5] 자산 및 부채 ····· 155
[그림 Ⅱ-3-6] 빚을 지게 된 이유 ····· 159
[그림 Ⅱ-3-7] 자동차 소유 여부 및 평균 소유 대수 ····· 162
[그림 Ⅱ-3-8] 소유한 자동차의 주된 용도 ····· 164
[그림 Ⅱ-3-9] 소유한 자동차의 차종 ····· 166
[그림 Ⅱ-3-10] 소유한 자동차의 배기량 ····· 169
[그림 Ⅱ-3-11] 소유한 자동차의 연식 ····· 172
[그림 Ⅱ-3-12] 노후 대비 경제적 준비 여부 ····· 175
[그림 Ⅱ-3-13] 노후 대비 경제적 준비 방법(복수응답) ····· 177
[그림 Ⅱ-4-1] 결혼/동거 기간 ····· 178
[그림 Ⅱ-4-2] 한부모가 된 기간 ····· 181
[그림 Ⅱ-4-3] 이혼 형태 ····· 184
[그림 Ⅱ-4-4] 양육권 여부 ····· 186
[그림 Ⅱ-4-5]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경험 ····· 187
[그림 Ⅱ-4-6]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지원 이용 여부 ····· 188
[그림 Ⅱ-4-7] 양육비 이행확보절차 진행 경험 ····· 189
[그림 Ⅱ-4-8] 양육비 이행확보절차 도움 여부 ····· 191
[그림 Ⅱ-4-9]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이용 여부 ····· 192
[그림 Ⅱ-4-10] 법적 양육비 채권 여부 및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한 형태 ····· 193
[그림 Ⅱ-4-11] 양육비를 주고받지 않거나 법적으로 결정된 바 없는 이유 ····· 196
[그림 Ⅱ-4-12]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한 자녀 수 ····· 199
[그림 Ⅱ-4-13] 지급 받기로 한 양육비 - 일시지급액 ····· 201
[그림 Ⅱ-4-14] 지급받기로 한 양육비: 정기지급액(월평균) ····· 201
[그림 Ⅱ-4-15] 지급받기로 한 양육비 - 정기지급 횟수(연) ····· 203
[그림 Ⅱ-4-16] 실제로 양육비를 지급받은 형태 ····· 204
[그림 Ⅱ-4-17] 실제로 양육비 지급받은 자녀 수 ····· 207
[그림 Ⅱ-4-18] 실제로 지급받은 양육비: 일시지급 받은 비율 ····· 209
[그림 Ⅱ-4-19] 실제로 지급받은 양육비: 일시지급액 ····· 209
[그림 Ⅱ-4-20] 실제로 지급받은 양육비: 정기·부정기지급 받은 비율 ····· 210

[그림 Ⅱ-4-21] 실제로 지급받은 양육비: 정기·부정기지급액(월평균) ····· 212
[그림 Ⅱ-4-22] 실제로 지급받은 양육비: 정기·부정기지급 횟수(연) ····· 214
[그림 Ⅱ-4-23] 실제로 지급받은 양육비(무채권): 정기·부정기지급 받은 비율 ····· 215
[그림 Ⅱ-4-24] 실제로 지급받은 양육비(무채권) - 정기·부정기지급액(월평균) ····· 217
[그림 Ⅱ-4-25] 실제로 지급받은 양육비(무채권) - 정기·부정기지급 횟수(연) ····· 217
[그림 Ⅱ-4-26]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개선이 시급한 제도 ····· 218
[그림 Ⅱ-4-27]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 이용 경험 ····· 220
[그림 Ⅱ-4-28]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 이용 의사 ····· 221
[그림 Ⅱ-4-29]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려는 이유 ····· 223
[그림 Ⅱ-4-30] 비양육부모와의 교류 정도: 자녀 ····· 226
[그림 Ⅱ-4-31] 비양육부모와의 교류 정도: 한부모 ····· 229
[그림 Ⅱ-5-1] 취업 여부 ····· 232
[그림 Ⅱ-5-2] 부업 여부 ····· 235
[그림 Ⅱ-5-3] 한부모가 하는 일(직종) ····· 236
[그림 Ⅱ-5-4] 종사상 지위 ····· 240
[그림 Ⅱ-5-5] 월평균 근로·사업소득 ····· 245
[그림 Ⅱ-5-6] 현재 직장 종사자 수 ····· 249
[그림 Ⅱ-5-7] 주당 실 근로시간: 주업 ····· 253
[그림 Ⅱ-5-8] 주당 실근로시간: 부업 ····· 257
[그림 Ⅱ-5-9] 일주일 중 휴무 일수 ····· 258
[그림 Ⅱ-5-10] 일을 구할 때 느낀 어려움 ····· 261
[그림 Ⅱ-5-11] 일을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 ····· 265
[그림 Ⅱ-5-12] 구직 여부 ····· 270
[그림 Ⅱ-5-13] 구직 경로 ····· 272
[그림 Ⅱ-5-14]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운 점 ····· 273
[그림 Ⅱ-5-15] 원하는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 ····· 274
[그림 Ⅱ-5-16] 일을 원하지 않는 이유 ····· 277
[그림 Ⅱ-5-17] 직업훈련 경험 여부(최근 3년) ····· 281
[그림 Ⅱ-5-18] 직업훈련이 취업에 도움이 된 정도 ····· 283
[그림 Ⅱ-5-19] 직업훈련이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 ····· 285
[그림 Ⅱ-5-20]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 ····· 286

[그림 Ⅱ-6-1] 건강상태 ····· 290
[그림 Ⅱ-6-2] 우울감 경험 여부 ····· 293
[그림 Ⅱ-6-3] 우울감 해소방식 ····· 295
[그림 Ⅱ-6-4] 건강검진 경험(최근 2년) ····· 299
[그림 Ⅱ-6-5] 수혜 건강검진 종류(복수응답) ····· 301
[그림 Ⅱ-6-6] 병의원에 가지 못한 경험(최근 1년) ····· 304
[그림 Ⅱ-6-7] 병의원에 가지 못한 주된 이유 ····· 306
[그림 Ⅱ-6-8] 규칙적인 운동 현황 ····· 309
[그림 Ⅱ-6-9] 거주 형태 ····· 312
[그림 Ⅱ-6-10] 주택 면적 ····· 316
[그림 Ⅱ-6-11] 주거환경 ····· 319
[그림 Ⅱ-6-12]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경험 ····· 329
[그림 Ⅱ-6-13] 공공임대주택 등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1순위) ····· 335
[그림 Ⅱ-7-1] 한부모가 된 후 달라진 점 ····· 340
[그림 Ⅱ-7-2] 도움을 구할 사람/기관(1순위) ····· 355
[그림 Ⅱ-7-3] 부당한 일, 차별 경험(본인) ····· 364
[그림 Ⅱ-7-4] 부당한 일, 차별 경험(자녀) ····· 371
[그림 Ⅱ-8-1] 한부모가 된 후 기초생활보장 지원 서비스 수급 경험 ····· 376
[그림 Ⅱ-8-2] 현재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지원 서비스 급여(복수) ····· 379
[그림 Ⅱ-8-3] 기초생활보장제도 탈수급 예상 기간 ····· 382
[그림 Ⅱ-8-4] 한부모가 된 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수급 경험 ····· 385
[그림 Ⅱ-8-5]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탈수급 예상 기간 ····· 388
[그림 Ⅱ-8-6] 지원사업에서 벗어나도 계속 받고 싶은 지원 ····· 390
[그림 Ⅱ-8-7]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이용 시 불편한 점 ····· 394
[그림 Ⅱ-8-8]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정보 습득 경로(1순위) ····· 396
[그림 Ⅱ-8-9] 필요하다고 느끼는 지원(1순위) ····· 400
[그림 Ⅱ-8-10] 필요하다고 느끼는 지원(2순위) ····· 404
[그림 Ⅲ-1-1] 늘봄학교의 '비전 및 목표', '늘봄학교 한눈에 보기' ····· 435
[그림 Ⅲ-2-1]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를 통한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소개 ····· 468

Ⅰ 서 론

1. 서론 3
2. 조사대상 및 조사내용 9

1. 서론[1)]

가. 연구배경 및 목적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추세연구(trend study)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규정된 법정 조사이다. 2012년 최초의 조사 이후 3년 주기(2015년, 2018년, 2021년)로 네 차례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2024년에는 다섯 번째 조사가 진행되었다. 앞서 시행된 네 차례의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대표성을 가진 조사로서, 통계청 승인(승인번호 제154016호)을 받은 신뢰도 높은 조사이다(김은지 외, 2017).

〈표 Ⅰ-1-1〉「한부모가족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6조(실태조사 등) ①여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또한, 여성가족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한부모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연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②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4. 12.]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2024a), 「한부모가족지원법」.

2022년 통계청 「등록센서스」에서 제시된 한부모가구[2)]에 대한 집계결과를 살펴보면, 한부모가구는 일반가구의 6.9%(1,494천 가구)로 전년 대비 1.1%(-16천 가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23a: 84). 같은 자료를 통해 집계된 18세 이하 미성년자녀가 있는 한부모가구의 수는 355,123가구로 2022년 기준 전체 가구(21,773,507가구)의 1.63%, 만18세 이하 미성년자녀가 있는 가구(4,690,686가구)의 7.57%를 차지하고 있었다(통계청, 2023b). 이처럼 한부모가족은 우리사회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1) 제Ⅰ장의 내용은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에서 진행된 연구인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사전 연구(배호중 외, 2023)』 및 이전에 시행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들(주로 2015, 2018,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을 요약・정리 한 것이다.

2) 해당 자료에서는 한부모가구를 '법적인 혼인 상태가 미혼, 이혼 및 사별이며 미혼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일반가구'로 정의(통계청, 2023a: 84)하여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한부모가족이랑 약간 차이가 있다.

있으며, 이들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도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비록 모든 한부모가족이 양육 또는 생계 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간의 실태조사 결과 등에 비추어보면 한부모가족은 고립된 양육과 생계의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김은지 외, 2018: 3)에 비추어보면 이들의 생활상에 대해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월평균소득은 245.3만원으로 (조사항목이 같지는 않아 완전히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의 전체 가구의 평균 가처분 소득인 416.9만원의 58.8% 수준에 그쳤으며, 한부모가족의 평균 순자산액 또한 10,950만원으로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집계된 가구의 평균 순자산액(4.15억)의 1/4 수준을 조금 넘는 26.4%에 수준에 그쳤다. 이와 함께 한부모의 3/4 이상(77.7%)은 취업상태에 있지만 종사상 지위나 재직 중인 사업체의 규모(종사자 수), 근로·사업소득 등을 종합해볼 때 상대적으로 취약한 일자리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도 엿보였다(배호중 외, 2021).

한부모가족이 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러한 어려움이나 높은 정책적 욕구에 대해 「한부모가족 실태조사」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이들이 직면한 상황이나 정책적 욕구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대표성 있는 표본을 통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전까지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는 주로 청소년 한부모, 양육미혼모, 조손가족, 시설 한부모 가족 등을 대상으로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와 같은 실태조사자료는 귀중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시설·기관이용자 등을 중심으로 할당표집이 이루어졌다는 한계를 지님과 동시에 전문조사원에 의한 조사가 아닌 시군구 담당 공무원이나 시설관계자를 통해 조사되어 응답의 완결성이 낮고 오류의 발생률이 높다는 한계를 가진다(김은지 외, 2013).

혼자 양육과 생계를 전담하는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와 같은 정책 확대를 위한 근거자료로서 신뢰할만한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2011년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으로 3년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의 실시가 의무화되었으며(『한부모가족지원법』 제6조) 2012년에 최초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가 실시된 후 3년 주기로 조사가 이어져 오고 있다(여성가족부, 2018: 2). 최근 진행된 세 차례의 조사(2015년, 2018년, 2021년)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간략히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Ⅰ-1-2〉 연도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개요(2015년, 2018년, 2021년)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조사대상	전국 한부모가족 가구주 2,552명 (18세 미만 자녀 양육)	만 18세 이하[3] 자녀가 있는 전국 한부모가족 (모자가족, 부자가족) 가구주 2,500명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전국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부자가족) 가구주 3,300명
표본추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에서 파악된 지역별·가구유형별수 및 분포 활용	「2016년 등록센서스(통계청)」에서 파악된 한부모가구를 조사 모집단으로 하여 표본 추출	「2019년 등록센서스(통계청)」에서 파악된 한부모가구의 지역별, 가구유형별 및 분포 활용
모집단 층화	가구유형(부자가구, 모자가구)과 17개 시도별로 층화	가구유형(부자가구, 모자가구)과 17개 시도별로 층화	가구유형(부자가구, 모자가구)과 17개 시도별로 층화
기준시점	2015년 9월	2018년 8월	2021년 7월
조사내용	일반특성, 자녀 돌봄, 경제활동, 생활양식, 서비스 수요 등 (8개 분야, 18개 항목, 117개 세부항목)	자녀 돌봄, 생활세계 및 사회적 지지망, 경제활동, 건강, 소득 및 지출, 자녀의 비양육부모와의 관계 및 양육비, 주거환경, 지원 사업 등 (8개 분야, 19개 항목, 120개 세부항목)	자녀 돌봄, 생활세계 및 사회적 지지망, 경제활동, 건강, 소득 및 지출, 자녀의 비양육부모와의 관계 및 양육비, 주거환경, 지원 사업,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변화 등 (9개 분야/20개 항목/132개 세부항목)
조사방법	구조화된 조사표를 통한 1:1 가구방문·면접조사		
조사기간	2015년 9월~11월	2018년 8월~11월	2021년 7월~11월

자료: 김은지 외(2015), 김은지 외(2018). 배호중 외(2021)

3) 2015년까지는 통계청의 공식 집계 없이 모집단 분석을 통해 대상자를 추출했기 때문에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대상에 최대한 유사하도록 자녀 연령은 17세까지로 하고, 18세는 취학인 경우만 포함하였다. 그러나 통계청에서 2015년부터 '등록센서스' 집계를 통해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구 수를 집계함에 따라, 2018년 조사의 경우 18세 이하 전체인 경우를 모집단으로 하였다(김은지 외, 2018).

한부모가족을 비롯해 다양한 유형의 가족에 대해 신뢰할 만한 통계자료(실태조사 자료 등)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표성 있는 표본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가구 부문 표본조사에서 가장 널리 모집단 역할을 수행하는 조사자료로는 「인구주택총조사」를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과 주택의 규모 및 그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기본통계조사로 UN(United Nation)의 정의에 따르면 「인구주택총조사」는 특정한 시점에 한 국가 또는 일정한 지역의 모든 사람, 가구, 거처와 관련된 인구·경제·사회학적 자료를 수집, 평가, 분석, 제공하는 전 과정이라고 정의된다(통계청, 2023c). 통계청에서 5년마다 작성하는 「인구주택총조사」는 우리나라의 모든 인구와 지역, 소득 등 가구 및 인구특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각종 경제·사회 발전 계획의 수립 및 평가와 각종 학술연구, 민간부문의 경영계획수립에 활용하는 일반적인 표본추출틀이며(여성가족부, 2018: 19) 가구(개인포함)대상 조사통계 302종(2022년 11월 기준) 중 233종(77.2%)이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모집단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통계청, 2023c).

앞서 실시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또한 각 조사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가용한 최신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모집단으로 삼아 표본추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에 5년 주기로 실시되던 「인구주택총조사」는 2015년 이후부터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모집단 역할을 수행하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가 기존과 같이 5년 단위로 집계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11월을 기준으로 각종 행정자료를 연계 및 보완한 후 집계된 자료를 공표하는 형식으로 「인구주택총조사」 자료가 공표되고 있다(통계청, 2023c).

2023년 11월을 기준으로 가장 최신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는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이며, 이를 기반으로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위한 표본을 설계하고자 한다.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는 2022년 11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15개 기관과 400여 대학의 주민등록부, 외국인등록부, 건축물대장, 학적부 등 27종의 행정자료를 통계적 목적으로 연계·보완하여 집계한 등록센서스 방식의 결과인데, 등록센서스 방식의 경우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현장조사 없이 통계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통계자료의 생산이 이루어진다(통계청, 2023a).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또한 「인구주택총조사」를 모집단 자료로 삼아 표본추출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보다 정확한 표본추출 및 조사표 보완 등을 위해서는 실제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조사를 위한 충분한 준비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준비작업이 선행되지 않았던 2012년 및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의 경우 조사 과정에서 조사표 개발·보완, 표본분석, 실사진을 모두 1년 안에 진행

되도록 기획되어 조사 일정이 매우 바쁘게 진행된 바 있다(김은지 외, 2017: 3). 그와 같은 어려움을 보완하고자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부터는 실제 조사가 진행되기 전에 이전에 조사표 개발과 표본분석을 사전연구를 통해 미리 수행함으로써 조사의 안정성을 높이고 충분한 실사기간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거울삼아 2024년에 수행될 다섯 번째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의 안정적 실시를 위해서 본 연구를 통해 가용한 최신 모집단 자료를 이용한 표본설계, 조사표 검토 및 관련 통계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나. 연구내용

본 연구는 다음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우선 「2024년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의 결과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실태와 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치를 제공한다. 자녀 돌봄, 소득 및 지출, 전 배우자와의 관계 및 양육비, 경제활동, 건강, 주거환경, 생활세계 및 사회적 지지망 등 다차원적인 생활세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며, 한부모가족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 이용경험과 정책욕구를 파악한다. 조사항목은 제1차~제4차 조사에서 조사된 항목을 충실하게 조사하되, 시의성이 있는 문항을 추가하고 응답률이 지나치게 낮은 문항은 삭제하는 등 조사내용을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재검토를 위해 본 조사를 위한 사전연구(배호중 외, 2023a)의 연구결과를 참고하였다.

조사는 전국의 한부모가족을 대표할 수 있도록 표본설계 후 사후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이후 기술되는 표는 제1차~제4차 조사분석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로 총량제시 이후 주요 변수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분포를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및 한부모가족을 둘러싼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청소년한부모 지원사업 및 기타 한부모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는 다부처의 다양한 정책을 분석, 검토하였고, 향후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표 Ⅰ-1-3〉 연도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비교(2015년, 2018년, 2021년)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일반 특성	• 평균연령: 43.1세 • 이혼(77.1%)〉사별(15.8%)〉기타(7.1%) • 평균 1.6명의 자녀 양육	• 평균연령: 43.1세 • 이혼(77.6%)〉사별(15.4%)〉기타(7.0%) • 평균 1.5명의 자녀 양육	• 평균연령: 43.6세 • 이혼(81.6%)〉사별(11.6)〉기타(6.8%) • 평균 1.5명의 자녀 양육
가구구성	• 모자가구(43.7%)〉부자가구(19.8%)〉모자+기타가구(17.2%)〉부자+기타가구(15.1%) 순	• 모자가구(51.6%)〉부자가구(21.1%)〉모자+기타가구(13.9%)〉부자+기타가구(13.5%) 순	• 모자가구(53.4%)〉부자가구(20.7%)〉모자+기타가구(14.0%)〉부자+기타가구(11.9%) 순
소득	• 월평균소득: 189.6만원 (전체 가구 소득 대비 58.0% 수준)	• 월평균소득: 219.6만원 (전체 가구 소득 대비 56.5% 수준)	• 월평균소득: 245.3만원 (전체 가구 소득 대비 58.8% 수준)
경제활동	• 87.4%는 취업 중 • 상용근로자(48.0%), 임시/일용근로자(36.7%),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15.3%)	• 84.2%는 취업 중 • 상용근로자(52.4%), 임시/일용근로자(30.8%),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16.7%)	• 77.7%는 취업 중 • 상용근로자(49.2%), 임시/일용근로자(33.7%),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17.1%)
주거형태	• 공공임대(11.4%), 자가(21.2%), 전세(22.6%), 월세(28.4%) 등	• 공공임대(24.5%), 자가(24.1%), 전세(16.4%), 월세(24.5%) 등	• 공공임대(17.7%), 자가(20.7%), 전세(23.6%), 월세(27.8%) 등
자녀양육	• 미취학 자녀 돌봄을 위한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시설보육 이용률: 87.6% • 초등자녀의 돌봄교실·방과후 교실 이용률: 47.0%	• 미취학 자녀 돌봄을 위한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시설보육 이용률: 86.1% • 초등자녀의 돌봄교실·방과후 교실 이용률: 53.9%	• 미취학 자녀 돌봄을 위한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시설보육 이용률: 84.0% • 초등자녀의 돌봄교실·방과후 교실 이용률: 48.4%
지원제도 수급 현황	•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받고 있음: 13.5%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받고 있음: 25.7%	•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받고 있음: 32.8%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받고 있음: 25.4%	•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받고 있음: 45.8%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받고 있음: 30.7%
양육비 이행 현황	• 양육비 법적 채권이 있는 이혼·미혼 한부모 중 지난 1년간 실제 한 번이라도 지급을 받은 적 있는 비율: 72.7% (정기지급: 55.1%, 부정기지급: 17.6%) • 양육비 청구소송 경험: 6.7%	•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음: 78.8% (→한 번도 받은 적 없음: 73.1%, 최근에 받지 못함: 5.7%) • 양육비 청구소송 경험: 7.6%	•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음: 80.7% (→한 번도 받은 적 없음: 72.1%, 최근에 받지 못함: 8.6%) • 양육비 청구소송 경험: 9.5%

자료: 김은지 외(2015), 김은지 외(2018). 배호중 외(2021)

2. 조사대상 및 조사내용

가. 조사개요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의 조사개요는 다음과 같다. 기준시점은 2024년 6월 1일 0시로, 조사기간은 2024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이루어졌다. 만18세 이하 자녀[4]가 있는 전국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부자가족)의 한부모 3,31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1:1 가구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모자가족'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로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을, '부자가족'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로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으로 정의하여 조사대상으로 삼았으며, 배우자가 현재 집에 같이 살지 않더라도 직업, 학업, 자녀교육, 장기여행 등의 사유로 타지역에 살고 있는 경우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이므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본추출틀은 그간의 조사(「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및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등)와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동일한 방식으로 표본설계를 실시하였으며, 인구 및 가구 분포를 살피기에 적합한 최신의 자료 '2022년 인구총조사(통계청)' 자료를 이용해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위한 표본을 설계하였다. 표집방법은 이전의 조사와 마찬가지로 지역별 및 가구유형별로 한부모가구 수에 비례하여 조사지점을 추출하고 각 조사지점에서 적격가구를 선정하여 가구 내 한부모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다단계층화추출법을 활용하였다. 조사내용은 자녀 돌봄, 생활세계 및 사회적 지지망, 경제활동, 건강, 소득 및 지출, 자녀의 비양육부모와의 관계 및 양육비, 주거환경, 지원사업 등 8개 분야에 대해 18개 항목, 143개 세부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의 주관기관은 여성가족부로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연구를 전담하였고, 실사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를 통해 이루어졌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6조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통계법 제18조 제1항에 의해 승인된 통계(승인번호 제 154016호)이다.

---

4) 2015년까지는 통계청의 공식 집계 없이 모집단 분석을 통해 대상자를 추출했기 때문에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대상에 최대한 유사하도록 자녀연령은 17세까지로 하고, 18세는 취학인 경우만 포함하였다. 그러나 통계청에서 2015년부터 '등록센서스' 집계를 통해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구 수를 집계함에 따라, 이번 조사부터 18세 이하 전체인 경우를 모집단으로 하였다(김은지외, 2017).

〈표 Ⅰ-2-1〉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조사개요

구 분	내 용
조사기간	2024년 6월 ~ 2024년 8월 (약 3개월)
조사대상	만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전국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부자가족) 가구주 3,315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1:1 가구방문 면접조사
조사주기	3년 주기
기준시점	2024년 6월 1일 0시
표본설계	- 표집틀: 통계청의 「2022년 등록센서스」에서 파악된 한부모가구의 지역별, 가구유형별 및 분포 활용 - 표집방법: 지역, 가구유형에 따른 층화추출
조사내용	조사내용(8개 분야/18개 항목/127개 세부항목) → 자녀 돌봄, 생활세계 및 사회적 지지망, 경제활동, 건강, 소득 및 지출, 자녀의 비양육부모와의 관계 및 양육비, 주거환경, 지원 사업 등
조사기관	- 주관기관 : 여성가족부 - 전담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조사기관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작성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6조(실태조사 등) -『통계법』 제15조(통계작성기관의 지정)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나. 조사내용

본 연구의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 돌봄 영역에 대해서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주요 정보와 자녀연령대별(미취학자녀/초등학생/중·고등학생)로 돌봄 유형과 양육의 어려움, 자녀가 혼자있는 시간 등을 물었다. 이 밖에 자녀가 혼자 있을 때 바라는 서비스나 자녀와 함께 여가활동을 하는 정도 등을 조사하였다.

둘째, 생활세계 및 사회적 지지망 영역에서는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 차별 경험, 한부모가 된 후 달라진 점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어 경제 활동 영역에서는 취업 여부를 비롯해 근로시간, 근로 소득 등 일자리와 관련된 특성을 살펴보았고, 비취업자를 대상으로는 구직 여부,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운 점, 직업훈련에 대해 질문하였다.

넷째, 건강 영역에서는 건강상태와 우울감 경험 정도, 병의원에 가지 못한 경험, 운동

빈도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다섯째, 소득 및 지출 영역에서는 월 평균 가구소득과 지출, 부담이 되는 지출 항목과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이와 함께 자동차 소유여부 및 현황(주된용도, 차종, 배기량, 연식)와 노후를 위한 경제적인 준비 여부/방법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였다.

여섯째, 자녀의 비양육부모와의 관계 및 양육비 영역에서는 결혼/동거의 시작 및 종료 시기와 이혼 방법, 양육권 여부 등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자녀 양육비 청구소송 경험 여부, 법적으로 결정된 양육비 지급 방식, 실제로 양육비를 받고 있는 형태, 양육비이행관리원 이용 의사 등을 조사하였고, 자녀와 비양육부모(전 배우자) 간 연락여부, 전배우자와의 연락 여부 등 전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도 포함하였다.

일곱째, 주거환경 영역에서는 거주형태와 주택면적 등 기본적인 주거환경과 함께 주거서비스 이용 정도에 대해 질문하였다. 여덟째, 정책욕구 영역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각각에 대해 지원 여부와 지원받는 급여, 탈수급 예상 기간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정보 획득 경로, 정책수요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질문하였다.

이러한 설명과 같이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는 8개 분야에 대해 19개 항목, 127개 세부항목을 질문하였다. 금번 조사에서 새롭게 등장하였거나 질문이나 응답항목이 변경된 것도 있지만 전반적인 구성은 2015년 및 2018년,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김은지 외, 2015; 김은지 외, 2018; 배호중 외, 2021)」와 유사하다.

〈표 Ⅰ-2-2〉「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조사내용

분야	항목	세부항목
Ⅰ. 자녀 돌봄	가족 구성원	1. 전체 가구원 수
		1-1. 한부모(=응답자)와의 관계
		1-2. 성별
		1-3. 연령
		2. 교육 정도
		3. 장애 여부
	미취학자녀	4. 돌봄 유형-미취학자녀(복수응답)
		5. 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
		6. 자녀가 혼자 있을 때 바라는 서비스
		7. 평균 양육비 지출
		8. 자녀양육의 어려움
	초등학생 자녀	9. 돌봄 유형-초등학생(복수응답)
		10. 자녀가 혼자있는 시간
		11. 자녀가 혼자있을 때 바라는 서비스
		12. 자녀양육의 어려움
		13. 평균 양육비 지출,
		14. 자녀와의 여가활동
	중·고등학생 자녀	15. 자녀가 혼자있는 시간
		16. 자녀양육의 어려움
		17. 평균 양육비 지출
		18. 자녀와의 여가활동
Ⅱ. 일상생활 및 사회적 지지	생활세계 및 사회적 지지망	19-1-①. 도움을 구할 사람/기관 유무: 식사준비, 장보기 청소 등 집안일
		19-2-①. 도움을 구할 사람/기관(복수응답): 식사준비, 장보기 청소 등 집안일
		19-1-②. 도움을 구할 사람/기관 유무: 갑자기 돈이 필요할 경우
		19-2-②. 도움을 구할 사람/기관(복수응답): 갑자기 돈이 필요할 경우
		19-1-③. 도움을 구할 사람/기관 유무: 몸이 아프거나 긴급한 일이 생길 경우
		19-2-③. 도움을 구할 사람/기관(복수응답): 몸이 아프거나 긴급한 일이 생길 경우
		19-1-④. 도움을 구할 사람/기관 유무: 아이가 아프거나 아이에게 긴급한 일이 생길 경우

분야	항목	세부항목
		19-2-④. 도움을 구할 사람/기관(복수응답): 아이가 아프거나 아이에게 긴급한 일이 생길 경우
		19-1-⑤. 도움을 구할 사람/기관 유무: 생활에 필요한 정보나 조언
		19-2-⑤. 도움을 구할 사람/기관(복수응답): 생활에 필요한 정보나 조언
		20-1-①. 부당한 일, 차별 경험-본인: 동네나 이웃주민
		20-1-②. 부당한 일, 차별 경험-본인: 학교나 보육시설
		20-1-③. 부당한 일, 차별 경험-본인: 가족 및 친척
		20-1-④. 부당한 일, 차별 경험-본인: 직장/일터
		20-1-⑤. 부당한 일, 차별 경험-본인: 공공기관
		20-2-①. 부당한 일, 차별 경험-자녀 관련: 동네나 이웃주민
		20-2-②. 부당한 일, 차별 경험-자녀 관련: 학교나 보육시설
		20-2-③. 부당한 일, 차별 경험-자녀 관련: 가족 및 친척
		21-①. 한부모가 된 후 달라진 점: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
		21-②. 한부모가 된 후 달라진 점: 부와 모의 역할을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겼다
		21-③. 한부모가 된 후 달라진 점: 형제/자매/친척과 멀어졌다
		21-④. 한부모가 된 후 달라진 점: 건강상태가 나빠졌다
		21-⑤. 한부모가 된 후 달라진 점: 미래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
		21-⑥. 한부모가 된 후 달라진 점: 자녀와 긴밀해졌다
Ⅲ. 경제 활동	직업 현황	22. 취업 여부
		22-1. 직업
		22-2. 종사상 지위
		22-3. 현재 직장 종사자 수
		22-4. 부업여부
		22-5. 근로시간-주업/부업
		22-6. 월평균 근로 소득
		22-7. 일주일 중 휴무 일수
		22-8. 직업을 구할 때 느낀 어려움
		22-9. 일을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
	구직현황	23. 구직 여부
		23-1. 구직 경로
		23-2.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운 점

분야	항목	세부항목
		23-3. 원하는 직장/일자리(종사상 지위)
		23-4. 일을 원하지 않는 이유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	24. 직업훈련 경험여부
		24-1. 교육훈련이 취업에 도움이 된 정도
		24-1-1.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
		24-2.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
Ⅳ. 건강	건강	25. 건강상태
		26-①. 우울감 경험 정도: 일하는 것에 대한 흥미나 재미
		26-②. 우울감 경험 정도: 우울감 혹은 절망감
		26-③. 우울감 경험 정도: 수면 관련
		26-④. 우울감 경험 정도: 피곤감 및 식욕 관련
		26-⑤. 우울감 경험 정도: 집중의 어려움
		26-⑥. 우울감 경험 정도: 불행하게 되었다는 느낌
		26-⑦. 우울감 경험 정도: 초조함 등
		26-⑧. 우울감 경험 정도: 스스로를 자해하는 생각들
		27. 우울감 해소방식
		28-①. 건강검진 여부: 본인부담 종합건강검진
		28-②. 건강검진 여부: 사업장 특수건강검진
		28-③. 건강검진 여부: 국민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28-④. 건강검진 여부: 무료건강검진
		28-⑤. 건강검진 여부: 기타
		29. 병의원에 가지 못한 경험
		29-1. 병의원에 가지 못한 이유
		30. 운동 빈도
Ⅴ. 소득 및 지출	소득 및 지출	31. 월 평균 가구소득
		32. 가구 주 소득원(복수응답)
		33-①. 가구 월 평균 지출: 식료품비
		33-②. 가구 월 평균 지출: 의료·신발·가정용품비
		33-③. 가구 월 평균 지출: 자녀교육비
		33-④. 가구 월 평균 지출: 자녀 외 가족의 교육비
		33-⑤. 가구 월 평균 지출: 주거 및 관리비
		33-⑥. 가구 월 평균 지출: 의료비

분야	항목	세부항목
		33-⑦. 가구 월 평균 지출: 통신비
		33-⑧. 가구 월 평균 지출: 교통비
		33-⑨. 가구 월 평균 지출: 차량유지비
		33-⑩. 가구 월 평균 지출: 문화생활비
		33-⑪. 가구 월 평균 지출: 기타
		34. 부담이 되는 지출 항목(복수응답)
		35-①. 자산 및 부채: 금융자산
		35-②. 자산 및 부채: 부동산
		35-③. 자산 및 부채: 부채
		35-1. 빚을 지게 된 이유
		36. 자동차 소유여부
		36-①. 소유한 자동차 현황: 주된용도
		36-②. 소유한 자동차 현황: 차종
		36-③. 소유한 자동차 현황: 배기량
		36-④. 소유한 자동차 현황: 연식
		37. 노후를 위한 경제적인 준비 여부
		37-1. 노후를 위한 경제적인 준비 방법(복수 응답)
Ⅵ. 자녀의 비양육부모와의 관계 및 양육비	결혼/동거 시작 및 종료 시기	38-①. 결혼/동거 시작 시기
		38-②. 결혼/동거 종료 시기
	이혼 상황	39. 이혼 방법
		40. 양육권 여부
	양육비	41.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경험 여부
		41-1.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지원 도움 여부
		42. 양육비 이행확보절차 진행 여부
		42-1. 양육비 이행확보절차가 양육비 수령에 도움 여부
		42-2.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도움 여부
		43. 법적으로 결정된 양육비 지급 방식
		44-1. 양육비를 주고받지 않거나 비결정 여부
		44-2. 양육비 수급 경험 여부
		44. 받기로 한 양육비 자녀의 수
		45. 받기로 한 양육비 지급 금액

분야	항목	세부항목
		46. 실제 양육비 받은 형태
		46-1. 실제 받은 양육비 자녀의 수
		46-2. 전 배우자에게 받은 실제 양육비
		47.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개선 시급한 제도
		48. 양육비이행관리원 이용 경험 여부
		48-1.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 이용 의사
		48-2.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려는 이유
	전 배우자 관계	49. 자녀와 비양육부모(전 배우자) 간의 연락 여부
		50. 비양육부모(전 배우자)와의 연락 여부 및 연락 방식
Ⅶ. 주거환경	주거형태	51. 거주형태
		52. 주택면적
		53. 주거환경
	주거서비스	54-①. 주거서비스를 지원받은 경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54-②. 주거서비스를 지원받은 경험: 공공주택 지원
		54-③. 주거서비스를 지원받은 경험: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
		54-④. 주거서비스를 지원받은 경험: 주거비 지원
		54-1. 공공임대주택 등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
Ⅷ. 지원 사업	기초생활 보장 제도	55. 한부모가 된 후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여부
		55-1. 지원받는 급여
		55-2.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예상 기간
	한부모가족 지원	56. 한부모가 된 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여부
		56-1.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대상 예상 기간
		56-2. 지원사업에서 벗어나도 계속 받고싶은 지원
		56-3. 지원서비스 이용 시 불편했던 점
		57.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정보 획득 경로(복수응답)
		58. 필요하다고 느끼는 지원책(복수응답)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서도 2015년, 2018년, 2021년 조사의 연속성을 이어가되, 정책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가독성이 낮은 설문 및 보기항목들을 수정하는 등 부분적인 수정이 이루어졌다. 문항변경이나 추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에 제시하였다.

〈표 Ⅰ-2-3〉 2021년 및 2024년 조사표 간 변경 내용

변경 전(2021년)		변경 안(2024년)		변경사유	비고
번호	내용	번호	내용		
SQ3)	귀댁의 가구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SQ3)	귀하가 **현재 같이 살고 있는 가구의 구성**은 어떻게 되십니까?	•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이들에 초점을 두고 조사가 이루어짐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가구 구성'→'현재 같이 살고 있는 가구의 구성'으로 부연	문항 수정
SQ3)	① 모(본인)+자녀 ② 모(본인)+자녀+본인의 형제/자매 ~ ⑩ 조부모(본인)+손자녀 ⑪ 기타(적을 것:) ※ ①~⑧응답자: 조사 진행, ⑨~⑪: 조사 중단	SQ3)	① 모(본인)+자녀 ② 모(본인)+자녀+기타 가구원(조부모, 이모, 삼촌 등) ③ 부(본인)+자녀 ④ 부(본인)+자녀+기타 가구원(조부모, 이모, 삼촌 등) ⑤ 조부 또는 조모(본인)+손자녀 ⑥ 조부 또는 조모(본인)+손자녀+기타 가구원(이모, 삼촌 등) ⑦ 기타(적을 것 : _____) ※ ①~④응답자: 조사 진행, ⑤~⑦: 조사 중단	• 적격 조사대상자(한부모가족)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인데 지나치게 세세하게 구분하여 조사하는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몇 가지 항목의 경우 응답률이 저조해 범주를 합침	문항 수정
문2)	귀댁에서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에 대해 **본인과의 관계, 연령, 성별, 장애여부, 취업여부, 교육정도**를 각각 말씀해 주십시오.	문1)	현재 귀댁에서 함께 살고 있는 가구 구성원 각각에 대해 본인 포함하여 **응답자 본인과의 관계, 성별, 연령**을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 가족구성원 모두의 장애여부, 취업여부, 교육정도를 묻는 것은 활용도에 비해 응답자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판단	문항 수정
-	-	문2)	귀하께서는 정규 교육을 어디까지 받았습니까?	• 가구원 전체의 교육수준을 묻던 것에서 응답자 본인의 교육수준만 묻는 것으로 변경	문항 추가
-	-	문2-1)	해당 학교를 마치셨습니까? 이수 여부를 응답해 주세요.	• 상동	문항 추가
-	-	문3)	귀하께서는 장애를 가지고 계십니까?	• 가구원 전체의 장애여부 묻던 것에서 응답자 본인의 장애여부만 묻는 것으로 변경	문항 추가

변경 전(2021년)		변경 안(2024년)		변경사유	비고
번호	내용	번호	내용		
문3-1)	'미취학 자녀를 보육시설,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에 대한 질문	-		• 문항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함의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	문항 삭제
문6)	'미취학 자녀양육과 관련한 영역별 어려움' 7가지 세부 문항	문7)	세부문항 가운데 2가지 삭제 - ②학습지도에 어려움이 있다 - ⑤자녀양육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세부문항 가운데 1가지 질문 수정 - ⑥ 자녀의 생활 지도에 어려움이 있다(교우관계 갈등, 미디어 중독, 부정적 식습관 등)→(4) 자녀의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다(친구관계 갈등, 미디어 중독, 부정적 식습관 등)	• 한부모가족에만 국한된 어려움은 아닐 것이며, 문항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함의가 크지 않다고 판단 • '교우관계→친구관계'로 보다 익숙한 표현으로 변경	하위문항 삭제 · 수정
문7-1)	'초등학생 자녀를 초등돌봄교실, 방과후교실이나 지역 아동센터에 보내지 않는 주된 이유'에 대한 질문	-		• 문항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함의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	문항 삭제
문9)	'초등학생 자녀양육과 관련한 영역별 어려움' 7가지 세부 문항		세부문항 가운데 2가지 삭제 - ⑤ 자녀양육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 ⑦ 자녀의 이성 및 성문제로 어려움이 있다 세부문항 가운데 1가지 질문 수정 - ⑥ 자녀의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다(학교폭력, 음주, 흡연 등)→(5) 자녀의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다(이성, 학교폭력, 음주, 흡연 등)	• 문항 간 중복 가능성이 있어 지나치게 세분화 된 문항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함의가 크지 않다고 판단 • 기존('21년 조사)의 ⑥+⑦문항 →'24년 조사의 "(5) 자녀의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다(이성, 학교폭력, 음주, 흡연 등)"로 병합	하위문항 삭제 · 수정
문10)	한부모가 된 후, 초등학생 자녀에게 일어난 변화			• 문항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함의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	문항 삭제
문11)	초등학생 자녀와의 평균 대화시간			• 설문을 통해 도출한 결과의 활용도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문항 삭제

변경 전(2021년)		변경 안(2024년)		변경사유	비고
번호	내용	번호	내용		
문12)	'초등학생 자녀와의 여가활동' 하위문항 중 일부 삭제 - ②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관람			• 매우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일(연평균 0.5회 미만)로 조사의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	하위문항 삭제
문13)	중·고등학생 자녀가 평일 기준 보호자 없이 혼자 보내는 시간			• 중·고등학생 자녀까지 보호자 없이 혼자 보내는 시간을 묻는 것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	문항 삭제
문15)	'중·고등학생 자녀양육과 관련한 영역별 어려움' 8가지 세부 문항		세부문항 가운데 2가지 삭제 - ⑤ 자녀양육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 ⑦ 자녀의 이성 및 성문제로 어려움이 있다 세부문항 가운데 1가지 질문 수정 - ⑥ 자녀의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다(학교폭력, 음주, 흡연 등)→(5) 자녀의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다(이성, 학교폭력, 음주, 흡연 등)	• 문항 간 중복 가능성이 있어 지나치게 세분화된 문항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함의가 크지 않다고 판단 • 기존('21년 조사)의 ⑥+⑦문항 →'24년 조사의 "(5) 자녀의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다(이성, 학교폭력, 음주, 흡연 등)"로 병합	하위문항 삭제 · 수정
문16)	한부모가 된 후,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일어난 변화			• 문항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함의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	문항 삭제
문17)	중·고등학생 자녀와의 평균 대화시간			• 설문을 통해 도출한 결과의 활용도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문항 삭제
문18)	하위문항 중 일부 삭제 - ②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관람			• 매우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일로 조사의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	하위문항 삭제
문19)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관련 갈등·문제			• 질문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정기통계품질진단)과 함께 설문을 통해 도출한 결과라 활용도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문항 삭제

변경 전(2021년)		변경 안(2024년)		변경사유	비고
번호	내용	번호	내용		
문20)	자녀에 대한 생각			• 문항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함의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	문항 삭제
문21)	평일 기준 특성별 활동에 할애한 시간			• 응답자들의 응답에 들어가는 고민이나 노력에 비해 문항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함의가 크지 않다고 판단	문항 삭제
문22)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 (문22-1~문22-4)	문16)	'도움처 유무(16-1)'와 도움처가 있다고 응답한 이들에게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16-2)'으로 나누어 물음	• 도움처 유무와 그 대상을 나눠서 묻는 것이 합당함	문항 수정
문23-2)	한부모가족으로서의 부당한 일이나 차별 경험 중 '자녀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세요	17-2)	'자녀와 관련'해서 묻는 것으로 변경	• 자녀의 입장에서 응답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이를 자녀와 관련한 일에서 경험한 것을 묻는 것으로 변경함.	문항 수정
문24)	하위문항 2가지 삭제 - ③ 자녀양육 등 집안일의 부담이 증가하였다 - ⑧ 일가 친척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문18)		•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녀의 성장단계에 따른 것일 수도 있는 등 짧은 문장을 통해 조사를 하기에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	하위문항 삭제
문25-1)	'현 시점', '**한부모가족이 된 당시', '한부모가족이 되기 1년 전**'에서의 경제활동 여부를 물음	문19)	'현 시점'에서의 경제활동 여부만 물음	• 응답자별로 한부모가 된 시점이 다른 만큼 '한부모가족이 된 당시', '한부모가족이 되기 1년 전'은 비교의 대상으로 활용하기도 적합하지 않고, 응답자의 응답에도 어려움이 예상되어 해당 시점에 대한 질문은 삭제	하위문항 삭제
문25-2)	'현 시점', '**한부모가족이 된 당시', '한부모가족이 되기 1년 전**'에서의 직종을 물음	19-1)	'현 시점'에서의 직종만 물음		
문25-3)	'현 시점', '**한부모가족이 된 당시', '한부모가족이 되기 1년 전**'에서의 종사상 지위를 물음	19-1)	'현 시점'에서의 종사상 지위만 물음		
문26-1)	재직 중인 직장(사업체)의 업종		삭제	• 업종까지 묻는 것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함의가 크지 않다고 판단	문항 삭제

변경 전(2021년)		변경 안(2024년)		변경사유	비고
번호	내용	번호	내용		
문26-2)	직장(사업체)의 종사자 수	19-3)	보기가 지나치게 세분화 되어 있어 몇 가지 범주로 합침. -① 1~4인/② 5~9인/③ 10~99인/④ 100~299인/⑤ 300인 이상	• 지나치게 세분화된 보기로 응답의 어려움 가중 • 3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에 재직 중인 이들은 극히 적어 보기의 범주를 묶음	보기 수정
문28)	귀하가 직장(사업체)에서 벌어들인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19-6)	최근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귀하가 직장(사업체)에서 벌어들인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제외하고 귀하가 받으시는 실제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최근 1년 기준' 제시 •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제외한 실제 소득 금액 기준' 문항에 명시	문항 수정
문32-3)	현재 귀하는 어떤 지위의 일자리를 가장 원하십니까?	20-3)	현재 귀하는 어떤 종사상 지위의 일자리를 가장 원하십니까?	• '지위→종사상 지위'임을 분명히 함	문항 수정
문37)	모성보호제도		삭제	• 한부모가 된 시점이 개인별로 다른만큼 비교 등의 목적으로 활용 불가 • 제도활용 경험이 극히 낮게 나와 통계치로의 활용 가능성이 낮음	문항 삭제
문37-1)	모성보호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		삭제		문항 삭제
문38)	평소에 귀하의 건강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문22)	평소에 귀하의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질문 변경	문항 수정
문39)	주관적으로 판단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제한 여부		삭제	• 문항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함의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	문항 삭제
문40)	건강관련 생각 중 세부문항 일부 병합(9개 세부문항→8개 세부문항) - ④ 피곤감, 기력이 저하됨+⑤ 식욕 저하 혹은 과식→(4) 피곤감(기력이 저하됨) 또는 식욕 저하 혹은 과식	문23)	('21년 조사) ④ 피곤감, 기력이 저하됨+⑤ 식욕 저하 혹은 과식→('24년 조사) (4) 피곤감(기력이 저하됨) 또는 식욕 저하 혹은 과식	• 문항의 수를 줄이고자 노력함	세부문항 삭제

변경 전(2021년)		변경 안(2024년)		변경사유	비고
번호	내용	번호	내용		
문42-1)	미충족의료 이유를 묻는 항목 가운데 보기 일부 삭제 - 5. 병의원 등에서 오래 기다리기 싫어서, 6. 증상이 가벼워서, 7. 큰 병이 있을까봐 겁이 나서: 삭제	26-1)		• 지나치게 세부적이거나 응답률이 낮은 보기 삭제	보기문항 삭제
문43)	운동습관에 대한 질문에서 보기 일부 삭제	문27)	('21년 보기 항목) 1. 전혀 하지 않는다~9. 매일 ('24년 보기항목) ① 전혀 하지 않는다~⑥ 매일	• 지나치게 세부적이거나 응답률이 낮은 보기 삭제	보기문항 삭제
문49)	자동차 관련 질문	문33	- (1) 주된용도 응답 보기 변경(1. 가계용 2. 생업용 → ① 가계용 ② 사업용) - '(2) 차종'에 대한 질문 추가 - '(3) 배기량'에 대해 기존의 주관식 문항에서 범주형 응답항목 중 선택하는 형태로 변경 - '현재시가'에 대한 질문 삭제 - '(4) 연식'에 대한 질문 변경	• 차량과 관련해 응답에 어려움을 겪도록 설계되어 있어 가급적 쉽게 이를 응답할 수 있도록 변경 • '차종', '연식'에 대한 질문 수정	세부문항 삭제 · 변경
문52)	한부모가 된 시기에 자녀의 비양육부모(전 배우자)의 나이		삭제	• 전 배우자에 대한 질문은 응답의 어려움(현 상황을 잘 모름, 고통스러운 기억 등)이 특히 심해 대부분 삭제함	문항삭제
문53)	자녀의 비양육부모(전 배우자)의 학력		삭제		문항삭제
문54)	자녀의 비양육부모(전 배우자)의 종사상 지위		삭제		문항삭제
문55)	자녀의 비양육부모(전 배우자)의 현재 종사상 지위		삭제		문항삭제
문57)	친권 보유 여부		삭제	•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응답결과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 '양육권'에 대한 질문만 남김	문항삭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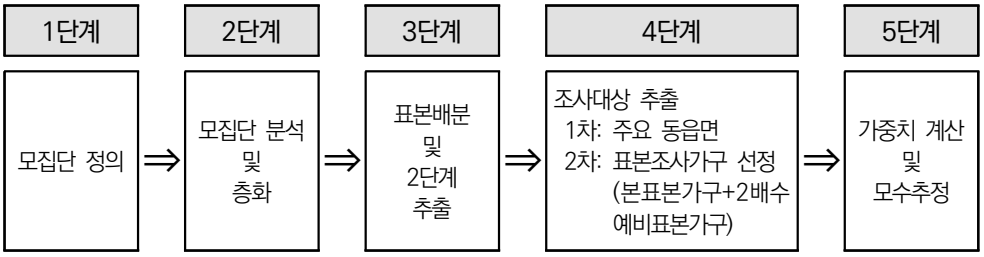
변경 전(2021년)		변경 안(2024년)		변경사유	비고
번호	내용	번호	내용		
		40-1)	자녀의 비양육부모(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주고받지 않기로 하거나 법적으로 결정된 바 없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양육비를 주고받지 않는 이유를 추가적으로 살핌	문항추가
문61-1)	최근 1년 동안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은 경험	40-2)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은 경험 →'최근 1년 동안' 삭제	• 양육비계에서 기간에 한정하지 않고 양육비 받은 경험을 논하는 경우가 많음	문항 수정
문62)	**최근 1년 동안** 양육비를 받기로 한 **자녀의 수**	문41)	양육비를 받기로 한 **자녀의 수** →'최근 1년 동안' 삭제		문항 수정
문62-1)	최근 1년 동안 귀하가 해당 자녀들에 대해 법적으로 받기로 한 양육비	문42)	귀하가 해당 자녀들에 대해 법적으로 받기로 한 양육비 →'최근 1년 동안' 삭제		문항 수정
문63)	최근 1년 동안 실제로 받은 양육비의 지급 형태는 어떠합니까?	문43)	실제로 받은 양육비의 지급 형태는 어떠합니까? →'최근 1년 동안' 삭제		문항 수정
문63-1)	최근 1년 동안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실제로 받은 자녀의 수	43-1)	최근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실제로 받은 자녀의 수 →'최근 1년 동안' 삭제		문항 수정
문63-2)	최근 1년 동안 양육비로 실제 받은 금액	43-2)	양육비로 실제 받은 금액 →'최근 1년 동안' 삭제		문항 수정
문64)	최근 1년 보다 이전 시기에 양육비를 받은 경험		삭제	• 양육비계에서 기간에 한정하지 않고 양육비 받은 경험을 논하는 경우가 많아 1년 이전에 양육비를 받은 경험에 대해 묻는 문항 삭제	문항삭제
문65)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가장 개선이 필요한 제도		- 각 제도의 설명 추가 제시	• 응답자들의 편의제고를 위해 제도에 대한 설명 추가	기타
문66)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대한 인지도		삭제	• 문항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함의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	문항 삭제

변경 전(2021년)		변경 안(2024년)		변경사유	비고
번호	내용	번호	내용		
문69)	자녀들은 귀하가 한부모가 된 과정(이혼, 별거 등)에 대해 인지 정도		삭제	• 응답의 어려움에 비해 문항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함의가 크지 않다고 판단	문항 삭제
문72)	자녀의 비양육부모(전 배우자)와 동거하는 자녀			• 문항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함의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	문항 삭제
문74)	거주 중인 주택형태		삭제	• 문항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함의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	문항 삭제
문75)	거주 중인 주택위치		삭제	• 문항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함의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	문항 삭제
문78-1)	공공임대주택 등을 현재 이용하지 않는 이유	문51)	보기 병합 - ('21년) 6. 입주하고 싶지만 신청자격에서 불리하거나 탈락해서 7. 소득이나 자산의 증가로 입주자격을 상실해서 → ('24년)⑥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심사에서 탈락해서	• 유사해 보이는 보기 항목 두 가지를 하나로 합침	보기 수정
문79)	한부모가 된 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 경험	문52)	문항용어 수정 - ('21)기초생활보장제도 → ('24)기초생활 보장 지원 서비스 - '기초생활 보장 지원 서비스'에 대한 설명 추가	• '제도'라는 용어가 다소 포괄적으로 비치는 등을 감안해 응답자의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원 서비스'로 용어 변경	문항 수정
문79-1)	도움받고 있는 급여의 종류	52-1)	각각의 하위문항(①생계급여, ②의료급여, ③주거급여, ④교육급여)에 대한 지원여부를 묻던 것을 받고 있는 제도의 종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변경	• 문항을 간결하게 변경	문항 수정
문79-3)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지 않게 된 가장 큰 이유		삭제	• 문항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함의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	문항 삭제

변경 전(2021년)		변경 안(2024년)		변경사유	비고
번호	내용	번호	내용		
문79-4)	더 이상 받지 않게 된 기초생활보장의 여러 지원 중 생계비를 제외하고 가장 필요한 것		삭제	• 문항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함의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	문항 삭제
문80)	한부모가 된 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법(사업)**의 도움 경험	문52)	문항용어 수정 - ('21)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법(사업) → ('24)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에 대한 설명 수정	• '**지원법(사업)**'이라는 용어가 다소 포괄적으로 비치는 등을 감안해 응답자의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원 서비스'로 용어 변경	문항 수정
문80-3)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된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 여러 지원 중 가장 필요한 것		삭제	• 문항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함의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	문항 삭제
문81)	한부모 관련 지원서비스를 이용할 때 가장 불편했던 점		보기 중 일부 삭제 - ('21년) 2.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해야하는 어려움 →('24년) 해당 보기 삭제	• 응답비율이나 다른 보기와의 배타성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보기는 삭제하는 것이 보다 나을 것으로 판단	보기 수정
문84) ~ 문90)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변화' 관련 문항		삭제	• 코로나19 엔데믹 선언으로 코로나19 관련 문항 삭제	문항 삭제

다. 표본설계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의 표본설계는 기존의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서 시행하였던 방식과 유사하게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먼저 모집단을 정의한 후, 정의된 모집단을 분석 및 층화하여, 층화된 모집단에 따라 표본을 배분하였다. 이어 배분된 표본에 따라 조사지점을 추출한 후 선정된 표본지점 내 조사대상가구를 선정하였고, 이후 가중치를 계산하고 모수를 추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배호중 외(2023)의 연구를 통해 진행되었다. 최종 표본 3,300명에 대한 표본설계의 보다 구체적인 과정 및 조사 설계 개요는 다음과 같다.



[그림 Ⅰ-2-1] 표본설계 과정

〈표 Ⅰ-2-4〉「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조사 설계 개요

- 한부모의 개념: 미혼자녀를 양육하는 법적으로 미혼, 이혼 및 사별인 모 또는 부 (원거리 거주 부부 제외)
- 모집단: 만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전국 한부모 가구
- 조사 대상: 만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한부모 가구주
- 표본 크기: 3,300가구
- 조사 방법: 조사원에 의한 가구방문 면접조사
- 표본 할당: 층별(시도별, 가족유형별) 우선배분 후 비례배분

첫째, 목표 모집단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전국의 한부모가족이다.

둘째, 조사 모집단은 '인구총조사(통계청)'를 기준으로 하여 전국의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부자가족)을 조사 모집단으로 정의하였다. 이때 모자가족은 "모+미혼자녀"와 '모+미성년 자녀'와 '모+미성년 자녀+기타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 중에서 만18세 미만의 자녀를 포함한 가족이고 부자가족은 '부+미성년 자녀'와 '부+미성년 자녀+기타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 중에서 만18세 미만의 자녀를 포함한 가족을 의미한다. 목표 모집단이 한부모가족이므로 「2022년 인구총조사」를 기준으로 기준으로 가구원 중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구(모자가구, 부자가구)를 선별하여 모집단을 구성하였다.

셋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제시된 한부모가족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의미한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 모자·부자가족은 모 또는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인 가족이다. 이때 모, 부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미혼자(사실혼 제외),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배우자의 장기복역 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를 의미한다. 또한 아동은 만18세 미만인 자녀이다.

이와 같은 모집단을 기준으로 표본을 추출하되, 표본추출틀은 「2022년 인구총조사」에서 동읍면을 한 개의 조사지점으로 정의하여 사용하였다. 이를 간략히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Ⅰ-2-5〉「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모집단(요약)

o 목표 모집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전국 한부모가족

o 조사 모집단
- 2022년 「인구총조사(통계청)」를 기준으로 가구원 중 만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구만을 선별하여 조사 모집단을 구성함

※ **'모자가족'**은 '모+미성년 자녀'와 '모+미성년 자녀+기타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를 포함한 가족을, **'부자가족'**은 '부+미성년 자녀'와 '부+미성년 자녀+기타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를 포함한 가족을 의미함

o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의 정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참고
- 한부모가족: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의미함.
- 모자/부자가족: 모/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인 가족
- 모, 부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 미혼자(사실혼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장기복역 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아동: 만18세 미만

통계청의 '2022년 인구총조사' 원자료 분석을 통해 하여 광역자치단체별로 한부모가구의 분포[5]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모자가족, 부자가족의 한부모 가구는 321,983가구로 집계되었는데 이러한 수치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약 2,025만 가구)의 약 1.59%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43,328가구, 13.46%)과 경기(83,819가구, 26.03%), 인천(22,004가구, 6.83%) 등

5) 통계생산단위는 '가족유형별(모자/부자가족)'이지만 현장조사관리의 편의성과 통계생산기관(여성가족부)의 정책자료 활용도를 고려하여 '시도별'을 층화변수로 선정하여 표본배분 시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수도권 지역이 절반에 가까운 46.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종 지역이 0.70%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가족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모자가족이 68.38%로 부자가족(31.62%) 보다 두 배 이상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Ⅰ-2-6〉 '2022년 인구총조사(통계청)'로 살펴본 한부모가족 모집단 분포

구분	모자가족		부자가족		합계		
	가구 수	가구원(명)	가구 수	가구원(명)	가구 수	가구원(명)	구성비
전국	**220,178 (68.38%)**	**644,927 (66.92%)**	**101,805 (31.62%)**	**318,784 (33.08%)**	**321,983 (100.0%)**	**963,711 (100.0%)**	**100.00%**
서울	31,379	92,302	11,949	37,779	43,328	130,081	13.46%
부산	15,038	43,744	5,969	18,764	21,007	62,508	6.52%
대구	10,541	30,294	4,620	14,300	15,161	44,594	4.71%
인천	15,531	45,863	6,473	20,441	22,004	66,304	6.83%
광주	8,206	23,812	3,268	9,816	11,474	33,628	3.56%
대전	7,185	20,752	3,093	9,506	10,278	30,258	3.19%
울산	4,734	13,594	2,609	7,951	7,343	21,545	2.28%
세종	1,611	4,601	645	2,033	2,256	6,634	0.70%
경기	57,322	170,617	26,497	83,988	83,819	254,605	26.03%
강원	6,801	19,445	3,516	11,003	10,317	30,448	3.20%
충북	7,401	21,572	3,795	11,800	11,196	33,372	3.48%
충남	9,031	26,365	5,415	17,210	14,446	43,575	4.49%
전북	8,704	25,512	4,112	12,829	12,816	38,341	3.98%
전남	7,208	21,199	4,246	13,319	11,454	34,518	3.56%
경북	10,146	28,823	5,772	17,616	15,918	46,439	4.94%
경남	15,153	44,035	7,957	24,423	23,110	68,458	7.18%
제주	4,187	12,397	1,869	6,006	6,056	18,403	1.88%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과(만18세 미만 자녀 기준으로 가구/가구원 수 별도 집계)

이를 염두에 두고 실제로 표본을 추출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본의 크기는 전체 예산 및 조사 현실성 등을 고려해서 전국의 3,300가구를 목표 표본크기로 설정하였다.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데이터의 가구소득에 대한 분석결과 한부모 가족유형별 상대표준오차가 1.20%~2.34%이므로 표본규모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Ⅰ-2-7〉 2021년 조사 한부모 가족유형별 가구소득 분석결과

구분	표본크기	평균(만원)	표준오차	상대표준오차(%)
모자	1,956	206.8012	2.473677	1.20
모자+기타	249	265.7169	6.228721	2.34
부자	881	262.8757	3.385373	1.29
부자+기타	214	289.3689	6.045097	2.09
합계	3,300	236.4732	2.570410	1.09

표본배분(표본할당)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지역별로 한부모가족 유형별 비율을 고려하여 표본 대표성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가족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모자가족의 비중이 높으므로 부자가족을 일정 정도 포함하여 가구유형별, 시도별 기대표본오차가 10%p 수준(단, 그 수가 매우 적은 세종시와 제주도 예외)으로 될 수 있도록 수치적 시뮬레이션으로 적절한 배분안을 결정하였다. 표본할당은 총 세 가지의 안으로 살펴보았는데 우선할당 가구의 수를 늘려가면서 표본할당을 실시해보았는데 “표본할당안 Ⅰ(20+비례배분)”, “표본할당안 Ⅱ(30+비례배분)”, “표본할당안 Ⅲ(40+비례배분)”의 세 가지의 표본할당안을 통해 표본을 배분해 보았다.

첫 번째 ‘표본할당안Ⅰ(20+비례배분)’은 시도별 안정적인 통계생산을 위해 각 층별로 20가구를 우선할당한 후에 나머지를 비례배분하고 지역(시도) 내의 가족유형별은 비례배분법으로 할당하였다. 그 결과와 시도별 기대표본오차를 다음의 표에 정리하였다.

〈표 Ⅰ-2-8〉 시도별 20가구 우선할당 후 비례배분한 결과(=표본할당안 Ⅰ)

구분	모집단 분포				할당된 표본분포				기대 표본 오차
	모자가족	부자가족	합계	구성비(%)	모자가족	부자가족	합계	구성비(%)	
전국	**220,178**	**101,805**	**321,983**	**100.00**	**2,194**	**1,106**	**3,300**	**100.00**	**1.73**
서울	31,379	11,949	43,328	13.46	298	120	418	12.67	4.87
부산	15,038	5,969	21,007	6.52	148	65	213	6.45	6.82
대구	10,541	4,620	15,161	4.71	107	52	159	4.82	7.89
인천	15,531	6,473	22,004	6.83	153	69	222	6.73	6.68
광주	8,206	3,268	11,474	3.56	85	40	125	3.79	8.90
대전	7,185	3,093	10,278	3.19	76	38	114	3.45	9.31
울산	4,734	2,609	7,343	2.28	54	34	88	2.67	10.60
세종	1,611	645	2,256	0.70	25	16	41	1.24	15.47
경기	57,322	26,497	83,819	26.03	537	254	791	23.97	3.54
강원	6,801	3,516	10,317	3.20	73	42	115	3.48	9.27
충북	7,401	3,795	11,196	3.48	78	45	123	3.73	8.97
충남	9,031	5,415	14,446	4.49	93	60	153	4.64	8.04
전북	8,704	4,112	12,816	3.98	90	48	138	4.18	8.47
전남	7,208	4,246	11,454	3.56	76	49	125	3.79	8.90
경북	10,146	5,772	15,918	4.94	103	63	166	5.03	7.72
경남	15,153	7,957	23,110	7.18	149	83	232	7.03	6.53
제주	4,187	1,869	6,056	1.88	49	28	77	2.33	11.32

두 번째 '표본할당안2(30+비례배분)'는 시도별 안정적인 통계생산을 위해 각 층별로 30가구를 우선할당한 후에 나머지를 비례배분하고 시도내의 가족유형별은 비례배분법으로 할당하였다. 그 결과와 시도별 기대표본오차는 다음과 같다.

〈표 Ⅰ-2-9〉 시도별 30가구 우선할당 후 비례배분한 결과(=표본할당안 Ⅱ)

구분	모집단 분포				할당된 표본분포				기대 표본 오차
	모자가족	부자가족	합계	구성비(%)	모자가족	부자가족	합계	구성비(%)	
전국	**220,178**	**101,805**	**321,983**	**100.00**	**2,192**	**1,108**	**3,300**	**100.00**	**1.73**
서울	31,379	11,949	43,328	13.46	289	116	405	12.27	4.95
부산	15,038	5,969	21,007	6.52	147	65	212	6.42	6.83
대구	10,541	4,620	15,161	4.71	108	53	161	4.88	7.84
인천	15,531	6,473	22,004	6.83	152	69	221	6.70	6.69
광주	8,206	3,268	11,474	3.56	88	41	129	3.91	8.75
대전	7,185	3,093	10,278	3.19	79	40	119	3.61	9.11
울산	4,734	2,609	7,343	2.28	58	36	94	2.85	10.25
세종	1,611	645	2,256	0.70	31	19	50	1.52	13.98
경기	57,322	26,497	83,819	26.03	513	243	756	22.91	3.62
강원	6,801	3,516	10,317	3.20	75	44	119	3.61	9.11
충북	7,401	3,795	11,196	3.48	81	46	127	3.85	8.82
충남	9,031	5,415	14,446	4.49	94	61	155	4.70	7.99
전북	8,704	4,112	12,816	3.98	92	49	141	4.27	8.38
전남	7,208	4,246	11,454	3.56	79	51	130	3.94	8.72
경북	10,146	5,772	15,918	4.94	104	64	168	5.09	7.67
경남	15,153	7,957	23,110	7.18	148	82	230	6.97	6.56
제주	4,187	1,869	6,056	1.88	54	29	83	2.52	10.90

세 번째 '표본할당안3(40+비례배분)'은 시도별 안정적인 통계생산을 위해 각 층별로 40가구를 우선할당한 후에 나머지를 비례배분하고 시도내의 가족유형별은 비례배분법으로 할당하였다. 그 결과와 시도별 기대표본오차는 다음과 같다.

〈표 Ⅰ-2-10〉 시도별 40가구 우선할당 후 비례배분한 결과(=표본할당안 Ⅲ)

구분	모집단 분포				할당된 표본분포				기대 표본 오차
	모자가족	부자가족	합계	구성비(%)	모자가족	부자가족	합계	구성비(%)	
전국	**220,178**	**101,805**	**321,983**	**100.00**	**2,192**	**1,108**	**3,300**	**100.00**	**1.73**
서울	31,379	11,949	43,328	13.46	**280**	**113**	**393**	**11.91**	5.02
부산	15,038	5,969	21,007	6.52	**147**	**64**	**211**	**6.39**	6.85
대구	10,541	4,620	15,161	4.71	**109**	**54**	**163**	**4.94**	7.79
인천	15,531	6,473	22,004	6.83	**150**	**69**	**219**	**6.64**	6.72
광주	8,206	3,268	11,474	3.56	**91**	**42**	**133**	**4.03**	8.62
대전	7,185	3,093	10,278	3.19	**83**	**41**	**124**	**3.76**	8.93
울산	4,734	2,609	7,343	2.28	**62**	**38**	**100**	**3.03**	9.93
세종	1,611	645	2,256	0.70	**37**	**21**	**58**	**1.76**	12.96
경기	57,322	26,497	83,819	26.03	**490**	**232**	**722**	**21.88**	3.71
강원	6,801	3,516	10,317	3.20	**79**	**45**	**124**	**3.76**	8.93
충북	7,401	3,795	11,196	3.48	**83**	**48**	**131**	**3.97**	8.69
충남	9,031	5,415	14,446	4.49	**96**	**62**	**158**	**4.79**	7.91
전북	8,704	4,112	12,816	3.98	**94**	**50**	**144**	**4.36**	8.29
전남	7,208	4,246	11,454	3.56	**81**	**52**	**133**	**4.03**	8.62
경북	10,146	5,772	15,918	4.94	**106**	**64**	**170**	**5.15**	7.63
경남	15,153	7,957	23,110	7.18	**146**	**82**	**228**	**6.91**	6.59
제주	4,187	1,869	6,056	1.88	**58**	**31**	**89**	**2.70**	10.52

이와 같이 3가지 표본할당방안을 시도별 기대표본오차 크기의 분포특성을 비교하여 아래 표와 같이 간략히 정리하였다. 기대표본오차들의 분포 특성과 세종시와 제주도와 같이 규모가 작은 시도의 표본추출률의 편의성을 고려해서 “표본할당안3(40 우선할당 후 비례배분)”을 최적의 표본배분법으로 정하였으며 앞으로는 이를 기준으로 설명한다.

〈표 Ⅰ-2-11〉 3가지 표본할당방안의 비교

구분	표본할당안Ⅰ	표본할당안Ⅱ	표본할당안Ⅲ
평균	8.43	8.25	8.10
표준편차	2.64	2.32	2.09
범위	11.93	10.36	9.25

조사지점 선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1차추출단위(PSU: 동·읍·면)당 표본가구를 10가구로 정하고 시도별로 다음 표에 주어진 할당된 표본가족수를 10으로 나누어 필요한 1차추출단위 수를 계산하였다. 아래 표에는 시도별로 행정 동·읍·면의 개수와 할당된 표본동·읍·면 수를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행정동읍면 분포에서는 경기도가 540개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서울특별시(423개)였으며, 전체적으로 3,475개의 동읍면이 분포되었다. 할당된 표본동읍면(1차추출단위) 또한 행정동읍면 분포와 마찬가지로 경기도가 71개 동읍면으로 가장 많으며, 서울(44개)이 두 번째로 많았다. 세종시와 제주도는 각각 6개와 9개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1차추출단위인 표본 동·읍·면의 선정은 전국 3,475개 동·읍·면별로 한부모가족 수(모자가족 수와 부자가족 수)를 산출한 후에 표본 동·읍·면은 한부모가족 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추출법으로 선정하였다. 추출된 표본동읍면내에서 한부모 모자가족수와 부자가족수에 대한 분포를 계산한 후 본 표본가구 1개와 예비 표본가구 2가구를 선정하기 위해서 본 조사에서 활용하고자 한 방식인 '시도별 40가구 우선할당 후 비례배분'이 제시되어 있는 〈표 Ⅰ-2-10〉에 주어진 시도별 할당표본을 기준으로 3배수 표본가구를 산출하고 시도별과 동읍면별로 부자가구와 모자가구별로 비례배분법으로 표본조사대상 가구수를 할당한 후에 계산된 할당가구수를 계통추출법으로 선정하였다.

〈표 Ⅰ-2-12〉 시도별 행정동읍면수와 할당된 표본규모 및 표본동읍면수

시도	행정동읍면수	할당표본가족수			할당표본 동읍면수
		모자가족	부자가족	합계	
전국	**3,516**	**2,192**	**1,108**	**3,300**	**328**
서울	426	280	113	393	39
부산	205	147	64	211	21
대구	142	109	54	163	16
인천	155	150	69	219	22
광주	97	91	42	133	13
대전	82	83	41	124	12
울산	56	62	38	100	10
세종	22	37	21	58	6
경기	564	490	232	722	72
강원	188	79	45	124	12
충북	153	83	48	131	13
충남	208	96	62	158	16
전북	243	94	50	144	14
전남	297	81	52	133	13
경북	330	106	64	170	17
경남	305	146	82	228	23
제주	43	58	31	89	9

주: 행정동읍면 수는 2022년 11월 기준임(조사모집단 작성 시점과 동일하게 적용함).

가중치 계산과 모수추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표본조사에서 가중치는 조사된 표본 데이터의 분포와 모집단 분포의 구조를 일치시켜 모수추정에서 편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곱해주는 승수를 의미하며 최종가중치는 표본추출과정의 설계가중치, 조사과정의 무응답조정가중치와 사후층화보정 가중치들을 곱해서 계산할 수 있다.

• 설계 가중치
- 표본 동읍면에 대한 추출률의 역수와 표본동읍면에서 가구조사 추출률의 역수를 곱하여 산정

$$w_{1hi} = \frac{\sum_{i=1}^{N_h} M_{hi}}{n_h M_{hi}} \times \frac{M_{hi}}{m_{hi}}$$

- 위 식에서, n_h는 h층에 할당된 표본 동읍면수, N_h는 h층의 모집단 동읍면조사구 수, M_{hi}는 h층의 i동읍면 내의 한부모가구수, m_{hi}는 h층 내의 i동읍면 내의 표본 한부모 가구수를 나타냄

• 무응답 조정 계수
- 해당 지역 내 세부 층에서 조사 가구에 대한 설계가중치는 원칙적으로 동일하며, 무응답 조정은 시도별과 한부모가구유형 단위로 진행

$$w_{2hi} = \frac{m_{hi}}{r_{hi}}$$

- 위 식에서, m_{hi}는 hi층(시도별×한부모가구유형)내의 표본 가구수를 나타내며, r_{hi}는 hi층(시도별×한부모가구유형)내 실제 응답한 가구 수를 나타냄

• 사후층화 보정 계수
- 모집단과 표본의 구조가 유사하도록 시도별과 한부모 가구유형별 표본가중치를 반영한 분포와 목표 모집단의 분포를 동일하게 보정하는 가중치를 산정함.

• 최종가중치 = 설계가중치 × 무응답 조정 계수 × 사후층화 보정 계수

이어서 모수추정 과정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조사의 표본설계는 여러 가지 추출법을 혼합하여 설계된 복합표본설계 기법이므로 이에 적합한 모수추정식을 적용하였다.

• 모평균(모비율) 추정

$$\hat{\bar{Y}} = \frac{\sum_{h=1}^{H}\sum_{i=1}^{n_h}\sum_{j=1}^{m} w_{hij} y_{hij}}{\sum_{h=1}^{H}\sum_{i=1}^{n_h}\sum_{j=1}^{m} w_{hij}}$$

• 분산추정

$$\hat{V}(\hat{\bar{Y}}) = \sum_{h=1}^{H}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cdot} - \bar{e}_{h\cdot})^2$$

• $f_h = \frac{N_h}{n_h}$

• $\bar{e}_{h\cdot} = (\sum_{i=1}^{n_h} e_{hi\cdot})/n_h$

• 모평균에 대한 표준오차

$$\widehat{SE}(\hat{\bar{Y}}) = \sqrt{\hat{V}(\hat{\bar{Y}})}$$

• 모평균에 대한 상대표준오차(변동계수) 추정

$$\widehat{RSE}(\hat{\bar{Y}}) = \frac{\sqrt{\hat{V}(\hat{\bar{Y}})}}{\hat{\bar{Y}}} \times 100(\%)$$

조사 완료 후 모든 모수추정치와 분산추정치 및 상대표준오차(변동계수)의 계산은 복합표본설계 추정에 적합한 SAS의 PROC surveymeans/surveyfreq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생산된 통계치의 정확성과 타당성에 대해 점검해보았다. 통계자료 공표 시 또는 공표가 예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통계표 셀 내의 유효 표본크기가 너무 작거나 상대표준오차가 큰 경우 등 신뢰성이 높지 않은 경우(분류, 항목)에는 유사한 층을 통합하여 통계표를 작성해야 하며, 그 기준은 아래의 〈표 Ⅰ-2-13〉를 통해 제시된 통계청의 「표본설계 및 관리 지침」의 제10조(표본오차의 기준)를 따랐다.

〈표 Ⅰ-2-13〉 가구 통계 유의사항 표기 및 해석

구분		$RSE < 25\%$		$25\% \leq RSE < 50\%$	$50\% \leq RSE$
		$n \geq 10$	$n < 10$		
표기		표기 없음	*	*	**
	해석	신뢰도 높음	신뢰도 다소 낮음	신뢰도 다소 낮음	신뢰도 낮음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서는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 가중치를 도출하였으며, 모든 분석에서는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따라서 제Ⅱ장에서 제시되는 분석결과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을 밝힌다.

Ⅱ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41
2. 자녀돌봄 71
3. 소득 및 지출 138
4. 자녀의 비양육부모와의 관계 및 양육비 178
5. 경제활동 232
6. 건강 및 주거환경 290
7. 일상생활 및 사회적 지지 339
8. 정책욕구 375
9. 조사결과 요약 407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부모 응답자는 전체 3,315가구였다. 응답자의 연령분포는 40대 57.2%, 30대 이하 25.5%, 50대 이상 17.3%로 절반 이상이 40대였으며, 학력은 고졸 이하 50.3%, 대학 이상 46.7%, 중졸 이하 3.0%로 97.0%가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혼인 상태는 이혼 84.2%, 사별 10.4%, 기타 5.4% 순으로 이혼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가구 구성은 모자가구 53.5%, 부자가구 20.3%, 모자+기타 15.2%, 부자+기타 11.0%로 절반 이상이 모자가구였고, 응답자의 가장 어린자녀의 연령은 중학생 이상 49.5%, 초등학생 38.7%, 미취학 11.8%였다. 일을 하고있는 응답자는 83.9%로 상용근로자가 44.8%, 임시/일용근로자 25.9%, 자영업/무급가족 13.3%였고, 비취업자는 16.1%였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저소득 지원 가구는 65.9%, 일반 가구는 34.1%로 절반 이상이 정부 지원을 받고 있었고, 소득수준은 300만원 이상 44.1%, 200~300만원 미만 36.5%, 100~200만원 미만 18.7%, 100만원 미만 0.7%였다. 한부모가 된 기간은 5년 미만 42.7%, 5~10년 미만 40.1%, 10년 이상 17.2% 순으로 한부모가 된 기간이 짧은 경우의 비중이 높았다.

〈표 Ⅱ-1-1〉 응답자 특성

(단위: 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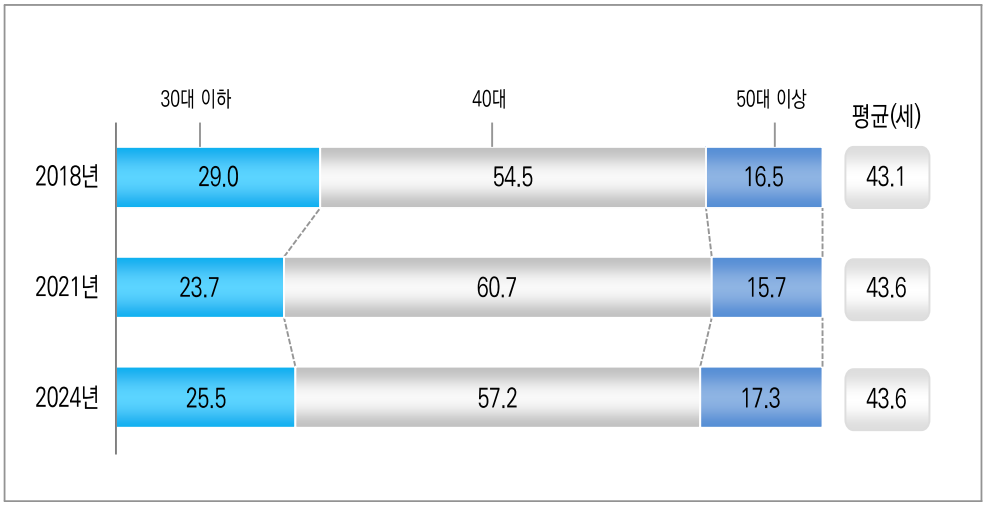
		응답 사례수	가중치 적용	모집단 비율
전 체		3,315	3,315	100.0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765	846	25.5
	40대	1,875	1,895	57.2
	50대 이상	675	575	17.3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121	101	3.0
	고졸 이하	1,830	1,666	50.3
	대학 이상	1,364	1,548	46.7
혼인 상태	이혼	2,823	2,793	84.2
	사별	316	345	10.4
	기타	176	178	5.4

		응답 사례수	가중치 적용	모집단 비율
가구 구성	모자	1,971	1,773	53.5
	모자+기타	226	503	15.2
	부자	929	674	20.3
	부자+기타	189	365	11.0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361	392	11.8
	초등학생	1,255	1,281	38.7
	중학생 이상	1,699	1,642	49.5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1,292	1,483	44.8
	임시/일용근로자	953	858	25.9
	자영업/무급가족	407	440	13.3
	비취업	663	534	16.1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2,545	2,184	65.9
	일반 가구	770	1,131	34.1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31	24	0.7
	100~200만원 미만	757	619	18.7
	200~300만원 미만	1,372	1,210	36.5
	300만원 이상	1,155	1,462	44.1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1,339	1,415	42.7
	5~10년 미만	1,364	1,328	40.1
	10년 이상	612	572	17.2

주: 단위 미만을 반올림하여 전체와 세부 항목 모집단 및 사례수 합계는 다를 수 있음.

한부모의 전체 평균 연령은 43.6세이며, 40대 57.2%, 30대 이하 25.5%, 50대 이상 17.3% 순으로 절반 이상이 4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2021년, 2024년 실태조사의 한부모 평균 연령은 차이가 없었지만, 2018년 대비 2024년 30대 이하의 한부모 연령 비중은 감소한 반면, 40대 이상 한부모의 비중은 증가하였다.

(단위: %, 2018년: n=2,500, 2021년: n=3,300, 2024년: n=3,315)



[그림 Ⅱ-1-1] 한부모 연령

한부모 연령대별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일반 가구인 경우, 한부모가 된 기간이 길수록 한부모 평균 연령이 높았다. 혼인 상태가 사별인 경우 한부모 전체 평균 연령보다 높았고, 기타일때 낮았다. 가구 구성이 부자가구와 부자+기타인 경우 한부모 전체 평균 연령보다 높았고 모자가구와 모자+기타 가구원으로 구성된 경우 한부모 평균 연령보다 낮아, 부자보다 모자가구에서 한부모의 연령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종사상 지위에 있어서는 상용근로자, 비취업자에서 전체 평균 연령보다 다소 낮았다.

〈표 Ⅱ-1-2〉 한부모 연령

(단위: %,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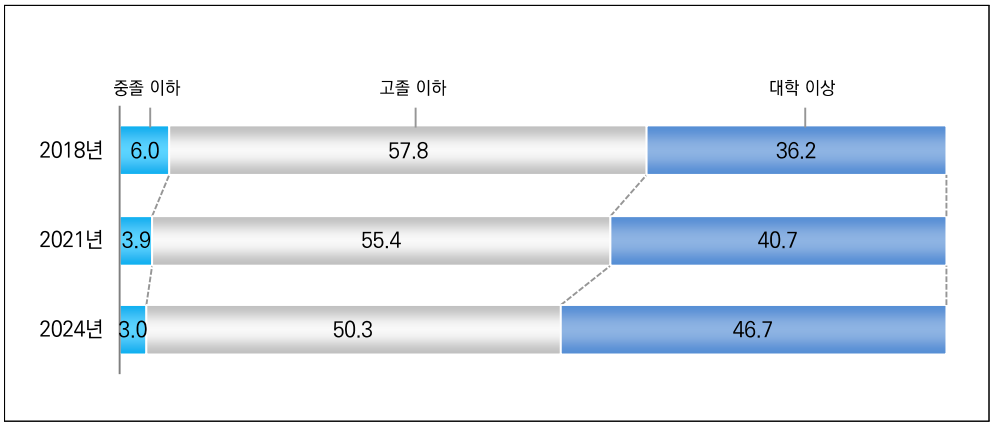
	30대 이하	40대	50대 이상	합계(n)	평균(세)	$F(df)$
전 체	25.5	57.2	17.3	100.0(3,315)	43.6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30.2	41.5	28.3	100.0(101)	44.8	53.159(2)***
고졸 이하	19.8	57.7	22.5	100.0(1,666)	44.6	
대학 이상	31.4	57.6	11.0	100.0(1,548)	42.3	
혼인 상태						
이혼	25.1	57.8	17.1	100.0(2,793)	43.6	46.962(2)***
사별	17.1	60.3	22.6	100.0(345)	45.5	
기타	47.9	41.0	11.1	100.0(178)	39.7	
가구 구성						
모자	25.3	60.3	14.4	100.0(1,773)	43.4	
모자+기타	48.7	42.8	8.5	100.0(503)	39.9	101.59(3)***
부자	11.7	57.3	31.0	100.0(674)	46.3	
부자+기타	19.9	61.4	18.7	100.0(365)	44.2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76.2	22.8	0.9	100.0(392)	35.9	927.588(2)***
초등학생	35.7	58.1	6.2	100.0(1,281)	41.2	
중학생 이상	5.5	64.6	30.0	100.0(1,642)	47.2	

	30대 이하	40대	50대 이상	합계(n)	평균(세)	$F(df)$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25.7	59.9	14.4	100.0(1,483)	43.4	
임시/일용근로자	24.0	58.3	17.7	100.0(858)	43.8	6.855(3)***
자영업/무급가족	20.3	58.9	20.7	100.0(440)	44.6	
비취업	31.7	46.2	22.2	100.0(534)	42.8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27.6	54.7	17.7	100.0(2,184)	43.3	7.042(1)**
일반 가구	21.4	61.9	16.7	100.0(1,131)	44.0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38.4	51.4	10.2	100.0(1,415)	41.5	150.479(2)***
5~10년 미만	18.1	62.8	19.2	100.0(1,328)	44.5	
10년 이상	10.8	58.3	30.9	100.0(572)	46.5	

주: **p<.01, ***p<.001

한부모의 학력은 고졸 이하 50.3%, 대학 이상 46.7%, 중졸 이하 3.0%로 과반이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며 고졸 이상의 학력은 전체 97.0%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2021년, 2024년 실태조사의 한부모 학력은 점차 대학 이상의 비중이 높아지고 고졸 이하, 중졸 이하의 학력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단위: %, 2018년: n=2,500, 2021년: n=3,300, 2024년: n=3,315)



[그림 Ⅱ-1-2] 한부모 학력

한부모 학력별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부모 연령은 30대 이하에서 대학 이상의 학력 비중이 57.5%로 높게 나타났고, 40대 이상에서는 고졸 이하의 학력수준 비중이 높아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에서 고학력일 경우가 많았다. 가장 어린자녀가 미취학일 경우 대학 이상의 학력 비중이 62.9%로 상당히 높았고, 중학생 이상의 경우 고졸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는 상용근로자일 경우 대학 이상의 비중이 높았고, 비취업인 경우 학력수준이 낮았다. 한편 정부 지원을 받는 저소득 지원 가구는 고졸 이하 학력, 일반 가구는 대학 이상 학력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300만원 이상에서 대학 이상 비중이 높게 확인되었고, 100만원 미만에서는 고졸 이하의 비중이 74.5%로 아주 높게 나타났다. 한부모가 된 기간이 5년 미만에서 높은 비중으로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졌으며 한부모가 된 기간이 5년 이상 집단에서 고졸 이하의 비중이 높았다.

따라서, 한부모 연령이 낮은 집단이나 상용근로자, 일반 가구, 소득수준이 300만원 이상에서 고학력 비중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Ⅱ-1-3〉 한부모 학력

(단위: %,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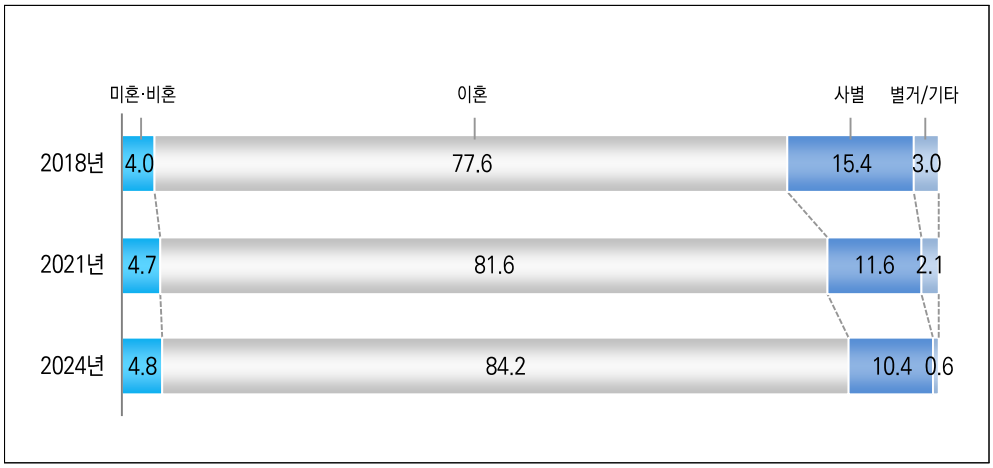
	중졸 이하	고졸 이하	대학 이상	합계(n)	$\chi^2(df)$
전 체	3.0	50.3	46.7	100.0(3,315)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3.6	38.9	57.5	100.0(846)	116.873(4)***
40대	2.2	50.7	47.1	100.0(1,895)	
50대 이상	5.0	65.3	29.7	100.0(575)	
혼인 상태					
이혼	2.9	49.6	47.5	100.0(2,793)	11.503(4)*
사별	2.9	52.1	45.0	100.0(345)	
기타	5.9	56.4	37.7	100.0(178)	
가구 구성					
모자	3.5	54.4	42.2	100.0(1,773)	
모자+기타	3.4	40.3	56.3	100.0(503)	48.264(6)***
부자	2.6	50.6	46.9	100.0(674)	
부자+기타	1.3	43.4	55.3	100.0(365)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3.6	33.5	62.9	100.0(392)	76.86(4)***
초등학생	2.1	48.4	49.6	100.0(1,281)	
중학생 이상	3.7	55.7	40.6	100.0(1,642)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1.9	41.4	56.7	100.0(1,483)	
임시/일용근로자	3.2	59.4	37.4	100.0(858)	158.528(6)***
자영업/무급가족	3.2	46.2	50.6	100.0(440)	
비취업	6.0	63.5	30.5	100.0(534)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4.2	57.7	38.1	100.0(2,184)	198.387(2)***
일반 가구	0.9	35.8	63.3	100.0(1,131)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	74.5	25.5	100.0(24)	
100~200만원 미만	5.9	62.6	31.5	100.0(619)	197.679(6)***
200~300만원 미만	3.9	56.4	39.7	100.0(1,210)	
300만원 이상	1.2	39.5	59.3	100.0(1,462)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2.5	39.8	57.7	100.0(1,415)	137.918(4)***
5~10년 미만	2.5	57.3	40.2	100.0(1,328)	
10년 이상	5.7	59.9	34.4	100.0(572)	

주: *p<.05, ***p<.001

한부모 혼인 상태는 이혼 84.2%, 사별 10.4%, 기타(미혼·비혼·별거 등) 5.4% 순으로 대부분이 이혼한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2021년, 2024년 실태조사의 한부모 혼인 상태는 동일한 순으로 나타났고, 차츰 사별의 비중이 줄어들고 이혼의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로 확인되었다.

(단위: %, 2018년: n=2,500, 2021년: n=3,300, 2024년: n=3,315)



[그림 Ⅱ-1-3] 한부모 혼인 상태

한부모 혼인 상태별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부모 연령, 학력, 가구구성, 가장 어린자녀, 종사상 지위, 정부 지원 유형, 소득수준, 한부모가 된 기간 모든 범주에서 이혼의 비중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한편, 미혼·비혼인 경우에 30대 이하 연령, 중졸 이하의 학력, 모자+기타 가구, 가장 어린자녀가 미취학, 비취업자, 소득수준이 100~200만원 미만, 한부모가 된 기간이 10년 이상에서 전체 비율보다 2배 이상의 비중이 확인되었다.

〈표 Ⅱ-1-4〉 한부모 혼인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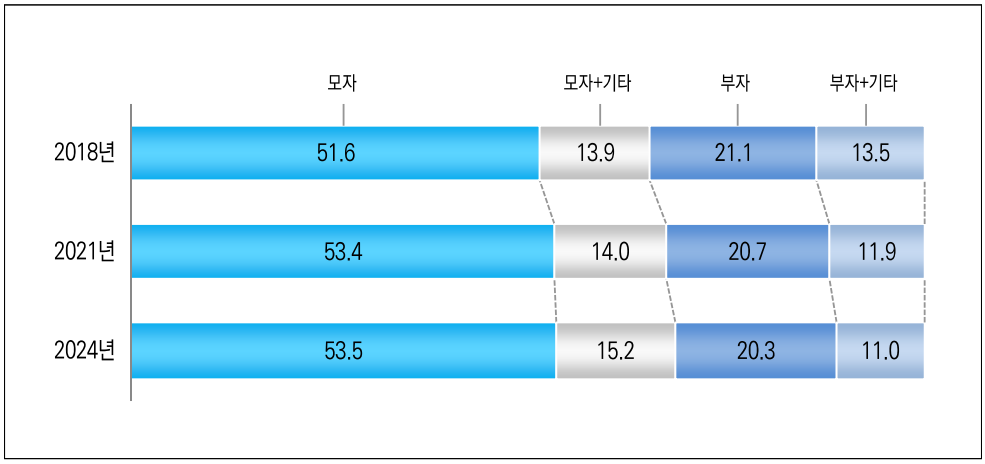
(단위: %, 가구)

	미혼·비혼	이혼	사별	별거	합계(n)	$\chi^2(df)$
전 체	4.8	84.2	10.4	0.6	100.0(3,315)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9.7	83.0	7.0	0.4	100.0(846)	78.924(6)***
40대	3.0	85.2	11.0	0.8	100.0(1,895)	
50대 이상	3.4	83.0	13.6	0.0	100.0(575)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10.1	79.7	9.9	0.4	100.0(101)	12.622(6)*
고졸 이하	5.5	83.2	10.8	0.5	100.0(1,666)	
대학 이상	3.7	85.7	10.0	0.6	100.0(1,548)	
가구 구성						
모자	5.3	84.0	10.0	0.7	100.0(1,773)	
모자+기타	9.7	82.4	7.9	-	100.0(503)	62.04(9)***
부자	1.3	86.7	11.6	0.4	100.0(674)	
부자+기타	2.2	83.3	13.4	1.2	100.0(365)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12.7	81.8	4.9	0.6	100.0(392)	87.184(6)***
초등학생	4.2	86.5	8.7	0.7	100.0(1,281)	
중학생 이상	3.4	83.1	13.0	0.5	100.0(1,642)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2.4	85.1	12.1	0.5	100.0(1,483)	
임시/일용근로자	3.5	87.7	8.0	0.7	100.0(858)	134.701(9)***
자영업/무급가족	4.8	81.2	13.9	0.1	100.0(440)	
비취업	13.6	78.8	6.7	1.0	100.0(534)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6.3	85.0	8.1	0.6	100.0(2,184)	61.129(3)***
일반 가구	1.9	82.8	14.8	0.5	100.0(1,131)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3.0	76.4	20.6	-	100.0(24)	
100~200만원 미만	10.6	80.2	8.3	1.0	100.0(619)	83.306(9)***
200~300만원 미만	4.9	85.9	8.7	0.5	100.0(1,210)	
300만원 이상	2.3	84.7	12.5	0.5	100.0(1,462)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3.5	84.7	11.1	0.7	100.0(1,415)	57.8(6)***
5~10년 미만	3.6	85.1	10.9	0.4	100.0(1,328)	
10년 이상	10.7	81.1	7.6	0.7	100.0(572)	

주: *p<.05, ***p<.001

한부모가족 가구 구성은 모자가구 53.5%, 부자가구 20.3%, 모자+기타 15.2%, 부자+기타 11.0%로 절반 이상이 모자가구였다. 2018년, 2021년, 2024년 실태조사의 가구 구성은 전체적으로 비슷한 추세를 계속 이어오고 있다.

(단위: %, 2018년: n=2,500, 2021년: n=3,300, 2024년: n=3,315)



[그림 Ⅱ-1-4] 가구 구성

한부모가족 가구 구성별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부모 연령, 학력, 혼인 상태, 가장 어린자녀, 종사상 지위, 소득수준, 한부모가 된 기간 모든 범주에서 모자가구 구성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중졸 이하의 학력, 임시/일용근로자/비취업, 저소득 지원 가구, 200만원 미만 소득수준에서 모자가구 비중이 굉장히 높아 다소 열악한 환경에 놓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정부 지원을 받는 저소득 가구는 모자가구 비중이 매우 높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가구에서는 모자가구와 부자가구의 비율이 비슷하였다.

〈표 Ⅱ-1-5〉 가구 구성

(단위: %,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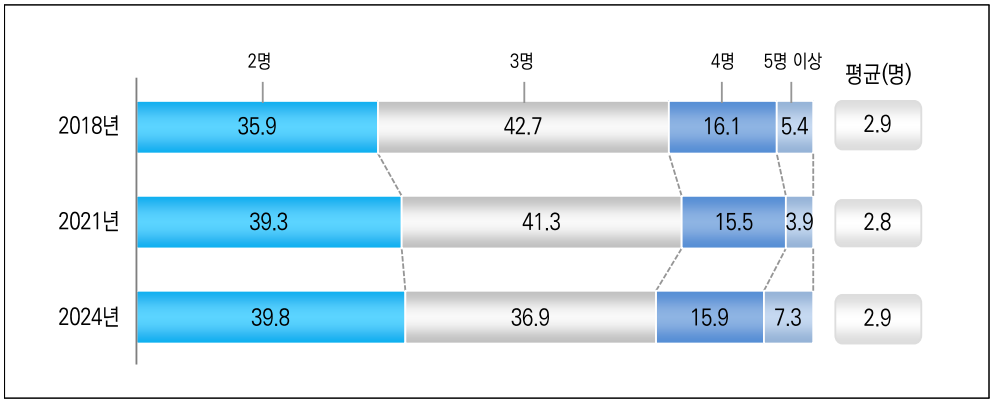
	미혼·비혼	이혼	사별	별거	합계(n)	$\chi^2(df)$
전 체	53.5	15.2	20.3	11.0	100.0(3,315)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53.1	29.0	9.4	8.6	100.0(846)	287.989(6)***
40대	56.4	11.3	20.4	11.8	100.0(1,895)	
50대 이상	44.4	7.4	36.3	11.9	100.0(575)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60.9	17.1	17.2	4.9	100.0(101)	48.264(6)***
고졸 이하	57.9	12.2	20.5	9.5	100.0(1,666)	
대학 이상	48.3	18.3	20.4	13.0	100.0(1,548)	
혼인 상태						
이혼	53.4	14.8	20.9	10.9	100.0(2,793)	46.518(6)***
사별	51.6	11.4	22.7	14.2	100.0(345)	
기타	59.1	27.5	6.5	6.9	100.0(178)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48.9	29.9	11.9	9.2	100.0(392)	117.477(6)***
초등학생	52.1	17.0	18.6	12.3	100.0(1,281)	
중학생 이상	55.7	10.2	23.7	10.4	100.0(1,642)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45.9	14.3	24.3	15.5	100.0(1,483)	
임시/일용근로자	62.6	13.5	16.4	7.6	100.0(858)	164.301(9)***
자영업/무급가족	48.1	14.7	25.0	12.1	100.0(440)	
비취업	64.5	20.5	11.7	3.3	100.0(534)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64.0	16.8	13.4	5.9	100.0(2,184)	446.33(3)***
일반 가구	33.3	12.0	33.7	21.0	100.0(1,131)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75.0	7.2	11.9	5.9	100.0(24)	
100~200만원 미만	72.5	11.1	14.0	2.4	100.0(619)	389.27(9)***
200~300만원 미만	64.4	14.9	14.8	5.9	100.0(1,210)	
300만원 이상	36.1	17.3	27.7	18.9	100.0(1,462)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53.7	17.8	19.0	9.5	100.0(1,415)	30.948(6)***
5~10년 미만	53.8	11.4	22.2	12.6	100.0(1,328)	
10년 이상	52.2	17.5	19.3	11.0	100.0(572)	

주: *p<.05, ***p<.001

한부모가족 가구원 수는 전체 평균 2.9명으로 2명 39.8%, 3명 36.9%, 4명 15.9%, 5명 이상 7.3%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 2021년, 2024년 실태조사의 평균 가구원 수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다만, 2명인 가구원의 비중은 조금씩 증가하고 3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단위: %, 2018년: n=2,500, 2021년: n=3,300, 2024년: n=3,315)



[그림 Ⅱ-1-5] 가구원 수

한부모가족 가구원 수별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부모 연령이 30대 이하, 모자/부자+기타 가구, 가장 어린자녀가 연령이 낮을수록, 상용근로자와 비취업자인 경우, 저소득 지원 가구, 300만원 이상 소득수준, 한부모가 된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구에서 전체 평균 가구원 수보다 평균이 조금 높았다.

〈표 Ⅱ-1-6〉 가구원 수

(단위: %,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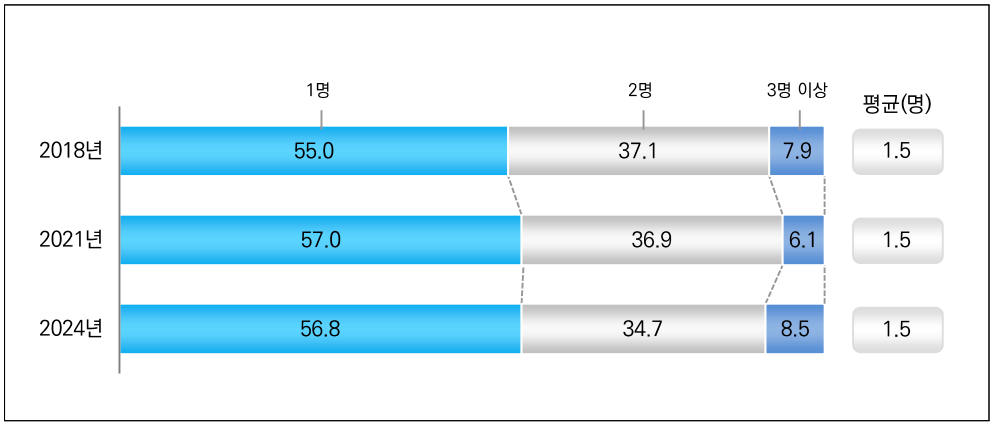
	2명	3명	4명	5명 이상	합계(n)	평균(명)	$F(df)$
전 체	39.8	36.9	15.9	7.3	100.0(3,315)	2.9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41.9	28.5	17.7	11.9	100.0(846)	3.0	5.036(2)**
40대	39.1	39.5	15.3	6.1	100.0(1,895)	2.9	
50대 이상	39.2	40.7	15.5	4.5	100.0(575)	2.9	
가구 구성							
모자	53.7	36.3	8.4	1.6	100.0(1,773)	2.6	
모자+기타	-	32.2	40.0	27.8	100.0(503)	4.0	666.433(3)***
부자	54.7	37.3	6.8	1.3	100.0(674)	2.5	
부자+기타	-	45.5	36.4	18.1	100.0(365)	3.8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33.3	31.5	20.6	14.7	100.0(392)	3.2	36.71(2)***
초등학생	37.7	36.1	16.5	9.7	100.0(1,281)	3.0	
중학생 이상	43.1	38.8	14.3	3.7	100.0(1,642)	2.8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37.6	37.5	16.8	8.1	100.0(1,483)	3.0	
임시/일용근로자	41.6	38.5	12.8	7.0	100.0(858)	2.9	3.215(3)*
자영업/무급가족	43.3	35.0	16.6	5.1	100.0(440)	2.8	
비취업	40.3	34.2	18.0	7.5	100.0(534)	3.0	

	2명	3명	4명	5명 이상	합계(n)	평균(명)	$F(df)$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37.5	37.8	16.7	8.1	100.0(2,184)	3.0	14.808(1)***
일반 가구	44.4	35.3	14.4	5.8	100.0(1,131)	2.8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64.1	27.9	8.0	-	100.0(24)	2.4	
100~200만원 미만	57.3	31.4	9.4	1.9	100.0(619)	2.6	47.569(3)***
200~300만원 미만	38.9	39.1	16.1	5.9	100.0(1,210)	2.9	
300만원 이상	32.9	37.6	18.7	10.9	100.0(1,462)	3.1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40.9	35.1	15.4	8.6	100.0(1,415)	2.9	3.399(2)*
5~10년 미만	41.7	36.7	15.3	6.3	100.0(1,328)	2.9	
10년 이상	33.0	41.9	18.7	6.5	100.0(572)	3.0	

주: *p<.05, **p<.01, ***p<.001

한부모가족의 자녀 수는 전체 평균 1.5명으로 1명 56.8%, 2명 34.7%, 3명 이상 8.5%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 2021년, 2024년 실태조사의 평균 자녀 수는 3개년 모두 동일하였고, 다만, 자녀 수 2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단위: %, 2018년: n=2,500, 2021년: n=3,300, 2024년: n=3,315)



[그림 Ⅱ-1-6] 가구 내 자녀 수

한부모가족 자녀 수별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범주에서 전체 평균 1.5명보다 높거나 같았고, 한부모 학력이 중졸 이하에서 평균 1.7명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한부모 연령이 30대 이하, 기타 혼인 상태, 부자+기타 가구 구성,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일반 가구, 소득수준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전체 평균 자녀 수보다 낮았다.

〈표 Ⅱ-1-7〉 가구 내 자녀 수

(단위: %,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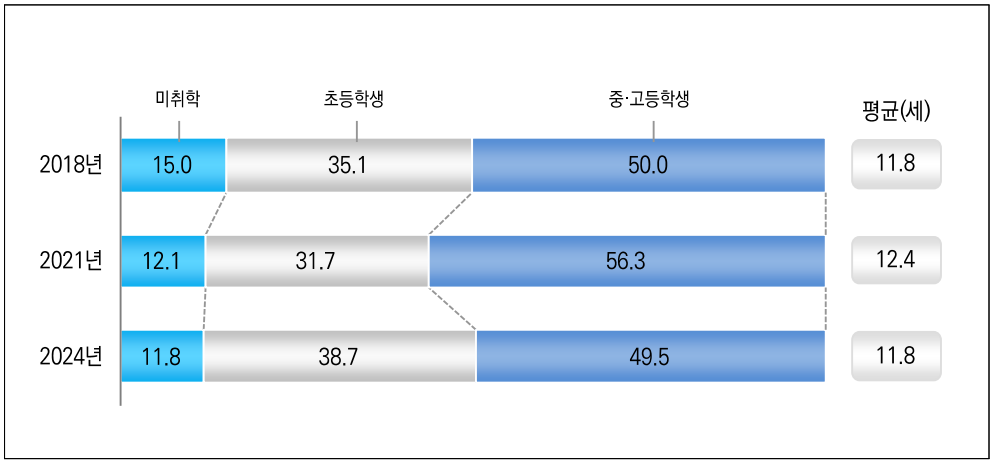
	1명	2명	3명 이상	합계(n)	평균(명)	$F(df)$
전 체	56.8	34.7	8.5	100.0(3,315)	1.5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67.5	28.0	4.5	100.0(846)	1.4	30.184(2)***
40대	54.0	36.3	9.8	100.0(1,895)	1.6	
50대 이상	50.4	39.6	10.1	100.0(575)	1.6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50.3	36.3	13.4	100.0(101)	1.7	18.994(2)***
고졸 이하	53.1	35.9	11.0	100.0(1,666)	1.6	
대학 이상	61.3	33.3	5.4	100.0(1,548)	1.5	
혼인 상태						
이혼	55.3	36.1	8.6	100.0(2,793)	1.5	18.866(2)***
사별	54.7	36.3	9.0	100.0(345)	1.6	
기타	83.9	10.8	5.3	100.0(178)	1.2	
가구 구성						
모자	53.7	36.3	10.0	100.0(1,773)	1.6	
모자+기타	61.2	33.5	5.3	100.0(503)	1.5	12.302(3)***
부자	54.7	37.3	8.0	100.0(674)	1.5	
부자+기타	69.9	24.0	6.2	100.0(365)	1.4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56.1	37.1	6.7	100.0(1,483)	1.5	
임시/일용근로자	55.3	35.2	9.5	100.0(858)	1.6	2.978(3)*
자영업/무급가족	61.8	30.0	8.2	100.0(440)	1.5	
비취업	57.0	31.3	11.7	100.0(534)	1.6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50.5	38.3	11.2	100.0(2,184)	1.6	130.705(1)***
일반 가구	69.0	27.8	3.2	100.0(1,131)	1.3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70.0	29.2	0.8	100.0(24)	1.3	
100~200만원 미만	66.1	29.3	4.5	100.0(619)	1.4	15.933(3)***
200~300만원 미만	51.1	38.2	10.7	100.0(1,210)	1.6	
300만원 이상	57.4	34.2	8.4	100.0(1,462)	1.5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58.9	33.6	7.5	100.0(1,415)	1.5	4.154(2)*
5~10년 미만	56.5	34.8	8.7	100.0(1,328)	1.5	
10년 이상	52.3	37.6	10.1	100.0(572)	1.6	

주: *p<.05, ***p<.001

한부모가족의 가장 어린자녀 연령은 전체 평균 11.8세로 중·고등학생 49.5%, 초등학생 38.7%, 미취학 11.8%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 2021년, 2024년 실태조사의 전체 평균 나이는 2021년 대비 2024년에 0.6세 낮아졌고 2018년과 2024년은 동일하였다. 가장 어린자녀 연령이 미취학인 경우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단위: %, 2018년: n=2,500, 2021년: n=3,300, 2024년: n=3,315)



[그림 Ⅱ-1-7] 가장 어린자녀 연령

한부모가족의 가장 어린자녀 연령별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부모 연령이 30대 이하, 대학 이상 학력, 혼인 상태가 기타인 경우, 모자+기타 가구구성, 한부모가 된 기간이 5년 미만일때 전체 평균 연령보다 다소 낮았다. 한편, 한부모가 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평균 연령이 14.6세로 평균 연령보다 매우 높았다.

〈표 Ⅱ-1-8〉 가장 어린자녀 연령

(단위: %,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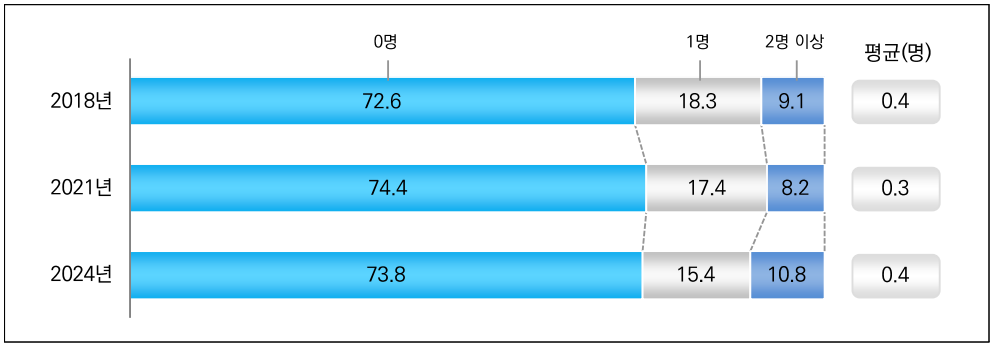
	미취학	초등학생	중학생	합계(n)	평균(세)	$F(df)$
전 체	11.8	38.7	49.5	100.0(3,315)	11.8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35.3	54.1	10.6	100.0(846)	7.9	978.165(2)***
40대	4.7	39.3	56.0	100.0(1,895)	12.6	
50대 이상	0.6	13.7	85.6	100.0(575)	14.9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13.9	26.1	60.0	100.0(101)	12.0	47.098(2)***
고졸 이하	7.9	37.2	54.9	100.0(1,666)	12.4	
대학 이상	15.9	41.0	43.1	100.0(1,548)	11.1	
혼인 상태						
이혼	11.5	39.7	48.9	100.0(2,793)	11.8	42.261(2)***
사별	5.6	32.4	62.0	100.0(345)	12.9	
기타	29.3	34.7	36.0	100.0(178)	9.5	
가구 구성						
모자	10.8	37.6	51.6	100.0(1,773)	11.9	
모자+기타	23.3	43.4	33.3	100.0(503)	10.0	45.53(3)***
부자	6.9	35.3	57.7	100.0(674)	12.6	
부자+기타	9.9	43.2	46.9	100.0(365)	12.0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11.3	40.2	48.5	100.0(1,483)	11.8	
임시/일용근로자	10.6	38.6	50.8	100.0(858)	12.0	24.36(3)***
자영업/무급가족	7.4	31.7	60.9	100.0(440)	12.9	
비취업	18.8	40.0	41.1	100.0(534)	10.7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12.7	39.3	48.0	100.0(2,184)	11.6	11.586(1)***
일반 가구	10.1	37.5	52.5	100.0(1,131)	12.1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23.7	47.0	29.3	100.0(1,415)	9.8	447.473(2)***
5~10년 미만	3.8	39.6	56.6	100.0(1,328)	12.8	
10년 이상	1.0	15.8	83.1	100.0(572)	14.6	

주: *p<.05, ***p<.001

한부모가족의 자녀 외 가구원 수는 전체 평균 0.4명으로 2024년 0명 73.8%, 1명 15.4%, 2명 이상 10.8% 순으로 대부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2021년, 2024년 실태조사의 평균 자녀 외 가구원 수는 거의 차이가 없었지만 1명인 경우의 비중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단위: %, 2018년: n=2,500, 2021년: n=3,300, 2024년: n=3,315)



[그림 Ⅱ-1-8] 자녀 외 가구원 수

한부모가족의 자녀 외 가구원 수별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부모 연령이 30대 이하, 대학 이상의 학력, 기타 혼인 상태, 가장 어린자녀가 초등학생 이하, 상용근로자, 일반 가구, 소득수준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전체 평균 명수보다 조금 높았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한부모의 연령이 낮거나, 학력 수준이 높거나, 종사상 지위가 안정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수준을 갖는 가구에서 자녀 외 가구원이 조금 더 많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Ⅱ-1-9〉 자녀 외 가구원 수

(단위: %, 가구)

	0명	1명	2명 이상	합계(n)	평균(명)	$F(df)$
전 체	73.8	15.4	10.8	100.0(3,315)	0.4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62.5	16.8	20.7	100.0(846)	0.6	64.296(2)***
40대	76.8	15.0	8.1	100.0(1,895)	0.3	
50대 이상	80.7	14.2	5.1	100.0(575)	0.3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78.1	17.9	4.0	100.0(101)	0.3	20.056(2)***
고졸 이하	78.3	13.4	8.3	100.0(1,666)	0.3	
대학 이상	68.7	17.3	14.0	100.0(1,548)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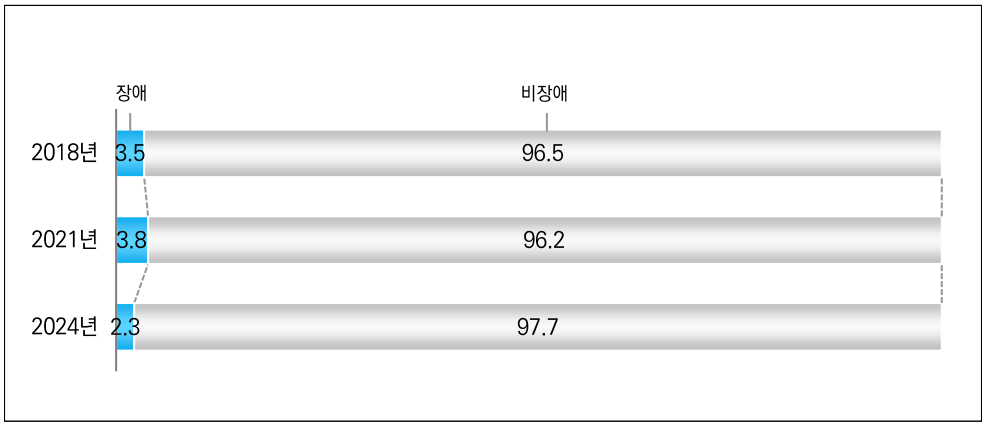
	0명	1명	2명 이상	합계(n)	평균(명)	$F(df)$
혼인 상태						
이혼	74.3	15.1	10.6	100.0(2,793)	0.4	8.261(2)***
사별	74.4	18.4	7.2	100.0(345)	0.4	
기타	65.6	13.7	20.7	100.0(178)	0.6	
가구 구성						
모자	100.0	-	-	100.0(1,773)	-	3753.027(3)***
모자+기타	-	54.9	45.1	100.0(503)	1.6	
부자	100.0	-	-	100.0(674)	-	
부자+기타	-	63.9	36.1	100.0(365)	1.4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60.9	17.9	21.2	100.0(392)	0.7	55.12(2)***
초등학생	70.7	16.0	13.4	100.0(1,281)	0.5	
중학생 이상	79.4	14.3	6.3	100.0(1,642)	0.3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70.2	16.8	13.0	100.0(1,483)	0.5	
임시/일용근로자	78.9	13.1	8.0	100.0(858)	0.3	7.015(3)***
자영업/무급가족	73.1	16.9	10.0	100.0(440)	0.4	
비취업	76.2	13.9	9.9	100.0(534)	0.4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77.4	12.8	9.8	100.0(2,184)	0.3	28.571(1)***
일반 가구	67.0	20.2	12.8	100.0(1,131)	0.5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86.9	13.1	-	100.0(24)	0.1	
100~200만원 미만	86.5	10.3	3.3	100.0(619)	0.2	58.01(3)***
200~300만원 미만	79.2	13.4	7.4	100.0(1,210)	0.3	
300만원 이상	63.8	19.2	17.0	100.0(1,462)	0.6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72.7	14.2	13.0	100.0(1,415)	0.4	5.468(2)**
5~10년 미만	76.0	15.2	8.7	100.0(1,328)	0.3	
10년 이상	71.5	18.4	10.1	100.0(572)	0.4	

주: **p<.01, ***p<.001

한부모 본인이 장애가 있는지 여부에서는 장애가 없다 97.7%, 장애를 가지고 있다 2.3%로 대부분이 장애가 없었지만 장애 한부모도 확인할 수 있었다.

2018년, 2021년, 2024년 실태조사 한부모 장애 여부는 거의 차이가 없었지만, 2018년 대비 2024년 비장애 한부모 비중이 1.2%p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위: %, 2018년: n=2,500, 2021년: n=3,300, 2024년: n=3,315)



[그림 Ⅱ-1-9] 한부모 장애 여부

한부모가족의 장애 여부별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한부모가 장애가 없었지만 장애를 가진 한부모의 경우 50대 이상, 중졸 이하의 학력, 기타 혼인 상태, 부자가구와 부자+기타 가구, 비취업자, 저소득 지원 가구, 100~200만원 미만 가구, 한부모가 된 기간이 5~10년 미만에서 특히 한부모의 장애 비중이 높았다.

〈표 Ⅱ-1-10〉 한부모 장애 여부

(단위: %,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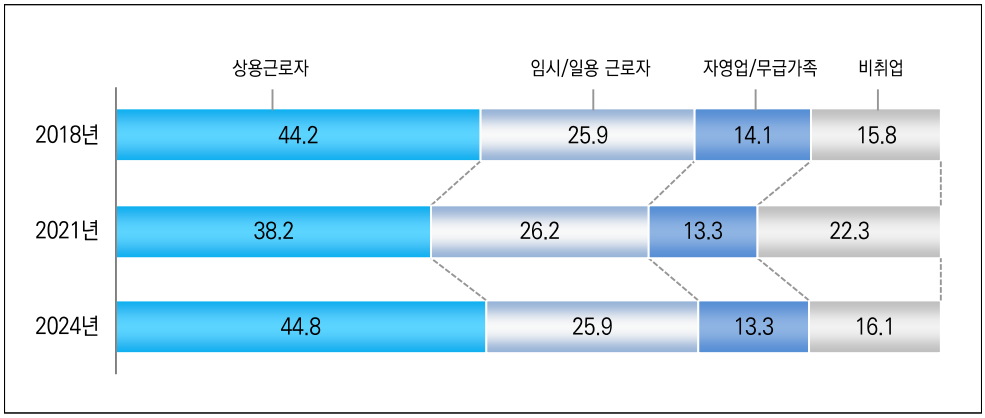
	장애	비장애	합계(n)	$\chi^2(df)$
전 체	2.3	97.7	100.0(3,315)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2.0	98.0	100.0(846)	17.532(2)***
40대	1.7	98.3	100.0(1,895)	
50대 이상	4.8	95.2	100.0(575)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6.7	93.3	100.0(101)	82.389(4)***
고졸 이하	2.8	97.2	100.0(1,666)	
대학 이상	1.5	98.5	100.0(1,548)	
혼인 상태				
이혼	2.3	97.7	100.0(2,793)	11.858(2)**
사별	0.8	99.2	100.0(345)	
기타	5.8	94.2	100.0(178)	
가구 구성				
모자	1.5	98.5	100.0(1,773)	
모자+기타	2.4	97.6	100.0(503)	15.206(3)**
부자	3.8	96.2	100.0(674)	
부자+기타	3.5	96.5	100.0(365)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1.7	98.3	100.0(1,483)	
임시/일용근로자	1.7	98.3	100.0(858)	47.644(3)***
자영업/무급가족	0.7	99.3	100.0(440)	
비취업	6.4	93.6	100.0(534)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3.0	97.0	100.0(2,184)	15.215(1)***
일반 가구	0.9	99.1	100.0(1,131)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1.2	98.8	100.0(24)	
100~200만원 미만	4.9	95.1	100.0(619)	24.748(3)***
200~300만원 미만	2.1	97.9	100.0(1,210)	
300만원 이상	1.4	98.6	100.0(1,462)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1.2	98.8	100.0(1,415)	15.694(2)***
5~10년 미만	3.6	96.4	100.0(1,328)	
10년 이상	2.0	98.0	100.0(572)	

주: **p<.01, ***p<.001

한부모 종사상 지위는 상용근로자 44.8%, 임시/일용근로자 25.9%, 비취업 16.1%, 자영업/무급가족 13.3% 순으로 상용근로자 비중이 가장 높았다.

2018년, 2021년, 2024년 실태조사에서는 2018년 대비 2021년 상용근로자 비중이 6%p 낮아졌고, 비취업자가 6.5%p 높아졌었다. 하지만 2024년 조사에서는 2018년과 비슷한 비중을 가지면서 상용근로자가 비중이 높아지고 비취업자 비중이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위: %, 2018년: n=2,500, 2021년: n=3,300, 2024년: n=3,315)



[그림 Ⅱ-1-10] 취업 중인 한부모의 종사상 지위

한부모의 종사상 지위별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부모 연령이 40대 이하 집단, 대학 이상, 부자가구와 부자+기타 가구 구성, 일반 가구, 소득수준이 300만원 이상 집단, 한부모가 된 기간이 10년 미만 집단에서 상용근로자 비중이 높았다. 이에 반해, 비취업자 비중은 학력이 낮고, 모자가구와 모자+기타 가구 구성, 저소득 지원 가구,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에서 높았다. 상용근로자와 비취업의 경우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표 Ⅱ-1-11〉 한부모 종사상 지위

(단위: %, 가구)

	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자영업/ 무급가족	비취업	합계(n)	$\chi^2(df)$
전 체	44.8	25.9	13.3	16.1	100.0(3,315)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45.1	24.3	10.6	20.0	100.0(846)	44.934(6)***
40대	46.9	26.4	13.7	13.0	100.0(1,895)	
50대 이상	37.1	26.4	15.9	20.6	100.0(575)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27.3	27.2	13.8	31.6	100.0(101)	158.528(6)***
고졸 이하	36.9	30.6	12.2	20.4	100.0(1,666)	
대학 이상	54.4	20.7	14.4	10.5	100.0(1,548)	
혼인 상태						
이혼	45.2	27.0	12.8	15.1	100.0(2,793)	129.796(6)***
사별	51.9	20.0	17.7	10.3	100.0(345)	
기타	23.9	20.3	12.1	43.7	100.0(178)	
가구 구성						
모자	38.4	30.3	11.9	19.4	100.0(1,773)	
모자+기타	42.3	23.0	12.9	21.8	100.0(503)	164.301(9)***
부자	53.6	20.8	16.3	9.3	100.0(674)	
부자+기타	62.8	17.8	14.6	4.8	100.0(3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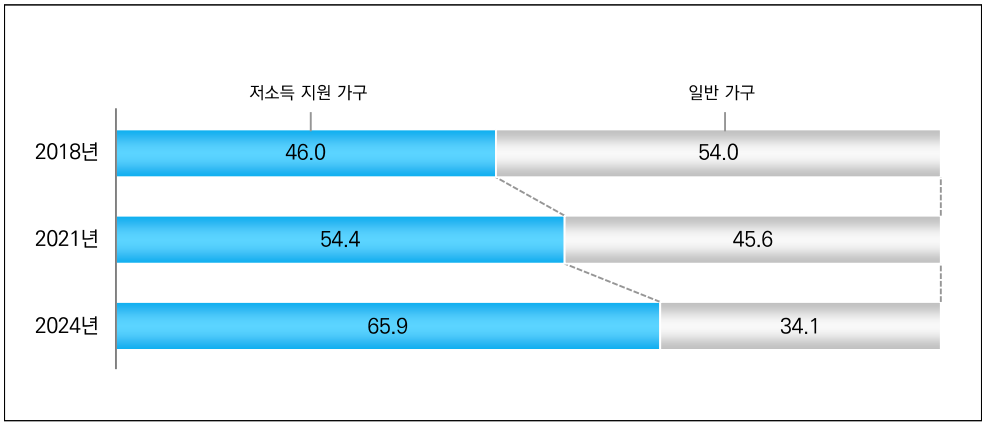
	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자영업/ 무급가족	비취업	합계(n)	$\chi^2(df)$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42.8	23.3	8.3	25.7	100.0(392)	57.269(6)***
초등학생	46.6	25.8	10.9	16.7	100.0(1,281)	
중학생 이상	43.8	26.5	16.3	13.4	100.0(1,642)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34.3	32.5	10.1	23.0	100.0(2,184)	500.176(3)***
일반 가구	64.9	13.0	19.3	2.8	100.0(1,131)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0.0	9.4	0.0	90.6	100.0(24)	1308.212(9)***
100~200만원 미만	8.7	35.7	4.8	50.8	100.0(619)	
200~300만원 미만	40.9	36.9	9.5	12.7	100.0(1,210)	
300만원 이상	63.9	12.9	20.2	3.0	100.0(1,462)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46.4	25.8	12.3	15.4	100.0(1,415)	40.302(6)***
5~10년 미만	46.8	25.4	14.2	13.6	100.0(1,328)	
10년 이상	35.9	27.1	13.4	23.6	100.0(5,72)	

주: ***p<.001

한부모가족의 정부 지원 유형은 저소득 지원 가구 65.9%, 일반 가구 34.1%로 절반 이상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2018년, 2021년, 2024년 실태조사에서 정부지원을 받는 저소득 지원 가구의 비중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 저소득 지원 가구는 2018년 대비 2024년 19.9%p 높아져 해당 비중만큼 일반 가구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위: %, 2018년: n=2,500, 2021년: n=3,300, 2024년: n=3,315)



[그림 Ⅱ-1-11] 정부 지원 유형

한부모가족의 정부 지원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부모 연령, 혼인 상태, 가장 어린자녀, 한부모가 된 기간은 모든 범주에서 저소득 지원 가구 비중이 과반을 넘었다. 또한 가구 구성에서 부자가구보다 모자가구에서 저소득 지원 가구 비중이 매우 높고, 한부모가 비취업자, 가구 소득이 낮은 경우 94% 이상이 저소득 지원 가구였다. 한편, 가구 구성에서 부자가구와 부자+기타 가구, 소득수준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는 일반 가구 비중이 훨씬 높았다.

〈표 Ⅱ-1-12〉 정부 지원 유형

(단위: %,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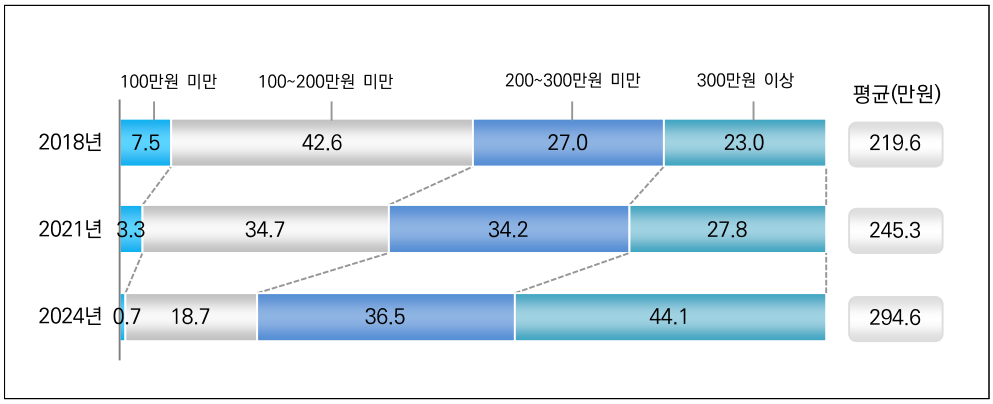
	저소득 지원 가구	일반 가구	합계(n)	$\chi^2(df)$
전 체	65.9	34.1	100.0(3,315)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71.4	28.6	100.0(846)	18.795(2)***
40대	63.0	37.0	100.0(1,895)	
50대 이상	67.2	32.8	100.0(575)	
혼인 상태				
이혼	66.4	33.6	100.0(2,793)	59.732(2)***
사별	51.6	48.4	100.0(345)	
기타	84.7	15.3	100.0(178)	
가구 구성				
모자	78.8	21.2	100.0(1,773)	
모자+기타	72.9	27.1	100.0(503)	446.33(3)***
부자	43.4	56.6	100.0(674)	
부자+기타	35.0	65.0	100.0(365)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70.9	29.1	100.0(392)	8.135(2)*
초등학생	66.9	33.1	100.0(1,281)	
중학생 이상	63.9	36.1	100.0(1,642)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50.5	49.5	100.0(1,483)	
임시/일용근로자	82.8	17.2	100.0(858)	500.176(3)***
자영업/무급가족	50.4	49.6	100.0(440)	
비취업	94.0	6.0	100.0(534)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97.8	2.2	100.0(24)	
100~200만원 미만	94.8	5.2	100.0(619)	936.574(3)***
200~300만원 미만	84.4	15.6	100.0(1,210)	
300만원 이상	37.8	62.2	100.0(1,462)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63.3	36.7	100.0(1,415)	21.821(2)***
5~10년 미만	65.0	35.0	100.0(1,328)	
10년 이상	74.1	25.9	100.0(572)	

주: *p<.05, ***p<.001

한부모가족의 가구 월 평균 소득은 전체 평균 294.6만원으로 300만원 이상 44.1%, 200~300만원 미만 36.5%, 100~200만원 미만 18.7%, 100만원 미만 0.7% 순으로 전체적으로 200만원 이상의 가구 소득을 가진 한부모가구가 전체 80.6%를 차지하였다.

2018년, 2021년, 2024년 실태조사에서 전체 평균 소득은 점차 증가하여 2018년 대비 2024년 75만원이 높아졌고, 200만원 이상의 소득수준이 늘어나는 추세로 전체적 소득수준이 증가하고 있다.

(단위: %, 2018년: n=2,500, 2021년: n=3,300, 2024년: n=3,315)



[그림 Ⅱ-1-12] 가구 월 평균 소득 수준

한부모가족의 가구 월평균 소득수준별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부모 연령이 30대 이하, 대학 이상의 학력, 모자+기타와 부자/부자+기타 가구 구성, 가장 어린자녀가 미취학인 경우, 종사상 지위가 상용근로자와 자영업/무급가족, 일반 가구, 한부모가 된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월 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으로 전체 월 평균 소득보다 높았다. 이에 반해 한부모 연령이 50대 이상, 중졸 이하 학력, 혼인 상태가 기타, 모자가구, 임시/일용근로자이거나 비취업자, 저소득 지원 가구의 경우 전체 월 평균 소득 수준보다 상당히 낮았다.

〈표 Ⅱ-1-13〉 가구 월 평균 소득 수준

(단위: %, 가구)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합계(n)	평균(만원)	$F(df)$
전 체	0.7	18.7	36.5	44.1	100.0(3,315)	294.6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0.6	20.7	33.3	45.3	100.0(846)	301.7	4.786(2)**
40대	0.5	16.4	37.9	45.2	100.0(1,895)	296.5	
50대 이상	1.6	23.1	36.7	38.6	100.0(575)	277.8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	36.3	46.5	17.2	100.0(101)	231.1	104.077(2)***
고졸 이하	1.1	23.2	41.0	34.7	100.0(1,666)	262.9	
대학 이상	0.4	12.6	31.0	56.0	100.0(1,548)	332.8	
혼인 상태							
이혼	0.7	17.8	37.2	44.4	100.0(2,793)	294.5	16.09(2)***
사별	1.4	14.9	30.6	53.1	100.0(345)	321.5	
기타	0.4	40.3	36.6	22.7	100.0(178)	243.9	
가구 구성							
모자	1.0	25.3	43.9	29.7	100.0(1,773)	250.6	
모자+기타	0.3	13.7	35.8	50.2	100.0(503)	334.4	148.021(3)***
부자	0.4	12.8	26.6	60.1	100.0(674)	325.3	
부자+기타	0.4	4.1	19.7	75.9	100.0(365)	397.0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합계(n)	평균(만원)	$F(df)$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1.0	21.8	33.4	43.8	100.0(392)	316.3	5.311(2)**
초등학생	0.7	19.0	35.8	44.5	100.0(1,281)	295.0	
중학생 이상	0.6	17.7	37.8	43.8	100.0(1,642)	289.1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	3.6	33.4	63.0	100.0(1,483)	340.3	241.161(3)***
임시/일용근로자	0.3	25.8	52.0	22.0	100.0(858)	246.7	
자영업/무급가족	-	6.8	26.2	67.0	100.0(440)	363.2	
비취업	4.0	58.9	28.7	8.3	100.0(534)	188.1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1.1	26.9	46.8	25.3	100.0(2,184)	247.6	790.505(1)***
일반 가구	0.0	2.8	16.7	80.4	100.0(1,131)	385.4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0.6	16.7	33.3	49.4	100.0(1,415)	306.8	20.068(2)***
5~10년 미만	0.7	18.1	37.2	44.0	100.0(1,328)	296.2	
10년 이상	1.2	24.9	42.7	31.1	100.0(572)	260.5	

주: **p<.01, ***p<.001

2. 자녀돌봄

한부모의 자녀돌봄 실태와 한부모가족이 된 이후 경험하는 자녀양육 관련 어려움 및 변화 등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자녀돌봄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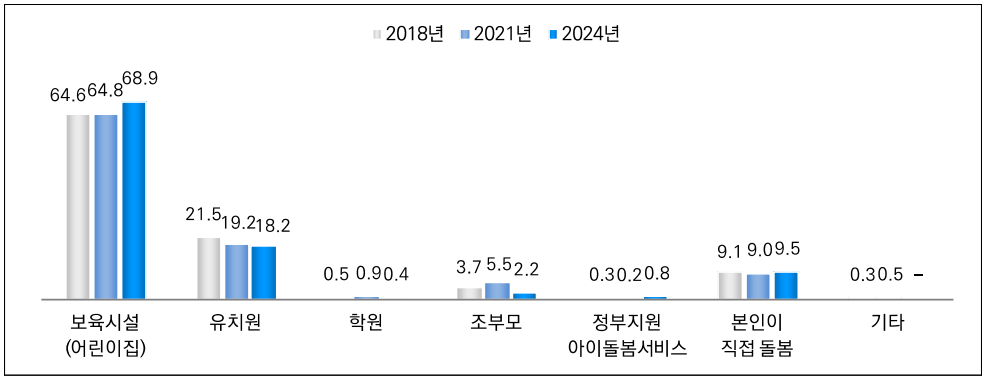
1) 주요 돌봄 유형

① 미취학 자녀(만 7세 미만)

미취학 자녀의 돌봄에 있어 주로 이용하는 돌봄 방법(1순위)은 보육시설(어린이집)이 68.9%로 가장 높았고, 유치원(18.2%), 본인 직접 돌봄(9.5%), 조부모 돌봄(2.2%) 등의 순으로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 비율이 87.1%였다.

2018년, 2021년, 2024년 실태조사를 비교해 보면, 2018년 대비 2024년 보육시설 이용(4.3%p), 본인이 직접 돌봄 0.4%p 증가하였고, 유치원(-3.3%p)과 조부모 돌봄(-1.5%p) 비중은 감소하였다.

(단위: %, 2018년: n=374, 2021년: n=398, 2024년: n=392)



[그림 Ⅱ-2-1] 돌봄 유형: 미취학 자녀(1순위)

미취학 자녀의 돌봄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모든 범주에서 '보육시설(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본인이 직접 돌봄'을 하는 비중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인이 직접 돌봄'을 하는 경우는 30대 이하 연령, 고졸 이하 학력, 기타 혼인 상태, 모자가구, 비취업자, 저소득 지원 가구,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한부모가 된 기간이 긴 경우 본인이 직접 돌봄을 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Ⅱ-2-1〉 돌봄 유형: 미취학 자녀(1순위)

(단위: %, 가구)

	보육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조부모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 직접 돌봄	합계(n)
전 체	68.9	18.2	0.4	2.2	0.8	9.5	100.0(392)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68.0	17.9	0.2	2.8	0.4	10.6	100.0(298)
40대	73.2	17.6	1.2	-	2.2	5.9	100.0(89)
50대 이상	44.3	55.7	-	-	-	-	100.0(4)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27.3	25.2	-	-	3.7	43.8	100.0(14)
고졸 이하	65.8	15.5	0.4	4.9	1.1	12.3	100.0(131)
대학 이상	73.0	19.2	0.5	0.8	0.5	6.0	100.0(246)
혼인 상태							
이혼	72.3	18.0	0.4	2.2	1.0	6.0	100.0(320)
사별	60.2	28.9	2.4	-	-	8.5	100.0(19)
기타	51.3	15.2	-	2.4	-	31.0	100.0(52)
가구 구성							
모자	60.2	21.1	0.7	2.3	1.6	14.2	100.0(192)
모자+기타	78.9	12.3	-	2.9	-	6.0	100.0(117)
부자	72.1	19.0	1.0	1.4	0.5	6.0	100.0(47)
부자+기타	78.8	21.2	-	-	-	-	100.0(36)

	보육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조부모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 직접 돌봄	합계(n)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73.5	22.5	0.3	0.9	0.9	1.9	100.0(168)
임시/일용근로자	78.8	15.7	0.8	1.6	0.6	2.5	100.0(91)
자영업/무급가족	79.1	20.9	-	-	-	-	100.0(32)
비취업	49.2	12.3	0.6	5.3	1.1	31.5	100.0(100)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67.4	18.3	0.6	1.7	1.2	10.8	100.0(278)
일반 가구	72.7	18.0	-	3.2	-	6.2	100.0(114)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61.9	13.5	-	-	-	24.6	100.0(4)
100~200만원 미만	57.2	17.8	1.5	3.6	0.6	19.3	100.0(85)
200~300만원 미만	66.5	19.8	-	1.5	1.9	10.3	100.0(131)
300만원 이상	76.8	17.3	0.3	2.0	0.1	3.6	100.0(171)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71.5	16.5	0.3	2.1	1.0	8.6	100.0(336)
5~10년 미만	53.2	31.7	1.1	2.5	-	11.4	100.0(50)
10년 이상	56.8	-	-	-	-	43.2	10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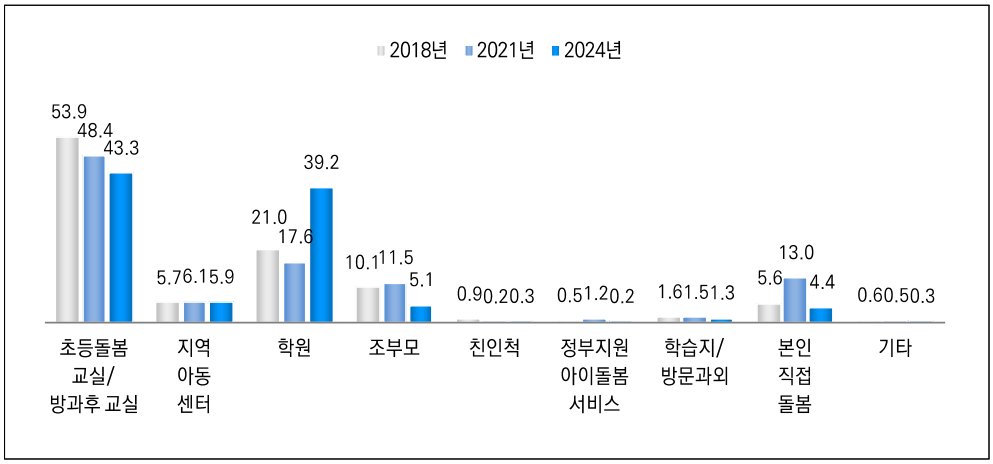
② 초등학생 자녀(만 7세~만 13세 미만)

초등학생 자녀의 방과 후 주로 이용하는 돌봄 방법(1순위)은 초등돌봄교실/방과후교실이 43.3%로 가장 높았고, 학원(39.2%), 지역아동센터(5.9%), 조부모 돌봄(5.1%), 본인 직접 돌봄(4.4%) 등의 순이었다.

2018년, 2021년, 2024년 실태조사를 비교해 보면, 2018년 대비 2024년 학원을 이용하는 비중이 18.2%p 크게 증가하였고, 초등돌봄교실/방과후교실(-10.6%p), 조부모(-5.0%p), 본인이 직접 돌봄(-1.2%p)은 감소하였다.

2023년 가족실태조사[6] 결과에서는 방과 후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 학원 75.2%, 집에서 지냄 11.7%, 초등 돌봄교실 5.7% 등의 순으로 나타나 2024년 한부모가족 조사 결과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단위: %, 2018년: n=979, 2021년: n=1,116, 2024년: n=1,378)



[그림 Ⅱ-2-2] 돌봄 유형: 초등학생 자녀(1순위)

6) 「가족실태조사」는 전국 12,000가구의 만 12세 이상 모든 가구원(비혼 동거 가구원 포함)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해당 조사에서의 질문 문항은 "(초등학생 돌봄) 이 어린이는 방과 후에 주로 어디에서 시간을 보냅니까?"이다(김영란 외, 2023: 6, 440, 573).

초등학생 자녀의 돌봄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초등돌봄교실/방과후교실'이 대부분의 범주 및 집단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특히 혼인 상태가 사별인 경우와 가장 어린자녀가 미취학, 임시/일용근로자인 경우 51% 이상으로 전체 비율(43.3%)보다 높은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학원'의 경우는 대학 이상의 학력, 기타 혼인 상태, 부자+기타 가구, 자영업/무급가족, 일반 가구, 300만원 이상 소득수준에서 '초등돌봄교실/방과후교실'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본인이 직접 돌봄'을 하는 경우도 중졸 이하 학력, 사별, 비취업, 소득수준이 낮은 범주에서 전체 비율보다 2배 이상 높았다.

〈표 Ⅱ-2-2〉 돌봄 유형: 초등학생 자녀(1순위)

(단위: %)

	초등 돌봄/ 방과후 교실	지역 아동센터	학원	조부모	친인척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학습지/ 방문과외	본인 직접 돌봄	기타	합계(n)
전 체	43.3	5.9	39.2	5.1	0.3	0.2	1.3	4.4	0.3	100.0(1,378)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46.1	5.1	37.9	4.2	0.6	0.4	0.4	4.7	0.7	100.0(516)
40대	41.2	5.3	41.1	6.2	0.1	0.2	1.8	4.1	0.1	100.0(781)
50대 이상	46.5	16.7	28.9	0.5	-	-	2.3	4.5	0.5	100.0(81)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48.8	16.6	18.5	-	-	-	5.5	10.7	-	100.0(31)
고졸 이하	44.5	8.0	36.5	4.0	0.1	0.2	1.4	4.8	0.6	100.0(656)
대학 이상	42.0	3.4	42.6	6.4	0.5	0.3	1.0	3.7	0.1	100.0(691)
혼인 상태										
이혼	43.4	5.7	39.8	5.3	0.3	0.2	1.4	3.7	0.1	100.0(1,194)
사별	51.1	3.8	28.1	5.6	-	-	0.4	10.3	0.6	100.0(117)
기타	28.2	12.4	46.6	-	1.3	1.3	-	6.2	4.0	100.0(66)
가구 구성										
모자	45.2	6.5	36.9	1.9	0.4	0.3	1.6	7.0	0.2	100.0(718)
모자+기타	43.2	4.3	35.6	12.5	-	-	1.4	1.8	1.1	100.0(244)
부자	42.8	8.7	40.8	3.5	0.3	0.3	1.0	2.3	0.1	100.0(254)
부자+기타	36.2	0.9	52.0	10.9	-	-	-	-	-	100.0(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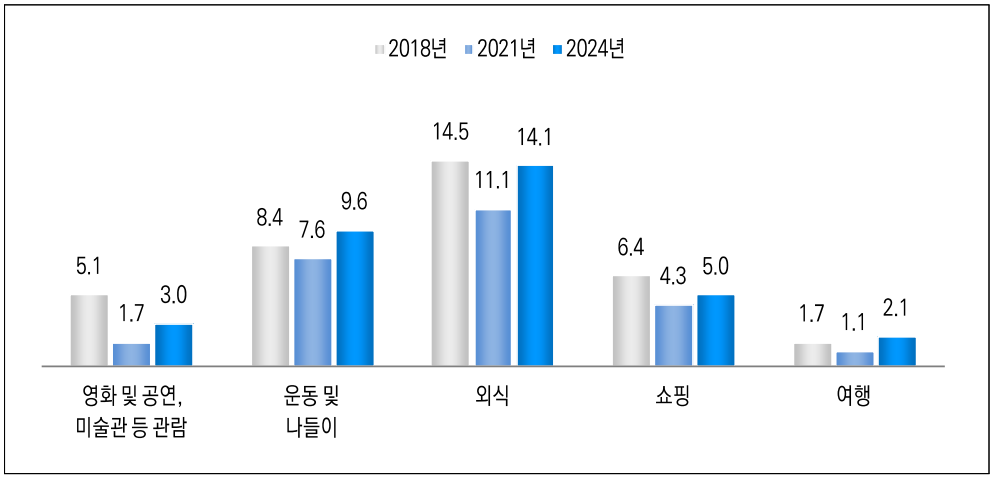
	초등 돌봄/ 방과후 교실	지역 아동센터	학원	조부모	친인척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학습지/ 방문과외	본인 직접 돌봄	기타	합계(n)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56.1	0.9	30.0	4.6	0.5	0.5	1.5	6.0	-	100.0(97)
초등학생	42.4	6.3	39.9	5.2	0.3	0.2	1.3	4.3	0.4	100.0(1,281)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38.9	4.8	46.4	6.2	0.6	0.0	0.5	2.6	-	100.0(635)
임시/일용근로자	51.3	7.3	30.2	5.8	0.1	0.5	1.1	3.5	0.1	100.0(356)
자영업/무급가족	31.0	4.8	52.7	5.0	-	-	1.6	4.3	0.5	100.0(150)
비취업	50.8	7.4	24.5	1.3	-	0.5	3.6	10.4	1.4	100.0(237)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45.7	7.6	34.4	4.0	0.4	0.2	1.7	5.6	0.5	100.0(938)
일반 가구	38.3	2.3	49.3	7.4	-	0.3	0.5	1.8	-	100.0(440)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39.2	6.3	36.8	-	-	-	9.4	8.3	-	100.0(11)
100~200만원 미만	46.9	8.9	30.5	1.5	-	0.3	1.0	9.5	1.3	100.0(254)
200~300만원 미만	49.6	7.2	32.0	4.7	0.4	0.1	1.9	4.0	0.1	100.0(500)
300만원 이상	36.8	3.6	48.7	7.0	0.3	0.3	0.7	2.4	0.1	100.0(612)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44.5	4.7	39.3	5.8	0.4	0.1	1.7	3.4	0.1	100.0(737)
5~10년 미만	40.7	6.5	39.7	4.8	0.2	0.4	0.9	5.9	0.8	100.0(547)
10년 이상	49.5	11.3	34.6	0.9	-	-	-	3.7	-	100.0(94)

2) 자녀와의 여가활동

최근 1년 동안 초등학생 자녀와 가장 많이 한 여가활동은 외식이 14.1회로 가장 많았고, 운동 및 나들이(9.6회), 쇼핑(5.0회), 영화 및 공연, 미술관 등 관람(3.0회), 여행(2.1회)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 2021년, 2024년 실태조사를 비교해 보면, 2018년 대비 2024년 가장 많이 한 여가활동 순은 동일하였지만 외식(-0.4회), 쇼핑(-1.4회), 영화 및 공연, 미술관 등 관람(-2.1회) 활동은 줄어들었고, 운동 및 나들이(1.2회), 여행(0.4회) 활동은 증가하였다.

(단위: 회, 2015년: n=918, 2018년: n=979, 2021년: n=1,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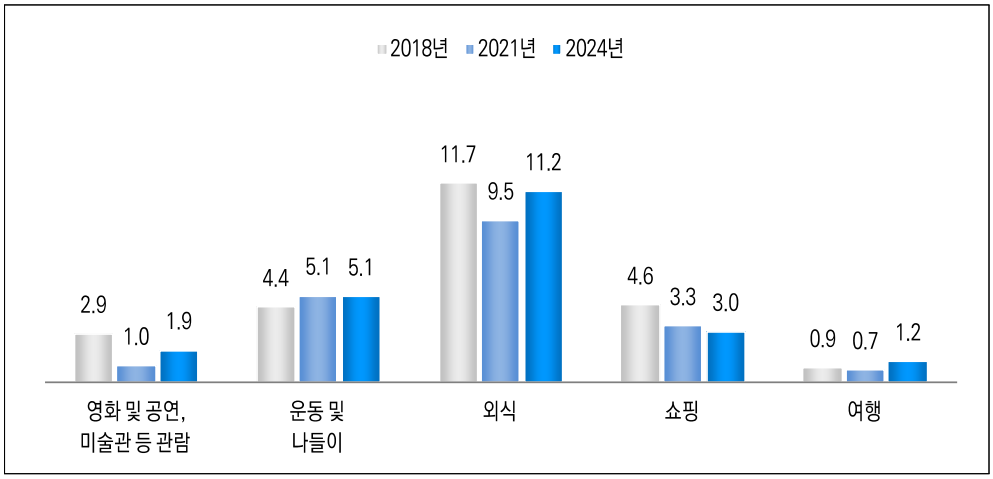
[그림 Ⅱ-2-3] 자녀와 함께 여가활동을 하는 정도: 초등학생 자녀

최근 1년 동안 중·고등학생 자녀와 가장 많이 한 여가활동은 외식이 11.2회로 가장 많았고, 운동 및 나들이(5.1회), 쇼핑(3.0회), 영화 및 공연, 미술관 등 관람(1.9회), 여행(1.2회)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 2021년, 2024년 실태조사를 비교해 보면, 2018년 대비 2024년 외식(-0.5회), 쇼핑(-1.6회), 영화 및 공연, 미술관 등 관람(1.0회) 활동은 줄었고, 운동 및 나들이(0.7회), 여행(0.3회) 활동은 증가하였다.

초등학생 자녀와 중·고등학생 자녀의 활동별 횟수는 초등학생이 많았지만, 여가활동 양상 및 증감 추세는 동일하였다.

(단위: 회, 2018년: n=1,468, 2021년: n=2,141, 2024년: n=1,969)



[그림 Ⅱ-2-4] 자녀와 함께 여가활동을 하는 정도: 중·고등학생 자녀

초등학생 자녀의 여가활동별 특성을 살펴보면, 30대 이하 연령, 가장 어린자녀가 미취학인 경우, 일반 가구, 한부모가 된 기간이 5~10년 미만인 경우에서 여가활동을 즐기는 빈도가 높은 양상을 보였다(=〈표 Ⅱ-2-3〉).

중·고등학생 자녀의 돌봄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30대 이하 연령, 대학 이상 학력, 혼인 상태가 이혼인 경우, 모자+기타 가구, 가장 어린자녀가 초등학생, 상용 근로자인 경우에 여가활동을 즐기는 빈도가 높은 양상을 보였다(=〈표 Ⅱ-2-4〉).

〈표 Ⅱ-2-3〉 자녀와 함께 여가활동을 하는 정도: 초등학생 자녀

(단위: 회)

	①영화/공연, 미술관 등 관람	$F(df)$	②운동 및 나들이	$F(df)$	③외식	$F(df)$	④쇼핑	$F(df)$	⑤여행	$F(df)$
전 체	3.0		9.6		14.1		5.0		2.1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3.5	5.282(2)**	11.5	5.182(2)**	15.0	1.838(2)	5.4	1.063(2)	2.6	7.935(2)***
40대	2.8		8.4		13.7		4.9		1.9	
50대 이상	2.1		8.9		12.0		4.0		1.3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2.7	4.777(2)**	8.3	1.366(2)	15.6	2.914(2)	7.4	1.229(2)	2.4	2.904(2)
고졸 이하	2.6		8.8		13.0		4.9		1.9	
대학 이상	3.4		10.4		15.0		5.1		2.3	
혼인 상태										
이혼	2.9	5.085(2)**	9.4	0.696(2)	14.3	0.659(2)	5.0	0.135(2)	2.1	1.733(2)
사별	3.9		10.0		13.2		5.2		2.5	
기타	4.4		11.9		12.5		5.5		1.5	
가구 구성										
모자	2.9	6.752(3)***	9.8	1.191(3)	13.4	1.018(3)	5.2	0.545(3)	2.1	0.14(3)
모자+기타	3.9		9.6		14.7		5.2		2.0	
부자	2.1		10.5		15.2		4.6		2.2	
부자+기타	3.7		7.3		14.4		4.5		2.2	

	①영화/공연, 미술관 등 관람	$F(df)$	②운동 및 나들이	$F(df)$	③외식	$F(df)$	④쇼핑	$F(df)$	⑤여행	$F(df)$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2.1	3.788(1)	17.0	18.969(1)***	15.6	0.99(1)	5.0	-	2.5	1.338(1)
초등학생	3.1		9.0		14.0		5.0		2.1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3.5		8.8		14.5		5.0		2.4	
임시/일용근로자	2.4	4.423(3)**	9.3	2.216(3)	12.5	2.151(3)	4.3	1.636(3)	1.6	4.299(3)**
자영업/무급가족	2.8		9.4		16.0		6.2		2.3	
비취업	2.9		12.2		14.3		5.3		1.9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2.9	2.7(1)	9.7	0.221(1)	13.6	2.61(1)	4.8	2.141(1)	2.0	4.197(1)*
일반 가구	3.3		9.3		15.1		5.5		2.4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2.8		10.0		7.1		3.9		1.5	
100~200만원 미만	2.5	2.232(3)	10.9	0.6(3)	13.7	2.156(3)	5.2	0.202(3)	1.9	2.45(3)
200~300만원 미만	2.8		9.3		13.3		4.8		1.9	
300만원 이상	3.4		9.3		15.1		5.1		2.4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2.8	1.945(2)	9.7	0.265(2)	13.2	2.872(2)	4.9	0.364(2)	2.2	4.483(2)*
5~10년 미만	3.3		9.7		15.2		5.2		2.2	
10년 이상	2.8		8.3		14.9		4.5		1.1	

주: *p<.05, **p<.01, ***p<.001

〈표 Ⅱ-2-4〉 자녀와 함께 여가활동을 하는 정도: 중·고등학생 자녀

(단위: 회)

	①영화/공연, 미술관 등 관람	$F(df)$	②운동 및 나들이	$F(df)$	③외식	$F(df)$	④쇼핑	$F(df)$	⑤여행	$F(df)$
전 체	1.9		5.1		11.2		3.0		1.2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2.8	11.115(2)***	10.0	11.735(2)***	13.4	3.74(2)*	3.6	3.144(2)*	1.7	6.554(2)**
40대	2.0		5.0		11.4		3.1		1.3	
50대 이상	1.5		3.9		10.3		2.5		1.1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2.6	8.637(2)***	5.0	3.311(2)*	10.2	9.05(2)***	3.1	0.719(2)	0.9	16.579(2)***
고졸 이하	1.7		4.4		10.2		2.9		1.1	
대학 이상	2.2		6.0		12.7		3.2		1.5	
혼인 상태										
이혼	1.9	0.401(2)	5.3	1.052(2)	11.6	4.546(2)*	3.1	0.976(2)	1.3	1.001(2)
사별	1.8		4.1		9.1		2.5		1.2	
기타	2.1		3.8		9.8		3.0		1.0	
가구 구성										
모자	2.1		5.6		11.1		3.2		1.3	
모자+기타	2.4	8.408(3)***	5.9	3.362(3)*	13.2	2.496(3)	4.1	8.288(3)***	1.1	0.594(3)
부자	1.3		4.2		11.2		2.3		1.2	
부자+기타	1.6		2.9		9.8		1.9		1.2	

	①영화/공연, 미술관 등 관람	$F(df)$	②운동 및 나들이	$F(df)$	③외식	$F(df)$	④쇼핑	$F(df)$	⑤여행	$F(df)$
혼인 상태										
이혼	1.9	0.401(2)	5.3	1.052(2)	11.6	4.546(2)*	3.1	0.976(2)	1.3	1.001(2)
사별	1.8		4.1		9.1		2.5		1.2	
기타	2.1		3.8		9.8		3.0		1.0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1.6	7.978(2)***	5.7	0.108(2)	11.3	0.141(2)	3.0	2.268(2)	0.8	1.341(2)
초등학생	2.6		5.3		11.6		3.6		1.4	
중학생 이상	1.8		5.0		11.2		2.9		1.2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2.2		5.3		11.7		3.3		1.5	
임시/일용근로자	1.8	4.271(3)**	4.7	2.844(3)*	10.7	1.156(3)	3.0	2.664(3)*	1.1	8.059(3)***
자영업/무급가족	1.5		3.6		11.6		2.2		1.2	
비취업	1.8		6.8		10.4		2.9		0.9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2.0	3.464(1)	5.3	1.223(1)	11.0	1.85(1)	3.3	8.621(1)**	1.2	4.033(1)*
일반 가구	1.7		4.6		11.8		2.5		1.4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0.4		1.9		4.3		1.1		0.7	
100~200만원 미만	1.7	1.843(3)	5.4	0.279(3)	10.4	3.961(3)**	2.9	0.478(3)	1.0	6.918(3)***
200~300만원 미만	2.1		5.1		10.6		3.0		1.1	
300만원 이상	1.9		5.0		12.2		3.0		1.5	

	①영화/공연, 미술관 등 관람	$F(df)$	②운동 및 나들이	$F(df)$	③외식	$F(df)$	④쇼핑	$F(df)$	⑤여행	$F(df)$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1.9	0.195(2)	5.7	1.022(2)	11.1	0.125(2)	3.3	1.452(2)	1.3	7.046(2)***
5~10년 미만	2.0		5.0		11.2		2.8		1.4	
10년 이상	1.9		4.5		11.5		2.9		1.0	

주: *p<.05, **p<.01, ***p<.001

3) 자녀가 혼자 보내는 시간

① 자녀가 혼자 보내는 시간

평일 일과 후 돌봐주는 어른없이 자녀가 혼자 보내는 시간은 미취학 자녀는 '없다' 96.8%, '있다' 3.2%로 평균 2.2시간을 혼자 있었고, 초등학생 자녀는 '없다' 64.1%, '있다' 35.9%로 평균 2.5시간을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2018년, 2021년, 2024년 실태조사를 비교해 보면, 미취학 자녀와 초등학생 모두 혼자 있는 시간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며 2018년 대비 2024년 미취학 자녀와 초등학생 각각 전체 평균 0.2시간, 0.3시간 혼자있는 시간이 줄었다.

2023년 가족실태조사[7] 결과에서는 초등학생이 방과 후 혼자 있는 시간이 '없다'라고 한 비율은 47.4%였으며, 혼자 있는 시간은 1시간 이상~2시간 미만(16.8%), 30분 이상~1시간(14.5%), 2시간 이상~3시간 미만(9.0%)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족의 초등학생 자녀가 혼자있는 비중은 낮았지만 혼자있는 평균 시간은 길었다.

2023년 조손가족 실태조사[8] 결과에서는 미취학 및 초등학생 손자녀가 평일 돌봐주는 어른없이 하루 평균 혼자 지내는 시간은 미취학 손자녀와 초등학생 손자녀 각각 '없음'이 94.3%, 83.1%였으며 하루 평균 미취학 손자녀는 5.7시간, 초등학생 손자녀는 3.5시간 혼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족의 미취학 자녀가 조손가족보다 혼자 있는 비중은 낮았고, 초등학생 자녀는 혼자있는 비중이 높았으나 미취학 자녀와 초등학생 자녀 모두 혼자있는 평균 시간은 짧았다([그림 Ⅱ-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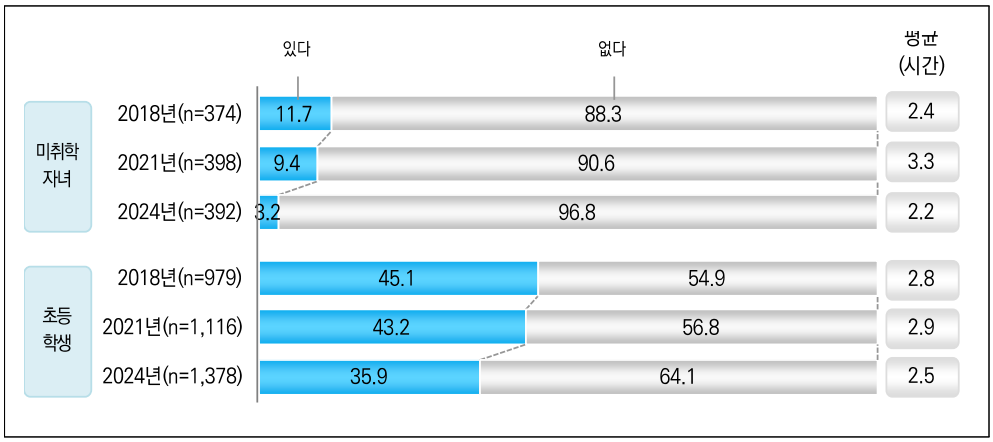
초등학생 자녀가 혼자 보내는 시간 여부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면, 한부모 학력이 낮을수록, 저소득 지원 가구인 경우, 한부모가 된 기간이 길수록 혼자 있는 평균 시간이 많았다(<표 Ⅱ-2-6>).

---

7) 「2023년 가족실태조사」에서는 "(초등학생) 어린이가 방과 후에 돌보는 사람 없이 집에서 지내는 시간은 하루 평균 몇 시간입니까?"로 묻고 있다(김영란 외, 2023: 440-441, 574).

8) 2023년에 실시한 「조손가구 실태조사」는 부모로부터 부양받고 있지 않은 만18세 미만 손자녀와 함께 사는 (외)조부모 1,783명을 조사함(해당 가구에 속해 있는 만 10~17세 손자녀 1,330명도 함께 조사). 해당 조사에서의 질문 문항은 "귀댁의 미취학 손자녀/초등학생 손자녀는 평일을 기준으로 돌봐주는 어른 없이 지내는 시간이 있습니까? 있다면,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입니까?"로 구성되어 있다(배호중 외, 2023b: 12, 93, 453~454).

(단위: %)



[그림 Ⅱ-2-5] 자녀가 혼자 보내는 시간

〈표 Ⅱ-2-5〉 자녀가 혼자 보내는 시간: 초등학생 자녀

(단위: %, 가구)

	있다	없다	합계(n)	평균(시간)	$F(df)$
전 체	35.9	64.1	100.0(1,378)	2.5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20.4	79.6	100.0(31)	3.4	3.568(2)*
고졸 이하	37.7	62.3	100.0(656)	2.6	
대학 이상	34.9	65.1	100.0(691)	2.4	
가구 구성					
모자	40.7	59.3	100.0(718)	2.5	
모자+기타	16.7	83.3	100.0(244)	3.0	5.77(3)***
부자	50.6	49.4	100.0(254)	2.5	
부자+기타	20.4	79.6	100.0(162)	1.8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35.5	64.5	100.0(938)	2.6	6.289(1)*
일반 가구	36.8	63.2	100.0(440)	2.3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36.1	63.9	100.0(737)	2.4	4.277(2)*
5~10년 미만	36.0	64.0	100.0(547)	2.6	
10년 이상	33.5	66.5	100.0(94)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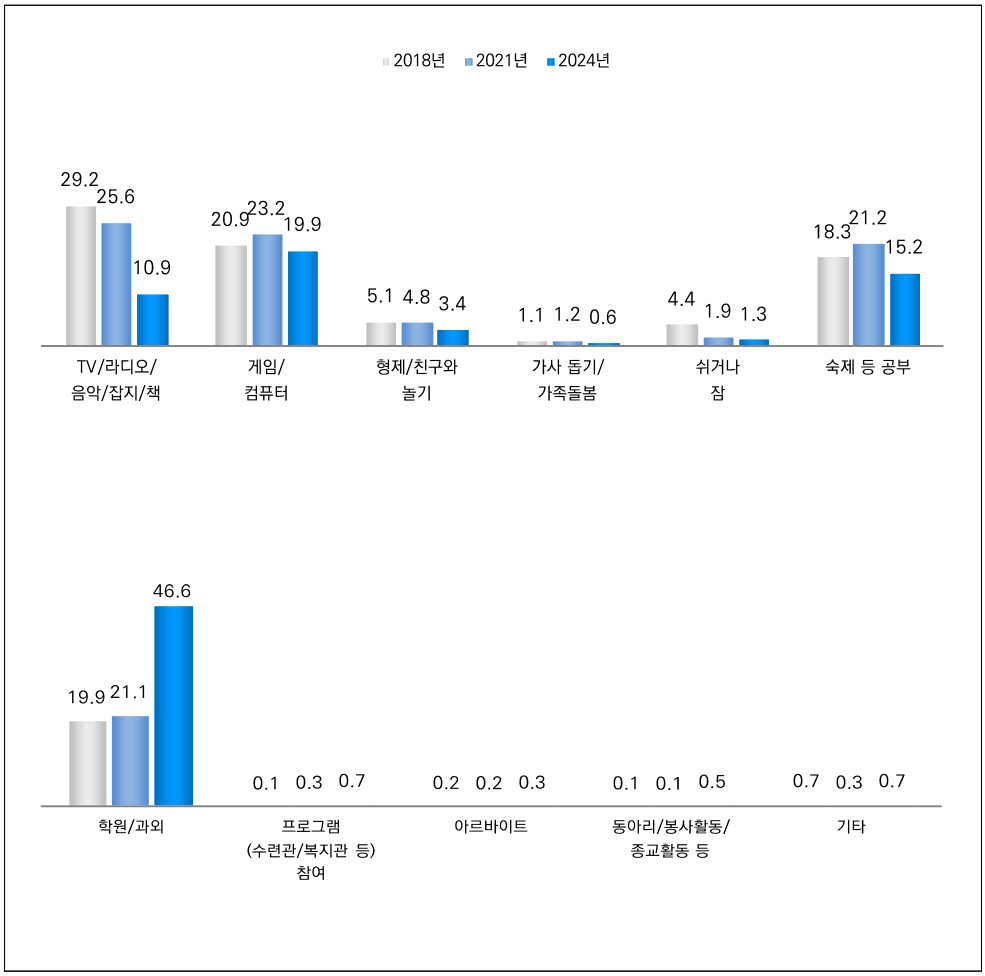
주: *p<.05, ***p<.001

② 평소 자녀가 일과 이후에 하는 활동(중학생 이상 자녀를 둔 경우)

중·고등학생 자녀의 평일 일과 후 주요 활동(1순위)은 학원/과외가 46.6%로 가장 높았고, 게임/컴퓨터(19.9%), 숙제 등 공부(15.2%), TV/라디오/음악/잡지/책(1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 2021년, 2024년 실태조사를 비교해 보면, 이전에는 TV/라디오/음악/잡지/책, 게임/컴퓨터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24년 조사에서는 학원/과외 비중이 급격하게 높아졌다. 2018년 대비 2024년 학원/과외 비중은 26.7%p 증가하였고, TV/라디오/음악/잡지/책을 보는 활동은 크게 감소(-18.3%p)하였다.

(단위: %, 2018년: n=1,468, 2021년: n=2,141, 2024년: n=1,969)



[그림 Ⅱ-2-6] 일과 후의 활동(1순위): 중·고등학생 자녀

중·고등학생 자녀의 평일 일과 후 주요 활동별 특성을 살펴보면, '학원/과외' 활동은 한부모 연령이 낮고 고학력 집단, 부자/부자+기타 가구, 가장 어린자녀가 중학생 이상,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일반 가구, 소득수준 300만원 이상에서 큰 비중을 두고 있었다. '게임/컴퓨터/스마트폰' 활동은 한부모 연령이 높고 저학력 집단, 부자/부자+기타 가구, 가장 어린자녀가 미취학, 저소득 지원 가구, 소득수준이 100~300만원 미만, 한부모가 된 기간이 10년 이상에서 주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TV/라디오/음악/잡지/책' 활동은 한부모 연령이 낮고 저학력 집단, 모자가구, 가장 어린자녀가 초등학생 이하, 저소득 지원 가구,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 한부모가 된 기간이 5년 미만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고등학생 자녀의 경우는 모자+기타 가구에서 한부모가 비취업인 경우 다소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한부모가 고학력이거나 가장 어린자녀가 학력이 높은 집단에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가구에서는 학원/과외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와 반대되는 상황의 경우 게임/컴퓨터/스마트폰, TV/라디오/음악/잡지/책을 보며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2-6〉 일과 후의 활동(1순위): 중·고등학생 자녀

(단위: %)

	TV/라디오/음악/잡지/책	게임/컴퓨터/스마트폰	형제/친구와 놀기	가사 돕기/가족돌봄	쉬거나 잠	숙제 등 공부	학원/과외	프로그램(수련관/복지관 등) 참여	아르바이트	동아리/봉사활동/종교활동 등	기타	합계(n)
전 체	10.9	19.9	3.4	0.6	1.3	15.2	46.6	0.7	0.3	0.5	0.7	100.0(1,969)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12.0	16.0	4.4	0.3	-	14.4	52.2	0.2	-	0.5	-	100.0(146)
40대	11.3	19.7	3.3	0.6	1.2	15.1	46.9	0.4	0.2	0.6	0.6	100.0(1,308)
50대 이상	9.5	21.4	3.3	0.7	1.9	15.6	44.2	1.5	0.6	0.2	1.1	100.0(516)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12.8	31.7	-	1.3	2.5	26.3	21.9	2.5	-	-	1.0	100.0(70)
고졸 이하	11.7	19.8	4.6	0.7	1.4	16.7	43.2	0.7	0.2	0.5	0.5	100.0(1,097)
대학 이상	9.6	18.9	2.1	0.5	1.0	12.2	53.4	0.5	0.4	0.5	0.9	100.0(802)
혼인 상태												
이혼	11.2	20.4	2.9	0.8	1.3	15.4	45.7	0.7	0.4	0.6	0.8	100.0(1,650)
사별	8.9	15.6	5.3	-	1.2	15.0	52.8	0.9	-	0.3	-	100.0(248)
기타	9.9	22.4	8.5	-	-	11.7	46.6	-	-	-	0.9	100.0(71)
가구 구성												
모자	12.1	19.2	3.4	0.6	1.5	16.2	44.9	0.6	0.2	0.6	0.6	100.0(1,106)
모자+기타	10.6	16.1	3.2	-	0.8	22.9	43.6	0.8	1.3	-	0.8	100.0(214)
부자	10.0	23.1	3.4	0.6	1.3	13.3	47.0	0.5	0.2	0.1	0.7	100.0(450)
부자+기타	6.4	20.1	3.6	1.4	0.5	5.8	58.2	1.4	-	1.6	0.9	100.0(1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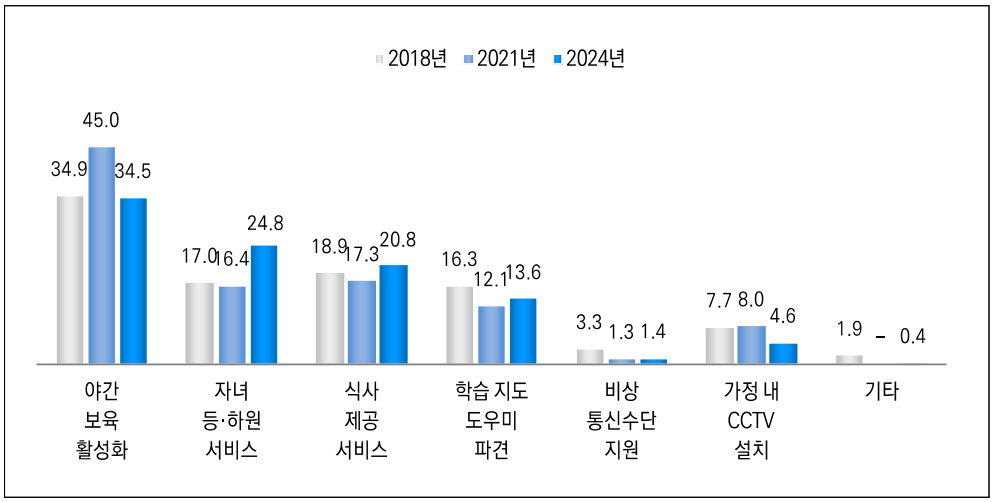
	TV/라디오/음악/잡지/책	게임/컴퓨터/스마트폰	형제/친구와 놀기	가사 돕기/가족돌봄	쉬거나 잠	숙제 등 공부	학원/과외	프로그램(수련관/복지관 등) 참여	아르바이트	동아리/봉사활동/종교활동 등	기타	합계(n)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14.7	22.2	3.8	2.0	-	26.9	27.3	-	-	3.1	-	100.0(25)
초등학생	14.4	19.4	6.1	1.3	0.8	17.0	39.9	0.8	-	-	0.3	100.0(303)
중학생 이상	10.2	19.9	2.9	0.5	1.4	14.7	48.1	0.7	0.4	0.6	0.7	100.0(1,642)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8.5	15.7	3.1	0.7	1.0	14.9	54.1	0.2	0.3	0.8	0.7	100.0(861)
임시/일용근로자	16.9	23.9	4.3	0.0	1.7	15.0	36.4	1.2	0.0	0.5	0.1	100.0(529)
자영업/무급가족	5.9	17.6	1.6	0.3	1.0	11.8	61.1	-	-	-	0.7	100.0(294)
비취업	12.1	27.3	4.7	1.7	1.3	20.0	27.7	2.1	1.2	0.3	1.6	100.0(285)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13.2	22.1	3.6	0.8	1.6	17.5	38.8	0.8	0.3	0.4	0.8	100.0(1,321)
일반 가구	6.1	15.3	3.0	0.4	0.5	10.4	62.4	0.4	0.4	0.7	0.3	100.0(648)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16.9	15.1	-	8.7	11.1	16.5	18.9	10.5	-	-	2.2	100.0(12)
100~200만원 미만	15.9	28.8	3.4	0.6	1.8	18.1	28.9	0.5	0.5	0.1	1.6	100.0(337)
200~300만원 미만	11.9	22.7	4.2	0.5	1.4	17.6	39.2	1.1	0.6	0.4	0.3	100.0(778)
300만원 이상	7.8	13.7	2.7	0.6	0.7	11.8	60.9	0.3	-	0.8	0.6	100.0(841)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15.1	17.3	2.0	0.4	2.0	14.7	46.9	0.9	0.1	0.3	0.3	100.0(540)
5~10년 미만	9.0	19.8	3.8	0.9	0.8	13.8	50.6	0.4	0.0	0.4	0.5	100.0(912)
10년 이상	9.8	22.7	4.2	0.3	1.2	18.2	39.2	1.0	1.1	0.9	1.3	100.0(518)

③ 자녀가 혼자 지내는 시간에 필요한 서비스

미취학 자녀가 혼자 지내는 시간에 필요한 서비스로는 야간보육 활성화가 34.5%로 가장 높았고, 자녀 등·하원 서비스(24.8%), 식사 제공 서비스(20.8%), 학습지도 도우미 파견서비스(13.6%), 아이 모니터링을 위한 가정 내 CCTV 설치(4.6%), 키즈폰 등 비상통신수단 지원(1.4%)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 2021년, 2024년 실태조사를 비교해 보면, 2018년 대비 2024년 '자녀 등·하원 서비스' 필요 응답이 7.8%p로 크게 증가, '식사 제공 서비스'가 1.9%p로 증가한 반면, '야간보육 활성화', '학습지도 도우미 파견서비스', '아이 모니터링을 위한 가정 내 CCTV 설치', '키즈폰 등 비상통신수단 지원'의 필요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2018년: n=374, 2021년: n=398, 2024년: n=392)



[그림 Ⅱ-2-7] 자녀가 혼자 있을 때 바라는 서비스: 미취학 자녀

미취학 자녀의 혼자 지내는 시간에 필요한 서비스별 특성을 살펴보면, 한부모 연령, 학력, 혼인 상태, 정부 지원 유형의 범주에서는 '야간보육 활성화' 필요성이 가장 높았다. 이에 반해 모자+기타 가구구성과 비취업자의 경우 '자녀 등·하원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 응답이 가장 높았고, 소득수준이 100만원 미만 집단의 경우 '식사 제공 서비스'가, 한부모가 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학습지도 도우미 파견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표 Ⅱ-2-7〉 자녀가 혼자 있을 때 바라는 서비스: 미취학 자녀

(단위: %, 가구)

	야간보육 활성화	자녀 등·하원 서비스	식사 제공 서비스	학습지도 도우미 파견	비상통신 수단 지원	가정 내 CCTV 설치	기타	없음	합계(n)
전 체	34.5	24.8	20.8	13.6	1.4	4.6	0.3	0.1	100.0(392)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33.1	26.4	18.7	14.5	1.7	4.9	0.3	0.2	100.0(298)
40대	38.9	20.3	28.3	8.9	0.3	3.4	-	-	100.0(89)
50대 이상	34.0	-	10.2	49.8	-	5.9	-	-	100.0(4)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26.6	13.0	17.3	24.2	-	18.9	-	-	100.0(14)
고졸 이하	31.8	25.1	22.9	14.5	1.3	4.4	-	-	100.0(131)
대학 이상	36.3	25.3	20.0	12.5	1.5	3.9	0.4	0.2	100.0(246)
혼인 상태									
이혼	34.7	24.5	22.3	12.7	1.3	4.4	-	0.1	100.0(320)
사별	38.1	20.7	20.0	13.7	1.3	6.3	-	-	100.0(19)
기타	31.6	27.9	12.1	19.1	2.0	5.3	2.0	-	100.0(52)
가구 구성									
모자	33.7	17.7	25.0	15.6	0.7	6.8	0.5	-	100.0(192)
모자+기타	29.6	45.2	14.2	5.2	2.3	3.6	-	-	100.0(117)
부자	43.0	12.1	30.8	9.9	1.7	1.5	-	1.0	100.0(47)
부자+기타	43.3	12.2	7.5	35.1	1.8	-	-	-	100.0(36)

	야간보육 활성화	자녀 등·하원 서비스	식사 제공 서비스	학습지도 도우미 파견	비상통신 수단 지원	가정 내 CCTV 설치	기타	없음	합계(n)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34.0	23.9	21.2	15.6	2.0	3.3	-	-	100.0(168)
임시/일용근로자	47.2	21.3	19.2	7.1	1.0	3.8	-	0.5	100.0(91)
자영업/무급가족	47.6	8.5	25.8	18.1	-	-	-	-	100.0(32)
비취업	19.5	34.7	20.2	14.7	1.0	8.9	1.0	-	100.0(100)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31.9	23.3	22.3	15.2	1.8	5.1	0.4	0.2	100.0(278)
일반 가구	40.8	28.4	17.4	9.8	0.2	3.5	-	-	100.0(114)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18.7	-	43.1	13.5	-	24.6	-	-	100.0(4)
100~200만원 미만	33.3	24.4	17.8	12.0	2.3	10.2	-	-	100.0(85)
200~300만원 미만	32.3	26.6	21.8	15.7	0.6	1.8	0.8	0.3	100.0(131)
300만원 이상	37.0	24.1	21.1	12.8	1.5	3.5	-	-	100.0(171)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33.0	27.1	20.9	12.3	1.4	4.8	0.3	0.1	100.0(336)
5~10년 미만	45.0	10.5	22.7	16.7	1.1	4.0	-	-	100.0(50)
10년 이상	26.7	13.6	-	59.7	-	-	-	-	10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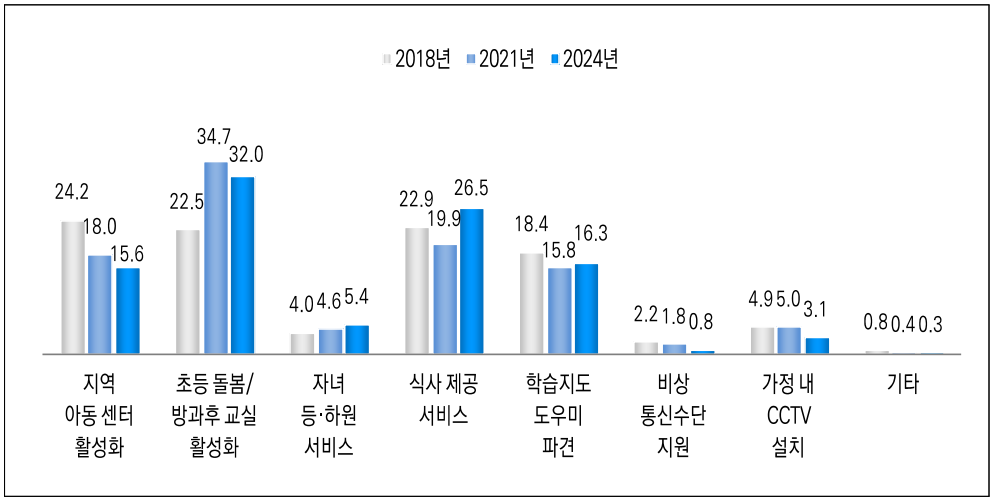
초등학생 자녀가 혼자 지내는 시간에 필요한 서비스로는 초등돌봄/방과후교실 활성화가 32.0%로 가장 높았고, 식사 제공 서비스(26.5%), 학습지도 도우미 파견서비스(16.3%), 지역 아동센터 활성화(15.6%), 자녀 등·하원 서비스(5.4%), 아이 모니터링을 위한 가정 내 CCTV 설치'(3.1%), 키즈 폰 등 비상통신수단 지원'(0.8%)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 2021년, 2024년 실태조사를 비교해 보면, 2018년 대비 2024년 초등돌봄/방과후교실 활성화 필요 응답이 9.5%p로 크게 증가하였고, 식사 제공 서비스 3.6%p, 자녀 등·하원 서비스가 1.4%p 증가한 반면, 학습지도 도우미 파견서비스, 지역 아동센터 활성화, 아이 모니터링을 위한 가정 내 CCTV 설치, 키즈 폰 등 비상통신수단 지원의 필요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사 제공 서비스와 자녀 등·하원 서비스의 경우 미취학 자녀와 초등학생 자녀 모두 이전보다 필요성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2021년 「가족과 출산조사」[9] 결과에서도 방과후 이용 희망서비스에 대해 민간 학원사설공부방 44.0%, 방과후학교 23.6%, 초등돌봄교실 11.8% 등의 순으로 나타나 초등돌봄/방과후교실에 대한 희망 비중이 높았다.

(단위: %, 2018년: n=979, 2021년: n=1,116, 2024년: n=1,378)



[그림 Ⅱ-2-8] 자녀가 혼자 있을 때 바라는 서비스: 초등학생 자녀

9) 「가족과 출산조사」는 19~49세 성인을 대상(연령 제한없는 배우자 조사 포함)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해당 조사에서의 관련 문항은 "( )째 자녀를 방과후에 맡기기를 가장 희망하는 사람(곳)은 누구(어디)입니까?"로 구성되어 있다(박종서 외, 2023: 53, 423, 253).

초등학생 자녀의 혼자 지내는 시간에 필요한 서비스별 특성을 살펴보면, 한부모 연령, 학력, 소득수준, 한부모가 된 기간의 범주에서 '초등돌봄/방과후교실 활성화' 필요성이 가장 높았다. 이에 반해 혼인 상태가 사별, 부자가구, 가장 어린자녀가 미취학, 자영업/무급가족, 일반 가구인 경우 '식사 제공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표 Ⅱ-2-8〉 자녀가 혼자 있을 때 바라는 서비스: 초등학생 자녀

(단위: %)

	지역 아동 센터 활성화	초등 돌봄/ 방과후 교실 활성화	자녀 등·하원 서비스	식사 제공 서비스	학습지도 도우미 파견	키즈폰 등 비상 통신수단 지원	가정 내 CCTV 설치	기타	없음	합계(n)
전 체	15.6	32.0	5.4	26.5	16.3	0.8	3.1	0.0	0.3	100.0(1,378)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14.7	33.4	5.8	25.0	15.2	1.9	3.3	0.0	0.6	100.0(516)
40대	15.2	31.3	5.5	27.6	17.2	0.1	2.9	0.1	0.1	100.0(781)
50대 이상	25.1	29.2	1.9	25.2	14.0	0.6	3.4	-	0.6	100.0(81)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26.4	36.4	-	22.5	4.4	2.1	6.7	-	1.5	100.0(31)
고졸 이하	19.1	33.0	3.6	24.5	15.3	1.0	3.1	0.0	0.5	100.0(656)
대학 이상	11.8	30.8	7.4	28.6	17.8	0.6	2.9	0.1	0.1	100.0(691)
혼인 상태										
이혼	15.8	32.1	5.3	26.3	16.6	0.5	3.0	0.1	0.3	100.0(1,194)
사별	13.9	28.6	8.0	29.2	13.9	1.3	4.9	-	0.2	100.0(117)
기타	14.8	35.9	1.9	24.6	14.1	6.7	2.1	-	-	100.0(66)
가구 구성										
모자	14.3	31.5	5.2	26.2	18.1	0.4	4.0	0.1	0.1	100.0(718)
모자+기타	21.3	32.2	9.5	18.7	12.1	3.1	2.1	-	0.9	100.0(244)
부자	19.2	26.6	2.1	32.4	15.3	0.5	3.4	-	0.5	100.0(254)
부자+기타	7.0	42.0	5.3	29.8	15.9	-	-	-	-	100.0(162)

	지역 아동 센터 활성화	초등 돌봄/ 방과후 교실 활성화	자녀 등·하원 서비스	식사 제공 서비스	학습지도 도우미 파견	키즈폰 등 비상 통신수단 지원	가정 내 CCTV 설치	기타	없음	합계(n)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18.1	27.2	11.2	29.5	11.0	-	2.6	-	0.5	100.0(97)
초등학생	15.4	32.3	5.0	26.2	16.7	0.9	3.1	0.1	0.3	100.0(1,281)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12.0	31.3	6.3	29.9	15.9	1.0	3.1	-	0.4	100.0(635)
임시/일용근로자	20.6	36.7	3.9	21.4	14.5	0.6	2.1	-	0.2	100.0(356)
자영업/무급가족	14.4	21.2	7.0	29.1	24.1	1.0	3.0	-	0.1	100.0(150)
비취업	18.4	33.6	4.2	23.1	14.9	0.7	4.6	0.3	0.2	100.0(237)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17.3	33.0	5.2	23.8	16.0	1.1	3.1	0.1	0.4	100.0(938)
일반 가구	11.9	29.8	5.9	32.2	16.9	0.3	3.0	-	-	100.0(440)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8.3	25.5	-	23.8	42.4	-	-	-	-	100.0(11)
100~200만원 미만	21.5	33.6	4.6	19.5	15.2	0.8	4.2	0.3	0.2	100.0(254)
200~300만원 미만	15.6	32.9	3.1	29.3	15.5	0.6	2.1	-	0.7	100.0(500)
300만원 이상	13.3	30.6	7.7	27.1	16.8	1.0	3.5	-	0.0	100.0(612)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14.6	30.7	7.3	26.9	16.6	0.8	2.8	0.1	0.2	100.0(737)
5~10년 미만	16.4	32.8	3.5	27.3	15.5	1.0	3.0	0.0	0.5	100.0(547)
10년 이상	18.9	37.2	1.7	17.9	18.7	-	5.6	-	-	100.0(94)

나. 자녀양육 어려움

한부모의 자녀양육 어려움에 대해 미취학 자녀, 초등학생 자녀, 중·고등학생 이상 자녀로 나누어 각 연령기에 가지고 있는 양육 어려움에 대해 4점 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④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1) 자녀양육의 어려움

① 미취학 자녀

미취학 자녀 양육시 가장 어려움이 큰 항목은 양육비, 교육비용 부담으로 78.0%가 그렇다(대체로 그렇다+매우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자녀 돌봐줄 사람 구하는 데 어려움(66.7%), 자녀 돌봄 시간 부족(63.9%), 양육, 교육관련 정보 부족(53.0%), 생활 지도 어려움(36.7%) 순이었다. 양육의 경제적인 부분과 자녀 돌봄에 있어 필요한 시간과 사람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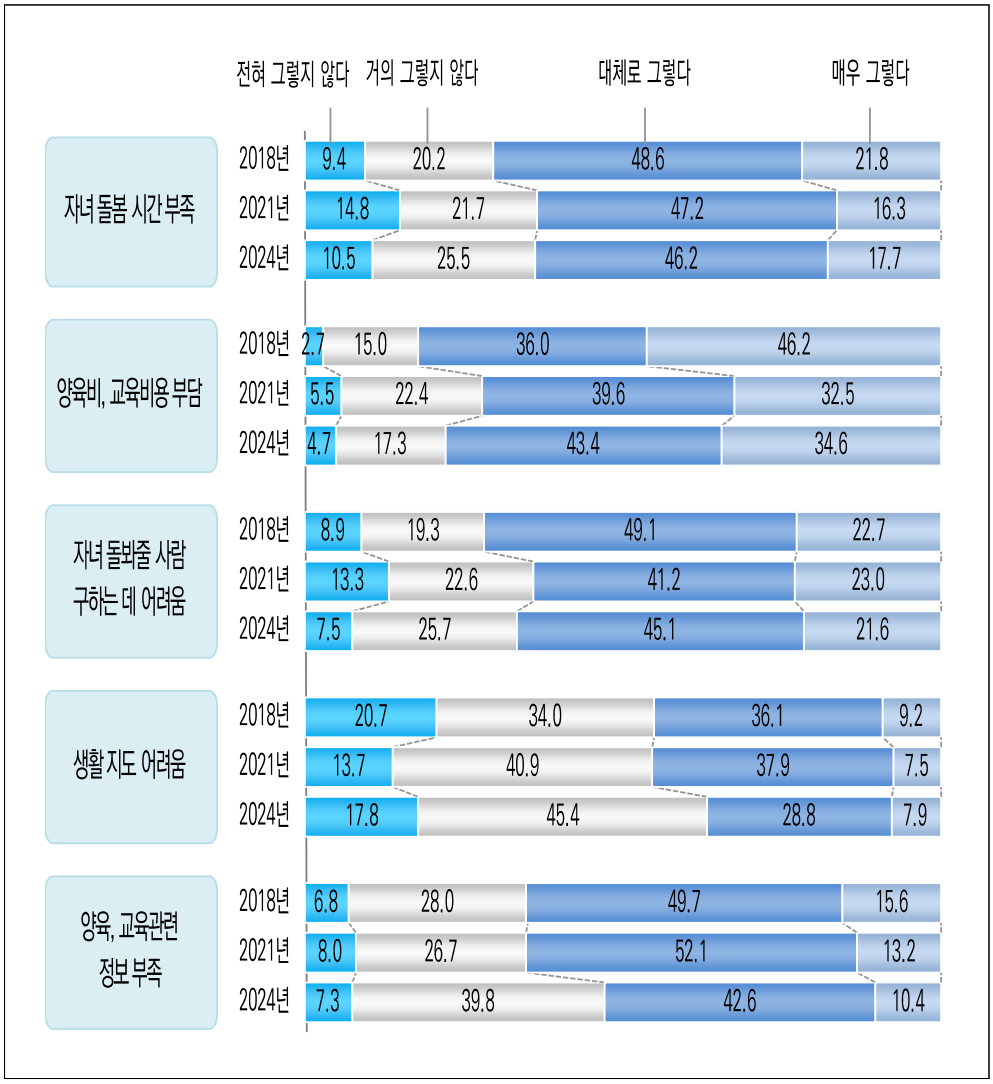
2018년, 2021년, 2024년 실태조사를 비교해 보면, 2018년 대비 2024년 모든 항목에서 어려움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양육, 교육관련 정보 부족과 생활 지도 어려움이 각각 12,3%p, 8.6%p 크게 감소하였다.

2023년 조손가족 실태조사[10] 결과에서도 미취학 손자녀의 양육 어려움에 대해 아이 양육(교육)에 따른 경제적 문제에 대한 비율이 가장 높아,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 모두 경제적인 문제에 직면한 것을 알 수 있었다.

---

10) 「조손가족 실태조사」에서의 관련 문항은 “미취학 손자녀를 돌보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로 구성되어 있다(배호중 외, 2023b: 97, 453).

(단위: %, 2018년: n=374, 2021년: n=398, 2024년: n=392)



[그림 Ⅱ-2-9] 자녀양육의 어려움: 미취학 자녀

미취학 자녀 양육 어려움 중 '자녀 돌봄시간 부족'에 대해 살펴보면, 혼인 상태가 이혼과 사별, 비취업을 제외한 모든 종사상 지위,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일반 가구, 소득수준이 300만원 이상에서 전체 비율보다 높아 자녀 돌봄시간 부족에 대해 어려움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표 Ⅱ-2-9〉 자녀양육의 어려움: 미취학 자녀 - 자녀 돌봄시간 부족

(단위: %, 가구)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거의 그렇지 않다	③대체로 그렇다	④매우 그렇다	①+②그렇지 않다	③+④그렇다	합계(n)	$F(df)$
전 체	10.5	25.5	46.2	17.7	36.0	64.0	100.0(392)	
혼인 상태								
이혼	7.7	24.1	50.4	17.8	31.8	68.2	100.0(320)	32.801(6)***
사별	13.8	9.5	55.7	20.9	23.3	76.7	100.0(19)	
기타	26.8	40.0	16.8	16.4	66.8	33.2	100.0(52)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6.3	16.4	49.5	27.7	22.8	77.2	100.0(168)	
임시/일용근로자	4.5	23.3	55.4	16.8	27.8	72.2	100.0(91)	100.614(9)***
자영업/무급가족	4.3	5.9	77.9	11.8	10.3	89.7	100.0(32)	
비취업	25.1	49.0	22.2	3.8	74.0	26.0	100.0(100)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14.4	25.9	43.9	15.8	40.2	59.8	100.0(278)	17.019(3)***
일반 가구	1.2	24.6	51.8	22.4	25.8	74.2	100.0(114)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28.7	28.0	24.6	18.7	56.6	43.4	100.0(4)	
100~200만원 미만	18.7	36.0	38.8	6.6	54.7	45.3	100.0(85)	31.632(9)***
200~300만원 미만	7.0	30.8	45.9	16.4	37.8	62.2	100.0(131)	
300만원 이상	8.8	16.2	50.7	24.4	25.0	75.0	100.0(171)	

주: ***p<.001

미취학 자녀 양육 어려움 중 '양육비, 교육비용 부담'에 대해 살펴보면, 모자가구와 부자+기타 가구에서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Ⅱ-2-10〉 자녀양육의 어려움: 미취학 자녀 - 양육비, 교육비용 부담

(단위: %, 가구)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거의 그렇지 않다	③ 대체로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①+② 그렇지 않다	③+④ 그렇다	합계(n)	$F(df)$
전 체	4.7	17.3	43.4	34.6	22.0	78.0	100.0(392)	
가구 구성								
모자	2.9	11.9	47.4	37.8	14.8	85.2	100.0(192)	
모자+기타	8.8	18.9	37.9	34.4	27.7	72.3	100.0(117)	24.318(9)**
부자	5.2	34.3	34.2	26.3	39.5	60.5	100.0(47)	
부자+기타	-	19.0	52.0	29.0	19.0	81.0	100.0(36)	

주: **p<.01

미취학 자녀 양육 어려움 중 '자녀 돌봐줄 사람 구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면, 가구 구성에서 기타 가구원와 같이 살고 있는 가구에서는 어려움이 전체 비율보다 낮았고, 모자와 부자가구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비중이 높았다. 종사상 지위에서는 상용근로자를 제외한 다른 집단에서 전체 비율보다 높아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더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소득 지원 가구와 한부모가 된 기간이 5년 미만인 가구에서 어려움이 더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Ⅱ-2-11〉 자녀양육의 어려움: 미취학 자녀 - 자녀 돌봐줄 사람 구하는 것

(단위: %, 가구)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거의 그렇지 않다	③대체로 그렇다	④매우 그렇다	①+②그렇지 않다	③+④그렇다	합계(n)	$F(df)$
전 체	7.5	25.7	45.1	21.6	33.2	66.8	100.0(392)	
가구 구성								
모자	4.0	21.2	54.3	20.4	25.3	74.7	100.0(192)	
모자+기타	13.8	29.0	34.6	22.6	42.8	57.2	100.0(117)	21.001(9)*
부자	5.8	24.9	43.4	25.8	30.7	69.3	100.0(47)	
부자+기타	7.8	39.9	32.9	19.4	47.7	52.3	100.0(36)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6.1	34.8	35.5	23.6	40.9	59.1	100.0(168)	
임시/일용근로자	5.7	19.1	47.5	27.6	24.9	75.1	100.0(91)	28.133(9)***
자영업/무급가족	7.1	10.2	57.7	25.0	17.3	82.7	100.0(32)	
비취업	11.6	21.6	55.0	11.8	33.2	66.8	100.0(100)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10.1	18.2	50.4	21.3	28.3	71.7	100.0(278)	35.499(3)***
일반 가구	1.2	44.0	32.3	22.5	45.2	54.8	100.0(114)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6.5	26.1	45.2	22.2	32.6	67.4	100.0(336)	17.986(6)**
5~10년 미만	9.8	26.5	43.7	20.0	36.3	63.7	100.0(50)	
10년 이상	43.6	-	56.4	-	43.6	56.4	100.0(6)	

주: *p<.05, **p<.01, ***p<.001

미취학 자녀 양육 어려움 중 '생활 지도'에 대해 살펴보면, 대부분의 범주에서 절반 이상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했고 특히, 비취업자와 소득수준이 100만원 미만인 집단에서 비율이 크게 높았다. 한편 유일하게 종사상 지위 중 자영업/무급가족에서 54.9%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한 비율이 절반 이상 응답하였다.

〈표 Ⅱ-2-12〉 자녀양육의 어려움: 미취학 자녀 - 생활 지도

(단위: %, 가구)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거의 그렇지 않다	③ 대체로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①+② 그렇지 않다	③+④ 그렇다	합계(n)	$F(df)$
전 체	17.8	45.4	28.8	7.9	63.2	36.8	100.0(392)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14.1	47.5	25.7	12.8	61.6	38.4	100.0(168)	
임시/일용근로자	15.7	46.3	32.1	6.0	61.9	38.1	100.0(91)	24.869(9)**
자영업/무급가족	17.1	28.0	51.4	3.5	45.1	54.9	100.0(32)	
비취업	26.3	46.7	24.0	3.1	72.9	27.1	100.0(100)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22.4	42.1	28.8	6.6	64.5	35.5	100.0(278)	16.778(3)***
일반 가구	6.6	53.4	28.9	11.2	59.9	40.1	100.0(114)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72.0	13.5	14.5	-	85.5	14.5	100.0(4)	
100~200만원 미만	24.1	37.3	35.3	3.3	61.3	38.7	100.0(85)	17.641(9)*
200~300만원 미만	15.2	45.2	31.7	7.9	60.4	39.6	100.0(131)	
300만원 이상	15.5	50.3	23.8	10.5	65.8	34.2	100.0(171)	

주: *p<.05, **p<.01, ***p<.001

미취학 자녀 양육 어려움 중 '양육, 교육관련 정보 부족'에 대해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어렵다고 한 응답과 어렵지 않다라고 한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부자가구와 부자+기타 가구에서 특히 어렵다고 한 비율이 높았다.

〈표 Ⅱ-2-13〉 자녀양육의 어려움: 미취학 자녀 - 양육, 교육관련 정보 부족

(단위: %,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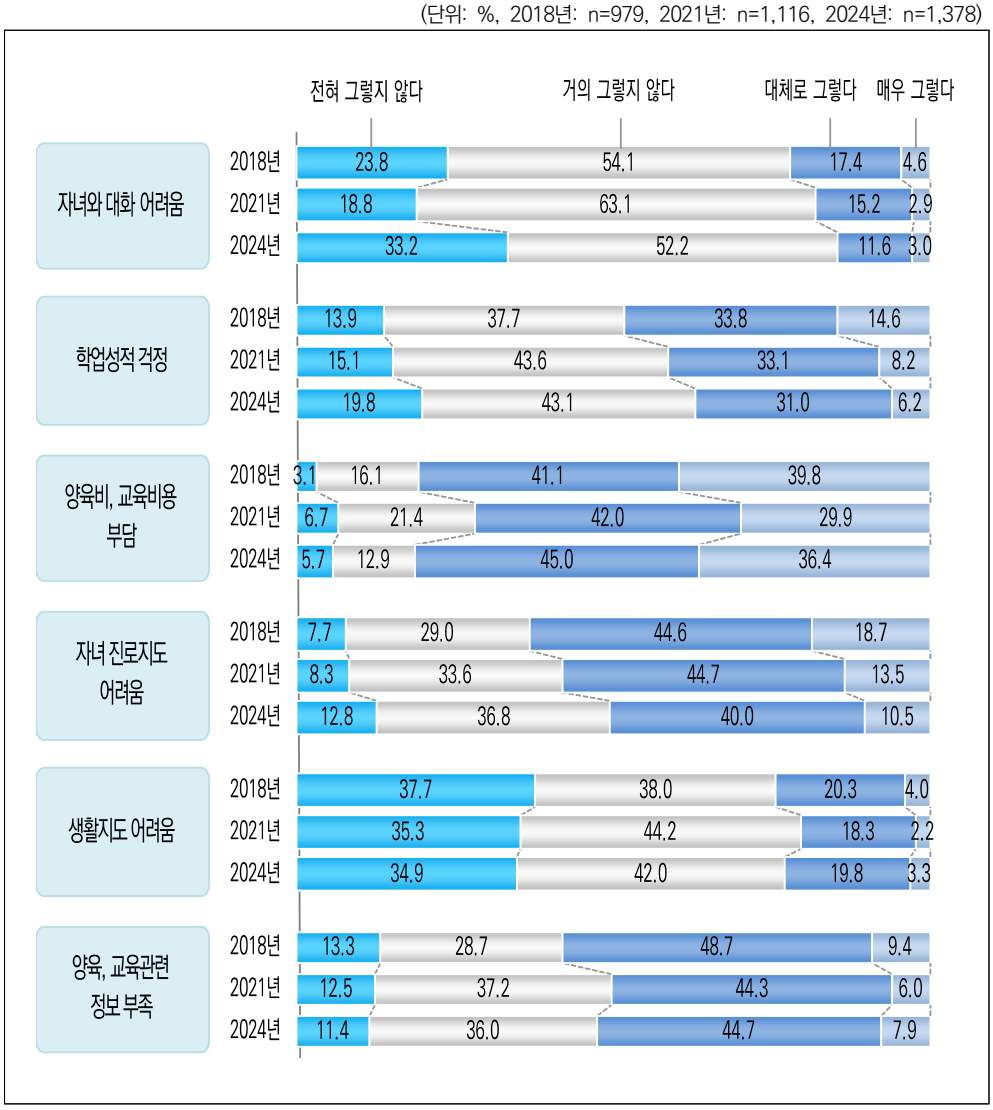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거의 그렇지 않다	③대체로 그렇다	④매우 그렇다	①+②그렇지 않다	③+④그렇다	합계(n)	$F(df)$
전 체	7.3	39.8	42.6	10.4	47.0	53.0	100.0(392)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17.6	22.6	53.2	6.6	40.2	59.8	100.0(14)	18.544(6)**
고졸 이하	8.7	38.4	43.2	9.7	47.1	52.9	100.0(131)	
대학 이상	5.9	41.5	41.6	11.0	47.4	52.6	100.0(246)	
가구 구성								
모자	8.1	40.5	42.1	9.3	48.6	51.4	100.0(192)	
모자+기타	6.3	50.0	34.3	9.4	56.3	43.7	100.0(117)	25.436(9)**
부자	4.4	28.9	44.9	21.8	33.3	66.7	100.0(47)	
부자+기타	10.1	16.3	69.1	4.5	26.4	73.6	100.0(36)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6.1	35.7	45.2	13.0	41.7	58.3	100.0(168)	
임시/일용근로자	2.9	38.4	51.9	6.8	41.3	58.7	100.0(91)	18.117(9)*
자영업/무급가족	7.4	46.8	31.4	14.4	54.2	45.8	100.0(32)	
비취업	13.2	45.5	33.3	7.9	58.8	41.2	100.0(100)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7.0	41.2	43.3	8.5	48.2	51.8	100.0(336)	13.772(6)*
5~10년 미만	8.4	29.3	38.0	24.2	37.7	62.3	100.0(50)	
10년 이상	13.6	47.1	39.3	-	60.7	39.3	100.0(6)	

주: *p<.05, **p<.01

② 초등학생 자녀

초등학생 자녀 양육시 가장 어려움이 큰 항목은 양육비, 교육비용 부담으로 81.4%가 그렇다(대체로 그렇다+매우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양육, 교육관련 정보 부족(52.6%), 자녀 진로지도 어려움(50.5%), 학업성적 걱정(37.2%), 생활 지도 어려움(23.1%), 자녀와 대화 어려움(14.6%) 순이었다. 양육의 경제적인 부분과 교육정보/진로 지도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2018년: n=979, 2021년: n=1,116, 2024년: n=1,378)



[그림 Ⅱ-2-10] 자녀양육의 어려움: 초등학생 자녀

2018년, 2021년, 2024년 실태조사를 비교해 보면, 2018년 대비 2024년 양육비, 교육비용 부담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어려움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양육비, 교육비용 부담은 0.5%p 조금 높아졌고, 자녀 진로지도 어려움과 학업성적 걱정이 각각 12.8%p, 11.2%p로 크게 감소하였다.

2023년 조손가족 실태조사[11] 결과에서도 초등학생 손자녀의 양육 어려움에 대해 아이 양육(교육)에 따른 경제적 문제에 대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아이의 생활 및 학습지도 문제를 꼽았다.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 모두 경제적인 부분과 학습 및 진로에 대한 고민에 직면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초등학생 자녀 양육 어려움 중 '자녀와 대화'에 대해 살펴보면, 모든 범주에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굉장히 높았지만, 한부모 연령이 50대 이상, 혼인 상태가 기타인 경우 전체 비율보다 크게 낮게 나왔다.

11) 「조손가족 실태조사」에서의 관련문항은 "초등학생 손자녀를 돌보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로 구성되어 있다(배호중 외, 2023b: 97, 455).

〈표 Ⅱ-2-14〉 자녀양육의 어려움: 초등학생 자녀 - 자녀와 대화

(단위: %, 가구)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거의 그렇지 않다	③대체로 그렇다	④매우 그렇다	①+②그렇지 않다	③+④그렇다	합계(n)	$F(df)$
전 체	33.2	52.2	11.6	3.0	85.4	14.6	100.0(1,378)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36.0	50.4	10.2	3.4	86.4	13.6	100.0(516)	12.652(6)*
40대	31.2	54.3	12.2	2.3	85.5	14.5	100.0(781)	
50대 이상	35.8	42.8	13.6	7.8	78.6	21.4	100.0(81)	
혼인 상태								
이혼	33.4	51.8	11.6	3.2	85.2	14.8	100.0(1,194)	18.723(6)**
사별	29.4	64.3	4.8	1.6	93.7	6.3	100.0(117)	
기타	36.9	37.3	22.2	3.6	74.2	25.8	100.0(66)	
가구 구성								
모자	31.8	53.5	12.2	2.4	85.4	14.6	100.0(718)	
모자+기타	43.2	40.0	12.9	3.9	83.2	16.8	100.0(244)	25.076(9)**
부자	27.6	60.4	8.1	3.9	88.0	12.0	100.0(254)	
부자+기타	33.4	51.3	12.2	3.1	84.8	15.2	100.0(162)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31.6	56.2	10.3	2.0	87.8	12.2	100.0(635)	
임시/일용근로자	34.4	48.0	13.0	4.6	82.4	17.6	100.0(356)	22.311(9)**
자영업/무급가족	27.4	58.3	10.3	4.0	85.8	14.2	100.0(150)	
비취업	39.7	43.7	13.6	2.9	83.4	16.6	100.0(237)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거의 그렇지 않다	③대체로 그렇다	④매우 그렇다	①+②그렇지 않다	③+④그렇다	합계(n)	$F(df)$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35.5	47.1	13.9	3.6	82.5	17.5	100.0(938)	35.882(3)***
일반 가구	28.5	63.0	6.7	1.8	91.5	8.5	100.0(440)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84.1	15.0	-	1.0	99.0	1.0	100.0(11)	
100~200만원 미만	34.7	45.7	15.0	4.6	80.4	19.6	100.0(254)	32.084(9)***
200~300만원 미만	34.3	49.7	13.4	2.6	84.0	16.0	100.0(500)	
300만원 이상	30.8	57.6	8.9	2.8	88.4	11.6	100.0(612)	

주: *p<.05, **p<.01, ***p<.001

초등학생 자녀 양육 어려움 중 '학업성적 걱정'에 대해 살펴보면, 한부모 연령이 50대 이상인 집단을 제외한 모든 범주 및 집단에서 '그렇지 않다'로 응답한 비율이 절반 이상이었지만, 한부모 연령 50대 이상에서는 53.2%가 학업성적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표 Ⅱ-2-16〉).

초등학생 자녀 양육 어려움 중 '양육비, 교육비용 부담'에 대해 살펴보면, 모든 범주에서 비용 부담을 굉장히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자가구와 부자+기타 가구, 일반 가구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비율보다 두드러지게 낮았다(=〈표 Ⅱ-2-16〉).

〈표 Ⅱ-2-15〉 자녀양육의 어려움: 초등학생 자녀 - 학업성적 걱정

(단위: %, 가구)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거의 그렇지 않다	③대체로 그렇다	④매우 그렇다	①+②그렇지 않다	③+④그렇다	합계(n)	$F(df)$
전 체	19.8	43.1	31.0	6.2	62.8	37.2	100.0(1,375)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21.4	45.5	28.0	5.1	66.9	33.1	100.0(515)	19.953(6)**
40대	18.9	42.9	32.1	6.1	61.8	38.2	100.0(779)	
50대 이상	18.2	28.5	39.0	14.3	46.8	53.2	100.0(81)	
혼인 상태								
이혼	20.2	43.2	30.0	6.7	63.3	36.7	100.0(1,191)	14.563(6)*
사별	21.7	36.9	39.3	2.1	58.6	41.4	100.0(117)	
기타	9.1	52.1	34.8	4.1	61.1	38.9	100.0(66)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20.2	44.6	31.0	4.2	64.8	35.2	100.0(634)	
임시/일용근로자	17.5	36.9	36.9	8.8	54.4	45.6	100.0(356)	24.512(9)**
자영업/무급가족	18.8	52.2	23.2	5.8	71.0	29.0	100.0(150)	
비취업	22.6	42.7	27.0	7.7	65.3	34.7	100.0(235)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20.2	40.4	32.3	7.1	60.6	39.4	100.0(935)	10.317(3)*
일반 가구	18.9	48.7	28.1	4.2	67.6	32.4	100.0(440)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30.0	47.7	22.3	-	77.7	22.3	100.0(10)	
100~200만원 미만	23.0	38.7	30.1	8.2	61.7	38.3	100.0(254)	38.568(9)***
200~300만원 미만	18.3	37.0	35.7	9.1	55.2	44.8	100.0(500)	
300만원 이상	19.5	49.8	27.7	3.1	69.3	30.7	100.0(611)	

주: *p<.05, **p<.01, ***p<.001

〈표 Ⅱ-2-16〉 자녀양육의 어려움: 초등학생 자녀 - 양육비, 교육비용 부담

(단위: %, 가구)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거의 그렇지 않다	③대체로 그렇다	④매우 그렇다	①+②그렇지 않다	③+④그렇다	합계(n)	$F(df)$
전 체	5.7	12.9	45.0	36.4	18.6	81.4	100.0(1,378)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7.8	11.5	41.9	38.8	19.3	80.7	100.0(516)	12.684(6)*
40대	4.7	13.6	46.8	34.8	18.4	81.6	100.0(781)	
50대 이상	1.5	14.7	48.0	35.8	16.1	83.9	100.0(81)	
가구 구성								
모자	5.2	10.6	41.9	42.2	15.8	84.2	100.0(718)	
모자+기타	5.7	8.7	47.2	38.4	14.4	85.6	100.0(244)	60.356(9)***
부자	9.7	17.8	45.5	26.9	27.5	72.5	100.0(254)	
부자+기타	1.6	21.4	55.0	22.1	22.9	77.1	100.0(162)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5.4	15.8	47.0	31.8	21.2	78.8	100.0(635)	
임시/일용근로자	4.6	9.7	44.5	41.2	14.4	85.6	100.0(356)	27.123(9)**
자영업/무급가족	4.2	13.8	48.1	33.9	18.0	82.0	100.0(150)	
비취업	9.0	9.3	38.6	43.1	18.3	81.7	100.0(237)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5.4	11.3	41.7	41.6	16.7	83.3	100.0(938)	35.921(3)***
일반 가구	6.4	16.3	52.2	25.2	22.7	77.3	100.0(440)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거의 그렇지 않다	③대체로 그렇다	④매우 그렇다	①+②그렇지 않다	③+④그렇다	합계(n)	$F(df)$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	10.5	36.1	53.3	10.5	89.5	100.0(11)	
100~200만원 미만	9.1	11.0	38.0	41.9	20.1	79.9	100.0(254)	35.606(9)***
200~300만원 미만	4.5	9.5	45.1	41.0	14.0	86.0	100.0(500)	
300만원 이상	5.3	16.5	48.2	30.0	21.8	78.2	100.0(612)	

주: *p<.05, **p<.01, ***p<.001

초등학생 자녀 양육 어려움 중 '진로 지도'에 대해 살펴보면, 혼인 상태가 사별과 기타, 종사상 지위가 임시/일용근로자, 비취업자, 저소득 지원 가구, 한부모가 된 기간이 5~10년 미만인 집단에서 진로 지도가 어렵다라고 느끼는 응답 비율이 전체 비율보다 높았다(=〈표 Ⅱ-2-18〉).

초등학생 자녀 양육 어려움 중 '생활 지도'에 대해 살펴보면, 모든 범주에서 생활 지도의 어려움이 없다고 하였지만, 한부모 연령이 50대 이상, 부자가구와 부자+기타 가구에서 생활 지도에 대한 어렵다고 한 비율이 전체 비율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표 Ⅱ-2-19〉).

〈표 Ⅱ-2-17〉 자녀양육의 어려움: 초등학생 자녀 - 진로 지도

(단위: %, 가구)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거의 그렇지 않다	③대체로 그렇다	④매우 그렇다	①+②그렇지 않다	③+④그렇다	합계(n)	$F(df)$
전 체	12.8	36.8	40.0	10.5	49.5	50.5	100.0(1,378)	
혼인 상태								
이혼	12.6	37.6	40.4	9.4	50.2	49.8	100.0(1,194)	26.056(6)***
사별	14.9	32.5	29.9	22.7	47.4	52.6	100.0(117)	
기타	12.1	29.7	50.4	7.9	41.8	58.2	100.0(66)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14.5	37.4	39.5	8.5	51.9	48.1	100.0(635)	
임시/일용근로자	10.6	36.0	40.2	13.2	46.5	53.5	100.0(356)	25.873(9)**
자영업/무급가족	7.4	49.0	33.1	10.5	56.3	43.7	100.0(150)	
비취업	14.9	28.4	45.1	11.6	43.3	56.7	100.0(237)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12.6	36.5	38.4	12.5	49.1	50.9	100.0(938)	13.843(3)**
일반 가구	13.2	37.3	43.4	6.1	50.5	49.5	100.0(440)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14.1	39.3	37.6	9.0	53.4	46.6	100.0(737)	13.542(6)*
5~10년 미만	10.5	33.6	43.7	12.2	44.1	55.9	100.0(547)	
10년 이상	15.7	35.2	36.8	12.2	51.0	49.0	100.0(94)	

주: *p<.05, **p<.01, ***p<.001

〈표 Ⅱ-2-18〉 자녀양육의 어려움: 초등학생 자녀 - 생활 지도

(단위: %, 가구)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거의 그렇지 않다	③대체로 그렇다	④매우 그렇다	①+②그렇지 않다	③+④그렇다	합계(n)	$F(df)$
전 체	34.9	42.0	19.8	3.3	76.9	23.1	100.0(1,378)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38.3	40.8	16.4	4.6	79.1	20.9	100.0(516)	18.714(6)**
40대	32.7	43.6	21.5	2.2	76.3	23.7	100.0(781)	
50대 이상	34.8	33.6	25.7	6.0	68.4	31.6	100.0(81)	
가구 구성								
모자	34.5	42.8	19.2	3.5	77.3	22.7	100.0(718)	
모자+기타	47.1	36.3	12.6	4.0	83.4	16.6	100.0(244)	40.006(9)***
부자	33.1	40.4	22.9	3.7	73.4	26.6	100.0(254)	
부자+기타	21.1	49.3	28.7	0.9	70.4	29.6	100.0(162)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48.0	33.2	16.8	2.0	81.2	18.8	100.0(97)	7.831(3)*
초등학생	33.9	42.6	20.0	3.4	76.5	23.5	100.0(1,281)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31.8	44.8	20.8	2.6	76.6	23.4	100.0(635)	
임시/일용근로자	36.8	39.6	20.0	3.7	76.4	23.6	100.0(356)	33.729(9)***
자영업/무급가족	24.2	50.5	22.6	2.7	74.7	25.3	100.0(150)	
비취업	47.0	32.6	15.2	5.2	79.6	20.4	100.0(237)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거의 그렇지 않다	③대체로 그렇다	④매우 그렇다	①+②그렇지 않다	③+④그렇다	합계(n)	$F(df)$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38.1	39.4	18.3	4.1	77.6	22.4	100.0(938)	22.778(3)***
일반 가구	28.0	47.4	23.1	1.5	75.4	24.6	100.0(440)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68.9	25.5	3.1	2.5	94.4	5.6	100.0(11)	
100~200만원 미만	42.0	33.3	18.6	6.1	75.4	24.6	100.0(254)	28.256(9)***
200~300만원 미만	35.5	41.8	20.0	2.6	77.3	22.7	100.0(500)	
300만원 이상	30.8	46.0	20.5	2.8	76.8	23.2	100.0(612)	

주: *p<.05, **p<.01, ***p<.001

초등학생 자녀 양육 어려움 중 '양육, 교육관련 정보 부족'에 대해 살펴보면, 대부분의 범주 및 집단에서 정보 부족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였지만, 모자가구와 한부모가 된 기간이 5년 미만인 가구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한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표 Ⅱ-2-19〉 자녀양육의 어려움: 초등학생 자녀 - 양육, 교육관련 정보 부족

(단위: %, 가구)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거의 그렇지 않다	③ 대체로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①+② 그렇지 않다	③+④ 그렇다	합계(n)	$F(df)$
전 체	11.4	36.0	44.7	7.9	47.4	52.6	100.0(1,378)	
가구 구성								
모자	11.6	39.7	42.9	5.8	51.3	48.7	100.0(718)	
모자+기타	15.3	29.4	45.6	9.8	44.6	55.4	100.0(244)	28.419(9)***
부자	10.6	29.2	48.6	11.6	39.8	60.2	100.0(254)	
부자+기타	6.4	39.8	45.4	8.4	46.2	53.8	100.0(162)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13.3	37.8	42.6	6.4	51.1	48.9	100.0(737)	13.877(6)*
5~10년 미만	8.8	33.8	48.0	9.4	42.6	57.4	100.0(547)	
10년 이상	12.4	34.2	42.5	10.9	46.6	53.4	100.0(94)	

주: *p<.05, ***p<.001

③ 중·고등학생 자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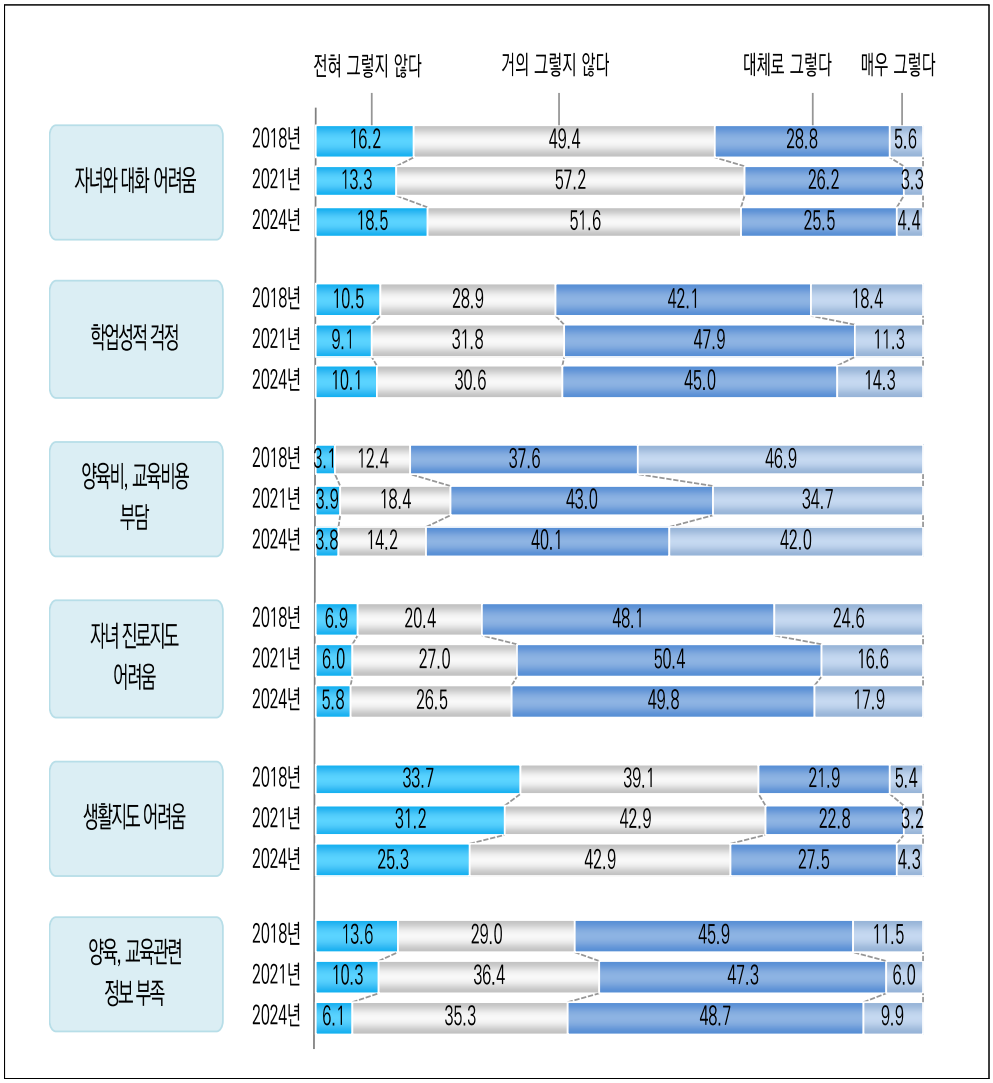
중·고등학생 자녀 양육시 가장 어려움이 큰 항목은 양육비, 교육비용 부담으로 82.1%가 그렇다(대체로 그렇다+매우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자녀 진로지도의 어려움(67.7%), 자녀 학업성적(59.3%), 양육, 교육관련 정보 부족(58.6%), 생활지도 어려움(31.8%), 자녀와 대화 어려움(29.9%)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 2021년, 2024년 실태조사를 비교해 보면, 2018년 대비 2024년 양육비, 교육비용 부담, 자녀 진로지도의 어려움, 자녀 학업성적, 자녀와 대화 어려움은 비율이 조금 낮아졌지만, 생활지도 어려움과 양육, 교육관련 정보 부족은 각각 4.5%p, 1.2%p 높아졌다.

2023년 조손가족 실태조사[12] 결과에서도 중·고등학생 손자녀 양육 어려움에 대해

아이 양육(교육)에 따른 경제적 문제에 대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아이의 생활 및 학습지도 문제를 꼽았다.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 모두 경제적인 부분과 학습 및 진로에 대한 고민에 직면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단위: %, 2018년: n=1,468, 2021년: n=2,141, 2024년: n=1,969)



[그림 Ⅱ-2-11] 자녀양육의 어려움: 중·고등학생 자녀

12) 「조손가족 실태조사」에서의 관련문항은 "중·고등학생 손자녀를 돌보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로 설계되었다(배호중 외, 2023b: 97, 455).

중·고등학생 자녀 양육 어려움 중 '자녀와 대화'에 대해 살펴보면, 모든 범주에서 어려움이 없다라고 한 응답이 높았지만, 부자가구와 부자+기타 가구에서, 한부모가 된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구에서는 상당 비율 '그렇다'라고 응답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Ⅱ-2-21〉).

중·고등학생 자녀 양육 어려움 중 '학업성적 걱정'에 대해 살펴보면, 모든 범주에서 학업성적에 대한 걱정을 가진 응답 비율이 더 높았고, 특히 가장 어린자녀가 미취학, 초등학생인 집단, 임시/일용근로자와 자영업/무급가족, 일반 가구, 한부모가 된 기간이 5~10년 미만인 가구에서 전체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좀 더 높은 비중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Ⅱ-2-22〉).

〈표 Ⅱ-2-20〉 자녀양육의 어려움: 중·고등학생 자녀 - 자녀와 대화 어려움

(단위: %, 가구)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거의 그렇지 않다	③대체로 그렇다	④매우 그렇다	①+②그렇지 않다	③+④그렇다	합계(n)	$F(df)$
전 체	18.5	51.6	25.5	4.4	70.1	29.9	100.0(1,969)	
가구 구성								
모자	20.9	52.8	21.7	4.6	73.7	26.3	100.0(1,106)	
모자+기타	21.2	47.6	24.2	7.1	68.8	31.2	100.0(214)	42.566(9)***
부자	11.7	51.6	33.9	2.8	63.3	36.7	100.0(450)	
부자+기타	17.5	49.7	29.1	3.7	67.2	32.8	100.0(199)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20.3	49.5	24.7	5.5	69.8	30.2	100.0(1,321)	23.995(3)***
일반 가구	14.9	56.0	27.1	2.1	70.8	29.2	100.0(648)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18.6	54.7	21.7	5.0	73.3	26.7	100.0(540)	21.398(6)**
5~10년 미만	17.3	52.5	27.5	2.7	69.8	30.2	100.0(912)	
10년 이상	20.5	47.0	25.9	6.6	67.4	32.6	100.0(518)	

주: **p<.01, ***p<.001

〈표 Ⅱ-2-21〉 자녀양육의 어려움: 중·고등학생 자녀 - 학업성적 걱정

(단위: %, 가구)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거의 그렇지 않다	③대체로 그렇다	④매우 그렇다	①+②그렇지 않다	③+④그렇다	합계(n)	$F(df)$
전 체	10.1	30.6	45.0	14.3	40.7	59.3	100.0(1,967)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2.8	26.7	34.1	36.4	29.5	70.5	100.0(25)	17.801(6)**
초등학생	12.5	24.5	48.7	14.3	37.0	63.0	100.0(303)	
중학생 이상	9.8	31.8	44.5	14.0	41.6	58.4	100.0(1,640)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9.5	32.3	45.5	12.7	41.8	58.2	100.0(861)	
임시/일용근로자	9.3	29.6	43.8	17.3	38.9	61.1	100.0(529)	17.034(9)*
자영업/무급가족	8.2	31.3	46.2	14.3	39.5	60.5	100.0(294)	
비취업	15.2	26.8	44.4	13.6	42.0	58.0	100.0(284)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11.9	29.7	43.6	14.8	41.6	58.4	100.0(1,320)	16.83(3)***
일반 가구	6.4	32.6	47.8	13.2	39.0	61.0	100.0(648)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12.4	29.6	43.1	14.9	42.0	58.0	100.0(538)	23.188(6)***
5~10년 미만	7.6	28.7	48.9	14.8	36.3	63.7	100.0(912)	
10년 이상	12.1	35.1	40.0	12.8	47.2	52.8	100.0(517)	

주: *p<.05, **p<.01, ***p<.001

중·고등학생 자녀 양육 어려움 중 '양육비, 교육비용 부담'에 대해 살펴보면, 모든 범주에서 '그렇다' 응답이 매우 높았지만, 부자가구와 부자+기타 가구 구성에서 '그렇지 않다'는 응답 비율이 전체 비율보다 매우 높게 확인되었다(=〈표 Ⅱ-2-23〉).

중·고등학생 자녀 양육 어려움 중 '진로 지도'에 대해 살펴보면, 모든 범주에서 '그렇다' 응답이 매우 높았지만, 모자와 모자+기타 가구 구성에서 '그렇지 않다'는 응답 비율이 전체 비율보다 다소 높게 확인되었다(=〈표 Ⅱ-2-24〉).

중·고등학생 자녀 양육 어려움 중 '생활 지도'에 대해 살펴보면, 모든 범주에서 생활 지도의 어려움에 대해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Ⅱ-2-25〉).

중·고등학생 자녀 양육 어려움 중 '양육, 교육관련 정보 부족'에 대해 살펴보면, 대부분의 범주에서 정보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고 특히, 한부모 연령이 50대 이상, 중졸 이하 학력, 부자가구와 부자+기타 가구, 임시/일용근로자, 자영업/무급가족, 비취업, 일반 가구에서 정보 부족에 대한 응답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반면, 유일하게 한부모 연령이 30대 이하, 소득수준이 100만원 미만에서 정보 부족에 대한 어려움이 없다는 비율이 절반 이상이었다(=〈표 Ⅱ-2-26〉).

〈표 Ⅱ-2-22〉 자녀양육의 어려움: 중·고등학생 자녀 - 양육비, 교육비용 부담

(단위: %, 가구)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거의 그렇지 않다	③대체로 그렇다	④매우 그렇다	①+②그렇지 않다	③+④그렇다	합계(n)	$F(df)$
전 체	3.8	14.2	40.1	42.0	18.0	82.0	100.0(1,969)	
가구 구성								
모자	2.8	11.7	39.1	46.4	14.5	85.5	100.0(1,106)	
모자+기타	4.3	9.2	40.2	46.3	13.6	86.4	100.0(214)	55.882(9)***
부자	4.5	20.7	43.0	31.8	25.1	74.9	100.0(450)	
부자+기타	7.3	18.7	38.2	35.8	26.0	74.0	100.0(199)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4.6	16.2	41.4	37.7	20.8	79.2	100.0(861)	
임시/일용근로자	2.5	12.3	35.3	49.9	14.8	85.2	100.0(529)	29.804(9)***
자영업/무급가족	2.3	13.9	45.0	38.8	16.2	83.8	100.0(294)	
비취업	5.2	11.9	39.6	43.3	17.1	82.9	100.0(285)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3.3	12.4	37.3	47.0	15.7	84.3	100.0(1,321)	42.737(3)***
일반 가구	4.9	17.8	45.6	31.8	22.7	77.3	100.0(648)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11.2	9.0	20.6	59.2	20.2	79.8	100.0(12)	
100~200만원 미만	3.5	10.2	38.7	47.6	13.7	86.3	100.0(337)	44.274(9)***
200~300만원 미만	3.3	13.1	35.6	48.0	16.4	83.6	100.0(778)	
300만원 이상	4.2	16.9	45.0	33.8	21.2	78.8	100.0(841)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거의 그렇지 않다	③대체로 그렇다	④매우 그렇다	①+②그렇지 않다	③+④그렇다	합계(n)	$F(df)$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3.9	12.6	41.9	41.5	16.6	83.4	100.0(540)	14.439(6)*
5~10년 미만	2.5	13.8	40.5	43.1	16.3	83.7	100.0(912)	
10년 이상	5.9	16.5	37.3	40.4	22.3	77.7	100.0(518)	

주: *p<.05, ***p<.001

〈표 Ⅱ-2-23〉 자녀양육의 어려움: 중·고등학생 자녀 - 진로 지도

(단위: %, 가구)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거의 그렇지 않다	③대체로 그렇다	④매우 그렇다	①+②그렇지 않다	③+④그렇다	합계(n)	$F(df)$
전 체	5.8	26.5	49.8	17.9	32.3	67.7	100.0(1,969)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10.9	20.7	48.2	20.2	31.7	68.3	100.0(146)	22.087(6)**
40대	5.5	27.5	51.3	15.7	33.0	67.0	100.0(1,308)	
50대 이상	5.2	25.6	46.5	22.7	30.8	69.2	100.0(516)	
가구 구성								
모자	5.5	28.4	50.2	15.9	33.9	66.1	100.0(1,106)	
모자+기타	9.1	24.9	43.9	22.1	34.0	66.0	100.0(214)	23.57(9)**
부자	4.0	26.6	50.0	19.4	30.6	69.4	100.0(450)	
부자+기타	8.0	17.8	53.6	20.6	25.8	74.2	100.0(199)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6.3	24.5	50.9	18.2	30.9	69.1	100.0(1,321)	9.449(3)*
일반 가구	4.7	30.6	47.5	17.2	35.3	64.7	100.0(648)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7.7	25.8	50.2	16.4	33.4	66.6	100.0(540)	18.315(6)**
5~10년 미만	3.7	27.0	51.8	17.6	30.6	69.4	100.0(912)	
10년 이상	7.7	26.5	45.8	20.0	34.2	65.8	100.0(518)	

주: *p<.05, **p<.01

〈표 Ⅱ-2-24〉 자녀양육의 어려움: 중·고등학생 자녀 - 생활 지도

(단위: %, 가구)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거의 그렇지 않다	③대체로 그렇다	④매우 그렇다	①+②그렇지 않다	③+④그렇다	합계(n)	$F(df)$
전 체	25.3	42.9	27.5	4.3	68.2	31.8	100.0(1,969)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34.8	37.8	21.7	5.7	72.6	27.4	100.0(146)	20.455(6)**
40대	22.7	45.3	28.0	4.1	68.0	32.0	100.0(1,308)	
50대 이상	29.5	38.1	28.0	4.4	67.6	32.4	100.0(516)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32.2	42.3	17.5	8.1	74.4	25.6	100.0(70)	21.282(6)**
고졸 이하	25.5	42.7	27.2	4.5	68.3	31.7	100.0(1,097)	
대학 이상	24.5	43.1	28.7	3.7	67.6	32.4	100.0(802)	
가구 구성								
모자	26.8	44.1	25.3	3.8	70.9	29.1	100.0(1,106)	
모자+기타	28.8	34.4	30.6	6.2	63.2	36.8	100.0(214)	20.962(9)*
부자	19.3	44.5	31.7	4.5	63.8	36.2	100.0(450)	
부자+기타	27.3	41.3	27.1	4.4	68.5	31.5	100.0(199)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26.4	44.4	25.4	3.7	70.9	29.1	100.0(861)	
임시/일용근로자	25.5	39.6	29.7	5.1	65.2	34.8	100.0(529)	28.502(9)***
자영업/무급가족	16.7	51.5	28.2	3.5	68.3	31.7	100.0(294)	
비취업	30.5	35.2	29.2	5.2	65.7	34.3	100.0(285)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거의 그렇지 않다	③대체로 그렇다	④매우 그렇다	①+②그렇지 않다	③+④그렇다	합계(n)	$F(df)$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27.0	40.9	27.1	4.9	68.0	32.0	100.0(1,321)	11.643(3)**
일반 가구	21.8	46.9	28.3	3.0	68.7	31.3	100.0(648)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53.8	24.7	17.5	4.0	78.5	21.5	100.0(12)	
100~200만원 미만	28.5	35.6	31.0	4.9	64.1	35.9	100.0(337)	29.652(9)***
200~300만원 미만	28.0	41.1	26.0	4.8	69.1	30.9	100.0(778)	
300만원 이상	21.2	47.7	27.6	3.5	68.8	31.2	100.0(841)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27.8	38.2	30.8	3.2	65.9	34.1	100.0(540)	12.686(6)*
5~10년 미만	23.2	45.3	26.8	4.8	68.4	31.6	100.0(912)	
10년 이상	26.6	43.5	25.3	4.5	70.2	29.8	100.0(518)	

주: *p<.05, **p<.01, ***p<.001

〈표 Ⅱ-2-25〉 자녀양육의 어려움: 중·고등학생 자녀 - 양육, 교육관련 정보 부족

(단위: %, 가구)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거의 그렇지 않다	③대체로 그렇다	④매우 그렇다	①+②그렇지 않다	③+④그렇다	합계(n)	$F(df)$
전 체	6.1	35.3	48.7	9.9	41.4	58.6	100.0(1,969)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12.6	37.9	42.0	7.6	50.4	49.6	100.0(146)	14.855(6)*
40대	5.7	35.8	49.0	9.5	41.5	58.5	100.0(1,308)	
50대 이상	5.1	33.5	49.9	11.5	38.6	61.4	100.0(516)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2.5	29.1	44.1	24.2	31.7	68.3	100.0(70)	75.383(8)***
고졸 이하	7.0	35.6	47.8	9.6	42.6	57.4	100.0(1,097)	
대학 이상	5.1	35.5	50.3	9.0	40.7	59.3	100.0(802)	
가구 구성								
모자	6.8	38.7	46.5	8.1	45.4	54.6	100.0(1,106)	
모자+기타	8.6	39.6	40.7	11.0	48.2	51.8	100.0(214)	46.044(9)***
부자	3.7	31.7	52.7	11.9	35.4	64.6	100.0(450)	
부자+기타	4.9	20.6	60.2	14.3	25.5	74.5	100.0(199)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6.8	39.1	45.5	8.7	45.9	54.1	100.0(861)	
임시/일용근로자	5.1	32.4	50.1	12.4	37.5	62.5	100.0(529)	27.49(9)**
자영업/무급가족	3.1	33.6	55.6	7.8	36.7	63.3	100.0(294)	
비취업	8.9	31.3	48.6	11.2	40.2	59.8	100.0(285)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거의 그렇지 않다	③대체로 그렇다	④매우 그렇다	①+②그렇지 않다	③+④그렇다	합계(n)	$F(df)$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7.1	34.7	47.2	11.0	41.8	58.2	100.0(1,321)	13.727(3)**
일반 가구	3.9	36.6	51.7	7.8	40.6	59.4	100.0(648)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18.4	37.8	33.3	10.5	56.2	43.8	100.0(12)	
100~200만원 미만	6.8	29.4	51.9	11.9	36.2	63.8	100.0(337)	22.545(9)**
200~300만원 미만	7.6	33.5	48.4	10.6	41.1	58.9	100.0(778)	
300만원 이상	4.2	39.4	47.9	8.5	43.6	56.4	100.0(841)	

주: *p<.05, **p<.01, ***p<.001

2) 자녀양육비 항목별 평균 지출 금액

자녀의 월 평균 양육비 지출은 미취학 자녀 46.1만원, 초등학생 자녀 50.5만원, 중·고등학생 자녀 66.1만원이었다.

항목별 자녀 양육비는 미취학 자녀는 의복, 장난감, 교통비 등 기타 지출액이 20.2만원, 교육비 16.1만원, 돌봄 비용 9.8만원 순이며, 초등학생 자녀는 교육비 32.8만원, 기타 지출액 13.8만원, 돌봄 비용 4만원, 중·고등학생 자녀는 교육비 44.6만원, 기타 20.2만원, 돌봄 비용 1.3만원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학력이 올라갈수록 교육비에 대한 지출액이 매우 커졌고, 기타의 경우는 미취학과 중·고등학생때 지출액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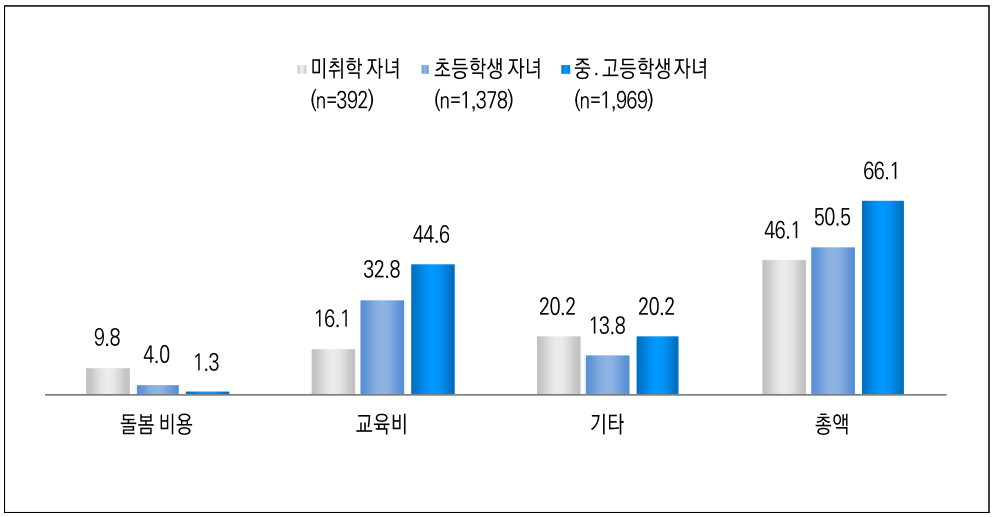
2021년 가족과 출산조사[13] 결과를 살펴보면, 자녀 1인당 지출하는 양육비용은 72.1만원으로 기타비용(의복, 장난감, 교통비 등) 34.9만원, 어린이집, 유치원비/공교육비/사교육비가 34.5만원, 돌봄 비용 2.7만원이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영유아 지출비용은 60.6만원이었으며 기타비용 38.3만원, 어린이집, 유치원비/공교육비/사교육비 16.1만원, 돌봄 비용 6.1만원으로 기타비용이 가장 많이 지출되었다. 초등학생 지출비용은 78.5만원으로 공교육비/사교육비 45.4만원, 기타비용 31.1만원, 돌봄비용 2.1만원으로 교육비가 가장 많이 지출되었다. 중·고등학생 자녀는 91.9만원으로 공교육비/사교육비 55.2만원, 기타비용 36.6만원, 돌봄비용 0.0만원으로 교육비가 가장 많이 지출되었다.

한부모가족 조사와 가족과 출산조사 결과 모두 연령기별 자녀의 전반적인 지출 항목에 따른 비중이 유사하였다. 미취학 자녀의 경우 기타, 교육비, 돌봄 순이었고, 초등학생 이상 자녀의 경우 교육비, 기타, 돌봄 비용 순으로 지출을 많이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13) 「가족과 출산조사」에서의 "귀하는 (지난 3개월간) 자녀를 위해 월평균 얼마를 지출하셨습니까?"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박종서 외, 2023: 265~273, 424)이다.

(단위: 만원)



[그림 Ⅱ-2-12] 자녀양육비 항목별 평균 지출 금액

미취학 자녀 월 평균 항목별 양육비 지출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한부모 연령이 30대 이하, 대학 이상 학력, 사별, 부자가구, 모자/부자+기타 가구, 종사상 지위가 상용근로자, 자영업/무급가족, 일반 가구, 소득수준이 300만원 이상 집단에서 전체 총액보다 높은 금액이 지출되고 있었다(=〈표 Ⅱ-2-27〉).

초등학생 자녀 월 평균 항목별 양육비 지출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한부모 연령이 40대 이하, 중졸 이하 학력, 대학 이상 학력에서, 혼인 상태가 사별, 모자+기타와 부자+기타 가구에서, 상용근로자와 자영업/무급가족 집단에서, 일반 가구, 소득수준이 300만원 이상, 한부모가 된 기간이 5년 미만 집단에서 전체 총액보다 높은 금액이 지출되고 있었다(=〈표 Ⅱ-2-28〉).

중·고등학생 자녀 월 평균 항목별 양육비 지출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한부모 학력이 대학 이상, 부자+기타 가구, 가장 어린자녀가 중학생 이상, 상용근로자과 자영업/무급가족, 일반 가구, 소득수준이 300만원 이상에서 전체 총액보다 매우 높은 금액이 지출되고 있었다(=〈표 Ⅱ-2-29〉).

〈표 Ⅱ-2-26〉 자녀양육비 항목별 평균 지출 금액: 미취학 자녀

(단위: 만원)

	돌봄비용	$F(df)$	교육비	$F(df)$	기타	$F(df)$	총액	$F(df)$
전 체	9.8		16.1		20.2		46.1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10.3	0.718(2)	17.2	2.712(2)	22.1	4.806(2)**	49.7	5.545(2)**
40대	8.3		12.4		14.2		34.9	
50대 이상	-		17.7		10.0		27.7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1.8	4.282(2)*	9.0	4.696(2)**	23.9	0.733(2)	34.7	5.67(2)**
고졸 이하	6.2		13.3		18.4		37.9	
대학 이상	12.1		18.0		20.9		51.1	
혼인 상태								
이혼	9.8	0.187(2)	17.1	5.505(2)**	19.5	1.803(2)	46.4	0.214(2)
사별	11.8		19.0		17.6		48.4	
기타	8.5		8.9		25.6		43.0	
가구 구성								
모자	4.4		16.8		19.5		40.7	
모자+기타	12.3	10.184(3)***	14.5	0.86(3)	25.1	3.647(3)*	51.9	2.522(3)
부자	19.4		15.1		14.3		48.7	
부자+기타	17.8		19.0		15.5		52.3	

	돌봄비용	$F(df)$	교육비	$F(df)$	기타	$F(df)$	총액	$F(df)$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13.0		20.0		22.5		55.5	
임시/일용근로자	7.3	13.466(3)***	14.8	13.079(3)***	13.7	3.505(3)*	35.8	16.849(3)***
자영업/무급가족	25.3		23.9		22.8		71.9	
비취업	1.6		8.4		21.4		31.4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7.5	10.582(1)**	15.0	4.056(1)*	20.5	0.151(1)	43.0	5.973(1)*
일반 가구	15.2		18.8		19.5		53.5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		11.9		9.4		21.3	
100~200만원 미만	2.9	9.679(3)***	11.7	2.676(3)*	18.6	2.932(3)*	33.3	10.577(3)***
200~300만원 미만	6.4		16.7		16.9		39.9	
300만원 이상	15.9		18.0		23.8		57.7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10.9	3.567(2)*	15.3	6.044(2)**	21.6	4.734(2)**	47.8	2.78(2)
5~10년 미만	3.2		23.0		11.3		37.4	
10년 이상	-		3.9		17.8		21.6	

주: *p<.05, **p<.01, ***p<.001

〈표 Ⅱ-2-27〉 자녀양육비 항목별 평균 지출 금액: 초등학생 자녀

(단위: 만원)

	돌봄비용	$F(df)$	교육비	$F(df)$	기타	$F(df)$	총액	$F(df)$
전 체	4.0		32.8		13.8		50.5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4.5	4.33(2)*	33.6	6.751(2)**	14.3	1.922(2)	52.4	10.718(2)***
40대	4.0		33.2		13.6		50.8	
50대 이상	0.5		23.7		11.5		35.6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2.6	24.266(2)***	31.4	17.51(2)***	18.6	6.215(2)**	52.6	34.12(2)***
고졸 이하	1.8		29.0		12.7		43.6	
대학 이상	6.0		36.4		14.5		57.0	
혼인 상태								
이혼	3.8	2.75(2)	32.8	1.877(2)	13.7	0.135(2)	50.3	0.648(2)
사별	4.1		35.2		14.2		53.5	
기타	7.1		28.3		14.2		49.5	
가구 구성								
모자	2.2		32.2		14.5		48.9	
모자+기타	7.2	15.623(3)***	31.9	4.275(3)**	12.4	2.259(3)	51.5	5.479(3)***
부자	4.2		31.5		12.9		48.6	
부자+기타	6.6		38.9		13.7		59.2	

	돌봄비용	$F(df)$	교육비	$F(df)$	기타	$F(df)$	총액	$F(df)$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4.6	0.285(1)	31.5	0.302(1)	13.3	0.174(1)	49.3	0.15(1)
초등학생	3.9		32.9		13.8		50.6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5.6		37.0		13.6		56.2	
임시/일용근로자	2.4	14.656(3)***	28.4	26.004(3)***	12.7	3.605(3)*	43.5	32.397(3)***
자영업/무급가족	5.8		38.5		16.6		60.9	
비취업	0.8		24.4		14.0		39.2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2.7	37.558(1)***	29.6	57.414(1)***	13.8	0.114(1)	46.1	62.717(1)***
일반 가구	6.7		39.6		13.6		59.8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		11.0		9.0		20.0	
100~200만원 미만	1.0	12.692(3)***	24.4	34.275(3)***	12.7	2.503(3)	38.1	41.967(3)***
200~300만원 미만	3.2		29.9		13.3		46.4	
300만원 이상	5.8		39.0		14.7		59.6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5.2	10.686(2)***	35.4	15.197(2)***	13.7	0.274(2)	54.2	17.772(2)***
5~10년 미만	2.9		31.0		14.0		47.9	
10년 이상	0.6		22.7		13.0		36.4	

주: *p<.05, **p<.01, ***p<.001

〈표 Ⅱ-2-28〉 자녀양육비 항목별 평균 지출 금액: 중·고등학생 자녀

(단위: 만원)

	돌봄비용	$F(df)$	교육비	$F(df)$	기타	$F(df)$	총액	$F(df)$
전 체	1.3		44.6		20.2		66.1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0.5	2.033(2)	36.8	6.244(2)**	20.2	0.025(2)	57.5	4.397(2)*
40대	1.2		46.3		20.1		67.6	
50대 이상	1.9		42.7		20.3		64.9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	7.296(2)***	30.9	56.62(2)***	25.9	9.016(2)***	56.9	51.431(2)***
고졸 이하	0.8		38.6		19.4		58.8	
대학 이상	2.1		54.0		20.8		77.0	
혼인 상태								
이혼	1.4	1.44(2)	44.3	2.04(2)	19.7	5.634(2)**	65.5	2.804(2)
사별	0.9		48.1		22.6		71.6	
기타	-		40.0		22.4		62.5	
가구 구성								
모자	0.5		42.9		19.4		62.8	
모자+기타	1.6	30.165(3)***	44.5	4.977(3)**	21.2	2.733(3)*	67.3	11.406(3)***
부자	1.0		45.4		21.1		67.5	
부자+기타	6.3		52.8		21.4		80.6	

	돌봄비용	$F(df)$	교육비	$F(df)$	기타	$F(df)$	총액	$F(df)$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1.6	2.052(2)	21.1	22.407(2)***	14.5	7.447(2)***	37.2	26.582(2)***
초등학생	0.4		34.8		17.9		53.1	
중학생 이상	1.5		46.8		20.7		69.0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1.5		50.5		20.7		72.6	
임시/일용근로자	0.9	2.579(3)	37.8	57.306(3)***	19.5	6.252(3)***	58.2	56.692(3)***
자영업/무급가족	2.2		56.7		22.4		81.2	
비취업	0.6		27.3		17.7		45.6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0.9	13.051(1)***	37.8	178.49(1)***	19.6	8.617(1)**	58.2	168.31(1)***
일반 가구	2.3		58.6		21.5		82.4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		19.5		9.1		28.6	
100~200만원 미만	0.5	5.512(3)***	25.6	108.779(3)***	16.6	15.151(3)***	42.7	111.714(3)***
200~300만원 미만	0.8		38.3		20.0		59.1	
300만원 이상	2.2		58.5		21.9		82.6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1.7	2.272(2)	46.5	7.509(2)***	19.7	2.174(2)	67.9	4.351(2)*
5~10년 미만	1.4		46.3		19.9		67.6	
10년 이상	0.7		39.7		21.3		61.6	

주: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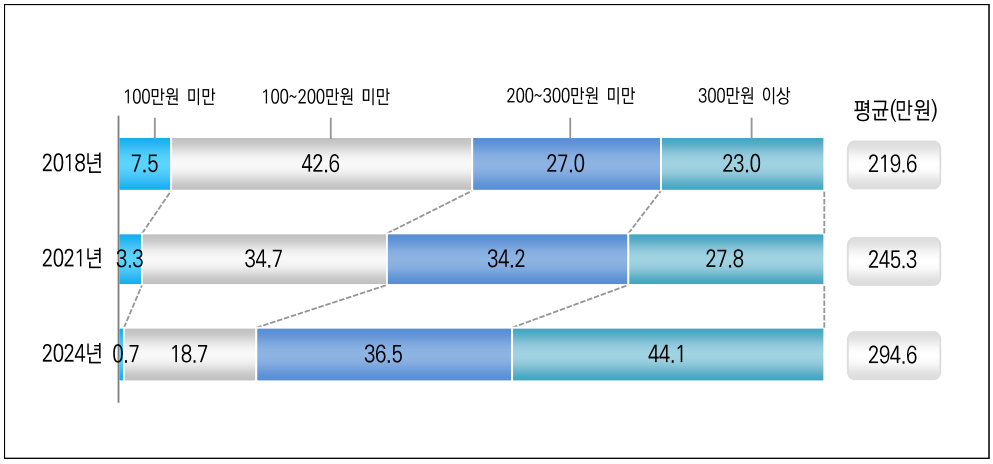
3. 소득 및 지출

가. 소득

지난 1년간 가구 월평균 소득(세금, 사회보험료 등 제외)을 함께 사는 모든 가구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조사한 결과, 평균 294.6만원으로 나타났다.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전년도 기준 전체 가구의 평균 처분가능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값은 456.8만원이다[14](통계청, 2023d: 24). 전체가구와 비교했을 때에는 한부모가구의 소득은 64.5%에 불과하다. 아울러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가구의 평균 처분가능소득(전년도)을 12개월로 나눈 값은 488.7만원이며, 이 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부모 가구의 소득은 60.3% 수준이다(통계청, 2024a).

한편, 300만원 이상인 집단이 44.1%, 200~300만원 미만 집단이 36.5%, 100~200만원 미만 집단이 18.7%, 100만원 미만인 집단은 0.7%로 각각 조사되었다. 지난 차수(2021년)와 비교해보면, 100~200만원 미만인 집단은 34.7%에서 16.0%p 감소한 반면, 200~300만원 미만은 34.2%에서 2.3%p 증가했고, 300만원 이상인 집단도 16.3%p 증가했다.

(단위: %, 2018년: n=2,500, 2021년: n=3,300, 2024년: n=3,315)



[그림 Ⅱ-3-1] 가구 월 평균 소득

14) 통계청(2023d: 24)에 따르면 전년도 기준 전체가구의 평균 처분가능소득은 5,482만원이고, 이를 12개월로 나누어서 비교하였다.

가구 월평균 소득을 집단별로 살펴보면, 한부모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막내 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한부모가 된 기간이 짧을수록 소득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 구성은 모자(+기타)가구 보다는 부자(+기타) 가구가 소득이 높았고, 종사상 지위가 자영업/무급가족인 경우에 상용근로자나 임시/일용근로자에 비해 소득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Ⅱ-3-1〉 가구 월 평균 소득

(단위: %,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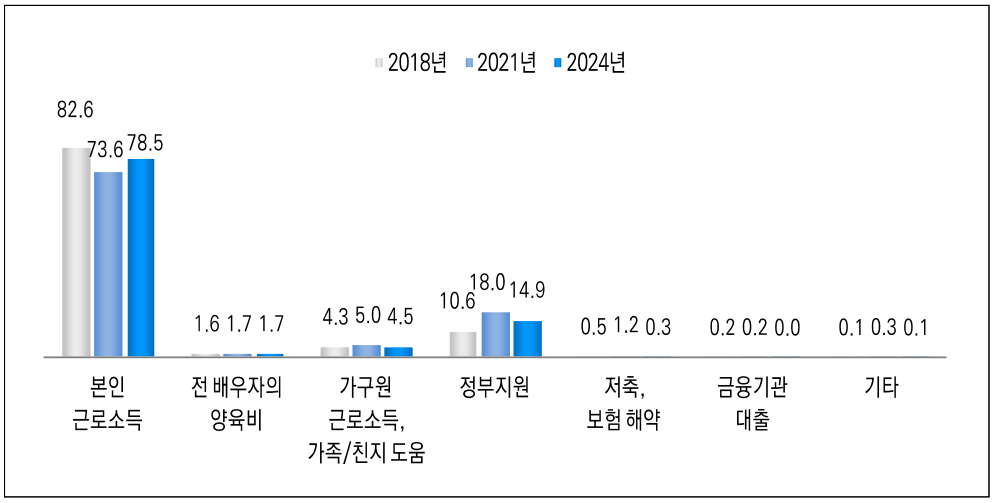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합계(n)	평균(만원)	$F(df)$
전 체	0.7	18.7	36.5	44.1	100.0(3,315)	294.6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0.6	20.7	33.3	45.3	100.0(846)	301.7	4.786(2)**
40대	0.5	16.4	37.9	45.2	100.0(1,895)	296.5	
50대 이상	1.6	23.1	36.7	38.6	100.0(575)	277.8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	36.3	46.5	17.2	100.0(101)	231.1	104.077(2)***
고졸 이하	1.1	23.2	41.0	34.7	100.0(1,666)	262.9	
대학 이상	0.4	12.6	31.0	56.0	100.0(1,548)	332.8	
혼인 상태							
이혼	0.7	17.8	37.2	44.4	100.0(2,793)	294.5	16.09(2)***
사별	1.4	14.9	30.6	53.1	100.0(345)	321.5	
기타	0.4	40.3	36.6	22.7	100.0(178)	243.9	
가구 구성							
모자	1.0	25.3	43.9	29.7	100.0(1,773)	250.6	
모자+기타	0.3	13.7	35.8	50.2	100.0(503)	334.4	148.021(3)***
부자	0.4	12.8	26.6	60.1	100.0(674)	325.3	
부자+기타	0.4	4.1	19.7	75.9	100.0(365)	397.0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합계(n)	평균(만원)	$F(df)$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1.0	21.8	33.4	43.8	100.0(392)	316.3	5.311(2)**
초등학생	0.7	19.0	35.8	44.5	100.0(1,281)	295.0	
중학생 이상	0.6	17.7	37.8	43.8	100.0(1,642)	289.1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	3.6	33.4	63.0	100.0(1,483)	340.3	
임시/일용근로자	0.3	25.8	52.0	22.0	100.0(858)	246.7	241.161(3)***
자영업/무급가족	-	6.8	26.2	67.0	100.0(440)	363.2	
비취업	4.0	58.9	28.7	8.3	100.0(534)	188.1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1.1	26.9	46.8	25.3	100.0(2,184)	247.6	790.505(1)***
일반 가구	0.0	2.8	16.7	80.4	100.0(1,131)	385.4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0.6	16.7	33.3	49.4	100.0(1,415)	306.8	20.068(2)***
5~10년 미만	0.7	18.1	37.2	44.0	100.0(1,328)	296.2	
10년 이상	1.2	24.9	42.7	31.1	100.0(572)	260.5	

주: **p<.01, ***p<.001

지난 1년간 가구의 주요한 소득원(1순위)을 파악한 결과, 전체 가구 소득 금액 중 보인 근로소득이 78.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은 정부 지원(14.9%), 같이 사는 타 가구원 근로소득(4.5%), 전 배우자의 양육비(1.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보면, 본인의 근로소득이 가구의 주요한 소득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21년(73.6%) 대비 증가한 반면, 정부지원이 수 소득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21년의 18.0%대비 감소하였다.

(단위: %, 2018년: n=2,500, 2021년: n=3,300, 2024년: n=3,315)



[그림 Ⅱ-3-2] 가구 주 소득(1순위)

주요한 소득원(1순위)을 집단별로 살펴보면, 한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본인의 근로소득의 비중이 높은 반면, 학력이 낮을수록 정부지원이 주요한 소득원이라고 응답하는 비중이 높았다. 가구 구성은 부자 가구일수록 근로소득의 비중이 높은 반면, 모자 가구일수록 정부 지원을 받는 비중이 높았다. 가장 어린 자녀가 나이가 미취학인 경우 정부지원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초등학생 이상부터는 고학년이 될 수록 정부지원의 비중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종사상 지위가 상용근로자이거나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인 경우 본인 근로소득이 주요한 가구 소득의 비중을 차지했으나, 임시/일용근로자는 상대적으로 본인 근로소득 비중이 낮았고 비취업자의 경우 정부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한부모가 된 기간이 짧을수록 가구의 주 소득이 본인의 근로소득이라고 응답하는 비중이 높았다.

〈표 Ⅱ-3-2〉 가구 주 소득(1순위)

(단위: %,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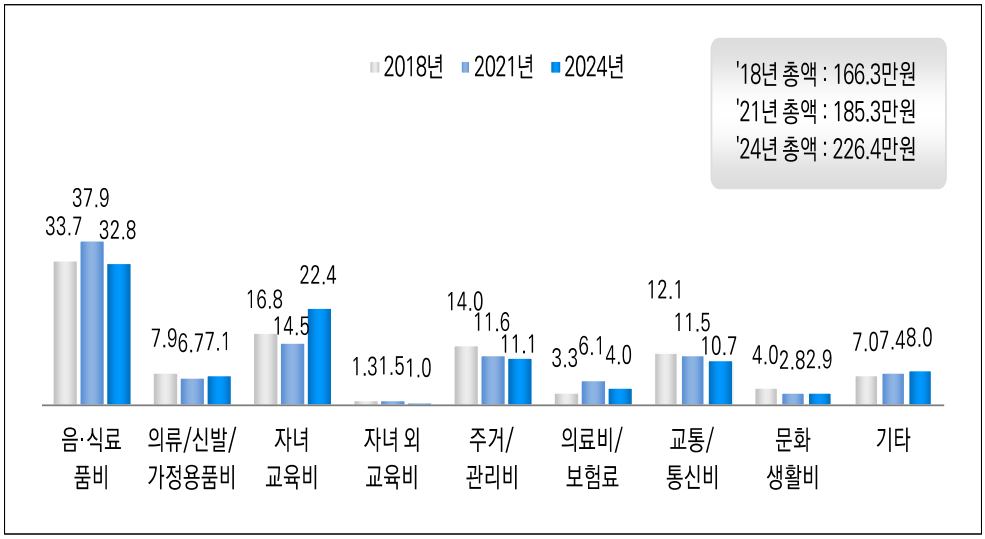
	본인 근로 소득	전 배우자의 양육비	같이 사는 가구원 근로 소득	가족, 친지 도움	정부지원	저축, 보험 해약	금융기관 대출	기타	합계(n)
전 체	78.5	1.7	3.4	1.1	14.9	0.3	0.0	0.1	100.0(3,315)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71.3	2.8	7.2	1.8	16.6	0.1	0.1	0.1	100.0(846)
40대	82.6	1.4	2.0	0.8	12.8	0.3	-	0.1	100.0(1,895)
50대 이상	75.6	0.8	2.5	0.8	19.5	0.7	-	0.1	100.0(575)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59.4	0.7	0.4	1.3	37.2	1.0	-	-	100.0(101)
고졸 이하	74.1	1.7	3.4	1.7	18.8	0.1	-	0.1	100.0(1,666)
대학 이상	84.5	1.7	3.7	0.4	9.3	0.4	0.1	0.1	100.0(1,548)
혼인 상태									
이혼	79.7	1.9	3.1	1.1	13.8	0.3	0.0	0.1	100.0(2,793)
사별	86.2	-	1.5	0.7	11.5	-	-	0.2	100.0(345)
기타	45.1	1.0	12.1	1.9	39.4	0.6	-	-	100.0(178)
가구 구성									
모자	75.8	2.8	0.5	1.2	19.2	0.4	0.1	0.1	100.0(1,773)
모자+기타	67.9	1.1	16.7	1.3	13.0	-	-	-	100.0(503)
부자	88.4	0.1	0.4	0.3	10.1	0.5	-	0.3	100.0(674)
부자+기타	88.2	-	5.0	1.3	5.4	-	-	-	100.0(365)

	본인 근로 소득	전 배우자의 양육비	같이 사는 가구원 근로 소득	가족, 친지 도움	정부지원	저축, 보험 해약	금융기관 대출	기타	합계(n)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63.3	3.5	9.1	2.0	21.7	0.3	-	-	100.0(392)
초등학생	78.0	1.7	3.7	0.9	15.3	0.2	0.1	0.2	100.0(1,281)
중학생 이상	82.5	1.2	1.9	1.0	13.0	0.4	-	0.1	100.0(1,642)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96.2	0.5	1.5	0.3	1.3	0.0	-	0.1	100.0(1,483)
임시/일용근로자	83.7	1.2	3.9	0.4	10.4	0.1	0.1	0.1	100.0(858)
자영업/무급가족	94.7	0.4	2.0	-	2.9	-	-	-	100.0(440)
비취업	7.5	6.8	9.2	5.0	69.9	1.5	-	0.1	100.0(534)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70.4	2.2	3.5	1.3	22.0	0.4	0.0	0.1	100.0(2,184)
일반 가구	94.2	0.5	3.3	0.7	1.2	-	-	0.2	100.0(1,131)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	6.7	-	16.8	76.5	-	-	-	100.0(24)
100~200만원 미만	44.3	2.9	1.4	1.8	48.7	1.0	-	-	100.0(619)
200~300만원 미만	82.4	2.0	2.2	0.8	12.2	0.3	-	0.1	100.0(1,210)
300만원 이상	91.1	0.8	5.4	0.7	1.9	-	0.1	0.1	100.0(1,462)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78.1	2.6	4.3	0.7	13.8	0.3	0.1	0.2	100.0(1,415)
5~10년 미만	82.3	1.1	2.4	1.1	12.7	0.1	-	0.1	100.0(1,328)
10년 이상	70.7	0.6	3.8	1.7	22.7	0.5	-	-	100.0(572)

나. 지출

지난 1년간 가구의 월평균 지출 금액을 확인한 결과, 약 226.4만원으로 조사되었고, 월평균 소득대비 76.8%에 달함. 그 중에서는 음·식료품비에 전체 지출 중 32.8%를 할애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자녀 교육비에 22.4%, 주거/관리비에 11.1%, 교통/통신비에 10.7% 순으로 지출하고 있었다. 지난 2021년 조사와 비교해보면, 가구 월평균 지출액은 2018년에 166.3만원, 2021년에 185.3만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항목별 비중을 보면, 음·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3개년 조사에서도 가장 높았다(2018년 33.7%, 2021년 37.9%). 주거/관리비와 교통/통신비는 매년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자녀 교육비 비중은 2018년 16.8%에서 2024년에는 22.4%로 5.6%p 증가했다.

(단위: %, 2018년: n=2,500, 2021년: n=3,300, 2024년: n=3,315)



[그림 Ⅱ-3-3] 가구 월 평균 지출 항목

가구 월평균 지출을 집단별로 살펴보면, 한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지출 수준도 증가하는 양상을 드러냈다. 또한, 혼인 상태가 사별인 집단, 가구 구성이 부자+기타인 집단, 가장 어린 자녀가 미취학인 집단, 종사상 지위가 자영업/무급가족인 집단, 한부모가 된 기간이 5~10년 미만인 집단에서 평균 지출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Ⅱ-3-3〉 가구 월 평균 지출

(단위: %, 가구)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합계(n)	평균(만원)	$F(df)$
전 체	2.1	40.7	40.4	16.7	100.0(3,315)	226.4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3.1	42.5	40.3	14.1	100.0(846)	222.2	3.976(2)*
40대	1.2	39.2	42.0	17.6	100.0(1,895)	230.0	
50대 이상	3.8	43.3	35.4	17.5	100.0(575)	220.4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4.1	48.7	40.6	6.6	100.0(101)	198.5	95.358(2)***
고졸 이하	3.1	48.1	37.4	11.4	100.0(1,666)	207.9	
대학 이상	1.0	32.3	43.7	23.0	100.0(1,548)	248.1	
혼인 상태							
이혼	1.8	40.8	41.2	16.2	100.0(2,793)	226.3	11.206(2)***
사별	2.4	32.7	40.2	24.7	100.0(345)	239.6	
기타	6.3	56.0	27.9	9.8	100.0(178)	201.5	
가구 구성							
모자	2.8	49.7	38.0	9.5	100.0(1,773)	204.2	
모자+기타	1.2	32.5	44.5	21.8	100.0(503)	253.3	114.619(3)***
부자	2.0	33.0	45.5	19.4	100.0(674)	234.8	
부자+기타	0.4	22.6	37.1	39.9	100.0(365)	281.3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합계(n)	평균(만원)	$F(df)$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6.3	39.4	36.0	18.3	100.0(392)	234.3	8.918(2)***
초등학생	1.7	42.9	41.9	13.5	100.0(1,281)	218.4	
중학생 이상	1.5	39.4	40.3	18.8	100.0(1,642)	230.7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0.2	28.0	47.8	24.0	100.0(1,483)	251.1	
임시/일용근로자	2.5	54.1	38.1	5.3	100.0(858)	196.7	229.434(3)***
자영업/무급가족	0.4	23.1	45.2	31.2	100.0(440)	271.3	
비취업	8.4	69.3	19.6	2.7	100.0(534)	168.2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2.9	50.3	39.0	7.8	100.0(2,184)	201.9	591.718(1)***
일반 가구	0.7	22.2	43.1	34.0	100.0(1,131)	273.7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78.3	14.5	7.2	-	100.0(24)	99.5	
100~200만원 미만	7.6	90.2	2.2	-	100.0(619)	143.7	748.789(3)***
200~300만원 미만	0.4	47.4	51.2	1.0	100.0(1,210)	201.3	
300만원 이상	-	14.7	48.3	37.1	100.0(1,462)	284.1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2.3	39.7	41.5	16.5	100.0(1,415)	227.7	8.371(2)***
5~10년 미만	2.1	38.1	41.1	18.6	100.0(1,328)	230.6	
10년 이상	1.8	49.4	36.1	12.7	100.0(572)	213.1	

주: *p<.05, ***p<.001

월 평균 지출을 항목별, 집단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식료품비를 기준으로 볼 때, 식료품비가 전체 가구 원평균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막내 자녀 연령이 낮을수록, 종사상 지위는 상용근로자인 경우, 소득수준은 높을수록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가구 구성은 모자 또는 부자 가구보다는 모자+기타, 부자+기타인 경우, 정부 지원 유형이 일반가구인 경우에 식료품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지출 비중이 높은 항목인 자녀 교육비를 살펴보면, 한부모의 연령이 40대인 경우, 한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혼인 상태가 기타 보다는 이혼이나 사별인 경우, 가구 구성이 부자+기타인 경우, 종사상 지위는 자영업 / 무급가족종사자인 경우, 저소득 지원가구 보다는 일반 가구인 경우, 소득수준은 높을수록, 한부모가 된 기간이 5~10년 미만인 경우에 다른집 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 의류, 신반, 가정용품비, 주거관리비, 의료비 및 의료보험료, 통신비, 교통비, 차량유지비, 문화생활비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지출도 함께 높아지는 항목이었다. 막내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녀교육비, 통신비, 교통비는 증가하는 반면 연령이 낮을수록 의료비나 의류, 신발, 가정용품비, 문화생활비의 지출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Ⅱ-3-4〉 항목별 가구 월 평균 지출

(단위: 만원)

	식료품비	$F(df)$	의류, 신발, 가정용품비	$F(df)$	자녀 교육비	$F(df)$	자녀 외 교육비	$F(df)$
전 체	74.2		16.1		50.7		2.2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75.4	0.901(2)	17.5	12.899(2)***	42.5	34.563(2)***	1.2	6.133(2)**
40대	73.9		16.1		54.8		2.8	
50대 이상	73.3		14.1		49.3		1.8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64.3	34.913(2)***	15.9	22.131(2)***	42.5	41.429(2)***	0.6	1.825(2)
고졸 이하	70.3		14.7		45.6		2.0	
대학 이상	79.0		17.6		56.8		2.5	
혼인 상태								
이혼	74.3	1.325(2)	16.0	1.061(2)	50.8	13.267(2)***	2.3	1.063(2)
사별	74.9		16.8		56.2		2.2	
기타	70.5		17.0		38.9		1.0	
가구 구성								
모자	66.9		14.5		48.9		1.9	
모자+기타	86.7	88.486(3)***	19.1	31.81(3)***	48.5	10.538(3)***	4.4	8.251(3)***
부자	76.1		16.2		52.3		2.0	
부자+기타	88.6		19.7		60.0		0.8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82.1	16.125(2)***	19.9	24.043(2)***	39.6	31.286(2)***	1.4	4.333(2)*
초등학생	71.7		16.2		48.8		1.7	
중학생 이상	74.3		15.2		54.9		2.8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81.0		17.4		57.1		2.2	
임시/일용근로자	65.7	94.038(3)***	14.5	34.604(3)***	43.7	89.569(3)***	1.5	6.196(3)***
자영업/무급가족	83.9		19.2		63.5		4.2	
비취업	60.9		12.7		33.6		1.5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67.7	290.42(1)***	14.7	83.82(1)***	45.9	113.674(1)***	1.7	13.568(1)***
일반 가구	86.8		18.8		59.9		3.2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33.7		5.4		22.1		3.6	
100~200만원 미만	52.0	345.625(3)***	10.0	153.413(3)***	30.7	140.789(3)***	0.9	11.703(3)***
200~300만원 미만	66.6		14.1		46.9		1.2	
300만원 이상	90.5		20.6		62.8		3.5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74.6	5.405(2)**	16.9	7.373(2)***	50.7	3.225(2)*	1.5	4.49(2)*
5~10년 미만	75.4		16.0		52.1		2.8	
10년 이상	70.3		14.6		47.5		2.4	

주: *p<.05, **p<.01, ***p<.001

〈표 Ⅱ-3-4〉 항목별 가구 월 평균 지출[계속]

(단위: 만원)

	주거 관리비	$F(df)$	의료비 및 의료 보험료	$F(df)$	통신비	$F(df)$	교통비	$F(df)$
전 체	25.1		9.0		13.6		10.6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26.1	2.448(2)	10.0	4.891(2)**	13.0	5.086(2)**	10.5	0.812(2)
40대	24.8		8.8		13.7		10.5	
50대 이상	24.9		8.0		14.0		11.0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27.5	9.414(2)***	6.3	41.677(2)***	12.8	2.865(2)	9.7	1.169(2)
고졸 이하	24.1		7.2		13.4		10.5	
대학 이상	26.1		11.1		13.8		10.8	
혼인 상태								
이혼	25.2	0.562(2)	8.7	3.826(2)*	13.6	9.02(2)***	10.5	1.85(2)
사별	25.4		9.8		14.4		11.3	
기타	24.0		11.2		12.0		9.9	
가구 구성								
모자	24.8	1.199(3)	7.3	43.98(3)***	12.1	123.472(3)***	10.0	23.505(3)***
모자+기타	25.2		12.9		16.2		13.0	
부자	25.4		8.1		13.6		9.5	
부자+기타	26.3		13.5		17.3		12.1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26.1	1.849(2)	13.7	30.942(2)***	12.8	10.345(2)***	10.4	7.534(2)***
초등학생	24.6		8.1		13.2		9.9	
중학생 이상	25.3		8.5		14.1		11.2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26.4	22.274(3)***	10.0	22.336(3)***	14.5	47.062(3)***	11.4	18.707(3)***
임시/일용근로자	23.9		6.7		13.2		10.9	
자영업/무급가족	27.9		11.8		14.5		9.7	
비취업	21.4		7.5		11.0		8.4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24.6	8.131(1)**	7.0	163.446(1)***	12.9	91.361(1)***	10.4	2.343(1)
일반 가구	26.1		12.8		15.0		10.9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17.2	39.602(3)***	2.5	91.825(3)***	7.5	176.2(3)***	5.4	26.997(3)***
100~200만원 미만	19.9		5.1		9.7		8.1	
200~300만원 미만	25.5		6.3		13.1		10.9	
300만원 이상	27.2		12.9		15.7		11.5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26.0	4.539(2)*	10.3	16.018(2)***	13.2	7.417(2)***	10.2	3.001(2)*
5~10년 미만	24.8		8.4		13.7		10.9	
10년 이상	23.9		7.1		14.3		11.0	

주: *p<.05, **p<.01, ***p<.001

〈표 Ⅱ-3-4〉 항목별 가구 월 평균 지출[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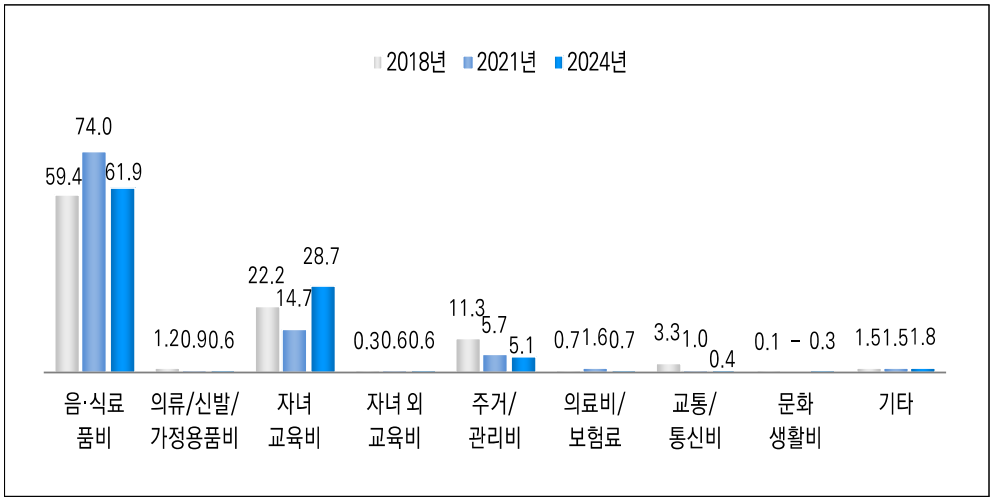
(단위: 만원)

	차량 유지비	$F(df)$	문화 생활비	$F(df)$	기타	$F(df)$	합계	$F(df)$
전 체	12.5		6.7		5.7		226.4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12.0	1.589(2)	8.1	25.169(2)***	5.9	3.54(2)*	222.2	3.976(2)*
40대	13.0		6.5		5.1		230.0	
50대 이상	11.6		5.0		7.3		220.4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7.9	44.375(2)***	5.5	71.821(2)***	5.5	1.269(2)	198.5	95.358(2)***
고졸 이하	9.8		5.1		5.2		207.9	
대학 이상	15.7		8.5		6.2		248.1	
혼인 상태								
이혼	12.5	13.926(2)***	6.7	6.482(2)**	5.7	0.033(2)	226.3	11.206(2)***
사별	15.1		7.7		5.8		239.6	
기타	6.1		5.0		5.9		201.5	
가구 구성								
모자	7.0		5.6		5.3		204.2	
모자+기타	11.9	202.776(3)***	8.8	27.459(3)***	6.6	1.209(3)	253.3	114.619(3)***
부자	18.3		6.9		6.4		234.8	
부자+기타	29.1		8.6		5.3		281.3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13.6	0.956(2)	9.4	24.09(2)***	5.3	0.146(2)	234.3	8.918(2)***
초등학생	12.1		6.5		5.6		218.4	
중학생 이상	12.5		6.2		5.8		230.7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16.5		8.4		6.2		251.1	
임시/일용근로자	7.3	109.839(3)***	5.0	56.971(3)***	4.2	16.64(3)***	196.7	229.434(3)***
자영업/무급가족	19.0		7.6		10.3		271.3	
비취업	4.1		3.9		3.0		168.2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7.0	677.642(1)***	4.9	321.645(1)***	5.1	7.296(1)**	201.9	591.718(1)***
일반 가구	23.1		10.1		6.8		273.7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0.3		1.5		0.2		99.5	
100~200만원 미만	2.3	253.025(3)***	3.0	154.348(3)***	2.1	21.296(3)***	143.7	748.789(3)***
200~300만원 미만	7.3		4.8		4.6		201.3	
300만원 이상	21.3		9.9		8.2		284.1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11.9	8.973(2)***	7.3	12.057(2)***	5.1	1.748(2)	227.7	8.371(2)***
5~10년 미만	14.0		6.6		6.0		230.6	
10년 이상	10.3		5.3		6.5		213.1	

주: *p<.05, **p<.01, ***p<.001

지난 1년동안 가구의 소비지출 항목 가운데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을 1순위로 지목한 결과를 살펴보면, 음·식료품비가 61.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자녀교육비(28.7%), 주거관리비(5.1%) 순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음·식료품비가 가장 부담이 된다는 응답은 2018년에 59.4%, 2021년에 74.0%에 달해 지난 조사대비는 감소하였다. 자녀교육비는 2018년에 22.2%, 2021년에 14.7%로 전년대비 두배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주거관리비는 2018년에 11.3%, 2021년에 5.7%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단위: %, 2018년: n=2,500, 2021년: n=3,300, 2024년: n=3,315)



[그림 Ⅱ-3-4] 부담이 되는 지출 항목(1순위)

부담되는 지출 항목을 집단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식료품비가 가장 부담이 된다고 한 비율은 한부모 연령이 낮을수록,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100~200만원 미만의 집단에서 식료품비에 가장 부담을 느끼는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두 번째로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높았던 항목은 자녀 교육비로 조사되었다. 자녀교육비에 대해서는 막내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종사상 지위가 상용 근로자인 경우에 부담을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표 Ⅱ-3-5〉 부담이 되는 지출 항목(1순위)

(단위: %)

	식료품비	의류/신발/가정용품비	자녀 교육비	자녀 외 가족의 교육비	주거 및 관리비	의료비 및 보험료	통신비	교통비	차량 유지비	문화 생활비	기타	합계(n)
전 체	61.9	0.6	28.7	0.6	5.1	0.7	0.2	0.2	1.0	0.3	0.7	100.0(3,315)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67.8	0.5	22.4	1.0	5.0	0.7	0.2	0.4	0.8	0.4	0.7	100.0(846)
40대	58.6	0.6	32.4	0.6	4.8	0.6	0.1	0.2	1.3	0.4	0.5	100.0(1,895)
50대 이상	64.0	0.7	25.8	-	6.0	0.9	0.4	0.1	0.5	-	1.6	100.0(575)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63.2	-	25.2	-	7.5	-	-	-	1.8	-	2.3	100.0(101)
고졸 이하	64.4	0.6	26.6	0.1	5.8	0.4	0.2	0.1	0.8	0.1	0.8	100.0(1,666)
대학 이상	59.2	0.7	31.1	1.1	4.1	1.0	0.2	0.3	1.3	0.6	0.6	100.0(1,548)
혼인 상태												
이혼	62.0	0.6	29.0	0.5	5.1	0.5	0.2	0.1	1.1	0.3	0.7	100.0(2,793)
사별	60.4	0.4	30.2	1.9	4.6	0.9	-	-	-	1.1	0.5	100.0(345)
기타	64.2	0.8	21.3	-	5.7	2.6	-	1.4	2.2	-	1.8	100.0(178)
가구 구성												
모자	59.5	0.5	30.0	0.4	6.2	1.2	0.2	0.2	0.7	0.3	0.7	100.0(1,773)
모자+기타	69.6	0.8	22.8	1.2	3.5	-	-	0.5	0.6	-	1.0	100.0(503)
부자	63.5	1.1	27.9	0.9	4.7	0.1	0.2	0.1	0.3	0.8	0.5	100.0(674)
부자+기타	60.1	-	31.9	-	2.5	-	0.1	-	4.4	-	1.0	100.0(365)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68.4	0.7	22.3	0.3	4.0	0.7	-	1.0	1.9	-	0.7	100.0(392)
초등학생	63.9	0.7	27.8	0.6	4.4	0.6	0.2	-	0.6	0.7	0.5	100.0(1,281)
중학생 이상	58.8	0.5	30.9	0.7	5.8	0.7	0.2	0.2	1.1	0.2	1.0	100.0(1,6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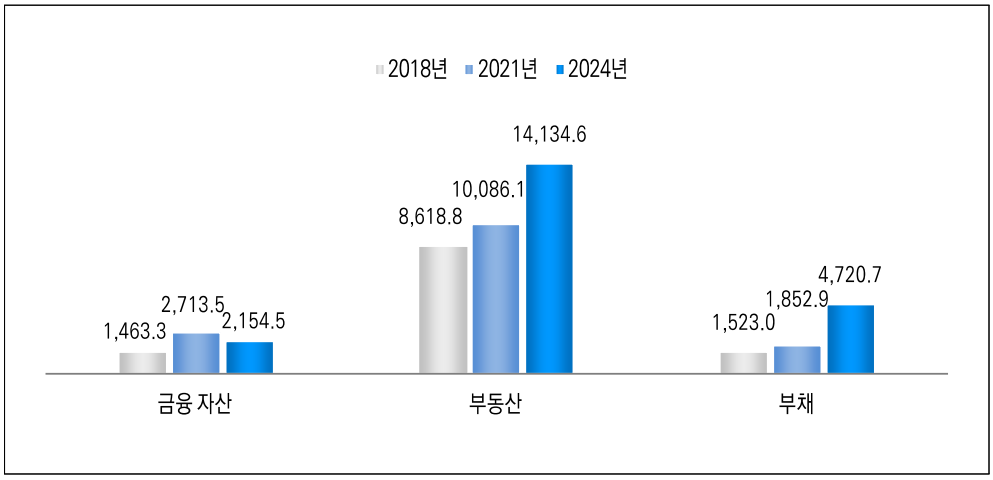
	식료품비	의류/신발/가정용품비	자녀 교육비	자녀 외 가족의 교육비	주거 및 관리비	의료비 및 보험료	통신비	교통비	차량 유지비	문화 생활비	기타	합계(n)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59.7	0.8	31.6	0.8	3.9	0.2	0.2	0.2	0.9	0.7	1.0	100.0(1,483)
임시/일용근로자	63.7	0.3	26.7	0.2	5.9	0.6	0.2	-	1.6	0.1	0.7	100.0(858)
자영업/무급가족	61.3	0.7	28.9	0.7	5.4	1.2	0.1	-	1.2	-	0.5	100.0(440)
비취업	65.9	0.6	23.6	0.4	6.5	1.5	0.3	0.7	0.2	-	0.3	100.0(534)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62.4	0.5	28.0	0.4	6.2	0.6	0.2	0.3	0.6	0.0	0.9	100.0(2,184)
일반 가구	61.1	0.8	29.9	1.0	2.9	0.7	0.2	-	1.9	0.9	0.5	100.0(1,131)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53.4	-	25.7	-	15.7	2.2	3.0	-	-	-	-	100.0(24)
100~200만원 미만	64.9	0.3	25.5	0.7	6.3	0.7	0.2	0.6	0.4	-	0.4	100.0(619)
200~300만원 미만	59.7	0.6	29.6	0.2	6.7	0.5	0.1	-	1.4	0.1	1.1	100.0(1,210)
300만원 이상	62.6	0.7	29.3	0.9	3.0	0.8	0.2	0.2	1.0	0.7	0.6	100.0(1,462)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62.9	0.7	28.3	0.5	4.8	0.6	0.0	0.4	0.4	0.6	0.7	100.0(1,415)
5~10년 미만	61.2	0.6	29.0	0.8	5.5	0.5	0.2	-	1.3	0.2	0.6	100.0(1,328)
10년 이상	61.2	0.6	28.7	0.2	4.5	1.1	0.4	0.1	1.9	-	1.3	100.0(572)

다. 자산 및 부채

현재 가구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해 질문한 결과, 한부모가족의 금융자산은 약 2,154.5만원, 부동산은 14,134.6만원, 부채는 4,720.7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차수와 비교해보면, 금융자산은 감소한 반면 부동산과 부채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융자산은 2018년에 1,463.3만원, 2021년에 2,713.5만원으로 전차수 대비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부동산은 2018년 8,618.8만원, 2021년 10,086.1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부채도 2018년에 1,523.0만원, 2021년에 1,852.9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통계청, 2024a)를 살펴보면 해당 조사에서의 전체 가구의 자산은 평균 54,022만원이었으며, 이는 금융자산 13,378만원과 부동산자산 40,644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아울러 부채액의 평균은 9,128만원으로 (순)자산과 부채 모두 한부모가족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단위: 만원, 2018년: n=2,500, 2021년: n=3,300, 2024년: n=3,315)



[그림 Ⅱ-3-5] 자산 및 부채

자산 및 부채에 대해 집단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금융자산은 한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사별한 경우, 가구 구성이 모자+기타인 경우, 막내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인 경우, 정부 지원 유형이 일반 가구인 경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한부모가 된 기간이 짧을수록 높은 경향이 있었다. 부동산은 한부모의 연령이 40대인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혼인 상태는 사별인 집단이, 가구 구성은 부자+기타, 종사상 지위는 자영업/

무급가족종사자, 정부 지원 유형은 일반가구, 소득수준은 300만원 이상의 집단에서 그리고 한부모가 된 기간이 짧을수록 부동산 보유금액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채는 한부모의 학력이 대학이상이거나 중졸이하일 때 높게 나타났고, 혼인 상태가 사별일 때, 막내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종사상 지위가 상용근로자 이거나 자영업/무급가족 종사자일 때, 정부지원 유형이 일반가구인 경우, 소득수준은 300만원 이상이거나 100만원 미만일 때 부채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한부모가 된 기간이 짧을수록 부채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표 Ⅱ-3-6〉 자산 및 부채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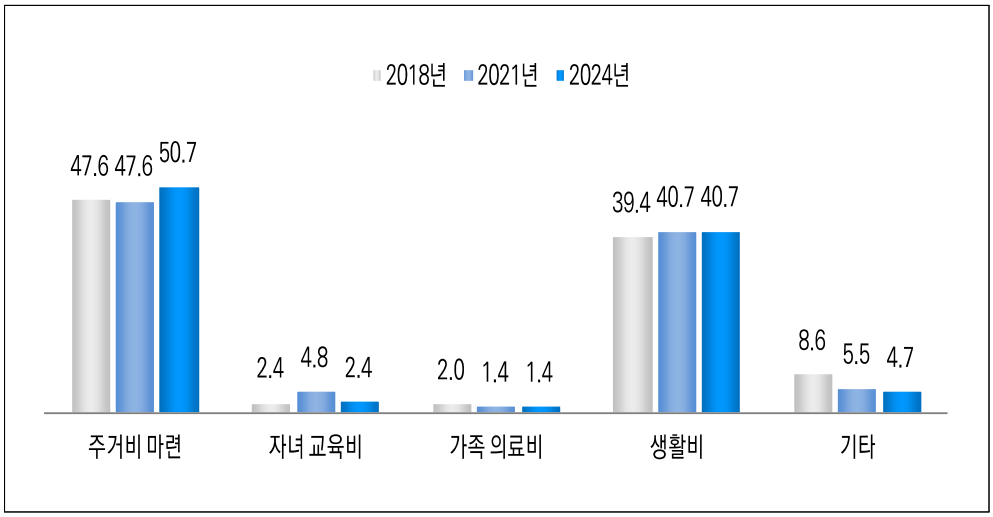
	금융 자산	$F(df)$	부동산	$F(df)$	부채	$F(df)$
전 체	2,154.5		14,134.6		4,720.7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2,398.3	2.8(2)	13,973.6	4.784(2)**	5,021.6	0.783(2)
40대	2,114.6		14,903.5		4,633.7	
50대 이상	1,907.7		11,848.0		4,624.0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1,325.4	59.571(2)***	3,402.1	116.759(2)***	4,265.5	19.607(2)***
고졸 이하	1,418.9		9,381.1		3,914.0	
대학 이상	2,872.9		19,591.3		5,554.2	
혼인 상태						
이혼	2,059.2	7.766(2)***	13,962.8	6.632(2)**	4,670.6	4.121(2)*
사별	2,906.1		17,099.1		5,674.7	
기타	2,044.2		9,961.4		3,743.1	
가구 구성						
모자	1,514.2	33.401(3)***	9,168.1	95.456(3)***	3,940.7	13.333(3)***
모자+기타	3,076.0		22,510.9		5,519.0	
부자	2,517.2		16,016.4		5,577.7	
부자+기타	2,977.8		24,019.7		5,658.7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2,767.4	5.821(2)**	16,278.1	2.335(2)	5,699.1	4.033(2)*
초등학생	2,054.2		14,079.2		4,683.9	
중학생 이상	2,075.3		13,697.4		4,515.0	

	금융 자산	$F(df)$	부동산	$F(df)$	부채	$F(df)$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2,550.5		17,522.6		5,433.2	
임시/일용근로자	1,077.3	57.796(3)***	7,729.4	104.113(3)***	3,548.8	19.469(3)***
자영업/무급가족	3,527.3		23,234.0		5,880.8	
비취업	1,169.0		5,859.8		3,614.2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1,102.1	378.627(1)***	6,707.2	880.592(1)***	3,561.8	156.499(1)***
일반 가구	3,613.2		26,095.7		6,835.0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266.5		4,065.9		5,291.1	
100~200만원 미만	604.0	112.278(3)***	3,665.1	240.217(3)***	2,625.4	52.302(3)***
200~300만원 미만	1,095.0		7,037.7		3,623.7	
300만원 이상	3,281.0		23,185.2		6,371.7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2,431.0	7.896(2)***	16,553.4	18.609(2)***	5,309.3	8.091(2)***
5~10년 미만	2,027.1		12,887.8		4,402.9	
10년 이상	1,695.4		10,901.3		4,017.6	

주: *p<.05, **p<.01, ***p<.001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한부모 가족에게 빚을 지게 된 가장 큰 이유를 추가적으로 확인한 결과, 주거비 마련이 50.7%로 절반을 차지하였다. 뒤 이어 생활비(40.7%), 기타(4.7%)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 차수와 비교해보면, 생활비의 비중은 거의 변화하지 않는 반면, 주거비 마련으로 인한 부채 발생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단위: %, 2018년: n=1,140, 2021년: n=1,583, 2024년: n=1,581)



[그림 Ⅱ-3-6] 빚을 지게 된 이유

빚을 지게 된 이유를 집단별로 구분하려 살펴보면, 주거비 마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한부모의 혼인 상태가 사별인 경우, 가구 구성은 부자 가구인 집단, 종사상 지위가 상용근로자인 집단, 정부 지원 유형은 일반가구인 집단, 소득수준은 300만원 이상인 집단 한부모가 된 기간이 5년 미만으로 짧은 집단에서 특히 주거비 마련으로 인해 부채가 발생하였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았다.

생활비로 인해 빚을 지게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한부모의 혼인 상태가 이혼 또는 기타인 경우, 가구구성은 모자인 집단, 종사상 지위는 임시/일용근로자 또는 비취업자 집단. 정부지원 유형은 저소득 지원 가구인 집단, 소득수준은 300만원 이상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한부모가 된 기간이 길수록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표 Ⅱ-3-7〉 빚을 지게 된 이유

(단위: %,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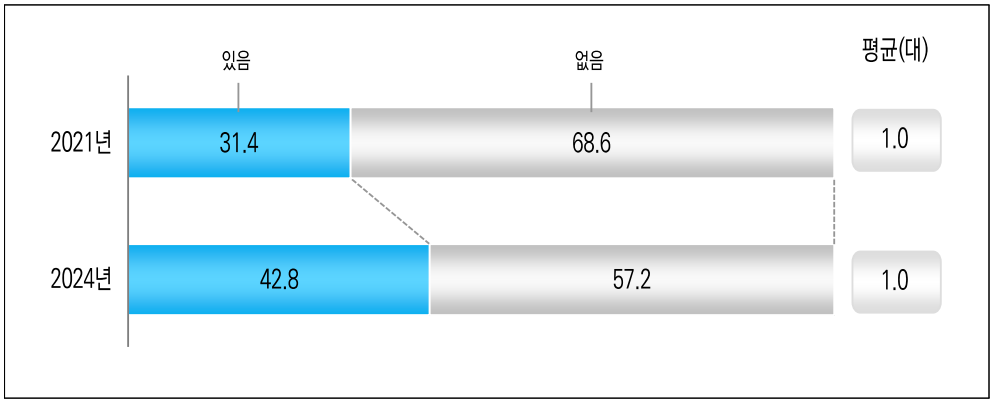
	주거비 마련	자녀 교육비	가족 의료비	생활비	기타	합계(n)	$\chi^2(df)$
전 체	50.7	2.4	1.4	40.7	4.7	100.0(1,581)	
혼인 상태							
이혼	50.9	2.5	1.1	41.1	4.4	100.0(1,344)	16.529(8)*
사별	54.5	2.5	4.0	33.3	5.6	100.0(155)	
기타	40.1	1.5	2.4	48.3	7.7	100.0(82)	
가구 구성							
모자	47.1	3.0	1.4	46.0	2.6	100.0(829)	
모자+기타	40.3	3.3	2.6	45.6	8.3	100.0(222)	71.272(12)***
부자	62.2	1.3	1.4	30.3	4.9	100.0(340)	
부자+기타	57.8	1.0	0.4	31.0	9.8	100.0(190)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60.8	2.4	0.9	33.6	2.3	100.0(686)	
임시/일용근로자	41.3	2.9	0.7	51.1	4.0	100.0(417)	119.878(12)***
자영업/무급가족	51.8	1.3	1.9	31.9	13.1	100.0(233)	
비취업	37.2	2.8	3.7	51.5	4.8	100.0(245)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37.4	3.3	1.2	53.9	4.2	100.0(1,021)	234.723(4)***
일반 가구	74.8	0.9	1.9	16.7	5.7	100.0(560)	

	주거비 마련	자녀 교육비	가족 의료비	생활비	기타	합계(n)	$\chi^2(df)$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36.4	4.5	-	56.0	3.0	100.0(12)	
100~200만원 미만	34.8	2.2	2.2	58.3	2.5	100.0(279)	209.276(12)***
200~300만원 미만	36.3	4.5	1.0	54.2	4.1	100.0(565)	
300만원 이상	68.2	0.9	1.5	23.3	6.1	100.0(726)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57.0	2.2	1.5	35.5	3.8	100.0(674)	34.487(8)***
5~10년 미만	48.8	2.3	1.2	43.8	3.9	100.0(625)	
10년 이상	39.6	3.5	1.8	46.4	8.7	100.0(282)	

주: *p<.05, ***p<.001

한부모 가족이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57.2%로 나타났고 평균 보유대수는 1대로 조사되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보면 없다는 비중은 2021년 68.6%에서 11.4%p 감소했다.

(단위: %, 2021년: n=3,300, 2024년: n=3,315)



[그림 Ⅱ-3-7] 자동차 소유 여부 및 평균 소유 대수

자동차 소유 여부를 집단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집단에서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한부모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가구 구성이 모자(+기타)보다는 부자(+기타)인 집단, 막내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종사상 지위가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 이거나 상용근로자인 집단, 정부지원유형이 일반가구인 집단,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Ⅱ-3-8〉 자동차 소유 여부 및 평균 소유 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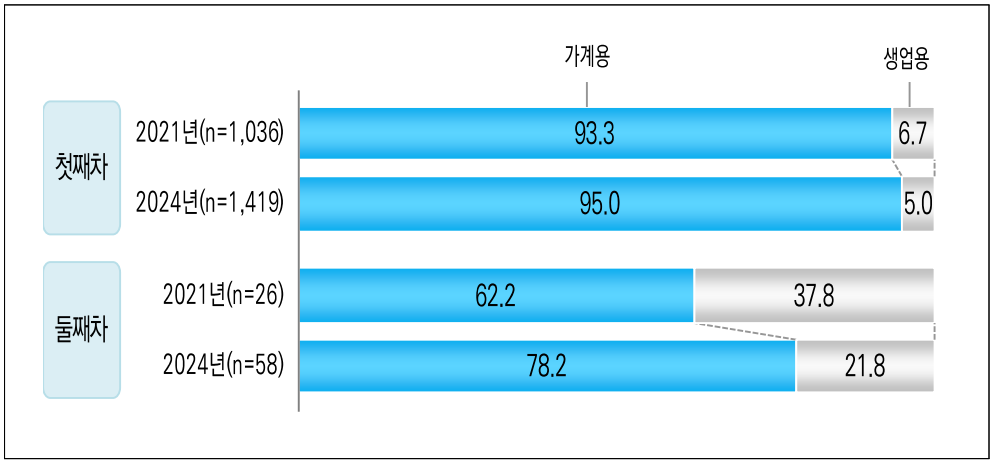
(단위: %, 가구)

	있음	없음	합계(n)	평균(대)	$F(df)$
전 체	42.8	57.2	100.0(3,315)	1.0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37.4	62.6	100.0(846)	1.1	5.507(2)**
40대	45.7	54.3	100.0(1,895)	1.0	
50대 이상	41.3	58.7	100.0(575)	1.0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27.9	72.1	100.0(101)	1.0	4.931(2)**
고졸 이하	34.0	66.0	100.0(1,666)	1.0	
대학 이상	53.2	46.8	100.0(1,548)	1.1	
혼인 상태					
이혼	42.8	57.2	100.0(2,793)	1.0	4.105(2)*
사별	51.8	48.2	100.0(345)	1.0	
기타	26.3	73.7	100.0(178)	1.2	
가구 구성					
모자	27.8	72.2	100.0(1,773)	1.0	
모자+기타	40.8	59.2	100.0(503)	1.1	20.291(3)***
부자	65.4	34.6	100.0(674)	1.0	
부자+기타	76.8	23.2	100.0(365)	1.1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37.5	62.5	100.0(392)	1.1	11.2(2)***
초등학생	42.1	57.9	100.0(1,281)	1.0	
중학생 이상	44.7	55.3	100.0(1,642)	1.0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54.4	45.6	100.0(1,483)	1.0	
임시/일용근로자	28.6	71.4	100.0(858)	1.0	9.126(3)***
자영업/무급가족	62.9	37.1	100.0(440)	1.1	
비취업	16.7	83.3	100.0(534)	1.1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26.3	73.7	100.0(2,184)	1.0	6.111(1)*
일반 가구	74.6	25.4	100.0(1,131)	1.1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6.8	93.2	100.0(24)	1.0	
100~200만원 미만	14.3	85.7	100.0(619)	1.0	6.376(3)***
200~300만원 미만	29.0	71.0	100.0(1,210)	1.0	
300만원 이상	66.9	33.1	100.0(1,462)	1.1	

주: *p<.05, **p<.01, ***p<.001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한부모가족에게 자동차의 주된 용도를 추가 질문한 결과, 첫째차에 대해 가계용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95.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생업용으로 소유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0%에 그쳤다. 두 번째 차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58명에 불과했으나, 두 번째 차가 생업용이라는 비율은 21.8%로 첫 번째 차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단위: %)



[그림 Ⅱ-3-8] 소유한 자동차의 주된 용도

소유한 자동차(첫째차)의 주된 용도에 대한 응답을 집단별로 살펴보면, 가계용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한부모 연령이 낮을수록, 혼인 상태가 기타 보다는 이혼 또는 사별인 집단, 막내 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종사상 지위가 자영업/무급가족 종사자 보다는 상용근로자거나 임시/일용근로자 또는 비취업인 경우, 정부 지원 유형이 일반가구인 집단, 한부모가 된 기간이 짧을수록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Ⅱ-3-9〉 소유한 자동차의 주된 용도(첫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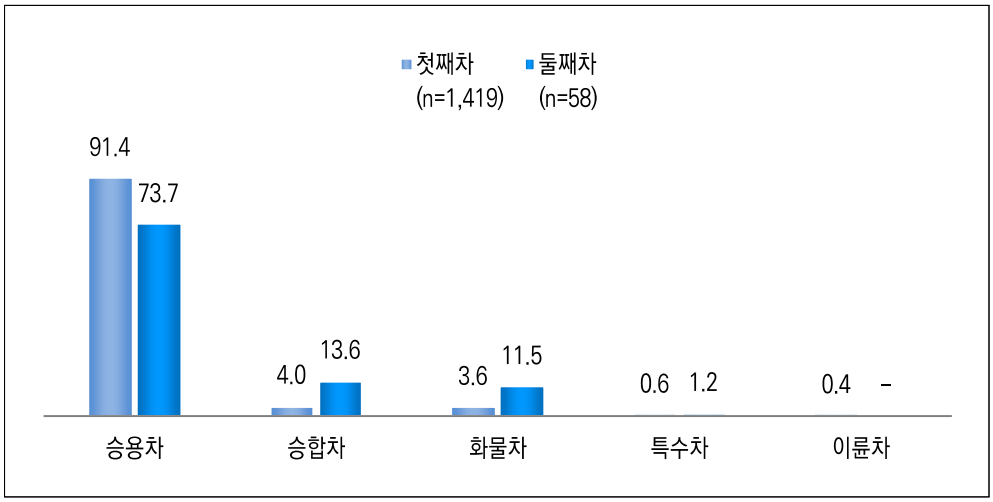
(단위: %, 가구)

	가계용	상업용	합계(n)	$\chi^2(df)$
전 체	95.0	5.0	100.0(1,419)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98.6	1.4	100.0(317)	35.074(2)***
40대	95.5	4.5	100.0(865)	
50대 이상	88.0	12.0	100.0(237)	
혼인 상태				
이혼	95.0	5.0	100.0(1,194)	6.886(2)*
사별	96.8	3.2	100.0(178)	
기타	87.4	12.6	100.0(47)	
가구 구성				
모자	96.9	3.1	100.0(492)	
모자+기타	96.2	3.8	100.0(205)	13.629(3)**
부자	91.8	8.2	100.0(441)	
부자+기타	95.5	4.5	100.0(280)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98.6	1.4	100.0(147)	24.648(2)***
초등학생	97.7	2.3	100.0(539)	
중학생 이상	92.2	7.8	100.0(734)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97.0	3.0	100.0(808)	
임시/일용근로자	96.4	3.6	100.0(246)	49.417(3)***
자영업/무급가족	86.6	13.4	100.0(277)	
비취업	97.8	2.2	100.0(89)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93.1	6.9	100.0(575)	7.113(1)**
일반 가구	96.2	3.8	100.0(844)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97.6	2.4	100.0(614)	28.452(2)***
5~10년 미만	94.6	5.4	100.0(603)	
10년 이상	88.1	11.9	100.0(203)	

주: *p<.05, **p<.01, ***p<.001

소유한 자동차의 차종을 첫째차와 둘째차를 구분해서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차(91.4%)와 둘째차(73.7%) 모두 승용차라는 비중이 가장 높았고, 뒤이어 승합차라는 비중은 첫째차는 4.0%인 반면, 둘째차는 13.6%에 달했다. 화물차라는 응답은 첫째차는 3.6%, 둘째차는 11.5%에 달했다.

(단위: %)



[그림 Ⅱ-3-9] 소유한 자동차의 차종

소유한 첫째차의 차종을 집단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대부분의 집단에서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가구 구성이 모자+기타 이거나 부자+기타인 집단에서, 종사상 지위가 자영업/무급가종족사장인 집단에서, 정부지원유형이 일반가구인 집단이나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승합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는 응답이 높았다. 화물자동차의 경우, 한부모의 연령이 50대 이상이거나, 학력이 낮을수록, 모자 가구 보다는 부자(+기타)인 가구집단, 종사상 지위가 상용근로자 보다는 임시/일용근로자나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인 경우, 정부지원유형이 저소득 지원 가구, 한부모가 된 기간이 길수록 가지고 있다는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Ⅱ-3-10〉 소유한 자동차의 차종(첫째차)

(단위: %,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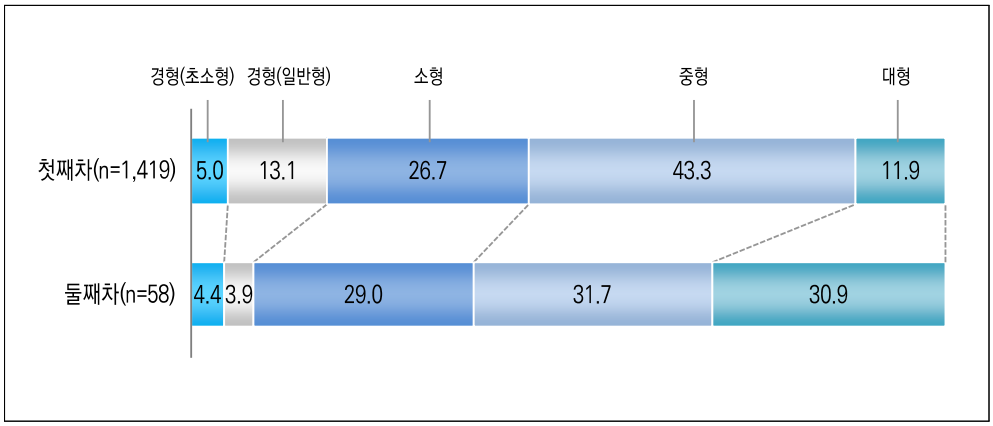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합계(n)	$\chi^2(df)$
전 체	91.4	4.0	3.6	0.6	0.4	100.0(1,419)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95.0	3.2	1.2	-	0.5	100.0(317)	30.487(8)***
40대	91.6	4.1	3.0	0.9	0.4	100.0(865)	
50대 이상	86.2	4.5	8.9	0.3	-	100.0(237)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84.4	6.8	6.1	1.3	1.4	100.0(28)	48.659(8)***
고졸 이하	91.8	3.0	5.0	0.2	0.1	100.0(567)	
대학 이상	91.4	4.6	2.5	0.9	0.5	100.0(824)	
가구 구성							
모자	97.4	2.2	0.3	-	0.2	100.0(492)	
모자+기타	93.9	5.0	1.1	-	-	100.0(205)	78.167(12)***
부자	87.8	4.4	6.5	0.3	1.0	100.0(441)	
부자+기타	84.9	5.7	6.7	2.7	-	100.0(280)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93.1	5.4	1.5	-	-	100.0(147)	19.121(8)*
초등학생	93.6	4.0	1.9	0.1	0.4	100.0(539)	
중학생 이상	89.5	3.7	5.2	1.1	0.4	100.0(734)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합계(n)	$\chi^2(df)$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93.8	4.0	1.8	0.1	0.3	100.0(808)	
임시/일용근로자	87.9	2.6	6.0	3.0	0.4	100.0(246)	57.309(12)***
자영업/무급가족	86.3	5.9	7.1	0.3	0.4	100.0(277)	
비취업	95.5	1.9	2.2	-	0.4	100.0(89)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91.0	2.7	5.6	0.2	0.4	100.0(575)	17.742(4)**
일반 가구	91.8	4.8	2.2	0.9	0.3	100.0(844)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100.0	-	-	-	-	100.0(2)	
100~200만원 미만	94.5	0.8	3.9	0.4	0.4	100.0(88)	32.883(12)**
200~300만원 미만	91.9	2.0	3.6	2.3	0.3	100.0(351)	
300만원 이상	91.0	5.0	3.5	0.0	0.4	100.0(979)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92.9	4.1	2.5	0.1	0.5	100.0(614)	57.935(8)***
5~10년 미만	91.5	4.4	3.8	-	0.4	100.0(603)	
10년 이상	86.9	2.5	6.4	4.1	-	100.0(203)	

주: *p<.05, **p<.01, ***p<.001

다음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동자의 배기량과 연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배기량은 첫째차의 경우 중형(43.3%), 소형(26.7%), 경형일반형(13.1%), 대형(11.9%), 경형초소형(5.0%)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차의 표본은 적지만, 둘째차의 경우 배기량이 중형(31.7%), 대형(30.9%), 소형(29.0%) 경형초소형(4.4%), 경형일반형(3.9%)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첫째차가 중·대형인 비중은 55.2%, 둘째차는 62.6%로, 둘째차가 중·대형인 비중이 약 7.4%p 크게 조사되었다.

(단위: %)



[그림 Ⅱ-3-10] 소유한 자동차의 배기량

소유한 자동차(첫째차)의 배기량을 집단별로 나눠서 살펴보면, 중형은 한부모 연령이 높을수록, 혼인 상태는 사별이나 기타인 집단, 가구 구성이 부자(+기타)인 집단, 종사상 지위는 상용근로자이거나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인 집단,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소유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소형은 한부모의 연령이 낮을수록, 한부모의 학력이 고졸인 집단, 혼인 상태는 이혼인 집단, 가구 구성은 모자(+기타), 종사상 지위는 임시/일용근로자나 비취업인 집단, 정부지원유형이 저소득 지원가구인 집단, 소득수준은 100~300만원 미만인 집단에서 소유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 중형차 소유 가구와 대조적이었다.

〈표 Ⅱ-3-11〉 소유한 자동차의 배기량(첫째차 기준)

(단위: %,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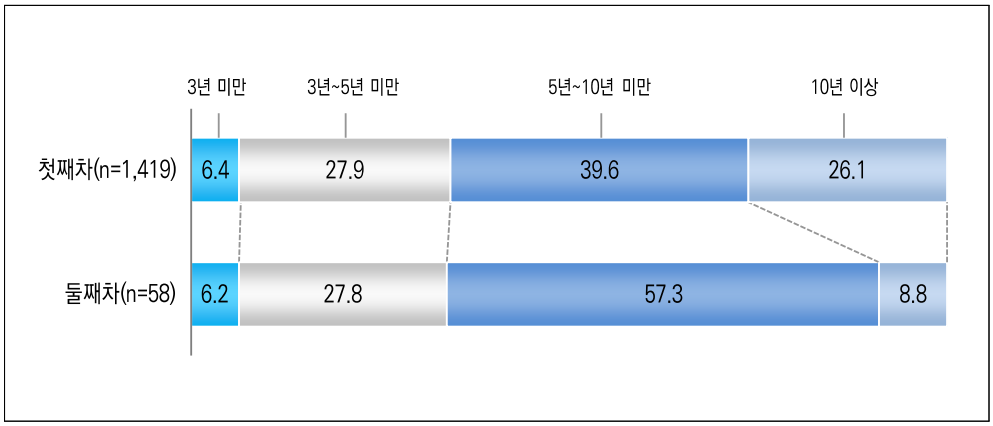
	경형 - 초소형 (250cc 이하)	경형 - 일반형 (1,000cc 미만)	소형 (1,600cc 미만)	중형 (1,600~2,000cc 미만)	대형 (2,000cc 이상)	합계(n)	$\chi^2(df)$
전 체	5.0	13.1	26.7	43.3	11.9	100.0(1,419)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8.5	17.2	29.0	33.6	11.6	100.0(317)	32.821(8)***
40대	4.3	11.8	27.6	44.4	11.8	100.0(865)	
50대 이상	2.7	12.3	20.2	52.4	12.3	100.0(237)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24.2	19.0	11.7	44.2	0.9	100.0(28)	34.316(6)***
고졸 이하	5.7	14.9	28.3	43.0	8.2	100.0(567)	
대학 이상	3.9	11.6	26.1	43.6	14.8	100.0(824)	
혼인 상태							
이혼	4.8	13.8	28.4	41.1	11.9	100.0(1,194)	25.101(8)**
사별	4.8	9.0	16.4	57.9	11.9	100.0(178)	
기타	9.8	11.1	21.6	45.2	12.4	100.0(47)	
가구 구성							
모자	9.4	22.9	32.2	31.9	3.6	100.0(492)	
모자+기타	6.4	16.5	26.9	39.1	11.2	100.0(205)	200.782(12)***
부자	1.9	4.7	25.2	49.6	18.6	100.0(441)	
부자+기타	1.2	6.6	19.3	56.8	16.2	100.0(280)	

	경형 - 초소형 (250cc 이하)	경형 - 일반형 (1,000cc 미만)	소형 (1,600cc 미만)	중형 (1,600~2,000cc 미만)	대형 (2,000cc 이상)	합계(n)	$\chi^2(df)$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3.4	10.2	25.6	49.1	11.7	100.0(808)	
임시/일용근로자	9.0	17.4	36.0	30.5	7.0	100.0(246)	88.352(12)***
자영업/무급가족	4.7	13.8	20.6	41.7	19.3	100.0(277)	
비취업	9.6	25.0	29.8	31.9	3.8	100.0(89)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9.4	21.5	31.2	33.2	4.7	100.0(575)	162.166(4)***
일반 가구	2.0	7.3	23.7	50.2	16.8	100.0(844)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	67.7	-	32.3	-	100.0(2)	
100~200만원 미만	14.0	24.2	31.4	28.9	1.5	100.0(88)	182.936(12)***
200~300만원 미만	8.5	23.5	35.9	29.5	2.6	100.0(351)	
300만원 이상	2.9	8.3	23.0	49.6	16.1	100.0(979)	

주: **p<.01, ***p<.001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연식을 질문한 결과, 첫째차의 경우, 5년~10년 미만이 39.6%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3~5년 미만이 27.9%, 10년 이상이 26.1%로 조사되었고 3년 미만은 6.4%로 가장 적었다. 둘째차도 비슷하게 5~10년 미만이 57.3%로 가장 많았으나, 첫째차와의 격차는 17.7%p에 달했고, 3~5년미만이 27.8%, 10년 이상이 8.8%로 조사되었다. 첫째차를 먼저 구매하고 둘째차를 구매하는 특성상, 첫째차에 비해 연식이 10년미만인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단위: %)



[그림 Ⅱ-3-11] 소유한 자동차의 연식

소유한 자동차의 연식을 집단별로 살펴보면, 5년이상 10년 미만의 비중이 높은 집단은 한부모의 연령이 40대, 학력은 중졸이나 고졸, 가구 구성은 부자(+기타) 가구, 막내 자녀 연령이 초등학생인 집단, 종사상 지위는 상용근로자 이거나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인 집단, 정부 지원 유형은 일반 가구, 소득수준은 높을수록, 한부모가 된 기간은 5~10년 미만인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연식이 3년이상 5년 미만인 차량의 비중은 한부모의 연령이 40대보다는 30대 이하이거나 50대 이상인 집단, 한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 구성은 부자(+기타)가구, 막내 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종사상 지위는 상용근로자 이거나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인 경우, 정부지원유형은 일반가구이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한부모가 된 기간이 짧을수록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높았다.

〈표 Ⅱ-3-12〉 소유한 자동차의 연식(첫째차)

(단위: %,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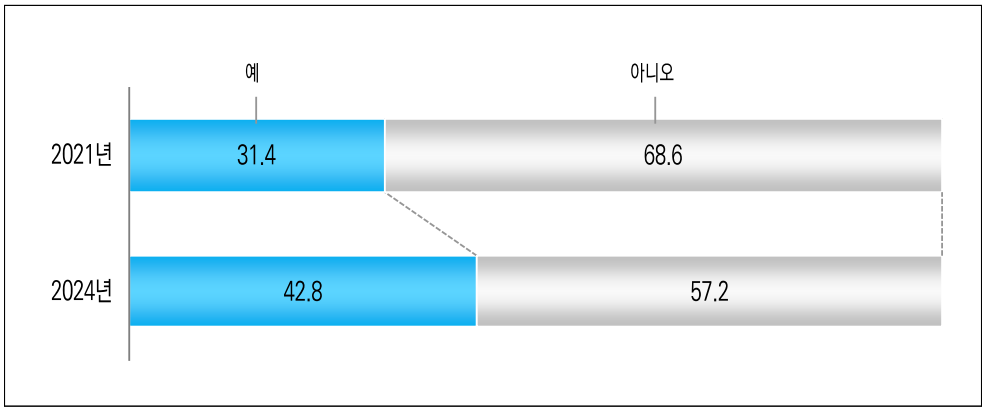
	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합계(n)	$\chi^2(df)$
전 체	6.4	27.9	39.6	26.1	100.0(1,419)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11.9	29.1	33.4	25.7	100.0(317)	25.865(6)***
40대	4.5	27.1	42.4	26.1	100.0(865)	
50대 이상	5.8	29.5	38.0	26.8	100.0(237)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9.5	0.9	41.5	48.1	100.0(28)	133.189(2)***
고졸 이하	5.4	23.6	40.0	31.0	100.0(567)	
대학 이상	6.9	31.8	39.3	22.0	100.0(824)	
가구 구성						
모자	7.0	26.6	36.7	29.7	100.0(492)	
모자+기타	12.2	21.4	35.7	30.7	100.0(205)	39.98(9)***
부자	5.5	32.3	42.2	20.1	100.0(441)	
부자+기타	2.3	28.1	43.7	25.9	100.0(280)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12.3	35.7	31.8	20.2	100.0(147)	18.982(6)**
초등학생	5.6	27.3	42.3	24.8	100.0(539)	
중학생 이상	5.7	26.8	39.2	28.3	100.0(734)	

	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합계(n)	$\chi^2(df)$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6.4	30.6	40.5	22.6	100.0(808)	
임시/일용근로자	7.0	18.1	35.8	39.1	100.0(246)	39.815(9)***
자영업/무급가족	6.8	29.2	42.4	21.5	100.0(277)	
비취업	3.1	26.9	33.8	36.2	100.0(89)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5.3	18.7	34.6	41.4	100.0(575)	122.605(3)***
일반 가구	7.1	34.2	43.1	15.7	100.0(844)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	-	32.3	67.7	100.0(2)	
100~200만원 미만	4.0	18.6	27.9	49.6	100.0(88)	101.933(9)***
200~300만원 미만	6.2	15.9	37.5	40.3	100.0(351)	
300만원 이상	6.6	33.1	41.4	18.8	100.0(979)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8.0	31.6	39.4	21.0	100.0(614)	32.089(6)***
5~10년 미만	4.0	27.4	40.2	28.5	100.0(603)	
10년 이상	8.4	18.3	38.9	34.4	100.0(203)	

주: **p<.01, ***p<.001

한부모 가족에게 노후를 위한 경제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이 57.2%로 약 절반에 해당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봤을 때, 2021년에는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68.6%로, 올해는 노후 대비를 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약 11.4%p 감소하였다.

(단위: %, 2021년: n=3,300, 2024년: n=3,315)



[그림 Ⅱ-3-12] 노후 대비 경제적 준비 여부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을 집단별로 살펴보면,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한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혼인 상태는 사별이거나 이혼인 경우, 가구 구성은 부자(+기타)인 집단에서, 막내 자녀 연령이 높을수록, 종사상 지위는 상용근로자 이거나 자영업 / 무급가족종사자인 집단, 정부 지원 유형은 일반 가구인 집단, 소득 수준은 높을수록, 한부모가 된 기간이 짧을수록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Ⅱ-3-13〉 노후 대비 경제적 준비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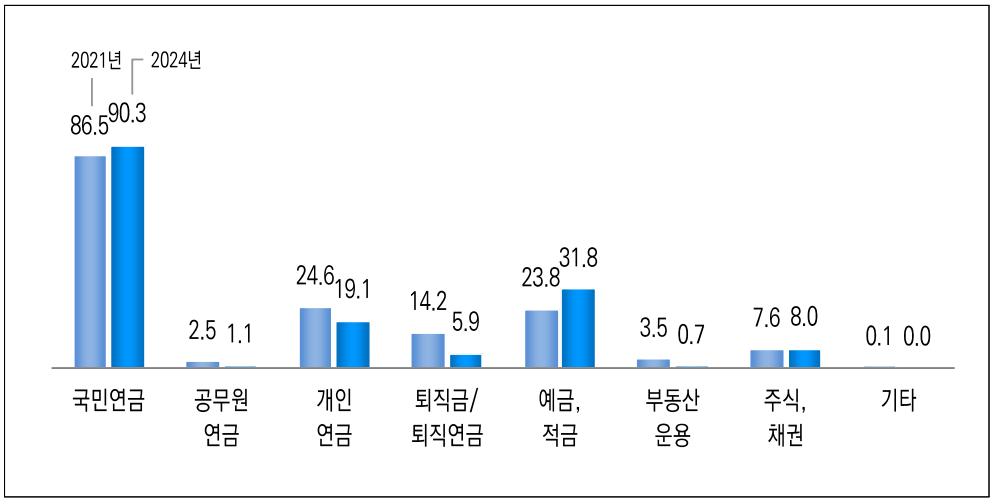
(단위: %, 가구)

	예	아니오	합계(n)	$\chi^2(df)$
전 체	46.2	53.8	100.0(3,315)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29.2	70.8	100.0(101)	49.549(8)***
고졸 이하	37.4	62.6	100.0(1,666)	
대학 이상	56.8	43.2	100.0(1,548)	
혼인 상태				
이혼	46.1	53.9	100.0(2,793)	72.966(2)***
사별	59.8	40.2	100.0(345)	
기타	20.4	79.6	100.0(178)	
가구 구성				
모자	38.7	61.3	100.0(1,773)	
모자+기타	46.2	53.8	100.0(503)	116.208(3)***
부자	56.0	44.0	100.0(674)	
부자+기타	64.7	35.3	100.0(365)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45.6	54.4	100.0(392)	8.211(2)*
초등학생	43.3	56.7	100.0(1,281)	
중학생 이상	48.6	51.4	100.0(1,642)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70.6	29.4	100.0(1,483)	
임시/일용근로자	26.0	74.0	100.0(858)	850.392(3)***
자영업/무급가족	52.0	48.0	100.0(440)	
비취업	6.0	94.0	100.0(534)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33.1	66.9	100.0(2,184)	441.431(1)***
일반 가구	71.5	28.5	100.0(1,131)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2.3	97.7	100.0(24)	
100~200만원 미만	11.3	88.7	100.0(619)	677.696(3)***
200~300만원 미만	36.9	63.1	100.0(1,210)	
300만원 이상	69.4	30.6	100.0(1,462)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48.1	51.9	100.0(1,415)	12.153(2)**
5~10년 미만	46.9	53.1	100.0(1,328)	
10년 이상	39.7	60.3	100.0(572)	

주: *p<.05, **p<.01, ***p<.001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에게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추가로 질문(복수응답)한 결과, 국민연금을 통해 준비한다는 응답이 90.3%로, 지난 조사 대비 3.8%p 증가했고, 뒤이어 예금 적금이 31.8%, 개인연금이 19.1% 순으로 조사되었다. 2021년 조사에서는 반대로 개인연금이 24.6%, 예금, 적금이 23.8%로 비중이 조사되었었다. 올해 조사에서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응답이 5.9%였으나, 지난 조사에서는 14.2%로 약 8.3% 감소했다.

(단위: %, 2021년: n=1,035, 2024년: n=3,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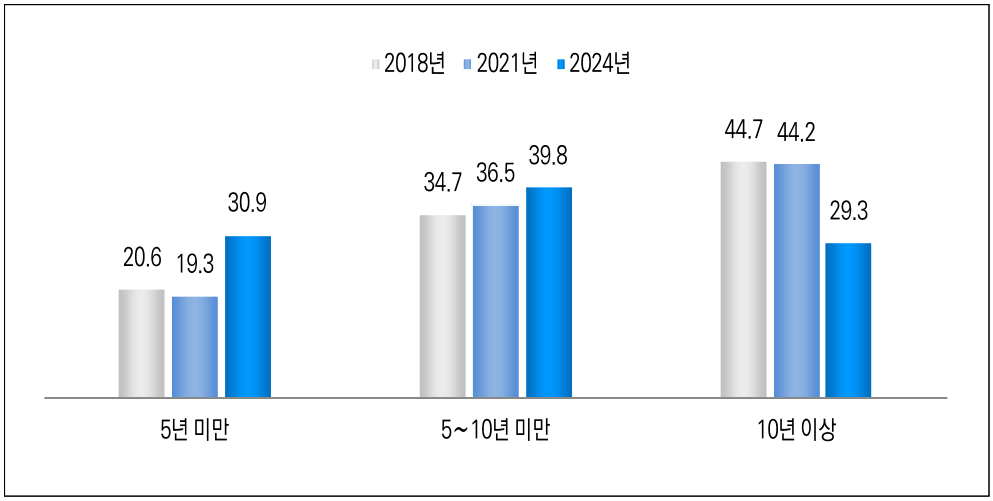
[그림 Ⅱ-3-13] 노후 대비 경제적 준비 방법(복수응답)

4. 자녀의 비양육부모와의 관계 및 양육비

가. 한부모가 된 기간

조사참여자가 (가장 어린) 자녀의 비양육부모(전 배우자)와 함께 산(결혼/동거) 기간은 5~10년 미만이 39.8%로 가장 많았고, 5년 미만 3.9%, 10년 이상 29.3%로 나타났다. 10년 이상의 비율이 2021년 조사에 비해 약 15%p 감소하였다. 한부모의 연령이 50대 이상인 경우와 혼인 상태가 사별인 경우에 결혼/동거 기간이 10년 이상인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단위: %, 2018년: n=2,426, 2021년: n=3,219, 2024년: n=3,216)



[그림 Ⅱ-4-1] 결혼/동거 기간

〈표 Ⅱ-4-1〉 결혼/동거 기간

(단위: %,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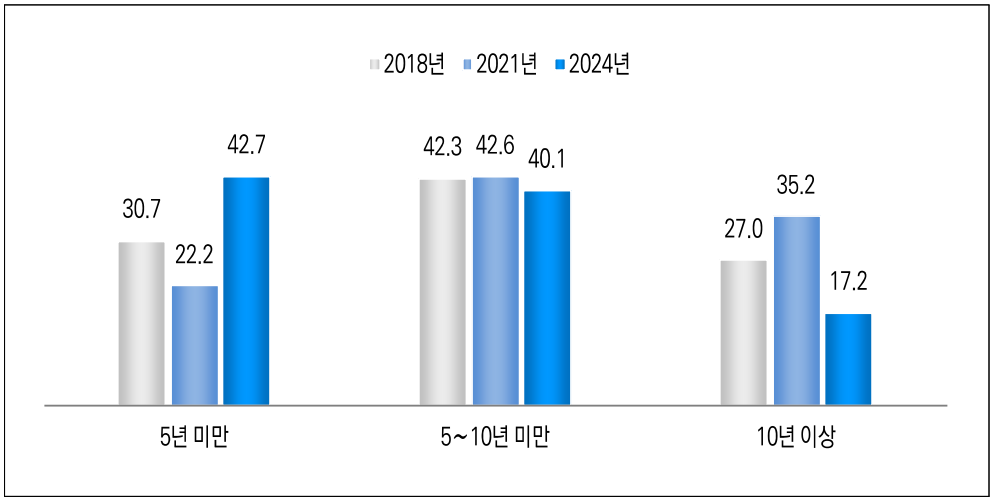
	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합계(n)	$\chi^2(df)$
전 체	2.6	10.7	17.6	39.8	29.3	100.0(3,216)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5.1	26.0	23.1	37.6	8.2	100.0(790)	509.236(8)***
40대	1.7	6.2	17.7	42.4	31.9	100.0(1,857)	
50대 이상	1.8	4.2	9.5	34.3	50.3	100.0(570)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4.2	12.1	17.7	30.2	35.9	100.0(96)	156.793(8)***
고졸 이하	2.7	8.4	16.1	39.3	33.6	100.0(1,607)	
대학 이상	2.3	13.1	19.2	40.9	24.5	100.0(1,513)	
혼인 상태							
이혼	2.3	11.0	18.7	40.6	27.5	100.0(2,793)	195.368(8)***
사별	0.5	6.0	9.3	35.4	48.7	100.0(345)	
기타	20.4	22.9	15.9	29.6	11.1	100.0(79)	
가구 구성							
모자	2.3	10.0	18.0	37.8	31.9	100.0(1,718)	
모자+기타	4.5	19.9	18.0	37.9	19.6	100.0(466)	92.687(12)***
부자	1.1	7.8	15.6	44.3	31.2	100.0(672)	
부자+기타	4.0	7.9	19.0	43.1	26.0	100.0(360)	

	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합계(n)	$\chi^2(df)$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6.5	38.6	23.0	24.7	7.3	100.0(359)	637.499(8)***
초등학생	2.5	9.4	22.0	48.3	17.7	100.0(1,246)	
중학생 이상	1.7	5.5	13.0	36.6	43.2	100.0(1,612)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1.4	9.7	18.1	42.5	28.4	100.0(1,461)	
임시/일용근로자	2.0	11.7	17.7	40.1	28.5	100.0(844)	83.56(12)***
자영업/무급가족	2.7	6.8	15.3	38.0	37.2	100.0(428)	
비취업	6.8	15.8	18.0	32.7	26.8	100.0(484)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3.1	11.7	17.1	38.5	29.7	100.0(2,099)	15.355(4)**
일반 가구	1.6	8.9	18.6	42.3	28.6	100.0(1,117)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2.8	13.1	36.3	16.9	30.8	100.0(24)	
100~200만원 미만	5.1	15.1	18.5	35.8	25.5	100.0(572)	51.585(12)***
200~300만원 미만	2.2	11.1	17.8	40.1	28.9	100.0(1,183)	
300만원 이상	1.9	8.6	16.8	41.5	31.2	100.0(1,437)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1.6	11.1	16.3	36.5	34.5	100.0(1,388)	163.937(8)***
5~10년 미만	1.8	7.5	16.0	46.3	28.4	100.0(1,301)	
10년 이상	7.1	17.7	24.9	32.2	18.2	100.0(527)	

주: **p<.01, ***p<.001

결혼/동거 종료 후 한부모가 된 기간은 5년 미만이 4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10년 미만이 40.1%, 10년 이상이 17.2%로 나타났다. 10년 이상의 비율이 2021년 조사에 비해 약 18%p 감소하였다. 한부모의 연령이 50대 이상인 경우와 종사상 지위가 비취업인 경우에 결혼/동거 종료 후 한부모가 된 기간이 10년 이상인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단위: %, 2018년: n=2,454, 2021년: n=3,300, 2024년: n=3,315)



[그림 Ⅱ-4-2] 한부모가 된 기간

〈표 Ⅱ-4-2〉 한부모가 된 기간

(단위: %, 가구)

	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합계(n)	$\chi^2(df)$
전 체	2.5	16.8	23.4	40.1	17.2	100.0(3,315)	
한부모 연령							384.762(8)***
30대 이하	6.8	30.7	26.8	28.4	7.3	100.0(846)	
40대	1.0	13.6	23.8	44.0	17.6	100.0(1,895)	
50대 이상	1.2	7.0	16.9	44.2	30.7	100.0(575)	
한부모 학력							8.819(2)*
중졸 이하	7.7	10.1	17.4	32.5	32.3	100.0(101)	
고졸 이하	1.4	12.9	19.4	45.7	20.5	100.0(1,666)	
대학 이상	3.4	21.4	28.0	34.5	12.7	100.0(1,548)	
혼인 상태							112.046(8)***
이혼	2.3	17.2	23.5	40.5	16.6	100.0(2,793)	
사별	0.8	15.4	29.3	41.8	12.6	100.0(345)	
기타	9.9	13.0	10.7	30.0	36.4	100.0(178)	
가구 구성							95.861(12)***
모자	2.1	16.0	24.7	40.3	16.8	100.0(1,773)	
모자+기타	7.2	23.5	19.4	30.1	19.9	100.0(503)	
부자	1.1	14.7	24.1	43.8	16.3	100.0(674)	
부자+기타	0.8	15.1	21.0	45.8	17.3	100.0(3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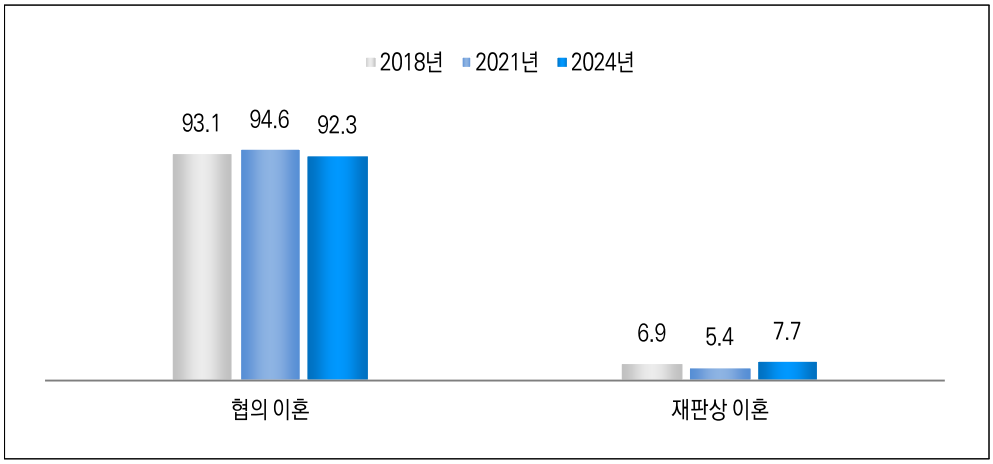
	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합계(n)	$\chi^2(df)$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12.9	48.2	24.6	12.8	1.5	100.0(392)	924.978(8)***
초등학생	1.5	19.7	30.7	41.1	7.1	100.0(1,281)	
중학생 이상	0.8	7.0	17.4	45.8	28.9	100.0(1,642)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2.0	16.0	26.3	41.9	13.8	100.0(1,483)	
임시/일용근로자	1.6	17.9	23.1	39.4	18.0	100.0(858)	74.782(12)***
자영업/무급가족	2.7	17.5	19.5	42.9	17.4	100.0(440)	
비취업	5.5	16.5	18.8	33.8	25.3	100.0(534)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3.0	16.9	21.2	39.6	19.4	100.0(2,184)	35.672(4)***
일반 가구	1.7	16.6	27.6	41.0	13.1	100.0(1,131)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3.0	13.4	16.4	37.7	29.5	100.0(24)	
100~200만원 미만	3.7	15.0	19.5	38.8	23.0	100.0(619)	68.367(12)***
200~300만원 미만	1.6	15.6	21.8	40.9	20.2	100.0(1,210)	
300만원 이상	2.8	18.6	26.4	40.0	12.2	100.0(1,462)	

주: **p<.01, ***p<.001

나. 양육권

이혼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92.3%가 협의 이혼, 7.7%가 재판상 이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 연령이 30대 이하인 경우, 가구 구성이 모자+기타인 경우 재판상 이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위: %, 2018년: n=1,939, 2021년: n=2,692, 2024년: n=2,793)



[그림 Ⅱ-4-3] 이혼 형태

〈표 Ⅱ-4-3〉 이혼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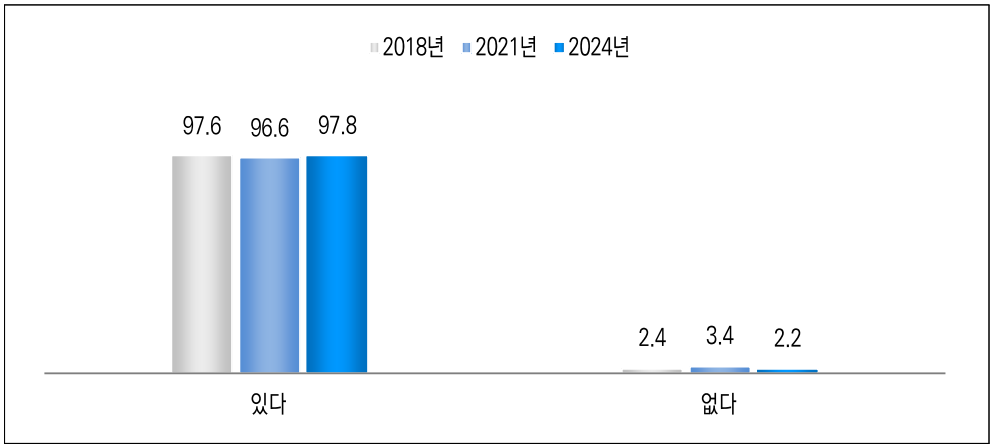
(단위: %, 가구)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	합계(n)	$\chi^2(df)$
전 체	92.3	7.7	100.0(2,793)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89.3	10.7	100.0(701)	11.883(2)**
40대	93.4	6.6	100.0(1,614)	
50대 이상	93.1	6.9	100.0(477)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93.6	6.4	100.0(80)	10.845(2)**
고졸 이하	93.7	6.3	100.0(1,386)	
대학 이상	90.7	9.3	100.0(1,326)	
가구 구성				
모자	92.7	7.3	100.0(1,490)	
모자+기타	84.5	15.5	100.0(414)	46.526(3)***
부자	95.8	4.2	100.0(584)	
부자+기타	94.1	5.9	100.0(304)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89.5	10.5	100.0(320)	8.705(2)*
초등학생	91.4	8.6	100.0(1,108)	
중학생 이상	93.7	6.3	100.0(1,364)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92.0	8.0	100.0(1,262)	
임시/일용근로자	93.5	6.5	100.0(753)	8.127(3)*
자영업/무급가족	89.2	10.8	100.0(357)	
비취업	93.7	6.3	100.0(421)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91.2	8.8	100.0(1,855)	8.333(1)**
일반 가구	94.4	5.6	100.0(937)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90.6	9.4	100.0(1,199)	10.081(2)**
5~10년 미만	94.1	5.9	100.0(1,130)	
10년 이상	92.1	7.9	100.0(463)	

주: *p<.05, **p<.01, ***p<.001

자녀에 대해 법적인 양육권이 있다고 응답한 한부모는 97.8%였고, 없다(면접교섭권 보유)고 응답한 한부모는 2.2%였다. 저소득 지원 가구인 경우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2.9%로 나타났다.

(단위: %, 2018년: n=1,939, 2021년: n=2,692, 2024년: n=2,793)



[그림 Ⅱ-4-4] 양육권 여부

〈표 Ⅱ-4-4〉 양육권 여부

(단위: %, 가구)

	있다	없다	합계(n)	$\chi^2(df)$
전 체	97.8	2.2	100.0(2,793)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97.1	2.9	100.0(1,855)	11.691(1)***
일반 가구	99.1	0.9	100.0(9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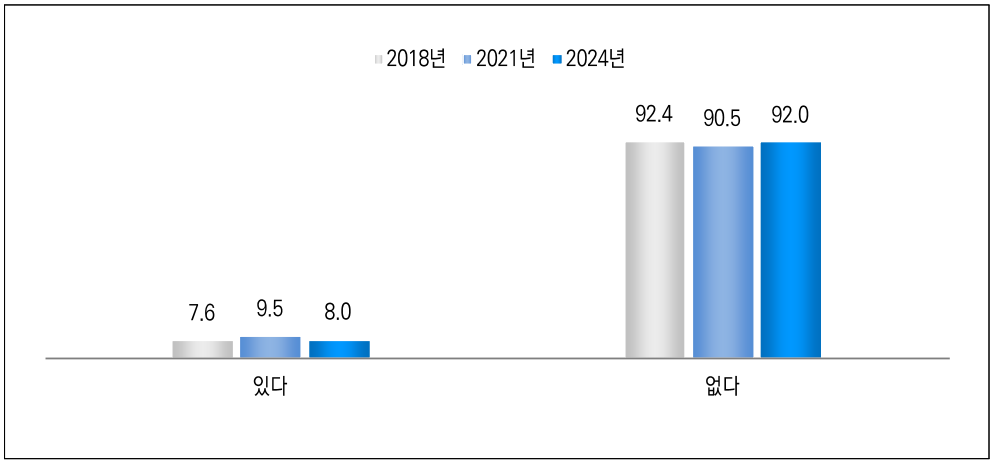
주: ***p<.001

다. 자녀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1)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이혼 또는 미혼인 한부모의 8.0%가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의 9.5%에 비해 약 1.5%p 감소한 수치이다. 한부모의 연령이 30대 이하인 경우(11.2%)와 저소득 지원가구인 경우(9.6%)에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위: %, 2018년: n=2,039, 2021년: n=2,848, 2024년: n=2,951)



[그림 Ⅱ-4-5]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경험

〈표 Ⅱ-4-5〉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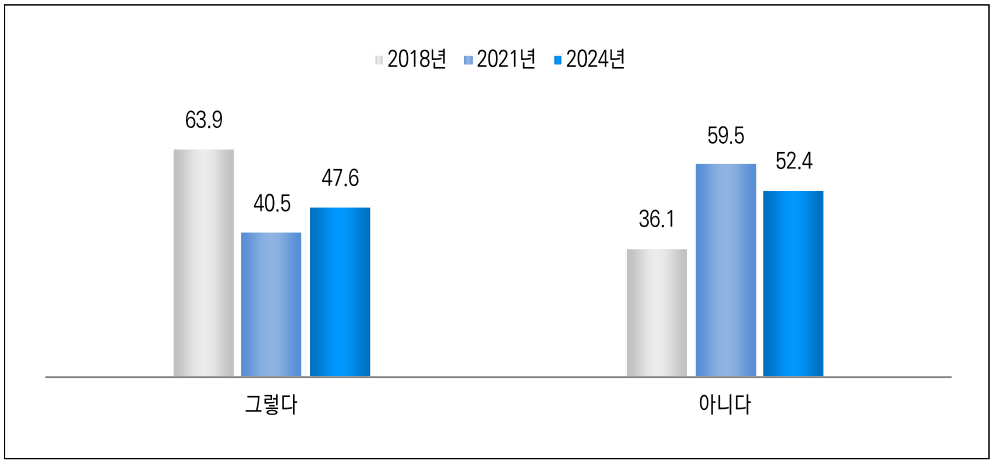
(단위: %, 가구)

	있다	없다	합계(n)	$\chi^2(df)$
전 체	8.0	92.0	100.0(2,951)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11.2	88.8	100.0(783)	18.432(2)***
40대	7.5	92.5	100.0(1,672)	
50대 이상	4.9	95.1	100.0(497)	
가구 구성				
모자	9.6	90.4	100.0(1,584)	
모자+기타	13.3	86.7	100.0(463)	60.212(3)***
부자	2.9	97.1	100.0(593)	
부자+기타	2.1	97.9	100.0(312)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9.6	90.4	100.0(1,992)	19.153(1)***
일반 가구	4.9	95.1	100.0(959)	

주: ***p<.001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 중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지원' 도움을 받은 비율은 47.6%로 2021년의 40.5%에 비해 약 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지원가구인 경우(52.3%)와 한부모가 된 기간이 5~10년 미만인 경우(56.0%)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지원' 도움을 받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위: %, 2018년: n=156, 2021년: n=269, 2024년: n=237)



[그림 Ⅱ-4-6]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지원 이용 여부

〈표 Ⅱ-4-6〉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지원 이용 여부

(단위: %,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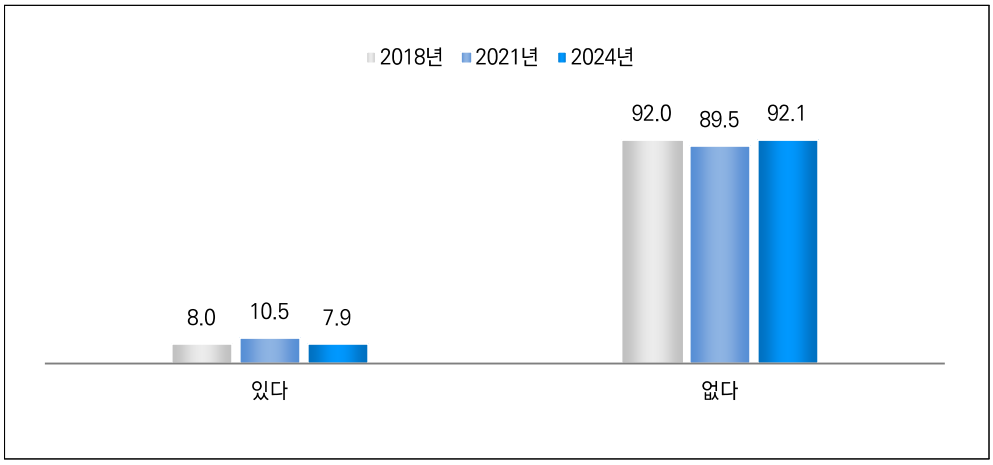
	그렇다	아니다	합계(n)	$\chi^2(df)$
전 체	47.6	52.4	100.0(237)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52.3	47.7	100.0(191)	8.628(1)**
일반 가구	28.5	71.5	100.0(47)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38.5	61.5	100.0(87)	6.222(2)*
5~10년 미만	56.0	44.0	100.0(106)	
10년 이상	45.4	54.6	100.0(45)	

주: *p<.05, **p<.01

2)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경험이 없는 응답자 중 법적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7.9%로, 2021년의 10.5%에 비해 약 2.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 연령이 30대 이하인 경우(11.4%), 저소득 지원가구인 경우(9.1%), 한부모가 된 기간이 5~10년 미만인 경우(10.4%)에 법적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위: %, 2018년: n=1,772, 2021년: n=2,449, 2024년: n=2,361)



[그림 Ⅱ-4-7] 양육비 이행확보절차 진행 경험

〈표 Ⅱ-4-7〉 양육비 이행확보절차 진행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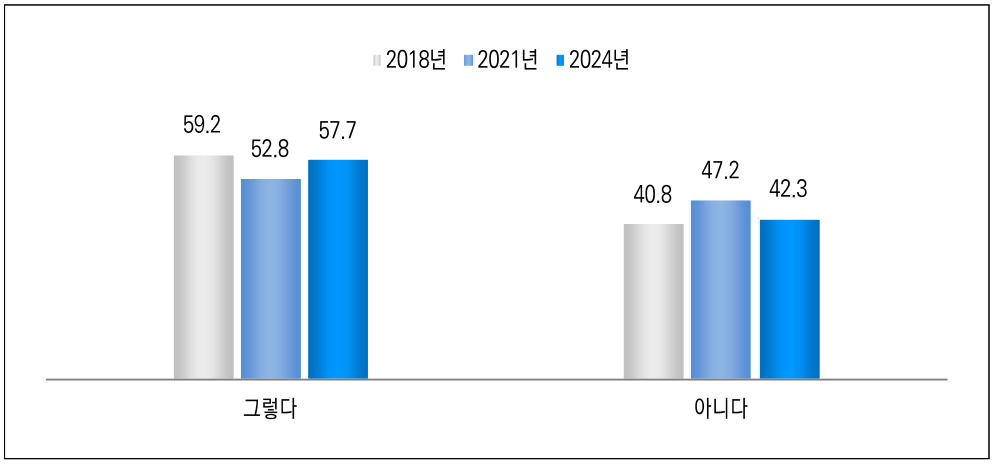
(단위: %, 가구)

	있다	없다	합계(n)	$\chi^2(df)$
전 체	7.9	92.1	100.0(2,361)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11.4	88.6	100.0(652)	15.402(2)***
40대	6.9	93.1	100.0(1,345)	
50대 이상	5.5	94.5	100.0(364)	
가구 구성				
모자	9.1	90.9	100.0(1,330)	
모자+기타	12.6	87.4	100.0(398)	39.549(3)***
부자	2.7	97.3	100.0(418)	
부자+기타	2.3	97.7	100.0(215)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8.5	91.5	100.0(313)	6.409(2)*
초등학생	9.4	90.6	100.0(964)	
중학생 이상	6.5	93.5	100.0(1,085)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9.1	90.9	100.0(1,674)	10.931(1)***
일반 가구	5.0	95.0	100.0(687)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6.0	94.0	100.0(1,062)	12.653(2)**
5~10년 미만	10.4	89.6	100.0(909)	
10년 이상	7.5	92.5	100.0(390)	

주: *p<.05, **p<.01, ***p<.001

법적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57.7%로 2021년의 52.8%에 비해 약 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 연령이 30대 이하인 경우(61.8%)와 40대인 경우(60.1%)에 50대 이상인 경우(30.9%)보다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위: %, 2018년: n=142, 2021년: n=258, 2024년: n=188)



[그림 Ⅱ-4-8] 양육비 이행확보절차 도움 여부

〈표 Ⅱ-4-8〉 양육비 이행확보절차 도움 여부

(단위: %,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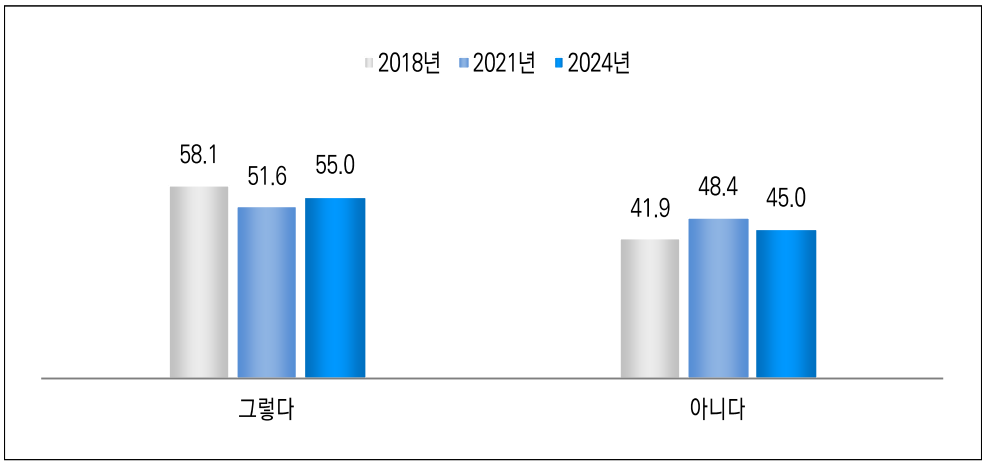
	그렇다	아니다	합계(n)	$\chi^2(df)$
전 체	57.7	42.3	100.0(188)	
한부모 연령				7.134(2)*
30대 이하	61.8	38.2	100.0(74)	
40대	60.1	39.9	100.0(93)	
50대 이상	30.9	69.1	100.0(20)	

주: *p<.05

법적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 절차를 진행 시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도움을 받은 비율은 55.0%로 2021년의 51.6%에 비해 약 4.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도움을 받은 비율은 한부모 연령이 30대 이하인 경우(60.4%)와 40대인 경우(57.7%)에 50대 이상인 경우(22.5%)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부모 학력이 대학 이상인 경우(57.0%)에 중졸 이하인 경우(42.1%)에 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도움을 받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저소득 지원가구인 경우(59.3%)에 일반가구인 경우(36.3%)에 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도움을

받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위: %, 2018년: n=142, 2021년: n=258, 2024년: n=188)



[그림 Ⅱ-4-9]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이용 여부

〈표 Ⅱ-4-9〉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이용 여부

(단위: %, 가구)

	그렇다	아니다	합계(n)	$\chi^2(df)$
전 체	55.0	45.0	100.0(188)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60.4	39.6	100.0(74)	9.492(2)**
40대	57.7	42.3	100.0(93)	
50대 이상	22.5	77.5	100.0(20)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42.1	57.9	100.0(4)	55.09(8)***
고졸 이하	53.0	47.0	100.0(90)	
대학 이상	57.5	42.5	100.0(94)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59.3	40.7	100.0(153)	6.575(1)*
일반 가구	36.0	64.0	100.0(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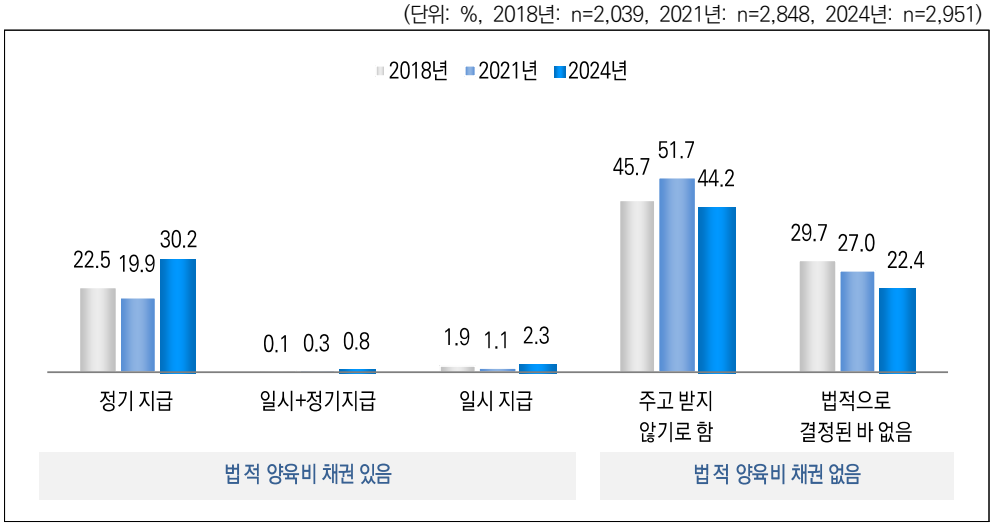
주: *p<.05, **p<.01, ***p<.001

라. 자녀양육비 이행실태

1) 자녀양육비 지급 방식

다음으로 자녀양육비 지급방식을 살펴보면 주고 받지 않기로 함 44.2%, 정기지급 30.2%, 법적으로 결정된 바 없음 22.4%, 일시지급 2.3%, 일시+정기지급 0.8%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부모 연령이 30대 이하인 경우(39.0%), 한부모 학력이 대학 이상인 경우(34.3%), 가장 어린 자녀가 미취학인 경우(39.8%), 저소득 지원가구인 경우(32.5%), 한부모가 된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39.0%)에 양육비 지급형태가 정기지급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고받지 않기로 한 비율은 부자가구인 경우(60.6%)에 모자가구인 경우(36.7%)에 비해 높았다. 법적으로 결정된 바 없음인 비율은 혼인 상태가 기타인 경우(59.7%)에 이혼인 경우(20.3%)에 비해 높았다.

(단위: %, 2018년: n=2,039, 2021년: n=2,848, 2024년: n=2,951)



[그림 Ⅱ-4-10] 법적 양육비 채권 여부 및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한 형태

〈표 Ⅱ-4-10〉 법적 양육비 채권 여부 및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한 형태

(단위: %,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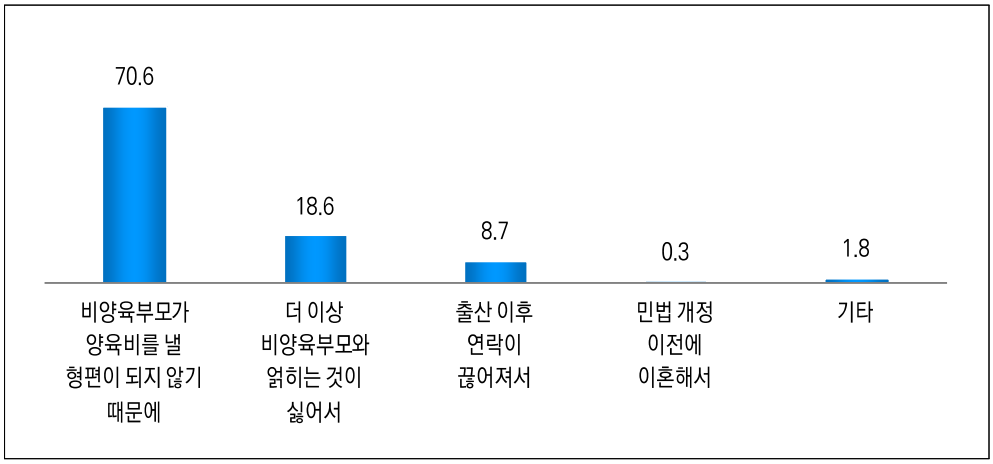
	정기 지급	일시 + 정기지급	일시 지급	주고받지 않기로 함	법적으로 결정된 바 없음	합계(n)	$\chi^2(df)$
전 체	30.2	0.8	2.3	44.2	22.4	100.0(2,951)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39.0	1.2	2.0	34.7	23.1	100.0(783)	89.765(8)***
40대	28.9	0.8	3.1	47.0	20.1	100.0(1,672)	
50대 이상	20.9	0.3	0.2	49.4	29.2	100.0(497)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32.7	-	2.2	32.9	32.2	100.0(91)	24.397(8)**
고졸 이하	26.2	0.4	1.5	46.3	25.5	100.0(1,477)	
대학 이상	34.3	1.3	3.2	42.6	18.5	100.0(1,384)	
혼인 상태							
이혼	31.7	0.9	2.3	44.8	20.3	100.0(2,793)	146.012(4)***
기타	5.1	0.1	2.4	32.8	59.7	100.0(159)	
가구 구성							
모자	38.1	1.5	2.0	36.7	21.8	100.0(1,584)	
모자+기타	39.5	0.1	4.2	34.1	22.1	100.0(463)	275.489(12)***
부자	12.8	0.1	1.7	60.6	24.8	100.0(593)	
부자+기타	9.8	-	2.8	66.0	21.4	100.0(312)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39.8	0.9	3.6	32.3	23.5	100.0(370)	51.341(8)***
초등학생	32.7	1.0	2.3	41.2	22.8	100.0(1,161)	
중학생 이상	25.8	0.6	2.0	49.7	21.9	100.0(1,420)	

	정기 지급	일시 + 정기지급	일시 지급	주고받지 않기로 함	법적으로 결정된 바 없음	합계(n)	$\chi^2(df)$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29.2	1.1	3.4	49.7	16.7	100.0(1,297)	
임시/일용근로자	32.2	0.5	1.8	39.9	25.6	100.0(783)	66.774(12)***
자영업/무급가족	29.9	0.7	1.3	41.3	26.8	100.0(378)	
비취업	30.2	0.6	1.2	38.8	29.2	100.0(493)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32.5	0.7	1.3	40.3	25.1	100.0(1,992)	80.076(4)***
일반 가구	25.5	1.0	4.5	52.2	16.8	100.0(959)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22.3	-	-	41.4	36.3	100.0(19)	
100~200만원 미만	24.1	0.5	0.7	41.2	33.5	100.0(562)	86.611(12)***
200~300만원 미만	32.8	0.7	1.6	41.9	23.0	100.0(1,099)	
300만원 이상	30.8	1.1	3.7	47.5	16.9	100.0(1,272)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39.0	1.2	2.8	38.4	18.6	100.0(1,248)	117.652(8)***
5~10년 미만	25.6	0.6	2.6	49.0	22.2	100.0(1,179)	
10년 이상	19.6	0.4	0.7	47.1	32.2	100.0(524)	

주: **p<.01, ***p<.001

양육비를 주고받지 않기로 하였거나 법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로는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낼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70.6%, 더 이상 비양육부모와 얽히는 것이 싫어서 18.6%, 출산 이후 연락이 끊어져서 8.7%의 순으로 나타났다. 출산 이후 연락이 끊어져서 라고 응답한 비율은 한부모 연령이 30대 이하인 경우(16.5%), 혼인 상태가 기타인 경우(56.3%), 가장 어린자녀가 미취학인 경우(21.7%), 종사상 지위가 비취업인 경우(20.5%), 한부모가 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15.9%)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위: %, n=1,966)



[그림 Ⅱ-4-11] 양육비를 주고받지 않거나 법적으로 결정된 바 없는 이유

〈표 Ⅱ-4-11〉 양육비를 주고받지 않거나 법적으로 결정된 바 없는 이유

(단위: %,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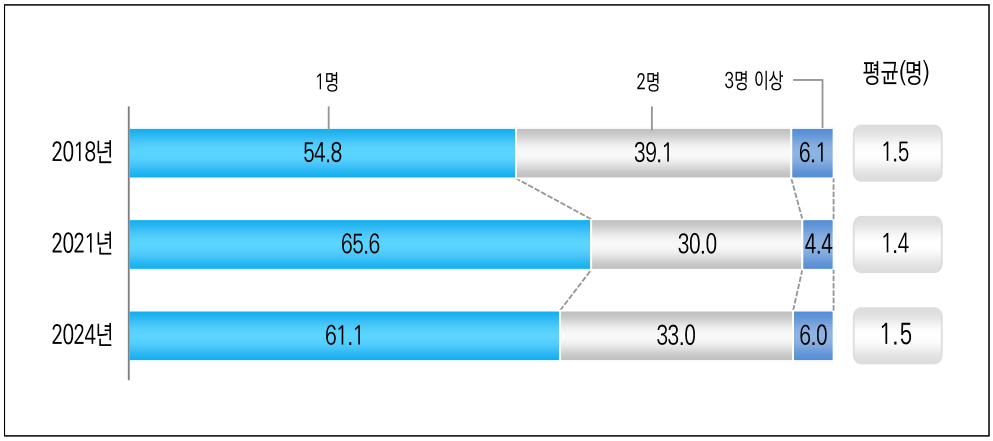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낼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비양육부모와 얽히는 것이 싫어서	출산 이후 연락이 끊어져서	민법 개정 이전에 이혼해서	기타	합계(n)	$\chi^2(df)$
전 체	70.6	18.6	8.7	0.3	1.8	100.0(1,966)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60.9	20.4	16.5	0.5	1.7	100.0(453)	54.839(8)***
40대	72.3	19.1	6.5	0.2	1.9	100.0(1,122)	
50대 이상	77.2	14.8	6.1	0.4	1.5	100.0(390)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65.6	11.4	14.3	-	8.7	100.0(59)	40.688(6)***
고졸 이하	71.3	17.6	9.6	0.3	1.3	100.0(1,061)	
대학 이상	70.2	20.3	7.3	0.3	1.9	100.0(846)	
혼인 상태							
이혼	74.0	19.2	4.9	0.3	1.6	100.0(1,819)	460.352(4)***
기타	29.4	10.6	56.3	-	3.7	100.0(147)	
가구 구성							
모자	64.5	25.0	8.1	0.3	2.0	100.0(927)	
모자+기타	60.2	17.9	18.5	-	3.3	100.0(260)	110.269(12)***
부자	80.5	12.1	6.2	0.3	0.9	100.0(506)	
부자+기타	83.0	9.4	6.0	0.4	1.3	100.0(272)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57.8	18.3	21.7	0.5	1.7	100.0(206)	57.039(8)***
초등학생	69.2	20.3	8.1	0.3	2.1	100.0(743)	
중학생 이상	74.3	17.4	6.5	0.3	1.5	100.0(1,016)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낼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비양육 부모와 얽히는 것이 싫어서	출산 이후 연락이 끊어져서	민법 개정 이전에 이혼해서	기타	합계(n)	$\chi^2(df)$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72.2	20.0	6.3	0.4	1.1	100.0(861)	
임시/일용근로자	74.8	16.8	5.5	0.2	2.8	100.0(512)	83.663(12)***
자영업/무급가족	72.3	17.8	7.9	-	2.0	100.0(257)	
비취업	59.1	18.3	20.5	0.4	1.7	100.0(335)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68.5	18.2	10.7	0.2	2.4	100.0(1,304)	33.164(4)***
일반 가구	74.9	19.4	4.8	0.5	0.5	100.0(662)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90.3	3.8	-	-	5.9	100.0(15)	
100~200만원 미만	65.1	18.0	14.5	0.3	2.1	100.0(420)	41.122(12)***
200~300만원 미만	68.6	19.3	9.8	0.3	2.0	100.0(713)	
300만원 이상	74.9	18.5	5.0	0.2	1.4	100.0(819)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71.4	19.4	7.0	0.1	2.2	100.0(711)	42.281(8)***
5~10년 미만	72.2	19.7	6.6	0.3	1.2	100.0(839)	
10년 이상	66.2	14.9	15.9	0.7	2.3	100.0(416)	

주: ***p<.001

양육비를 받기로 하였다(정기지급, 일시+정기지급, 일시지급)고 응답한 경우 양육비를 받기로 한 자녀의 수는 1명 61.1%, 2명 33.0%, 3명 이상 6.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1.5명이었다.

(단위: %, 2018년: n=501, 2021년: n=607, 2024년: n=986)



[그림 Ⅱ-4-12]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한 자녀 수

〈표 Ⅱ-4-12〉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한 자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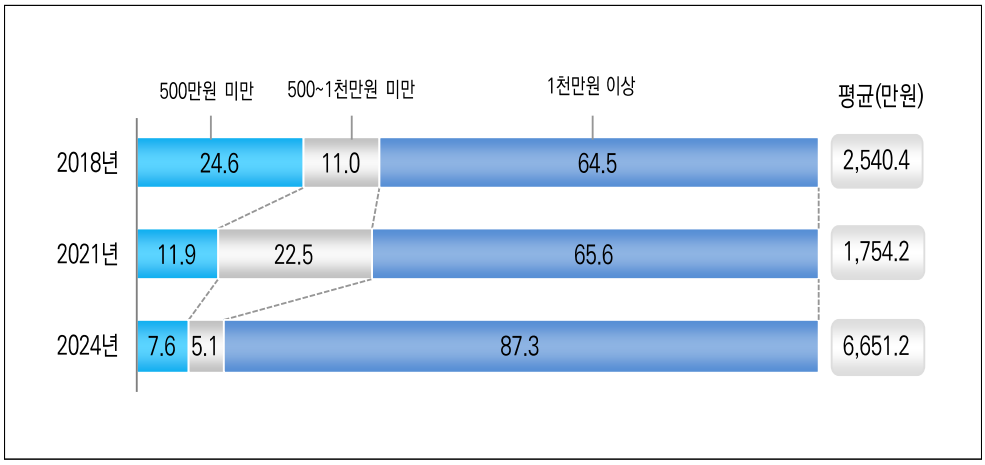
(단위: %, 가구)

	1명	2명	3명 이상	합계(n)	평균(명)	$F(df)$
전 체	61.1	33.0	6.0	100.0(986)	1.5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66.6	30.4	3.1	100.0(330)	1.4	10.538(2)***
40대	55.7	36.0	8.3	100.0(549)	1.5	
50대 이상	72.0	25.4	2.6	100.0(106)	1.3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51.5	38.7	9.8	100.0(32)	1.6	7.376(2)***
고졸 이하	56.4	34.2	9.4	100.0(417)	1.5	
대학 이상	65.2	31.7	3.0	100.0(537)	1.4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55.4	36.7	7.9	100.0(689)	1.5	38.074(1)***
일반 가구	74.2	24.4	1.3	100.0(297)	1.3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84.1	15.9	-	100.0(4)	1.2	
100~200만원 미만	72.2	25.2	2.5	100.0(142)	1.3	3.686(3)*
200~300만원 미만	61.1	30.8	8.1	100.0(386)	1.5	
300만원 이상	57.3	37.5	5.2	100.0(453)	1.5	

주: *p<.05, ***p<.001

양육비를 받기로 하였다(정기지급, 일시+정기지급, 일시지급)고 응답한 경우 지급받기로 한 양육비로 일시지급액은 평균 6,651.2만원으로 집계되었고, 2021년의 1,754.2만원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지급받기로 한 양육비로 정기지급액의 월 평균은 71.4만원으로 2021년의 66.9만원에 비해 약 4.5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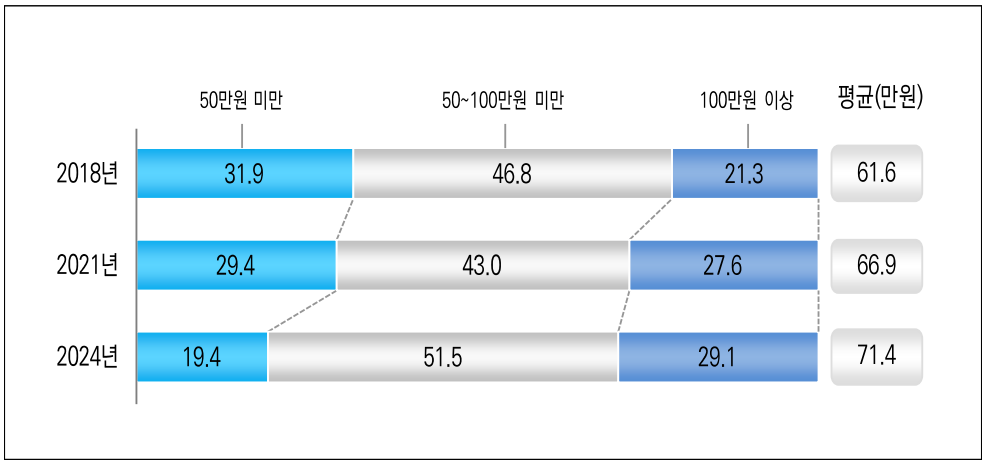
(단위: %, 2018년: n=42, 2021년: n=39, 2024년: n=93)



주: 각 연도별로 일시지급 형태로 양육비를 받는 가구가 극히 적고 응답값(금액)의 차이가 상당해 단순 비교에는 무리가 있음

[그림 Ⅱ-4-13] 지급 받기로 한 양육비 - 일시지급액

(단위: %, 2018년: n=462, 2021년: n=576, 2024년: n=917)



[그림 Ⅱ-4-14] 지급받기로 한 양육비: 정기지급액(월평균)

〈표 Ⅱ-4-13〉 지급받기로 한 양육비: 정기 지급액(월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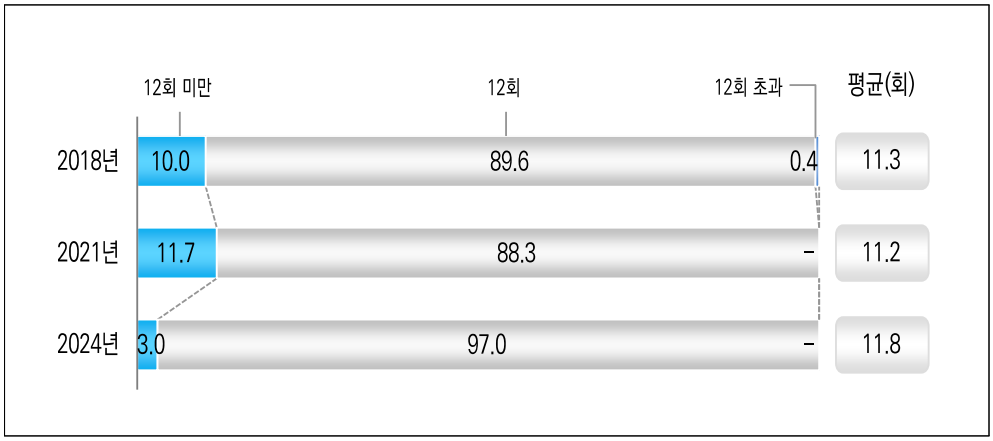
(단위: %, 가구)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합계(n)	평균(만원)	$F(df)$
전 체	19.4	51.5	29.1	100.0(917)	71.4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18.1	53.8	28.0	100.0(315)	71.7	4.273(2)*
40대	16.3	53.2	30.5	100.0(497)	73.3	
50대 이상	37.7	36.5	25.9	100.0(105)	61.4	
가구 구성						
모자	15.7	52.0	32.4	100.0(626)	75.8	
모자+기타	16.9	52.8	30.2	100.0(183)	69.3	15.678(3)***
부자	47.3	45.0	7.7	100.0(77)	47.0	
부자+기타	39.0	50.7	10.4	100.0(31)	55.6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13.7	51.1	35.2	100.0(150)	80.3	6.201(2)**
초등학생	18.1	53.3	28.6	100.0(391)	71.9	
중학생 이상	22.9	49.8	27.3	100.0(375)	67.4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19.4	48.2	32.3	100.0(393)	73.6	
임시/일용근로자	22.6	59.4	18.0	100.0(256)	62.6	6.681(3)***
자영업/무급가족	9.2	50.7	40.1	100.0(116)	77.3	
비취업	21.5	47.2	31.3	100.0(152)	76.1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27.7	28.3	44.1	100.0(4)	70.0	
100~200만원 미만	30.4	50.8	18.9	100.0(138)	59.4	7.125(3)***
200~300만원 미만	18.6	56.2	25.2	100.0(368)	70.3	
300만원 이상	16.2	47.7	36.1	100.0(406)	76.5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18.7	50.2	31.1	100.0(502)	74.3	7.351(2)***
5~10년 미만	18.6	51.1	30.3	100.0(310)	71.0	
10년 이상	24.9	59.1	16.0	100.0(105)	58.7	

주: *p<.05, **p<.01, ***p<.001

양육비를 받기로 하였다(정기지급, 일시+정기지급, 일시지급)고 응답한 경우 지급받기로 한 양육비가 정기지급인 경우 횟수는 연 12회가 97.0%로 가장 많았고, 12회 미만이 3.0%로 평균은 연 11.8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2018년: n=462, 2021년: n=576, 2024년: n=9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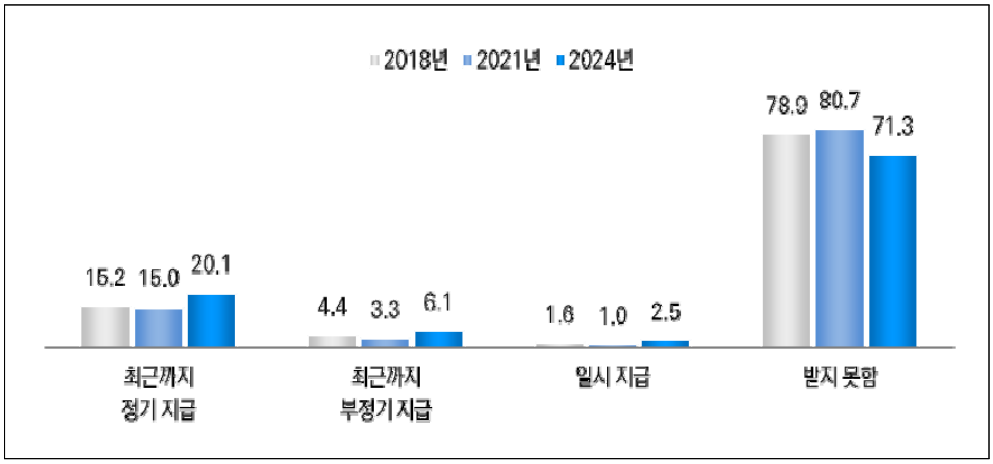


[그림 Ⅱ-4-15] 지급받기로 한 양육비 - 정기지급 횟수(연)

2) 자녀양육비 실제 수급 형태

양육비를 받기로 하였다(정기지급, 일시+정기지급, 일시지급)고 응답한 경우 및 (양육비를 주고받지 않기로 하였거나 법적으로 결정된 바 없지만)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실제로 받은 양육비의 지급형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받지 못함 71.3%, 정기지급 20.1%, 부정기지급 6.1%, 일시지급 2.5%의 순이었고, 받지 못함의 비율이 2021년의 80.7%(=한 번도 받은 적 없음 72.1% + 최근 1년 받지 못함 8.6%)에 비해 약 9.4%p 감소하였다. 한부모 연령이 30대 이하인 경우 최근까지 정기지급 응답비율이 26.7%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고, 부자가정인 경우 받지 못함 비율이 89.0%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그리고 한부모가 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받지 못함 비율이 83.5%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단위: %, 2018년: n=2,039, 2021년: n=2,848, 2024년: n=2,951)



주: 이혼·미혼 한부모 대상

[그림 Ⅱ-4-16] 실제로 양육비를 지급받은 형태

〈표 Ⅱ-4-14〉 실제로 양육비를 지급받은 형태

(단위: %,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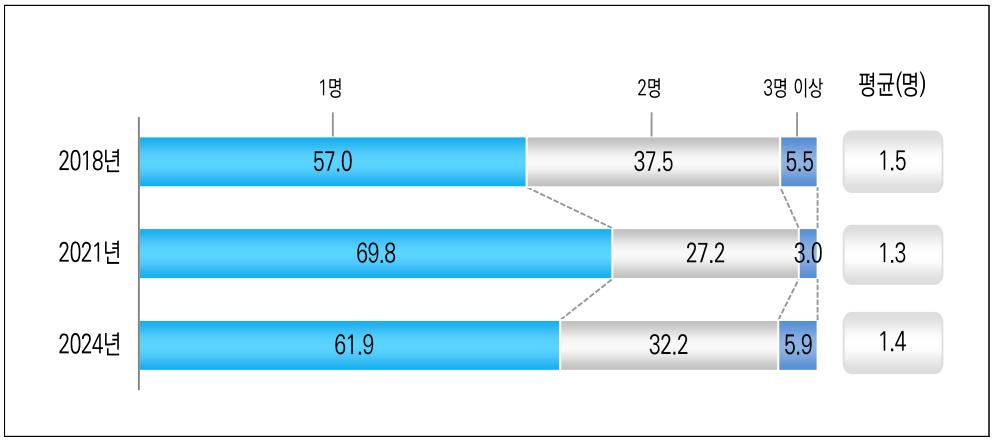
	최근까지 정기 지급	최근까지 부정기 지급	일시 지급	받지 못함	합계(n)	$\chi^2(df)$
전 체	20.1	6.1	2.5	71.3	100.0(2,951)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26.7	8.4	1.8	63.2	100.0(783)	85.499(6)***
40대	19.9	5.8	3.3	71.0	100.0(1,672)	
50대 이상	10.2	3.6	0.8	85.4	100.0(497)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21.9	8.3	2.2	67.6	100.0(91)	10(4)*
고졸 이하	16.5	5.3	1.7	76.4	100.0(1,477)	
대학 이상	23.7	6.8	3.3	66.1	100.0(1,384)	
혼인 상태						
이혼	21.1	6.2	2.6	70.2	100.0(2,793)	39.9(3)***
기타	2.4	5.5	-	92.1	100.0(159)	
가구 구성						
모자	26.5	7.4	2.5	63.6	100.0(1,584)	
모자+기타	23.0	10.5	2.8	63.8	100.0(463)	211.163(9)***
부자	7.8	1.2	1.9	89.0	100.0(593)	
부자+기타	6.5	2.6	2.8	88.1	100.0(312)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26.3	11.0	3.1	59.6	100.0(370)	58.48(6)***
초등학생	23.1	6.1	2.2	68.6	100.0(1,161)	
중학생 이상	15.9	4.9	2.5	76.7	100.0(1,420)	

	최근까지 정기 지급	최근까지 부정기 지급	일시 지급	받지 못함	합계(n)	$\chi^2(df)$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21.0	7.5	1.3	70.2	100.0(1,992)	57.389(3)***
일반 가구	18.0	3.3	4.9	73.8	100.0(959)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14.3	9.1	0.6	76.1	100.0(19)	
100~200만원 미만	13.6	7.4	1.0	78.0	100.0(562)	52.422(9)***
200~300만원 미만	20.3	7.4	1.5	70.7	100.0(1,099)	
300만원 이상	22.8	4.4	3.9	68.9	100.0(1,272)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28.2	5.8	3.3	62.7	100.0(1,248)	116.473(6)***
5~10년 미만	15.3	7.3	2.3	75.1	100.0(1,179)	
10년 이상	11.4	4.2	0.8	83.5	100.0(524)	

주: *p<.05, ***p<.001

양육비를 받기로 하였다(정기지급, 일시+정기지급, 일시지급)고 응답한 경우 및 (양육비를 주고받지 않기로 하였거나 법적으로 결정된 바 없지만)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실제로 양육비를 받은 자녀의 수는 평균 1.4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1년의 1.3명과 큰 차이는 없었다.

(단위: %, 2018년: n=431, 2021년: n=549, 2024년: n=846)



주: 지난 1년간 양육비를 실제로 받은 사람(정기·부정기·일시) 대비 비율

[그림 Ⅱ-4-17] 실제로 양육비 지급받은 자녀 수

〈표 Ⅱ-4-15〉 실제로 양육비 지급받은 자녀 수

(단위: %,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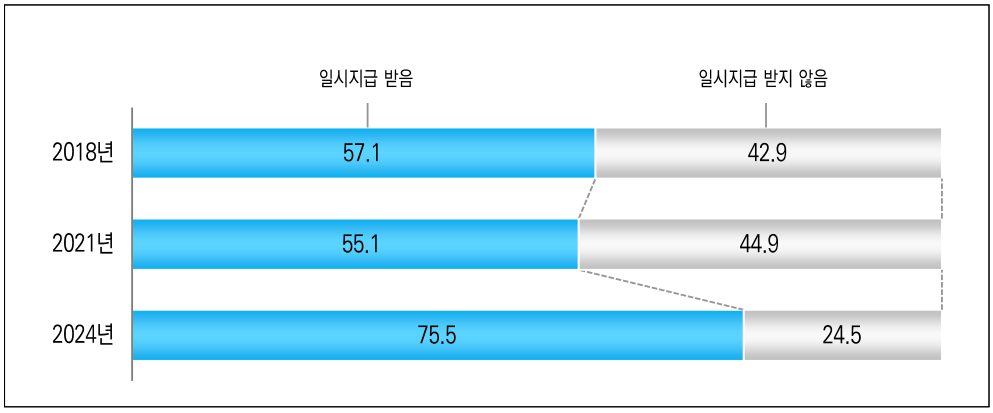
	1명	2명	3명 이상	합계(n)	평균(명)	$F(df)$
전 체	61.9	32.2	5.9	100.0(846)	1.4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66.3	30.1	3.6	100.0(288)	1.4	6.555(2)**
40대	57.6	34.6	7.8	100.0(485)	1.5	
50대 이상	73.5	23.9	2.6	100.0(72)	1.3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49.1	38.2	12.7	100.0(29)	1.6	6.807(2)**
고졸 이하	57.9	32.5	9.6	100.0(348)	1.5	
대학 이상	65.7	31.5	2.8	100.0(468)	1.4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59.6	35.5	4.9	100.0(149)	1.5	6.492(2)**
초등학생	57.2	34.3	8.5	100.0(365)	1.5	
중학생 이상	68.1	28.4	3.5	100.0(331)	1.4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56.0	36.3	7.8	100.0(594)	1.5	34.256(1)***
일반 가구	75.9	22.5	1.6	100.0(252)	1.3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47.3	52.7	-	100.0(5)	1.5	
100~200만원 미만	75.7	22.9	1.4	100.0(124)	1.3	4.538(3)**
200~300만원 미만	61.7	30.4	7.9	100.0(322)	1.5	
300만원 이상	57.9	36.3	5.8	100.0(396)	1.5	

주: **p<.01, ***p<.001

양육비 일시지급 채권이 있는 사람 중 양육비를 일시지급 받은 비율은 75.5%로 2021년의 55.1%에 비해 약 20.4%p 증가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받은 일시지급액의 평균은 7,090.5만원[15]이었다.

15) 다만 이러한 값은 각 연도별로 일시지급 형태로 양육비를 받는 가구가 극히 적고 응답값(금액)의 차이가 상당해 단순 비교에는 무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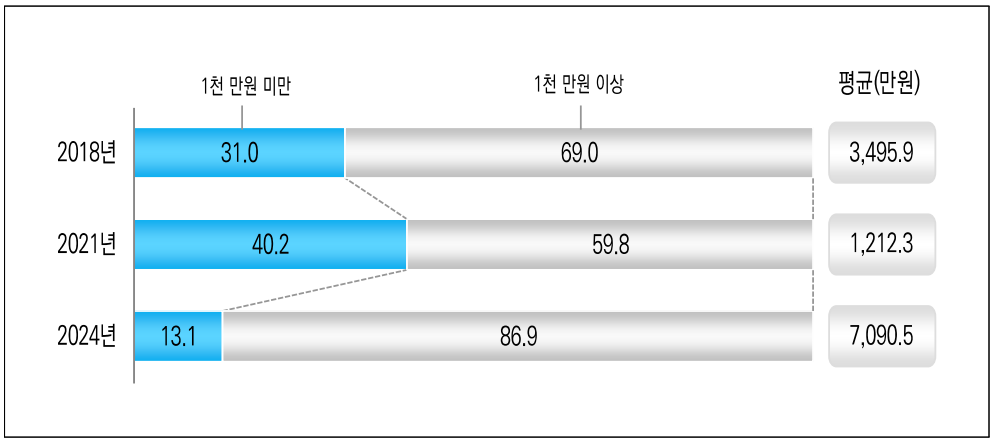
(단위: %, 2018년: n=42, 2021년: n=39, 2024년: n=93)



주: 양육비 일시지급 채권이 있는 사람 대비 비율, '받음'은 일시+정기지급 포함

[그림 Ⅱ-4-18] 실제로 지급받은 양육비: 일시지급 받은 비율

(단위: %, 2018년: n=24, 2021년: n=22, 2024년: n=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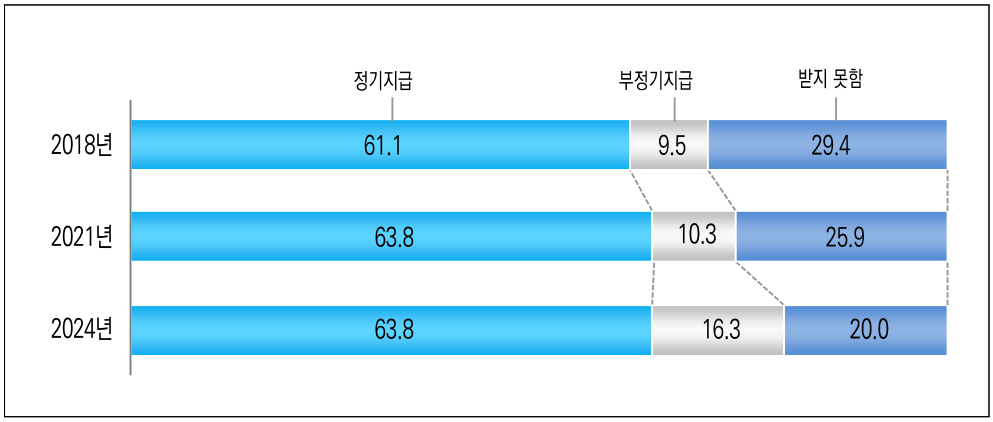


주: ①양육비 일시지급 채권이 있는 사람 중 양육비 일시지급을 실제로 받은 사람 대비 비율
②각 연도별로 일시지급 형태로 양육비를 받는 가구가 극히 적어 단순 비교에는 무리가 있음.

[그림 Ⅱ-4-19] 실제로 지급받은 양육비: 일시지급액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이 있는 사람 중 정기지급 받은 비율은 63.8%, 부정기지급 받은 비율은 16.3%, 받지 못함 비율은 20.0%로 나타났다. 2021년에 비하여 받지 못함 비율이 약 5.9%p 감소하였으며 부정기지급 받은 비율이 약 6.0%p 증가하였다. 한부모 연령이 50대 이상인 경우(38.2%), 부자가구인 경우(27.4%), 소득수준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36.0%) 받지 못함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위: %, 2018년: n=462, 2021년: n=576, 2024년: n=917)



주: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이 있는 사람 대비 비율, '정기지급'은 일시+정기지급, '부정기지급'은 일시+부정기지급 및 일시지급 포함

[그림 Ⅱ-4-20] 실제로 지급받은 양육비: 정기·부정기지급 받은 비율

〈표 Ⅱ-4-16〉 실제로 지급받은 양육비: 정기·부정기지급 받은 비율

(단위: %,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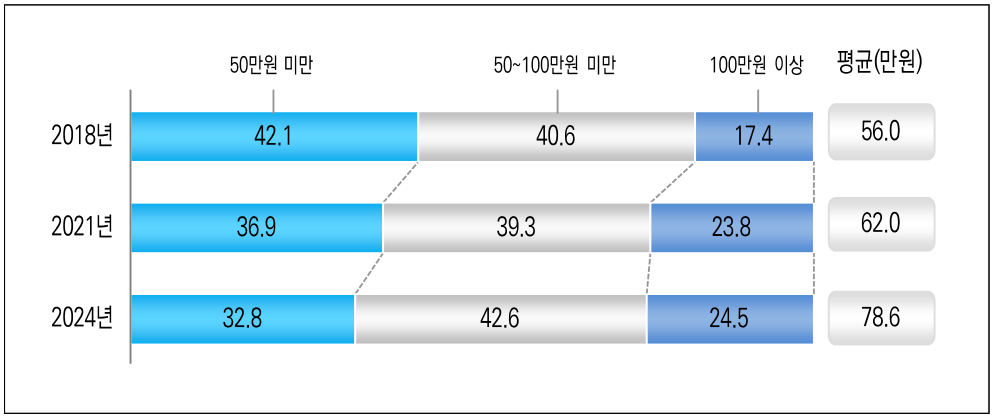
	정기지급	부정기지급	받지 못함	합계(n)	$\chi^2(df)$
전 체	63.8	16.3	20.0	100.0(917)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65.6	19.7	14.7	100.0(315)	26.779(4)***
40대	65.9	14.5	19.5	100.0(497)	
50대 이상	47.8	14.0	38.2	100.0(105)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64.7	23.1	12.1	100.0(30)	37.931(4)***
고졸 이하	61.0	13.5	25.5	100.0(394)	
대학 이상	65.9	18.0	16.1	100.0(493)	
혼인 상태					
이혼	63.9	15.9	20.2	100.0(908)	14.779(2)***
기타	47.1	51.5	1.3	100.0(8)	
가구 구성					
모자	66.0	14.9	19.1	100.0(626)	
모자+기타	58.0	20.5	21.5	100.0(183)	17.203(6)**
부자	59.6	13.1	27.4	100.0(77)	
부자+기타	62.8	26.8	10.4	100.0(31)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63.7	26.2	10.1	100.0(150)	18.031(4)**
초등학생	68.1	14.0	17.9	100.0(391)	
중학생 이상	59.2	14.7	26.1	100.0(375)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64.0	-	36.0	100.0(4)	
100~200만원 미만	53.3	24.1	22.7	100.0(138)	13.297(6)*
200~300만원 미만	60.3	16.7	23.0	100.0(368)	
300만원 이상	70.5	13.3	16.2	100.0(406)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69.8	14.3	15.9	100.0(502)	26.148(4)***
5~10년 미만	56.9	19.6	23.5	100.0(310)	
10년 이상	55.2	15.6	29.2	100.0(105)	

주1: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이 있는 사람 대비 비율, '정기지급 받음'은 일시+정기지급, '부정기지급 받음'은 일시+부정기지급 및 일시지급 포함

주2: *p<.05, **p<.01, ***p<.001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이 있는 사람 중 정기지급과 부정기지급을 실제로 받은 사람에서 월 평균 50-100만원 미만을 받은 비율이 42.6만원, 50만원 미만을 받은 비율이 32.8%, 100만원 이상 받은 비율이 24.5%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는 월 78.6만원을 받아 2021년의 62만원에 비해 약 16.6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자가구인 경우(89.8만원), 소득수준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100.2만원), 한부모가 된 기간이 5~10년 미만인 경우(86만원) 정기·부정기지급액 월 평균 액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2018년: n=326, 2021년: n=418, 2024년: n=733)



주: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이 있는 사람 중 양육비 정기·부정기지급을 실제로 받은 사람 대비 비율

[그림 Ⅱ-4-21] 실제로 지급받은 양육비: 정기·부정기지급액(월평균)

〈표 Ⅱ-4-17〉 실제로 지급받은 양육비: 정기·부정기지급액(월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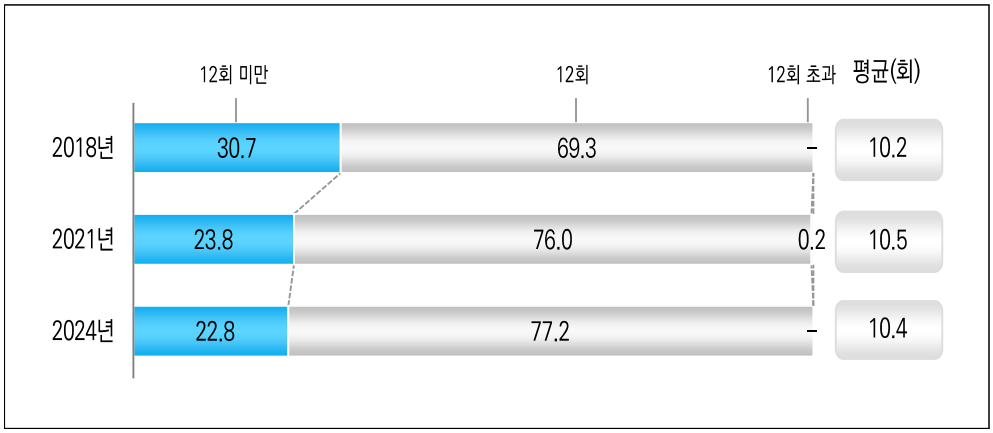
(단위: %, 가구)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합계(n)	평균(만원)	$F(df)$
전 체	32.8	42.6	24.5	100.0(733)	78.6	
가구 구성						
모자	26.2	45.8	28.0	100.0(506)	89.8	
모자+기타	38.5	39.7	21.7	100.0(144)	59.2	9.078(3)***
부자	63.0	28.6	8.4	100.0(56)	41.7	
부자+기타	64.2	28.2	7.6	100.0(27)	49.7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36.9	35.7	27.4	100.0(135)	79.1	4.492(2)*
초등학생	27.8	46.2	26.0	100.0(321)	83.3	
중학생 이상	36.7	41.9	21.4	100.0(277)	72.9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32.2	40.5	27.3	100.0(320)	90.4	
임시/일용근로자	36.4	48.6	15.0	100.0(195)	65.0	4.766(3)**
자영업/무급가족	27.5	32.7	39.9	100.0(88)	85.2	
비취업	32.8	45.6	21.6	100.0(130)	65.6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43.2	24.9	31.9	100.0(3)	62.7	
100~200만원 미만	43.6	47.6	8.7	100.0(107)	47.9	10.648(3)***
200~300만원 미만	34.5	50.2	15.3	100.0(284)	64.4	
300만원 이상	28.0	34.9	37.1	100.0(340)	100.2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30.4	40.0	29.6	100.0(422)	79.4	7.56(2)***
5~10년 미만	34.1	45.5	20.4	100.0(237)	86.0	
10년 이상	42.6	48.5	8.9	100.0(74)	50.5	

주: *p<.05, **p<.01, ***p<.001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이 있는 사람 중 정기지급과 부정기지급을 실제로 받은 사람의 정기·부정기지급 횟수는 연 평균 10.4회로 2021년의 10.5회와 거의 비슷하였다. 연 평균 12회인 비율이 77.2%였고 12회 미만인 비율이 22.8%였다.

(단위: %, 2018년: n=326, 2021년: n=418, 2024년: n=733)



주: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이 있는 사람 중 양육비 정기·부정기지급을 실제로 받은 사람 대비 비율

[그림 Ⅱ-4-22] 실제로 지급받은 양육비: 정기·부정기지급 횟수(연)

〈표 Ⅱ-4-18〉 실제로 지급받은 양육비: 정기·부정기지급 횟수(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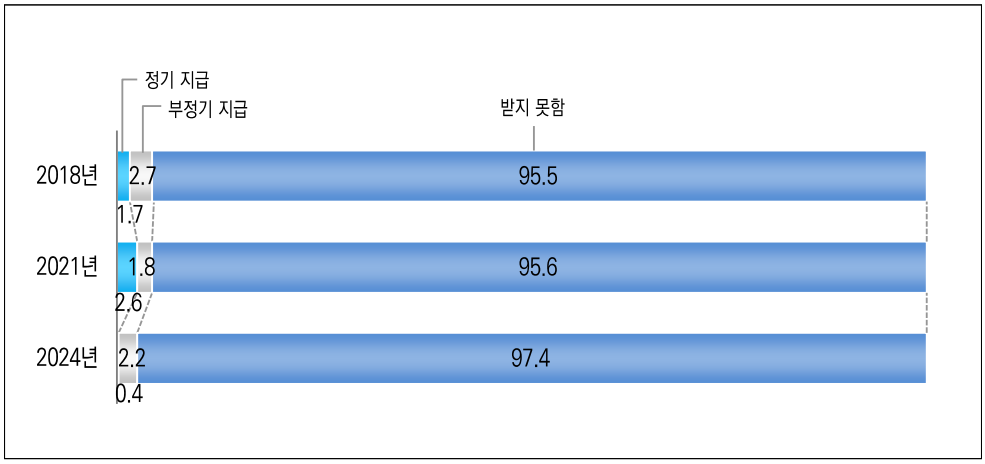
(단위: %, 가구)

	12회 미만	12회	합계(n)	평균(회)	$F(df)$
전 체	22.8	77.2	100.0(733)	10.4	
혼인 상태					
이혼	22.4	77.6	100.0(725)	10.4	4.303(1)*
기타	61.2	38.8	100.0(8)	8.1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32.0	68.0	100.0(135)	9.8	3.294(2)*
초등학생	19.4	80.6	100.0(321)	10.7	
중학생 이상	22.4	77.6	100.0(277)	10.4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25.6	74.4	100.0(533)	10.2	5.52(1)*
일반 가구	15.5	84.5	100.0(201)	10.8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0.0	100.0	100.0(3)	12.0	
100~200만원 미만	33.8	66.2	100.0(107)	9.5	4.137(3)**
200~300만원 미만	25.1	74.9	100.0(284)	10.3	
300만원 이상	17.7	82.3	100.0(340)	10.7	

주: *p<.05, **p<.01

양육비 채권이 없는 사람 중 양육비를 정기지급 받은 비율은 0.4%, 부정기지급 2.2%, 받지 못함 97.4%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부정기지급 비율이 12.4%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단위: %, 2018년: n=1,538, 2021년: n=2,241, 2018년: n=1,966)



주: 양육비 채권이 없는 사람 대비 비율, '정기지급'은 일시+정기지급 포함

[그림 Ⅱ-4-23] 실제로 지급받은 양육비(무채권): 정기·부정기지급 받은 비율

〈표 Ⅱ-4-19〉 실제로 지급받은 양육비(무채권): 정기·부정기지급 받은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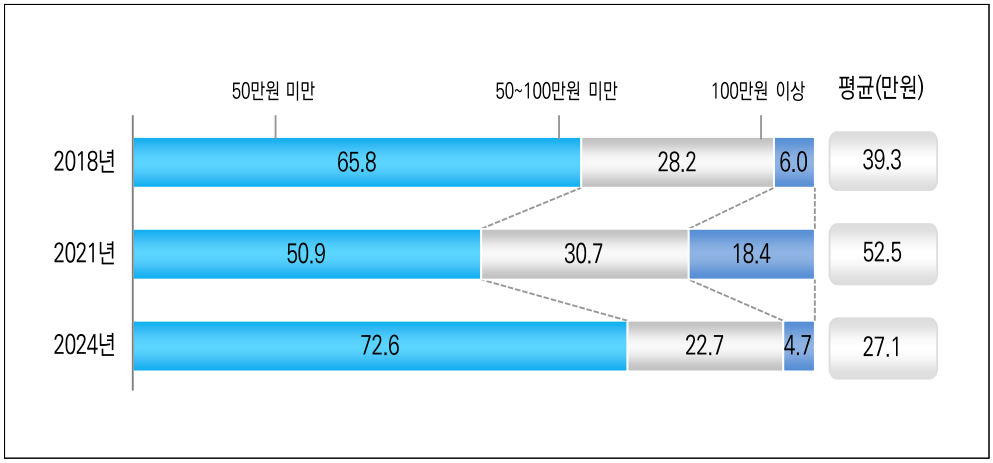
(단위: %, 가구)

	정기지급	부정기지급	받지 못함	합계(n)	$\chi^2(df)$
전 체	0.4	2.2	97.4	100.0(1,966)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0.3	1.3	98.3	100.0(453)	74.681(4)***
40대	0.4	2.9	96.7	100.0(1,122)	
50대 이상	0.1	1.5	98.4	100.0(390)	
혼인 상태					
이혼	0.4	2.4	97.2	100.0(1,819)	37.377(2)***
기타	-	0.5	99.5	100.0(147)	
가구 구성					
모자	0.6	4.2	95.3	100.0(927)	
모자+기타	-	1.6	98.4	100.0(260)	199.759(6)***
부자	0.2	0.2	99.6	100.0(506)	
부자+기타	0.3	-	99.7	100.0(272)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0.7	1.8	97.6	100.0(206)	54.465(4)***
초등학생	0.3	2.2	97.5	100.0(743)	
중학생 이상	0.3	2.3	97.3	100.0(1,016)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	12.4	87.6	100.0(15)	
100~200만원 미만	0.6	2.6	96.7	100.0(420)	21.893(6)**
200~300만원 미만	0.2	3.0	96.7	100.0(713)	
300만원 이상	0.4	1.2	98.5	100.0(819)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0.3	1.7	98.0	100.0(711)	109.66(4)***
5~10년 미만	0.4	3.0	96.7	100.0(839)	
10년 이상	0.5	1.7	97.8	100.0(416)	

주: **p<.01, ***p<.001

양육비 채권이 없지만 정기지급과 부정기지급을 실제로 받은 사람이 지급받은 양육비의 월 평균 금액은 27.1만원으로 나타났다. 50만원 미만을 받은 비율이 72.6%로 가장 많았고, 50~100만원 미만 22.7%, 100만원 이상 4.7%의 순이었다. 양육비 채권이 없지만 정기지급과 부정기지급을 실제로 받은 사람이 지급받은 횟수는 연 평균 5.9회로 나타났다. 12회 미만이 79.1%, 12회 14.6%, 12회 초과 6.3%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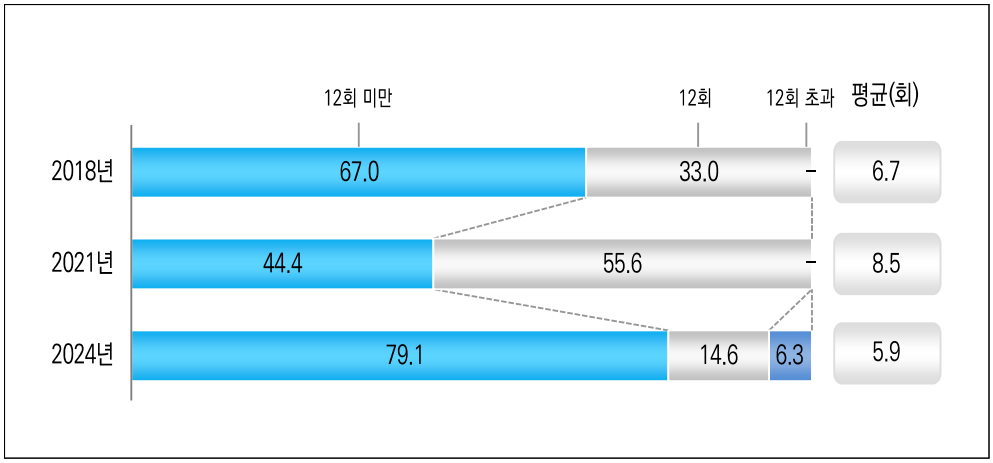
(단위: %, 2018년: n=69, 2021년: n=96, 2024년: n=41)



주: 양육비 채권이 없는 사람 중 양육비 정기·부정기지급을 실제로 받은 사람 대비 비율

[그림 Ⅱ-4-24] 실제로 지급받은 양육비(무채권) - 정기·부정기지급액(월평균)

(단위: %, 2018년: n=69, 2021년: n=96, 2024년: n=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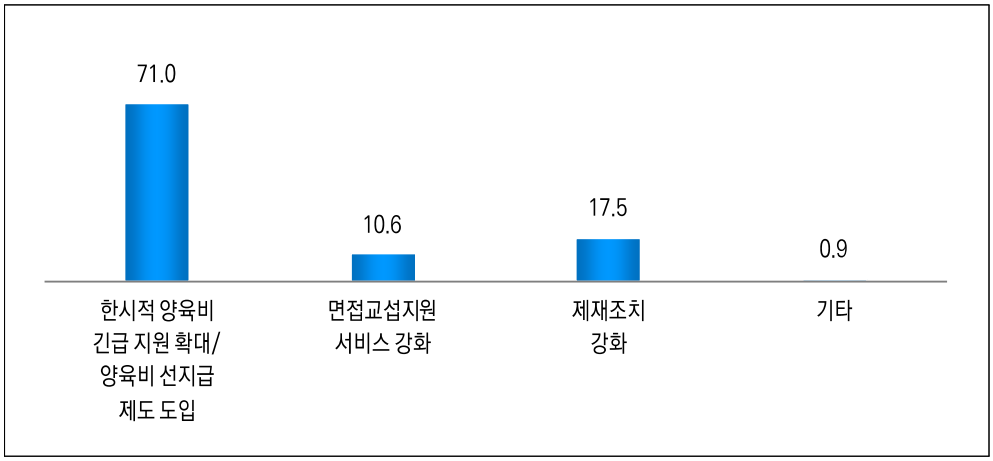


주: 양육비 채권이 없는 사람 중 양육비 정기·부정기지급을 실제로 받은 사람 대비 비율

[그림 Ⅱ-4-25] 실제로 지급받은 양육비(무채권) - 정기·부정기지급 횟수(연)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가장 개선이 필요한 제도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확대 또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도입 71.0%, 제재조치 강화 17.5%, 면접교섭지원서비스 강화 10.6%의 순으로 나타났다. 모자가구인 경우(73.5%), 저소득 지원가구인 경우(72.9%)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확대 또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도입에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단위: %, n=2,951)



[그림 Ⅱ-4-26]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개선이 시급한 제도

〈표 Ⅱ-4-20〉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개선이 시급한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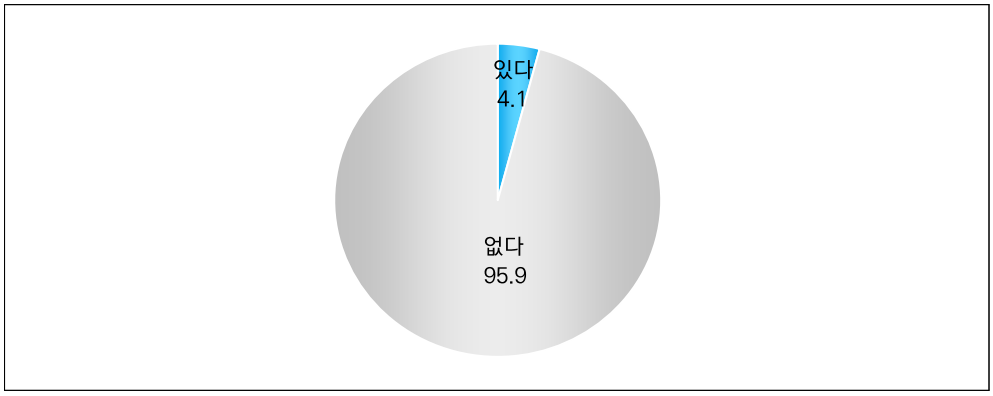
(단위: %, 가구)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확대/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	면접교섭지원서비스 강화	제재조치 강화	기타		합계(n)	$\chi^2(df)$
					없음		
전 체	71.0	10.6	17.5	0.1	0.8	100.0(2,951)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72.2	7.0	20.1	-	0.6	100.0(783)	27.971(8)***
40대	70.3	12.8	16.0	0.2	0.7	100.0(1,672)	
50대 이상	71.9	8.9	18.1	-	1.2	100.0(497)	
혼인 상태							
이혼	70.9	11.0	17.3	0.1	0.7	100.0(2,793)	10.584(4)*
기타	74.0	4.2	20.0	0.4	1.5	100.0(159)	
가구 구성							
모자	73.5	8.8	17.0	0.1	0.6	100.0(1,584)	
모자+기타	68.8	8.0	22.3	0.5	0.5	100.0(463)	50.368(12)***
부자	67.6	16.7	14.7	-	1.0	100.0(593)	
부자+기타	68.4	12.4	17.9	-	1.3	100.0(312)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69.4	13.1	16.4	0.2	0.8	100.0(1,297)	
임시/일용근로자	76.1	7.2	16.3	0.1	0.3	100.0(783)	32.476(12)**
자영업/무급가족	67.6	9.4	21.4	-	1.6	100.0(378)	
비취업	69.9	10.4	19.0	0.1	0.6	100.0(493)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72.9	8.9	17.3	0.2	0.8	100.0(1,992)	22.443(4)***
일반 가구	67.1	14.2	17.9	-	0.7	100.0(959)	

주: *p<.05, **p<.01, ***p<.001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 이용 경험을 살펴보면 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4.1%, 없다는 비율이 95.9%로 대부분 이용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 연령이 30대 이하인 경우(7.2%), 한부모 학력이 대학 이상인 경우(5.1%)에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 이용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단위: %, n=2,951)



[그림 Ⅱ-4-27]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 이용 경험

〈표 Ⅱ-4-21〉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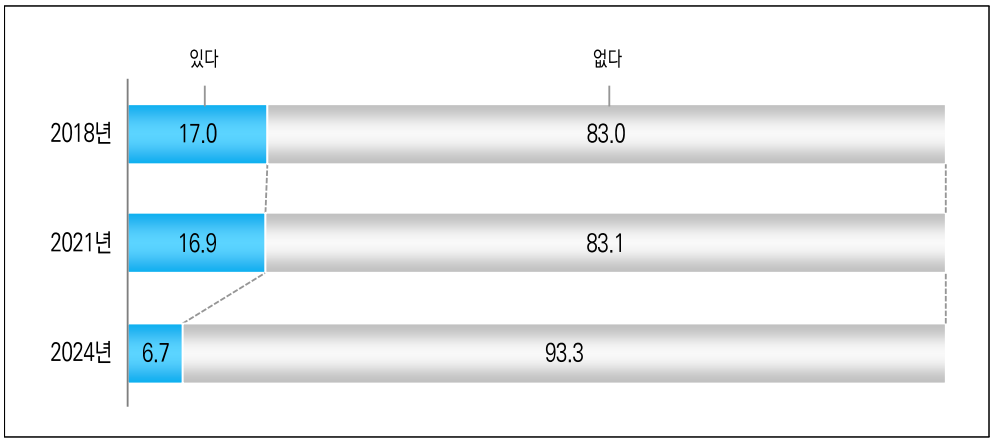
	있다	없다	합계(n)	$\chi^2(df)$
전 체	4.1	95.9	100.0(2,951)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7.2	92.8	100.0(783)	34.302(2)***
40대	3.7	96.3	100.0(1,672)	
50대 이상	0.8	99.2	100.0(497)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3.2	96.8	100.0(91)	15.229(2)***
고졸 이하	3.3	96.7	100.0(1,477)	
대학 이상	5.1	94.9	100.0(1,384)	
가구 구성				
모자	4.9	95.1	100.0(1,584)	
모자+기타	6.2	93.8	100.0(463)	21.85(3)***
부자	1.5	98.5	100.0(593)	
부자+기타	2.1	97.9	100.0(312)	

	있다	없다	합계(n)	$\chi^2(df)$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6.9	93.1	100.0(370)	14.427(2)***
초등학생	4.9	95.1	100.0(1,161)	
중학생 이상	2.8	97.2	100.0(1,420)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5.0	95.0	100.0(1,992)	12.138(1)***
일반 가구	2.3	97.7	100.0(959)	

주: ***p<.001

양육비이행관리원 이용경험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앞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를 조사한 결과 6.7%가 있다, 93.3%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21년의 16.9%에 비하여 약 10.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 연령이 30대 이하인 경우(10.0%), 한부모가 된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9.1%)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이용할 의사를 밝힌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위: %, 2018년: n=2,039, 2021년: n=2,848, 2024년: n=2,829)



[그림 Ⅱ-4-28]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 이용 의사

〈표 Ⅱ-4-22〉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 이용 의사

(단위: %, 가구)

	있다	없다	합계(n)	$\chi^2(df)$
전 체	6.7	93.3	100.0(2,829)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10.0	90.0	100.0(727)	18.172(2)***
40대	6.1	93.9	100.0(1,610)	
50대 이상	4.0	96.0	100.0(492)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8.6	91.4	100.0(88)	60.901(12)***
고졸 이하	4.9	95.1	100.0(1,428)	
대학 이상	8.6	91.4	100.0(1,313)	
가구 구성				
모자	7.2	92.8	100.0(1,506)	
모자+기타	10.1	89.9	100.0(434)	16.386(3)***
부자	4.2	95.8	100.0(584)	
부자+기타	4.8	95.2	100.0(305)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11.3	88.7	100.0(345)	21.79(2)***
초등학생	7.8	92.2	100.0(1,104)	
중학생 이상	4.8	95.2	100.0(1,381)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6.1	93.9	100.0(1,892)	4.113(1)*
일반 가구	8.1	91.9	100.0(937)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9.1	90.9	100.0(1,191)	18.312(2)***
5~10년 미만	4.9	95.1	100.0(1,133)	
10년 이상	5.2	94.8	100.0(5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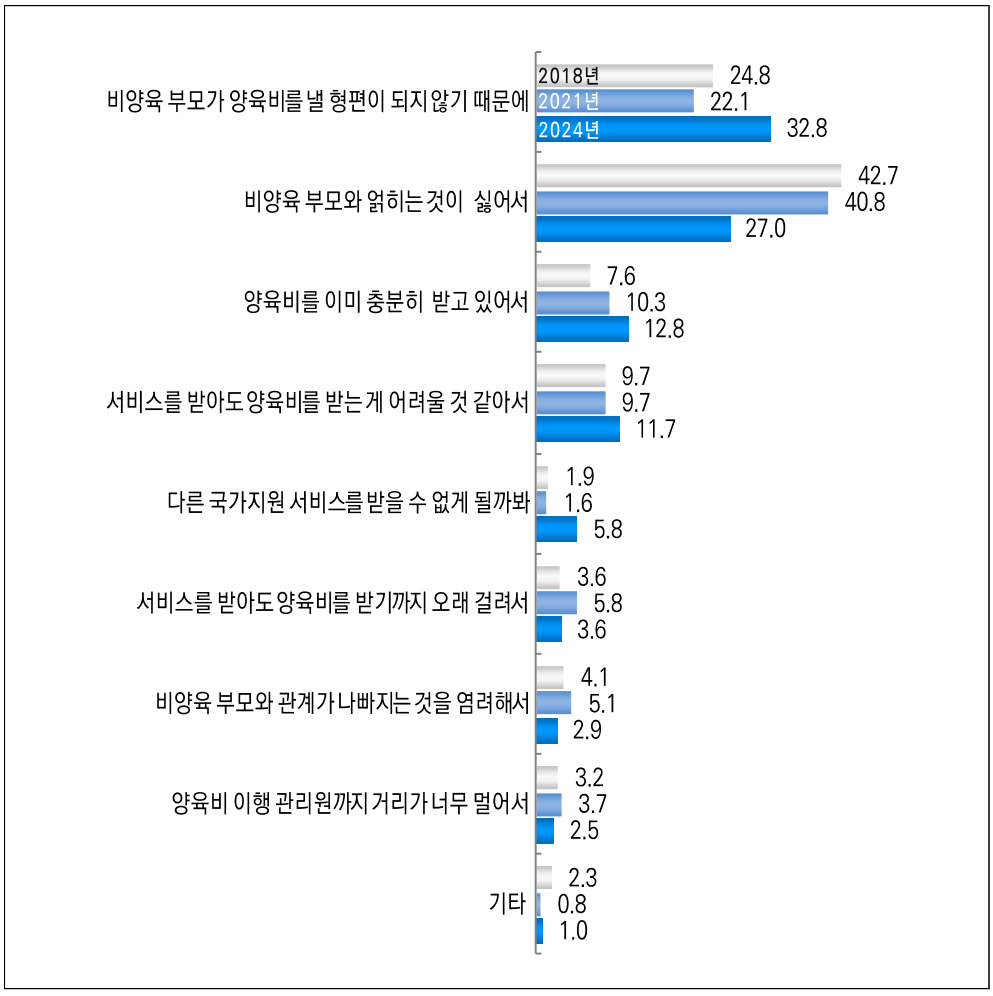
주: *p<.05, ***p<.001

양육비이행관리원 이용경험과 이용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려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낼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32.8%, 비양육부모와 얽히는 것이 싫어서 27.0%, 양육비를 이미 충분히 받고 있어서 12.8%, 서비스를 받아도 양육비를 받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

11.7%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 비해 비양육부모와 얽히는 것이 싫어서 응답률은 약 13.8%p 감소하였고,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낼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응답률은 10.7% 증가하였다.

한부모 연령이 50대 이상인 경우(41.2%), 부자가구인 경우(43.2%), 소득수준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45.5%)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낼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부모 연령이 30대 이하인 경우(18.1%), 모자가구인 경우(17.1%), 한부모가 된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18.5%)에 양육비를 이미 충분히 받고 있어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단위: %, 2018년: n=1,693, 2021년: n=2,367, 2024년: n=2,638)



[그림 Ⅱ-4-29]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려는 이유

〈표 Ⅱ-4-23〉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려는 이유

(단위: %, 가구)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낼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양육부모와 얽히는 것이 싫어서	양육비를 이미 충분히 받고 있어서	서비스를 받아도 양육비를 받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	다른 국가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될까봐	서비스를 받아도 양육비를 받기까지 오래 걸려서	비양육부모와 관계가 나빠지는 것을 염려해서	양육비 이행관리원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서	기타	합계(n)
전 체	32.8	27.0	12.8	11.7	5.8	3.6	2.9	2.5	1.0	100.0(2,638)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24.8	27.0	18.1	13.2	5.6	4.7	3.5	2.5	0.6	100.0(654)
40대	33.6	27.4	12.8	10.8	6.3	3.0	2.7	2.4	1.1	100.0(1,511)
50대 이상	41.2	25.5	5.6	12.5	4.7	3.8	2.7	2.9	1.1	100.0(473)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36.4	28.0	12.9	15.0	2.7	1.1	-	3.9	-	100.0(80)
고졸 이하	35.2	27.9	9.8	11.8	6.2	3.8	2.7	1.5	1.2	100.0(1,358)
대학 이상	29.8	25.9	16.2	11.4	5.6	3.5	3.3	3.6	0.8	100.0(1,200)
혼인 상태										
이혼	33.5	25.8	13.4	11.6	5.9	3.5	2.9	2.7	0.7	100.0(2,498)
기타	20.4	47.3	2.0	12.8	4.9	4.7	2.6	-	5.3	100.0(141)
가구 구성										
모자	28.0	26.0	17.1	10.8	7.6	3.7	3.4	2.5	0.8	100.0(1,398)
모자+기타	21.3	32.8	14.8	15.3	5.2	3.1	3.7	1.5	2.1	100.0(391)
부자	43.2	27.6	4.5	11.1	3.6	3.6	2.7	3.2	0.5	100.0(560)
부자+기타	50.7	22.6	5.4	12.1	2.2	3.5	-	2.5	1.0	100.0(291)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낼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양육부모와 얽히는 것이 싫어서	양육비를 이미 충분히 받고 있어서	서비스를 받아도 양육비를 받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	다른 국가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될까봐	서비스를 받아도 양육비를 받기까지 오래 걸려서	비양육부모와 관계가 나빠지는 것을 염려해서	양육비 이행관리원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서	기타	합계(n)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22.7	29.4	18.9	13.9	8.4	3.0	2.7	0.8	0.2	100.0(306)
초등학생	30.4	27.7	14.4	11.3	6.1	3.9	3.7	2.0	0.7	100.0(1,018)
중학생 이상	36.9	25.9	10.2	11.5	5.0	3.4	2.4	3.3	1.3	100.0(1,315)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32.6	26.7	12.9	11.8	5.1	4.2	2.4	3.4	0.8	100.0(1,151)
임시/일용근로자	34.2	24.5	10.8	12.4	7.3	3.5	4.5	1.6	1.1	100.0(710)
자영업/무급가족	35.3	28.0	14.3	8.8	5.6	2.0	2.3	3.6	0.2	100.0(333)
비취업	28.8	30.7	14.7	12.4	5.5	3.2	2.2	0.9	1.7	100.0(445)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31.0	28.0	12.9	12.1	6.9	3.4	2.6	1.9	1.3	100.0(1,777)
일반 가구	36.5	24.9	12.6	10.8	3.6	3.9	3.6	3.9	0.2	100.0(861)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45.5	18.0	14.2	13.1	3.2	-	-	6.1	-	100.0(18)
100~200만원 미만	33.8	29.3	8.3	14.3	5.9	3.6	2.3	0.8	1.6	100.0(507)
200~300만원 미만	32.1	28.4	12.4	10.3	7.6	3.3	2.9	2.0	1.0	100.0(983)
300만원 이상	32.7	24.9	15.2	11.7	4.2	3.8	3.3	3.6	0.6	100.0(1,132)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27.7	25.5	18.5	10.1	7.3	3.1	4.1	3.3	0.4	100.0(1,082)
5~10년 미만	36.8	26.9	10.0	12.7	5.3	4.2	2.3	1.3	0.5	100.0(1,077)
10년 이상	34.9	30.3	6.5	13.0	3.7	3.3	1.6	3.5	3.3	100.0(4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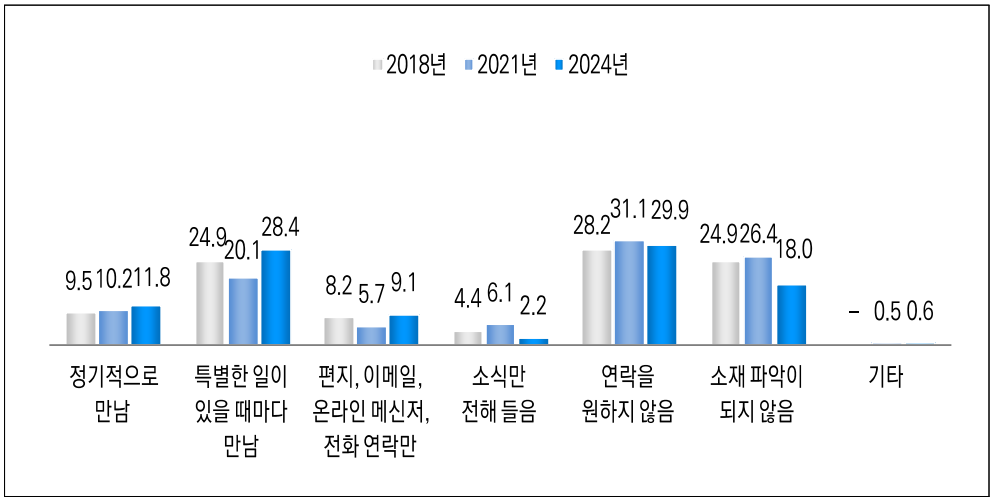
마. 비양육부모와의 관계

1) 비양육부모와의 관계

자녀의 비양육부모(전 배우자)와의 교류 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락을 원하지 않아서 연락하지 않는다 29.9%,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만나고 있다 28.4%,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전혀 연락이 닿지 않는다 18.0%,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 11.8%, 편지, 이메일, 전화(카톡 포함) 연락만 하고 있다 9.1%, 양가 친척 등을 통해 소식만 전해 듣는다 2.2%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부모 연령이 30대 이하인 경우(15.7%), 한부모 학력이 대학 이상인 경우(14.4%), 가장 어린자녀가 미취학인 경우(18.7%), 소득수준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16.3%), 한부모가 된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15.5%)에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부모 연령이 50대 이상인 경우(34.7%), 한부모 학력이 중졸이하인 경우(36.0%), 혼인 상태가 기타인 경우(53.5%), 한부모가 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29.4%)에 연락을 원하지 않아서 연락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위: %, 2018년: n=2,039, 2021년: n=2,848, 2024년: n=2,951)



[그림 Ⅱ-4-30] 비양육부모와의 교류 정도: 자녀

〈표 Ⅱ-4-24〉 비양육부모와의 교류 정도: 자녀

(단위: %, 가구)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만나고 있다	편지, 이메일, 전화 연락(카톡 포함)만 하고 있다	양가 친척 등을 통해 소식만 전해 듣는다	연락을 원하지 않아서 연락하지 않는다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전혀 연락이 닿지 않는다	기타	합계(n)	$\chi^2(df)$
전 체	11.8	28.4	9.1	2.2	29.9	18.0	0.6	100.0(2,951)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15.7	25.1	7.4	2.5	29.6	19.5	0.2	100.0(783)	49.397(12)***
40대	11.4	30.8	9.9	2.3	28.7	16.1	0.8	100.0(1,672)	
50대 이상	7.3	25.2	9.1	1.4	34.7	21.9	0.5	100.0(497)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7.5	24.7	11.0	-	36.0	20.8	-	100.0(91)	50.248(12)***
고졸 이하	9.7	27.1	7.7	1.4	33.0	20.4	0.6	100.0(1,477)	
대학 이상	14.4	29.9	10.5	3.2	26.2	15.2	0.6	100.0(1,384)	
혼인 상태									
이혼	12.4	29.3	9.5	2.2	30.0	15.9	0.6	100.0(2,793)	158.962(6)***
기타	1.9	11.2	2.8	1.4	28.5	53.5	0.7	100.0(159)	
가구 구성									
모자	11.5	29.8	8.6	2.4	30.0	17.3	0.5	100.0(1,584)	
모자+기타	13.9	21.0	9.7	1.7	30.4	21.8	1.6	100.0(463)	41.514(18)**
부자	12.4	31.2	7.5	2.3	29.6	16.8	0.1	100.0(593)	
부자+기타	9.6	26.6	14.0	1.7	29.6	17.6	0.8	100.0(312)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만나고 있다	편지, 이메일, 전화 연락(카톡 포함)만 하고 있다	양가 친척 등을 통해 소식만 전해 듣는다	연락을 원하지 않아서 연락하지 않는다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전혀 연락이 닿지 않는다	기타	합계(n)	$\chi^2(df)$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18.7	22.9	6.1	2.7	29.0	20.8	-	100.0(370)	61.994(12)***
초등학생	13.7	31.1	8.9	1.8	28.2	16.0	0.3	100.0(1,161)	
중학생 이상	8.6	27.6	10.1	2.4	31.6	18.8	1.0	100.0(1,420)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14.2	28.1	10.3	2.8	29.9	14.1	0.7	100.0(1,297)	78.046(18)***
임시/일용근로자	9.5	27.9	8.2	2.3	31.1	20.3	0.7	100.0(783)	
자영업/무급가족	9.7	35.3	8.6	2.0	30.9	13.4	0.0	100.0(378)	
비취업	11.0	24.3	8.0	0.8	27.3	27.8	0.7	100.0(493)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10.9	27.2	7.7	2.2	30.8	20.4	0.9	100.0(1,992)	52.335(6)***
일반 가구	13.9	30.8	12.1	2.3	28.1	12.9	0.0	100.0(959)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	32.9	13.6	-	28.6	24.9	-	100.0(19)	90.784(18)***
100~200만원 미만	7.2	23.9	6.6	2.2	33.3	26.0	0.8	100.0(562)	
200~300만원 미만	9.3	29.5	10.4	1.9	30.0	18.1	0.8	100.0(1,099)	
300만원 이상	16.3	29.3	9.1	2.5	28.4	14.1	0.3	100.0(1,272)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15.5	33.0	9.7	2.4	26.4	12.7	0.3	100.0(1,248)	162.709(12)***
5~10년 미만	10.8	28.3	8.9	2.5	30.8	18.4	0.3	100.0(1,179)	
10년 이상	5.3	17.5	8.1	1.1	36.4	29.4	2.1	100.0(5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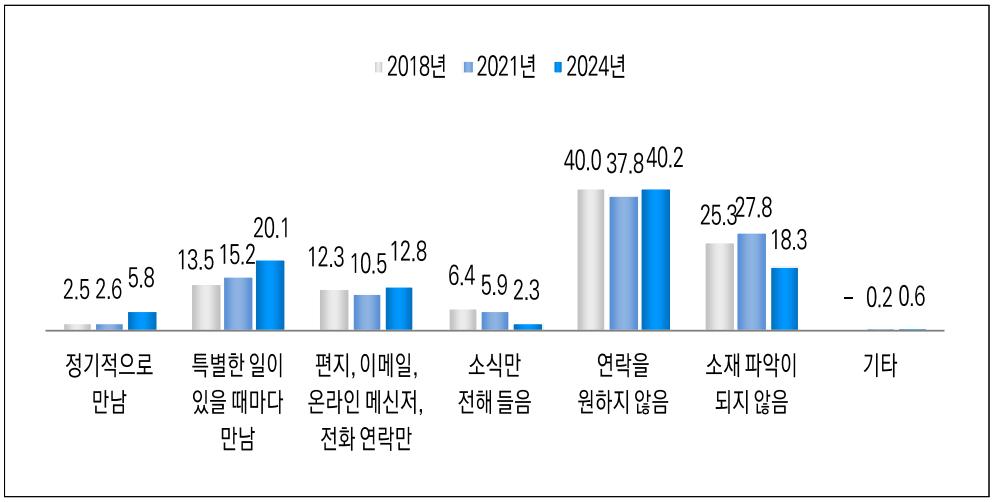
주: **p<.01, ***p<.001

2) 한부모와 비양육부모의 관계

한부모 본인의 비양육부모(전 배우자)와의 교류 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락을 원하지 않아서 연락하지 않는다 40.2%,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만나고 있다 20.1%,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전혀 연락이 닿지 않는다 18.3%, 편지, 이메일, 전화(카톡 포함) 연락만 하고 있다 12.8%,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 5.8%, 양가 친척 등을 통해 소식만 전해 듣는다 2.3%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부모 학력이 대학 이상인 경우(7.4%), 가장 어린자녀가 미취학인 경우(10.6%), 소득 수준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8.3%), 한부모가 된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8.4%)에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부모 연령이 50대 이상인 경우(45.3%), 한부모 학력이 중졸이하인 경우(46.3%), 혼인 상태가 기타인 경우(53.5%), 한부모가 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45.9%)에 연락을 원하지 않아서 연락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위: %, 2018년: n=2,039, 2021년: n=2,848, 2024년: n=2,951)



[그림 Ⅱ-4-31] 비양육부모와의 교류 정도: 한부모

〈표 Ⅱ-4-25〉 비양육부모와의 교류 정도: 한부모

(단위: %, 가구)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만나고 있다	편지, 이메일, 전화 연락(카톡 포함)만 하고 있다	양가 친척 등을 통해 소식만 전해 듣는다	연락을 원하지 않아서 연락하지 않는다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전혀 연락이 닿지 않는다	기타	합계(n)	$\chi^2(df)$
전 체	5.8	20.1	12.8	2.3	40.2	18.3	0.6	100.0(2,951)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8.5	21.0	12.2	1.9	36.5	19.8	0.2	100.0(783)	41.828(12)***
40대	5.0	20.8	13.8	2.7	40.4	16.5	0.8	100.0(1,672)	
50대 이상	4.1	16.1	10.5	1.6	45.3	21.9	0.5	100.0(497)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1.3	18.6	12.9	-	46.3	20.9	-	100.0(91)	75.94(2)***
고졸 이하	4.5	18.7	11.2	1.7	42.1	21.1	0.6	100.0(1,477)	
대학 이상	7.4	21.7	14.5	3.0	37.7	15.1	0.6	100.0(1,384)	
혼인 상태									
이혼	6.1	21.0	13.2	2.3	40.5	16.3	0.6	100.0(2,793)	151.33(6)***
기타	0.4	4.5	5.5	1.4	34.0	53.5	0.7	100.0(159)	
가구 구성									
모자	5.4	21.5	12.8	2.5	39.6	17.7	0.5	100.0(1,584)	
모자+기타	7.8	19.3	12.6	2.3	34.3	22.1	1.6	100.0(463)	33.754(18)*
부자	4.9	19.3	12.6	1.9	43.8	17.3	0.1	100.0(593)	
부자+기타	6.4	15.2	13.4	1.7	45.0	17.4	0.8	100.0(312)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만나고 있다	편지, 이메일, 전화 연락(카톡 포함)만 하고 있다	양가 친척 등을 통해 소식만 전해 듣는다	연락을 원하지 않아서 연락하지 않는다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전혀 연락이 닿지 않는다	기타	합계(n)	$\chi^2(df)$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10.6	22.3	10.9	1.8	33.3	21.1	-	100.0(370)	51.377(12)***
초등학생	6.4	21.7	14.1	2.3	38.6	16.7	0.3	100.0(1,161)	
중학생 이상	4.1	18.2	12.2	2.4	43.2	18.8	1.0	100.0(1,420)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7.2	20.2	13.3	3.0	41.0	14.6	0.7	100.0(1,297)	84.205(18)***
임시/일용근로자	4.7	17.8	11.5	1.9	43.0	20.4	0.7	100.0(783)	
자영업/무급가족	3.5	25.1	17.2	2.3	38.4	13.6	0.0	100.0(378)	
비취업	5.5	19.6	10.1	1.0	35.0	28.1	0.7	100.0(493)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5.3	19.6	12.0	2.1	39.5	20.6	0.9	100.0(1,992)	34.99(6)***
일반 가구	6.7	21.1	14.5	2.7	41.5	13.3	0.0	100.0(959)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	24.5	14.0	-	36.6	24.9	-	100.0(19)	81.98(18)***
100~200만원 미만	2.7	17.7	8.7	2.2	41.3	26.6	0.8	100.0(562)	
200~300만원 미만	4.6	20.7	11.9	2.0	41.8	18.2	0.8	100.0(1,099)	
300만원 이상	8.3	20.5	15.4	2.7	38.3	14.5	0.3	100.0(1,272)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8.4	25.3	15.0	2.2	35.8	13.1	0.3	100.0(1,248)	176.017(12)***
5~10년 미만	4.3	19.0	12.8	2.7	42.3	18.7	0.3	100.0(1,179)	
10년 이상	2.8	10.2	7.7	1.6	45.9	29.6	2.1	100.0(524)	

주: *p<.05,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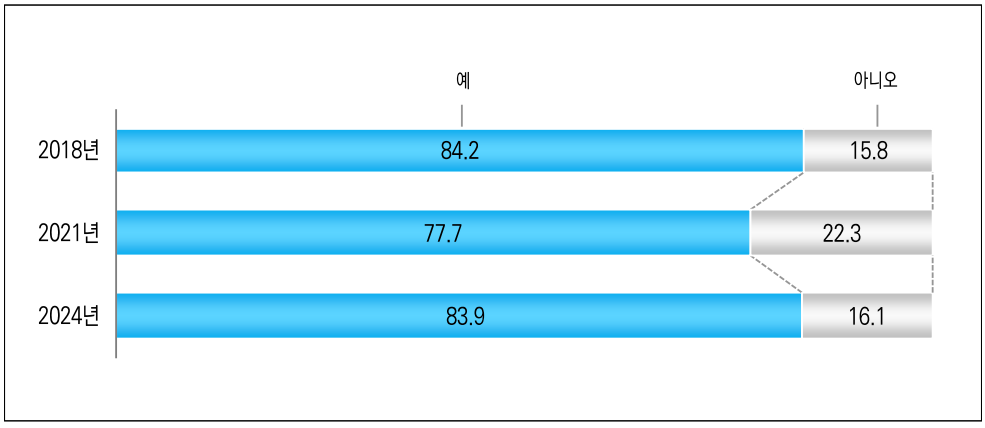
5. 경제활동

가. 직업현황

1) 취업여부

[그림 Ⅱ-5-1]에서는 응답자들의 전반적인 취업상태를 제시하였다.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서는 '지난 1주일을 기준으로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했거나 돈을 받지 않고 동일 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나 농장 등에서 주 18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경우'를 취업한 것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조사 당시 취업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한부모들은 83.9%로 한부모 10명 중 8명 이상은 취업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수치는 2023년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제시된 15~64세 인구의 고용률(69.2%)이나 30~39세(78.9%), 40~49세 인구의 고용률(78.6%)에 비해 높은 수치이며(통계청, 2024b, 2018년 조사(84.2%)에 비해서는 0.3%p 낮지만 2021년 조사(77.7%)에 비해서는 6.2%p 높은 수치이다. 코로나19가 2019년 말부터 전세계를 휩쓸었음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면 2021년 조사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상당했을 것이며, 2024년 조사에서는 그 이전과 유사한 양상으로 회귀한 것으로 판단된다.

(단위: %, 2018년: n=2,500, 2021년: n=3,300, 2024년: n=3,315)



[그림 Ⅱ-5-1] 취업 여부

〈표 Ⅱ-5-1〉를 통해 한부모들의 연령, 학력, 가구구성, 정부지원 유형 등의 차이에 따른 취업 여부를 살펴보았다. 앞서 제시된 바와 같이 조사된 응답자들의 83.9%가 취업 중인 가운데 연령대별로 나누어 살폈을 때는 40대 응답자 가운데 87.0%가 일을 하고

있다고 해 30대 이하(80.0%)나 50대 이상(79.4%) 응답자에 비해 취업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 중이라는 비율이 높았는데 중졸 이하와 고졸 이하의 경우 각각 68.4%와 79.6%가 취업 중이었고, 대학 이상 학력을 가진 응답자는 10명 중 9명가량(89.5%)이 취업 상태에 있었다. 혼인 상태에 따라서는 이혼(84.9%) 상태인 응답자에 비해 사별(89.7%)인 응답자들이 취업 중일 가능성이 높았고 이혼 또는 사별 이외의 상태인 한부모 가운데는 56.3%가 취업자였다.

가구 구성에 따라서는 모자가구에 비해 부자가구의 취업자 비율이 높았는데 모자가구와 모자+기타 가구의 경우 각각 80.6%와 78.2%로 80% 안팎으로 나타난 반면 부자가구(90.7%)와 부자+기타 가구(95.2%)의 경우 10명 중 9명 이상이 취업자였다. 가장 어린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막내 자녀가 미취학인 경우(74.3%) 초등학생(83.3%)이나 중학생 이상(86.6%)인 경우에 비해 취업자 비율이 낮았다.

정부지원 유형이나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저소득 지원가구(77.0%)에 비해 정부지원이 없는 일반가구(97.2%)가 취업 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취업자의 비율이 높았다(100만원 미만(9.4%) 〈 300만원 이상(97.0%)). 한부모가 된 기간별로 나누어 살폈을 때는 5년 미만(84.6%)이나 5~10년 미만(86.4%)에 속하는 응답자들에 비해 10년 이상 가구(76.4%)의 응답자들이 취업 중일 가능성이 낮았다.

〈표 Ⅱ-5-1〉 취업 여부

(단위: %,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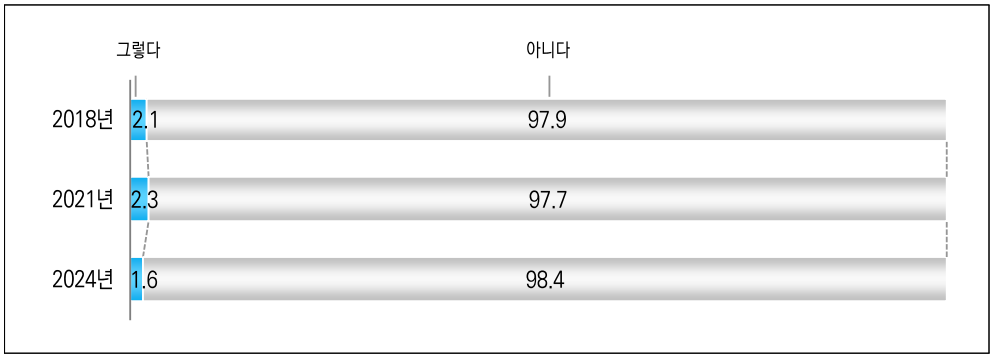
	그렇다	아니다	합계(n)	$\chi^2(df)$
전 체	83.9	16.1	100.0(3,315)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80.0	20.0	100.0(846)	31.456(2)***
40대	87.0	13.0	100.0(1,895)	
50대 이상	79.4	20.6	100.0(575)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68.4	31.6	100.0(101)	8.307(2)*
고졸 이하	79.6	20.4	100.0(1,666)	
대학 이상	89.5	10.5	100.0(1,548)	
혼인 상태				
이혼	84.9	15.1	100.0(2,793)	111.441(2)***
사별	89.7	10.3	100.0(345)	
기타	56.3	43.7	100.0(178)	
가구 구성				
모자	80.6	19.4	100.0(1,773)	
모자+기타	78.2	21.8	100.0(503)	84.8(3)***
부자	90.7	9.3	100.0(674)	
부자+기타	95.2	4.8	100.0(365)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74.3	25.7	100.0(392)	35.18(2)***
초등학생	83.3	16.7	100.0(1,281)	
중학생 이상	86.6	13.4	100.0(1,642)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77.0	23.0	100.0(2,184)	224.249(1)***
일반 가구	97.2	2.8	100.0(1,131)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9.4	90.6	100.0(24)	
100~200만원 미만	49.2	50.8	100.0(619)	851.846(3)***
200~300만원 미만	87.3	12.7	100.0(1,210)	
300만원 이상	97.0	3.0	100.0(1,462)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84.6	15.4	100.0(1,415)	30.95(2)***
5~10년 미만	86.4	13.6	100.0(1,328)	
10년 이상	76.4	23.6	100.0(572)	

주: *p<.05, ***p<.001

2) 부업 여부

조사대상자의 83.9%에 해당하는 취업 중인 이들(2,781명)을 대상으로 부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취업 중인 한부모의 1.6%만 부업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2018년 조사(2.1%)나 2018년 조사 결과(2.3%)에 비해 약간 낮은 비율이다.

(단위: %, 2018년: n=2,106, 2021년: n=2,565, 2024년: n=2,781)



[그림 Ⅱ-5-2] 부업 여부

한부모 가구의 특성별로 나누어 부업 여부를 살펴보면 학력에 따라서는 중졸 이하(5.2%)가 고졸 이하(1.3%)나 대학 이상(1.6%)의 학력을 가진 취업 중인 한부모들에 비해 부업을 하고 있다는 비율이 높았다. 정부지원 유형별로는 저소득 지원 가구(2.1%)가 일반 가구(0.8%)에 비해 부업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Ⅱ-5-2〉 부업 여부

(단위: %,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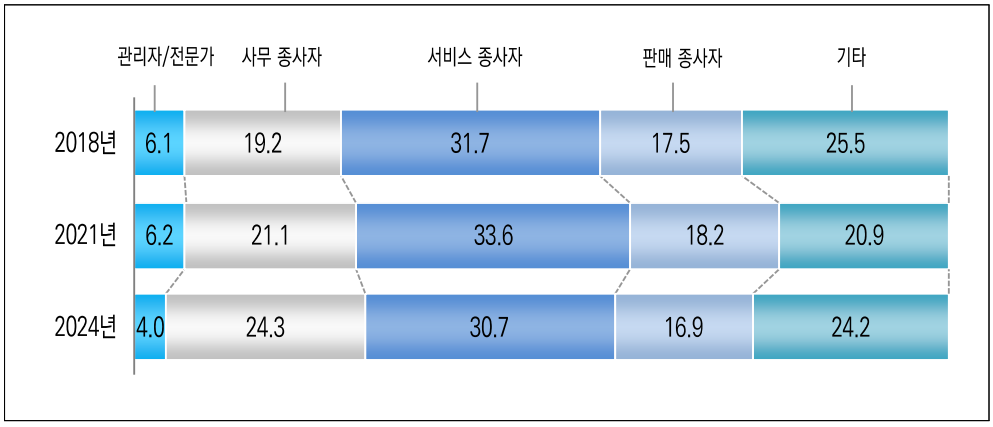
	그렇다	아니다	합계(n)	$\chi^2(df)$
전 체	1.6	98.4	100.0(2,781)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5.2	94.8	100.0(69)	338.883(8)***
고졸 이하	1.3	98.7	100.0(1,327)	
대학 이상	1.6	98.4	100.0(1,385)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2.1	97.9	100.0(1,682)	6.798(1)**
일반 가구	0.8	99.2	100.0(1,100)	

주: **p<.01, ***p<.001

3) 직종 및 종사상 지위

취업 중인 이들의 직종과 종사상 지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취업자인 응답자들(n=2,781) 가운데 현재 하고 있는 일(직종)은 10가지 보기항목(①관리자, ②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③사무 종사자, ④서비스 종사자, ⑤판매 종사자, ⑥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⑦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⑧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단순노무 종사자, ⑩그 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설계하였는데 응답결과 서비스 종사자(30.7%)가 가장 많았고, 사무종사자(24.3%), 판매 종사자(18.6%), 관리자/전문가(4.0%)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2018년과 2021년 조사결과와 비교했을 때 취업 중인 한부모들의 직종 구성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단위: %, 2018년: n=2,106, 2021년: n=2,565, 2024년: n=2,781)



[그림 Ⅱ-5-3] 한부모가 하는 일(직종)

〈표 Ⅱ-5-3〉은 취업 중이라고 응답한 이들의 직종을 가구의 특성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구분한 5가지의 직종 범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연령대별로는 관리자/전문가, 사무 종사자, 판매 종사자 비율 모두 30대 이하〉40대〉50대 이상의 순이었다. 역으로 그 외의 직종을 합친 기타의 경우 50대 이상〉40대〉30대 이하 순이었다.

취업 중인 이들 중 30대 이하는 서비스 종사자가 32.9%, 사무 종사자는 29.2%를 차지하였다, 이들 중 18.3%는 판매 종사자였으며, 관리자/전문가는 5.0%로 나타났다. 한부모 가운데 50대 취업자의 직종 구성을 살펴보면 서비스 종사자가 28.1%를 차지하였고, 판매 종사자와 사무 종사자는 각각 15.1%와 13.1%로 40대 이하에 비해 사무 종사자의

비율이 특히 낮았다. 이들 중 관리자/전문가의 비율은 2.9%로 이 또한 40대 이하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학력에 따라서는 중졸 이하의 경우 서비스 종사자(36.9%)나 기타(45.0%)에 속하는 비율이 상당했고,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취업자들은 사무 종사자(35.6%)나 관리직/전문가(6.9%)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모자가구와 부자가구를 비교해 보았을 때 모자가구의 경우 서비스 종사자의 비율(38.1%)이 부자가구(14.1%)에 비해 2.7배 정도 높았으며, 판매 종사자의 비율 또한 상대적으로 높았다(21.3%와 11.8%). 부자가구는 관지라/전문가의 비율(5.3%)이 모자가구(3.0%)에 비해 약간 높았으며, 이들 네 가지 외의 직종(기타)에 종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Ⅱ-5-3〉 한부모가 하는 일(직종)

(단위: %, 가구)

	관리자 및 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기타	합계(n)	$\chi^2(df)$
전 체	4.0	24.3	30.7	16.9	24.2	100.0(2,781)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5.0	29.2	32.9	18.3	14.5	100.0(677)	116.677(8)***
40대	3.8	25.3	30.5	16.9	23.5	100.0(1,648)	
50대 이상	2.9	13.1	28.1	15.1	40.8	100.0(456)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	5.2	36.9	12.9	45.0	100.0(69)	80.674(8)***
고졸 이하	1.1	13.4	34.8	17.5	33.2	100.0(1,327)	
대학 이상	6.9	35.6	26.4	16.6	14.4	100.0(1,385)	
가구 구성							
모자	3.0	23.6	38.1	21.3	14.0	100.0(1,429)	
모자+기타	7.2	25.0	39.0	17.4	11.3	100.0(393)	425.958(12)***
부자	5.3	22.6	14.1	11.8	46.1	100.0(611)	
부자+기타	1.7	29.0	20.1	7.5	41.7	100.0(348)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5.9	28.7	31.4	19.1	14.9	100.0(291)	38.786(8)***
초등학생	4.3	27.2	31.2	15.2	22.1	100.0(1,068)	
중학생 이상	3.3	21.2	30.2	17.7	27.6	100.0(1,422)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4.8	40.4	23.0	10.2	21.6	100.0(1,483)	612.266(8)***
임시/일용근로자	1.2	7.1	39.3	18.9	33.5	100.0(858)	
자영업/무급가족	6.3	3.6	40.0	35.7	14.4	100.0(4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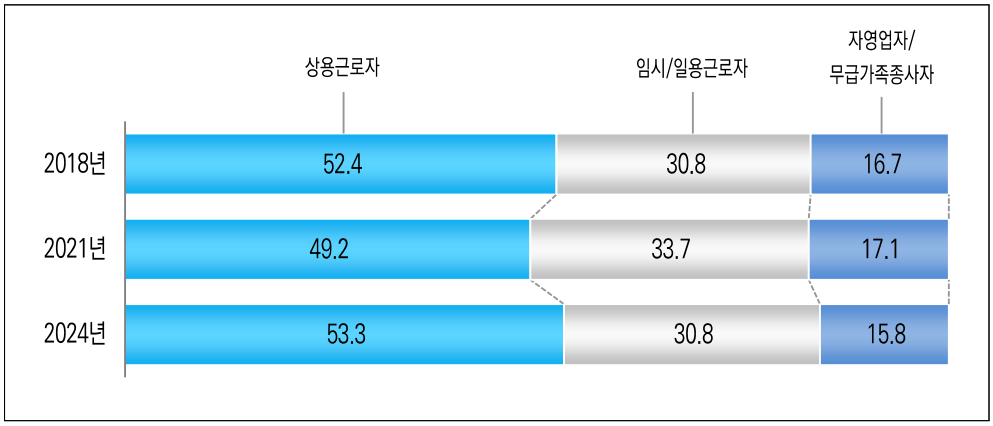
	관리자 및 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기타	합계(n)	$\chi^2(df)$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3.0	18.1	37.1	16.8	25.0	100.0(1,682)	134.3(4)***
일반 가구	5.4	33.7	20.9	17.0	22.9	100.0(1,100)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	4.8	32.1	-	63.0	100.0(2)	
100~200만원 미만	1.1	8.1	37.7	16.0	37.1	100.0(304)	173.77(12)***
200~300만원 미만	3.1	17.8	37.3	18.7	23.2	100.0(1,057)	
300만원 이상	5.2	32.6	24.3	15.8	22.0	100.0(1,418)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4.8	26.8	30.4	18.8	19.3	100.0(1,197)	36.537(8)***
5~10년 미만	3.7	22.1	30.6	15.4	28.2	100.0(1,148)	
10년 이상	2.3	23.1	31.8	15.8	26.9	100.0(436)	

주: ***p<.001

일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한부모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절반을 약간 웃도는 53.3%가 상용근로자로 집계되었다. 임시/일용근로자가 30.7%로 뒤를 이었고,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는 15.8%를 차지하였다.

2024년 조사결과를 2018년 및 2021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상용근로자의 비율(53.3%)이 2018년(52.4%)에 비해서는 0.9%p, 2021년(49.2%)에 비해서는 4.1%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일용근로자의 비율(30.8%)은 2018년과는 동일한 수준이었고, 2021년(33.7%)에 비해서는 2.9%p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종사상 지위를 나타내는 통계치는 2018년과는 상당히 유사하고, 2021년에 비해서는 양호해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등 코로나19의 충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자 그 영향이 한부모가족의 일자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단위: %, 2018년: n=2,106, 2021년: n=2,565, 2024년: n=2,781)



[그림 Ⅱ-5-4] 종사상 지위

취업 중인 한부모들의 종사상 지위를 가구 또는 한부모의 특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상용근로자는 30대 이하(56.4%), 대학 이상의 교육수준(60.8%)일 경우에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 구성에 따라서는 모자 또는 모자+기타가구의 경우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각각 47.6%와 54.1%로 나타났으며, 부자가구(59.1%)나 부자+기타가구(65.9%)는 그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가장 어린자녀의 연령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취업자 가운데는 자녀가 미취학(57.6%), 초등학생(55.9%)인 경우에 중학생 이상(50.5%)에 비해 상용 근로자의 비율이 높았다. 정부지원 유형별로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일반 가구의 경우 2/3(66.7%)가 상용 근로자로 저소득 지원 가구(44.6%)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임시/일용근로자는 50대 이상(33.3%), 고졸 이하(38.4%) 또는 중졸 이하(39.8%), 모자가구(37.6%), 저소득 지원 가구(42.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는 50대 이상(20.0%), 부자가구(18.0%),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일반 가구인 경우(19.9%)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이들도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20.8%)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Ⅱ-5-4〉 종사상 지위

(단위: %, 가구)

	상용 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자영업/무급가족 종사자	합계(n)	$\chi^2(df)$
전 체	53.3	30.8	15.8	100.0(2,781)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56.4	30.4	13.2	100.0(677)	14.183(4)**
40대	53.9	30.4	15.7	100.0(1,648)	
50대 이상	46.7	33.3	20.0	100.0(456)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40.0	39.8	20.2	100.0(69)	198.387(2)***
고졸 이하	46.3	38.4	15.3	100.0(1,327)	
대학 이상	60.8	23.2	16.1	100.0(1,385)	
혼인 상태					
이혼	53.2	31.7	15.1	100.0(2,372)	18.017(4)**
사별	57.9	22.3	19.8	100.0(309)	
기타	42.4	36.1	21.4	100.0(100)	
가구 구성					
모자	47.6	37.6	14.8	100.0(1,429)	
모자+기타	54.1	29.4	16.5	100.0(393)	75.997(6)***
부자	59.1	23.0	18.0	100.0(611)	
부자+기타	65.9	18.7	15.3	100.0(348)	

	상용 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자영업/무급가족 종사자	합계(n)	$\chi^2(df)$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57.6	31.3	11.1	100.0(291)	22.317(4)***
초등학생	55.9	31.0	13.1	100.0(1,068)	
중학생 이상	50.5	30.6	18.8	100.0(1,422)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44.6	42.2	13.2	100.0(1,682)	259.586(2)***
일반 가구	66.7	13.4	19.9	100.0(1,100)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	100.0	-	100.0(2)	531.071(6)***
100~200만원 미만	17.6	72.6	9.8	100.0(304)	
200~300만원 미만	46.9	42.2	10.9	100.0(1,057)	
300만원 이상	65.9	13.3	20.8	100.0(1,418)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54.9	30.5	14.6	100.0(1,197)	9.941(4)*
5~10년 미만	54.1	29.4	16.5	100.0(1,148)	
10년 이상	47.1	35.5	17.5	100.0(436)	

주: *p<.05, **p<.01, ***p<.001

참고로 「경제활동인구조사」[16]를 통해 종사상 지위별로 취업자(28,416천명)의 분포를 살펴보면 202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취업자의 56.9%(16,170천명)는 상용근로자였으며, 19.9%(5,659천명)는 임시/일용근로자였다. 이와 함께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는 23.2%(6,588천명)를 차지하고 있었다(통계청, 2024c).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서는 상용근로자가 53.3%를, 임시/일용근로자와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는 각각 30.8%를 15.8%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취업 중인 한부모의 경우 상용근로자(53.3%와 56.9%)와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23.2%와 15.8%)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고, 임시/일용근로자의 비율(19.9%와 30.8%)이 10%p 이상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취업 중인 한부모의 경우 불안정한 고용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Ⅱ-5-5〉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살펴본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단위: 천 명, %)

종사상 지위별	2018년	2021년	2023년
전체	26,822 (100.0)	27,273 (100.0)	28,416 (100.0)
상용근로자	13,772 (51.3)	14,887 (54.6)	16,170 (56.9)
임시/일용근로자	6,311 (23.5)	5,865 (21.5)	5,659 (19.9)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	6,739 (25.1)	6,520 (23.9)	6,588 (23.2)

주: ( )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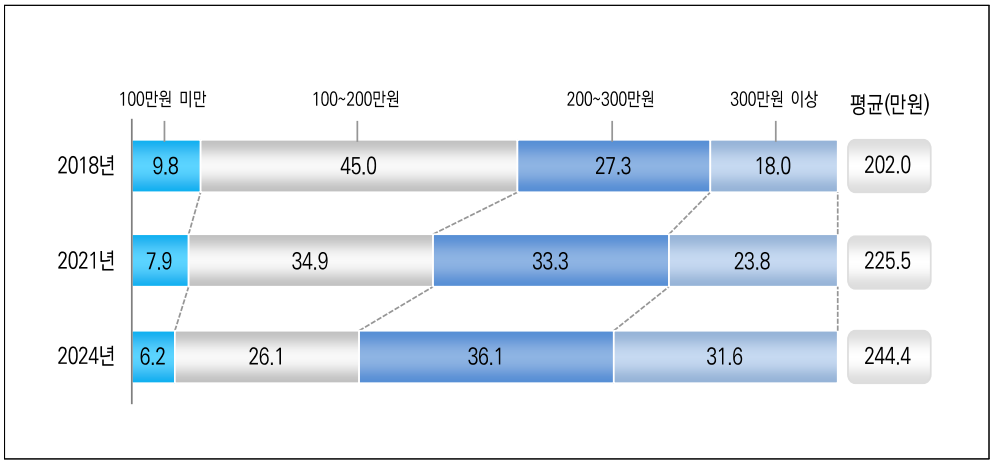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24c).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10S&conn_path=I3

16) 통계청(2024t).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10S&conn_path=I3

4) 근로·사업소득

현재 취업 중이라고 응답한 한부모의 월평균 근로·사업소득액의 평균은 244.4만원이었다. 이를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에 속한 비율은 6.2%, 100~200만원 미만에는 26.1%, 200만원~300만원 범주에는 36.1%가 속해 있었다. 월평균 근로·사업소득이 300만원 이상이라고 한 취업자는 31.6%를 차지하였다. 이전의 두 차례 조사(2018년과 2021년)에서의 평균 근로·사업소득은 각각 202.0만원과 225.5만원이었는데 2018년과 비교했을 때는 42.4만원, 2021년에 비해서는 18.9만원 높은 금액이었다.

(단위: %, 2018년: n=2,106, 2021년: n=2,565, 2024년: n=2,781)



[그림 Ⅱ-5-5] 월평균 근로·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의 평균은 한부모의 연령별, 학력별, 성별, 가구유형별 차이가 비교적 선명하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0대 이하의 취업자는 평균 222.1만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40대(251.3만원)나 50대 이상(252.3만원) 취업자의 월평균 근로·사업소득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가 평균 185.4만원이었고, 고졸 이하와 대학 이상은 각각 220.2만원과 270.5만원으로 취업자 가운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근로·사업소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 구성별로는 모자가구는 208.5만원, 모자+기타가구는 224.2만원임에 비해 부자가구는 302.8만원, 부자+기타가구는 312.1만원으로 평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성 한부모 취업자에 비해 남성 한부모 취업자의 근로·사업소득이 높았다.

종사상 지위에 따라서는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306.8만원) 또는 상용직(272.9만원)의 근로·사업소득이 높았고,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일반 가구가 저소득 지원 가구 취업자의 월평균 근로·사업소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한부모가 된 기간에 따라서는 5년 미만(243.5만원)이나 5~10년 미만(252.3만원)에 속한 응답자들에 비해 10년 이상(225.9만원) 된 취업자들의 월평균 근로·사업소득이 낮게 나타났다.

〈표 Ⅱ-5-6〉 월평균 근로·사업소득

(단위: %, 가구)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이상	300만원 이상	합계(n)	평균(만원)	$F(df)$
전 체	6.2	26.1	36.1	31.6	100.0(2,781)	244.4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6.9	29.1	42.2	21.8	100.0(677)	222.1	16.167(2)***
40대	5.2	25.2	34.6	34.9	100.0(1,648)	251.3	
50대 이상	8.5	24.9	32.3	34.2	100.0(456)	252.3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11.0	50.2	29.5	9.3	100.0(69)	185.4	74.737(2)***
고졸 이하	8.4	29.8	38.9	22.9	100.0(1,327)	220.2	
대학 이상	3.8	21.4	33.7	41.1	100.0(1,385)	270.5	
혼인 상태							
이혼	5.9	26.3	36.8	31.0	100.0(2,372)	242.3	25.473(2)***
사별	5.4	20.7	30.6	43.3	100.0(309)	278.8	
기타	14.4	38.2	37.5	9.9	100.0(100)	188.0	
가구 구성							
모자	8.6	33.6	40.2	17.6	100.0(1,429)	208.5	160.096(3)***
모자+기타	7.0	30.6	44.6	17.9	100.0(393)	224.2	
부자	2.1	13.7	26.2	58.0	100.0(611)	302.8	
부자+기타	2.5	12.3	26.8	58.4	100.0(348)	3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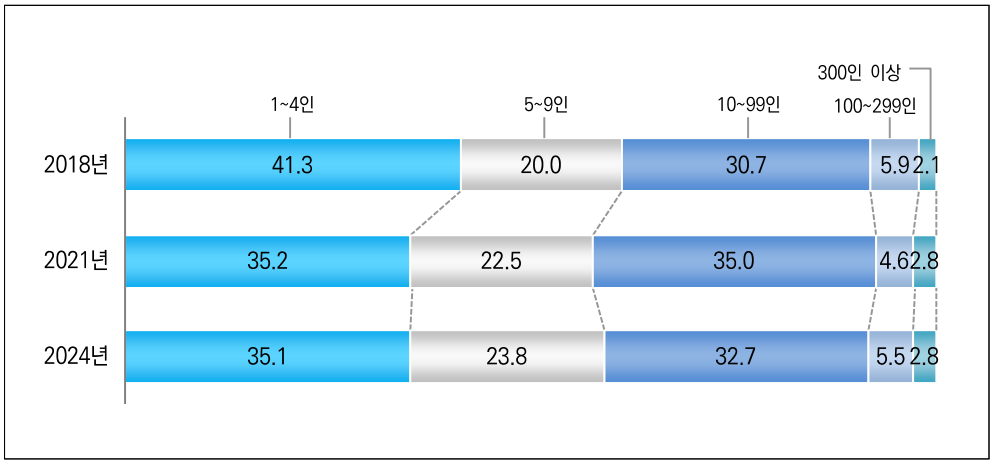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이상	300만원 이상	합계(n)	평균(만원)	$F(df)$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7.5	22.2	49.3	21.0	100.0(291)	231.6	10.102(2)***
초등학생	6.5	28.9	34.4	30.2	100.0(1,068)	234.9	
중학생 이상	5.7	24.8	34.7	34.8	100.0(1,422)	254.1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0.9	16.0	43.2	39.9	100.0(1,483)	272.9	399.622(2)***
임시/일용근로자	16.3	48.4	28.8	6.4	100.0(858)	163.0	
자영업/무급가족	4.2	16.7	26.4	52.7	100.0(440)	306.8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10.0	39.1	41.6	9.3	100.0(1,682)	188.3	1476.513(1)***
일반 가구	0.4	6.3	27.7	65.7	100.0(1,100)	330.1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100.0	-	-	-	100.0(2)	38.8	692.122(3)***
100~200만원 미만	25.7	74.3	-	-	100.0(304)	114.9	
200~300만원 미만	6.7	39.0	54.3	-	100.0(1,057)	184.6	
300만원 이상	1.5	6.3	30.3	62.0	100.0(1,418)	317.1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6.1	23.4	38.5	32.0	100.0(1,197)	243.5	8.072(2)***
5~10년 미만	5.8	26.5	33.9	33.8	100.0(1,148)	252.3	
10년 이상	7.6	32.5	35.2	24.8	100.0(436)	225.9	

주: ***p<.001

5) 현재 직장 종사자 수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사업체)의 종사자 수를 살펴보았다. 2024년 조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종사자 수가 1~4인 규모의 직장에 재직 중인 비율이 1/3 이상(35.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10~99인 규모에 재직 중인 비율이 32.7%로 뒤를 이었고, 5~9인과 100~299인은 각각 23.8%와 5.5%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대기업에 재직 중이라는 응답은 2.8%였다. 비임금근로자도 포함된 분석 결과이긴 하나 취업 중인 한부모의 60%가량(58.9%)은 10인 미만의 사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 등 이들의 대다수가 소규모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8년 및 2021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이들의 비율은 감소하였고, 100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비율은 이전의 조사결과에 비해 약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2018년: n=2,106, 2021년: n=2,565, 2024년: n=2,781)



[그림 Ⅱ-5-6] 현재 직장 종사자 수

현재 근로를 하고 있다고 한 응답자들의 특성별로 재직 중인 직장의 종사자 수를 살펴보았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5인 미만 사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은 30대 이하(32.4%)나 40대(34.7%)에 비해 50대 이상(40.8%)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3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에 재직 중인 비율은 50대 이상(2.5%), 40대(2.1%) 취업자들에 비해 30대 이하(4.8%) 취업자들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대학 이상(29.9%)에 비해 중졸 이하(40.4%), 고졸 이하(40.3%)인 취업자들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10%p 이상 높았으며, 300인 이상

사업체에 재직 중인 비율은 대학 이상(3.8%)인 취업자들이 가장 높았다. 가장 어린자녀의 연령대로 구분해 보았을 때 막내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5인 미만 규모의 사업체 재직 중인 비율이 높고,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비율은 낮았다.

상용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절반 정도(50.1%)는 10-99인 규모에 재직 중이었고,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비율이 35.3%를 차지했다. 근로여건이나 급여 수준 등이 상대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판단되는 1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에서 근로 중인 비율은 상용근로자 가운데 14.6% 정도로 집계되었다. 자영업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의 형태로 일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의 직장 종사자 수 분포를 살펴보면 10명 중 9명 이상(90.2%)은 5인 미만 규모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어 사업의 규모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

〈표 Ⅱ-5-7〉 한부모 직장 종사자 수

(단위: %, 가구)

	1~4인	5~9인	1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합계(n)	$\chi^2(df)$
전 체	35.1	23.8	32.7	5.5	2.8	100.0(2,781)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32.4	26.0	32.6	4.2	4.8	100.0(677)	28.435(8)***
40대	34.7	23.7	33.0	6.5	2.1	100.0(1,648)	
50대 이상	40.8	21.1	32.0	3.7	2.5	100.0(456)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40.4	27.7	27.8	1.6	2.6	100.0(69)	91.427(12)***
고졸 이하	40.3	25.7	29.3	3.0	1.8	100.0(1,327)	
대학 이상	29.9	21.9	36.3	8.1	3.8	100.0(1,385)	
혼인 상태							
이혼	35.2	24.5	32.5	5.3	2.5	100.0(2,372)	29.064(8)***
사별	34.3	17.5	34.0	8.4	5.8	100.0(309)	
기타	36.6	27.6	34.7	1.1	-	100.0(100)	
가구 구성							
모자	38.0	28.6	28.5	3.4	1.5	100.0(1,429)	
모자+기타	35.0	25.4	29.7	5.9	4.0	100.0(393)	140.56(12)***
부자	32.7	18.6	34.9	9.5	4.4	100.0(611)	
부자+기타	28.0	11.7	49.6	6.6	4.1	100.0(3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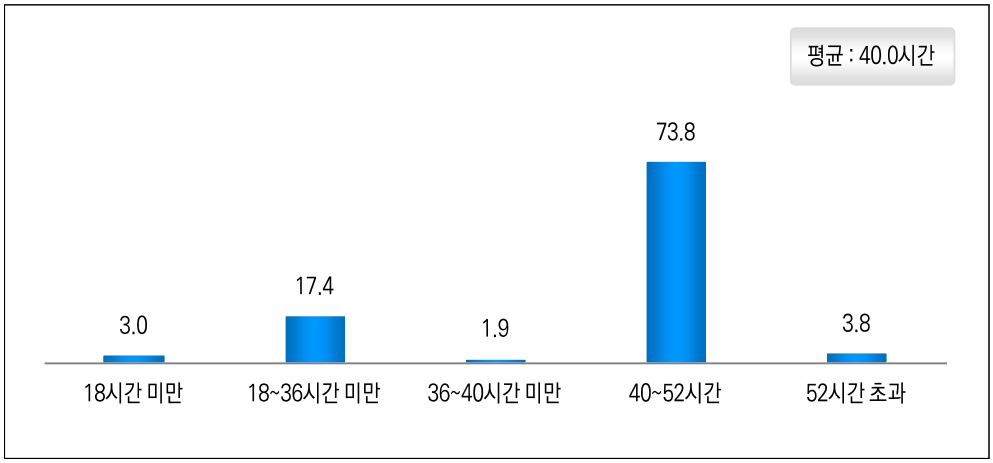
	1~4인	5~9인	1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합계(n)	$\chi^2(df)$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29.7	25.6	35.5	4.1	5.2	100.0(291)	16.263(8)*
초등학생	34.2	22.7	34.4	6.0	2.7	100.0(1,068)	
중학생 이상	37.0	24.3	30.9	5.4	2.4	100.0(1,422)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12.1	23.2	50.1	9.5	5.1	100.0(1,483)	1200.749(8)***
임시/일용근로자	46.8	34.0	17.7	1.3	0.3	100.0(858)	
자영업/무급가족	90.2	6.1	3.5	0.2	-	100.0(440)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40.2	27.9	27.3	3.0	1.6	100.0(1,682)	169.451(4)***
일반 가구	27.4	17.6	41.0	9.3	4.7	100.0(1,100)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67.9	32.1	-	-	-	100.0(2)	266.509(12)***
100~200만원 미만	58.7	27.5	13.4	0.3	-	100.0(304)	
200~300만원 미만	37.0	30.8	27.8	3.4	0.9	100.0(1,057)	
300만원 이상	28.6	17.8	40.6	8.1	4.8	100.0(1,418)	

주: *p<.05, ***p<.001

6) 근로시간

근로를 하고 있는 한부모들의 근로시간을 "일 주일 평균 □□시간"의 형태로 응답하도록 문항을 설계하여 집계한 결과 주 평균 근로시간은 40.0시간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응답을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 각각의 비율을 살펴보면 취업자 4명 중 3명가량(73.8%)은 50-52시간 범주에 속해 있었으며, 18~36시간 범주에 속한 비율이 17.4%로 뒤를 이었다. 주당 52시간을 넘게 근로를 하고 있다는 취업자의 비율은 3.8%였고, 3.0%는 18시간 미만 근로를 하고 있었다.

(단위: 시간, n=2,781)



[그림 Ⅱ-5-7] 주당 실 근로시간: 주업

취업 중인 한부모의 특성별로 주당 실 근로시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36.9시간) 〈 고졸 이하(39.5시간) 〈 대학 이상(40.6시간) 순으로 평균 주당 실 근로시간이 길었다. 근로시간 범주에 따라서는 중졸 이하의 취업자는 18~36시간 미만 범주에 속한 비율(30.4%)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40~52시간 범주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중졸 이하: 55.5%, 고졸 이하: 68.6%, 대학 이상: 79.8%).

가구 구성에 따라서는 모자가구(38.3시간)이나 모자+기타가구(39.6시간)의 평균이 부자가구(42.2시간) 및 부자+기타가구(43.4시간)의 평균에 비해 짧은 가운데 모자 또는 모자+기타가구에 속한 취업자들은 18~36시간 미만 범주에 속해 있는 비율이 20%를 넘어 부자 또는 부자+기타가구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반면, 40~52시간 또는 주당 52시간을 넘게 일한다는 취업자의 비율은 모자, 모자+기타가구에 비해 부자 또는

부자+기타가구가 높게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에 따라서는 상용근로자의 경우 대다수(90.6%)가 40~52시간 사이에 속해 있었고 이들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1.6시간이었다. 임시/일용근로자는 주당 평균 34.1시간 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고, 40~52시간 범주에 45.3%가, 18~36시간 범주에는 39.1%가 분포되어 있었다. 임시/일용근로자 가운데 8.6%는 주당 근로시간이 18시간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 가운데는 52시간 넘게 근로를 한다는 비율이 11.8%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73.1%는 40~52시간 범주에 속해 있었고, 18~36시간 미만 근로를 하고 있다는 비율은 12.6%였다.

〈표 Ⅱ-5-8〉 주당 실 근로시간: 주업

(단위: %,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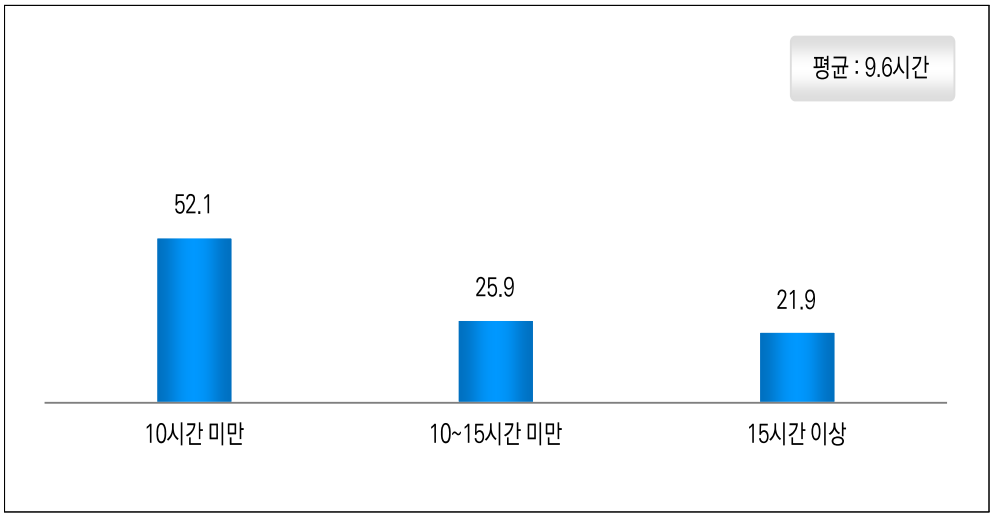
	18시간 미만	18~36시간 미만	36~40시간 미만	40~52시간	52시간 초과	합계(n)	평균 (시간)	$F(df)$
전 체	3.0	17.4	1.9	73.8	3.8	100.0(2,781)	40.0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3.3	30.4	7.0	55.5	3.7	100.0(69)	36.9	7.156(2)***
고졸 이하	4.3	20.1	2.0	68.6	5.0	100.0(1,327)	39.5	
대학 이상	1.8	14.2	1.6	79.8	2.7	100.0(1,385)	40.6	
혼인 상태								
이혼	2.7	17.8	2.0	73.8	3.6	100.0(2,372)	39.9	12.698(2)***
사별	2.5	10.9	1.4	79.7	5.4	100.0(309)	41.6	
기타	11.6	28.6	1.6	56.0	2.2	100.0(100)	35.8	
가구 구성								
모자	4.2	21.4	2.6	69.3	2.4	100.0(1,429)	38.3	
모자+기타	2.0	23.3	1.4	71.1	2.3	100.0(393)	39.6	36.913(3)***
부자	1.4	9.9	0.8	82.8	5.1	100.0(611)	42.2	
부자+기타	2.0	7.6	1.7	79.7	9.0	100.0(348)	43.4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3.4	18.0	2.5	71.8	4.2	100.0(291)	40.2	4.517(2)*
초등학생	2.5	20.3	2.2	71.6	3.4	100.0(1,068)	39.3	
중학생 이상	3.3	15.1	1.6	76.0	4.0	100.0(1,422)	40.5	

	18시간 미만	18~36시간 미만	36~40시간 미만	40~52시간	52시간 초과	합계(n)	평균 (시간)	$F(df)$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0.3	6.4	0.6	90.6	2.2	100.0(1,483)	41.6	284.06(2)***
임시/일용근로자	8.6	39.1	4.5	45.3	2.5	100.0(858)	34.1	
자영업/무급가족	1.3	12.6	1.2	73.1	11.8	100.0(440)	45.8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4.8	25.9	2.6	63.2	3.4	100.0(1,682)	37.8	223.317(1)***
일반 가구	0.2	4.4	0.9	90.1	4.4	100.0(1,100)	43.4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95.2	4.8	-	-	-	100.0(2)	8.0	
100~200만원 미만	12.9	57.8	3.6	24.5	1.2	100.0(304)	29.2	220.697(3)***
200~300만원 미만	3.4	22.1	2.7	68.1	3.6	100.0(1,057)	38.7	
300만원 이상	0.4	5.3	1.0	88.9	4.4	100.0(1,418)	43.3	

주: *p<.05, ***p<.001

한편, 그 수가 많지는 않으나 부업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한부모들의 주당 실근로시간을 살펴보면 평균 9.6시간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중 52.1%는 10시간 미만 부업을 하고 있었으며, 10~15시간 미만에 속한 비율은 25.9%였다. 부업을 하고 있는 한부모 가운데 21.9%는 주당 15시간 이상 부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시간, n=44)



[그림 Ⅱ-5-8] 주당 실근로시간: 부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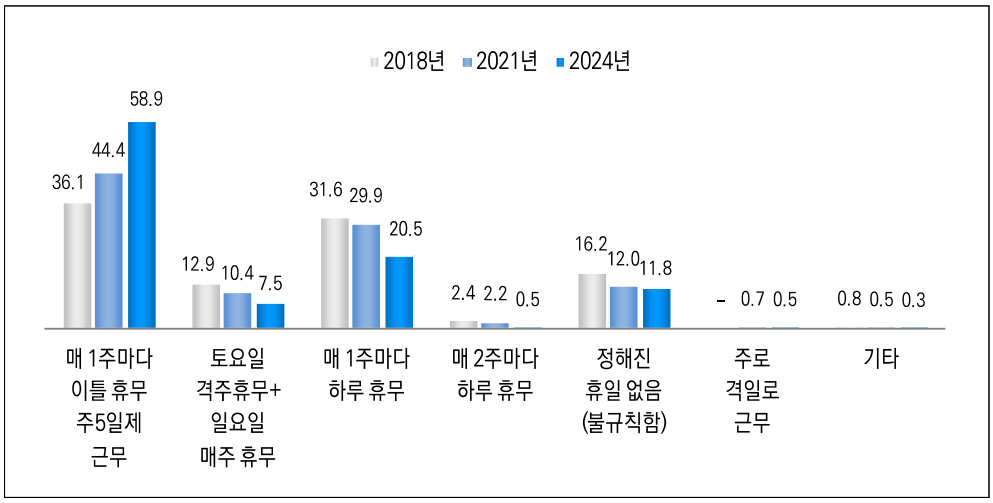
7) 일주일 중 휴무 일수

취업 상태에 있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몇 번이나 쉬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10명 중 6명가량(58.9%)은 '매 1주마다 이틀 휴무(주5일제 근무)'를 꼽았다. 매 1주마다 하루씩 쉰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20.5%였고, '정해진 휴일이 없음(불규칙함)'을 선택한 비율이 11.8%로 뒤를 이었다. 7.5%는 '토요일 격주 휴무+일요일 매주 휴무'의 형태로 근로를 하고 있었으며, 2주마다 하루를 쉰다는 비율과 주로 격일로 근무한다는 비율은 각각 0.5%였다.

2018년 및 2021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주5일제 근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 조사에서 꾸준히 늘었고, '매 1주마다 하루 휴무', '토요일 격주 휴무+일요일 매주 휴무' 등의 근로형태는 그만큼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2002년 첫 시행 이후 주 5일 근무제가 업종, 규모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중인 한부모의 경우 주 5일에 근무 중이라는 비율이 58.9%로 나타난 것은 이들의 근로여건이

비교적 덜 양호할 수 있음을 담고 있는 결과로 생각된다.

(단위: %, 2018년: n=2,106, 2021년: n=2,565, 2024년: n=2,781)



[그림 Ⅱ-5-9] 일주일 중 휴무 일수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휴무 일수에 대한 응답결과를 세분하여 살펴보면'매 1주마다 이틀 휴무(주5일제 근무)'를 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50대 이상(47.9%)에 비해 30대 이하(62.5%) 및 40대(60.4%)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학력에 따라서는 중졸 이하(44.5%)에 비해 고졸 이하(51.3%), 대학 이상(66.8%)과 같이 높은 정도의 학력 범주에 속한 응답자들에게서 해당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가장 어린자녀의 연령대별로는 미취학 아동(64.8%)이나 초등학생(62.3%)인 취업자가 중학생 이상(55.1%)에 비해 주5일제 근무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고, 종사상 지위에 따라서는 상용근로자(76.3%)가 임시/일용근로자(46.5%)나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24.4%)에 비해 주 5일제 근무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정해진 휴일 없이 불규칙'하게 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경우는 50대 이상(16.5%)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중졸 이하(19.6%), 임시/일용근로자(23.0%) 및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22.6%), 낮은 정도의 소득범주에 속해 있는 취업자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표 Ⅱ-5-9〉 일주일 중 휴무 일수

(단위: %, 가구)

	매 1주마다 이틀 휴무 (주5일제 근무)	토요일 격주 휴무 +일요일 매주 휴무	매 1주마다 하루 휴무	매 2주마다 하루 휴무	정해진 휴일 없음 (불규칙함)	주로 격일로 근무	기타	합계(n)	$\chi^2(df)$
전 체	58.9	7.5	20.5	0.5	11.8	0.5	0.3	100.0(2,781)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62.5	8.4	18.6	0.5	9.4	0.2	0.4	100.0(677)	42.325(12)***
40대	60.4	7.4	19.4	0.4	11.5	0.6	0.2	100.0(1,648)	
50대 이상	47.9	6.5	27.1	1.0	16.5	0.7	0.3	100.0(456)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44.5	6.0	29.0	-	19.6	-	1.0	100.0(69)	27.045(4)***
고졸 이하	51.3	7.8	23.9	0.6	15.4	0.7	0.2	100.0(1,327)	
대학 이상	66.8	7.3	16.7	0.5	8.0	0.4	0.3	100.0(1,385)	
혼인 상태									
이혼	58.7	7.6	21.0	0.5	11.5	0.6	0.2	100.0(2,372)	37.153(12)***
사별	61.7	7.4	19.0	0.8	10.0	0.1	0.9	100.0(309)	
기타	53.6	5.0	13.7	-	25.3	0.9	1.6	100.0(100)	
가구 구성									
모자	59.7	7.5	20.5	0.5	11.1	0.3	0.4	100.0(1,429)	
모자+기타	60.2	8.7	22.1	-	7.8	0.7	0.6	100.0(393)	41.379(18)**
부자	54.9	8.1	21.1	1.0	14.6	0.4	0.0	100.0(611)	
부자+기타	61.1	4.9	17.6	0.3	14.4	1.6	-	100.0(348)	

	매 1주마다 이틀 휴무 (주5일제 근무)	토요일 격주 휴무 +일요일 매주 휴무	매 1주마다 하루 휴무	매 2주마다 하루 휴무	정해진 휴일 없음 (불규칙함)	주로 격일로 근무	기타	합계(n)	$\chi^2(df)$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64.8	8.5	18.6	0.2	6.7	0.1	1.1	100.0(291)	45.909(12)***
초등학생	62.3	8.2	16.4	0.4	12.2	0.4	0.1	100.0(1,068)	
중학생 이상	55.1	6.7	24.0	0.7	12.5	0.7	0.3	100.0(1,422)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76.3	6.9	14.0	0.2	2.1	0.6	-	100.0(1,483)	632.905(12)***
임시/일용근로자	46.5	8.7	19.4	0.6	23.0	0.8	1.0	100.0(858)	
자영업/무급가족	24.4	7.2	44.3	1.5	22.6	-	-	100.0(440)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56.0	7.7	20.4	0.5	14.4	0.6	0.4	100.0(1,682)	35.042(6)***
일반 가구	63.3	7.3	20.6	0.5	7.7	0.5	0.1	100.0(1,100)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37.0	-	-	-	63.0	-	-	100.0(2)	144.716(18)***
100~200만원 미만	42.1	7.9	17.4	1.2	29.9	0.4	1.1	100.0(304)	
200~300만원 미만	59.3	7.9	19.3	0.3	12.4	0.6	0.2	100.0(1,057)	
300만원 이상	62.2	7.2	22.0	0.5	7.4	0.5	0.2	100.0(1,418)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60.9	8.7	20.2	0.5	9.1	0.2	0.3	100.0(1,197)	26.953(12)**
5~10년 미만	58.0	6.8	19.7	0.5	14.0	0.8	0.2	100.0(1,148)	
10년 이상	55.5	6.1	23.4	0.5	13.3	0.8	0.4	100.0(436)	

주: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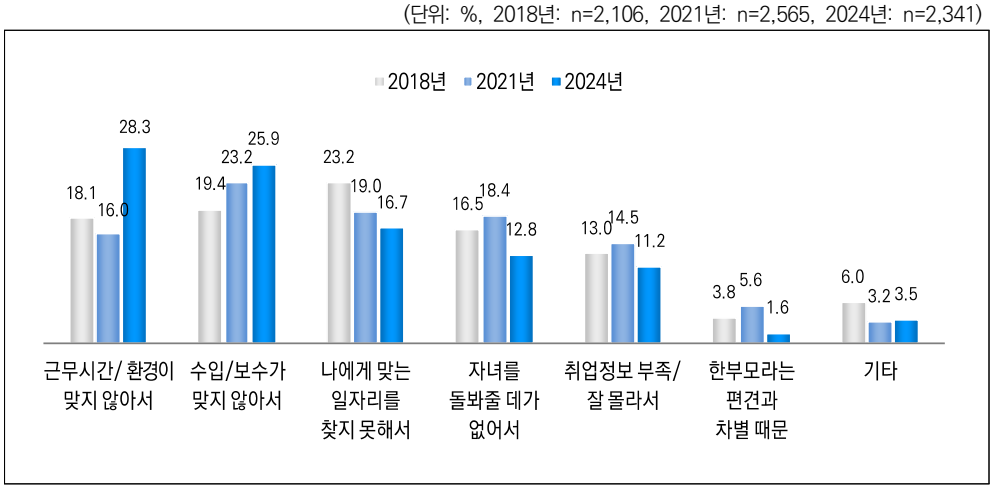
8) 일을 구할 때 및 일을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을 구할 때 느낀 어려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는 7가지 보기항목 가운데 하나를 꼽는 방식으로 설계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8.3%가 '근무시간/환경이 맞지 않아서'를 선택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수입이나 보수가 맞지 않아서(25.9%)'와 '나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16.7%)'가 뒤를 이었다. '자녀를 돌봐줄 데가 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율도 12.8%를 차지해 최근의 조사로 올수록 그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는 있지만 자녀돌봄이 취업의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11.2%는 '취업 정보가 부족하거나 잘 몰라서'를 선택하였으며, '한부모라는 편견과 차별 때문'이라는 응답비율은 1.6%로 이전의 조사에 비해 낮아졌다. 3.3%의 응답자들은 일을 구할 때 느낀 어려움이 없다고 하였다.

2018년과 2021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가장 많은 이들이 선택한 '근무시간/환경이 맞지 않아서'를 선택한 비율은 이전 조사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수입이나 보수가 맞지 않아서'를 꼽은 비율 또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나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나 '자녀를 돌봐줄 데가 없어서', '취업 정보가 부족하거나 잘 몰라서'를 선택한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비추어보면 이들의 돌봄 및 취업정보 획득 관련 어려움은 완화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근로조건이나 보수와 같은 부분까지도 함께 고려된 일자리의 발굴, 취업정보의 제공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이다.

(단위: %, 2018년: n=2,106, 2021년: n=2,565, 2024년: n=2,341)



주: 2024년부터는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에게만 질문

[그림 Ⅱ-5-10] 일을 구할 때 느낀 어려움

임금근로자들이 일을 구할 때 느낀 어려움에 대해 응답자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낮은 정도의 연령대에 속해 있거나 자녀가 어릴수록 일을 구하는 과정에서 '근무시간/환경이 맞지 않아서'를 꼽은 비율이 높았다. 반대로 높은 정도의 연령대에 속해 있거나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수입/보수가 맞지 않아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와 함께 한부모의 연령 또는 막내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를 돌봐줄 데가 없어서'를 선택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한부모의 연령 또는 막내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나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나 '취업정보 부족/잘 몰라서'를 꼽은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이를 염두에 두면 한부모의 연령대(및 막내자녀의 연령대)를 고려한 취업지원 전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학력에 따라서는 높은 정도의 학력 수준 범주에 속해 있는 응답자들은 '근무시간/환경이 맞지 않아서(중졸 이하: 20.4%, 고졸 이하: 26.5%, 대학 이상: 30.5%)'를 꼽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중졸 이하와 같이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의 학력을 가진 이들은 '수입/보수가 맞지 않아서(중졸 이하: 30.7%, 고졸 이하: 27.4%, 대학 이상: 24.2%)', '나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중졸 이하: 20.4%, 고졸 이하: 19.2%, 대학 이상: 14.2%)'를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이밖에 일을 구할 때 느낀 어려움이 없다고 한 비율은 높은 정도의 연령대에 속해 있거나 상용근로자, 한부모가 된 기간이 긴 범주에 속한 응답자들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Ⅱ-5-10〉 일을 구할 때 느낀 어려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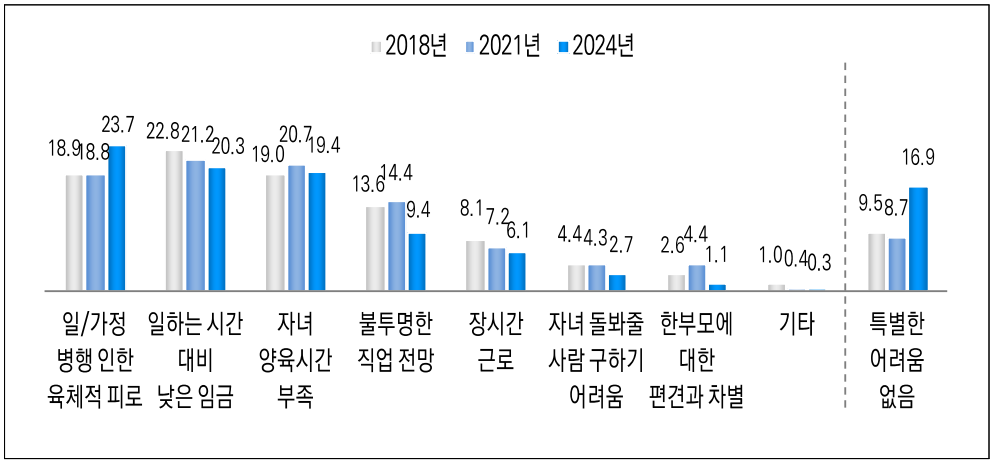
	근무시간/환경이 맞지 않아서	수입/보수가 맞지 않아서	나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자녀를 돌봐줄 데가 없어서	취업정보 부족/잘 몰라서	한부모라는 편견과 차별 때문	기타	없다	합계(n)
전 체	28.3	25.9	16.7	12.8	11.2	1.6	0.2	3.3	100.0(2,341)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31.4	21.6	14.0	16.8	10.1	3.1	0.4	2.7	100.0(587)
40대	28.1	26.8	17.0	13.0	10.7	1.2	0.1	3.2	100.0(1,389)
50대 이상	24.2	29.2	19.9	5.8	14.6	0.9	0.5	4.9	100.0(365)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20.4	30.7	20.4	12.8	11.5	-	-	4.1	100.0(55)
고졸 이하	26.5	27.4	19.2	10.6	12.1	1.1	0.4	2.7	100.0(1,123)
대학 이상	30.5	24.2	14.2	14.9	10.3	2.1	0.0	3.8	100.0(1,163)
혼인 상태									
이혼	29.2	26.9	15.9	12.7	10.7	1.7	0.2	2.7	100.0(2,015)
사별	24.4	16.1	21.8	12.9	15.0	1.0	0.5	8.3	100.0(248)
기타	17.6	31.0	20.7	14.9	10.6	2.4	-	2.9	100.0(79)
가구 구성									
모자	28.8	25.6	16.4	12.8	12.6	1.2	0.4	2.2	100.0(1,217)
모자+기타	31.2	24.9	17.4	8.5	9.7	4.0	-	4.3	100.0(328)
부자	28.7	24.5	16.3	14.2	8.9	1.9	0.1	5.4	100.0(501)
부자+기타	22.3	30.4	17.8	15.4	10.6	0.2	-	3.1	100.0(294)

	근무시간/환경이 맞지 않아서	수입/보수가 맞지 않아서	나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자녀를 돌봐줄 데가 없어서	취업정보 부족/잘 몰라서	한부모라는 편견과 차별 때문	기타	없다	합계(n)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32.6	16.0	17.1	18.4	10.9	1.3	-	3.7	100.0(259)
초등학생	28.6	25.4	14.2	17.6	9.2	2.3	0.3	2.4	100.0(928)
중학생 이상	27.2	28.5	18.6	7.7	12.8	1.1	0.2	3.9	100.0(1,155)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27.3	24.2	16.8	14.2	11.0	1.8	-	4.7	100.0(1,483)
임시/일용근로자	30.1	28.8	16.5	10.4	11.4	1.3	0.6	0.8	100.0(858)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27.9	27.6	17.4	11.6	11.5	1.6	0.3	2.2	100.0(1,460)
일반 가구	29.0	23.0	15.6	14.9	10.6	1.7	0.1	5.2	100.0(881)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	4.8	63.0	-	32.1	-	-	-	100.0(2)
100~200만원 미만	29.4	27.8	15.2	11.0	11.6	2.1	1.2	1.8	100.0(275)
200~300만원 미만	29.6	27.4	18.7	10.7	10.9	0.3	0.2	2.3	100.0(941)
300만원 이상	27.0	24.2	15.3	15.1	11.2	2.6	-	4.5	100.0(1,123)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31.0	21.4	15.0	16.5	10.6	1.8	0.4	3.3	100.0(1,023)
5~10년 미만	26.5	29.2	17.9	11.0	11.2	1.6	0.1	2.5	100.0(959)
10년 이상	25.3	29.7	18.4	7.2	12.9	1.0	-	5.5	100.0(360)

현재 근로 중인 한부모를 대상으로 현재 일을 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일과 가정생활 병행으로 인한 육체적인 피로'라고 응답한 비율이 23.7%로 가장 높았고, '일하는 시간에 비해 낮은 임금'과 '자녀 양육 시간의 부족'이 각각 20.3%와 19.4%로 뒤를 이었다. '장시간 근로'는 6.1%를 차지하였다.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움과 '한부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각각 2.7%와 1.1%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 가운데 16.9%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하였다.

2018년 및 2021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일하는 시간 대비 낮은 임금' 및 '불투명한 직업전망', '장시가 근로',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구하기 어려움'이라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은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반면, 2024년 조사에서는 '일과 가정생활 병행으로 인한 육체적인 피로'를 꼽은 비율(23.7%)이 2021년 조사에 비해 5.1%p 높아졌으며, '자녀 양육시가 부족'은 세 차례 조사에서 모두 20% 내외의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라고 한 비율은 2018년(9.5%) 및 2021년(8.7%)에 비해 두 배가량 높게(16.9%) 나타난 점도 주목할만 하다.

(단위: %, 2018년: n=2,106, 2021년: n=2,565, 2024년: n=2,781)



[그림 Ⅱ-5-11] 일을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

일을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응답자들의 특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연령대별로는 '일과 가정생활 병행으로 인한 육체적인 피로'나 '불투명한 직업전망'를 꼽은 비율은 30대 이하 응답자들에 비해 40대, 50대 이상 응답자들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자녀양육시간의 부족'은 30대 이하 응답자들이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30.6%)하였으며, 그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지는 않으나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구하기 어려움'을 꼽은 비율 또한 30대 이하 응답자들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하고 한 비율은 30대 이하(10.9%)나 40대(17.2%) 취업자들에 비해 50대 이상 취업자(25.1%)에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혼인 상태에 따라서는 이혼(22.0%)에 비해 사별(34.6%)에 있는 응답자들이 '일과 가정생활 병행으로 인한 육체적인 피로'를 이야기 한 비율이 높았으며, '자녀양육시간의 부족'을 꼽은 비율은 이혼(20.1%) 상태의 응답자들이 사별(15.5%)에 비해 높았다. '특별한 어려움이 없음'을 선택한 비율은 이혼(17.4%)과 사별(16.2%)을 경험한 취업자 간 큰 차이는 없었다.

종사상 지위에 따라서는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일과 가정생활 병행으로 인한 육체적인 피로(30.5%)'나 '장시간 근로(10.7%)'를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았다. 임시/일용근로자는 '일하는 시간에 비해 낮은 임금'을 선택한 비율(28.7%)이 상용근로자(17.0%)나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15.2%)에 비해 10%p 이상 높았으며, '불투명한 직업전망'을 지목한 비율(14.4%)도 비교적 높았다. 상용근로자의 경우 '자녀양육시간의 부족'을 꼽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21.0%), '특별한 어려움이 없음'을 선택한 비율 또한 임시/일용근로자(11.2%)나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13.4%)에 비해 상용근로자(21.3%)에게서 낮게 나타났다.

이 밖에 막내 자녀가 어릴수록 '자녀양육시간의 부족'이나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구하기 어려움'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으며, 막내 자녀가 중학생 이상인 응답자들은 '일과 가정생활 병행으로 인한 육체적인 피로(27.1%)', '불투명한 직업전망(10.3%)', '한부모에 대한 편견과 차별(1.6%)'을 선택한 비율이 막내 자녀가 초등학생 이하에 속한 응답자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가장 어린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비교해 보았을 때 '특별한 어려움이 없음'을 선택한 비율은 미취학(9.2%) 응답자에 비해 초등학생(15.4%) 또는 중학생 이상(19.7%)의 응답자들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표 Ⅱ-5-11〉 일을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

(단위: %)

	일과 가정생활 병행으로 인한 육체적인 피로	일하는 시간에 비해 낮은 임금	자녀양육시간의 부족	불투명한 직업전망	장시간 근로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구하기 어려움	한부모에 대한 편견과 차별	기타	특별한 어려움이 없음	합계(n)
전 체	23.7	20.3	19.4	9.4	6.1	2.7	1.1	0.3	16.9	100.0(2,781)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21.7	19.2	30.6	7.7	5.6	3.7	0.2	0.3	10.9	100.0(677)
40대	24.6	20.6	17.4	9.9	6.5	2.3	1.4	0.2	17.2	100.0(1,648)
50대 이상	23.8	20.9	10.2	10.4	5.3	2.4	1.3	0.5	25.1	100.0(456)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19.8	25.3	16.2	11.3	9.8	1.6	-	-	15.9	100.0(69)
고졸 이하	25.6	23.1	16.8	10.2	6.1	2.7	0.4	0.3	14.9	100.0(1,327)
대학 이상	22.1	17.4	22.1	8.6	6.0	2.8	1.8	0.3	19.0	100.0(1,385)
혼인 상태										
이혼	22.0	20.7	20.1	9.6	6.4	2.6	1.0	0.3	17.4	100.0(2,372)
사별	34.6	16.0	15.5	7.8	4.5	3.3	2.0	-	16.2	100.0(309)
기타	31.9	25.3	15.7	11.1	3.0	3.6	0.7	-	8.7	100.0(100)
가구 구성										
모자	24.9	22.8	19.1	9.8	5.6	3.1	1.1	0.2	13.4	100.0(1,429)
모자+기타	26.8	25.3	21.2	6.1	7.9	0.3	0.4	0.5	11.6	100.0(393)
부자	22.2	16.5	18.7	9.7	4.1	3.9	1.0	0.4	23.5	100.0(611)
부자+기타	18.1	11.3	20.0	11.2	9.6	1.7	2.1	-	26.1	100.0(348)

	일과 가정생활 병행으로 인한 육체적인 피로	일하는 시간에 비해 낮은 임금	자녀양육시간의 부족	불투명한 직업전망	장시간 근로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구하기 어려움	한부모에 대한 편견과 차별	기타	특별한 어려움이 없음	합계(n)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20.9	19.5	36.0	5.5	4.1	4.4	0.3	-	9.2	100.0(291)
초등학생	20.0	19.0	26.4	9.4	5.1	3.7	0.7	0.3	15.4	100.0(1,068)
중학생 이상	27.1	21.5	10.8	10.3	7.2	1.6	1.6	0.3	19.7	100.0(1,422)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23.5	17.0	21.0	7.0	6.0	2.6	1.5	0.1	21.3	100.0(1,483)
임시/일용근로자	20.7	28.7	17.7	14.4	4.0	2.5	0.4	0.5	11.2	100.0(858)
자영업/무급가족	30.5	15.2	17.5	8.0	10.7	3.3	1.2	0.4	13.4	100.0(440)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22.8	24.6	19.4	10.5	6.1	2.3	0.3	0.3	13.7	100.0(1,682)
일반 가구	25.1	13.9	19.5	7.9	6.1	3.2	2.3	0.2	21.9	100.0(1,100)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	67.9	-	32.1	-	-	-	-	-	100.0(2)
100~200만원 미만	20.3	30.3	18.6	16.4	1.8	3.1	0.2	-	9.2	100.0(304)
200~300만원 미만	22.6	26.4	17.7	11.2	5.6	2.0	0.5	0.4	13.6	100.0(1,057)
300만원 이상	25.3	13.5	20.9	6.6	7.4	3.1	1.7	0.3	21.1	100.0(1,418)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20.7	16.5	24.0	8.3	5.8	3.7	1.7	0.2	19.2	100.0(1,197)
5~10년 미만	24.3	22.7	17.6	10.7	6.1	2.6	0.7	0.4	15.1	100.0(1,148)
10년 이상	30.7	24.7	11.7	9.4	7.1	0.3	0.3	0.1	15.7	100.0(436)

나. 구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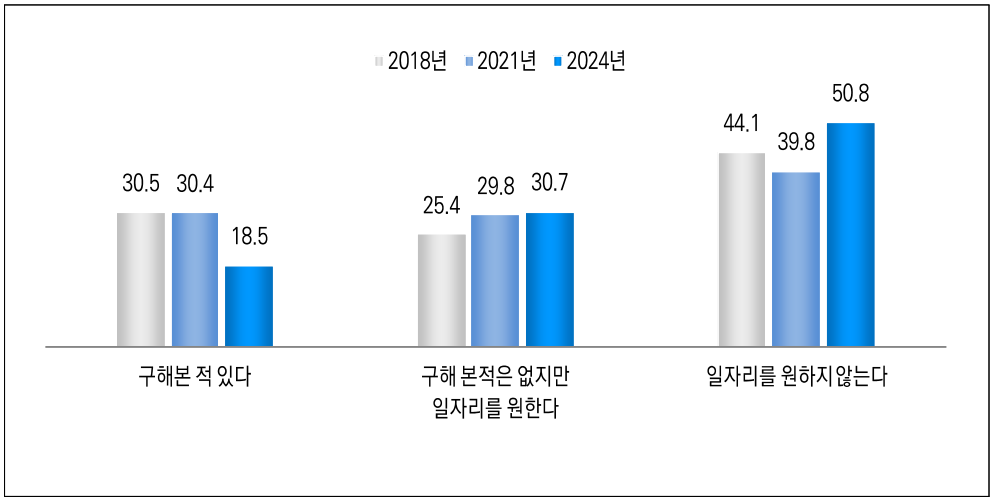
1) 구직 여부 및 구직 경로

이어서 현재 미취업자인 한부모들을 대상으로 구직을 둘러싼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구직 여부, 구직 경로,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운 점, 원하는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 (일을 원하지 않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일을 원하지 않는 이유를 질문하였다.

우선 지난 4주 내에 구직활동을 하였는지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18.4%가 '구해본 적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30.7%는 '구해본 적은 없지만 일자리를 원한다'라고 답하였다. 절반 이상(50.8%)의 응답자는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이전의 조사와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2018년 및 2021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지난 4주 내에 일자리를 '구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2018년과 2021년 조사에서는 각각 30.5%와 30.4%로 미취업자 10명 중 3명 이상은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24년 조사에서는 10명 중 2명가량(18.5%)만 구직활동으로 한 것으로 집계되어 이전조사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일자리를 '구해본 적은 없지만 일자리를 원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2018년(25.4%)와 2021년(29.8%)에 비해 2024년 조사에서는 약간 높게(30.7%) 나타났으며,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0.8%로 2018년(44.1%)이나 2021년(39.8%) 조사결과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 다만 각 연도별로 (미)취업자의 비율이 다르며, 미취업자의 상황이나 특성 또한 상당히 다를 것인 만큼 이러한 결과가 단순히 미취업 한부모들이 이전에 비해 일자리를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단위: %, 2018년: n=394, 2021년: n=735, 2024년: n=534)



[그림 Ⅱ-5-12] 구직 여부

비취업자 중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한 비율의 차이를 살펴보면 30대 이하(42.3%) < 40대(51.0%) < 50대 이상(62.7%) 순으로 높은 정도의 연령대에 속해 있는 응답자들이 해당 응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학력이 낮을 경우에도 그 비율이 높았다(중졸 이하 73.3%, 고졸 이하 55.8%, 대학 이상 36.1%). 이와 함께 한부모가 된 기간에 따라서는 해당 기간이 길수록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일자리를 구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미취업 한부모는 연령대가 낮을수록(30대 이하: 23.3%, 50대 이상: 10.4%), 학력이 높을수록(중졸 이하: 1.5%, 대학 이상 25.8%) 이를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한부모가 된 기간에 따라서는 5~10년 미만(16.5%)이나 10년 이상(17.0%)이 경과한 이들에 비해 5년 미만(21.1%) 범주에 속하는 이들이 지난 4주를 기준으로 일자리를 구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높았다.

〈표 Ⅱ-5-12〉 구직 여부

(단위: %,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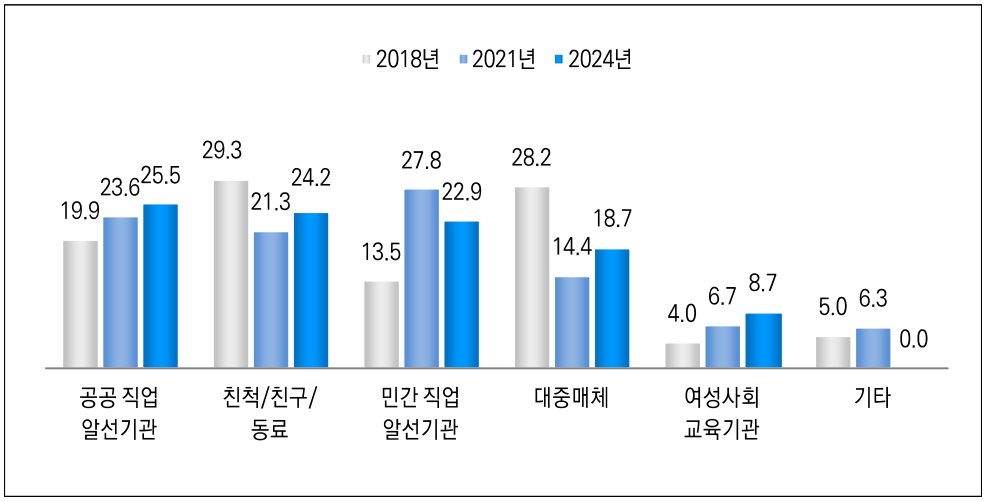
	구해본 적 있다	구해본 적은 없지만 일자리를 원한다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다	합계(n)	$\chi^2(df)$
전 체	18.5	30.7	50.8	100.0(534)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23.3	34.4	42.3	100.0(169)	13.555(4)**
40대	19.0	30.0	51.0	100.0(246)	
50대 이상	10.4	26.9	62.7	100.0(118)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1.5	25.2	73.3	100.0(32)	34.483(14)**
고졸 이하	16.5	27.7	55.8	100.0(339)	
대학 이상	25.8	38.1	36.1	100.0(163)	
혼인 상태					
이혼	19.9	32.6	47.5	100.0(421)	13.272(4)*
사별	22.3	27.4	50.4	100.0(36)	
기타	9.2	21.9	69.0	100.0(78)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21.1	38.3	40.6	100.0(218)	16.542(4)**
5~10년 미만	16.5	27.5	56.0	100.0(180)	
10년 이상	17.0	22.7	60.3	100.0(135)	

주: *p<.05, **p<.01

구직활동을 해본 적이 있는 응답자(n=99)들을 대상으로 주로 어떤 경로로 직장을 알아보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응답결과 절반가량(49.7%)는 공공 및 민간 직업알선기관을 통해서 직장을 알아본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4명 중 1명 정도는 '고용안정센터 등 공공 직업알선기관(25.5%)'를 꼽았으며, '민간 직업알선기관'을 선택한 비율은 22.9%였다. '친척, 친구, 동료'라고 한 비율은 24.2%였고, 주로 '대중매체(신문, 잡지, 광고 등)'를 통해서 직장을 알아보았다고 한 비율은 18.7%를 차지하였다. 이와 함께 '여성사회 교육기관 방문'을 선택한 비율은 8.7%였다.

2021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공공 및 민간 직업알선기관'은 1.9%p 증가(23.6%→25.5%)하였고, '여성사회 교육기관 방문' 또한 약간 증가(6.7%→8.7%)하였다. 반면 '민간 직업알선기관'을 꼽은 비율은 4.9%p 감소(27.8%→22.9%)하였다.

(단위: %, 2018년: n=120, 2021년: n=223, 2024년: n=99)



[그림 Ⅱ-5-13] 구직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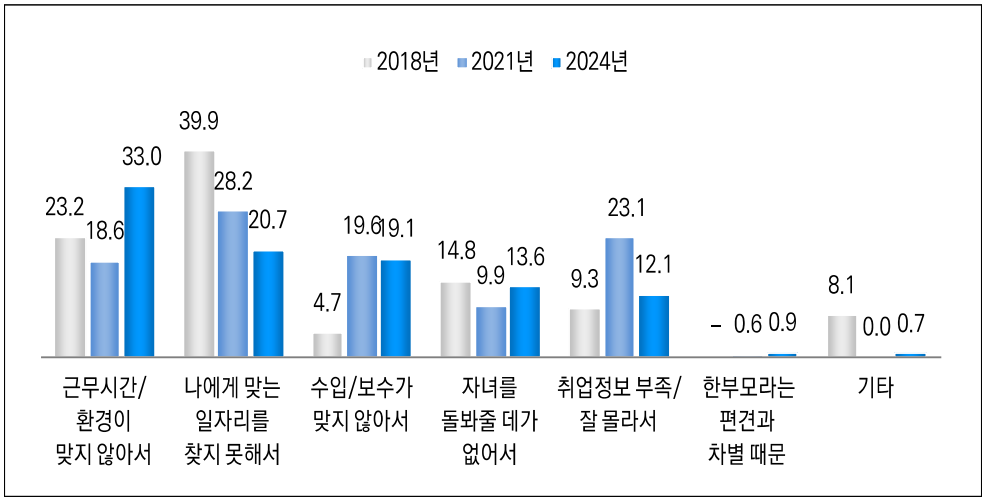
2)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운 점

지난 4주를 기준으로 일자리를 구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n=99)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구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었는지 7가지 항목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살펴본 결과 응답자 3명 중 1명(33.3%)은 '근무시간이나 근무환경이 맞지 않아서'를 꼽았다. 이어 '나의 학력, 경력, 나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가 20.7%로 나타났다. '수입이나 보수가 맞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19.1%였으며, 13.6%는

'자녀를 돌봐줄 데가 없어서'라고 응답하였다. '한부모라는 편견과 차별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0.9%였다.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운 점에 대한 응답결과를 2021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근무시간이나 근무환경이 맞지 않아서'를 선택한 비율이 상당히 큰 폭의 증가폭(18.6%→33.0%)을 보였다. 반면 '근무시간이나 근무환경이 맞지 않아서(28.2%→20.7%)', '취업정보가 부족하거나 잘 몰라서(23.1%→12.1%)'를 선택한 비율은 비교적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2018년: n=120, 2021년: n=223, 2024년: n=99)



[그림 Ⅱ-5-14]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운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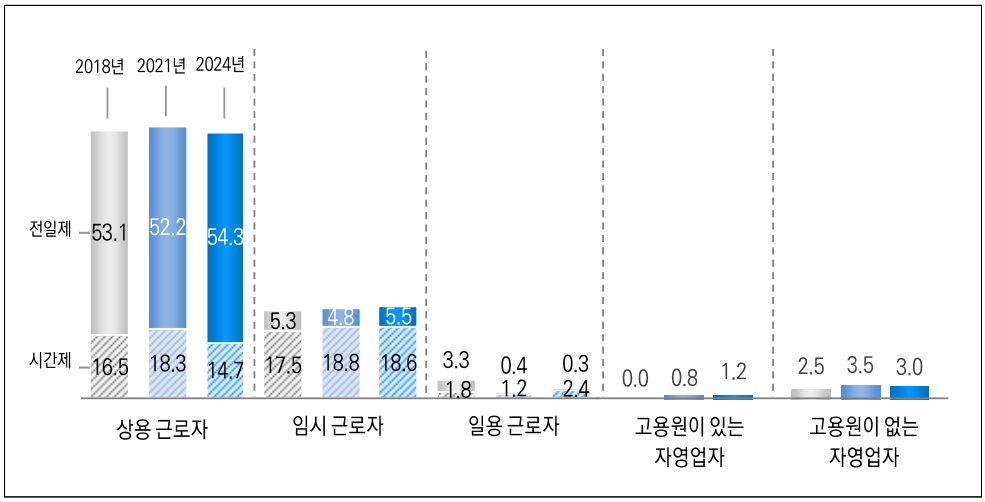
3) 원하는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

일자리를 '구해본 적이 있다' 또는 '구해본 적은 없지만 일자리를 원한다'라고 응답한 한부모(=일자리를 원하는 응답자) 262명이 가장 원하는 일자리의 유형을 살펴본 결과는 아래와 같다. 10명 중 7명가량(69.0%)은 '상용근로자'를 원했는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54.3%는 '상용근로자(전일제)'를, 14.7%는 '상용근로자(시간제)'를 원하고 있었다. 24.1%는 '임시근로자'를 원한다고 응답하였는데 이 또한 세부적으로 보았을 때 5.5%는 '임시근로자(전일제)'를, 18.6%는 '임시근로자(시간제)'를 원한다고 하였다. '일용근로자'를 원한다고 응답한 이들은 2.7%로 집계되었는데 이들 가운데 '일용근로자(전일제)'와 '일용근로자(시간제)'를 원한다는 비율은 일자리를 원하는 응답자의 0.3%와 2.4%로 나타났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를 원한다는 비율은 1.2%였고, 3.0%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원하는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로 꼽았다.

2021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상용근로자를 원하는 비율이 약간 낮아졌고(70.5%→69.0%), 임시근로자를 원하는 비율은 소폭 증가(23.6%→24.1%)하였으나 전반적으로는 크게 주목할 정도의 차이는 아니었다.

(단위: %, 2018년: n=221, 2021년: n=442, 2024년: n=262)



[그림 Ⅱ-5-15] 원하는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

취업을 원하는 응답자들이 가장 원하는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를 응답자의 특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것이 '상용근로자(전일제)'였는데(54.3%), 이는 30대 이하(54.8%)와 40대(55.7%)에서 50대 이상(49.6%) 응답자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에 따라서는 중졸 이하(24.7%)에 비해 고졸 이하(56.5%)와 대학 이상(53.6%)에서 높았다. 가구 구성에 따라서는 모자가구(53.6%)에 비해서는 부자가구(68.3%)에서, 정부 지원 유형에 따라서는 저소득 지원 가구에 속한 응답자들(53.4%)에 비해 그렇지 않은 이들(67.3%)이 이를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표 Ⅱ-5-13〉 원하는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

(단위: %, 가구)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자영업자		합계(n)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고용원 有	고용원 無	
전 체	14.7	54.3	18.6	5.5	2.4	0.3	1.2	3.0	100.0(262)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18.7	54.8	12.6	6.3	2.9	-	0.9	3.7	100.0(98)
40대	15.2	55.7	21.9	1.6	1.2	0.6	1.5	2.3	100.0(121)
50대 이상	4.6	49.6	22.9	14.3	4.7	-	0.9	3.0	100.0(44)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	24.7	70.1	-	-	-	-	5.2	100.0(9)
고졸 이하	10.4	56.5	19.7	7.5	3.1	0.5	1.6	0.7	100.0(150)
대학 이상	22.2	53.6	12.9	3.0	1.6	-	0.7	6.1	100.0(104)
혼인 상태									
이혼	14.0	53.1	19.1	6.5	2.1	0.3	1.4	3.5	100.0(221)
사별	7.8	86.3	5.9	-	-	-	-	-	100.0(18)
기타	26.2	42.5	24.1	-	7.1	-	-	-	100.0(24)
가구 구성									
모자	14.4	53.6	19.9	5.6	1.8	0.4	1.6	2.6	100.0(168)
모자+기타	21.7	50.2	15.4	3.6	4.6	-	-	4.4	100.0(59)
부자	5.9	68.3	10.0	10.8	2.5	-	1.5	1.1	100.0(26)
부자+기타	-	54.9	40.3	-	-	-	-	4.8	100.0(9)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자영업자		합계(n)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고용원 有	고용원 無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17.3	47.6	19.5	4.7	2.1	-	3.7	5.0	100.0(53)
초등학생	20.0	58.4	14.2	1.5	2.5	0.6	-	2.8	100.0(112)
중학생 이상	7.3	53.3	23.2	10.4	2.5	-	1.1	2.1	100.0(98)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13.7	53.4	19.9	5.9	2.6	0.3	1.2	2.9	100.0(245)
일반 가구	29.2	67.3	-	-	-	-	-	3.4	100.0(17)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24.9	42.6	5.2	16.9	10.3	-	-	-	100.0(11)
100~200만원 미만	12.9	55.2	21.4	4.2	1.0	-	0.9	4.5	100.0(149)
200~300만원 미만	11.9	54.7	18.6	7.5	4.5	0.8	0.8	1.3	100.0(85)
300만원 이상	36.9	52.7	4.5	-	-	-	5.9	-	100.0(18)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15.4	56.0	16.1	4.3	3.5	-	1.7	3.0	100.0(130)
5~10년 미만	15.5	55.9	17.5	4.8	0.4	0.9	1.1	4.0	100.0(79)
10년 이상	11.9	48.0	26.6	9.3	2.9	-	-	1.4	100.0(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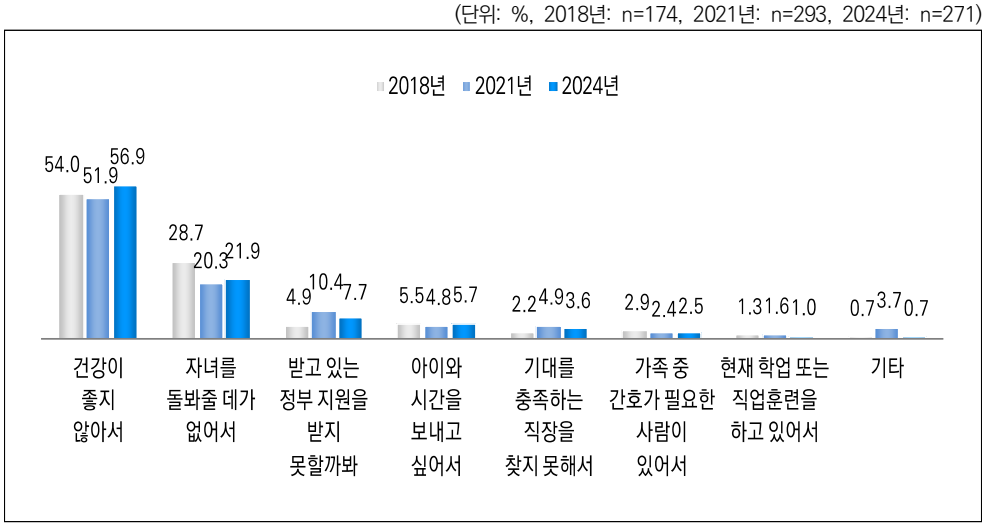
4) 일을 원하지 않는 이유

여기서는 '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들(n=271)을 대상으로 일을 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8가지 보기항목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문항을 설계하였는데 '건강이 좋지 않아서'를 꼽은 비율이 56.9%로 절반을 넘었다.

그다음이 '자녀를 돌봐줄 데가 없어서(21.9%)'였고, '현재 받고 있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할까봐(7.7%)', '지금은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5.7%)', '기대를 충족하는 직장을 찾지 못해서(3.6%)'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 중 간호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와 '다른 직업을 위해 현재 학업 또는 직업훈련을 하고 있어서'를 꼽은 비율은 각각 2.5%와 1.0%였다.

2018년 및 2021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건강이 좋지 않아서'와 '자녀를 돌봐줄 데가 없어서'가 80% 안팎을 차지하고 나머지를 선택한 비율은 높지 않은 등 응답결과에서 눈에 띄는 양상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2024년 조사에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를 꼽은 비율이 이전의 조사에 비해 다소 높게 났으며, '자녀를 돌봐줄 데가 없어서'를 선택한 비율(21.9%)은 2021년(20.3%)에 비해서는 약간 증가했으나 2018년(28.7%)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현재 받고 있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할까봐'라는 응답은 2018년 조사(4.9%)에 비해서는 높았으나, 2021년 조사결과(10.4%)에 비해서는 낮은 정도의 비율(7.7%)로 집계되었다.

(단위: %, 2018년: n=174, 2021년: n=293, 2024년: n=271)



[그림 Ⅱ-5-16] 일을 원하지 않는 이유

일을 원하지 않는 이유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건강이 좋지 않아서(56.9%)'를 선택한 응답자들의 비율을 특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30대 이하(32.58%) 〈 40대(60.9%) 〈50대 이상(73.3%)과 같이 높은 범주의 연령대에 속해 있을 경우 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와 함께 가장 어린자녀의 연령대에 따라서는 미취학(21.0%) 〈 초등학생(53.6%) 〈 중학생 이상(73.8%) 순으로 막내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해당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학력에 따라서는 대학 이상(41.1%) 〈 고졸 이하(60.1%) 〈 중졸 이하(70.8%)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낮은 정도의 소득범주에 속한 경우 '건강이 좋지 않아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다. 가구 구성에 따라서는 모자가구(52.8%)에 비해 부자가구(82.5%)에서 이를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자녀를 돌봐줄 데가 없어서' 또는 '지금은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를 선택한 비율은 본인 및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고, 높은 정도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들에게서 해당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 구성에 따라서는 부자가구에 비해 모자가구에서 '자녀를 돌봐줄 데가 없어서' 또는 '지금은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를 꼽은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받고 있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할까봐'를 선택한 비율을 살펴보면 높은 정도의 연령대에 속한 경우(30대 이하 〈 40대 〈 50대 이상) 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고, 낮은 정도의 학력범주에 속한 경우(중졸 이하 〉 고졸 이하 〉 대학 이상)에도 해당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부모가 된 기간에 따라서는 한부모가 된 기간이 길수록 '받고 있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할까봐'를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5년 미만: 3.9%, 10년 이상 13.0%).

〈표 Ⅱ-5-14〉 일을 원하지 않는 이유

(단위: %, 가구)

	건강이 좋지 않아서	자녀를 돌봐줄 데가 없어서	받고 있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할까봐	지금은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기대를 충족하는 직장을 찾지 못해서	가족 중 간호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현재 학업 또는 직업 훈련을 하고 있어서	기타	합계(n)
전 체	56.9	21.9	7.7	5.7	3.6	2.5	1.0	0.7	100.0(271)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32.8	35.5	4.5	16.8	7.6	1.2	1.2	0.3	100.0(71)
40대	60.9	24.0	5.2	2.8	2.5	3.2	0.8	0.6	100.0(126)
50대 이상	73.3	5.2	14.9	-	1.5	2.8	1.1	1.2	100.0(74)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70.8	14.1	15.1	-	-	-	-	-	100.0(23)
고졸 이하	60.1	21.5	8.1	5.2	3.0	1.4	-	0.7	100.0(189)
대학 이상	41.1	26.3	3.3	9.6	6.9	7.1	4.6	1.0	100.0(59)
혼인 상태									
이혼	60.1	18.1	8.5	4.7	4.3	2.6	1.4	0.3	100.0(200)
사별	54.0	17.8	9.5	5.3	6.3	3.7	-	3.4	100.0(18)
기타	46.1	37.3	3.9	9.7	-	1.9	-	1.1	100.0(54)
가구 구성									
모자	52.8	28.3	6.5	4.1	2.6	3.5	1.5	0.7	100.0(176)
모자+기타	49.3	14.7	12.6	15.9	7.5	-	-	-	100.0(50)
부자	82.5	5.6	7.3	1.0	-	1.8	-	1.8	100.0(37)
부자+기타	77.7	-	4.8	-	17.5	-	-	-	10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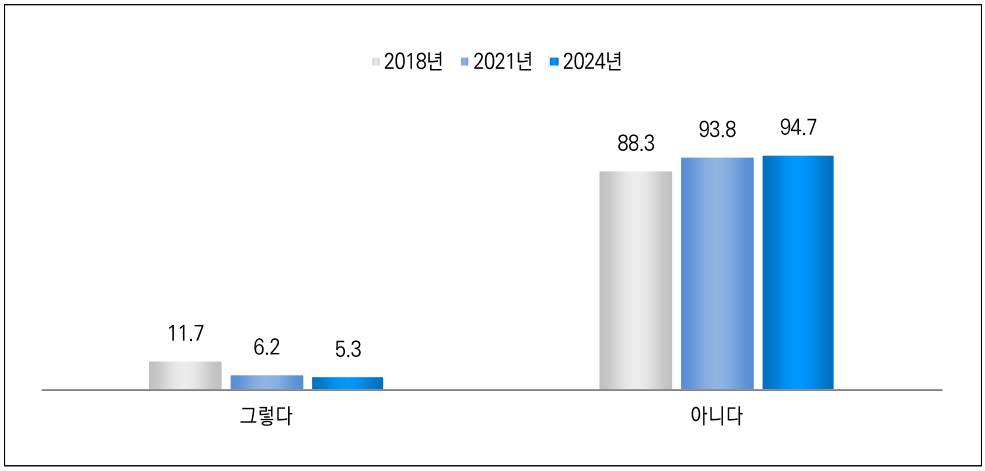
	건강이 좋지 않아서	자녀를 돌봐줄 데가 없어서	받고 있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할까봐	지금은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기대를 충족하는 직장을 찾지 못해서	가족 중 간호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현재 학업 또는 직업 훈련을 하고 있어서	기타	합계(n)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21.0	50.9	4.6	14.6	3.9	3.2	1.8	-	100.0(48)
초등학생	53.6	27.2	3.7	7.3	4.4	2.6	1.0	0.2	100.0(102)
중학생 이상	73.8	6.0	12.2	0.9	2.7	2.3	0.7	1.4	100.0(121)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58.6	21.3	8.1	5.0	2.5	2.7	1.1	0.7	100.0(257)
일반 가구	27.6	31.5	-	18.9	21.9	-	-	-	100.0(15)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63.9	14.7	12.7	8.7	-	-	-	-	100.0(11)
100~200만원 미만	61.1	20.6	6.8	4.6	0.6	3.6	1.6	1.0	100.0(166)
200~300만원 미만	55.3	22.2	9.9	6.2	4.9	1.3	-	0.3	100.0(68)
300만원 이상	31.4	32.4	5.3	10.6	20.4	-	-	-	100.0(26)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35.6	38.5	3.9	12.3	5.9	2.5	1.0	0.2	100.0(89)
5~10년 미만	68.2	14.1	6.7	4.6	4.4	1.0	1.0	-	100.0(101)
10년 이상	66.0	13.5	13.0	-	-	4.4	1.0	2.1	100.0(82)

다. 직업훈련

1) 직업훈련 경험 여부

전체 한부모를 대상으로 최근 3년 간 취업 혹은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해 보았다. 최근 3년 사이에 직업훈련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비율은 5.3% 수준으로 대부분의 한부모들은 직업훈련 경험이 없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전의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최근의 조사로 올수록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2018년 조사에서는 11.7%가, 2021년 조사의 경우 6.2%가 최근 3년 사이에 직업훈련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였으나 2024년 조사에서는 해당 비율이 5.3%에 그쳤다.

(단위: %, 2018년: n=2,500, 2021년: n=3,300, 2024년: n=3,315)



[그림 Ⅱ-5-17] 직업훈련 경험 여부(최근 3년)

직업훈련 경험에 대해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서는 40대(4.7%)나 50대 이상(4.9%)에 속한 응답자들에 비해 30대 이하 응답자들의 직업훈련 경험 비율(7.0%)이 높았고, 가구 구성에 따라서는 모자(5.7%) 또는 모자+기타가구(10.3%)가 부자(1.9%) 또는 부자+기타가구(2.8%)에 속한 응답자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비취업자들의 직업훈련 경험 비율(8.2%)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정부 지원 유형에 따라서는 저소득 지원 가구에 속한 응답자들(6.6%)이 그렇지 않은 가구의 응답자(2.8%)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후술할 직업훈련의 취업도움 정도와

연관시켜 생각해 본다면 직업훈련의 내실화를 통해 취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과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표 Ⅱ-5-15〉 직업훈련 경험 여부(최근 3년)

(단위: %, 가구)

	그렇다	아니다	합계(n)	$\chi^2(df)$
전 체	5.3	94.7	100.0(3,315)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7.0	93.0	100.0(846)	6.61(2)*
40대	4.7	95.3	100.0(1,895)	
50대 이상	4.9	95.1	100.0(575)	
가구 구성				
모자	5.7	94.3	100.0(1,773)	
모자+기타	10.3	89.7	100.0(503)	45.945(3)***
부자	1.9	98.1	100.0(674)	
부자+기타	2.8	97.2	100.0(365)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6.6	93.4	100.0(392)	9.762(2)**
초등학생	6.5	93.5	100.0(1,281)	
중학생 이상	4.1	95.9	100.0(1,642)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4.3	95.7	100.0(1,483)	
임시/일용근로자	6.6	93.4	100.0(858)	20.789(3)***
자영업/무급가족	2.6	97.4	100.0(440)	
비취업	8.2	91.8	100.0(534)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6.6	93.4	100.0(2,184)	21.07(1)***
일반 가구	2.8	97.2	100.0(1,131)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9.1	90.9	100.0(24)	
100~200만원 미만	6.2	93.8	100.0(619)	9.634(3)*
200~300만원 미만	6.4	93.6	100.0(1,210)	
300만원 이상	4.0	96.0	100.0(1,462)	

주: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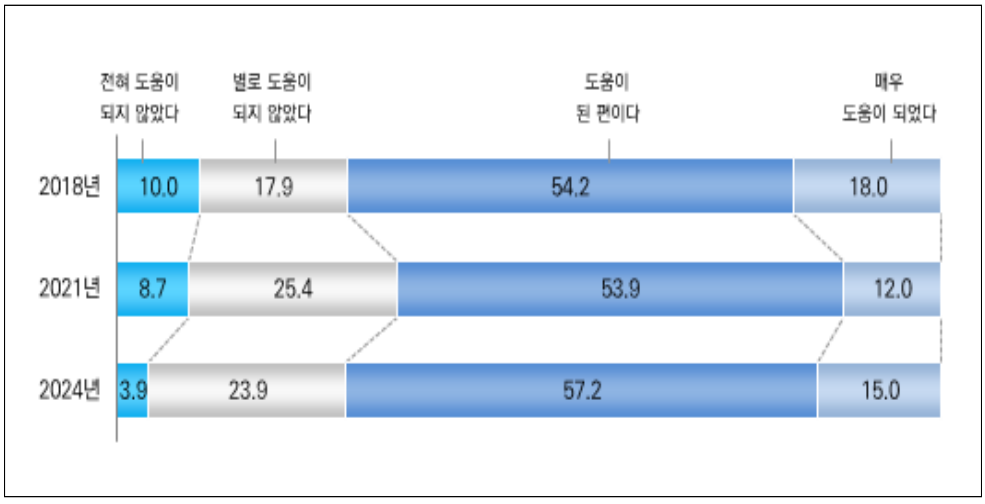
2) 직업훈련이 취업에 도움이 된 정도

직업훈련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n=176)에게 직업훈련이 취업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질문해 보았다. 4가지의 보기문항(=①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②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③도움이 된 편이다, ④매우 도움이 되었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문항을 설계하였으며 응답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이 분석되었다.

'도움이 된 편이다'라는 응답이 57.2%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은 15.0%였다. 반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23.9%,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9%였다.

이를 종합해서 살펴보면 직업훈련이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는 응답자는 72.2%('도움이 된 편이다'+'매우 도움이 되었다')였으며, 27.8%는 도움이 되지 않은 것('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으로 여기고 있었다. 2018년과 2021년의 조사에서 '도움이 된 편이다'는 비율이 각각 54.2%와 53.0%였으며,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은 각각 18.0%와 12.0%인 것과 비교해 보면 2024년 조사에서는 2018년과 2021년에 비해 큰 폭은 아니지만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이 약간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단위: %, 2018년: n=293, 2021년: n=204, 2024년: n=176)



[그림 Ⅱ-5-18] 직업훈련이 취업에 도움이 된 정도

직업훈련 경험이 있는 이들(n=176)에게 의 특성별로 직업훈련이 취업에 도움이 된 정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부모의 연령대별로는 30대 이하(59.4%)에 비해서는 40대(79.7%)나 50대 이상(75.6%) 응답자들이 도움이 되었다('도움이 된 편이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학력에 따라서는 직업훈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중졸 이하(37.9%) 응답자들에 비해서는 고졸 이하(81.6%)나 대학 이상(68.0%)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들이 그들이 경험한 직업훈련이 취업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Ⅱ-5-16〉 직업훈련이 취업에 도움이 된 정도

(단위: %, 가구)

	①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②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③도움이 된 편이다	④매우 도움이 되었다	①+②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③+④ 도움이 되었다	합계(n)	$\chi^2(df)$
전 체	3.9	23.9	57.2	15.0	27.8	72.2	100.0(176)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4.9	35.8	39.3	20.1	40.6	59.4	100.0(59)	13.596(6)*
40대	2.8	17.5	68.0	11.7	20.3	79.7	100.0(88)	
50대 이상	5.3	19.2	60.8	14.8	24.4	75.6	100.0(28)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15.5	46.7	26.9	10.9	62.1	37.9	100.0(6)	157.342(6)***
고졸 이하	1.6	16.8	65.2	16.4	18.4	81.6	100.0(69)	
대학 이상	4.7	27.3	53.6	14.3	32.0	68.0	100.0(101)	

주: *p<.05,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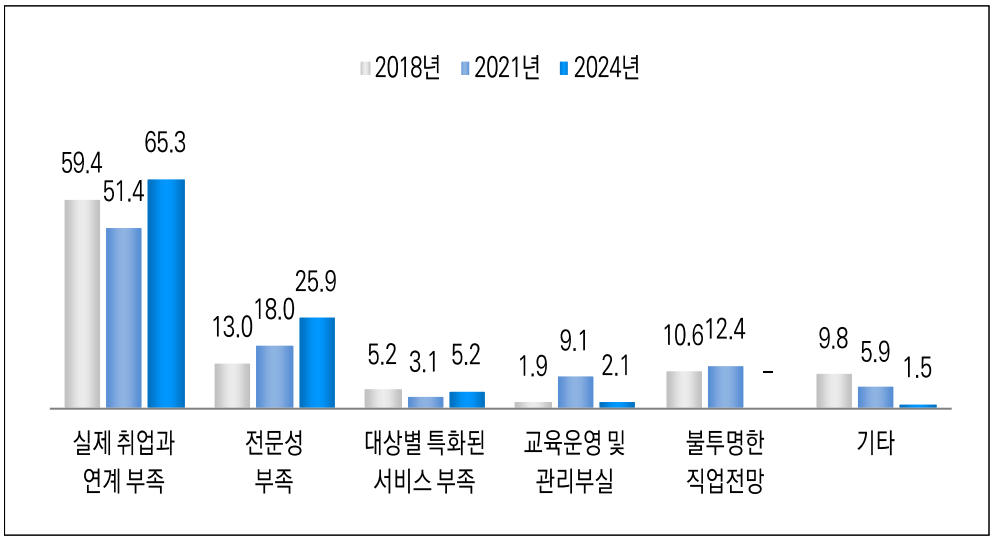
3) 직업훈련이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

최근 3년 사이에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지만 받았던 직업훈련이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느낀 응답자들(n=49)은 직업훈련이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은 까닭으로 아래와 같은 보기항목을 꼽았다. 이들 가운데 2/3가량(65.3%)은 직업훈련이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실제 취업과의 연계 부족’을 선택하였고, ‘전문성 부족(25.9%)’이 뒤를 이었다. 이들 두 항목을 선택한 비율이 80%를 넘긴 가운데(81.2%) ‘대상별 특화된 서비스 부족’과 ‘교육운영 및 관리부실’은 각각 5.2%와 2.1%를 차지하였다.

응답자 수가 많지 않고, 연도별로 직업훈련을 받은 비율 등이 차이가 있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단순히 각 항목별로 집계된 응답비율을 기준으로 이전의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실제 취업과의 연계 부족(65.3%)’은 2018년

조사(59.4%)나 2021년 조사(51.4%)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전문성 부족'을 꼽은 응답자의 비율 또한 2018년(13.0%)이나 2021년(18.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교육운영 및 관리부실'을 선택한 이들의 비율은 2021년(9.1%)에 비해 크게 낮아졌으며, '불투명한 직업전망'을 선택한 비율은 2018년과 2021년 조사에서는 각각 10.6%와 12.4%를 차지하였으나 2024년 조사에서는 이를 선택한 응답자들이 없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통해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직업훈련이 보다 원활하게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훈련프로그램에서 산업수요와 참여(예상)자들의 능력이나 눈높이 등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직업훈련이 산업이나 사회의 변화 속도에 발맞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발굴, 개선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단위: %, 2018년: n=82, 2021년: n=70, 2024년: n=49)



[그림 Ⅱ-5-19] 직업훈련이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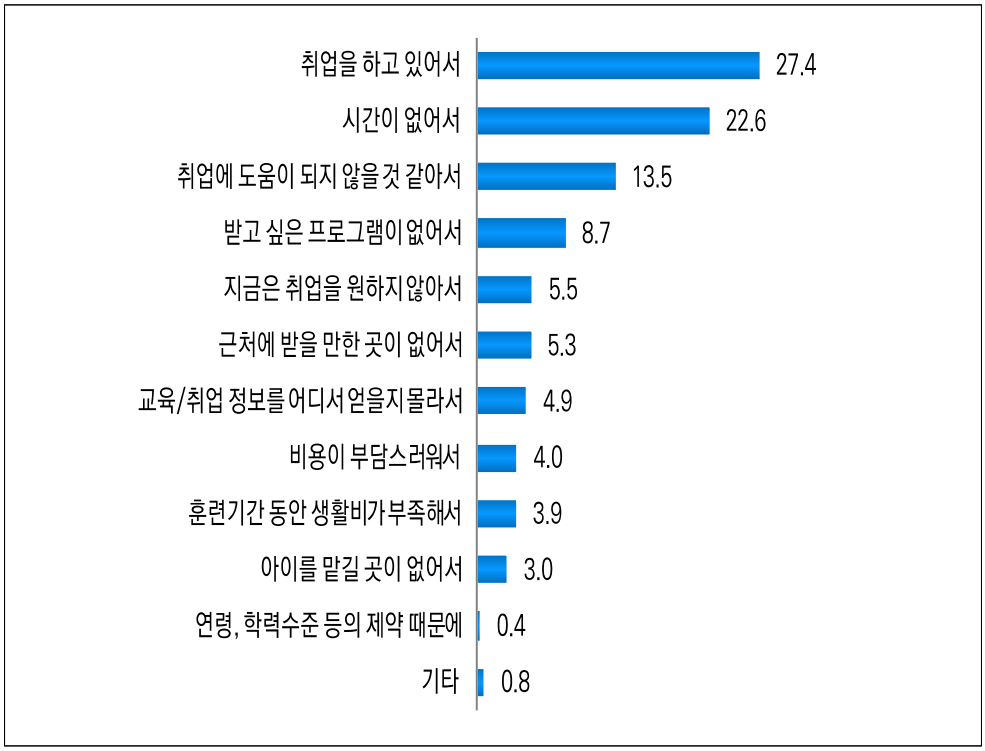
4)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

최근 3년간 취업 혹은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경험이 없는 응답자들(n=3,169)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았다. 이 문항은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가장 큰 이유에 대해 12가지의 보기항목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문항이 설계되었다.

응답결과를 집계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50.0%)은 '취업을 하고 있어서(27.4%)' 또는 '시간이 없어서(22.6%)'를 선택하였다. '취업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13.5%)'와 '받고

싶은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없어서(8.7%)'가 뒤를 이었으며, '지금은 취업을 원하지 않아서'를 선택한 이들은 5.5%를 차지하였다. '근처에 훈련을 받을 곳이 없어서'와 '교육이나 취업정보를 어디서 얻어야 할지 잘 몰라서'는 각각 5.3%와 4.9%를 차지하였으며, '비용이 부담스러워서'와 '훈련기간 동안 생활비가 부족해서'와 같은 경제적 문제를 꼽은 비율은 각각 4.0%와 3.9%로 나타났다,

(단위: %, n=3,139)



[그림 Ⅱ-5-20]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

취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업훈련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이들을 제외하고는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로 가장 많은 이들이 선택한 '시간이 없어서(22.6%)'를 꼽은 비율을 응답자들의 특징별로 살펴보면 연령대에 따라서는 50대 이상(17.6%) 〈 40대(23.4%) 〈 30대 이하(24.2%) 순으로 낮은 정도의 연령 범주에 속할 경우 해당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에 따라서는 중졸 이하(13.0%) 〈 고졸 이하(22.6%) 〈 대학 이상(23.2%)과 같이 높은 정도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들에게서 비율이 더 높았다. 가구 구성에 따라서는 모자가구(22.0%)에 비해 부자가구(25.3%)에서 약간 높았으며,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일반 가구일수록 그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교육/취업 정보를 어디서 얻을지 몰라서’를 선택한 비율은 30대 이하(4.6%)나 40대(4.2%)에 비해 50대 이상(7.7%) 응답자들에게서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에 따라서는 대학 이상(3.7%)의 응답자들에 비해 고졸 이하(5.8%) 또는 중졸 이하(8.8%)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들이 이를 선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혼인 상태에 따라서는 이혼(4.6%)이나 사별(5.0%)보다는 그 외(9.3%)의 혼인 상태에 속한 응답자들이 ‘교육/취업 정보를 어디서 얻을지 몰라서’라고 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한부모가 된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범주에 속한 응답자들에게서 그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표 Ⅱ-5-17〉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

(단위: %)

	취업을 하고 있어서	시간이 없어서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받고 싶은 프로그램이 없어서	지금은 취업을 원하지 않아서	근처에 받을 만한 곳이 없어서	교육/취업 정보를 어디서 얻을지 몰라서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훈련기간 동안 생활비가 부족해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연령, 학력수준 등의 제약 때문에	기타	합계(n)
전 체	27.4	22.6	13.5	8.7	5.5	5.3	4.9	4.0	3.9	3.0	0.4	0.8	100.0(3,139)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22.6	24.2	11.4	9.0	4.5	6.7	4.6	5.1	4.1	7.0	0.3	0.6	100.0(786)
40대	28.8	23.4	13.4	8.6	5.0	5.1	4.2	4.0	4.6	2.0	0.3	0.7	100.0(1,806)
50대 이상	29.6	17.6	16.4	8.5	8.3	4.2	7.7	2.4	1.5	0.9	1.0	1.8	100.0(547)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21.1	13.0	22.0	3.2	14.2	1.7	8.8	1.2	5.6	5.4	2.8	1.0	100.0(95)
고졸 이하	25.0	22.6	14.0	8.4	6.7	5.6	5.8	4.3	3.6	2.6	0.4	1.1	100.0(1,597)
대학 이상	30.5	23.2	12.3	9.3	3.6	5.2	3.7	3.8	4.2	3.4	0.3	0.6	100.0(1,447)
혼인 상태													
이혼	27.5	23.3	13.6	8.2	5.1	5.1	4.6	4.3	4.1	2.8	0.4	0.9	100.0(2,649)
사별	33.1	20.2	12.2	9.9	4.7	6.6	5.0	2.9	3.5	1.4	0.3	0.2	100.0(321)
기타	14.4	15.2	12.8	13.4	12.6	7.1	9.3	1.9	1.9	10.3	0.5	0.4	100.0(168)
가구 구성													
모자	22.5	22.0	15.1	9.6	5.8	5.8	5.7	4.3	3.5	4.2	0.5	0.9	100.0(1,672)
모자+기타	28.2	20.1	11.2	6.2	7.6	5.6	2.9	7.7	5.9	3.9	-	0.7	100.0(451)
부자	33.6	25.3	13.1	7.6	5.2	3.6	4.3	2.4	2.4	1.1	0.5	0.9	100.0(661)
부자+기타	37.8	23.1	9.1	9.1	1.5	6.1	4.9	0.7	6.2	0.4	0.4	0.6	100.0(355)

	취업을 하고 있어서	시간이 없어서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받고 싶은 프로그램이 없어서	지금은 취업을 원하지 않아서	근처에 받을 만한 곳이 없어서	교육/취업 정보를 어디서 얻을지 몰라서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훈련기간 동안 생활비가 부족해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연령, 학력수준 등의 제약 때문에	기타	합계(n)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19.3	23.6	13.7	6.6	6.1	7.6	4.6	1.5	3.4	12.9	0.2	0.4	100.0(366)
초등학생	27.7	21.7	13.2	8.7	5.2	4.9	4.3	4.8	4.8	3.4	0.4	0.8	100.0(1,199)
중학생 이상	29.0	23.0	13.6	9.1	5.5	5.1	5.4	4.0	3.4	0.5	0.5	1.0	100.0(1,575)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40.0	24.0	11.2	7.6	1.7	4.6	3.9	2.3	3.3	1.2	0.3	0.0	100.0(1,419)
임시/일용근로자	17.0	26.7	14.2	9.4	2.0	6.6	6.9	6.1	6.6	3.5	0.7	0.4	100.0(801)
자영업/무급가족	33.1	21.4	16.7	10.3	3.2	3.8	2.6	3.5	3.4	1.8	0.2	-	100.0(428)
비취업	3.0	12.8	16.1	9.0	24.2	6.6	6.5	6.0	1.9	8.8	0.4	4.7	100.0(490)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22.1	21.2	15.1	8.9	7.2	5.5	5.4	5.2	4.2	3.6	0.4	1.3	100.0(2,039)
일반 가구	37.2	25.1	10.4	8.1	2.3	5.1	4.1	1.8	3.5	2.0	0.5	-	100.0(1,100)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	9.7	10.5	3.3	23.4	8.7	9.5	11.3	9.3	13.3	-	1.0	100.0(22)
100~200만원 미만	11.6	16.7	16.0	8.9	14.0	7.0	7.6	6.6	2.7	5.8	0.6	2.5	100.0(581)
200~300만원 미만	23.9	23.1	14.9	9.4	4.0	5.2	5.3	4.9	5.3	2.8	0.5	0.8	100.0(1,132)
300만원 이상	37.2	24.7	11.3	8.0	2.8	4.7	3.5	2.1	3.3	1.9	0.3	0.2	100.0(1,404)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26.5	23.5	12.4	9.6	4.2	5.8	4.3	3.9	3.7	4.9	0.5	0.7	100.0(1,334)
5~10년 미만	27.6	22.7	14.8	8.3	5.5	5.0	5.2	3.9	4.3	1.9	0.3	0.6	100.0(1,262)
10년 이상		20.1	12.8	7.3	8.3	4.9	5.9	4.4	3.6	1.2	0.7	1.9	100.0(5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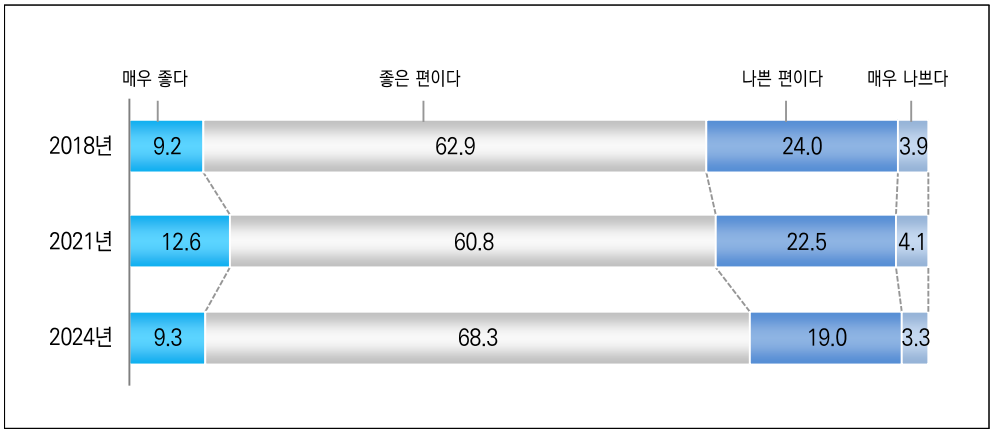
6. 건강 및 주거환경

가. 건강

1) 건강상태

한부모 응답자의 건강상태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인이 지각하는 평소 건강 상태의 경우, '좋은편이다'라는 응답이 68.3%로 가장 많았다. 이는 2018년(62.9%), 2021년(60.8%) 조사와 비교했을 때 증가한 수치이다. 뒤이어 '나쁜 편이다'라는 응답이 19.0%로 두 번째로 많았는데, '매우 나쁘다(3.3%)'와 함께, 스스로의 평소 건강을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비율이 22.3%로 전체의 약 1/5에 해당했다. 건강을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비율도 지난 조사와 비교해보았을 때, 2018년에 27.9%, 2021년에 26.6%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띄고 있었다. 2024년 「사회조사」에서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긍정적(매우좋다+좋은편이다)으로 평가한 비율인 53.8%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다(통계청, 2024d).

(단위: %, 2018년: n=2,500, 2021년: n=3,300, 2024년: n=3,315)



[그림 Ⅱ-6-1] 건강상태

한편, 응답자 본인이 평가하는 건강상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가구형태 중에서는 모자(+기타)가구가, 종사상 지위에서는 비취업자 한부모가 취업한 한부모보다, 정부지원유형에 따라서는 저소득 지원 가구이거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다시 말해, 경제적 상황이 열악한 한부모가 그렇지 않은 한부모보다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Ⅱ-6-1〉 건강상태

(단위: %, 가구)

	① 매우 좋다	② 좋은 편이다	③ 나쁜 편이다	④ 매우 나쁘다	①+② 좋다	③+④ 나쁘다	합계(n)	$\chi^2(df)$
전 체	9.3	68.3	19.0	3.3	77.7	22.3	100.0(3,315)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16.2	68.3	13.6	1.9	84.5	15.5	100.0(846)	159.605(6)***
40대	7.8	71.3	18.3	2.6	79.1	20.9	100.0(1,895)	
50대 이상	4.3	58.6	29.4	7.6	62.9	37.1	100.0(575)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6.9	44.0	40.1	9.0	50.9	49.1	100.0(101)	32.504(2)***
고졸 이하	6.1	65.9	23.4	4.6	72.0	28.0	100.0(1,666)	
대학 이상	12.9	72.6	12.9	1.6	85.5	14.5	100.0(1,548)	
혼인 상태								
이혼	9.6	68.8	18.4	3.2	78.4	21.6	100.0(2,793)	33.633(6)***
사별	7.1	73.0	17.2	2.7	80.1	19.9	100.0(345)	
기타	9.5	52.1	31.6	6.8	61.6	38.4	100.0(178)	
가구 구성								
모자	6.1	69.0	21.3	3.6	75.1	24.9	100.0(1,773)	
모자+기타	14.6	63.1	18.9	3.4	77.7	22.3	100.0(503)	114.146(9)***
부자	7.8	73.8	14.9	3.5	81.6	18.4	100.0(674)	
부자+기타	20.7	62.2	15.9	1.2	82.9	17.1	100.0(365)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15.8	69.7	12.7	1.8	85.5	14.5	100.0(392)	61.559(6)***
초등학생	11.3	68.4	17.1	3.1	79.7	20.3	100.0(1,281)	
중학생 이상	6.3	67.9	22.0	3.8	74.2	25.8	100.0(1,642)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11.3	79.0	9.5	0.3	90.3	9.7	100.0(1,483)	
임시/일용근로자	7.6	65.6	24.7	2.1	73.2	26.8	100.0(858)	660.946(9)***
자영업/무급가족	13.6	71.7	14.2	0.5	85.3	14.7	100.0(440)	
비취업	3.2	40.4	40.4	16.0	43.6	56.4	100.0(534)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7.4	63.2	24.5	4.9	70.6	29.4	100.0(2,184)	200.455(3)***
일반 가구	13.0	78.3	8.5	0.2	91.3	8.7	100.0(1,131)	

	① 매우 좋다	② 좋은 편이다	③ 나쁜 편이다	④ 매우 나쁘다	①+② 좋다	③+④ 나쁘다	합계(n)	$\chi^2(df)$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0.5	45.5	36.7	17.3	46.0	54.0	100.0(24)	
100~200만원 미만	4.2	51.0	35.5	9.4	55.2	44.8	100.0(619)	412.254(9)***
200~300만원 미만	5.8	68.6	22.6	3.0	74.4	25.6	100.0(1,210)	
300만원 이상	14.6	75.8	8.8	0.8	90.4	9.6	100.0(1,462)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11.1	72.7	13.8	2.5	83.7	16.3	100.0(1,415)	89.096(6)***
5~10년 미만	8.7	67.9	20.4	3.0	76.6	23.4	100.0(1,328)	
10년 이상	6.6	58.7	28.7	6.1	65.2	34.8	100.0(5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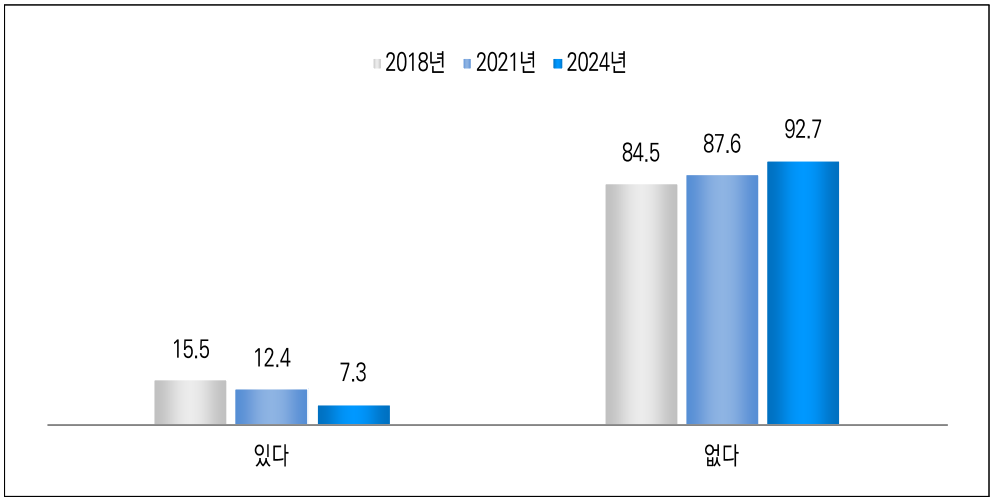
주: ***p<.001

우울증선별도구(PHQ-9)를 활용하여 한부모의 우울장애 유병률[17]을 확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3%가 우울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에서 조사하는 「2022년 국민건강통계」 내에는 동일 척도를 활용해 우울장애유병률을 조사하고 있는데, 2022년 기준으로 19세 이상 유병률이 5.0%인 것을 고려하면, 한부모의 우울장애유병률은 다소 높은편이다(질병관리청, 2023: 89).

지난 조사와 비교해보면, 우울감을 경험해본적이 있다는 응답은 2018년에 15.5%, 2021년에 12.4%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경험해본적이 없다는 응답은 2018년에 84.5%, 2021년에 87.6%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17) 질병관리청의 「2022년 국민건강통계」에서 우울장애 유병률을 산출한 방식과 동일하게 본조사에서도 우울증선별도구(PHQ-9) 총점 27점 중 10점 이상일 경우 우울장애가 있는 것으로 분석함(질병관리청, 2023: 89).

(단위: %, 2018년: n=2,500, 2021년: n=3,300, 2024년: n=3,315)



[그림 Ⅱ-6-2] 우울감 경험 여부

우울감 경험 여부는 50대 이상 응답자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학력이 중졸 이상인 집단이 고졸이나 대학이상의 학력집단에 비해, 한부모가 비취업인 경우, 정부지원 유형이 저소득 지원 가구인 집단이, 소득수준은 낮을수록, 한부모가 된 기간이 길어질수록 우울감을 경험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Ⅱ-6-2〉 우울감 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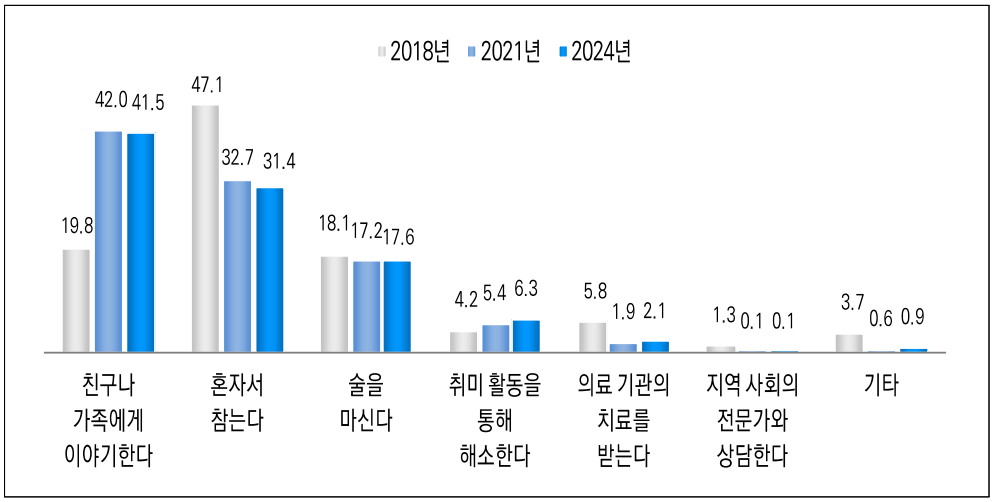
(단위: %, 가구)

	있다	없다	합계(n)	$\chi^2(df)$
전 체	7.3	92.7	100.0(3,315)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6.8	93.2	100.0(846)	9.003(2)*
40대	6.7	93.3	100.0(1,895)	
50대 이상	10.2	89.8	100.0(575)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20.3	79.7	100.0(101)	69.186(14)***
고졸 이하	8.1	91.9	100.0(1,666)	
대학 이상	5.6	94.4	100.0(1,548)	
혼인 상태				
이혼	7.2	92.8	100.0(2,793)	20.696(2)***
사별	4.2	95.8	100.0(345)	
기타	15.0	85.0	100.0(178)	
가구 구성				
모자	8.7	91.3	100.0(1,773)	
모자+기타	6.7	93.3	100.0(503)	12.582(3)**
부자	4.7	95.3	100.0(674)	
부자+기타	6.2	93.8	100.0(365)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3.6	96.4	100.0(1,483)	
임시/일용근로자	8.4	91.6	100.0(858)	151.674(3)***
자영업/무급가족	3.5	96.5	100.0(440)	
비취업	19.1	80.9	100.0(534)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9.4	90.6	100.0(2,184)	43(1)***
일반 가구	3.2	96.8	100.0(1,131)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20.0	80.0	100.0(24)	
100~200만원 미만	14.1	85.9	100.0(619)	91.814(3)***
200~300만원 미만	8.8	91.2	100.0(1,210)	
300만원 이상	3.0	97.0	100.0(1,462)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5.7	94.3	100.0(1,415)	17.974(2)***
5~10년 미만	7.3	92.7	100.0(1,328)	
10년 이상	11.1	88.9	100.0(572)	

주: *p<.05, **p<.01, ***p<.001

한편 한부모들이 이러한 우울감을 느낄 때 이를 해소하는 주요한 방법은 '친구나 가족에게 이야기한다(41.5%)', '혼자서 참는다(31.4%)', '술을 마신다(17.6%)' 순으로 나타났으며, 의료기관의 치료(2.1%)를 받거나 지역사회의 전문가와 상담(0.1%)한다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보면, 혼자서 참는다는 응답은 2018년에 47.1%로 절반 정도를 차지했음에 반해,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반면 술을 마신다는 응답은 2018년에 18.1%, 2021년에 17.2%로 거의 변화가 없고,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는다와 지역사회의 전문가와 상담한다는 응답은 2018년에 각각 5.8%, 1.3%, 2021년에 1.9%, 0.1%로 오히려 감소한 채 올해는 비중이 유지되었다.

(단위: %, 2018년: n=386, 2021년: n=3,300, 2024년: n=3,315)



주: 2018년에는 우울감을 경험한 사람에게만 질문

[그림 Ⅱ-6-3] 우울감 해소방식

우울감 해소방식에 대해 집단별로 살펴보면, '친구나 가족에게 이야기한다'는 응답은 연령이 50대 이상보다는 30대 이하나 40대 이하인 집단에서, 학력은 중졸 이하 보다는 고졸 이하나 대졸 이상의 집단에서, 혼인 상태는 기타 보다는 이혼이나 사별인 경우, 가구 구성은 부자(+기타) 보다는 모자(+기타) 가구인 경우, 종사상 지위는 비취업자보다는 취업상태인 경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한부모가 된 기간이 10년 이상의 집단보다는 5년 미만이나 5~10년 미만인 경우에 높게 나타났다. '혼자서 참는다'는 응답은 학력이 낮을수록, 혼인 상태는 이혼이나 사별보다는 기타인 집단에서, 부자(+기타) 가구보다는 모자(+기타) 가구인 경우, 막내 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종사상 지위는 임시/일용

근로자 또는 비취업자인 경우, 정부 지원 유형이 저소득 지원 가구인 경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한부모가 된 기간이 길수록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술을 마신다'는 응답은 한부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구성은 모자(+기타)보다는 부자(+기타) 가구인 경우, 막내자녀 연령이 높을수록, 종사상 지위가 상용근로자 또는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인 경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한부모가 된 기간이 짧을수록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Ⅱ-6-3〉 우울감 해소방식

(단위: %, 가구)

	친구나 가족에게 이야기한다	혼자서 참는다	술을 마신다	취미 활동을 통해 해소한다	의료 기관의 치료를 받는다	지역 사회의 전문가와 상담한다	기타	없다	합계(n)	$\chi^2(df)$
전 체	41.5	31.4	17.6	6.3	2.1	0.1	0.6	0.3	100.0(3,315)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43.6	33.3	13.6	6.1	2.2	0.1	0.5	0.5	100.0(846)	62.657(14)***
40대	43.9	29.8	17.7	6.1	1.8	0.1	0.3	0.3	100.0(1,895)	
50대 이상	30.3	34.1	23.4	7.2	2.9	0.1	1.7	0.3	100.0(575)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39.7	44.2	8.0	2.7	5.3	-	-	-	100.0(101)	24.181(2)***
고졸 이하	40.8	34.9	16.2	4.5	2.5	0.2	0.6	0.4	100.0(1,666)	
대학 이상	42.3	26.9	19.8	8.5	1.4	0.0	0.7	0.3	100.0(1,548)	
혼인 상태										
이혼	42.3	30.7	17.5	6.4	2.1	0.1	0.6	0.4	100.0(2,793)	25.158(14)*
사별	41.0	30.5	20.3	6.1	1.3	0.2	0.6	0.1	100.0(345)	
기타	29.9	44.8	15.2	5.4	3.5	-	1.1	-	100.0(178)	
가구 구성										
모자	46.3	35.2	9.0	5.2	3.1	0.2	0.8	0.3	100.0(1,773)	
모자+기타	46.2	37.4	8.3	5.5	1.0	-	1.2	0.4	100.0(503)	458.475(21)***
부자	27.2	22.5	38.6	9.9	1.0	-	0.1	0.7	100.0(674)	
부자+기타	38.0	21.6	33.8	6.0	0.5	0.2	-	-	100.0(3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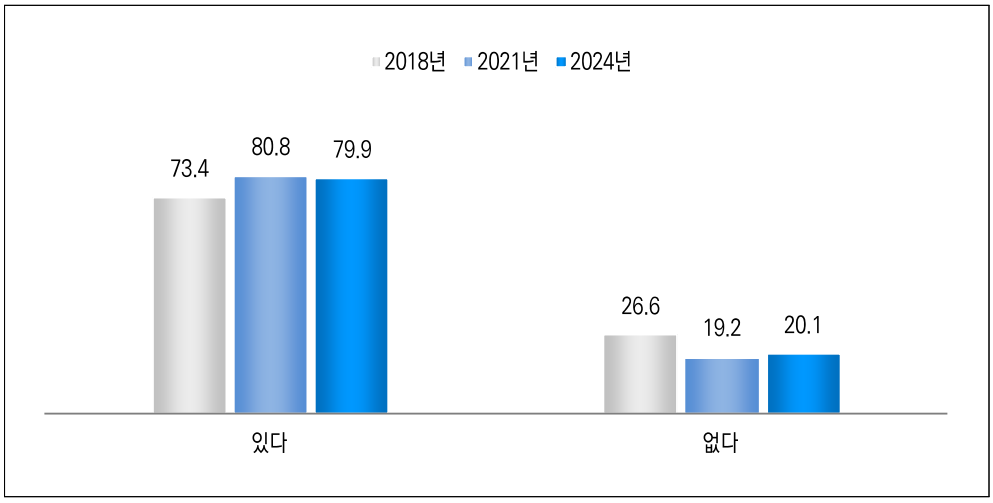
	친구나 가족에게 이야기한다	혼자서 참는다	술을 마신다	취미 활동을 통해 해소한다	의료 기관의 치료를 받는다	지역 사회의 전문가와 상담한다	기타	없다	합계(n)	$\chi^2(df)$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39.0	37.2	13.8	7.0	1.7	0.1	0.9	0.4	100.0(392)	25.157(14)*
초등학생	44.4	30.7	17.0	5.1	2.2	0.1	0.3	0.3	100.0(1,281)	
중학생 이상	39.7	30.6	19.1	7.1	2.1	0.2	0.8	0.4	100.0(1,642)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45.7	23.1	20.8	8.5	0.8	0.1	0.6	0.4	100.0(1,483)	
임시/일용근로자	40.5	38.9	15.4	3.0	1.5	0.2	0.3	0.3	100.0(858)	276.369(21)***
자영업/무급가족	40.0	25.2	23.6	8.4	1.9	-	0.2	0.6	100.0(440)	
비취업	32.3	48.0	7.5	3.9	6.4	0.2	1.5	0.1	100.0(534)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41.0	37.7	12.5	4.6	2.7	0.2	0.8	0.5	100.0(2,184)	229.19(7)***
일반 가구	42.3	19.3	27.6	9.7	0.9	0.0	0.2	-	100.0(1,131)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30.6	46.5	9.3	7.0	3.0	-	3.6	-	100.0(24)	
100~200만원 미만	33.5	46.7	9.5	3.5	4.9	0.3	0.8	0.7	100.0(619)	266.542(21)***
200~300만원 미만	44.0	35.3	13.5	4.4	1.9	0.2	0.5	0.3	100.0(1,210)	
300만원 이상	42.9	21.6	24.7	9.1	1.0	-	0.6	0.2	100.0(1,462)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41.9	30.7	19.1	6.1	1.4	0.1	0.5	0.1	100.0(1,415)	34.645(14)**
5~10년 미만	43.6	29.8	17.2	6.1	2.5	0.1	0.5	0.3	100.0(1,328)	
10년 이상	35.4	37.2	15.1	7.5	2.6	0.2	1.1	0.9	100.0(572)	

주: *p<.05, **p<.01, ***p<.001

2) 건강검진 및 의료서비스 이용

최근 2년동안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9.9%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20.1%가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작성하는 「2022년 건강검진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건강검진 일반 수검율은 75.4%로 집계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23: xlvii). 이와 비교해보면 한부모 응답자의 건강검진 경험은 다소 높은편이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보면, 80.8%의 응답자가 건강검진을 경험했다는 2021년의 조사에 비해서는 변화가 크지 않으나, 2018년의 73.4%에 비교하면 건강검진 경험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단위: %, 2018년: n=2,500, 2021년: n=3,300, 2024년: n=3,315)



[그림 Ⅱ-6-4] 건강검진 경험(최근 2년)

집단별로 건강검진 경험에 대해 분석해보면, 한부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혼인 상태가 이혼 또는 사별인 경우, 모자(+기타) 가구보다는 부자(+기타) 가구인 경우, 막내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종사상 지위가 상용근로자인 경우, 정부 지원 유형이 일반 가구인 경우, 소득 수준이 높을스록, 한부모가 된 기간이 길어질수록 건강검진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Ⅱ-6-4〉 건강검진 경험(최근 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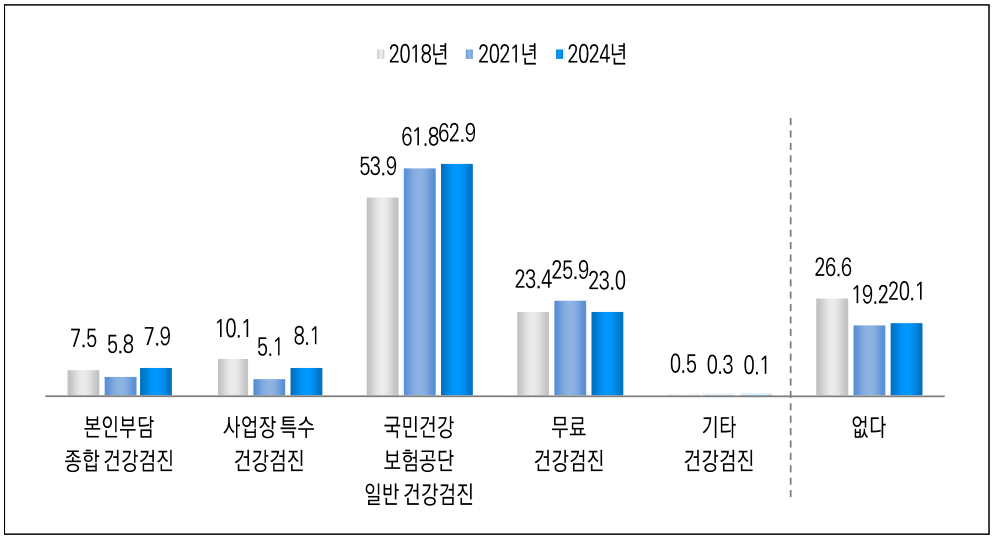
(단위: %, 가구)

	있다	없다	합계(n)	$\chi^2(df)$
전 체	79.9	20.1	100.0(3,315)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69.1	30.9	100.0(846)	82.096(2)***
40대	83.1	16.9	100.0(1,895)	
50대 이상	84.9	15.1	100.0(575)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74.9	25.1	100.0(101)	14.037(2)***
고졸 이하	76.8	23.2	100.0(1,666)	
대학 이상	83.5	16.5	100.0(1,548)	
혼인 상태				
이혼	80.2	19.8	100.0(2,793)	33.305(2)***
사별	85.4	14.6	100.0(345)	
기타	64.4	35.6	100.0(178)	
가구 구성				
모자	79.2	20.8	100.0(1,773)	
모자+기타	76.5	23.5	100.0(503)	9.072(3)*
부자	82.6	17.4	100.0(674)	
부자+기타	82.8	17.2	100.0(365)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68.7	31.3	100.0(392)	66.08(2)***
초등학생	76.6	23.4	100.0(1,281)	
중학생 이상	85.1	14.9	100.0(1,642)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91.2	8.8	100.0(1,483)	
임시/일용근로자	70.9	29.1	100.0(858)	226.76(3)***
자영업/무급가족	75.5	24.5	100.0(440)	
비취업	66.4	33.6	100.0(534)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75.4	24.6	100.0(2,184)	79.951(1)***
일반 가구	88.5	11.5	100.0(1,131)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66.5	33.5	100.0(24)	
100~200만원 미만	67.1	32.9	100.0(619)	113.523(3)***
200~300만원 미만	78.1	21.9	100.0(1,210)	
300만원 이상	86.9	13.1	100.0(1,462)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77.5	22.5	100.0(1,415)	11.936(2)**
5~10년 미만	80.5	19.5	100.0(1,328)	
10년 이상	84.2	15.8	100.0(572)	

주: *p<.05, **p<.01, ***p<.001

건강검진 중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일반 건강검진을 받았다(62.9%)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뒤이어 무료 건강검진이 23.0%, 사업장 특수 건강검진이 8.1%, 본인 부담 종합 건강검진이 7.9%로 조사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일반 건강검진은 지난 조사와 비교해보았을 때, 2018년에 53.9%, 2021년에 61.8%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단위: %, 2018년: n=2,500, 2021년: n=3,300, 2024년: n=3,315)



[그림 Ⅱ-6-5] 수혜 건강검진 종류(복수응답)

집단별로 건강검진을 받은 종류에 대해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일반 건강검진은 한부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막내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종사상 지위가 상용근로자인 경우, 정부 지원 유형은 일반 가구인 경우,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수혜를 받았다는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무료 건강검진은 한부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종사상 지위가 비취업자인 경우, 정부 지원 유형이 저소득 지원 가구인 경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한부모가 된 기간이 길수록 수혜를 받았다는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Ⅱ-6-5〉 수혜 건강검진 종류(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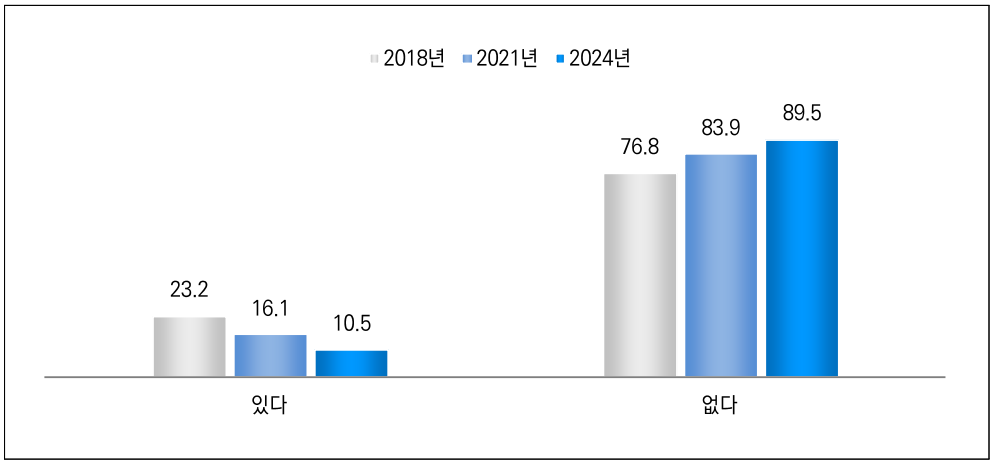
(단위: %, 가구)

	본인부담 종합 건강검진	사업장 특수 건강검진	국민건강 보험공단 일반 건강검진	무료 건강검진	기타 건강검진	(n)
전 체	7.9	8.1	62.9	23.0	0.1	(3,315)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6.1	10.4	53.2	17.3	0.1	(846)
40대	8.3	7.6	66.1	23.3	0.2	(1,895)
50대 이상	9.4	6.6	66.8	30.3	0.1	(575)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9.1	2.5	47.9	27.7	-	(101)
고졸 이하	6.4	5.6	59.9	25.0	0.1	(1,666)
대학 이상	9.4	11.2	67.1	20.5	0.2	(1,548)
혼인 상태						
이혼	7.3	8.4	63.2	22.2	0.1	(2,793)
사별	12.4	8.6	67.4	26.8	-	(345)
기타	8.3	2.8	49.8	27.5	0.3	(178)
가구 구성						
모자	7.1	6.1	60.3	24.0	0.2	(1,773)
모자+기타	7.0	9.6	62.7	20.0	-	(503)
부자	9.6	10.2	66.6	22.8	0.1	(674)
부자+기타	10.0	11.8	69.1	22.5	-	(365)

	본인부담 종합 건강검진	사업장 특수 건강검진	국민건강 보험공단 일반 건강검진	무료 건강검진	기타 건강검진	(n)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5.4	11.5	55.2	19.3	-	(392)
초등학생	6.3	8.9	60.0	20.1	0.2	(1,281)
중학생 이상	9.7	6.7	67.0	26.2	0.1	(1,642)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10.0	14.9	74.8	22.0	0.2	(1,483)
임시/일용근로자	4.3	3.2	55.5	23.4	0.1	(858)
자영업/무급가족	11.8	2.5	59.8	19.5	0.2	(440)
비취업	4.8	1.9	44.4	27.9	0.1	(534)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6.2	5.3	57.8	24.5	0.2	(2,184)
일반 가구	11.2	13.5	72.8	20.1	0.1	(1,131)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7.2	6.7	35.8	37.5	-	(24)
100~200만원 미만	4.7	1.8	45.8	28.4	0.2	(619)
200~300만원 미만	6.1	5.2	62.3	23.5	0.2	(1,210)
300만원 이상	10.8	13.2	71.1	20.1	0.1	(1,462)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5.9	8.9	61.8	18.6	0.1	(1,415)
5~10년 미만	9.0	8.6	62.8	23.8	0.2	(1,328)
10년 이상	10.2	4.9	65.9	32.0	0.1	(572)

최근 1년간 한부모 응답자가 병의원(치과 제외)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전체의 10.5%가 있다고 응답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보면 가지 못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018년에 23.2%, 2021년에 16.1%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단위: %, 2018년: n=2,500, 2021년: n=3,300, 2024년: n=3,315)



[그림 Ⅱ-6-6] 병의원에 가지 못한 경험(최근 1년)

집단별로 병의원에 가지 못한 경험을 분석한 결과, 원하는 때에 병원에 가지 못했다는 응답은 학력이 낮을수록, 부자(+기타)가구 보다는 모자(+기타)가구의 경우, 종사상 지위는 임시/일용근로자 이거나 비취업자인 경우, 정부 지원 유형은 저소득 지원 가구인 경우 그리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Ⅱ-6-6〉 병의원에 가지 못한 경험(최근 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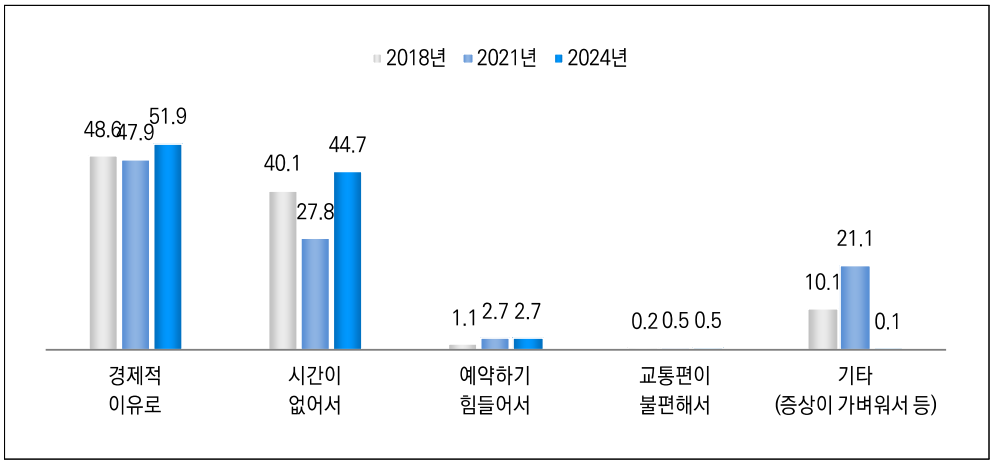
(단위: %, 가구)

	있다	없다	합계(n)	$\chi^2(df)$
전 체	10.5	89.5	100.0(3,315)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21.5	78.5	100.0(101)	62.251(10)***
고졸 이하	10.3	89.7	100.0(1,666)	
대학 이상	10.1	89.9	100.0(1,548)	
혼인 상태				
이혼	10.3	89.7	100.0(2,793)	16.48(2)***
사별	8.0	92.0	100.0(345)	
기타	19.4	80.6	100.0(178)	
가구 구성				
모자	11.9	88.1	100.0(1,773)	
모자+기타	11.4	88.6	100.0(503)	13.144(3)**
부자	7.4	92.6	100.0(674)	
부자+기타	8.3	91.7	100.0(365)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7.6	92.4	100.0(1,483)	
임시/일용근로자	13.4	86.6	100.0(858)	35.65(3)***
자영업/무급가족	9.2	90.8	100.0(440)	
비취업	15.3	84.7	100.0(534)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13.3	86.7	100.0(2,184)	52.735(1)***
일반 가구	5.2	94.8	100.0(1,131)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18.9	81.1	100.0(24)	
100~200만원 미만	13.4	86.6	100.0(619)	36.781(3)***
200~300만원 미만	13.3	86.7	100.0(1,210)	
300만원 이상	6.9	93.1	100.0(1,462)	

주: **p<.01, ***p<.001

병의원에 가지 못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경제적 이유(51.9%)'로 전체 응답자의 절반정도가 해당 선택지에 응답했고 뒤이어 '시간이 없어서(44.7%)', '예약하기 힘들어서(2.7%)'가 뒤를 이었다. 경제적 이유로 가지 못했다는 응답은 지난 조사(2018년 48.6%, 2021년 47.9%) 대비 증가하였고, 시간이 없어서 라는 응답은 지난 2021년 조사에서는 27.8%로 2018년의 40.1%에 비해 감소했다가 올해 다시 증가했다.

(단위: %, 2018년: n=580, 2021년: n=532, 2024년: n=349)



[그림 Ⅱ-6-7] 병의원에 가지 못한 주된 이유

집단별로 병의원에 가지 못한 이유를 분석한 결과, 경제적 이유로 가지 못했다는 응답은 한부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막내 자녀의 연령이 초등학생인 경우, 종사상 지위가 비취업자이거나 임시/일용근로자인 경우, 정부 지원 유형은 저소득 지원 가구인 경우, 소득수준은 100~200만원 미만인 구간에 해당되거나, 한부모가 된 기간이 길어질수록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시간이 없어서 가지 못했다는 응답은 한부모의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막내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상용근로자 이거나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인 경우, 정부 지원유형이 일반 가구인 경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한부모가 된 기간이 짧을수록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나 경제적 이유로 가지 못했다는 응답과 대조적이었다.

〈표 Ⅱ-6-7〉 병의원에 가지 못한 주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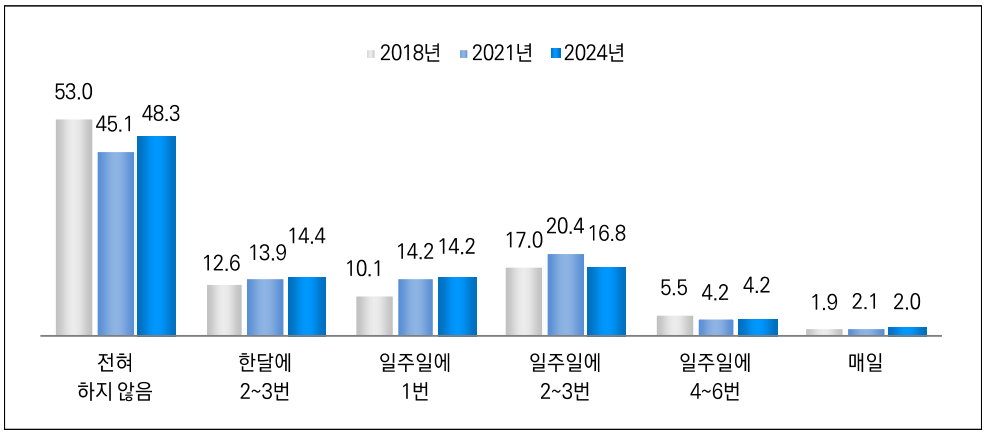
(단위: %, 가구)

	경제적 이유로	시간이 없어서	예약하기 힘들어서	교통편이 불편해서	기타	합계(n)
전 체	51.9	44.7	2.7	0.5	0.1	100.0(349)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41.8	51.3	5.7	1.2	-	100.0(86)
40대	52.0	45.3	2.1	0.3	0.3	100.0(192)
50대 이상	64.1	35.2	0.6	-	-	100.0(70)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85.9	14.1	-	-	-	100.0(22)
고졸 이하	56.8	40.9	1.9	0.3	0.1	100.0(171)
대학 이상	42.0	53.2	4.0	0.6	0.2	100.0(156)
혼인 상태						
이혼	50.4	46.4	2.5	0.6	0.2	100.0(287)
사별	60.4	39.6	-	-	-	100.0(28)
기타	57.7	35.4	6.9	-	-	100.0(34)
가구 구성						
모자	56.8	39.5	3.2	0.5	-	100.0(212)
모자+기타	42.6	57.4	-	-	-	100.0(57)
부자	50.0	47.5	1.4	-	1.0	100.0(50)
부자+기타	38.5	53.1	6.4	2.0	-	100.0(30)

	경제적 이유로	시간이 없어서	예약하기 힘들어서	교통편이 불편해서	기타	합계(n)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31.5	60.8	7.7	-	-	100.0(44)
초등학생	58.5	37.8	2.8	0.8	0.2	100.0(125)
중학생 이상	52.4	45.6	1.5	0.3	0.2	100.0(179)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27.2	70.7	2.1	-	-	100.0(112)
임시/일용근로자	60.7	37.8	0.4	0.9	0.3	100.0(115)
자영업/무급가족	33.9	64.6	1.5	-	-	100.0(40)
비취업	82.5	9.1	7.4	0.7	0.3	100.0(82)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56.6	40.5	2.2	0.6	0.2	100.0(290)
일반 가구	28.9	66.0	5.1	-	-	100.0(58)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68.5	31.5	-	-	-	100.0(4)
100~200만원 미만	87.4	8.5	3.9	-	0.3	100.0(83)
200~300만원 미만	51.5	43.8	3.9	0.6	0.2	100.0(161)
300만원 이상	22.8	76.6	-	0.6	-	100.0(101)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48.7	48.1	2.3	0.7	0.2	100.0(145)
5~10년 미만	51.8	44.6	3.6	-	-	100.0(133)
10년 이상	59.0	38.1	1.8	0.8	0.3	100.0(70)

규칙적인 운동(예: 걷기, 등산, 헬스, 축구, 자전거, 수영 등)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질문한 결과,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8.3%로 약 절반에 가깝게 나타났다. 뒤이어, 일주일에 2~3번 한다는 응답이 16.8%, 한달에 2~3번이 14.4%, 일주일에 한번은 14.2% 순으로 집계되었다. 지난조사와 비교해보면,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018년에 53.0%로 절반을 넘었다가 2021년에 45.1%로 감소했으나, 올해는 소폭 상승한 추세이다. 한달에 2~3번이나 일주일에 1번 정도의 운동을 꾸준히 한다는 응답은 지난 조사 대비 증가한 경향을 보이고, 일주일에 2~3번은 2021년 20.4%였다가 올해는 감소했고, 일주일에 4~6번은 2018년에 5.5%였다가 2021년과 2024년은 4.2%로 소폭 감소한 채 유지되고 있었다.

(단위: %, 2018년: n=2,500, 2021년: n=3,300, 2024년: n=3,315)



[그림 Ⅱ-6-8] 규칙적인 운동 현황

집단별로 규칙적인 운동의 현황을 살펴보면,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한부모의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가구 구성이 모자가구인 경우, 막내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종사상 지위는 상용근로자를 제외하고 임시/일용근로자,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 비취업자인 경우, 정부지원유형은 저소득 지원가구인 경우, 소득수준이 100~200만원이거나 200~300만원 미만의 집단인 경우, 한부모가 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높게 나타났다. 일주일에 2~3번 운동을 한다는 응답은 한부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은 대졸 이상인 경우, 가구 구성은 부자(+기타)인 경우, 막내 자녀 연령이 중학생 이상인 경우, 종사상 지위가 상용근로자인 경우 정부 지원 유형이 일반 가구인 경우, 소득수준은 300만원 이상일 때, 한부모가 된 기간이 짧을 때 응답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Ⅱ-6-8〉 규칙적인 운동 현황

(단위: %, 가구)

	전혀 하지 않는다	한 달에 2~3번 정도	일주일에 1번	일주일에 2~3번	일주일에 4~5번	매일	합계(n)	$\chi^2(df)$
전 체	48.3	14.4	14.2	16.8	4.2	2.0	100.0(3,315)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53.8	14.2	11.7	14.9	3.7	1.8	100.0(846)	24.799(10)**
40대	46.7	15.3	14.3	17.3	4.4	1.9	100.0(1,895)	
50대 이상	45.6	11.6	17.7	18.0	4.6	2.6	100.0(575)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56.6	10.8	12.8	14.6	2.2	2.9	100.0(101)	190.157(12)***
고졸 이하	54.1	13.7	13.5	13.5	3.7	1.6	100.0(1,666)	
대학 이상	41.6	15.4	15.1	20.6	5.0	2.4	100.0(1,548)	
혼인 상태								
이혼	48.1	15.1	14.2	16.7	3.9	2.0	100.0(2,793)	19.404(10)*
사별	46.6	10.8	14.9	20.3	6.0	1.4	100.0(345)	
기타	54.8	9.7	14.2	12.5	6.4	2.5	100.0(178)	
가구 구성								
모자	50.8	14.8	13.2	15.4	3.7	2.2	100.0(1,773)	
모자+기타	48.0	12.9	15.2	17.2	4.3	2.4	100.0(503)	29.613(15)*
부자	43.2	15.8	15.8	19.3	4.2	1.7	100.0(674)	
부자+기타	45.9	11.9	15.0	19.0	7.1	1.1	100.0(365)	

	전혀 하지 않는다	한 달에 2~3번 정도	일주일에 1번	일주일에 2~3번	일주일에 4~5번	매일	합계(n)	$\chi^2(df)$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56.7	10.4	9.6	16.4	4.9	2.0	100.0(392)	27.133(10)**
초등학생	49.0	16.0	14.0	15.3	3.9	1.8	100.0(1,281)	
중학생 이상	45.7	14.1	15.5	18.1	4.3	2.2	100.0(1,642)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41.6	16.4	16.2	19.2	4.9	1.7	100.0(1,483)	
임시/일용근로자	56.8	14.3	13.6	12.2	2.2	0.8	100.0(858)	91.429(15)***
자영업/무급가족	50.6	10.1	13.6	17.4	4.7	3.5	100.0(440)	
비취업	51.3	12.6	10.3	17.3	5.1	3.4	100.0(534)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52.2	14.7	13.2	13.3	3.8	2.7	100.0(2,184)	92.071(5)***
일반 가구	40.7	13.7	16.2	23.6	5.1	0.7	100.0(1,131)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44.3	5.6	11.2	18.2	8.2	12.5	100.0(24)	
100~200만원 미만	54.8	14.5	10.7	13.7	3.6	2.7	100.0(619)	92.68(15)***
200~300만원 미만	52.9	15.0	13.5	12.9	3.5	2.2	100.0(1,210)	
300만원 이상	41.8	14.0	16.4	21.4	5.0	1.4	100.0(1,462)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48.2	16.3	13.6	16.7	3.5	1.5	100.0(1,415)	33.439(10)***
5~10년 미만	47.1	13.8	15.2	17.9	4.4	1.6	100.0(1,328)	
10년 이상	51.4	10.9	13.5	14.5	5.7	4.1	100.0(5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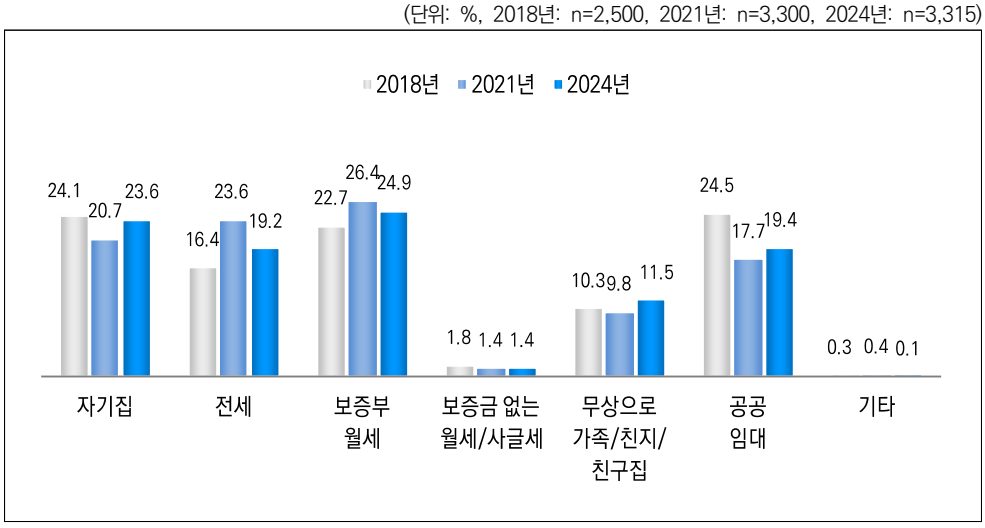
주: *p<.05, **p<.01, ***p<.001

나. 주거

1) 주거현황

현재 거주 중인 집의 형태에 대해 질문한 결과, 보증금 있는 월세로 살고 있다는 비율이 24.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기집(자가)가 23.6%, 공공임대가 19.4%, 전세가 19.2%로 뒤를 이었다. 이는 자가 점유율이 57.5%로 나타난 「2022년도 주거실태조사」의 수치와 비교하면, 한부모가구의 자가 마련 수준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주거 안정성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국토교통부, 2023: 23). 지난 조사와 비교 했을 때, 자가라는 비율은 2018년에 24.1%, 2021년에 20.7%로 소폭 감소했다가 2024년에 다시 증가해 2018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2018년 대비 전세 비중은 2.8%p 증가했고 월세 비중은 2.2%p 증가한 반면 공공임대는 5.1%p 감소했다.

(단위: %, 2018년: n=2,500, 2021년: n=3,300, 2024년: n=3,315)



[그림 Ⅱ-6-9] 거주 형태

집단별로 거주형태를 구분해서 살펴보면, 자가의 비중은 한부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가구 구성이 모자(+기타) 보다는 부자(+기타)가구인 경우, 막내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종사상 지위가 임시/일용근로자나 비취업자 보다는 상용근로자이거나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인 경우, 정부지원유형은 일반 가구인 경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한부모가 된 기간이 짧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보증금이 있는 월세의 경우, 한부모의 학력이 낮거나, 모자 가구 또는 부자 가구인 경우, 막내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종사상 지위가 임시/일용근로자 이거나 비취업인 경우 정부 지원유형이 저소득 지원 가구인 경우, 소득 수준은 100~300만원 구간인 경우와 한부모가 된 기간이 길수록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공공임대 비중도 비슷하게 한부모의 연령이 많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모자 또는 부자 가구인 경우, 막내자녀 연령이 높을수록, 종사상 지위가 임시/일용근로자나 비취업인 경우, 저소득 지원 가구인 경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한부모가 된 기간이 길수록 비중이 비슷하게 나타나 보증부 월세와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표 Ⅱ-6-9〉 거주 형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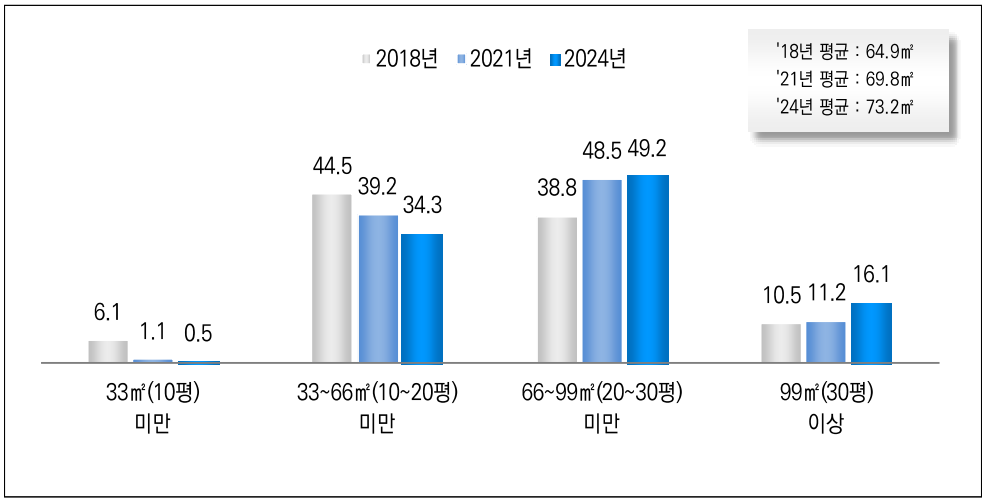
	자기 집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무상으로 가족/친지/친구집	공공임대	기타	합계(n)	$\chi^2(df)$
전 체	23.6	19.2	24.9	1.4	11.5	19.4	0.1	100.0(3,315)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18.7	19.9	24.7	1.4	18.1	17.1	0.1	100.0(846)	82.891(12)***
40대	25.0	20.7	23.5	1.6	9.6	19.7	0.1	100.0(1,895)	
50대 이상	26.4	13.2	29.9	0.8	8.1	21.6	-	100.0(575)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2.6	9.8	47.3	1.6	5.6	32.3	0.7	100.0(101)	48.043(6)***
고졸 이하	18.4	17.6	29.1	1.4	10.5	23.0	-	100.0(1,666)	
대학 이상	30.6	21.5	18.9	1.3	12.9	14.6	0.1	100.0(1,548)	
혼인 상태									
이혼	23.2	19.1	25.3	1.4	11.6	19.3	0.1	100.0(2,793)	74.021(12)***
사별	33.0	24.5	18.6	-	7.3	16.6	-	100.0(345)	
기타	11.5	10.7	31.8	3.7	17.4	25.0	-	100.0(178)	
가구 구성									
모자	14.7	21.0	31.0	1.5	5.2	26.5	0.1	100.0(1,773)	
모자+기타	24.7	10.1	15.9	1.0	37.2	11.1	-	100.0(503)	801.562(18)***
부자	32.0	23.2	24.6	2.0	5.0	13.2	-	100.0(674)	
부자+기타	49.8	15.4	8.4	0.2	18.5	7.5	0.1	100.0(365)	

	자기 집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무상으로 가족/친지/친구집	공공임대	기타	합계(n)	$\chi^2(df)$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20.4	23.0	21.7	1.8	13.8	18.9	0.3	100.0(392)	51.314(12)***
초등학생	21.7	19.9	23.5	1.7	14.8	18.4	-	100.0(1,281)	
중학생 이상	25.8	17.7	26.8	1.0	8.4	20.2	0.1	100.0(1,642)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33.1	23.2	20.7	1.1	9.8	11.9	0.1	100.0(1,483)	462.618(18)***
임시/일용근로자	9.1	15.5	31.8	1.4	14.7	27.4	-	100.0(858)	
자영업/무급가족	38.7	20.6	16.0	2.0	9.9	12.7	-	100.0(440)	
비취업	8.1	12.6	32.9	1.5	12.4	32.4	0.1	100.0(534)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9.9	13.6	32.8	1.6	13.1	28.9	0.1	100.0(2,184)	1093.034(6)***
일반 가구	50.0	29.9	9.7	0.9	8.3	0.9	0.1	100.0(1,131)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3.3	15.9	22.7	-	4.0	54.2	-	100.0(24)	798.911(18)***
100~200만원 미만	5.7	11.8	35.3	2.7	9.6	34.8	0.1	100.0(619)	
200~300만원 미만	12.1	14.9	33.5	1.1	12.4	25.8	0.1	100.0(1,210)	
300만원 이상	41.1	25.9	13.5	1.0	11.7	6.9	0.0	100.0(1,462)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24.3	22.6	21.3	1.5	12.0	18.1	0.2	100.0(1,415)	67.259(12)***
5~10년 미만	24.7	18.9	25.2	1.3	10.9	19.0	-	100.0(1,328)	
10년 이상	19.3	11.3	33.2	1.2	11.8	23.3	-	100.0(572)	

주: ***p<.001

주택 면적에 대해 조사한 결과, 평균은 73.2㎡으로, 2018년에 64.9㎡, 2021년에 69.8㎡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구간별로 살펴보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평형은 20~30평에 해당하는 66~99㎡으로 전체의 49.2%에 달했고 뒤이어 10~20평에 해당하는 33~66㎡가 34.3%를 차지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보면, 33~66㎡은 2018년에 44.5%, 2021년에 39.2%로 점점 줄어드는 추세를 보인 반면, 66~99㎡은 2018년에 38.8%, 2021년에 48.5%, 2024년에 49.2%로 증가했고 99㎡이상의 대형 평수도 2018년에 10.5%에서 2021년에 11.2%, 2024년에 16.1%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단위: %, 2018년: n=2,500, 2021년: n=3,300, 2024년: n=3,315)



[그림 Ⅱ-6-10] 주택 면적

주택의 면적을 집단별로 구분해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장 비중이 높은 66~99㎡의 경우, 한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혼인 상태는 이혼이나 사별인 경우, 모자+기타 가구와 부자+기타 가구인 경우, 종사상 지위는 상용근로자일 때, 정부 지원 유형이 일반가구일 때,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한부모가 된 기간이 짧을수록 거주중인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33~66㎡의 소형평수는 한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혼인 상태가 기타인 경우, 가구 구성이 모자 또는 부자로만 구성된 경우, 종사상 지위는 임시/일용근로자 이거나 비취업인 경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한부모가 된 기간이 길수록 비중이 높게 나타나 대조를 이루었다.

〈표 Ⅱ-6-10〉 주택 면적

(단위: %,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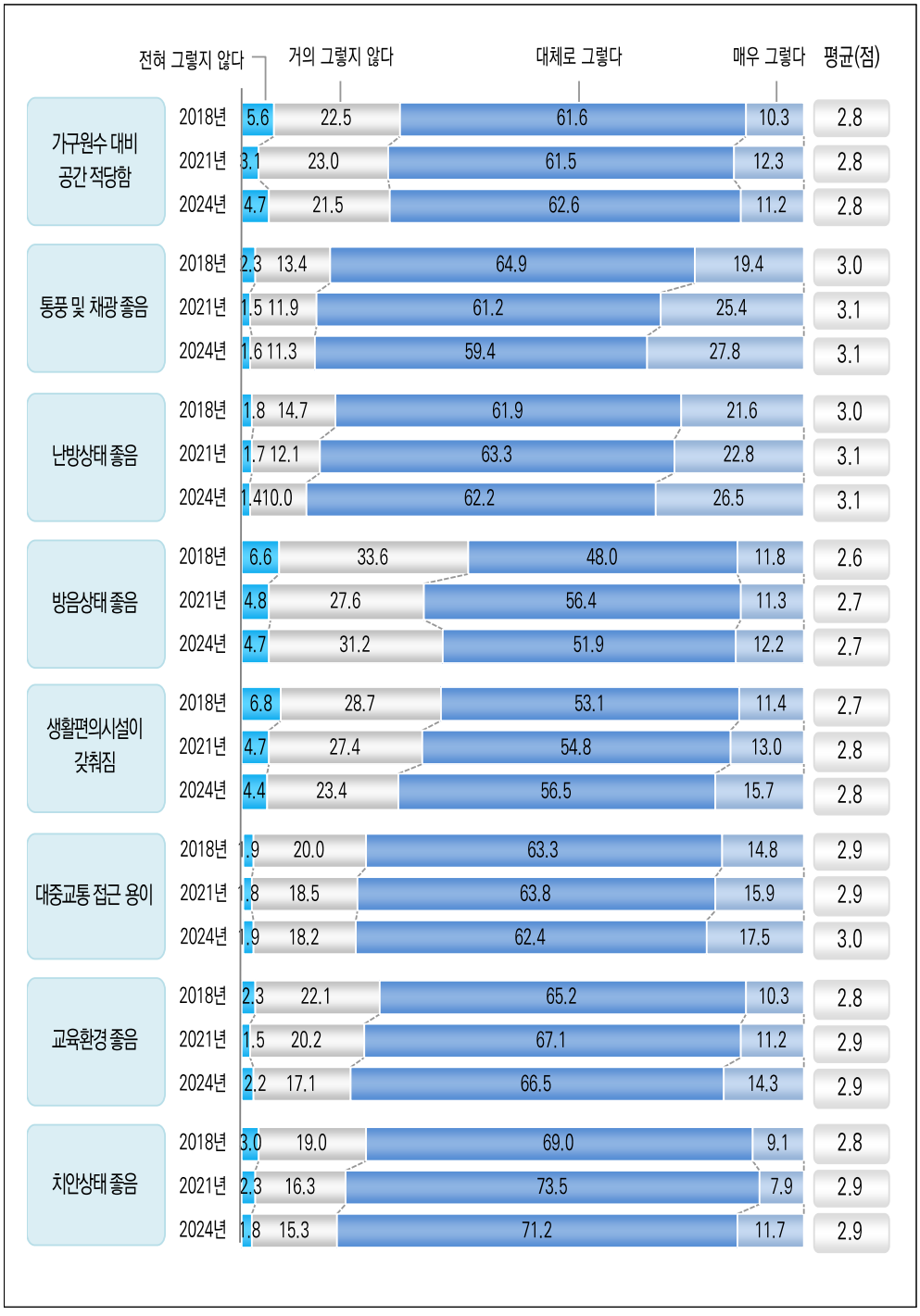
	33㎡ (10평) 미만	33~66㎡ (10~20평) 미만	66~99㎡ (20~30평) 미만	99㎡ (30평) 이상	합계 (n)	평균(㎡)	$F(df)$
전 체	0.5	34.3	49.2	16.1	100.0(3,315)	73.2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0.4	52.7	35.7	11.1	100.0(101)	65.5	102.809(2)***
고졸 이하	0.7	42.1	46.8	10.4	100.0(1,666)	68.5	
대학 이상	0.3	24.6	52.6	22.5	100.0(1,548)	78.8	
혼인 상태							
이혼	0.6	34.3	49.4	15.7	100.0(2,793)	73.1	11.181(2)***
사별	-	26.5	54.6	18.9	100.0(345)	77.0	
기타	0.7	48.1	34.7	16.5	100.0(178)	67.6	
가구 구성							
모자	0.6	43.4	47.3	8.7	100.0(1,773)	67.5	
모자+기타	-	18.7	53.8	27.6	100.0(503)	82.7	124.033(3)***
부자	0.9	32.2	47.8	19.1	100.0(674)	74.7	
부자+기타	-	15.1	54.5	30.4	100.0(365)	85.3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0.1	24.9	55.9	19.1	100.0(1,483)	77.3	
임시/일용근로자	0.9	45.9	43.3	9.9	100.0(858)	67.4	97.951(3)***
자영업/무급가족	0.6	24.3	46.2	29.0	100.0(440)	81.6	
비취업	0.9	49.8	42.3	6.9	100.0(534)	64.3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0.8	44.6	44.8	9.8	100.0(2,184)	67.6	502.091(1)***
일반 가구	-	14.3	57.6	28.1	100.0(1,131)	84.2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1.5	60.6	37.1	0.8	100.0(24)	63.6	
100~200만원	1.4	54.9	37.4	6.3	100.0(619)	61.8	192.422(3)***
200~300만원	0.5	42.3	47.9	9.2	100.0(1,210)	68.3	
300만원 이상	0.1	18.5	55.4	26.1	100.0(1,462)	82.3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0.7	32.0	50.0	17.3	100.0(1,415)	74.4	3.79(2)*
5~10년 미만	0.3	34.7	50.1	14.9	100.0(1,328)	72.7	
10년 이상	0.5	38.8	45.0	15.7	100.0(572)	71.7	

주: *p<.05, ***p<.001

2) 주거환경

응답자를 대상으로 주거환경에 대해 질문한 결과, 평균점수가 지난 2021년의 조사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게 나타나는 항목이 있었다. '가구원 수 대비 공간 적당함'은 2021년과 2024년 모두 동일하게 2.8점이었고, '통풍 및 채광 좋음' 역시 2021년과 2024년 모두 3.1점이었다. '난방상태 좋음' 역시 2021년과 2024년 모두 3.1점이었고, '방음상태 좋음'은 2021년과 2024년 모두 2.7점이었다. '생활편의시설이 갖춰짐'은 2021년과 2024년 모두 2.8점이었고, '대중교통 접근 용이'는 2021년에 2.9점, 2024년에는 3.0점으로 유일하게 상승한 문항이었다. '교육환경 좋음'은 2021년과 2024년 모두 2.9점으로 조사되었고, '치안상태 좋음' 역시 2021년과 2024년 모두 2.9점으로 나타났다.

(단위: %, 2018년: n=2,500, 2021년: n=3,300, 2024년: n=3,315)



[그림 Ⅱ-6-11] 주거환경

항목별로 집단 간 분포 차이를 살펴보면, 먼저 '가구원 수 대비 공간 적당함'의 경우, 동의하는 비중은 한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종사상 지위가 상용근로자 이거나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인 경우, 정부지원 유형이 일반가구인 경우, 소득수준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한부모가 된 기간이 짧을수록 높게 나타났다(〈표 Ⅱ-6-11〉).

다음으로 '통풍 및 채광 좋음'은 모든 집단에서의 동의 비중이 높은 항목이었는데, 특히 한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혼인 상태가 사별인 경우, 종사상 지위가 상용근로자 이거나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인 경우, 정부지원유형이 일반가구인 경우, 소득수준이 100만원 미만이거나 300만원 이상인 경우, 한부모가 된 기간이 짧을수록 동의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표 Ⅱ-6-12〉).

'난방상태 좋음'의 경우, 한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혼인 상태가 사별 또는 이혼인 경우, 가구 구성이 부자(+기타)가구인 경우, 종사상 지위는 상용근로자 이거나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인 경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한부모가 된 기간이 5~10년 미만일 때 동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표 Ⅱ-6-13〉).

'방음상태 좋음'의 경우, 한부모의 연령이 어릴수록, 한부모의 학력이 대학교 이상인 경우, 가구 구성이 모자+기타 가구이거나 부자+기타 가구인 경우, 막내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종사상 지위가 상용근로자 이거나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인 경우, 정부 지원 유형이 일반가구인 경우, 소득수준은 300만원 이상인 경우, 한부모가 된 기간은 짧을수록 동의하는 비중이 높았다(〈표 Ⅱ-6-14〉).

'생활편의시설이 갖춰짐' 한부모의 연령이 40대인 경우, 한부모 학력이 높을수록, 혼인 상태는 사별이거나 이혼한 경우, 종사상 지위가 상용근로자 이거나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인 경우, 정부 지원유형이 일반가구인 경우, 소득 수준은 100만원 미만이거나 300만원 이상일 때, 한부모가 된 기간이 5년미만일 때 동의하는 비중이 높았다(〈표 Ⅱ-6-15〉).

'대중교통 접근 용이'에 대해서 한부모의 연령이 40대, 50대 이상인 경우, 학력이 중졸 이하인 경우, 가구 구성은 모자, 부자 가구이고 종사상 지위는 상용근로자 이거나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인 경우, 정부 지원 유형은 일반가구인 경우, 소득 수준은 100만원 미만이거나 300만원 이상일 때 동의하는 비중이 높았다(〈표 Ⅱ-6-16〉).

'교육환경 좋음'은 한부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혼인 상태가 이혼 또는 사별인 경우, 막내자녀 연령이 높을수록, 종사상 지위가 상용근로자이거나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인 경우, 정부 지원 유형이 일반가구인 경우, 소득수준이 100만원 미만이거나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동의하는 비중이 높았다(〈표 Ⅱ-6-17〉).

마지막으로 '치안상태 좋음'은 가구 구성이 모자+기타 이거나 부자+기타인 경우, 막내

자녀 연령이 미취학이거나 초등학생인 경우, 종사상 지위가 상용근로자 또는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인 경우, 정부지원유형이 일반가구인 경우, 소득수준이 100만원 미만인 집단에서 동의비중이 높았다(〈표 Ⅱ-6-18〉).

〈표 Ⅱ-6-11〉 주거환경 - 가구원수 대비 공간 적당함

(단위: %, 가구)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거의 그렇지 않다	③ 대체로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①+②	③+④	합계(n)	$\chi^2(df)$
전 체	4.7	21.5	62.6	11.2	26.2	73.8	100.0(3,315)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9.3	27.7	51.5	11.4	37.1	62.9	100.0(101)	49.488(6)***
고졸 이하	5.1	25.0	60.8	9.1	30.1	69.9	100.0(1,666)	
대학 이상	3.9	17.4	65.2	13.5	21.3	78.7	100.0(1,548)	
가구 구성								
모자	4.2	22.9	62.3	10.6	27.1	72.9	100.0(1,773)	
모자+기타	5.6	21.2	59.3	13.9	26.8	73.2	100.0(503)	21.593(9)*
부자	4.4	20.6	62.1	12.9	25.0	75.0	100.0(674)	
부자+기타	6.1	17.0	69.2	7.7	23.1	76.9	100.0(365)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4.4	27.2	57.1	11.3	31.6	68.4	100.0(392)	13.194(6)*
초등학생	4.5	19.2	65.1	11.2	23.6	76.4	100.0(1,281)	
중학생 이상	4.9	22.0	61.9	11.2	26.9	73.1	100.0(1,642)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4.6	16.9	65.7	12.8	21.5	78.5	100.0(1,483)	
임시/일용근로자	3.8	29.5	59.1	7.6	33.3	66.7	100.0(858)	94.478(9)***
자영업/무급가족	5.0	14.1	65.7	15.2	19.1	80.9	100.0(440)	
비취업	6.0	27.9	56.8	9.3	33.9	66.1	100.0(534)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5.7	26.3	58.2	9.7	32.0	68.0	100.0(2,184)	114.57(3)***
일반 가구	2.6	12.4	70.9	14.1	15.0	85.0	100.0(1,131)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11.6	14.0	56.5	17.9	25.6	74.4	100.0(24)	
100~200만원 미만	4.2	25.5	62.5	7.8	29.7	70.3	100.0(619)	88.37(9)***
200~300만원 미만	5.1	27.7	57.3	9.9	32.8	67.2	100.0(1,210)	
300만원 이상	4.4	14.9	67.1	13.7	19.3	80.7	100.0(1,462)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3.7	20.5	63.9	11.9	24.2	75.8	100.0(1,415)	22.427(6)**
5~10년 미만	5.1	20.5	64.3	10.2	25.6	74.4	100.0(1,328)	
10년 이상	6.2	26.5	55.3	12.0	32.8	67.2	100.0(572)	

주: *p<.05, **p<.01, ***p<.001

〈표 Ⅱ-6-12〉 주거환경 - 통풍 및 채광 좋음

(단위: %, 가구)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거의 그렇지 않다	③ 대체로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①+②	③+④	합계(n)	$\chi^2(df)$
전 체	1.6	11.3	59.4	27.8	12.9	87.1	100.0(3,315)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2.2	10.5	55.9	31.4	12.7	87.3	100.0(846)	15.661(6)*
40대	1.1	12.0	59.8	27.1	13.1	86.9	100.0(1,895)	
50대 이상	2.0	10.3	63.1	24.6	12.3	87.7	100.0(575)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3.3	14.5	59.2	23.0	17.8	82.2	100.0(101)	63.649(6)***
고졸 이하	1.6	13.7	61.2	23.5	15.3	84.7	100.0(1,666)	
대학 이상	1.3	8.5	57.4	32.7	9.9	90.1	100.0(1,548)	
혼인 상태								
이혼	1.6	11.8	59.0	27.6	13.4	86.6	100.0(2,793)	28.202(6)***
사별	0.4	5.0	61.4	33.2	5.4	94.6	100.0(345)	
기타	2.2	16.2	60.7	20.9	18.4	81.6	100.0(178)	
가구 구성								
모자	1.8	12.9	59.4	26.0	14.6	85.4	100.0(1,773)	
모자+기타	1.6	9.3	55.8	33.2	11.0	89.0	100.0(503)	25.975(9)**
부자	1.2	10.8	62.3	25.7	12.1	87.9	100.0(674)	
부자+기타	1.0	7.3	58.7	33.0	8.3	91.7	100.0(365)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1.9	10.7	52.5	34.8	12.6	87.4	100.0(392)	14.721(6)*
초등학생	1.4	10.7	59.5	28.4	12.1	87.9	100.0(1,281)	
중학생 이상	1.6	11.9	60.9	25.6	13.5	86.5	100.0(1,642)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1.1	8.5	59.6	30.8	9.6	90.4	100.0(1,483)	
임시/일용근로자	1.8	14.2	60.0	24.0	16.0	84.0	100.0(858)	57.65(9)***
자영업/무급가족	0.9	10.4	56.0	32.7	11.3	88.7	100.0(440)	
비취업	3.2	15.0	60.3	21.5	18.2	81.8	100.0(534)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2.3	14.1	60.0	23.7	16.4	83.6	100.0(2,184)	104.512(3)***
일반 가구	0.2	5.9	58.2	35.7	6.1	93.9	100.0(1,131)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	7.4	49.4	43.2	7.4	92.6	100.0(24)	
100~200만원 미만	2.2	14.3	64.0	19.6	16.5	83.5	100.0(619)	93.411(9)***
200~300만원 미만	2.0	15.0	58.5	24.5	17.0	83.0	100.0(1,210)	
300만원 이상	0.9	7.0	58.3	33.7	7.9	92.1	100.0(1,462)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1.3	10.4	57.4	30.8	11.7	88.3	100.0(1,415)	15.818(6)*
5~10년 미만	1.6	12.0	60.0	26.5	13.5	86.5	100.0(1,328)	
10년 이상	2.2	11.9	62.7	23.2	14.1	85.9	100.0(572)	

주: *p<.05, **p<.01, ***p<.001

〈표 Ⅱ-6-13〉 주거환경 - 난방상태 좋음

(단위: %, 가구)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거의 그렇지 않다	③ 대체로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①+②	③+④	합계(n)	$\chi^2(df)$
전 체	1.4	10.0	62.2	26.5	11.4	88.6	100.0(3,315)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2.2	8.4	60.5	29.0	10.6	89.4	100.0(846)	20.385(6)**
40대	0.9	10.9	61.5	26.7	11.8	88.2	100.0(1,895)	
50대 이상	1.7	9.5	66.9	21.9	11.2	88.8	100.0(575)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2.2	12.2	67.9	17.7	14.4	85.6	100.0(101)	45.186(6)***
고졸 이하	1.3	11.2	66.4	21.0	12.5	87.5	100.0(1,666)	
대학 이상	1.3	8.6	57.2	32.9	9.9	90.1	100.0(1,548)	
혼인 상태								
이혼	1.3	10.2	62.1	26.4	11.5	88.5	100.0(2,793)	22.49(6)***
사별	0.7	6.1	62.1	31.1	6.8	93.2	100.0(345)	
기타	3.6	14.3	63.6	18.5	17.9	82.1	100.0(178)	
가구 구성								
모자	1.4	11.3	62.5	24.9	12.6	87.4	100.0(1,773)	
모자+기타	2.2	8.9	59.2	29.6	11.1	88.9	100.0(503)	23.486(9)**
부자	1.2	8.3	65.5	25.0	9.5	90.5	100.0(674)	
부자+기타	0.3	8.8	58.5	32.4	9.1	90.9	100.0(365)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1.1	8.0	59.6	31.4	9.0	91.0	100.0(1,483)	
임시/일용근로자	1.6	13.5	62.1	22.9	15.1	84.9	100.0(858)	63.312(9)***
자영업/무급가족	0.2	8.9	64.6	26.3	9.1	90.9	100.0(440)	
비취업	2.6	11.2	67.4	18.8	13.8	86.2	100.0(534)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1.9	12.0	62.9	23.2	13.9	86.1	100.0(2,184)	66.85(3)***
일반 가구	0.2	6.2	60.7	32.8	6.4	93.6	100.0(1,131)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	13.1	57.8	29.1	13.1	86.9	100.0(24)	
100~200만원 미만	1.9	11.6	68.0	18.4	13.5	86.5	100.0(619)	58.073(9)***
200~300만원 미만	1.9	11.0	63.3	23.8	12.9	87.1	100.0(1,210)	
300만원 이상	0.7	8.5	58.8	32.1	9.2	90.8	100.0(1,462)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1.2	10.6	58.5	29.7	11.8	88.2	100.0(1,415)	27.572(6)***
5~10년 미만	1.1	9.2	63.9	25.8	10.3	89.7	100.0(1,328)	
10년 이상	2.3	10.6	67.3	19.8	12.8	87.2	100.0(572)	

주: **p<.01, ***p<.001

〈표 Ⅱ-6-14〉 주거환경 - 방음상태 좋음

(단위: %, 가구)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거의 그렇지 않다	③ 대체로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①+②	③+④	합계(n)	$\chi^2(df)$
전 체	4.7	31.2	51.9	12.2	35.9	64.1	100.0(3,315)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4.8	26.2	54.0	15.0	31.0	69.0	100.0(846)	18.751(6)**
40대	4.4	33.0	51.4	11.2	37.4	62.6	100.0(1,895)	
50대 이상	5.4	32.6	50.7	11.3	38.0	62.0	100.0(575)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9.0	31.6	47.5	11.9	40.6	59.4	100.0(101)	38.777(6)***
고졸 이하	5.3	35.5	48.9	10.4	40.7	59.3	100.0(1,666)	
대학 이상	3.8	26.5	55.5	14.2	30.3	69.7	100.0(1,548)	
가구 구성								
모자	5.5	33.5	49.7	11.3	39.0	61.0	100.0(1,773)	
모자+기타	5.5	22.7	57.8	14.0	28.1	71.9	100.0(503)	49.251(9)***
부자	3.8	32.9	48.8	14.5	36.7	63.3	100.0(674)	
부자+기타	1.2	28.6	60.6	9.6	29.8	70.2	100.0(365)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3.9	25.7	55.9	14.5	29.6	70.4	100.0(392)	19.923(6)**
초등학생	5.4	28.7	53.3	12.6	34.1	65.9	100.0(1,281)	
중학생 이상	4.3	34.4	49.9	11.4	38.7	61.3	100.0(1,642)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2.8	26.8	56.3	14.1	29.6	70.4	100.0(1,483)	
임시/일용근로자	5.3	36.8	47.2	10.6	42.2	57.8	100.0(858)	90.25(9)***
자영업/무급가족	3.1	31.5	53.0	12.4	34.6	65.4	100.0(440)	
비취업	10.2	34.1	46.5	9.2	44.2	55.8	100.0(534)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6.4	34.0	48.2	11.4	40.4	59.6	100.0(2,184)	75.306(3)***
일반 가구	1.4	25.8	59.1	13.7	27.2	72.8	100.0(1,131)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8.8	29.2	47.3	14.7	38.0	62.0	100.0(24)	
100~200만원 미만	6.8	36.1	46.9	10.2	42.9	57.1	100.0(619)	55.504(9)***
200~300만원 미만	6.0	33.7	48.6	11.8	39.7	60.3	100.0(1,210)	
300만원 이상	2.6	27.1	57.0	13.3	29.7	70.3	100.0(1,462)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4.1	27.6	53.9	14.5	31.6	68.4	100.0(1,415)	27.013(6)***
5~10년 미만	4.9	33.5	51.5	10.1	38.4	61.6	100.0(1,328)	
10년 이상	5.7	34.7	48.2	11.3	40.4	59.6	100.0(572)	

주: **p<.01, ***p<.001

〈표 Ⅱ-6-15〉 주거환경 - 생활편의시설이 갖춰짐

(단위: %, 가구)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거의 그렇지 않다	③ 대체로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①+②	③+④	합계(n)	$\chi^2(df)$
전 체	4.4	23.4	56.5	15.7	27.8	72.2	100.0(3,315)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4.6	23.9	52.0	19.5	28.5	71.5	100.0(846)	18.461(6)**
40대	4.2	22.6	59.1	14.0	26.9	73.1	100.0(1,895)	
50대 이상	4.7	25.2	54.5	15.6	29.9	70.1	100.0(575)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8.8	22.8	48.8	19.6	31.6	68.4	100.0(101)	20.497(6)**
고졸 이하	4.3	26.0	57.3	12.4	30.3	69.7	100.0(1,666)	
대학 이상	4.2	20.7	56.1	19.0	24.9	75.1	100.0(1,548)	
혼인 상태								
이혼	4.1	24.3	56.3	15.3	28.4	71.6	100.0(2,793)	42.504(6)***
사별	2.5	16.7	60.8	20.0	19.2	80.8	100.0(345)	
기타	12.2	22.6	50.5	14.7	34.8	65.2	100.0(178)	
가구 구성								
모자	4.7	24.7	56.4	14.2	29.4	70.6	100.0(1,773)	
모자+기타	4.4	19.4	56.5	19.8	23.7	76.3	100.0(503)	17.522(9)*
부자	3.0	23.7	56.8	16.5	26.7	73.3	100.0(674)	
부자+기타	5.5	22.3	56.3	15.9	27.8	72.2	100.0(365)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4.0	22.3	50.9	22.8	26.4	73.6	100.0(392)	17.416(6)**
초등학생	4.4	24.2	56.7	14.6	28.6	71.4	100.0(1,281)	
중학생 이상	4.5	23.0	57.6	14.9	27.5	72.5	100.0(1,642)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3.1	22.1	56.7	18.0	25.2	74.8	100.0(1,483)	
임시/일용근로자	5.3	25.2	57.1	12.5	30.4	69.6	100.0(858)	33.172(9)***
자영업/무급가족	4.4	21.2	56.4	18.0	25.6	74.4	100.0(440)	
비취업	6.6	25.9	54.9	12.6	32.5	67.5	100.0(534)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5.6	25.0	55.7	13.7	30.7	69.3	100.0(2,184)	46.749(3)***
일반 가구	2.0	20.3	58.1	19.6	22.3	77.7	100.0(1,131)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3.8	8.5	66.7	20.9	12.4	87.6	100.0(24)	
100~200만원 미만	6.0	29.2	53.0	11.8	35.2	64.8	100.0(619)	58.133(9)***
200~300만원 미만	5.6	25.0	55.3	14.0	30.6	69.4	100.0(1,210)	
300만원 이상	2.7	19.9	58.7	18.7	22.6	77.4	100.0(1,462)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3.8	22.3	57.0	16.8	26.1	73.9	100.0(1,415)	16.669(6)*
5~10년 미만	4.2	25.0	57.3	13.4	29.2	70.8	100.0(1,328)	
10년 이상	6.2	22.5	53.1	18.2	28.6	71.4	100.0(572)	

주: *p<.05, **p<.01, ***p<.001

〈표 Ⅱ-6-16〉 주거환경 - 대중교통 접근 용이

(단위: %, 가구)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거의 그렇지 않다	③ 대체로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①+②	③+④	합계(n)	$\chi^2(df)$
전 체	1.9	18.2	62.4	17.5	20.1	79.9	100.0(3,315)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2.3	20.1	56.8	20.8	22.4	77.6	100.0(846)	20.063(6)**
40대	1.5	17.5	64.2	16.8	19.0	81.0	100.0(1,895)	
50대 이상	2.7	17.8	64.5	15.0	20.5	79.5	100.0(575)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1.1	14.0	66.0	18.9	15.1	84.9	100.0(101)	23.852(6)***
고졸 이하	1.9	18.3	65.0	14.7	20.3	79.7	100.0(1,666)	
대학 이상	2.0	18.3	59.3	20.4	20.2	79.8	100.0(1,548)	
가구 구성								
모자	1.9	17.6	63.9	16.6	19.4	80.6	100.0(1,773)	
모자+기타	1.4	20.3	56.7	21.6	21.7	78.3	100.0(503)	19.153(9)*
부자	1.4	18.0	63.5	17.0	19.5	80.5	100.0(674)	
부자+기타	3.7	18.6	60.4	17.2	22.3	77.7	100.0(365)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1.7	16.0	63.4	18.9	17.7	82.3	100.0(1,483)	
임시/일용근로자	2.2	22.2	60.0	15.5	24.4	75.6	100.0(858)	23.363(9)**
자영업/무급가족	1.0	16.5	66.1	16.4	17.5	82.5	100.0(440)	
비취업	2.7	19.2	60.2	17.9	21.9	78.1	100.0(534)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2.2	19.4	60.9	17.5	21.6	78.4	100.0(2,184)	9.818(3)*
일반 가구	1.4	15.8	65.2	17.6	17.2	82.8	100.0(1,131)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	12.7	56.5	30.9	12.7	87.3	100.0(24)	
100~200만원 미만	2.5	22.4	59.5	15.5	24.9	75.1	100.0(619)	24.873(9)**
200~300만원 미만	2.1	19.7	61.0	17.2	21.8	78.2	100.0(1,210)	
300만원 이상	1.6	15.2	64.8	18.5	16.7	83.3	100.0(1,462)	

주: *p<.05, **p<.01, ***p<.001

〈표 Ⅱ-6-17〉 주거환경 - 교육환경 좋음

(단위: %, 가구)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거의 그렇지 않다	③ 대체로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①+②	③+④	합계(n)	$\chi^2(df)$
전 체	2.2	17.1	66.5	14.3	19.2	80.8	100.0(3,315)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3.6	17.1	63.0	16.4	20.6	79.4	100.0(846)	20.342(6)**
40대	1.6	16.8	67.3	14.3	18.4	81.6	100.0(1,895)	
50대 이상	2.0	18.0	69.0	11.0	20.0	80.0	100.0(575)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2.9	21.5	65.9	9.7	24.4	75.6	100.0(101)	17.924(6)**
고졸 이하	1.6	18.0	68.3	12.1	19.6	80.4	100.0(1,666)	
대학 이상	2.7	15.8	64.7	16.8	18.5	81.5	100.0(1,548)	
혼인 상태								
이혼	2.0	17.1	66.7	14.3	19.0	81.0	100.0(2,793)	20.082(6)**
사별	2.9	12.3	70.7	14.1	15.2	84.8	100.0(345)	
기타	3.6	26.4	55.8	14.1	30.1	69.9	100.0(178)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3.1	20.5	60.1	16.2	23.7	76.3	100.0(392)	16.851(6)**
초등학생	2.0	16.5	65.4	16.0	18.5	81.5	100.0(1,281)	
중학생 이상	2.1	16.7	68.9	12.4	18.7	81.3	100.0(1,642)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2.2	14.8	66.3	16.7	17.0	83.0	100.0(1,483)	
임시/일용근로자	2.6	18.2	67.4	11.7	20.9	79.1	100.0(858)	33.648(9)***
자영업/무급가족	1.3	15.4	68.3	15.0	16.7	83.3	100.0(440)	
비취업	2.0	22.8	64.2	10.9	24.8	75.2	100.0(534)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2.8	18.9	65.9	12.4	21.7	78.3	100.0(2,184)	38.013(3)***
일반 가구	1.0	13.5	67.7	17.8	14.5	85.5	100.0(1,131)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	17.0	61.1	21.9	17.0	83.0	100.0(24)	
100~200만원 미만	1.8	20.4	66.9	10.8	22.2	77.8	100.0(619)	44.343(9)***
200~300만원 미만	2.8	19.5	65.8	11.9	22.3	77.7	100.0(1,210)	
300만원 이상	1.8	13.7	67.0	17.6	15.4	84.6	100.0(1,462)	

주: **p<.01, ***p<.001

〈표 Ⅱ-6-18〉 주거환경 - 치안상태 좋음

(단위: %,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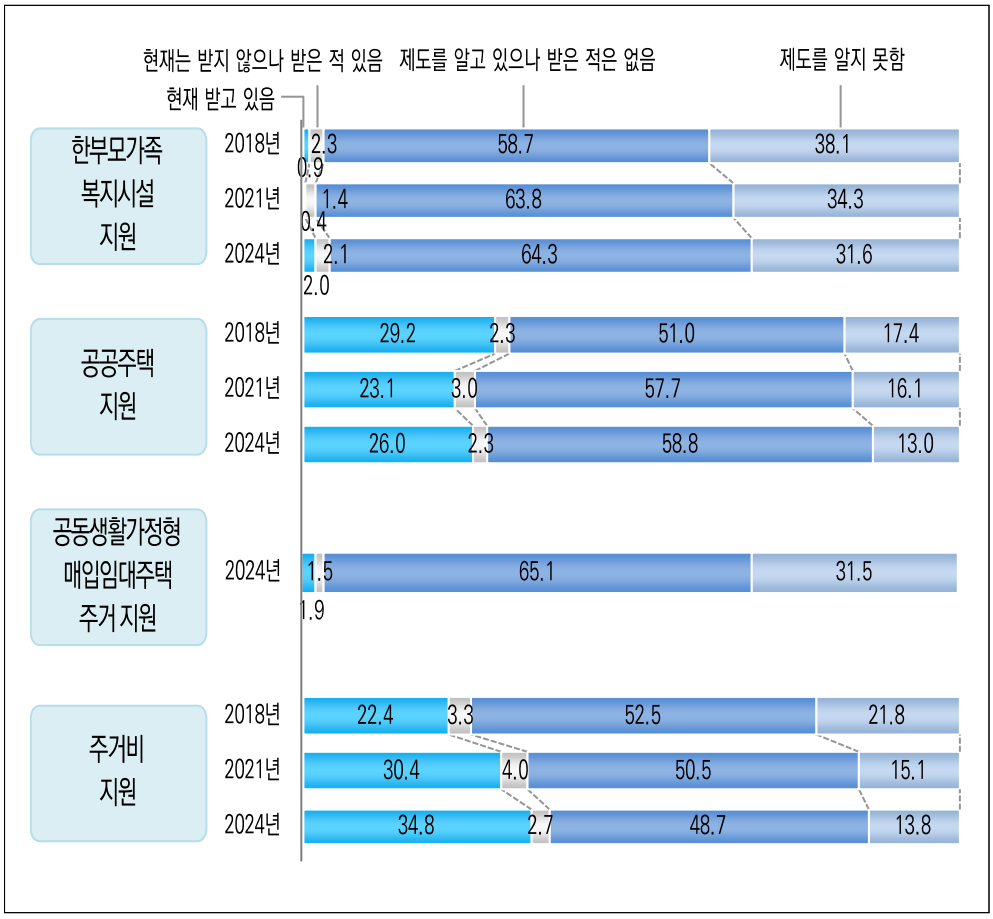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거의 그렇지 않다	③ 대체로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①+②	③+④	합계(n)	$\chi^2(df)$
전 체	1.8	15.3	71.2	11.7	17.1	82.9	100.0(3,315)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4.0	12.3	73.0	10.6	16.4	83.6	100.0(101)	31.732(6)***
고졸 이하	1.9	16.8	71.2	10.1	18.7	81.3	100.0(1,666)	
대학 이상	1.4	13.8	71.2	13.6	15.3	84.7	100.0(1,548)	
가구 구성								
모자	1.8	16.5	70.7	11.0	18.3	81.7	100.0(1,773)	
모자+기타	2.4	10.9	72.7	14.0	13.3	86.7	100.0(503)	21.1(9)*
부자	0.8	16.9	71.3	11.0	17.7	82.3	100.0(674)	
부자+기타	2.4	12.5	71.8	13.3	14.9	85.1	100.0(365)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2.9	13.6	68.8	14.6	16.5	83.5	100.0(392)	15.718(6)*
초등학생	2.1	14.0	71.5	12.4	16.1	83.9	100.0(1,281)	
중학생 이상	1.2	16.7	71.6	10.5	17.9	82.1	100.0(1,642)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0.6	12.4	73.5	13.5	13.1	86.9	100.0(1,483)	
임시/일용근로자	1.9	20.6	67.4	10.0	22.5	77.5	100.0(858)	59.996(9)***
자영업/무급가족	2.6	13.7	73.3	10.3	16.4	83.6	100.0(440)	
비취업	3.8	16.1	69.4	10.7	19.9	80.1	100.0(534)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2.3	16.5	69.5	11.7	18.9	81.1	100.0(2,184)	21.82(3)***
일반 가구	0.6	12.9	74.7	11.8	13.6	86.4	100.0(1,131)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	3.6	71.3	25.1	3.6	96.4	100.0(24)	
100~200만원 미만	2.6	18.8	67.8	10.9	21.4	78.6	100.0(619)	38.859(9)***
200~300만원 미만	2.2	17.6	69.3	10.8	19.8	80.2	100.0(1,210)	
300만원 이상	1.0	12.1	74.3	12.6	13.1	86.9	100.0(1,462)	

주: *p<.05, ***p<.001

3) 주거지원정책 인지도 및 이용경험

한부모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주거서비스에 대해 제공받은적이 있는지 조사해보았다. 먼저, 2024년 기준으로 제도를 알지 못한다는 비중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이 31.6%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이 31.%로 나타났고, '주거비 지원'이 13.8%, 공공주택 지원이 13.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난 조사 대비 제도를 모른다는 비중은 모든 제도에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단위: %, 2018년: n=2,500, 2021년: n=3,300, 2024년: n=3,315)



[그림 Ⅱ-6-12]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경험

제도를 집단별로 나눠서 살펴보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서비스는 한부모의 학력이 낮거나, 모자(+기타)가구 보다는 부자(+기타)가구인 경우, 정부 지원 유형이 일반

가구인 경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모른다는 응답이 높았다. 이용경험은 한부모의 학력이 고졸이하 또는 중졸이하인 경우, 부자(+기타)가구 보다는 모자(+기타)가구인 경우, 종사상 지위가 비취업자인 경우,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표 Ⅱ-6-19〉).

'공공주택' 서비스의 경우, 제도를 알지 못한다는 응답은 한부모의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은 대졸 이상인 경우, 가구 구성이 모자(+기타)가구 보다는 부자(+기타)가구인 경우, 막내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상용근로자이거나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인 경우, 정부지원 유형이 일반가구인 경우, 소득수준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한부모가 된 기간이 짧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제도 이용률은 한부모 연령이 50대 이상이거나, 한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가구 구성이 모자인 경우, 막내자녀 연령이 높을수록, 종사상 지위가 임시/일용근로자 이거나 비취업인 경우, 정부지원 유형이 저소득 지원가구인 경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한부모가 된 기간이 길수록 현재 이용중이거나 이전에 이용해본 경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Ⅱ-6-20〉).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제도를 알지 못한다는 응답은 한부모의 학력이 낮거나, 모자(+기타)가구 보다는 부자(+기타)가구인 경우, 종사상 지위가 상용근로자,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 또는 비취업자인 경우, 정부지원유형이 일반가구인 경우,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 보다는 높은 가구가, 한부모가 된 기간이 짧을수록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이용경험은 한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가구 구성이 모자인 경우, 종사상 지위가 임시/일용근로자이거나 비취업인 경우, 정부지원 유형이 저소득 지원가구인 경우, 소득수준이 100만원 미만으로 낮은 경우, 한부모가 된 기간이 길수록 현재 이용 중이거나 과거에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표 Ⅱ-6-21〉).

'주거비 지원'사업은 제도를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부자+기타 가구인 경우, 막내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종사상 지위가 상용근로자 또는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인 경우, 정부지원유형이 일반가구인 경우, 소득수준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한부모가 된 기간이 짧을수록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제도 이용경험의 경우, 혼인 상태가 기타인 집단과, 가구 구성이 모자인 경우, 종사상 지위가 임시/일용근로자 이거나 비취업인 경우, 정부지원유형이 저소득 지원가구인 경우, 소득수준이 300만원 미만인 집단에서, 한부모가 된 기간이 길수록 현재 이용 중이거나 과거에 이용해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표 Ⅱ-6-22〉).

〈표 Ⅱ-6-19〉 주거지원정책 인지도 및 이용 경험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단위: %, 가구)

	현재 받고 있음	현재는 받지 않으나 받은 적 있음	제도를 알고 있으나 받은 적은 없음	제도를 알지 못함	합계(n)	$\chi^2(df)$
전 체	2.0	2.1	64.3	31.6	100.0(3,315)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2.1	1.5	44.9	51.5	100.0(101)	125.088(6)***
고졸 이하	2.6	2.5	62.8	32.1	100.0(1,666)	
대학 이상	1.3	1.7	67.2	29.8	100.0(1,548)	
혼인 상태						
이혼	2.1	2.0	65.2	30.7	100.0(2,793)	30.415(6)***
사별	1.0	0.7	58.8	39.4	100.0(345)	
기타	2.0	6.3	60.3	31.3	100.0(178)	
가구 구성						
모자	2.3	2.9	65.1	29.7	100.0(1,773)	
모자+기타	1.7	1.7	65.3	31.2	100.0(503)	22.568(9)**
부자	1.8	1.1	63.5	33.6	100.0(674)	
부자+기타	1.1	0.7	60.2	37.9	100.0(365)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1.3	1.1	65.9	31.8	100.0(1,483)	
임시/일용근로자	2.1	3.1	66.3	28.5	100.0(858)	52.459(9)***
자영업/무급가족	1.3	1.2	61.1	36.4	100.0(440)	
비취업	4.3	4.1	59.3	32.3	100.0(534)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2.9	3.0	64.2	29.9	100.0(2,184)	54.483(3)***
일반 가구	0.2	0.4	64.4	35.0	100.0(1,131)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3.7	7.2	45.9	43.2	100.0(24)	
100~200만원 미만	3.9	3.4	63.1	29.6	100.0(619)	44.76(9)***
200~300만원 미만	2.4	2.6	64.4	30.7	100.0(1,210)	
300만원 이상	0.8	1.1	65.0	33.1	100.0(1,462)	

주: **p<.01, ***p<.001

〈표 Ⅱ-6-20〉 주거지원정책 인지도 및 이용 경험 - 공공주택

(단위: %, 가구)

	현재 받고 있음	현재는 받지 않으나 받은 적 있음	제도를 알고 있으나 받은 적은 없음	제도를 알지 못함	합계(n)	$\chi^2(df)$
전 체	26.0	2.3	58.8	13.0	100.0(3,315)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23.3	1.0	61.0	14.7	100.0(846)	18.57(6)**
40대	26.2	2.5	58.7	12.5	100.0(1,895)	
50대 이상	29.1	3.2	55.5	12.1	100.0(575)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48.5	5.6	33.4	12.6	100.0(101)	18.952(6)**
고졸 이하	32.3	1.9	54.4	11.4	100.0(1,666)	
대학 이상	17.8	2.4	65.1	14.7	100.0(1,548)	
혼인 상태						
이혼	26.0	2.3	58.8	13.0	100.0(2,793)	25.649(6)***
사별	19.7	1.7	62.7	15.9	100.0(345)	
기타	38.1	3.1	50.8	7.9	100.0(178)	
가구 구성						
모자	35.2	2.6	52.2	9.9	100.0(1,773)	
모자+기타	15.5	2.6	68.7	13.2	100.0(503)	202.591(9)***
부자	18.4	1.4	63.8	16.5	100.0(674)	
부자+기타	9.5	1.9	67.5	21.1	100.0(365)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25.2	0.2	58.6	16.0	100.0(392)	22.268(6)**
초등학생	25.8	1.9	57.7	14.6	100.0(1,281)	
중학생 이상	26.3	3.0	59.6	11.0	100.0(1,642)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17.6	2.0	63.4	17.0	100.0(1,483)	
임시/일용근로자	33.1	2.7	55.8	8.4	100.0(858)	243.095(9)***
자영업/무급가족	15.1	3.0	66.6	15.3	100.0(440)	
비취업	46.7	1.7	44.1	7.4	100.0(534)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38.5	2.6	50.6	8.3	100.0(2,184)	569.566(3)***
일반 가구	1.9	1.5	74.6	22.0	100.0(1,131)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58.7	3.0	34.6	3.7	100.0(24)	
100~200만원 미만	45.1	1.5	45.0	8.4	100.0(619)	367.817(9)***
200~300만원 미만	34.1	2.8	53.4	9.8	100.0(1,210)	
300만원 이상	10.6	2.1	69.5	17.8	100.0(1,462)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23.5	2.6	59.4	14.4	100.0(1,415)	23.152(6)***
5~10년 미만	25.8	1.9	59.4	13.0	100.0(1,328)	
10년 이상	32.5	2.3	55.7	9.5	100.0(572)	

주: **p<.01, ***p<.001

〈표 Ⅱ-6-21〉 주거지원정책 인지도 및 이용 경험 -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단위: %, 가구)

	현재 받고 있음	현재는 받지 않으나 받은 적 있음	제도를 알고 있으나 받은 적은 없음	제도를 알지 못함	합계(n)	$\chi^2(df)$
전 체	1.9	1.5	65.1	31.5	100.0(3,315)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6.3	1.5	51.7	40.5	100.0(101)	135.459(6)***
고졸 이하	2.0	1.9	64.6	31.6	100.0(1,666)	
대학 이상	1.6	1.1	66.6	30.7	100.0(1,548)	
혼인 상태						
이혼	2.1	1.6	66.1	30.2	100.0(2,793)	18.034(6)**
사별	1.1	0.2	59.0	39.7	100.0(345)	
기타	1.6	2.4	60.9	35.2	100.0(178)	
가구 구성						
모자	2.7	2.1	66.1	29.2	100.0(1,773)	
모자+기타	1.3	1.0	65.2	32.5	100.0(503)	44.422(9)***
부자	1.4	1.1	66.9	30.6	100.0(674)	
부자+기타	0.3	0.1	57.0	42.6	100.0(365)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1.1	1.0	65.0	32.9	100.0(1,483)	
임시/일용근로자	3.5	2.0	67.7	26.7	100.0(858)	38.764(9)***
자영업/무급가족	0.6	1.2	63.5	34.7	100.0(440)	
비취업	2.8	2.3	62.6	32.3	100.0(534)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2.7	2.0	66.2	29.0	100.0(2,184)	46.285(3)***
일반 가구	0.4	0.4	63.1	36.1	100.0(1,131)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6.6	7.2	60.0	26.2	100.0(24)	
100~200만원 미만	2.8	2.5	64.5	30.2	100.0(619)	44.376(9)***
200~300만원 미만	2.9	1.7	65.8	29.6	100.0(1,210)	
300만원 이상	0.7	0.8	64.9	33.6	100.0(1,462)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1.4	1.5	62.7	34.5	100.0(1,415)	15.376(6)*
5~10년 미만	2.3	1.4	66.0	30.3	100.0(1,328)	
10년 이상	2.3	1.7	69.2	26.7	100.0(572)	

주: *p<.05, **p<.01, ***p<.001

〈표 Ⅱ-6-22〉 주거지원정책 인지도 및 이용 경험 - 주거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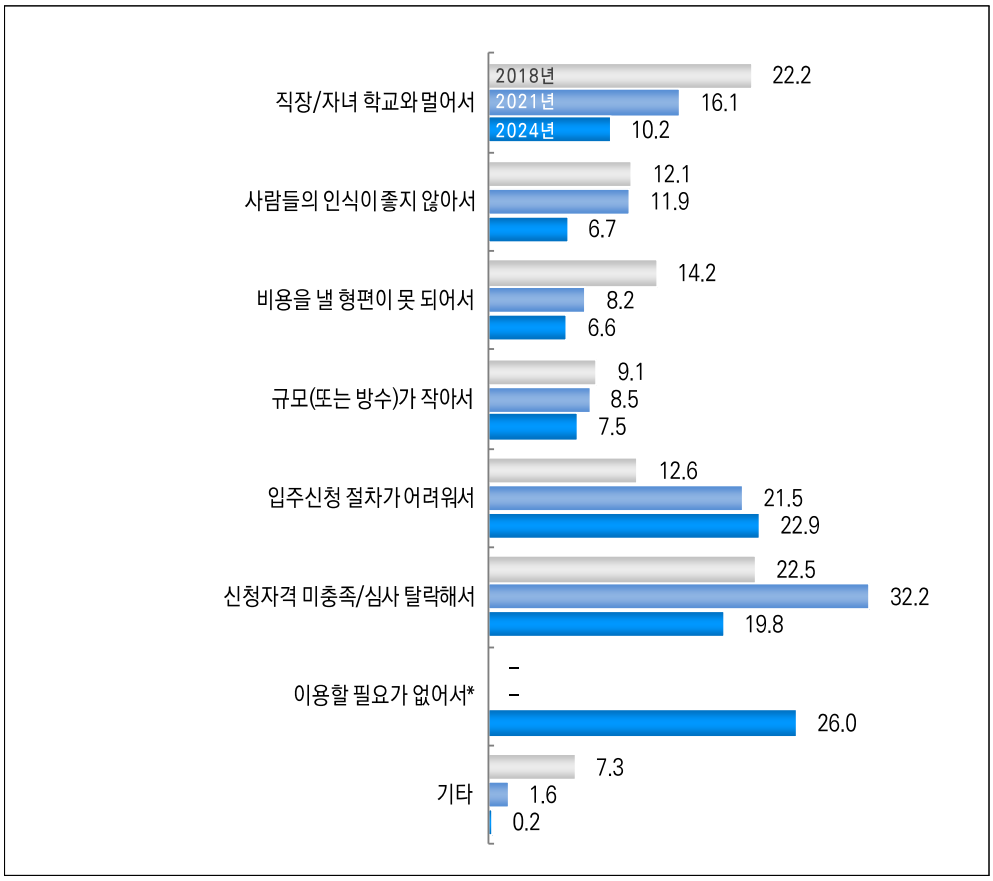
(단위: %, 가구)

	현재 받고 있음	현재는 받지 않으나 받은 적 있음	제도를 알고 있으나 받은 적은 없음	제도를 알지 못함	합계(n)	$\chi^2(df)$
전 체	34.8	2.7	48.7	13.8	100.0(3,315)	
혼인 상태						
이혼	35.0	3.0	48.6	13.4	100.0(2,793)	47.048(6)***
사별	25.2	1.0	57.9	16.0	100.0(345)	
기타	50.8	1.6	31.4	16.2	100.0(178)	
가구 구성						
모자	45.4	3.5	42.3	8.9	100.0(1,773)	
모자+기타	25.5	2.9	54.5	17.1	100.0(503)	272.988(9)***
부자	26.4	0.9	55.8	16.9	100.0(674)	
부자+기타	12.0	2.0	58.6	27.3	100.0(365)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33.1	3.6	44.3	19.1	100.0(392)	15.959(6)*
초등학생	35.8	2.2	48.0	13.9	100.0(1,281)	
중학생 이상	34.5	2.9	50.2	12.4	100.0(1,642)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23.1	1.9	56.8	18.2	100.0(1,483)	
임시/일용근로자	46.6	4.4	40.9	8.0	100.0(858)	340.806(9)***
자영업/무급가족	22.7	2.4	57.9	17.0	100.0(440)	
비취업	58.4	2.6	30.9	8.1	100.0(534)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52.1	3.5	36.9	7.6	100.0(2,184)	920.46(3)***
일반 가구	1.6	1.2	71.4	25.8	100.0(1,131)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57.2	3.0	28.0	11.7	100.0(24)	
100~200만원 미만	58.4	2.8	31.6	7.2	100.0(619)	527.253(9)***
200~300만원 미만	46.0	3.6	42.5	7.8	100.0(1,210)	
300만원 이상	15.2	1.9	61.3	21.5	100.0(1,462)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30.3	3.1	49.8	16.9	100.0(1,415)	47.832(6)***
5~10년 미만	36.2	2.3	48.5	13.0	100.0(1,328)	
10년 이상	43.0	2.8	46.2	8.0	100.0(572)	

주: *p<.05, ***p<.001

앞서 공공주택 지원제도를 알고 있으나, 현재 이용하고 있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자기 집(자가), 전세 등으로 이용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26.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입주신청 절차가 어려워서'가 22.9%,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심사에서 탈락해서'가 19.8%, '직장 또는 자녀들의 학교와 거리가 멀어서'가 10.2%를 차지했다. 지난조사와 비교해보았을 때, '직장 또는 자녀들의 학교와 거리가 멀어서', '공공임대주택단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좋지 않아서',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 관리비를 낼 형편이 못 되어서'의 응답은 2018년 대비 2024년 조사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 감소한 항목이다. 반면, '입주신청 절차가 어려워서'는 꾸준히 응답비중이 증가하는 항목이다.

(단위: %, 2018년: n=1,334, 2021년: n=2,006, 2024년: n=2,023)



[그림 Ⅱ-6-13] 공공임대주택 등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1순위)

집단별로 공공임대주택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 집(자가), 전세 등으로 이용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한부모의 연령이 40대 이거나, 학력이 높을수록, 혼인 상태가 사별인 경우, 부자(+기타)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막내 자녀의 연령이 미취학인 경우, 종사상 지위가 상용근로자이거나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인 경우, 정부지원유형이 일반가구인 경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한부모가 된 기간이 짧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입주신청 절차가 어려워서'라는 응답은 한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가구구성이 모자(+기타)로 구성된 경우, 종사상 지위가 임시/일용근로자 이거나 비취업인 경우, 정부지원유형이 저소득 지원 가구인 경우, 소득수준이 300만원 미만으로 낮은 경우에 응답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자가를 가져서 이용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집단과 대조적이었으며, 실질적으로 저소득 지원가구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공공주택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관심이 요구된다.

〈표 Ⅱ-6-23〉 공공임대주택 등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1순위)

(단위: %, 가구)

	직장/자녀 학교와 멀어서	사람들의 인식이 좋지 않아서	비용을 낼 형편이 못 되어서	규모 (또는 방수)가 작아서	입주신청 절차가 어려워서	신청자격 미충족/심사 탈락	이용할 필요가 없어서	기타	합계(n)
전 체	10.2	6.7	6.6	7.5	22.9	19.8	26.0	0.2	100.0(2,023)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9.6	9.2	8.6	7.2	22.2	18.9	23.6	0.7	100.0(524)
40대	9.9	6.0	5.5	6.8	23.2	19.9	28.6	0.1	100.0(1,161)
50대 이상	12.5	5.2	7.2	10.2	22.9	21.2	20.8	-	100.0(338)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9.3	8.2	18.0	9.5	29.0	14.8	10.0	1.1	100.0(39)
고졸 이하	10.6	6.0	7.5	7.1	27.9	19.2	21.7	0.0	100.0(939)
대학 이상	9.9	7.2	5.4	7.8	18.2	20.6	30.4	0.4	100.0(1,045)
혼인 상태									
이혼	10.7	6.6	6.2	7.8	23.2	19.7	25.6	0.3	100.0(1,705)
사별	6.5	4.4	6.8	6.1	21.1	24.1	30.7	0.3	100.0(222)
기타	11.5	12.2	13.5	5.9	22.3	11.5	23.1	-	100.0(96)
가구 구성									
모자	12.0	7.1	8.5	5.6	27.3	18.7	20.7	0.1	100.0(972)
모자+기타	7.3	7.4	7.1	11.2	23.2	18.3	24.7	0.9	100.0(358)
부자	10.4	4.9	4.5	7.1	18.5	20.9	33.6	0.1	100.0(439)
부자+기타	7.6	7.2	2.2	10.1	13.1	24.6	35.0	-	100.0(253)

	직장/자녀 학교와 멀어서	사람들의 인식이 좋지 않아서	비용을 낼 형편이 못 되어서	규모 (또는 방수)가 작아서	입주신청 절차가 어려워서	신청자격 미충족/심사 탈락	이용할 필요가 없어서	기타	합계(n)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10.4	8.6	9.0	4.8	23.5	12.8	29.4	1.5	100.0(230)
초등학생	10.7	7.0	6.2	9.3	21.6	19.4	25.6	0.2	100.0(764)
중학생 이상	9.9	5.9	6.4	6.8	23.7	21.8	25.5	-	100.0(1,029)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8.6	6.0	4.3	8.0	20.3	21.3	31.1	0.4	100.0(970)
임시/일용근로자	11.8	8.5	8.8	6.4	30.9	20.1	13.3	0.2	100.0(502)
자영업/무급가족	9.5	6.9	3.4	9.6	14.1	20.9	35.5	-	100.0(306)
비취업	14.4	5.2	15.4	4.9	27.7	12.2	20.0	0.3	100.0(245)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12.3	6.9	10.1	8.8	29.0	15.2	17.3	0.4	100.0(1,162)
일반 가구	7.5	6.3	2.0	5.8	14.6	26.0	37.8	-	100.0(861)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2.4	-	25.1	-	36.4	19.1	16.9	-	100.0(9)
100~200만원 미만	12.8	9.5	17.5	6.7	29.0	11.3	13.0	0.3	100.0(288)
200~300만원 미만	12.2	6.5	7.9	7.2	30.2	18.7	17.2	0.1	100.0(679)
300만원 이상	8.3	6.1	2.6	7.9	16.4	22.9	35.4	0.3	100.0(1,047)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10.2	4.9	7.8	6.0	22.9	20.7	27.0	0.4	100.0(878)
5~10년 미만	9.7	8.9	4.9	8.5	22.7	20.0	25.0	0.2	100.0(813)
10년 이상	11.7	5.6	7.7	8.9	23.3	16.9	25.8	-	100.0(332)

7. 일상생활 및 사회적 지지

본 절은 한부모가족이 한부모가 된 후의 변화상황, 사회적 지지망과 차별경험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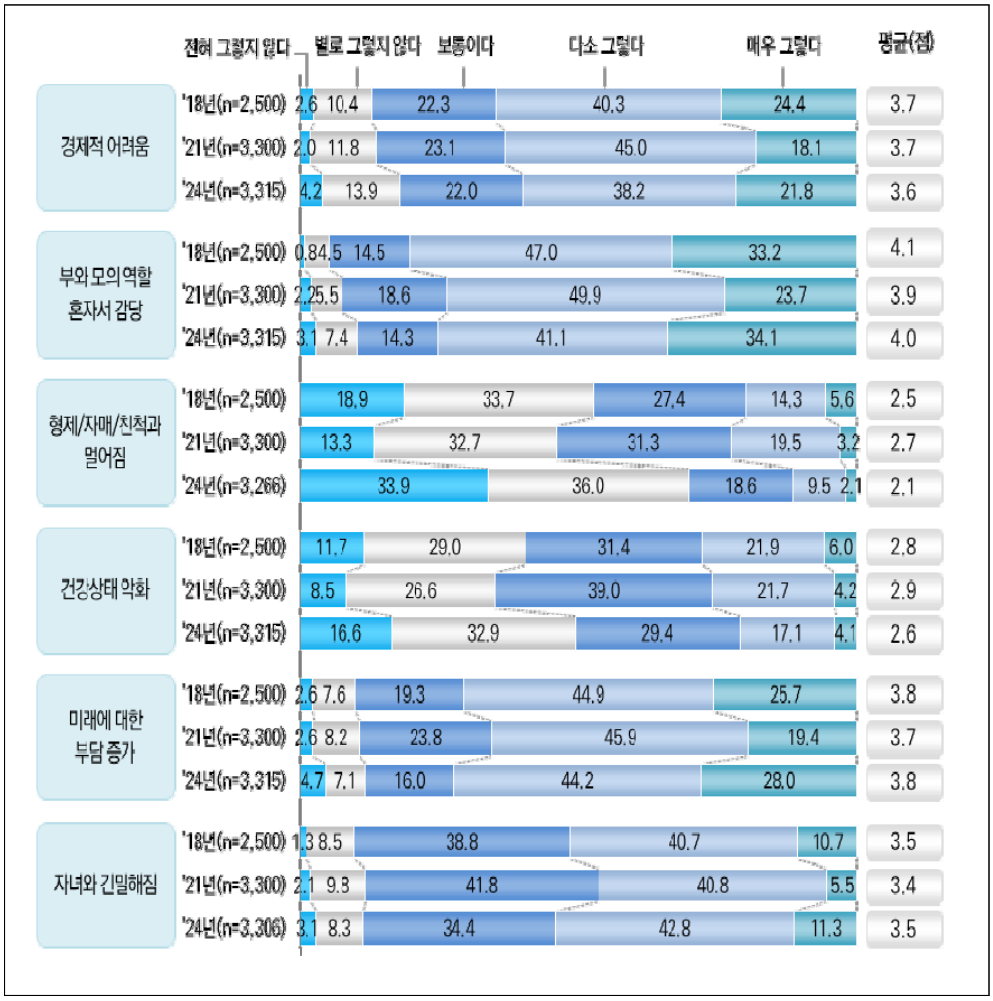
가. 한부모가 된 후 달라진 점

한부모가 된 후 달라진 점을 경제적 어려움, 부와 모의 역할 혼자서 감당, 형제/자매/친척과 멀어짐, 건강상태 악화, 미래에 대한 부담 증가, 자녀와 긴밀해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6개 항목의 평균을 비교해보면, '부와 모의 역할을 혼자서 감당'(4.0점), '미래에 대한 부담 증가'(3.8점), '경제적 어려움'(3.6점). '자녀와 긴밀해짐'(3.5점) 순으로 평균이 높게 나타나 홀로 자녀 돌봄과 경제적 부담 등을 동시에 감당해내야 하는 어려움이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1년 조사와 비교할 때, 평균 3점(보통이다) 미만으로 비교적 변화를 작게 느껴온 '형제/자매/친척과 멀어짐'(2.1점/0.6점 감소)과 '건강상태 악화'(2.6점/0.3점 감소) 항목에 대한 체감은 오히려 감소한 반면, 평균 3점(보통이다) 이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항목들('경제적 어려움', '부와 모의 역할을 혼자서 감당', '미래에 대한 부담 증가', '자녀와 긴밀해짐')에 대해서는 그 평균 변화가 0.1점으로 그 체감에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전부터 한부모 가족이 경험해오던 가족생계와 돌봄의 이중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단위: %, 2018년: n=2,500, 2021년: n=3,300, 2024년: n=3,315)



[그림 Ⅱ-7-1] 한부모가 된 후 달라진 점

세부 항목별로 한부모가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경제적 어려움'의 경우 '그렇다(다소 그렇다+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59.9%로,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18.0%)보다 더 높았다.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74.5%), 이혼/사별 외의 기타 혼인 상태(71.0%), 모자가구(73.7%), 가장 어린 자녀가 미취학(66.6%), 비취업자(76.9%), 저소득 지원 가구(72.5%), 100만원 미만 소득수준(86.6%), 한부모가 된 기간 10년 이상(67.9%)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집단간 평균값의 차이를 보면 한부모의 학력, 혼인 상태, 가구구성, 가장 어린자녀 연령대, 종사상 지위, 정부지원 유형, 소득수준, 한부모가 된

기간에 따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표 Ⅱ-7-1〉).

한부모가 된 후 달라진 점 중 '부와 모의 역할 혼자서 감당'의 경우 '그렇다(다소 그렇다+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75.2%로,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10.5%)보다 훨씬 더 높았다. 집단 간 평균값의 차이를 살펴보면, 한부모 연령, 학력, 혼인 상태, 가구구성, 가장 어린자녀 연령대, 종사상 지원, 정부지원 유형, 소득수준, 한부모가 된 기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렇다(다소 그렇다+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50대 이상(78.9%), 중졸 이하(83.0%), 사별(82.2%), 모자+기타가구(77.3%), 가장 어린자녀가 미취학(81.7%), 임시/일용근로자(78.7%), 저소득 지원 가구(77.0%), 200만원~300만원 미만 소득수준(77.9%), 한부모가 된 기간 5~10년 미만(77.3%)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만, 소득수준 측면에서 부와 모의 역할을 혼자서 감당하는 어려움에 대해 '매우 그렇다'의 응답비율만 별도로 살펴보면, 가장 소득이 낮은 집단인 100만원 미만 집단에서 61.6%로 응답되어 다른 소득 집단('매우 그렇다'는 30%대 응답)에 비해 더욱 강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Ⅱ-7-2〉).

한부모가 된 후 달라진 점 중 '형제, 자매, 친척과 멀어짐'의 경우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69.8%로, '그렇다(다소 그렇다+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11.6%)보다 더 높았다.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사별(74.8%), 부자+기타가구(76.4%), 자영업/무급가족(74.3%), 일반 가구(73.7%), 300만원 이상 소득수준(74.7%)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집단 간 평균값의 차이를 보면 한부모 혼인 상태, 가구구성, 조사상 지위, 정부 지원 유형, 소득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표 Ⅱ-7-3〉).

한부모가 된 후 달라진 점 중 '건강상태 악화'의 경우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49.5%로, '그렇다(다소 그렇다+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21.1%)보다 더 높았으며,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9.4% 였다.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50대 이상(25.2%), 중졸 이하(38.1%), 이혼/사별 외의 기타 혼인 상태(31.2%), 모자가구(24.7%), 가장 어린 자녀가 미취학(21.9%), 비취업자(39.8%), 저소득 지원 가구(27.3%), 100만원 미만 소득수준(49.3%), 한부모가 된 기간 10년 이상(25.6%)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집단간 평균값의 차이를 보면, 한부모 연령, 학력, 혼인 상태, 가구 구성, 가장 어린자녀 연령대, 종사상 지위, 소득수준, 한부모가 된 기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표 Ⅱ-7-4〉).

〈표 Ⅱ-7-1〉 한부모가 된 후 달라진 점 - 경제적 어려움

(단위: %, 가구)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다소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② 그렇지 않다	④+⑤ 그렇다	합계(n)	평균	$F(df)$
전 체	4.2	13.9	22.0	38.2	21.8	18.0	59.9	100.0(3,315)	3.6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3.2	10.2	12.0	34.3	40.2	13.4	74.5	100.0(101)	4.0	28.43(2)***
고졸 이하	4.1	10.4	19.3	43.2	23.0	14.5	66.2	100.0(1,666)	3.7	
대학 이상	4.3	17.8	25.6	33.1	19.2	22.1	52.3	100.0(1,548)	3.5	
혼인 상태										
이혼	4.3	14.2	22.3	38.5	20.7	18.5	59.2	100.0(2,793)	3.6	6.487(2)**
사별	4.7	12.4	23.0	33.9	26.0	17.0	59.9	100.0(345)	3.6	
기타	1.0	12.2	15.8	40.9	30.1	13.2	71.0	100.0(178)	3.9	
가구 구성										
모자	2.9	6.5		46.1	27.5	9.4	73.7	100.0(1,773)	3.9	
모자+기타	0.6	14.8	19.1	37.1	28.3	15.4	65.4	100.0(503)	3.8	169.681(3)***
부자	7.0	24.8	34.3	25.3	8.6	31.8	33.9	100.0(674)	3.0	
부자+기타	10.1	27.9	28.2	24.7	9.1	38.0	33.8	100.0(365)	2.9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1.5	11.7	20.1	43.4	23.3	13.2	66.6	100.0(392)	3.8	4.531(2)*
초등학생	4.8	13.9	22.0	37.4	21.8	18.8	59.2	100.0(1,281)	3.6	
중학생 이상	4.3	14.3	22.5	37.5	21.4	18.6	58.9	100.0(1,642)	3.6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다소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② 그렇지 않다	④+⑤ 그렇다	합계(n)	평균	$F(df)$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4.6	18.0	27.9	34.3	15.1	22.7	49.4	100.0(1,483)	3.4	
임시/일용근로자	4.5	9.6	13.1	45.8	27.0	14.1	72.8	100.0(858)	3.8	67.724(3)***
자영업/무급가족	5.3	17.4	27.4	32.0	17.9	22.7	49.9	100.0(440)	3.4	
비취업	1.5	6.2	15.5	41.9	35.0	7.7	76.9	100.0(534)	4.0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3.2	8.7	15.5	43.5	29.0	12.0	72.5	100.0(2,184)	3.9	436.981(1)***
일반 가구	6.1	23.8	34.6	27.9	7.7	29.8	35.6	100.0(1,131)	3.1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	3.9	9.4	26.5	60.1	3.9	86.6	100.0(24)	4.4	
100~200만원 미만	2.8	7.9	15.0	42.7	31.6	10.6	74.3	100.0(619)	3.9	117.435(3)***
200~300만원 미만	3.5	8.1	16.4	42.3	29.7	11.6	72.0	100.0(1,210)	3.9	
300만원 이상	5.5	21.3	29.8	33.0	10.4	26.8	43.4	100.0(1,462)	3.2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3.1	16.9	22.9	38.0	19.0	20.1	57.0	100.0(1,415)	3.5	8.76(2)***
5~10년 미만	4.9	12.7	22.8	37.2	22.5	17.6	59.6	100.0(1,328)	3.6	
10년 이상	5.1	9.0	18.0	41.0	26.9	14.1	67.9	100.0(572)	3.8	

주: *p<.05, **p<.01, ***p<.001

〈표 Ⅱ-7-2〉 한부모가 된 후 달라진 점 - 부와 모의 역할 혼자서 감당

(단위: %, 가구)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다소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② 그렇지 않다	④+⑤ 그렇다	합계(n)	평균	$F(df)$
전 체	3.1	7.4	14.3	41.1	34.1	10.5	75.2	100.0(3,315)	4.0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2.8	7.2	15.5	40.6	33.8	10.0	74.5	100.0(846)	4.0	3.253(2)*
40대	2.9	8.5	14.2	41.5	32.9	11.4	74.4	100.0(1,895)	3.9	
50대 이상	3.9	4.2	13.0	40.3	38.6	8.1	78.9	100.0(575)	4.1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2.4	1.9	12.8	39.2	43.8	4.3	83.0	100.0(101)	4.2	5.925(2)**
고졸 이하	3.7	5.9	13.2	42.1	35.2	9.5	77.3	100.0(1,666)	4.0	
대학 이상	2.5	9.4	15.6	40.1	32.3	11.9	72.5	100.0(1,548)	3.9	
혼인 상태										
이혼	3.3	8.1	14.4	42.3	31.9	11.4	74.2	100.0(2,793)	3.9	17.423(2)***
사별	2.2	4.3	11.3	31.6	50.6	6.5	82.2	100.0(345)	4.2	
기타	2.0	1.9	18.0	40.8	37.4	3.9	78.1	100.0(178)	4.1	
가구 구성										
모자	3.0	6.2	13.7	40.8	36.2	9.2	77.0	100.0(1,773)	4.0	
모자+기타	1.7	5.9	15.1	38.6	38.7	7.6	77.3	100.0(503)	4.1	10.587(3)***
부자	3.9	9.0	15.1	42.3	29.7	12.8	72.0	100.0(674)	3.9	
부자+기타	3.6	12.5	14.5	43.5	26.0	16.1	69.4	100.0(365)	3.8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다소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② 그렇지 않다	④+⑤ 그렇다	합계(n)	평균	$F(df)$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1.8	3.3	13.3	44.9	36.8	5.0	81.7	100.0(392)	4.1	5.712(2)**
초등학생	2.8	9.9	13.5	40.4	33.4	12.7	73.8	100.0(1,281)	3.9	
중학생 이상	3.6	6.4	15.2	40.7	34.1	10.1	74.8	100.0(1,642)	4.0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3.5	8.9	15.0	43.0	29.5	12.4	72.5	100.0(1,483)	3.9	9.31(3)***
임시/일용근로자	3.1	6.5	11.7	36.5	42.2	9.6	78.7	100.0(858)	4.1	
자영업/무급가족	2.3	7.3	13.8	44.3	32.3	9.7	76.5	100.0(440)	4.0	
비취업	2.4	4.8	16.8	40.4	35.5	7.3	75.9	100.0(534)	4.0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3.3	6.5	13.2	39.1	37.9	9.8	77.0	100.0(2,184)	4.0	21.102(1)***
일반 가구	2.5	9.2	16.4	44.9	26.9	11.7	71.8	100.0(1,131)	3.8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	9.9	15.7	12.8	61.6	9.9	74.4	100.0(24)	4.3	5.818(3)***
100~200만원 미만	3.3	5.7	14.2	42.1	34.7	9.1	76.7	100.0(619)	4.0	
200~300만원 미만	3.5	6.1	12.6	39.6	38.2	9.6	77.9	100.0(1,210)	4.0	
300만원 이상	2.7	9.2	15.7	42.3	30.1	11.9	72.4	100.0(1,462)	3.9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2.5	9.4	15.1	41.0	32.0	11.9	73.0	100.0(1,415)	3.9	3.173(2)*
5~10년 미만	3.6	6.2	12.9	40.9	36.3	9.8	77.3	100.0(1,328)	4.0	
10년 이상	3.1	5.2	15.7	41.7	34.2	8.4	75.9	100.0(572)	4.0	

주: *p<.05, **p<.01, ***p<.001

〈표 Ⅱ-7-3〉 한부모가 된 후 달라진 점 - 형제/자매/친척과 멀어짐

(단위: %, 가구)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다소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② 그렇지 않다	④+⑤ 그렇다	합계(n)	평균	$F(df)$
전 체	33.9	36.0	18.6	9.5	2.1	69.8	11.6	100.0(3,266)	2.1	
혼인 상태										
이혼	33.7	35.7	18.7	9.7	2.2	69.4	11.9	100.0(2,749)	2.1	3.212(2)*
사별	36.3	38.5	17.9	5.2	2.1	74.8	7.2	100.0(344)	2.0	
기타	31.2	34.7	18.2	14.2	1.7	65.9	15.9	100.0(174)	2.2	
가구 구성										
모자	31.6	36.1	18.6	11.1	2.5	67.7	13.6	100.0(1,742)	2.2	
모자+기타	41.9	31.1	16.3	8.4	2.2	73.0	10.6	100.0(498)	2.0	9.637(3)***
부자	29.9	39.3	20.4	8.8	1.6	69.2	10.4	100.0(661)	2.1	
부자+기타	40.7	35.7	18.4	3.8	1.4	76.4	5.2	100.0(365)	1.9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36.0	36.6	18.6	7.4	1.4	72.6	8.8	100.0(1,471)	2.0	
임시/일용근로자	29.6	37.0	17.6	12.7	3.2	66.6	15.8	100.0(842)	2.2	12.332(3)***
자영업/무급가족	38.0	36.3	17.8	5.6	2.2	74.3	7.9	100.0(432)	2.0	
비취업	31.3	32.1	21.0	13.1	2.5	63.4	15.6	100.0(521)	2.2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33.4	34.4	18.3	11.1	2.9	67.8	13.9	100.0(2,147)	2.2	18.059(1)***
일반 가구	34.7	38.9	19.3	6.4	0.7	73.7	7.1	100.0(1,119)	2.0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다소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② 그렇지 않다	④+⑤ 그렇다	합계(n)	평균	$F(df)$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39.3	34.8	9.2	13.6	3.1	74.1	16.7	100.0(23)	2.1	
100~200만원 미만	28.7	31.0	21.9	14.3	4.2	59.6	18.5	100.0(597)	2.3	19.577(3)***
200~300만원 미만	32.1	36.7	18.7	9.9	2.5	68.8	12.5	100.0(1,193)	2.1	
300만원 이상	37.3	37.4	17.3	7.0	0.9	74.7	8.0	100.0(1,452)	2.0	

주: *p<.05, ***p<.001

〈표 Ⅱ-7-4〉 한부모가 된 후 달라진 점 - 건강상태 악화

(단위: %, 가구)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다소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② 그렇지 않다	④+⑤ 그렇다	합계(n)	평균	$F(df)$
전 체	16.6	32.9	29.4	17.1	4.1	49.5	21.1	100.0(3,315)	2.6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18.9	36.9	25.4	15.6	3.3	55.8	18.9	100.0(846)	2.5	12.671(2)***
40대	17.0	31.6	30.4	17.1	3.8	48.7	20.9	100.0(1,895)	2.6	
50대 이상	11.8	31.1	31.9	18.9	6.3	42.9	25.2	100.0(575)	2.8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8.2	26.7	27.1	30.1	8.0	34.8	38.1	100.0(101)	3.0	25.611(2)***
고졸 이하	14.6	31.6	30.1	18.4	5.3	46.2	23.7	100.0(1,666)	2.7	
대학 이상	19.3	34.7	28.7	14.8	2.5	54.0	17.3	100.0(1,548)	2.5	
혼인 상태										
이혼	16.9	33.2	29.4	16.8	3.8	50.0	20.5	100.0(2,793)	2.6	5.193(2)**
사별	17.1	30.9	31.1	15.8	5.0	48.1	20.8	100.0(345)	2.6	
기타	11.4	31.8	25.5	23.7	7.5	43.2	31.2	100.0(178)	2.8	
가구 구성										
모자	14.2	32.1	29.0	19.7	5.0	46.3	24.7	100.0(1,773)	2.7	
모자+기타	16.3	34.9	25.3	18.7	4.8	51.2	23.5	100.0(503)	2.6	23.697(3)***
부자	16.8	32.1	33.8	14.6	2.6	49.0	17.2	100.0(674)	2.5	
부자+기타	28.2	35.3	28.4	6.5	1.6	63.4	8.2	100.0(365)	2.2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다소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② 그렇지 않다	④+⑤ 그렇다	합계(n)	평균	$F(df)$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16.4	39.4	22.3	18.2	3.7	55.8	21.9	100.0(392)	2.5	3.011(2)*
초등학생	18.5	31.8	29.6	16.2	3.9	50.4	20.1	100.0(1,281)	2.6	
중학생 이상	15.1	32.1	30.9	17.4	4.4	47.3	21.8	100.0(1,642)	2.6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21.9	33.9	30.2	12.6	1.4	55.8	14.0	100.0(1,483)	2.4	
임시/일용근로자	12.3	32.3	29.9	21.0	4.5	44.6	25.6	100.0(858)	2.7	61.499(3)***
자영업/무급가족	15.0	38.2	32.9	11.5	2.4	53.2	13.9	100.0(440)	2.5	
비취업	10.1	26.6	23.5	27.6	12.2	36.7	39.8	100.0(534)	3.1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14.9	29.6	28.3	21.6	5.7	44.5	27.3	100.0(2,184)	2.7	117.809(1)***
일반 가구	19.9	39.2	31.6	8.3	1.1	59.1	9.3	100.0(1,131)	2.3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5.6	17.9	27.2	32.8	16.5	23.5	49.3	100.0(24)	3.4	
100~200만원 미만	12.0	26.3	27.4	26.2	8.1	38.3	34.3	100.0(619)	2.9	60.584(3)***
200~300만원 미만	12.6	32.4	30.5	19.2	5.2	45.0	24.4	100.0(1,210)	2.7	
300만원 이상	22.0	36.3	29.3	11.1	1.2	58.3	12.4	100.0(1,462)	2.3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15.6	36.3	29.1	16.0	3.0	51.9	19.0	100.0(1,415)	2.5	3.968(2)*
5~10년 미만	17.8	30.2	30.4	17.3	4.2	48.0	21.5	100.0(1,328)	2.6	
10년 이상	16.1	30.8	27.6	19.0	6.6	46.8	25.6	100.0(572)	2.7	

주: *p<.05, **p<.01, ***p<.001

한부모가 된 후 달라진 점 중 '미래에 대한 부담 증가'의 경우 '그렇다(다소 그렇다+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72.2%로,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11.9%)에 비해 훨씬 더 높았다.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중졸 이하(87.8%), 이혼/사별 외 기타 혼인 상태(80.8%), 모자+기타가구(80.5%), 비취업(79.5%), 저소득 지원 가구(76.9%), 100만원 미만 소득수준(84.3%)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집단 값 평균값의 차이 역시 한부모 학력, 혼인 상태, 가구 구성, 종사상 지위, 정부 지원 유형, 소득수준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표 Ⅱ-7-5〉).

한부모가 된 후 달라진 점 중 '자녀와 긴밀해짐'의 경우 '그렇다(다소 그렇다+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54.1%로,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11.4%)나 '보통이다'(34.4%)로 응답한 비율에 비해 더 높았다.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0대 이하(59.0%), 중졸 이하(63.3%), 이혼/사별 외의 기타 혼인 상태(64.9%), 모자+기타 가구(60.5%), 가장 어린자녀가 미취학(65.1%), 저소득 지원 가구(56.2%), 100만원 미만 소득수준(59.4%)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집단간 평균 값의 차이 역시, 한부모 연령, 학력, 혼인 상태, 가구구성, 가장 어린자녀 연령대, 정부 지원유형, 소득수준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표 Ⅱ-7-6〉).

〈표 Ⅱ-7-5〉 한부모가 된 후 달라진 점 - 미래에 대한 부담 증가

(단위: %, 가구)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다소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② 그렇지 않다	④+⑤ 그렇다	합계(n)	평균	$F(df)$
전 체	4.7	7.1	16.0	44.2	28.0	11.9	72.2	100.0(3,315)	3.8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3.8	-	8.3	42.3	45.5	3.8	87.8	100.0(101)	4.3	16.088(2)***
고졸 이하	4.4	6.0	14.3	46.4	28.9	10.4	75.3	100.0(1,666)	3.9	
대학 이상	5.1	8.8	18.3	41.9	25.9	13.9	67.8	100.0(1,548)	3.7	
혼인 상태										
이혼	4.9	7.4	16.3	45.0	26.4	12.3	71.4	100.0(2,793)	3.8	8.204(2)***
사별	4.2	6.1	16.1	39.0	34.7	10.3	73.7	100.0(345)	3.9	
기타	2.7	5.3	11.3	40.9	39.8	8.0	80.8	100.0(178)	4.1	
가구 구성										
모자	3.7	5.0	14.7	44.8	31.7	8.8	76.5	100.0(1,773)	4.0	
모자+기타	1.8	6.8	10.9	42.8	37.7	8.6	80.5	100.0(503)	4.1	53.459(3)***
부자	6.1	10.5	20.6	45.8	17.0	16.6	62.8	100.0(674)	3.6	
부자+기타	11.1	11.6	20.5	40.0	16.9	22.6	56.9	100.0(365)	3.4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5.9	8.6	18.8	44.4	22.3	14.5	66.7	100.0(1,483)	3.7	
임시/일용근로자	4.4	4.4	13.0	44.1	34.2	8.8	78.2	100.0(858)	4.0	25.844(3)***
자영업/무급가족	4.1	9.3	16.5	46.2	23.9	13.4	70.1	100.0(440)	3.8	
비취업	2.4	5.7	12.4	42.0	37.5	8.1	79.5	100.0(534)	4.1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다소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② 그렇지 않다	④+⑤ 그렇다	합계(n)	평균	$F(df)$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3.9	5.4	13.8	43.1	33.8	9.3	76.9	100.0(2,184)	4.0	113.181(1)***
일반 가구	6.2	10.5	20.2	46.2	16.8	16.8	63.0	100.0(1,131)	3.6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0.8	9.3	5.6	17.8	66.5	10.1	84.3	100.0(24)	4.4	
100~200만원 미만	3.6	4.5	13.2	42.4	36.4	8.0	78.8	100.0(619)	4.0	34.934(3)***
200~300만원 미만	3.9	4.3	15.6	43.2	32.9	8.2	76.1	100.0(1,210)	4.0	
300만원 이상	5.9	10.6	17.6	46.2	19.8	16.5	65.9	100.0(1,462)	3.6	

주: ***p<.001

〈표 Ⅱ-7-6〉 한부모가 된 후 달라진 점 - 자녀와 긴밀해짐

(단위: %, 가구)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다소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② 그렇지 않다	④+⑤ 그렇다	합계(n)	평균	$F(df)$
전 체	3.1	8.3	34.4	42.8	11.3	11.4	54.1	100.0(3,306)	3.5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3.0	6.3	31.7	43.7	15.3	9.2	59.0	100.0(845)	3.6	8.647(2)***
40대	2.9	9.7	35.0	41.8	10.6	12.6	52.4	100.0(1,891)	3.5	
50대 이상	3.9	6.9	36.4	44.8	7.9	10.9	52.8	100.0(570)	3.5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2.2	4.7	29.9	50.4	12.9	6.8	63.3	100.0(101)	3.7	8.897(2)***
고졸 이하	3.6	9.0	36.3	41.5	9.6	12.6	51.1	100.0(1,660)	3.4	
대학 이상	2.6	7.9	32.7	43.8	13.1	10.5	56.8	100.0(1,546)	3.6	
혼인 상태										
이혼	3.4	8.8	35.2	42.0	10.5	12.2	52.6	100.0(2,785)	3.5	13.006(2)***
사별	1.7	6.1	31.1	47.4	13.7	7.8	61.1	100.0(345)	3.7	
기타	1.7	4.6	28.8	46.0	18.9	6.3	64.9	100.0(177)	3.8	
가구 구성										
모자	2.6	7.5	32.6	45.2	12.1	10.1	57.2	100.0(1,772)	3.6	
모자+기타	3.4	6.3	29.7	41.9	18.6	9.7	60.5	100.0(501)	3.7	18.942(3)***
부자	3.8	10.2	40.5	39.2	6.2	14.1	45.4	100.0(669)	3.3	
부자+기타	3.7	11.6	38.2	39.2	7.2	15.3	46.5	100.0(365)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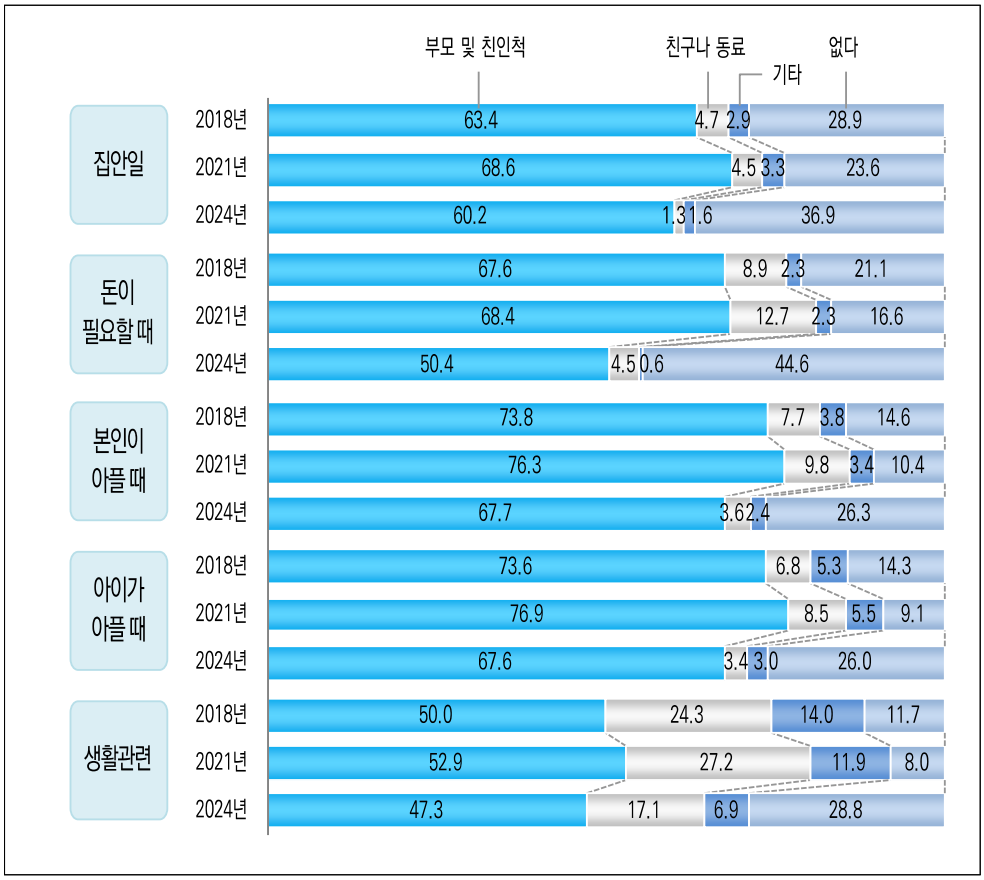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다소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② 그렇지 않다	④+⑤ 그렇다	합계(n)	평균	$F(df)$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2.1	4.4	28.4	48.0	17.1	6.6	65.1	100.0(390)	3.7	15.595(2)***
초등학생	3.6	9.4	31.3	43.1	12.6	13.0	55.7	100.0(1,277)	3.5	
중학생 이상	3.0	8.4	38.3	41.3	9.0	11.4	50.3	100.0(1,639)	3.4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3.4	8.4	32.0	43.6	12.6	11.8	56.2	100.0(2,180)	3.5	5.226(1)*
일반 가구	2.5	8.2	39.1	41.2	8.9	10.7	50.2	100.0(1,127)	3.5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	17.7	22.9	28.4	31.0	17.7	59.4	100.0(24)	3.7	3.016(3)*
100~200만원 미만	3.4	8.2	34.0	42.4	12.0	11.6	54.4	100.0(614)	3.5	
200~300만원 미만	3.1	7.4	33.0	43.4	13.1	10.5	56.5	100.0(1,209)	3.6	
300만원 이상	3.0	9.0	35.9	42.8	9.3	12.1	52.0	100.0(1,460)	3.5	

주: *p<.05, ***p<.001

나. 사회적 지지망

한부모가족들이 일상생활에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망을 집안일/돈이 필요할 때/본인이 아플 때/아이가 아플 때/생활관련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그림 Ⅱ-7-2]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단위: %, 2018년: n=2,500, 2021년: n=3,300, 2024년: n=3,315)



[그림 Ⅱ-7-2] 도움을 구할 사람/기관(1순위)

우선, 전반적으로 볼 때, '부모 및 친인척'으로부터 가장 많은 도움을 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및 친인척'으로부터 도움을 구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집안일 관련해서는 60.2%, 돈이 필요할 때에는 50.4%, 본인이 아플 때에는 67.7%, 아이가 아플 때에는 67.6%, 생활 관련해서는 47.3%로 나타나 부모 및 친인척을 주요 사회적 지지망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번 조사에서는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기관이나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항목별로 20~40%대로 이전 조사들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사회적 지지망이 부재한 한부모가족이 상당히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집안일 관련해서는 36.9%, 돈이 필요할 때에는 44.6%, 본인이 아플 때에는 26.3%, 아이가 아플 때에는 26.0%, 생활관련은 28.8%로, 돈이 필요할 때와 집안일 관련해서 도움을 구할 곳이 없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어서 각 항목별로 집단별 차이를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우선, '집안일'과 관련해 도움을 구할 대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36.9%였는데, 한부모 연령별로는 50대 이상(51.5%), 학력 중졸이하(55.3%), 이혼 또는 사별이 아닌 기타 한부모(41.6%), 모자가구(48.0%), 가장 어린 자녀가 중학생 이상(43.2%), 비취업자(45.5%), 저소득 지원가구(43.2%), 100~200만원 미만 소득수준(50.9%), 한부모가 된 기간 10년 이상(42.6%)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Ⅱ-7-7〉 도움을 구할 사람/기관(1순위) - 집안일

(단위: %, 가구)

	부모 및 친인척	친구나 동료	기타	없다	합계(n)
전 체	60.2	1.3	1.6	36.9	100.0(3,315)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71.7	1.8	1.3	25.3	100.0(846)
40대	60.0	1.1	1.3	37.6	100.0(1,895)
50대 이상	44.1	1.5	2.9	51.5	100.0(575)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40.8	0.9	3.1	55.3	100.0(101)
고졸 이하	53.0	1.3	1.2	44.5	100.0(1,666)
대학 이상	69.3	1.4	1.9	27.4	100.0(1,548)
혼인 상태					
이혼	60.6	1.2	1.7	36.5	100.0(2,793)
사별	60.7	1.4	0.7	37.2	100.0(345)
기타	53.9	3.4	1.1	41.6	100.0(178)
가구 구성					
모자	48.3	2.1	1.7	48.0	100.0(1,773)
모자+기타	88.9	0.1	0.2	10.8	100.0(503)
부자	54.6	1.1	2.2	42.1	100.0(674)
부자+기타	89.3	-	1.6	9.1	100.0(365)

	부모 및 친인척	친구나 동료	기타	없다	합계(n)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67.7	1.7	0.9	29.7	100.0(392)
초등학생	66.7	0.9	1.4	31.0	100.0(1,281)
중학생 이상	53.4	1.6	1.9	43.2	100.0(1,642)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65.7	1.1	1.8	31.5	100.0(1,483)
임시/일용근로자	53.9	1.5	1.1	43.5	100.0(858)
자영업/무급가족	65.8	0.7	1.8	31.8	100.0(440)
비취업	50.7	2.3	1.5	45.5	100.0(534)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53.6	1.6	1.6	43.2	100.0(2,184)
일반 가구	73.0	0.8	1.5	24.7	100.0(1,131)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47.2	2.6	-	50.3	100.0(24)
100~200만원 미만	45.5	1.9	1.6	50.9	100.0(619)
200~300만원 미만	56.7	1.7	1.8	39.8	100.0(1,210)
300만원 이상	69.7	0.8	1.3	28.3	100.0(1,462)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63.6	1.2	1.0	34.1	100.0(1,415)
5~10년 미만	59.6	1.2	1.8	37.4	100.0(1,328)
10년 이상	53.4	1.8	2.2	42.6	100.0(572)

'돈이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할 대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44.6%로 여타의 항목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한부모 연령별로는 50대 이상(57.5%), 학력은 중졸 이하(58.5%)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사별(38.5%)에 비해서는 이혼(45.4%)인 응답자들이 도움을 받을 대상이 없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가장 어린 자녀가 중학생 이상(49.3%), 비취업자(52.1%), 저소득 지원 가구(48.6%)와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의 소득 범주에 속한 응답자들, 한부모가 된 기간 10년 이상(49.9%) 집단에서 해당 비율이 비교적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Ⅱ-7-8〉 도움을 구할 사람/기관(1순위) - 돈이 필요할 때

(단위: %, 가구)

	부모 및 친인척	친구나 동료	기타	없다	합계(n)
전 체	50.4	4.5	0.6	44.6	100.0(3,315)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58.7	4.5	0.6	36.2	100.0(846)
40대	50.9	4.3	0.4	44.4	100.0(1,895)
50대 이상	36.4	5.1	1.0	57.5	100.0(575)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31.7	8.4	1.5	58.5	100.0(101)
고졸 이하	43.1	4.0	0.6	52.2	100.0(1,666)
대학 이상	59.4	4.7	0.4	35.5	100.0(1,548)
혼인 상태					
이혼	49.9	4.1	0.6	45.4	100.0(2,793)
사별	54.9	6.5	0.1	38.5	100.0(345)
기타	49.0	6.9	0.2	43.8	100.0(178)
가구 구성					
모자	46.3	4.1	0.8	48.9	100.0(1,773)
모자+기타	65.4	3.3	0.5	30.9	100.0(503)
부자	46.8	6.1	0.4	46.7	100.0(674)
부자+기타	56.2	5.3	-	38.5	100.0(365)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52.7	5.3	0.3	41.6	100.0(392)
초등학생	56.2	3.8	0.6	39.3	100.0(1,281)
중학생 이상	45.3	4.8	0.5	49.3	100.0(1,642)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55.2	5.3	0.4	39.1	100.0(1,483)
임시/일용근로자	43.9	4.0	0.5	51.6	100.0(858)
자영업/무급가족	54.4	4.8	0.7	40.1	100.0(440)
비취업	44.0	3.1	0.9	52.1	100.0(534)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46.9	3.7	0.8	48.6	100.0(2,184)
일반 가구	57.0	6.0	0.1	36.8	100.0(1,131)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41.4	2.6	-	56.0	100.0(24)
100~200만원 미만	40.7	3.5	0.8	55.0	100.0(619)
200~300만원 미만	49.0	4.3	0.5	46.2	100.0(1,210)
300만원 이상	55.8	5.1	0.5	38.6	100.0(1,462)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54.8	5.3	0.5	39.4	100.0(1,415)
5~10년 미만	47.8	3.9	0.6	47.7	100.0(1,328)
10년 이상	45.4	3.9	0.8	49.9	100.0(572)

'본인이 아플 때' 도움을 구할 대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26.3%였는데, 한부모 연령별로는 50대 이상(38.0%), 학력 중졸이하(43.8%), 이혼 또는 사별이 아닌 기타 한부모(33.1%), 모자가구(32.8%), 가장 어린 자녀가 중학생 이상(30.7%), 비취업자(35.2%), 저소득 지원 가구(31.4%), 100~200만원 미만 소득수준(38.4%), 한부모가 된 기간 10년 이상(30.8%)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Ⅱ-7-9〉 도움을 구할 사람/기관(1순위) - 본인이 아플 때

(단위: %, 가구)

	부모 및 친인척	친구나 동료	기타	없다	합계(n)
전 체	67.7	3.6	2.4	26.3	100.0(3,315)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76.0	2.6	1.7	19.7	100.0(846)
40대	68.4	3.7	2.3	25.7	100.0(1,895)
50대 이상	53.1	5.0	3.9	38.0	100.0(575)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46.1	3.0	7.1	43.8	100.0(101)
고졸 이하	61.2	3.9	2.2	32.7	100.0(1,666)
대학 이상	76.1	3.3	2.3	18.3	100.0(1,548)
혼인 상태					
이혼	68.5	3.4	2.6	25.5	100.0(2,793)
사별	65.0	4.6	1.4	29.0	100.0(345)
기타	60.4	4.8	1.8	33.1	100.0(178)
가구 구성					
모자	58.8	5.1	3.3	32.8	100.0(1,773)
모자+기타	89.5	0.1	0.2	10.1	100.0(503)
부자	62.9	3.5	2.2	31.4	100.0(674)
부자+기타	89.7	1.4	1.3	7.5	100.0(365)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73.8	3.7	1.9	20.6	100.0(392)
초등학생	72.8	2.6	2.1	22.5	100.0(1,281)
중학생 이상	62.2	4.4	2.7	30.7	100.0(1,642)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72.8	3.8	2.3	21.1	100.0(1,483)
임시/일용근로자	61.6	4.1	2.0	32.3	100.0(858)
자영업/무급가족	74.6	1.7	2.2	21.5	100.0(440)
비취업	57.4	4.0	3.4	35.2	100.0(534)

	부모 및 친인척	친구나 동료	기타	없다	합계(n)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62.0	3.6	3.0	31.4	100.0(2,184)
일반 가구	78.6	3.6	1.2	16.5	100.0(1,131)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57.8	-	5.7	36.5	100.0(24)
100~200만원 미만	53.6	4.4	3.6	38.4	100.0(619)
200~300만원 미만	63.8	3.8	3.2	29.2	100.0(1,210)
300만원 이상	76.9	3.3	1.2	18.6	100.0(1,462)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70.7	3.5	1.8	24.0	100.0(1,415)
5~10년 미만	67.2	3.1	2.9	26.8	100.0(1,328)
10년 이상	61.3	5.2	2.8	30.8	100.0(572)

‘아이가 아플 때’ 도움을 구할 대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26.0%였는데, 한부모 연령별로는 50대 이상(37.1%), 학력 중졸이하(42.6%), 이혼 또는 사별이 아닌 기타 한부모(29.6%), 모자가구(32.3%), 가장 어린 자녀가 중학생 이상(31.0%), 비취업자(33.7%), 저소득 지원 가구(30.5%), 100~200만원 미만 소득수준(39.0%), 한부모가 된 기간 10년 이상(30.7%)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Ⅱ-7-10〉 도움을 구할 사람/기관(1순위) - 아이가 아플 때

(단위: %, 가구)

	부모 및 친인척	친구나 동료	기타	없다	합계(n)
전 체	67.6	3.4	3.0	26.0	100.0(3,315)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76.3	2.3	1.5	19.9	100.0(846)
40대	68.0	3.5	3.1	25.5	100.0(1,895)
50대 이상	53.4	4.9	4.7	37.1	100.0(575)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48.2	1.8	7.4	42.6	100.0(101)
고졸 이하	61.8	3.9	2.6	31.7	100.0(1,666)
대학 이상	75.0	3.1	3.1	18.9	100.0(1,548)
혼인 상태					
이혼	68.0	3.3	3.3	25.4	100.0(2,793)
사별	66.0	3.6	1.3	29.1	100.0(345)
기타	64.0	5.0	1.4	29.6	100.0(178)
가구 구성					
모자	58.9	4.9	3.9	32.3	100.0(1,773)
모자+기타	88.5	0.7	0.2	10.5	100.0(503)
부자	62.9	2.7	3.4	30.9	100.0(674)
부자+기타	89.4	1.2	1.3	8.1	100.0(365)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74.9	4.1	2.1	18.9	100.0(392)
초등학생	73.2	2.5	2.4	21.9	100.0(1,281)
중학생 이상	61.4	4.0	3.6	31.0	100.0(1,642)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72.0	3.4	2.4	22.2	100.0(1,483)
임시/일용근로자	60.8	4.9	3.2	31.1	100.0(858)
자영업/무급가족	75.2	1.5	3.3	19.9	100.0(440)
비취업	59.7	2.8	3.8	33.7	100.0(534)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62.3	3.7	3.5	30.5	100.0(2,184)
일반 가구	77.8	2.9	1.9	17.4	100.0(1,131)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57.4	4.2	1.2	37.2	100.0(24)
100~200만원 미만	52.6	3.6	4.8	39.0	100.0(619)
200~300만원 미만	64.6	4.2	3.6	27.6	100.0(1,210)
300만원 이상	76.5	2.7	1.7	19.1	100.0(1,462)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70.7	3.3	2.4	23.7	100.0(1,415)
5~10년 미만	66.9	3.1	3.5	26.5	100.0(1,328)
10년 이상	61.5	4.6	3.1	30.7	100.0(572)

‘생활관련’ 도움을 구할 대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8.8%로 집계되었다. 한부모 연령별로는 50대 이상(40.7%), 학력은 중졸 이하(38.7%), 사별 한부모(31.2%), 부자가구(36.1%), 가장 어린 자녀가 중학생 이상(33.3%), 비취업자(32.6%), 100~200만원 미만 소득수준(35.0%), 한부모가 된 기간 10년 이상(31.1%) 집단에서 그러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Ⅱ-7-11〉 도움을 구할 사람/기관(1순위) - 생활관련

(단위: %, 가구)

	부모 및 친인척	친구나 동료	기타	없다	합계(n)
전 체	47.3	17.1	6.9	28.8	100.0(3,315)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54.0	15.7	8.5	21.9	100.0(846)
40대	47.7	18.1	6.0	28.2	100.0(1,895)
50대 이상	35.9	16.1	7.3	40.7	100.0(575)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36.1	17.2	8.0	38.7	100.0(101)
고졸 이하	41.9	17.4	7.2	33.5	100.0(1,666)
대학 이상	53.7	16.8	6.4	23.0	100.0(1,548)
혼인 상태					
이혼	47.6	16.9	6.9	28.6	100.0(2,793)
사별	48.3	15.3	5.1	31.2	100.0(345)
기타	39.4	24.0	9.9	26.7	100.0(178)
가구 구성					
모자	44.6	18.2	7.4	29.8	100.0(1,773)
모자+기타	57.4	16.5	8.5	17.7	100.0(503)
부자	43.9	14.1	5.9	36.1	100.0(674)
부자+기타	52.5	18.3	3.8	25.4	100.0(365)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52.7	17.0	7.7	22.6	100.0(392)
초등학생	50.4	18.0	6.9	24.8	100.0(1,281)
중학생 이상	43.5	16.5	6.6	33.3	100.0(1,642)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49.9	17.8	5.0	27.2	100.0(1,483)
임시/일용근로자	44.4	18.1	8.3	29.2	100.0(858)
자영업/무급가족	49.1	16.2	6.4	28.3	100.0(440)
비취업	42.8	14.5	10.1	32.6	100.0(5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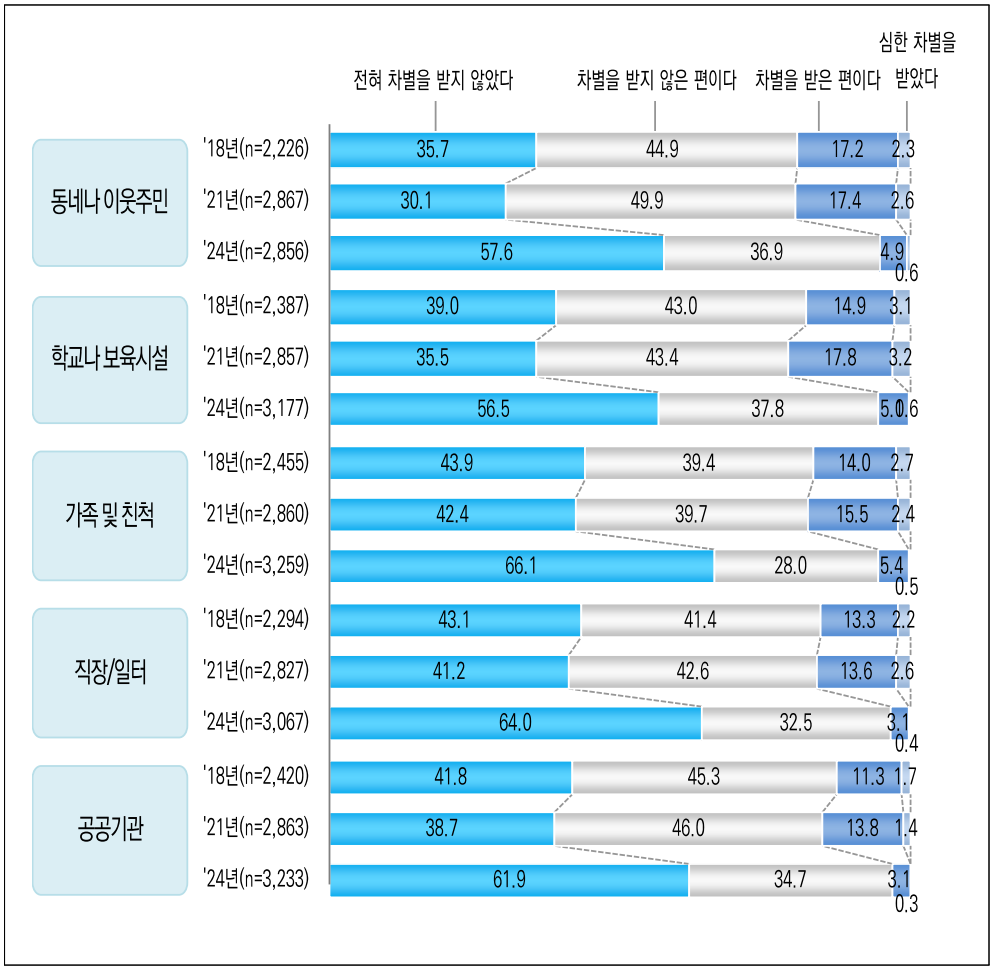
	부모 및 친인척	친구나 동료	기타	없다	합계(n)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44.8	17.3	8.3	29.6	100.0(2,184)
일반 가구	52.0	16.9	4.1	27.1	100.0(1,131)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42.3	25.2	7.9	24.5	100.0(24)
100~200만원 미만	43.2	15.2	6.7	35.0	100.0(619)
200~300만원 미만	45.8	18.0	8.3	27.9	100.0(1,210)
300만원 이상	50.3	17.1	5.7	26.9	100.0(1,462)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48.8	17.4	6.4	27.4	100.0(1,415)
5~10년 미만	46.8	16.9	7.1	29.2	100.0(1,328)
10년 이상	44.4	17.1	7.3	31.1	100.0(572)

상기의 조사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한부모 가족 중 연령으로는 50대 이상, 학력은 중졸 이하, 가구 구성은 주로 모자가구가, 가장 어린자녀가 중학생 이상일 경우, 종사상 지위는 비취업자, 정부지원 유형 상 저소득 지원가구, 소득 수준은 100~200만원 미만, 한부모가 된 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 사회적 지지망이 더 취약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한가지 특기할만한 점은 5가지 사회적 지지망 관련 질문 중 집안일/돈이 필요할 때/본인이 아플 때/아이가 아플 때 4개 항목에서는 모두 모자가구가 다른 가구구성 집단에 비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생활 관련 사회적 지지망 관련 문항에서는 부자 가구가 가장 취약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다. 한부모로서 겪은 부당한 일이나 차별 경험 정도

한부모가족 당사자나 자녀가 경험한 부당한 일이나 차별 경험을 동네나 이웃주민, 학교나 보육시설, 가족 및 친척, 직장/일터, 공공기관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우선, 한부모 본인의 경우, 동네나 이웃주민으로부터 차별경험(차별을 받은 편이다+심한 차별을 받았다) 비율이 5.5%, 학교나 보육시설에서 차별경험 비율이 5.7%, 가족 및 친척으로부터 차별경험 비율이 5.9%, 직장/일터에서의 차별경험 비율이 3.5%,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차별경험 비율이 3.4%로 나타났다.

(단위: %)



[그림 Ⅱ-7-3] 부당한 일, 차별 경험(본인)

이전(2021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해 볼 때, 5개 생활영역에서 본인이 차별을 경험한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네나 이웃주민으로부터 차별경험 비율은 2021년 20.0%에서 5.5%로, 학교나 보육시설에서 차별경험 비율은 2021년 21.1%에서 5.7%로, 가족 및 친척으로부터 차별경험 비율은 2021년 17.9%에서 5.9%로, 직장/일터에서 차별경험 비율은 2021년 16.2%에서 3.5%로, 공공기관에서 차별경험 비율은 2021년 15.2%에서 3.4%로 모든 항목에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다. 유사한 경향으로서 한부모 본인이 차별을 받지 않았다(전혀 차별을 받지 않았다+차별을 받지 않은 편이다)고 응답한 비율은 5개 항목 모두에서 90% 이상이며, 특히 '전혀 차별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 역시 5개 항목에서 모두 50% 이상이었다. 조사표본이 동일하지 않아 엄정한 의미에서 비교는 어려우나, 그럼에도 이전 년도 조사결과(2018년 및 2021년)와 비교할 때 차별 경험 비율에서 크게 개선된 수치로, 한부모로서 겪을 수 있는 사회적인 차별 분위기가 완화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부모로서 겪은 부당한 일이나 차별 경험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동네나 이웃주민으로터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5%로 가구구성, 종사상 지위, 정부 지원 유형, 소득수준, 한부모가 된 기간에 따라 응답결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모자가구(6.7%), 임시/일용근로자(8.4%), 저소득 지원 가구(6.2%), 소득수준 100~200만원 미만(9.4%),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6.4%) 집단에서 차별을 경험했다(차별을 받은 편이다+심한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Ⅱ-7-12〉 부당한 일, 차별 경험(본인) - 동네나 이웃주민

(단위: %, 가구)

	① 전혀 차별을 받지 않았다	② 차별을 받지 않은 편이다	③ 차별을 받은 편이다	④ 심한 차별을 받았다	①+② 차별을 받지 않았다	③+④ 차별을 받았다	합계(n)	$\chi^2(df)$
전 체	57.6	36.9	4.9	0.6	94.5	5.5	100.0(2,856)	
가구 구성								
모자	54.6	38.8	6.2	0.4	93.3	6.7	100.0(1,489)	
모자+기타	65.1	30.3	2.9	1.8	95.3	4.7	100.0(437)	54.457(9)***
부자	54.1	41.8	3.9	0.2	95.9	4.1	100.0(602)	
부자+기타	67.5	28.6	3.0	0.9	96.1	3.9	100.0(328)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61.1	35.7	2.7	0.6	96.7	3.3	100.0(1,271)	
임시/일용근로자	52.3	39.2	7.9	0.6	91.6	8.4	100.0(739)	54.06(9)***
자영업/무급가족	63.2	31.8	4.9	0.1	95.0	5.0	100.0(391)	
비취업	51.5	41.1	6.0	1.4	92.5	7.5	100.0(456)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55.7	38.1	5.4	0.8	93.8	6.2	100.0(1,862)	10.969(3)*
일반 가구	61.0	34.8	3.9	0.3	95.8	4.2	100.0(993)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59.7	34.4	5.9	-	94.1	5.9	100.0(20)	
100~200만원 미만	52.1	38.5	8.1	1.3	90.6	9.4	100.0(528)	30.319(9)***
200~300만원 미만	57.4	36.7	5.1	0.8	94.1	5.9	100.0(1,034)	
300만원 이상	60.0	36.5	3.3	0.2	96.5	3.5	100.0(1,273)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54.3	39.3	5.8	0.6	93.6	6.4	100.0(1,224)	17.828(6)**
5~10년 미만	58.9	36.9	3.5	0.7	95.8	4.2	100.0(1,149)	
10년 이상	62.6	31.0	5.6	0.7	93.7	6.3	100.0(483)	

주: *p<.05, **p<.01, ***p<.001

학교나 보육시설에서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7%로 혼인 상태, 가구구성, 종사상 지위, 정부 지원 유형, 소득수준에 딸 응답 결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혼 또는 사별이 아닌 기타 한부모(12.5%), 모자가구(7.0%), 임시/일용근로자

(8.6%), 저소득 지원 가구(6.6%), 소득수준이 100~200만원 미만(10.0%) 집단에서 차별을 경험했다(차별을 받은 편이다+심한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Ⅱ-7-13〉 부당한 일, 차별 경험(본인) - 학교나 보육시설

(단위: %, 가구)

	① 전혀 차별을 받지 않았다	② 차별을 받지 않은 편이다	③ 차별을 받은 편이다	④ 심한 차별을 받았다	①+② 차별을 받지 않았다	③+④ 차별을 받았다	합계(n)	$\chi^2(df)$
전 체	56.5	37.8	5.1	0.6	94.3	5.7	100.0(3,177)	
혼인 상태								
이혼	56.0	38.5	5.1	0.4	94.5	5.5	100.0(2,681)	23.369(6)***
사별	60.7	35.4	2.7	1.3	96.0	4.0	100.0(335)	
기타	55.7	31.7	11.5	1.0	87.5	12.5	100.0(160)	
가구 구성								
모자	54.8	38.2	6.3	0.7	93.0	7.0	100.0(1,694)	
모자+기타	57.5	38.6	2.8	1.2	96.1	3.9	100.0(466)	28.903(9)***
부자	56.8	39.6	3.5	0.1	96.4	3.6	100.0(658)	
부자+기타	62.4	32.0	5.6	-	94.4	5.6	100.0(358)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57.5	38.6	3.4	0.4	96.2	3.8	100.0(1,417)	
임시/일용근로자	54.9	36.5	7.6	1.0	91.4	8.6	100.0(826)	28.321(9)***
자영업/무급가족	58.5	37.3	4.2	-	95.8	4.2	100.0(432)	
비취업	54.3	38.3	6.7	0.7	92.6	7.4	100.0(502)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56.0	37.5	5.8	0.8	93.4	6.6	100.0(2,092)	11.607(3)**
일반 가구	57.4	38.6	3.9	0.1	96.0	4.0	100.0(1,084)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48.4	45.8	5.7	-	94.3	5.7	100.0(22)	
100~200만원 미만	54.1	35.8	8.8	1.2	90.0	10.0	100.0(591)	35.663(9)***
200~300만원 미만	55.2	39.0	5.2	0.7	94.1	5.9	100.0(1,160)	
300만원 이상	58.6	37.7	3.6	0.1	96.3	3.7	100.0(1,405)	

주: **p<.01, ***p<.001

가족 및 친척으로부터의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8%로 혼인 상태, 종사상 지위, 한부모가 된 기간에 따라 응답결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혼 또는 사별이 아닌 기타 한부모(10.1%), 임시/일용근로자(7.5%),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7.3%) 집단에서 차별을 경험했다(차별을 받은 편이다+심한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Ⅱ-7-14〉 부당한 일, 차별 경험(본인) - 가족 및 친척

(단위: %, 가구)

	① 전혀 차별을 받지 않았다	② 차별을 받지 않은 편이다	③ 차별을 받은 편이다	④ 심한 차별을 받았다	①+② 차별을 받지 않았다	③+④ 차별을 받았다	합계(n)	$\chi^2(df)$
전 체	66.1	28.0	5.4	0.5	94.2	5.8	100.0(3,259)	
혼인 상태								
이혼	65.9	28.5	5.0	0.5	94.5	5.5	100.0(2,741)	15.536(6)*
사별	71.1	22.8	6.1	-	93.9	6.1	100.0(343)	
기타	59.2	30.7	9.0	1.1	89.9	10.1	100.0(174)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67.9	27.7	4.4	0.0	95.6	4.4	100.0(1,461)	
임시/일용근로자	63.8	28.6	6.8	0.8	92.5	7.5	100.0(839)	28.057(9)***
자영업/무급가족	69.6	24.3	5.3	0.8	93.9	6.1	100.0(437)	
비취업	62.0	31.1	5.9	1.1	93.0	7.0	100.0(522)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64.1	28.6	6.9	0.4	92.7	7.3	100.0(1,384)	14.694(6)*
5~10년 미만	67.3	28.0	4.4	0.4	95.3	4.7	100.0(1,318)	
10년 이상	68.5	26.6	3.9	1.0	95.1	4.9	100.0(557)	

주: *p<.05, ***p<.001

직장/일터에서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5%로 가구구성, 종사상 지위, 정부 지원 유형, 소득수준, 한부모가 된 기간에 따라 응답결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모자가구(4.2%), 종사상 지위가 임시/일용근로자 및 비취업(5.1%), 저소득 지원가구(4.1%), 소득수준 100~200만원 미만(6.4%),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4.5%)인 집단에서 차별을 경험했다(차별을 받은 편이다+심한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Ⅱ-7-15〉 부당한 일, 차별 경험(본인) - 직장/일터

(단위: %, 가구)

	① 전혀 차별을 받지 않았다	② 차별을 받지 않은 편이다	③ 차별을 받은 편이다	④ 심한 차별을 받았다	①+② 차별을 받지 않았다	③+④ 차별을 받았다	합계(n)	$\chi^2(df)$
전 체	64.0	32.5	3.1	0.4	96.5	3.5	100.0(3,067)	
가구 구성								
모자	62.9	33.0	3.9	0.3	95.8	4.2	100.0(1,621)	
모자+기타	64.6	32.6	2.1	0.6	97.3	2.7	100.0(461)	20.248(9)*
부자	63.5	33.2	3.0	0.2	96.7	3.3	100.0(643)	
부자+기타	69.5	28.6	0.8	1.1	98.1	1.9	100.0(343)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66.1	31.8	1.7	0.4	97.9	2.1	100.0(1,395)	
임시/일용근로자	61.8	33.1	4.8	0.3	94.9	5.1	100.0(787)	26.395(9)**
자영업/무급가족	66.7	29.9	3.2	0.3	96.6	3.4	100.0(420)	
비취업	59.0	35.9	4.4	0.7	94.9	5.1	100.0(464)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62.0	33.9	3.6	0.5	95.9	4.1	100.0(2,001)	12.332(3)**
일반 가구	67.7	29.9	2.1	0.3	97.6	2.4	100.0(1,066)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63.9	33.5	2.7	-	97.3	2.7	100.0(21)	
100~200만원 미만	59.5	34.1	5.7	0.7	93.6	6.4	100.0(560)	20.381(9)*
200~300만원 미만	64.0	32.9	2.6	0.4	96.9	3.1	100.0(1,099)	
300만원 이상	65.8	31.5	2.4	0.3	97.3	2.7	100.0(1,387)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62.4	33.1	4.1	0.4	95.5	4.5	100.0(1,289)	14.364(6)*
5~10년 미만	64.8	32.9	1.8	0.5	97.7	2.3	100.0(1,256)	
10년 이상	66.2	29.9	3.7	0.3	96.0	4.0	100.0(522)	

주: *p<.05, **p<.01

공공기관에서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4%로 한부모 학력, 종사상 지위, 정부 지원 유형, 소득수준, 한부모가 된 기간에 따라 응답결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대학이상(3.8%), 임시/일용근로자(5.7%), 저소득 지원 가구(4.0%), 소득수준 100~200만원 미만(6.7%), 한부모가 된 기간 10년 이상(4.5%)인 집단에서 차별을 경험했다(차별을 받은 편이다+심한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Ⅱ-7-16〉 부당한 일, 차별 경험(본인) - 공공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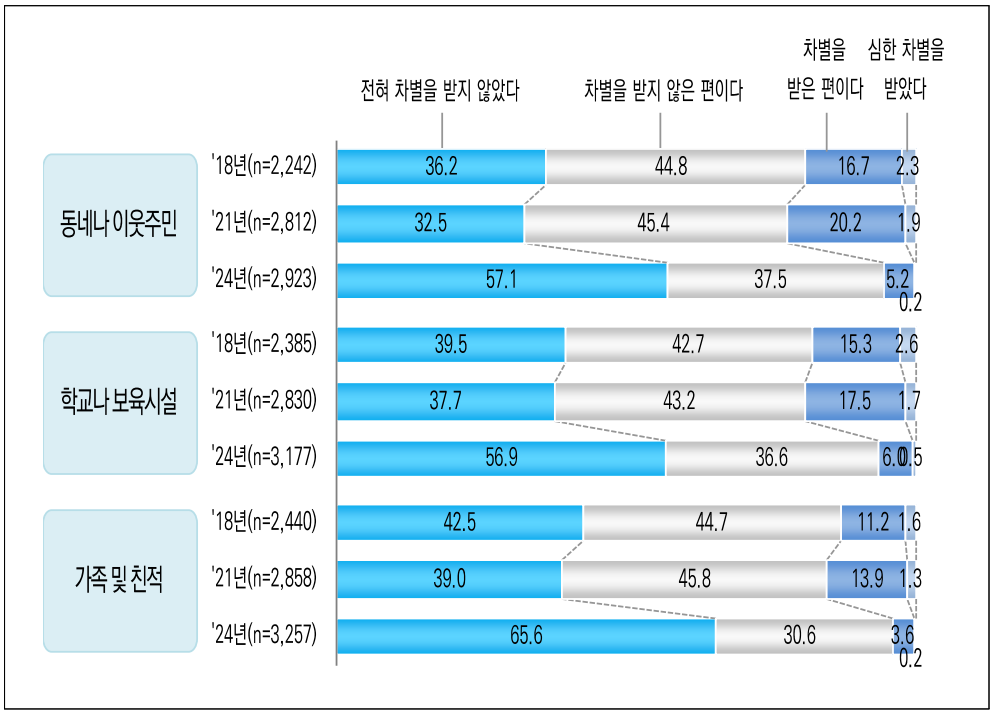
(단위: %, 가구)

	① 전혀 차별을 받지 않았다	② 차별을 받지 않은 편이다	③ 차별을 받은 편이다	④ 심한 차별을 받았다	①+② 차별을 받지 않았다	③+④ 차별을 받았다	합계(n)	$\chi^2(df)$
전 체	61.9	34.7	3.1	0.3	96.6	3.4	100.0(3,233)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73.6	24.7	1.6	-	98.4	1.6	100.0(99)	16.056(2)***
고졸 이하	62.1	34.8	3.0	0.2	96.9	3.1	100.0(1,643)	
대학 이상	61.0	35.3	3.4	0.4	96.2	3.8	100.0(1,491)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64.4	33.8	1.8	0.1	98.1	1.9	100.0(1,441)	
임시/일용근로자	58.3	36.0	5.3	0.4	94.3	5.7	100.0(835)	31.998(9)***
자영업/무급가족	63.3	33.7	2.6	0.4	97.0	3.0	100.0(436)	
비취업	59.9	36.0	3.6	0.5	95.9	4.1	100.0(521)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61.5	34.5	3.5	0.4	96.0	4.0	100.0(2,126)	8.697(3)*
일반 가구	62.7	35.0	2.3	-	97.7	2.3	100.0(1,107)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61.4	33.0	5.6	-	94.4	5.6	100.0(24)	
100~200만원 미만	58.9	34.4	5.9	0.8	93.3	6.7	100.0(602)	26.988(9)**
200~300만원 미만	61.7	35.4	2.7	0.2	97.1	2.9	100.0(1,178)	
300만원 이상	63.4	34.3	2.2	0.1	97.6	2.4	100.0(1,429)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59.3	37.0	3.4	0.2	96.4	3.6	100.0(1,369)	15.556(6)*
5~10년 미만	63.0	34.3	2.3	0.4	97.3	2.7	100.0(1,314)	
10년 이상	65.8	29.7	4.2	0.2	95.5	4.5	100.0(550)	

주: *p<.05, **p<.01, ***p<.001

다음으로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동네나 이웃주민, 학교나 보육시설, 가족 및 친척으로부터 차별 받은 경험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동네나 이웃주민으로부터 차별경험(차별을 받은 편이다+심한 차별을 받았다) 비율이 5.4%, 학교나 보육시설에서 차별경험 비율이 6.5%, 가족 및 친척으로부터 차별경험 비율이 3.8%로 나타났다. 자녀의 차별경험에 대한 응답 역시 이전 년도(2021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해 볼 때, 자녀가 차별을 경험한

비율이 3개 모든 항목에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네나 이웃주민으로부터 차별경험 비율은 2021년 22.1%에서 5.4%로, 학교나 보육시설에서 차별경험 비율은 2021년 19.2%에서 6.5%로, 가족 및 친척으로부터 차별경험 비율은 2021년 15.2%에서 3.8%로 감소하였다. 한편, 자녀가 차별을 받지 않았다(전혀 차별을 받지 않았다+차별을 받지 않은 편이다)고 응답한 비율은 3개 항목 모두에서 90% 이상이며, 특히 '전혀 차별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 역시 모든 항목에 대해 50% 이상이었다.



[그림 Ⅱ-7-4] 부당한 일, 차별 경험(자녀)

한부모가구 자녀로서 겪은 부당한 일이나 차별 경험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동네나 이웃주민으로부터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4%로 한부모 학력, 가구 구성, 종사상 지위, 정부 지원 유형, 소득수준, 한부모가 된 기간에 따라 응답결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한부모 학력이 중졸 이하/대학 이상(각 6.2%), 모자가구(6.3%), 임시/일용근로자(8.2%), 저소득 지원 가구(6.4%), 소득수준 100~200만원 미만(7.7%),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인 집단에서 차별을 경험했다(차별을 받은 편이다+심한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Ⅱ-7-17〉 부당한 일, 차별 경험(자녀 관련) - 동네나 이웃주민

(단위: %, 가구)

	① 전혀 차별을 받지 않았다	② 차별을 받지 않은 편이다	③ 차별을 받은 편이다	④ 심한 차별을 받았다	①+② 차별을 받지 않았다	③+④ 차별을 받았다	합계(n)	$\chi^2(df)$
전 체	57.1	37.5	5.2	0.2	94.6	5.4	100.0(2,923)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64.6	29.1	6.2	-	93.8	6.2	100.0(92)	15.662(6)*
고졸 이하	55.0	40.3	4.3	0.4	95.3	4.7	100.0(1,479)	
대학 이상	58.9	34.9	6.1	0.1	93.8	6.2	100.0(1,351)	
가구 구성								
모자	55.2	38.5	5.9	0.4	93.7	6.3	100.0(1,530)	
모자+기타	57.8	37.0	5.2	-	94.8	5.2	100.0(444)	17.765(9)*
부자	56.8	38.9	4.1	0.3	95.7	4.3	100.0(617)	
부자+기타	65.7	30.5	3.8	-	96.2	3.8	100.0(332)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61.1	35.3	3.4	0.1	96.5	3.5	100.0(1,303)	
임시/일용근로자	52.4	39.4	8.1	0.2	91.8	8.2	100.0(758)	46.325(9)***
자영업/무급가족	57.9	36.4	5.7	-	94.3	5.7	100.0(400)	
비취업	52.8	41.2	5.1	1.0	94.0	6.0	100.0(462)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56.0	37.6	6.0	0.4	93.6	6.4	100.0(1,906)	12.287(3)**
일반 가구	59.2	37.2	3.6	-	96.4	3.6	100.0(1,016)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52.1	45.3	2.6	-	97.4	2.6	100.0(19)	
100~200만원 미만	54.8	37.5	7.1	0.6	92.3	7.7	100.0(534)	18.943(9)*
200~300만원 미만	56.3	37.2	6.3	0.2	93.5	6.5	100.0(1,059)	
300만원 이상	58.7	37.6	3.5	0.2	96.3	3.7	100.0(1,312)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53.2	39.7	7.0	0.1	92.9	7.1	100.0(1,244)	32.017(6)***
5~10년 미만	58.7	37.1	4.0	0.2	95.8	4.2	100.0(1,181)	
10년 이상	63.0	32.8	3.5	0.7	95.8	4.2	100.0(498)	

주: *p<.05, **p<.01, ***p<.001

학교나 보육시설에서 자녀의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5%로 혼인 상태, 가구 구성, 종사상 지위, 정부 지원 유형, 소득수준, 한부모가 된 기간에 따라 유의미한 집단별 차이가 발견되었다. 사별과 이혼/사별 외의 기타 혼인 상태(각 6.9%), 모자가구

(7.6%), 임시/일용근로자(9.6%), 저소득 지원 가구(7.8%),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10.4%), 한부모가 된 기간 10년 이상(8.4%) 집단에서 차별을 경험했다(차별을 받은 편이다+심한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Ⅱ-7-18〉 부당한 일, 차별 경험(자녀 관련) - 학교나 보육시설

(단위: %, 가구)

	① 전혀 차별을 받지 않았다	② 차별을 받지 않은 편이다	③ 차별을 받은 편이다	④ 심한 차별을 받았다	①+② 차별을 받지 않았다	③+④ 차별을 받았다	합계(n)	$\chi^2(df)$
전 체	56.9	36.6	6.0	0.5	93.5	6.5	100.0(3,177)	
혼인 상태								
이혼	56.0	37.6	6.1	0.3	93.6	6.4	100.0(2,683)	14.761(6)*
사별	62.1	31.0	5.8	1.1	93.1	6.9	100.0(335)	
기타	62.2	30.9	5.7	1.2	93.1	6.9	100.0(159)	
가구 구성								
모자	55.3	37.1	7.1	0.5	92.4	7.6	100.0(1,696)	
모자+기타	59.9	32.8	6.2	1.1	92.7	7.3	100.0(468)	27.369(9)**
부자	55.6	39.2	4.9	0.2	94.8	5.2	100.0(656)	
부자+기타	63.4	34.1	2.4	-	97.6	2.4	100.0(358)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58.9	36.2	4.3	0.6	95.1	4.9	100.0(1,411)	
임시/일용근로자	53.8	36.6	9.3	0.2	90.4	9.6	100.0(834)	32.151(9)***
자영업/무급가족	59.3	34.8	5.9	-	94.1	5.9	100.0(431)	
비취업	54.7	39.1	5.5	0.7	93.8	6.2	100.0(501)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55.5	36.7	7.1	0.7	92.2	7.8	100.0(2,100)	20.546(3)***
일반 가구	59.7	36.3	4.0	-	96.0	4.0	100.0(1,077)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49.4	40.2	7.9	2.5	89.6	10.4	100.0(22)	
100~200만원 미만	55.2	35.5	8.6	0.7	90.7	9.3	100.0(590)	33.294(9)***
200~300만원 미만	55.0	37.3	7.0	0.6	92.4	7.6	100.0(1,166)	
300만원 이상	59.4	36.4	4.1	0.2	95.7	4.3	100.0(1,400)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54.2	39.1	6.4	0.3	93.3	6.7	100.0(1,337)	26.422(6)***
5~10년 미만	57.3	37.2	5.1	0.3	94.5	5.5	100.0(1,290)	
10년 이상	62.7	28.9	7.3	1.1	91.6	8.4	100.0(551)	

주: *p<.05, **p<.01, ***p<.001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자녀의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8%로 혼인 상태, 가구 구성, 종사상 지위, 한부모가 된 기간에 따라 유의미한 집단별 차이가 발견되었다. 사별과 이혼/사별 외의 기타 혼인 상태(각 5.7%), 모자+기타가구(5.0%), 자영업/무급가족(5.7%),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4.8%) 집단에서 차별을 경험했다(차별을 받은 편이다+심한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Ⅱ-7-19〉 부당한 일, 차별 경험(자녀 관련) - 가족 및 친척

(단위: %, 가구)

	① 전혀 차별을 받지 않았다	② 차별을 받지 않은 편이다	③ 차별을 받은 편이다	④ 심한 차별을 받았다	①+② 차별을 받지 않았다	③+④ 차별을 받았다	합계(n)	$\chi^2(df)$
전 체	65.6	30.6	3.6	0.2	96.2	3.8	100.0(3,257)	
혼인 상태								
이혼	65.2	31.3	3.3	0.2	96.5	3.5	100.0(2,743)	14.671(6)*
사별	70.6	24.0	5.5	-	94.5	5.5	100.0(341)	
기타	62.1	32.2	5.7	-	94.3	5.7	100.0(174)	
가구 구성								
모자	64.7	31.0	4.0	0.3	95.7	4.3	100.0(1,738)	
모자+기타	67.8	27.2	5.0	-	95.0	5.0	100.0(492)	20.42(9)*
부자	64.7	31.6	3.6	0.1	96.3	3.7	100.0(665)	
부자+기타	68.3	31.5	0.2	-	99.8	0.2	100.0(363)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68.1	29.4	2.5	0.0	97.5	2.5	100.0(1,457)	
임시/일용근로자	60.5	34.7	4.4	0.4	95.2	4.8	100.0(844)	29.72(9)***
자영업/무급가족	68.5	25.8	5.6	0.1	94.3	5.7	100.0(437)	
비취업	64.5	31.3	3.9	0.3	95.8	4.2	100.0(519)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62.0	33.2	4.8	0.0	95.2	4.8	100.0(1,380)	25.766(6)***
5~10년 미만	67.2	29.7	2.8	0.3	96.9	3.1	100.0(1,318)	
10년 이상	70.7	26.3	2.8	0.3	97.0	3.0	100.0(560)	

주: *p<.05, ***p<.001

8. 정책욕구

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경험

1) 지원 경험 유무

한부모 가족의 기초생활보장 지원 수급 경험에 대해 살펴보면, 현재 지원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8년 32.8% → 2021년 45.8% → 2024년 53.8%로 점차적으로 수혜율이 증가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금년도 조사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제도를 알고 있으나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8년 52.7% → 2021년 41.9% → 37.5%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를 종합해 보면, 한부모 가족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인식과 수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자료」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는 1,884,328 가구로, 전국 수급률은 4.9% 수준이었다(보건복지부, 2024a: 19). 이에 비추어 볼 때, 한부모가족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경험 또는 현재 수급 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며, 이는 한부모가족이 경험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시사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표 Ⅱ-8-1〉 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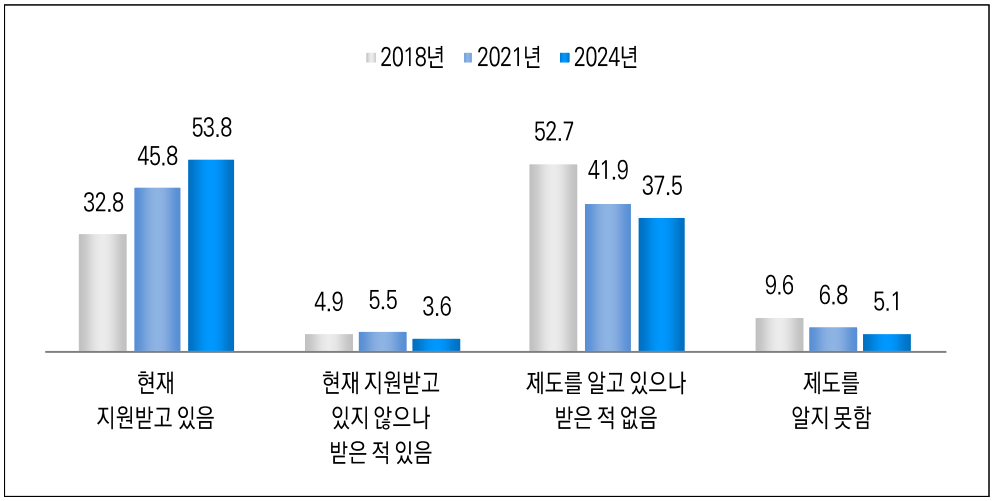
(단위: 천명, %, 천가구)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수급자 수	1,744	1,881	2,134	2,360	2,451	2,555
수급률(%)	3.4	3.6	4.1	4.6	4.8	5.0
수급가구	1,165	1,282	1,459	1,638	1,699	1,788

주: 수급률(%)=전국민(주민등록인구) 대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의 비율
자료: 보건복지부(2024: 31)의 수급자 현황 및 및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상 주민등록인구[18]를 바탕으로 작성 및 계산.

18)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651E&conn_path=I3 (접속일: 2024. 11. 28.)

(단위: %, 2018년: n=2,500, 2021년: n=3,300, 2024년: n=3,315)



[그림 Ⅱ-8-1] 한부모가 된 후 기초생활보장 지원 서비스 수급 경험

인구사회학적 집단별로 살펴보면, 한부모 학력, 혼인 상태, 가구 구성, 가장 어린자녀의 연령대, 종사상 지위, 정부 지원 유형, 소득수준, 한부모가 된 기간에 따라 응답에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였다. '현재 지원받고 있다'는 응답률은 전체 53.8%인데,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81.4%), 이혼/사별 외의 기타 혼인 상태(77.0%), 모자가구(65.7%), 가장 어린자녀가 초등학생(55.3%), 비취업(88.2%),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93.2%), 한부모가 된 기간 10년 이상(63.5%) 집단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제도를 알지 못한다'는 응답률은 전체적으로 5.1%인데, 대학 이상(6.7%), 사별(7.9%), 부자+기타가구(11.3%), 가장 어린자녀가 미취학(7.2%), 상용근로자(6.9%), 일반가구(12.7%), 소득수준 300만원 이상(8.5%),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6.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Ⅱ-8-2〉 한부모가 된 후 기초생활보장 지원 서비스 수급 경험

(단위: %,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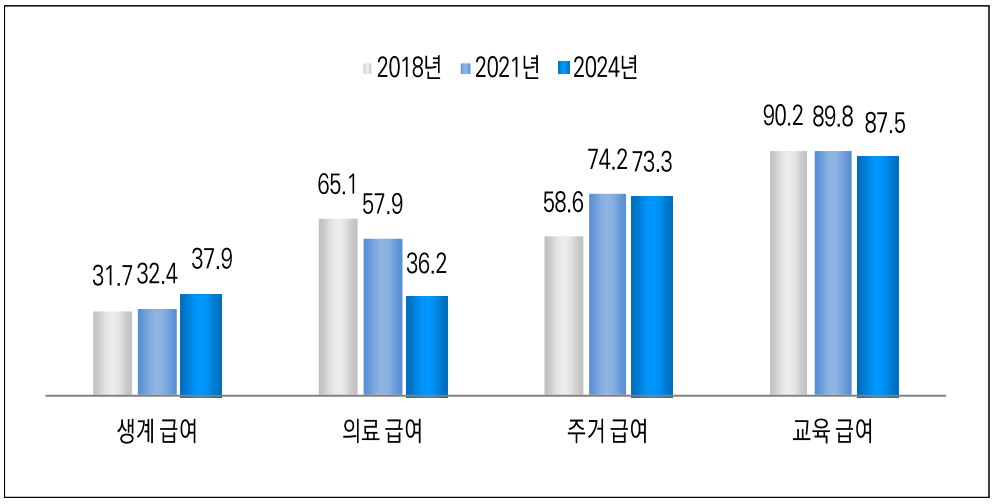
	현재 받고 있음	현재 지원 받고 있지 않으나 받은 적 있음	제도를 알고 있으나 받은 적 없음	제도를 알지 못함	합계(n)	$\chi^2(df)$
전 체	53.8	3.6	37.5	5.1	100.0(3,315)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81.4	3.6	13.8	1.1	100.0(101)	164.798(6)***
고졸 이하	62.5	2.4	31.3	3.8	100.0(1,666)	
대학 이상	42.6	4.9	45.8	6.7	100.0(1,548)	
혼인 상태						
이혼	54.4	3.6	37.1	4.8	100.0(2,793)	80.414(6)***
사별	37.0	4.1	51.0	7.9	100.0(345)	
기타	77.0	2.7	17.4	2.9	100.0(178)	
가구 구성						
모자	65.7	3.6	28.0	2.7	100.0(1,773)	
모자+기타	56.8	1.7	34.9	6.7	100.0(503)	332.847(9)***
부자	35.4	4.6	53.4	6.6	100.0(674)	
부자+기타	26.2	4.7	57.9	11.3	100.0(365)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52.7	2.8	37.4	7.2	100.0(392)	16.181(6)*
초등학생	55.3	2.6	36.6	5.5	100.0(1,281)	
중학생 이상	52.9	4.6	38.3	4.2	100.0(1,642)	

	현재 받고 있음	현재 지원 받고 있지 않으나 받은 적 있음	제도를 알고 있으나 받은 적 없음	제도를 알지 못함	합계(n)	$\chi^2(df)$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37.6	4.8	50.7	6.9	100.0(1,483)	
임시/일용근로자	67.3	3.7	25.6	3.4	100.0(858)	518.499(9)***
자영업/무급가족	40.4	2.6	51.0	6.0	100.0(440)	
비취업	88.2	1.0	8.8	2.0	100.0(534)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81.7	1.1	16.1	1.1	100.0(2,184)	2015.258(3)***
일반 가구	-	8.5	78.8	12.7	100.0(1,131)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93.2	-	6.8	-	100.0(24)	
100~200만원 미만	84.7	0.4	13.2	1.6	100.0(619)	762.475(9)***
200~300만원 미만	68.3	4.2	24.8	2.7	100.0(1,210)	
300만원 이상	28.0	4.6	58.8	8.5	100.0(1,462)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51.8	2.5	38.9	6.8	100.0(1,415)	58.291(6)***
5~10년 미만	51.8	4.1	40.4	3.7	100.0(1,328)	
10년 이상	63.5	5.4	27.2	3.9	100.0(572)	

주: *p<.05, ***p<.001

현재 지원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를 살펴보면, 교육급여의 비율이 87.5%로 가장 높고, 주거급여(73.3%), 생계급여(37.9%), 의료급여(36.2%) 순으로 수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교육급여(2021년 89.8% → 2024년 87.5%)와 주거급여(2021년 74.2% → 2024년 73.3%) 수혜율은 2021년 조사결과에 비해 1%p 내외의 소폭 증가/감소하는 수준으로 변화하였고, 생계급여는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그 수혜율이 증가해 금년도 조사에서는 그 수혜율이 37.9%로 2021년 조사 결과(32.4%)에 비해 5.5%p 다소 상승하였다. 반면, 의료급여의 경우, 2018년 이후 감소해오다가, 금년도 조사에서는 36.2%로 2021년 직전조사 응답률(57.9%)과 비교해도 21.7%p나 감소했다는 점에서 주목이 필요하다.

(단위: %, 2018년: n=820, 2021년: n=1,512, 2024년: n=1,784)



[그림 Ⅱ-8-2] 현재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지원 서비스 급여(복수)

급여별로 응답률을 나누어 살펴보면, '생계급여'는 전체 응답자의 37.9%가 수혜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는데, 한부모 연령이 50대 이상(44.8%), 학력 중졸 이하(55.0%), 이혼/사별 외의 기타 혼인 상태(62.4%), 모자가구(40.0%), 가장 어린자녀가 미취학(49.3%), 비취업(70.4%), 소득수준 100~200만원 미만(58.7%), 한부모가 된 기간 10년 이상(43.8%)인 경우에 급여를 지급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의료급여'는 전체 응답자의 36.2%가 수혜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는데, 한부모 연령 50대 이상(45.2%), 중졸 이하 학력(59.9%), 이혼/사별 외의 기타 혼인 상태(62.1%), 모자가구(38.3%), 가장 어린 자녀가 미취학(42.5%), 비취업(63.3%), 소득수준이 100만원 미만(65.7%), 한부모가 된

기간 10년 이상(44.7%)인 경우 급여를 지급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거급여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73.3%가 수혜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한부모 연령 50대 이상(75.3%), 학력 중졸 이하(84.8%), 사별(77.8%), 부자(78.0%) 및 모자(77.6%)가구, 가장 어린 자녀가 미취학(78.3%), 임시/일용근로자(77.4%),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84.0%), 한부모가 된 기간 10년 이상(74.3%)인 경우 상대적으로 해당 급여를 지급받는 비율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교육급여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87.5%가 수혜를 받고 있다고 응답한 가운데, 50대 이상(90.6%), 학력 고졸 이하(88.0%), 사별(90.0%), 부자+기타 가구(89.2%), 가장 어린자녀가 초등학생(91.4%), 자영업/무급가족(88.7%), 소득수준 300만원 이상(88.8%), 한부모가 된 기간 5~10년 미만(90.3%)인 경우 해당 급여를 지급받는 비율이 높았고, 이러한 차이는 주로 자녀의 연령대가 학령기인지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Ⅱ-8-3〉 현재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지원 서비스 급여(복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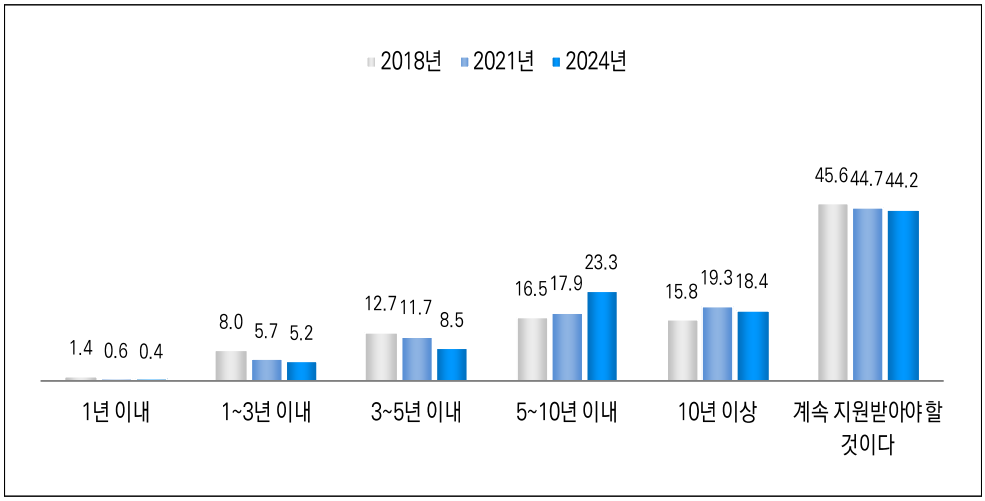
(단위: %, 가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n)
전 체	37.9	36.2	73.3	87.5	(1,784)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42.3	34.0	71.1	80.6	(457)
40대	33.5	34.2	73.7	89.7	(996)
50대 이상	44.8	45.2	75.3	90.6	(331)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55.0	59.9	84.8	82.6	(82)
고졸 이하	41.3	39.0	74.4	88.0	(1,042)
대학 이상	30.4	28.8	70.1	87.3	(660)
혼인 상태					
이혼	35.4	33.2	72.6	88.1	(1,520)
사별	40.7	43.4	77.8	90.0	(127)
기타	62.4	62.1	76.8	79.2	(137)
가구 구성					
모자	40.0	38.3	77.6	87.5	(1,164)
모자+기타	33.6	30.5	59.4	87.9	(285)
부자	35.9	34.9	78.0	86.2	(238)
부자+기타	29.3	30.8	51.2	89.2	(95)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49.3	42.5	78.3	66.6	(206)
초등학생	39.1	36.1	73.2	91.4	(709)
중학생 이상	34.2	34.7	72.2	89.3	(869)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17.2	17.2	66.7	88.0	(557)
임시/일용근로자	34.9	36.7	77.4	87.2	(578)
자영업/무급가족	26.3	22.0	59.0	88.7	(178)
비취업	70.4	63.3	81.5	86.8	(471)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54.3	65.7	84.0	87.9	(22)
100~200만원 미만	58.7	54.0	82.5	85.1	(525)
200~300만원 미만	33.0	31.9	74.0	88.4	(827)
300만원 이상	20.2	20.5	59.6	88.8	(410)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35.9	31.9	73.5	84.3	(733)
5~10년 미만	36.9	36.2	72.6	90.3	(688)
10년 이상	43.8	44.7	74.3	88.6	(363)

2) 탈수급 예상 기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들을 대상으로 향후 얼마 후에 수급 대상 가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계속 지원받아야 할 것이다'로 응답한 비율은 44.2%로 2021년의 44.7%에 비해 매우 소폭 감소했을 뿐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반면, '5~10년 이내'로 응답한 비율은 23.3%로 2021년에 17.9%에 비해 5.4%p 증가하였고, '1~3년 이내'(2021년 5.7% → 2024년 5.2%)나 '3~5년 이내'(2021년 11.7% → 2024년 8.5%)의 경우 소폭 감소하여 2024년의 탈수급 전망이 더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의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 2022년 시점 생계급여 탈수급 예상기간에 대한 조사응답 결과를 기준으로 할 때, 응답자의 약 91.5%가 생계급여 수급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 것과 비교할 때에는 비교적 긍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19]

(단위: %, 2018년: n=820, 2021년: n=1,512, 2024년: n=1,784)



[그림 Ⅱ-8-3] 기초생활보장제도 탈수급 예상 기간

기초생활보장 지원 서비스 탈수급 예상 기관의 응답과 관련해 한부모 연령, 가장 어린 자녀 연령대, 종사상 지위, 소득수준에 따라 집단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계속 지원을 받아야 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한부모 연령이 30대 이하(53.3%), 가장

19) 그 외 급여에 대해 탈수급이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은 의료 90.9%, 주거 87.2%, 교육 37.0%이다.

어린 자녀가 미취학(54.2%), 종사상 지위가 비취업(52.6%), 소득수준이 100만원 이하(78.1%)인 집단에서 높게 나타나 한부모의 연령이 낮고 자녀가 어릴수록 종사상 지위와 소득수준이 열악할수록 탈수급 예상기간을 더 부정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8-4〉 기초생활보장 지원 서비스 탈수급 예상 기간

(단위: %, 가구)

	1년 이내	1년 후 ~ 3년 이내	3년 후 ~ 5년 이내	5년 후 ~ 10년 이내	10년 후	계속 지원 받아야 할 것이다	합계(n)	$\chi^2(df)$
전 체	0.4	5.2	8.5	23.3	18.4	44.2	100.0(1,784)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0.4	3.4	4.9	17.1	20.8	53.3	100.0(457)	43.668(10)***
40대	0.4	5.3	9.6	24.9	19.2	40.7	100.0(996)	
50대 이상	0.6	7.3	10.3	26.9	12.9	42.1	100.0(331)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0.8	3.1	7.6	15.4	18.9	54.2	100.0(206)	92.946(10)***
초등학생	0.2	2.2	5.1	21.6	24.0	46.9	100.0(709)	
중학생 이상	0.5	8.1	11.5	26.5	13.8	39.6	100.0(869)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0.5	5.0	10.1	23.1	20.0	41.4	100.0(557)	
임시/일용근로자	0.4	5.7	7.8	26.3	17.4	42.4	100.0(578)	31.338(15)**
자영업/무급가족	0.8	5.6	11.0	29.3	16.7	36.6	100.0(178)	
비취업	0.2	4.5	6.6	17.5	18.6	52.6	100.0(471)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	2.5	3.9	-	15.5	78.1	100.0(22)	
100~200만원 미만	0.5	3.7	7.1	19.5	17.8	51.4	100.0(525)	44.441(15)***
200~300만원 미만	0.3	5.6	8.2	23.2	19.4	43.3	100.0(827)	
300만원 이상	0.5	6.4	11.1	29.4	17.5	35.0	100.0(410)	

주: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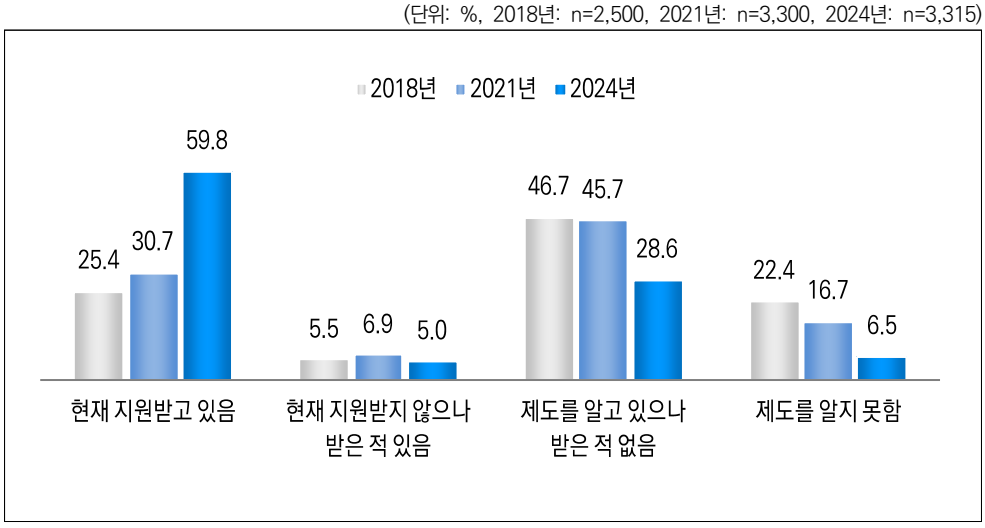
나.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경험

1) 지원 경험 유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수혜경험에 대해 살펴보면, '현재 지원받고 있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2018년 25.4%, 2021년 30.7%로 이전의 2개 조사에서도 증가 해오던 추세이나, 이번 조사에서는 그 응답률이 59.8%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경험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기준 상향('21년 기준중위소득 52% → '24년 63%) 등 정책 확대 노력의 성과가 일정 부분 작용한 까닭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제도를 알고 있으나 받은 적 없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28.6%로 지난 2개 조사 결과(2018년 46.7%, 2021년 45.7%)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제도를 알지 못함'으로 응답한 비율은 지난 2개 조사에서도 감소 추세였으나(2018년 22.4% → 2021년 16.7%) 이번 조사에서는 더욱 그 비율이 줄어 6.5%의 응답자만이 제도를 알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단위: %, 2018년: n=2,500, 2021년: n=3,300, 2024년: n=3,315)



[그림 Ⅱ-8-4] 한부모가 된 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수급 경험

인구사회학적 특성(한부모 연령 및 학력, 혼인 상태, 가구구성, 가장 어린자녀 연령대, 종사상 지위, 정부지원 유형, 소득수준, 한부모가 된 기간)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경험에 대한 응답률은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차이를 살펴보면, '현재 지원받고 있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63.9%), 학력 중졸 이하(83.8%), 이혼/사별 외의 기타 혼인 상태(78.6%), 모자가구(72.7%), 가장 어린자녀가 미취학 아동(68.0%), 비취업(89.0%), 저소득 지원 가구(90.8%),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92.0%), 한부모가 된 기간 10년 이상(68.2%)인 경우,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제도를 알지 못함'으로 응답한 비율은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6.9%), 학력 대학이상(7.8%), 사별(12.2%), 부자+기타가구(17.8%), 가장 어린 자녀가 미취학(8.2%), 상용근로자(9.0%), 일반가구(15.7%), 소득수준 300만원 이상(10.8%),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7.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Ⅱ-8-5〉 한부모가 된 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수급 경험

(단위: %, 가구)

	현재 지원받고 있음	현재 지원받고 있지 않으나 받은 적 있음	제도를 알고 있으나 받은 적 없음	제도를 알지 못함	합계(n)	$\chi^2(df)$
전 체	59.8	5.0	28.6	6.5	100.0(3,315)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63.9	3.2	26.1	6.9	100.0(846)	17.311(6)**
40대	57.8	5.4	30.3	6.4	100.0(1,895)	
50대 이상	60.8	6.5	26.3	6.4	100.0(575)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83.8	6.7	5.7	3.8	100.0(101)	195.139(6)***
고졸 이하	69.3	4.8	20.3	5.5	100.0(1,666)	
대학 이상	48.1	5.2	39.0	7.8	100.0(1,548)	
혼인 상태						
이혼	60.1	5.4	28.7	5.8	100.0(2,793)	67.424(6)***
사별	48.4	3.8	35.7	12.2	100.0(345)	
기타	78.6	1.5	12.1	7.8	100.0(178)	
가구 구성						
모자	72.7	3.5	20.5	3.3	100.0(1,773)	
모자+기타	62.2	3.6	27.4	6.8	100.0(503)	401.671(9)***
부자	40.6	9.2	41.5	8.7	100.0(674)	
부자+기타	29.8	7.0	45.4	17.8	100.0(365)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68.0	2.3	21.4	8.2	100.0(392)	34.078(6)***
초등학생	60.7	3.9	28.8	6.6	100.0(1,281)	
중학생 이상	57.2	6.6	30.1	6.1	100.0(1,6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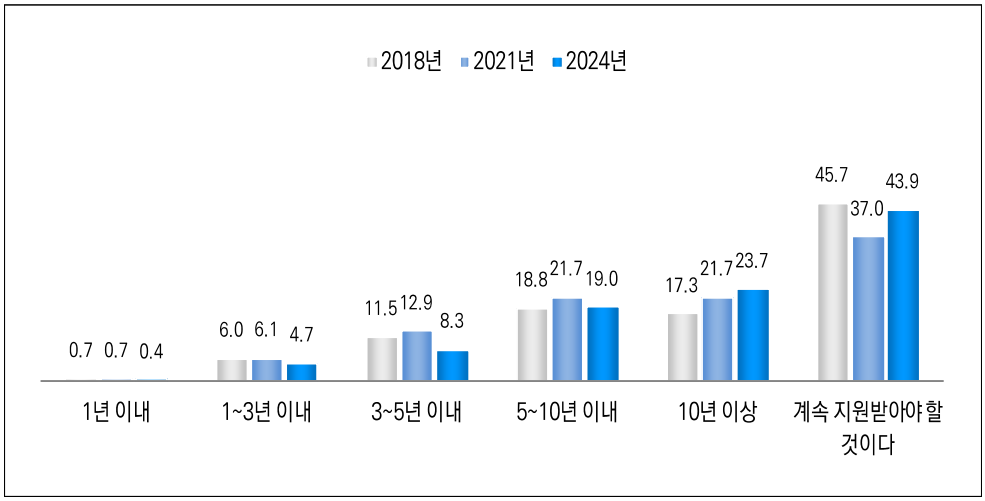
	현재 지원받고 있음	현재 지원받고 있지 않으나 받은 적 있음	제도를 알고 있으나 받은 적 없음	제도를 알지 못함	합계(n)	$\chi^2(df)$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44.9	5.9	40.2	9.0	100.0(1,483)	
임시/일용근로자	75.8	4.9	15.0	4.4	100.0(858)	481.402(9)***
자영업/무급가족	43.7	5.9	42.2	8.1	100.0(440)	
비취업	89.0	2.3	6.8	1.9	100.0(534)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90.8	1.6	5.7	1.8	100.0(2,184)	2566.145(3)***
일반 가구	-	11.7	72.6	15.7	100.0(1,131)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92.0	-	8.0	-	100.0(24)	
100~200만원 미만	89.8	1.2	7.1	1.9	100.0(619)	951.024(9)***
200~300만원 미만	77.9	6.4	11.9	3.9	100.0(1,210)	
300만원 이상	31.7	5.6	51.8	10.8	100.0(1,462)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56.8	3.9	31.7	7.7	100.0(1,415)	49.509(6)***
5~10년 미만	59.5	5.1	29.4	5.9	100.0(1,328)	
10년 이상	68.2	7.7	18.9	5.3	100.0(572)	

주: **p<.01, ***p<.001

2) 탈수급 예상 기간 및 정책욕구

현재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고 있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향후 얼마 후에 지원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계속 지원 받아야 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3.9%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응답률이 높은 응답은 '10년 이상'(23.7%)이었고, '5~10년 이내'(19.0%), '3~5년 이내'(8.3%), '1~3년 이내'(4.7%) 순으로 나타났다. 이전 년도 조사와 비교해 보면, '계속 지원받아야 할 것이다'라는 응답한 비율이 '21년 37.0%에서 '24년 43.9%로 증가했고, '10년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 역시 '21년 21.7%에서 '24년 23.7%로 상승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탈지원에 대한 전망이 다소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2018년: n=634, 2021년: n=1,014, 2024년: n=1,984)



[그림 Ⅱ-8-5]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탈수급 예상 기간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한부모 연령, 가장 어린자녀 연령대, 종사상 지위, 소득수준, 한부모가 된 기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계속 지원받아야 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52.9%), 가장 어린자녀가 미취학(57.6%), 비취업(52.0%),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71.6%),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47.3%)인 경우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Ⅱ-8-6〉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탈수급 예상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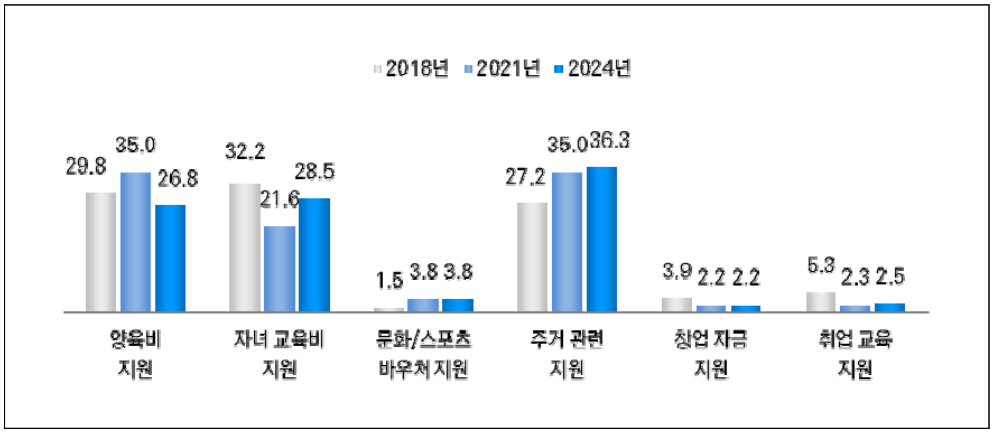
(단위: %, 가구)

	1년 이내	1년 후~3년 이내	3년 후~5년 이내	5년 후~10년 이내	10년 후	계속 지원받아야 할 것이다	합계(n)	$\chi^2(df)$
전 체	0.4	4.7	8.3	19.0	23.7	43.9	100.0(1,984)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0.2	2.9	3.8	14.5	25.8	52.9	100.0(540)	51.869(10)***
40대	0.5	5.1	9.6	20.4	23.9	40.5	100.0(1,095)	
50대 이상	0.4	6.4	11.1	21.7	19.5	40.8	100.0(349)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0.5	3.6	4.9	9.8	23.6	57.6	100.0(266)	144.452(10)***
초등학생	0.2	1.4	4.1	17.7	30.1	46.4	100.0(778)	
중학생 이상	0.5	7.8	12.6	22.7	18.3	38.0	100.0(940)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0.4	4.1	8.6	19.7	25.2	42.0	100.0(666)	
임시/일용근로자	0.6	4.8	8.5	19.7	23.7	42.8	100.0(650)	29.553(15)*
자영업/무급가족	-	4.4	12.2	23.2	25.3	34.9	100.0(192)	
비취업	0.2	5.7	6.0	15.3	20.8	52.0	100.0(475)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	6.5	6.5	-	15.5	71.6	100.0(22)	
100~200만원 미만	0.6	5.2	7.0	16.2	21.4	49.6	100.0(556)	41.237(15)***
200~300만원 미만	0.2	4.8	9.8	17.8	24.9	42.5	100.0(942)	
300만원 이상	0.6	4.0	6.8	25.7	24.1	38.7	100.0(464)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0.1	4.8	6.5	17.7	23.5	47.3	100.0(803)	24.876(10)**
5~10년 미만	0.7	3.4	8.7	19.7	24.8	42.8	100.0(791)	
10년 이상	0.4	7.4	11.0	20.2	21.6	39.4	100.0(390)	

주: *p<.05, **p<.01, ***p<.001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더라도 계속 받고 싶은 지원으로는 '주거 관련 지원'이 응답률 36.3%로 제일 응답이 많았고, '자녀 교육비 지원'(28.5%)과 '양육비 지원'(26.8%)이 그 다음으로 높은 응답률이 나타난 항목들이었다. 특히 '주거관련 지원'의 경우, 2018년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수요가 증가·높게 지속되고 있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주목이 필요하다. 또한, 자녀 교육비 지원과 양육비 지원 역시 2~3순위로 높은 응답률이 지속되고 있는 항목들로 탈수급 이후 자녀 관련 지원 지속에 대한 높은 정책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단위: %, 2018년: n=634, 2021년: n=1,014, 2024년: n=1,984)



[그림 Ⅱ-8-6] 지원사업에서 벗어나도 계속 받고 싶은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더라도 계속 받고 싶은 지원에 대한 응답은 한부모 연령, 학력, 혼인 상태, 가구 구성, 가장 어린자녀 연령대, 종사상 지위, 소득수준, 한부모가 된 기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정책수요가 높았던 '주거관련 지원'을 받고 싶다고 응답한 응답률의 경우, 50대 이상(41.8%), 중졸이하(48.1%), 이혼/사별 외의 기타 혼인 상태(49.6%), 부자가구(39.1%), 가장 어린 자녀가 중학생 이상(40.2%), 비취업(40.9%), 소득수준 100~200만원 미만(40.5%), 한부모가 된 기간 5~10년 미만(40.3%)인 경우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자녀 교육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33.6%), 학력 고졸 이하(29.2%), 사별(39.4%), 부자+기타가구(35.4%), 가장 어린자녀가 초등학생(32.3%), 임시/일용근로자(30.7%),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40.0%),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32.6%)인 경우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양육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32.4%), 학력 대학 이상(29.9%), 이혼(27.2%), 부자+기타 가구(33.1%), 가장 어린자녀가 미취학(39.1%), 상용근로자(29.1%), 소득수준 300만원 이상(32.1%),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28.1%)에서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표 Ⅱ-8-7〉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수급 대상에서 벗어나도 계속 받고 싶은 지원

(단위: %, 가구)

	양육비지원	자녀교육비 지원	문화/스포츠 바우처지원	주거관련 지원	창업자금 지원	취업교육 지원	합계(n)	$\chi^2(df)$
전 체	26.8	28.5	3.8	36.3	2.2	2.5	100.0(1,984)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32.4	33.6	2.9	28.1	1.8	1.1	100.0(540)	45.989(10)***
40대	24.9	27.5	4.4	38.5	2.5	2.3	100.0(1,095)	
50대 이상	24.1	23.9	3.2	41.8	2.0	4.9	100.0(349)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16.1	23.9	3.8	48.1	1.2	7.0	100.0(84)	23.337(10)**
고졸 이하	25.6	29.2	4.0	36.7	1.9	2.6	100.0(1,155)	
대학 이상	29.9	28.0	3.4	34.2	2.8	1.7	100.0(744)	
혼인 상태								
이혼	27.2	27.9	4.1	35.9	2.5	2.5	100.0(1677)	28.007(10)**
사별	24.3	39.4	2.7	28.5	1.6	3.5	100.0(167)	
기타	25.1	23.4	1.3	49.6	0.1	0.6	100.0(140)	
가구 구성								
모자	25.6	28.5	4.3	36.9	1.8	2.9	100.0(1,288)	
모자+기타	31.0	27.3	2.3	34.6	3.7	1.1	100.0(313)	25.732(15)*
부자	24.9	27.4	3.9	39.1	2.1	2.7	100.0(274)	
부자+기타	33.1	35.4	1.0	26.3	3.0	1.2	100.0(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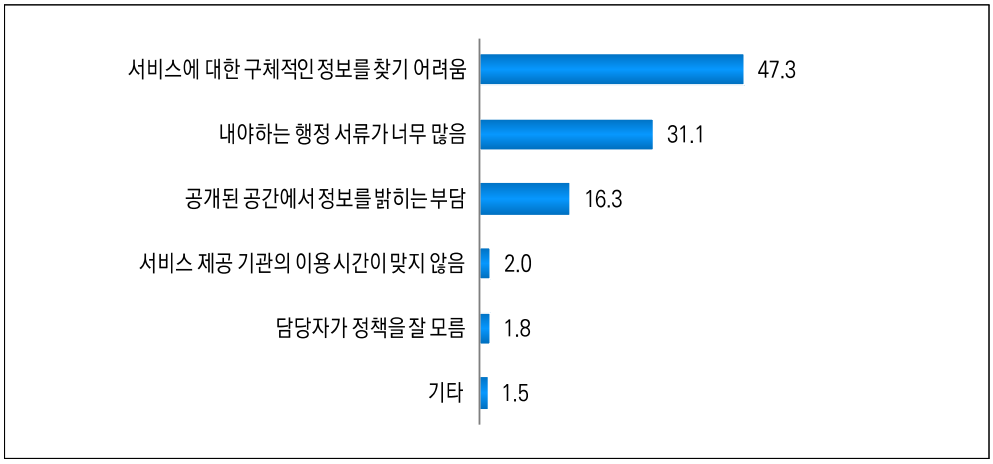
	양육비지원	자녀교육비 지원	문화/스포츠 바우처지원	주거관련 지원	창업자금 지원	취업교육 지원	합계(n)	$\chi^2(df)$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39.1	31.3	2.1	26.0	1.0	0.6	100.0(266)	54.63(10)***
초등학생	25.3	32.2	3.7	35.0	2.1	1.7	100.0(778)	
중학생 이상	24.5	24.6	4.3	40.2	2.7	3.7	100.0(940)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29.1	30.0	3.9	32.9	1.6	2.5	100.0(666)	
임시/일용근로자	23.6	30.7	3.7	37.0	2.1	2.9	100.0(650)	27.041(15)*
자영업/무급가족	26.7	27.3	5.2	33.9	5.1	1.8	100.0(192)	
비취업	28.0	23.9	3.0	40.9	2.2	2.0	100.0(475)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20.4	40.0	-	39.5	-	-	100.0(22)	
100~200만원 미만	26.0	26.3	3.3	40.5	2.4	1.4	100.0(556)	31.941(15)**
200~300만원 미만	24.8	30.1	4.4	36.4	1.4	3.0	100.0(942)	
300만원 이상	32.1	27.4	3.2	30.7	3.7	2.8	100.0(464)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28.1	32.6	2.8	31.2	3.0	2.3	100.0(803)	31.108(10)***
5~10년 미만	24.8	26.6	4.6	40.3	1.2	2.4	100.0(791)	
10년 이상	28.0	24.0	3.9	38.4	2.7	3.0	100.0(390)	

주: *p<.05, **p<.01, ***p<.001

3) 한부모 관련 지원 서비스 이용 시 불편한 점

한부모관련 지원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n=2,151)를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 시 가장 불편했던 점을 살펴본 결과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찾기 어렵다'는 응답률이 47.3%, '내야하는 행정서류가 너무 많음' 31.1%, '공개된 공간에서 정보를 밝히는 부담'(16.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위: %, n=2,151)



[그림 Ⅱ-8-7]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이용 시 불편한 점

집단별로 응답을 비교할 때, 가장 어린자녀의 연령대와 한부모 종사상 지위, 정부 지원 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찾기 어려움'으로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는 종사상 지위가 자영업/무급가족(53.7%) 및 비취업(50.4%), 일반가구(49.9%), 가장 어린자녀가 초등학생(48.8%)인 경우였다. '내야하는 행정 서류가 너무 많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는 종사상 지위가 비취업(33.3%) 혹은 임시/일용근로자(33.0%), 가장 어린자녀가 초등학생(32.4%), 저소득 지원가구(32.1%)인 경우였다. '공개된 공간에서 내 정보를 밝혀야 하는 부담'과 관련해서는 저소득 지원가구가 아닌 일반가구(31.0%), 상용근로자(19.9%), 미취학 자녀(19.1%)를 둔 경우가 응답 비율이 높았다. 한편, '기관의 이용 시간이 한부모에게 잘 맞지 않음'에 대한 전체 응답률은 2.0%로 집단별로도 대체로 1~2% 내외의 응답률을 보이나, 가장 어린자녀가 미취학일 때 그 응답률이 3.6%로 다른 집단의 응답률에 비해서는 높은 비율로 응답된 것으로 보인다.

〈표 Ⅱ-8-8〉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이용 시 불편한 점

(단위: %,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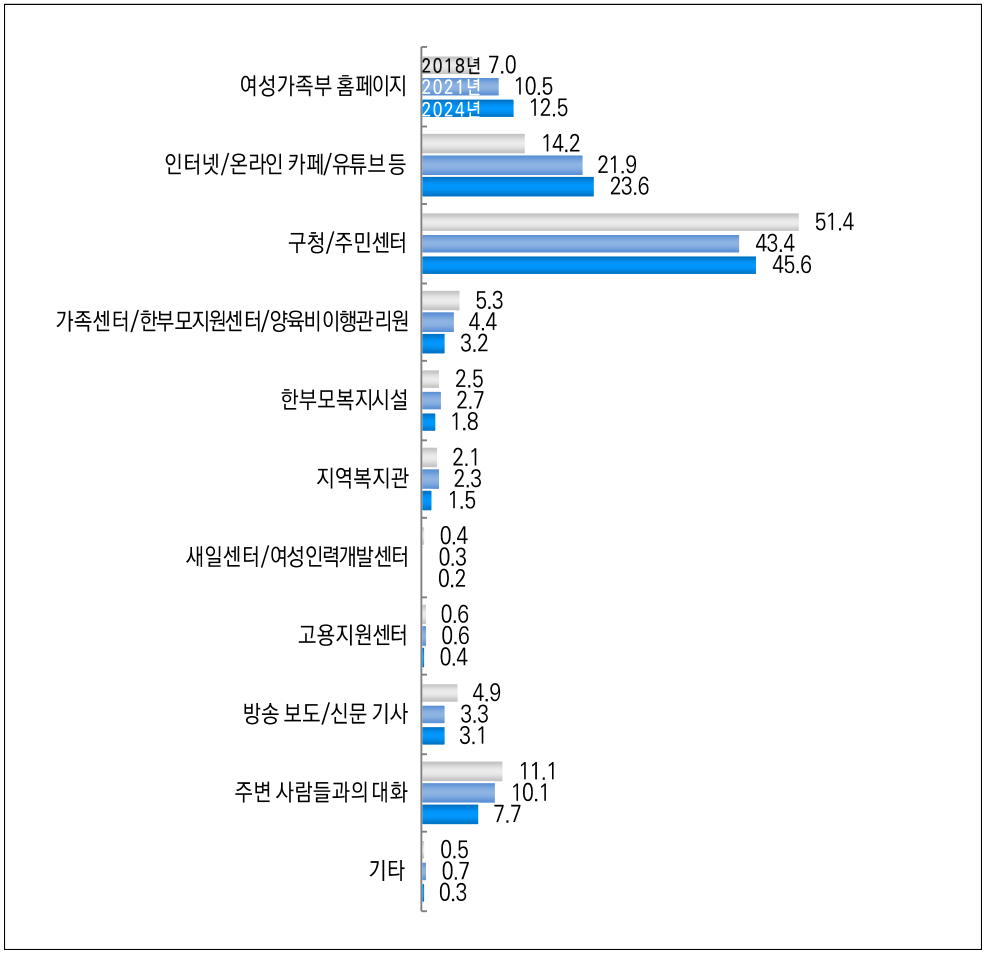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찾기 어려움	내야 하는 행정 서류가 너무 많음	공개된 공간에서 내 정보를 밝혀야 하는 부담	기관의 이용시간이 한부모에게 맞지 않음	담당자가 정책을 잘 모름	기타	없다	합계(n)	$\chi^2(df)$
전 체	47.3	31.1	16.3	2.0	1.8	0.3	1.2	100.0(2,151)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43.7	28.4	19.1	3.6	2.5	-	2.7	100.0(275)	23.336(12)*
초등학생	48.8	32.4	13.6	1.8	1.8	0.4	1.3	100.0(827)	
중학생 이상	47.0	30.8	17.7	1.8	1.7	0.3	0.8	100.0(1,049)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43.4	30.0	19.9	2.4	2.3	0.6	1.4	100.0(754)	
임시/일용근로자	47.3	33.0	15.2	2.2	1.5	0.1	0.7	100.0(692)	34.595(18)*
자영업/무급가족	53.7	24.1	16.7	1.4	2.0	-	2.0	100.0(218)	
비취업	50.4	33.3	12.0	1.4	1.4	0.1	1.4	100.0(487)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47.1	32.1	15.3	2.1	1.8	0.3	1.3	100.0(2,019)	33.553(6)***
일반 가구	49.9	16.2	31.0	0.7	1.7	0.4	-	100.0(132)	

주: *p<.05, ***p<.001

다. 한부모가족지원사업 관련 정보 습득 경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관련 정보를 습득하는 경로를 살펴보면 '구청/주민센터'가 45.6%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고, 인터넷/온라인 카페 23.6%,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12.5%,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7.7%, 건강가정지원센터/한부모가족지원센터/양육비이행관리원 3.2%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복지관'이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방송 보도 및 신문 기사'를 통한 정보 습득 비율은 지속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단위: %, 2018년: n=2,500, 2021년: n=3,300, 2024년: n=3,315)



[그림 Ⅱ-8-8]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정보 습득 경로(1순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구청/주민센터'를 통해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관련 정보를 얻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한부모 연령 50대 이상(56.7%), 중졸 이하(61.8%), 이혼/사별 외의 기타 혼인 상태(54.7%), 가장 어린자녀가 중학생 이상(48.2%), 비취업(54.6%), 저소득 지원 가구(52.2%),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79.5%), 한부모가 된 기간 10년 이상(55.5%)인 경우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인터넷/온라인 카페'를 통해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관련 정보를 얻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26.1%), 학력 대학 이상(29.7%), 사별(26.5%), 모자+기타 가구(29.4%), 가장 어린자녀가 미취학(30.0%), 상용근로자(28.1%), 일반가구(26.3%), 소득 300만원 이상(27.0%), 한부모가 된 기간 년 미만(24.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얻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30대 이하(19.0%), 학력 대학 이상(14.4%), 이혼(13.0%), 모자가구(13.6%), 가장 어린자녀가 미취학(17.3%), 임시/일용근로자(15.2%), 저소득 지원가구(12.8%), 소득수준 100~200만원 미만(14.2%), 한부모가 된 지 5년 미만(13.6%)인 경우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볼 때, 연령이 낮아질수록, 그리고 학력이 높아질수록 '구청/주민센터'를 통한 정보 접근 방식의 비중은 줄어들고, '인터넷/온라인 카페' 및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통한 접근 방식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Ⅱ-8-9〉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정보 습득 경로(1순위)

(단위: %, 가구)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인터넷/ 온라인 카페/ 유튜브 등	구청/ 주민센터	가족센터/ 한부모가족 지원센터/ 양육비 이행관리원	한부모 복지시설	지역복지관	새일센터/ 여성인력 개발센터	고용 지원센터	방송보도/ 신문기사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기타	없다	합계(n)
전 체	12.5	23.6	45.6	3.2	1.8	1.5	0.2	0.4	3.1	7.7	0.2	0.1	100.0(3,315)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19.0	26.1	39.5	3.8	1.6	1.4	-	0.4	1.5	6.4	0.3	0.2	100.0(846)
40대	10.8	23.6	45.3	3.2	2.0	1.6	0.3	0.5	3.8	8.4	0.2	0.1	100.0(1,895)
50대 이상	8.6	19.7	55.7	2.4	1.7	1.3	-	0.1	3.0	7.4	0.1	0.1	100.0(575)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9.8	13.2	61.8	1.4	0.7	1.0	-	1.1	1.2	9.2	-	0.4	100.0(101)
고졸 이하	10.9	18.5	53.8	3.7	1.8	1.2	0.1	0.3	1.7	7.6	0.2	0.1	100.0(1,666)
대학 이상	14.4	29.7	35.8	2.8	1.9	1.8	0.3	0.5	4.7	7.7	0.2	0.1	100.0(1,548)
혼인 상태													
이혼	13.0	23.2	45.6	3.1	2.0	1.6	0.2	0.4	3.4	7.2	0.2	0.1	100.0(2,793)
사별	8.8	26.5	41.4	4.3	1.2	1.2	-	0.4	1.9	13.8	0.3	0.2	100.0(345)
기타	12.5	23.2	54.7	2.9	0.9	-	-	0.6	0.7	4.1	0.3	-	100.0(178)
가구 구성													
모자	13.6	23.7	46.9	3.8	2.1	1.3	0.2	0.5	1.7	6.0	0.2	0.1	100.0(1,773)
모자+기타	12.2	29.4	46.3	2.0	0.3	2.1	0.6	-	1.5	5.0	0.5	-	100.0(503)
부자	10.3	18.8	46.5	3.1	3.0	2.1	-	0.6	7.2	8.1	0.1	0.2	100.0(674)
부자+기타	11.9	23.6	36.8	2.6	0.3	0.6	-	0.3	4.8	19.1	-	-	100.0(3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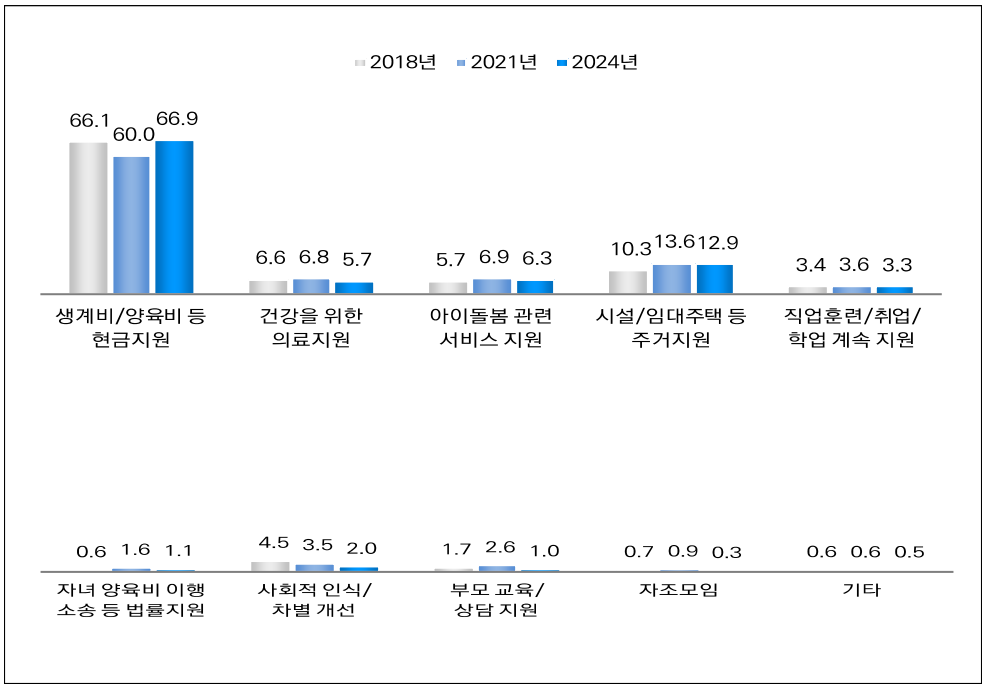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인터넷/ 온라인 카페/ 유튜브 등	구청/ 주민센터	가족센터/ 한부모가족 지원센터/ 양육비 이행관리원	한부모 복지시설	지역복지관	새일센터/ 여성인력 개발센터	고용 지원센터	방송보도/ 신문기사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기타	없다	합계(n)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17.3	30.0	37.7	5.2	1.2	2.1	-	0.1	0.8	5.3	-	0.3	100.0(392)
초등학생	14.1	22.4	44.8	3.2	2.2	1.6	0.1	0.5	3.0	7.6	0.4	0.0	100.0(1,281)
중학생 이상	10.1	22.9	48.2	2.8	1.7	1.2	0.3	0.4	3.7	8.4	0.1	0.1	100.0(1,642)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12.8	28.1	39.1	2.8	1.6	1.6	0.3	0.4	4.4	8.5	0.2	0.1	100.0(1,483)
임시/일용근로자	15.2	18.9	49.6	5.2	1.1	1.3	0.1	0.4	1.6	6.5	0.1	-	100.0(858)
자영업/무급가족	6.9	18.1	49.1	2.3	3.9	1.9	0.3	0.6	4.5	11.4	0.6	0.4	100.0(440)
비취업	12.0	22.7	54.6	2.0	2.0	1.1	-	0.3	0.5	4.4	0.2	0.1	100.0(534)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12.8	22.1	52.2	3.5	1.7	1.1	0.0	0.4	0.6	5.2	0.3	0.0	100.0(2,184)
일반 가구	11.9	26.3	32.9	2.7	2.2	2.3	0.5	0.5	7.8	12.5	-	0.3	100.0(1,131)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2.8	11.9	79.5	-	-	-	-	-	-	5.8	-	-	100.0(24)
100~200만원 미만	14.2	19.6	53.0	3.1	1.8	1.2	-	0.3	1.2	5.4	0.3	-	100.0(619)
200~300만원 미만	11.5	21.6	51.8	3.5	1.3	1.4	0.2	0.5	1.3	6.7	0.1	0.1	100.0(1,210)
300만원 이상	12.8	27.0	36.8	3.1	2.3	1.8	0.3	0.4	5.4	9.5	0.2	0.2	100.0(1,462)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13.6	24.9	43.0	3.2	2.6	1.4	-	0.3	3.4	7.1	0.4	0.1	100.0(1,415)
5~10년 미만	12.2	23.3	44.2	4.1	1.7	1.8	0.2	0.6	3.0	8.8	-	0.1	100.0(1,328)
10년 이상	10.7	20.8	55.5	1.2	0.5	1.0	0.5	0.2	2.5	6.9	0.2	0.1	100.0(572)

라. 정책지원 욕구

1) 가장 필요한 정책지원(1순위)

한부모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지원에 대한 1순위 응답은 '생계비, 양육비 등 현금지원'이 66.9%로 가장 높았으며 '시설/임대주택 등 주거지원'(12.9%), '아이돌봄 관련 서비스 지원'(6.3%), '건강을 위한 의료지원'(5.7%), '직업훈련/취업/학업 계속 지원'(3.3%)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2021년) 결과와 비교하여, 금번 조사에서도 생계비/양육비 등 현금지원 응답비율이 가장 높고, 2021년 조사(60.0%)에 비해서 가장 큰 증가폭(6.9%p)을 보인 응답으로 해당 정책 수요가 높게 지속·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회적 인식/차별 개선은 비교적 후순위 응답률을 보이는 항목이나, 2018년 조사 이후로 응답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금번 조사에서는 단 2.0%만이 해당 항목을 1순위 정책수요로 응답하였다. 이를 앞서 한부모의 차별 경험 응답 비율의 변화와 연결지어 볼 최근 한부모에 대한 우리 사회의 차별적 시선이 개선되고 있으며 따라서 관련 정책 욕구도 감소할 수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단위: %, 2018년: n=2,500, 2021년: n=3,300, 2024년: n=3,315)



[그림 Ⅱ-8-9] 필요하다고 느끼는 지원(1순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생계비/양육비 등 현금지원'을 1순위로 응답한 비율이 한부모 연령 50대 이상(68.8%), 학력 중졸 이하(77.8%), 이혼/사별 외의 기타 혼인 상태(75.5%), 모자가구(72.5%), 가장 어린자녀가 중학생 이상(68.5%), 비취업(78.4%), 저소득 지원 가구(75.9%),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83.7%), 한부모가 된 기간 10년 이상(79.3%)인 경우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시설/임대주택 등 주거지원'을 1순위로 응답한 비율은 40대(13.5%)와 50대(13.4%), 대학 이상(13.4%), 사별(15.1%), 부자+기타가구(16.4%), 가장 어린자녀가 초등학생(14.2%), 종사상 지위가 상용근로자(13.5%)나 임시/일용근로자(13.5%), 일반가구(15.1%), 소득수준 300만원 이상(15.0%),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13.7%)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아이돌봄 관련 서비스지원'을 1순위로 응답한 비율은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10.0%), 대학 이상(8.9%), 사별(6.9%), 부자가구(9.7%) 및 부자+기타가구(9.8%),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연령(12.8%), 종사상 지위 자영업/무급가족(8.3%) 및 상용근로자(8.1%), 일반가구(10.0%), 한부모가 된 지 5년 미만(8.9%)인 경우 높게 나타났다.

한편, 앞서 언급된 것처럼, 사회적 차별 해소에 대한 응답은 1순위 전체 응답률이 2.0%로 매우 낮은 편이나, 한부모 종사상 지위가 자영업/무급가족(5.9%), 소득 300만원 이상(4.2%), 한부모 학력 대학 이상(3.8%), 부자+기타가구(3.8%), 가장 어린자녀 중학생 이상(3.1%) 등에서 약간 더 높은 비율로 응답되었다.

〈표 Ⅱ-8-10〉 필요하다고 느끼는 지원(1순위)

(단위: %,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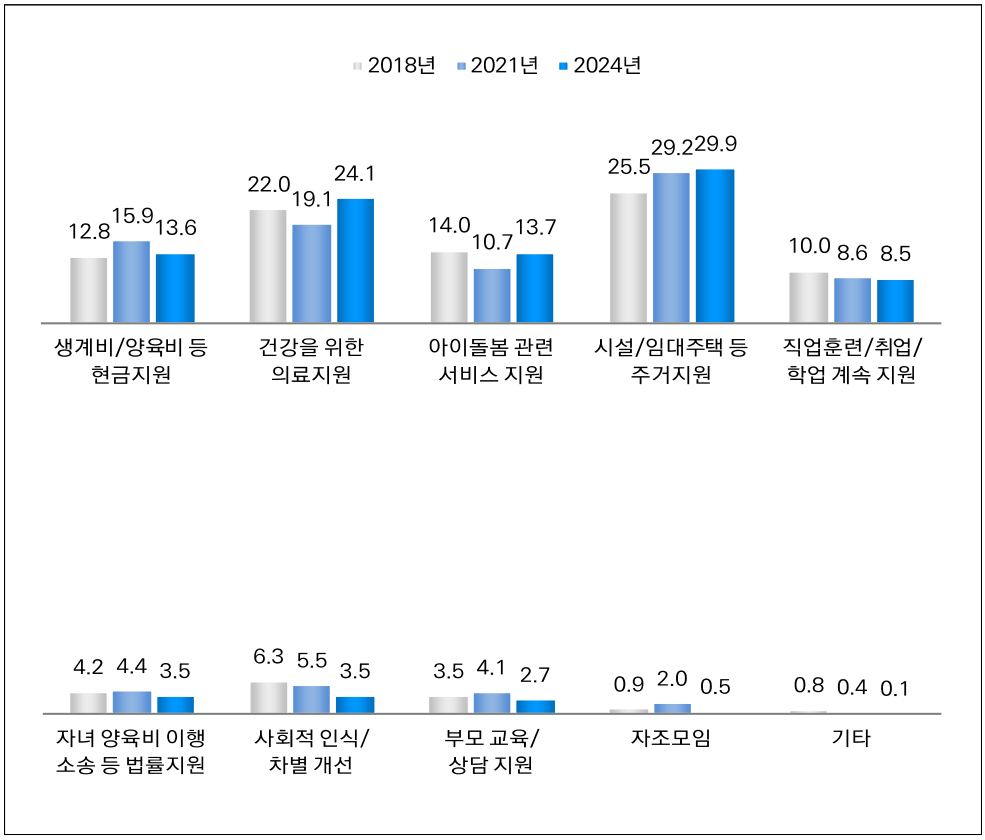
	생계비/양육비 등 현금지원	건강을 위한 의료지원	아이돌봄 관련 서비스 지원	시설/임대 주택 등 주거지원	직업훈련/취업/학업 계속 지원	자녀양육비 이행 소송 등 법률지원	사회적 인식/차별 개선	부모교육/상담지원	자조모임	기타	없음	합계(n)
전 체	66.9	5.7	6.3	12.9	3.3	1.1	2.0	1.0	0.3	0.2	0.4	100.0(3,315)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65.5	7.6	10.0	11.4	3.3	0.2	0.8	0.3	0.2	0.3	0.3	100.0(846)
40대	66.9	5.5	5.4	13.5	2.9	1.2	2.7	1.2	0.3	0.1	0.4	100.0(1,895)
50대 이상	68.8	4.0	3.4	13.4	4.8	2.2	1.4	1.2	0.2	0.2	0.3	100.0(575)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77.8	4.8	2.4	11.7	2.2	-	-	1.0	-	-	-	100.0(101)
고졸 이하	73.9	4.2	4.1	12.6	3.2	0.5	0.4	0.7	-	0.2	0.3	100.0(1,666)
대학 이상	58.7	7.5	8.9	13.4	3.5	1.9	3.8	1.2	0.6	0.1	0.4	100.0(1,548)
혼인 상태												
이혼	66.8	5.7	6.3	12.9	3.2	1.3	2.3	0.6	0.3	0.1	0.4	100.0(2,793)
사별	62.8	6.2	6.9	15.1	3.6	-	0.6	4.2	-	0.1	0.5	100.0(345)
기타	75.5	5.4	4.3	9.0	4.8	0.3	-	-	-	0.5	-	100.0(178)
가구 구성												
모자	72.5	5.2	4.2	11.8	3.0	0.7	1.7	0.6	0.1	0.2	0.2	100.0(1,773)
모자+기타	68.0	5.0	6.3	12.8	2.7	2.0	1.9	0.6	-	-	0.6	100.0(503)
부자	57.7	7.3	9.7	14.1	5.2	0.9	1.9	1.5	0.6	0.1	0.9	100.0(674)
부자+기타	55.3	6.7	9.8	16.4	2.1	2.4	3.8	2.4	1.2	-	-	100.0(365)

	생계비/양육비 등 현금지원	건강을 위한 의료지원	아이돌봄 관련 서비스 지원	시설/임대 주택 등 주거지원	직업훈련/취업/학업 계속 지원	자녀양육비 이행 소송 등 법률지원	사회적 인식/차별 개선	부모교육/상담지원	자조모임	기타	없음	합계(n)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66.9	7.2	12.8	9.2	1.6	0.1	1.0	-	0.5	0.4	0.3	100.0(392)
초등학생	64.8	7.0	8.3	14.2	2.7	0.9	1.0	0.4	0.4	0.3	0.2	100.0(1,281)
중학생 이상	68.5	4.4	3.1	12.8	4.2	1.6	3.1	1.6	0.1	0.0	0.5	100.0(1,642)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60.7	7.8	8.1	13.5	3.5	1.3	2.6	1.5	0.6	-	0.5	100.0(1,483)
임시/일용근로자	73.3	3.6	4.2	13.5	3.0	1.6	0.2	0.0	0.1	0.3	0.2	100.0(858)
자영업/무급가족	61.2	4.7	8.3	13.0	4.0	-	5.9	2.0	-	-	0.8	100.0(440)
비취업	78.4	4.3	2.8	10.3	2.8	0.8	0.1	-	-	0.4	-	100.0(534)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75.9	4.4	3.8	11.8	2.3	0.9	0.3	0.1	0.0	0.2	0.1	100.0(2,184)
일반 가구	49.5	8.3	10.9	15.1	5.3	1.5	5.2	2.6	0.7	-	0.9	100.0(1,131)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83.7	5.9	-	10.4	-	-	-	-	-	-	-	100.0(24)
100~200만원 미만	78.3	4.2	3.4	10.9	2.0	1.0	0.0	-	-	0.1	-	100.0(619)
200~300만원 미만	76.4	3.9	3.3	11.5	2.6	1.0	0.4	0.2	0.1	0.3	0.3	100.0(1,210)
300만원 이상	53.9	8.0	10.0	15.0	4.5	1.3	4.2	2.0	0.6	0.0	0.5	100.0(1,462)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62.7	6.3	8.9	13.7	3.7	0.6	1.4	1.4	0.5	0.3	0.4	100.0(1,415)
5~10년 미만	66.0	6.0	5.5	13.4	3.2	1.7	2.8	0.6	0.1	0.1	0.5	100.0(1,328)
10년 이상	79.3	3.7	1.5	9.9	2.6	1.0	1.6	0.5	-	-	-	100.0(572)

2) 가장 필요한 정책 지원(2순위)

한부모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지원에 대한 2순위 응답은 '시설/임대주택 등 주거지원'이 29.9%로 가장 높았으며 '건강을 위한 의료지원' 24.1%, '아이돌봄 관련 서비스 지원' 13.7%, '생계비양육비 등 현금지원' 13.6%, '직업훈련/취업/학업 계속 지원' 8.5%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임대주택 등 주거지원'은 2순위로 느끼는 정책수요에 가장 응답률이 높은 항목인데, 2018년 조사 이후로 높은 응답률이 증가·지속되는 추세이다. 또한, 직전 2021년 조사결과와 비교해 금년도의 경우, '건강을 위한 의료지원'(2021년 19.1% → 2024년 24.1%, 5.0%p 증가)과 '아이돌봄 관련 서비스 지원'(2021년 10.7% → 2024년 13.7%, 3.0%p 증가)은 2순위 필요정책으로서의 수요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단위: %, 2018년: n=2,429, 2021년: n=3,228, 2024년: n=3,177)



[그림 Ⅱ-8-10] 필요하다고 느끼는 지원(2순위)

〈표 Ⅱ-8-11〉 필요하다고 느끼는 지원(2순위)

(단위: %)

	생계비/ 양육비 등 현금지원	건강을 위한 의료지원	아이돌봄 관련 서비스 지원	시설/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직업훈련/ 취업/ 학업계속 지원	자녀양육비 이행소송 등 법률지원	사회적 인식/ 차별개선	부모 교육/ 상담지원	자조모임	기타	합계(n)
전 체	13.6	24.1	13.7	29.9	8.5	3.5	3.5	2.7	0.5	0.1	100.0(3,177)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13.3	23.7	19.6	25.7	6.8	4.1	3.2	3.0	0.3	0.2	100.0(821)
40대	13.1	25.2	11.7	31.0	8.9	3.1	3.6	2.7	0.6	0.1	100.0(1,804)
50대 이상	15.5	21.2	11.1	32.8	9.7	3.8	3.3	2.2	0.4	-	100.0(553)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11.2	23.8	11.9	39.3	7.9	3.0	2.2	0.7	-	-	100.0(100)
고졸 이하	14.4	23.8	12.9	33.5	9.3	2.2	2.2	1.4	0.2	0.1	100.0(1,598)
대학 이상	12.9	24.5	14.6	25.4	7.7	4.9	4.9	4.3	0.9	0.1	100.0(1,479)
·혼인 상태											
이혼	13.6	23.8	13.9	30.5	8.0	3.5	3.4	2.8	0.4	0.1	100.0(2,679)
사별	13.0	25.3	9.8	27.2	12.6	2.7	4.8	3.3	1.1	0.3	100.0(326)
기타	14.2	27.3	17.2	25.5	8.1	4.7	1.9	0.4	0.6	-	100.0(172)
가구 구성											
모자	13.9	21.4	13.5	33.6	8.8	3.5	2.7	1.6	0.6	0.2	100.0(1,722)
모자+기타	13.6	28.2	13.3	26.9	7.6	6.1	2.2	1.5	0.6	-	100.0(482)
부자	13.8	22.8	15.8	27.2	8.8	2.1	4.8	4.4	0.3	-	100.0(633)
부자+기타	11.2	34.4	11.0	20.4	7.2	2.4	6.4	7.0	-	-	100.0(340)

	생계비/양육비 등 현금지원	건강을 위한 의료지원	아이돌봄 관련 서비스 지원	시설/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직업훈련/취업/학업계속 지원	자녀양육비 이행소송 등 법률지원	사회적 인식/차별개선	부모 교육/상담지원	자조모임	기타	합계(n)
가장 어린자녀											
미취학	12.9	25.8	24.0	23.2	4.2	4.7	2.5	2.6	-	0.3	100.0(384)
초등학생	15.1	23.9	16.7	28.2	6.9	2.8	3.1	2.9	0.5	0.1	100.0(1,238)
중학생 이상	12.5	23.9	8.7	33.0	10.8	3.7	4.0	2.6	0.6	0.1	100.0(1,555)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13.0	24.1	14.5	27.2	7.7	3.7	4.7	3.9	0.9	0.2	100.0(1,401)
임시/일용근로자	15.7	22.6	13.1	32.5	10.1	2.6	2.3	0.9	-	-	100.0(843)
자영업/무급가족	10.5	25.4	14.4	28.2	7.0	4.3	4.6	5.2	0.5	-	100.0(405)
비취업	13.9	25.5	11.7	34.4	8.9	3.7	1.1	0.5	0.2	0.1	100.0(527)
정부 지원 유형											
저소득 지원 가구	13.6	22.6	13.2	35.6	8.8	3.0	1.9	1.0	0.2	0.1	100.0(2,131)
일반 가구	13.5	27.3	14.6	18.4	7.8	4.5	6.6	6.2	1.0	0.1	100.0(1,047)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13.6	18.8	12.1	44.5	11.1	-	-	-	-	-	100.0(23)
100~200만원 미만	13.2	27.0	12.6	35.2	8.4	2.2	0.9	0.3	0.2	-	100.0(612)
200~300만원 미만	13.9	22.4	14.2	33.3	9.4	3.2	1.8	1.3	0.3	0.3	100.0(1,177)
300만원 이상	13.5	24.4	13.7	24.4	7.7	4.4	6.1	5.0	0.8	-	100.0(1,365)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16.1	22.2	15.7	26.2	7.5	3.8	4.1	3.5	0.7	0.1	100.0(1,375)
5~10년 미만	11.5	24.7	13.2	32.5	8.2	3.3	3.7	2.4	0.3	-	100.0(1,255)
10년 이상	11.8	27.6	9.3	33.3	11.4	3.0	1.4	1.3	0.5	0.3	100.0(547)

9. 조사결과 요약

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3,315가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한부모의 평균 연령은 43.6세이며 40대 57.2%, 30대 이하 25.5%, 50대 이상 17.3%로 절반 이상이 40대였으며, 학력은 고졸 이하 50.3%, 대학 이상 46.7%, 중졸 이하 3.0%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혼인 상태는 이혼 84.2%, 사별 10.4%, 기타(미혼·비혼·별거 등) 5.4% 순으로 이혼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가구 구성은 모자가구 53.5%, 부자가구 20.3%, 모자+기타 15.2%, 부자+기타 11.0%로 절반 이상이 모자가구였으며, 가구원 수는 평균 2.9명이었다. 한부모가족의 자녀 수는 전체 평균 1.5명이며, 가장 어린자녀의 연령은 평균 11.8세, 자녀 외 가구원 수는 전체 평균 0.4명이었다. 한부모 본인이 장애가 있는지 여부에서는 장애가 없다 97.7%, 장애를 가지고 있다 2.3%로 대부분이 장애가 없었지만 장애 한부모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일을 하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 84.0%로 상용근로자가 44.8%, 임시/일용근로자 25.9%, 자영업/무급가족 13.3%였고, 비취업자는 16.1%였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저소득 지원 가구는 65.9%, 일반 가구는 34.1%로 절반 이상이 정부 지원을 받고 있었고, 가구 월 평균 소득은 전체 평균 294.6만원이며, 300만원 이상 44.1%, 200~300만원 미만 36.5%, 100~200만원 미만 18.7%, 100만원 미만 0.7% 순이었다. 한부모가 된 기간은 5년 미만 42.7%, 5~10년 미만 40.1%, 10년 이상 17.2% 순으로 한부모가 된 기간이 짧은 경우의 비중이 높았다.

나. 자녀돌봄

한부모가족의 자녀돌봄 실태에 대한 주요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부모 자녀의 돌봄 유형은 미취학 자녀의 경우 보육시설(어린이집)이 68.9%로 가장 높았고, 유치원(18.2%), 본인 직접 돌봄(9.5%), 조부모 돌봄(2.2%) 등의 순으로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 비율이 87.1%였다. 초등학생 자녀는 초등돌봄교실/방과후 교실이 43.3%로 가장 높았고, 학원(39.2%), 지역아동센터(5.9%), 조부모 돌봄(5.1%), 본인 직접 돌봄(4.4%) 등의 순이었다.

둘째, 최근 1년 동안 자녀와의 여가활동으로는 초등학생 자녀는 외식(14.1회), 운동 및 나들이(9.6회), 쇼핑(5.0회), 영화 및 공연, 미술관 등 관람(3.0회), 여행(2.1회)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고등학생 자녀와 가장 많이 한 여가활동은 외식(11.2회), 운동 및 나들이(5.1회), 쇼핑(3.0회), 영화 및 공연, 미술관 등 관람(1.9회), 여행(1.2회)의 순이었다. 중·고등학생 자녀보다 초등학생 자녀와의 활동별 횟수가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여가활동의 양상은 동일하였다.

셋째, 평일 일과 후 돌봐주는 어른없이 자녀가 혼자 보내는 시간은 미취학 자녀는 '없다' 96.8%, '있다' 3.2%로 평균 2.2시간을 혼자 있었고, 초등학생 자녀는 '없다' 64.1%, '있다' 35.9%로 평균 2.5시간을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넷째, 중·고등학생 자녀의 평일 일과 후 주요 활동(1순위)은 학원/과외가 46.6%로 가장 높았고, 게임/컴퓨터(19.9%), 숙제 등 공부(15.2%), TV/라디오/음악/잡지/책(1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 주요 활동은 TV/라디오/음악/잡지/책이었지만 2024년 학원/과외 비중이 26.7%p 증가하면서 주요 활동이 변화되었다.

다섯째, 자녀가 혼자 지내는 시간에 필요한 서비스로는 미취학 자녀는 야간보육 활성화가 34.5%로 가장 높았고, 자녀 등·하원 서비스(24.8%), 식사 제공 서비스(20.8%), 학습지도 도우미 파견서비스(13.6%)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초등학생 자녀에게 필요한 서비스로는 초등돌봄/방과후교실 활성화가 32.0%로 가장 높았고, 식사 제공 서비스(26.5%), 학습지도 도우미 파견서비스(16.3%), 지역 아동센터 활성화(15.6%), 자녀 등·하원 서비스(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부모 자녀의 경우 추가적인 보육 및 돌봄에 대한 욕구가 강하였다.

여섯번째, 한부모의 자녀양육 어려움에 대해 가장 큰 어려움은 양육비, 교육비용 부담으로 미취학 자녀 78.0%, 초등학생 자녀 81.4%, 중·고등학생 자녀 82.1%였다. 다음으로는 미취학 자녀는 자녀 돌봄에 있어 필요한 시간과 사람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 느끼고 있었고, 초등학생 자녀는 양육, 교육 정보 부족과 자녀 진로지도에 대해, 중·고등학생 자녀는 진로지도, 자녀 학업성적, 양육, 교육 정보 부족에 대해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일곱번째, 자녀의 월 평균 양육비 지출은 미취학 자녀 46.1만원, 초등학생 자녀 50.5만원, 중·고등학생 자녀 66.1만원이었다. 항목별 자녀 양육비는 미취학 자녀는 의복, 장난감, 교통비 등 기타 지출액이 20.2만원, 교육비 16.1만원, 돌봄 비용 9.8만원이며, 초등학생 자녀는 교육비 32.8만원, 기타 지출액 13.8만원, 돌봄 비용 4만원, 중·고등학생 자녀는 교육비 44.6만원, 기타 20.2만원, 돌봄 비용 1.3만원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학력이 올라갈수록 교육비에 대한 지출액이 매우 커졌다.

다. 소득 및 지출

한부모가족의 소득 및 지출, 자산 및 부채 현황에 대한 주요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1년간 가구 월평균 소득(세금, 사회보험료 등 제외)은 평균 294.6만원으로 집계되었다. 2021년 조사(245.3만원) 및 2018년 조사(219.6만원)에 비해서는 증가한 수치이나,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계 집계된 처분가능소득(전년도)의 월평균액(488.7만원)과 비교하면 60.3%에 지나지 않았다. 지난 1년간 가구의 주요한 소득원(1순위)을 파악한 결과, 전체 가구 소득 금액 중 본인 근로소득이 78.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다음은 정부 지원(14.9%), 같이 사는 타 가구원 근로소득(4.5%), 전 배우자의 양육비(1.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 1년간 가구의 월평균 지출 금액을 확인한 결과, 월평균 지출은 226.4만원으로 조사되었고, 이는 월평균 소득대비 76.8%에 달하는 수치였다. 음·식료품비에 전체 지출 중 32.8%를 할애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자녀 교육비에 22.4%, 주거/관리비에 11.1%, 교통/통신비에 10.7% 순으로 지출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지난 2021년 조사와 비교해보면, 가구 월평균 지출액은 2018년에 166.3만원, 2021년에 185.3만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분석되었다. 지난 1년 동안 가구의 소비지출 항목 가운데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을 1순위로 지목한 결과를 살펴보면, 음·식료품비가 61.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뒤이어 자녀 교육비(28.7%), 주거관리비(5.1%) 순으로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높았다. 음·식료품비가 가장 부담이 된다는 응답은 2018년에 59.4%, 2021년에 74.0%에 달해 지난 조사대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한부모 가구의 자산 및 부채규모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2,154만원의 금융자산, 14,134만원의 부동산, 4,720만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보면, 금융자산은 감소한 반면 부동산과 부채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빚을 지게된 주요한 이유가 주거비 마련(50.7%)으로 조사되어, 금융자산의 감소와 부동산액 및 부채의 증가는 주거비 마련과 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노후를 위한 경제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응답이 42.8%로 절반에 약간 못미치는 정도고 집계되었다.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에게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추가로 질문(복수응답)한 결과, 국민연금을 통해 준비한다는 응답이 90.3%로 대다수를 차지함. 그 다음으로는 예금, 적금(31.8%), 개인연금(19.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라. 자녀의 비양육부모와의 관계 및 양육비

한부모가족의 양육권과 양육비, 양육비이행권리원 이용, 전 배우자와의 관계 등에 대한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 중 이혼한 한부모만을 대상으로 자녀에 대해 법적으로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97.8%로 매우 높은 편이었다.

둘째, 조사대상자 중 이혼 또는 미혼인 한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양육비 청구소송을 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질문한 결과,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92.0%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한편 청구소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0%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며 2021년의 9.5%에 비해 약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소송을 할 때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지원'의 도움을 받았는지 여부를 추가 질문하였다. 그 결과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52.4%로 나타났고,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7.6%로 확인되었다. 여성가족부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지원을 이용한 비율이 2021년의 40.5%에서 약 7.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경험이 없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법적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92.1%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이용하였다는 응답은 7.9%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2021년의 10.5%에 비해 약간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법적으로 양육비 이행화고 절차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57.7%로 2021년의 52.8%에 비해 약 54.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도움을 받은 비율은 55.0%로 2021년의 51.6%에 비해 약 4.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조사대상자 중 이혼 또는 미혼인 한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양육비 지급방식을 살펴보면 주고받지 않기로 함 44.2%, 정기지급 30.2%, 법적으로 결정된 바 없음 22.4%, 일시지급 2.3%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기지급의 비율은 2021년의 19.9%에서 2024년에는 30.2%로 약 10.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를 주고받지 않기로 하였거나 법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로는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낼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70.6%, 더 이상 비양육부모와 얽히는 것이 싫어서 18.6%, 출산 이후 연락이 끊어져서 8.7%의 순이었다. 양육비를 받기로 한 경우 양육비를 받기로 한 자녀의 수는 1명 61.1%, 2명 33.0%, 3명 이상 6.0%인 것으로 나타났고. 정기지급받기로 한

양육비의 월평균은 71.4만원이었다.

다섯째, 양육비를 받기로 한 경우(정기지급, 부정지지급, 일시지급) 및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 실제로 받은 양육비의 지급형태는 받지 못함 71.3%, 정기지급 20.1%, 부정기지급 6.1%, 일시지급 2.5%의 순이었다. 받지 못함의 비율이 2021년의 80.7%에 비해 약 9.4%p 감소하였다. 양육비 일시지급 채권이 있는 사람 중 받은 비율은 75.5%로 2021년의 55.1%에 비해 약 20.4%p 증가하였다.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이 있는 사람 중 정기지급 받은 비율은 63.8%였고 받지 못함은 20.0%로 2021년 대비 약 5.9%p 감소하였다.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이 있는 사람이 받은 월 평균 금액은 78.6만원이었고, 받은 횟수는 연 평균 10.4회였다. 양육비 채권이 없는 사람의 97.4%는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가장 개선이 필요한 제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확대/양육비 선지급제도 도입 71.0%, 제재조치 강화 17.5%, 면접교섭지원서비스 강화 10.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 이용경험을 살펴보면 이용경험이 없는 비율이 95.9%였다. 이용경험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앞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을 조사한 결과 있다 6.7%, 없다 93.3%로 나타났다. 이용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낼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32.8%, 비양육부모와 얽히는 것이 싫어서 27.0%, 양육비를 이미 충분히 받고 있어서 12.8%, 서비스를 받아도 양육비를 받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 11.7%의 순이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 이용의사를 저해하는 요인들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여덟째, 한부모의 자녀와 전 배우자는 서로 연락을 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주로 어떤 방식으로 연락을 하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 연락을 원하지 않아서 연락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9.9%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만나고 있다 28.4%,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전혀 연락이 닿지 않는다 18.0%,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 11.8%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전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비율이 2021년의 26.4%에 비해 약 8.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 본인과 비양육부모와의 교류 정도를 살펴보면 연락을 원하지 않아서 연락하지 않는다 40.2%,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만나고 있다 20.1%,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전혀 연락이 닿지 않는다 18.3%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 경제활동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서 현재 취업상태인 한부모들은 전체 조사응답자의 83.9%로 「2023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의 15~64세 인구의 고용률(69.2%)이나 30대(78.9%), 40대의 고용률(78.6%)에 비해 높은 수치이며(통계청, 2024b), 코로나19의 영향이 상당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2021년 조사(77.7%)에 비해서는 6.2%p 높은 수치이다.

취업상태에 있다고 응답한 한부모들의 직업 분포를 살펴보면 서비스 종사자(30.7%)가 가장 많았고, 사무종사자(24.3%), 판매 종사자(18.6%), 관리자/전문가(4.0%)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2018년과 2021년 조사결과와 비교했을 때 취업 중인 한부모들의 직종 구성에 큰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연령이나 학력 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서비스 종사자는 30대, 고졸 이하, 모자가구, 가장 어린자녀가 미취학 상태인 경우, 임시/일용근로자, 저소득 지원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사무종사자는 30대 이하, 대학 이상의 학력, 상용근로자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소득별로는 높은 정도의 소득범주에 속하는 이들의 비율이 높았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직업위세를 가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관리자·전문가의 비율은 4.0%에 그쳤으며, 판매종사자의 경우 30대 이하, 모자가구, 한부모가 된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 비교적 많았다.

근로 중인 이들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절반을 약간 웃도는 53.3%가 상용근로자였고, 10명 중 3명 정도(30.7%)는 임시/일용근로자였다. 15.8%는 자영업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였다. 해당 비율을 「2023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상용근로자: 56.9%, 임시 및 일용근로자: 19.9%, 비임금근로자: 23.2%)(통계청, 2024t)와 비교해보면 한부모 취업자의 경우 전체 취업자에 비해 임시/일용근로자의 비율이 높고 상용근로자나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고용에 놓여 있을 가능성도 엿볼 수 있다. 2024년도의 조사결과를 2018년 및 2021년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상용근로자의 비율(53.3%)이 2018년(52.4%)에 비해서는 0.9%p, 2021년(49.2%)에 비해서는 4.1%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일용근로자의 비율(30.8%)은 2018년과는 동일한 수준이었고, 2021년(33.7%)에 비해서는 2.9%p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종사상 지위를 나타내는 통계치는 2018년과는 상당히 유사하고, 2021년에 비해서는 양호해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등 코로나19의 충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자 그 영향이 한부모가족의 일자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현재 취업상태인 응답자들의 평균 근로·사업소득은 244.4만원 수준이었다(2018년과 2021년 조사에서의 평균은 각각 202.0만원과 225.5만원). 이를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에 속한 비율은 6.2%, 100~200만원 미만에는 26.1%, 200만원~300만원 범주에는 36.1%가 속해 있었고. 월평균 근로·사업소득이 300만원 이상이라고 한 취업자는 31.6%를 차지하였다.

현재 취업 중이라고 응답한 한부모의 평균 소득은 한부모의 학력별, 성별, 가구유형별 차이가 비교적 선명하게 나타났는데 연령대별로는 30대 이하의 취업자는 평균 222.1만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40대(251.3만원)나 50대 이상(252.3만원) 취업자의 월평균 근로·사업소득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가 평균 185.4만원이었고, 고졸 이하와 대학 이상은 각각 220.2만원과 270.5만원으로 취업자 가운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근로·사업소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 구성별로는 모자가구는 208.5만원, 모자+기타가구는 224.2만원임에 비해 부자가구는 302.8만원, 부자+기타가구는 312.1만원으로 평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성 한부모 취업자에 비해 남성 한부모 취업자의 근로·사업소득이 높았다.

취업 중인 한부모들이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사업체)의 종사자 수를 살펴보았을 때 종사자 수가 1~4인 직장이 1/3 이상(35.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10~99인(32.7%), 5~9인(23.8%), 100~299인(5.5%)이 뒤를 이었다. 300인 이상 대기업에 재직 중이라는 응답은 2.8%에 그쳤다. 다만 2018년 및 2021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이들의 비율은 감소하였고, 100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비율은 이전의 조사결과에 비해 약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중인 한부모는 주 평균 40.0시간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를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 각각의 비율을 살펴보면 취업자 4명 중 3명가량(73.8%)은 50~52시간 범주에 속해 있었으며, 18~36시간 범주에 속한 비율이 17.4%로 뒤를 이었다. 주당 52시간을 넘게 근로를 하고 있다는 취업자의 비율은 3.8%였고, 3.0%는 18시간 미만 근로를 하고 있었다. 취업 중인 한부모의 특성별로 주당 실 근로시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36.9시간) 〈 고졸 이하(39.5시간) 〈 대학 이상(40.6시간) 순으로 평균 주당 실 근로 시간이 길었다. 근로시간 범주에 따라서는 중졸 이하의 취업자는 18~36시간 미만 범주에 속한 비율(30.4%)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40~52시간 범주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중졸 이하: 55.5%, 고졸 이하: 68.6%, 대학 이상: 79.8%). 가구 구성에 따라서는 모자가구(38.3시간)이나 모자+기타가구(39.6시간)의 평균이 부자가구(42.2시간) 및 부자+기타가구(43.4시간)의 평균에

비해 짧은 가운데 모자 또는 모자+기타가구에 속한 취업자들은 18~36시간 미만 범주에 속해 있는 비율이 20%를 넘어 부자 또는 부자+기타가구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반면, 40~52시간 또는 주당 52시간을 넘게 일한다는 취업자의 비율은 모자, 모자+기타가구에 비해 부자 또는 부자+기타가구가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취업 상태에 있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몇 번이나 쉬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10명 중 6명가량(58.9%)은 '매 1주마다 이틀 휴무(주5일제 근무)'를 꼽았다. 매 1주마다 하루씩 쉰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20.5%였고, '정해진 휴일이 없음(불규칙함)'을 선택한 비율이 11.8%로 뒤를 이었다. 7.5%는 '토요일 격주 휴무+일요일 매주 휴무'의 형태로 근로를 하고 있었으며, 2주마다 하루를 쉰다는 비율과 주로 격일로 근무한다는 비율은 각각 0.5%였다. 2018년 및 2021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주5일제 근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 조사에서 꾸준히 늘었고, '매 1주마다 하루 휴무', '토요일 격주 휴무+일요일 매주 휴무' 등의 근로형태는 그만큼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2002년 첫 시행 이후 주 5일 근무제가 업종, 규모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중인 한부모의 경우 주 5일에 근무 중이라는 비율이 58.9%로 나타난 것은 이들의 근로여건이 비교적 덜 양호할 수 있음을 담고 있는 결과로 생각된다.

현재 근로 중인 한부모를 대상으로 현재 일을 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일과 가정생활 병행으로 인한 육체적인 피로'라고 응답한 비율이 23.7%로 가장 높았고, '일하는 시간에 비해 낮은 임금(20.3%)'과 '자녀 양육 시간의 부족(19.4%)'이 뒤를 이었다. '불투명한 직업전망'이라고 응답한 취업자는 9.4%였으며, '장시간 근로'는 6.1%를 차지하였고,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구하기 어려움'과 '한부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각각 2.7%와 1.1%로 나타났다. 한편, 이들 중 16.9%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하였다.

현재 미취업자인 한부모들을 대상으로 지난 4주 내에 구직활동을 하였는지를 물어본 결과응답자의 18.4%가 '구해본 적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30.7%는 '구해본 적은 없지만 일자리를 원한다'라고 답하였다. 절반 이상(50.8%)의 응답자는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미취업가 가운에 일자리는 원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이전의 조사(2018년: 44.1%, 2021년: 39.8%)와 비교해 높은 수치를 보였다.

비취업자 중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한 비율의 차이를 살펴보면 30대 이하(42.3%) < 40대(51.0%) < 50대 이상(62.7%) 순으로 높은 정도의 연령대에 속해 있는 응답자들이 해당 응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학력이

낮을 경우에도 그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중졸 이하 73.3%, 고졸 이하 55.8%, 대학 이상 36.1%). 이와 함께 한부모가 된 기간에 따라서는 해당 기간이 길수록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비취업 상태에 있는 한부모 중 구직활동을 해본 경험이 있는 이들이 일자리를 구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을 살펴본 결과 응답자 3명 중 1명(33.3%)은 '근무시간이나 근무환경이 맞지 않아서'를 꼽았다. '나의 학력, 경력, 나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20.7%)'와 '수입이나 보수가 맞지 않아서(19.1%)'가 뒤를 이었으며, 13.6%는 '자녀를 돌봐줄 데가 없어서'라고 응답하였다. '한부모라는 편견과 차별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0.9%였다.

전체 한부모를 대상으로 최근 3년 간 취업 혹은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최근 3년 사이에 직업훈련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비율은 5.3% 수준으로 대부분의 한부모들은 직업훈련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서는 40대(4.7%)나 50대 이상(4.9%)에 속한 응답자들에 비해 30대 이하 응답자들의 직업훈련 경험 비율(7.0%)이 높았고, 가구 구성에 따라서는 모자(5.7%) 또는 모자+기타가구(10.3%)가 부자(1.9%) 또는 부자+기타가구(2.8%)에 속한 응답자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비취업자들의 직업훈련 경험 비율(8.2%)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정부 지원 유형에 따라서는 저소득 지원 가구에 속한 응답자들(6.6%)이 그렇지 않은 가구의 응답자(2.8%)에 비해 높았다.

바. 건강 및 주거실태

1) 건강상태

한부모의 건강상태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의료서비스 이용현황, 규칙적 운동 수행 여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본인이 지각하는 평소 건강상태의 경우 '좋은 편이다'라는 응답이 68.3%로 가장 많았지만, 자신의 건강상태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나쁜 편이다'(19.0%)라는 응답과 '매우 나쁘다'(3.3%)는 응답이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하였다.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본인의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의 수가 소폭 증가하였으며, 응답자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비취업 상태이거나 임시·일용직에 근무하는 응답자인 경우 등 경제적 상황이 열악한 한부모가 그렇지 않은 한부모보다 자신의 건강상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우울증선별도구(PHQ-9)를 활용하여 한부모의 우울장애유병률을 확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3%가 우울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우울감 경험률(만 19세 이상)이 5.0%로 나타난 「2022년 국민건강통계」 자료 수치와 비교할 때 다소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으며, 우울감 경험 여부는 50대의 응답자가 다른 연령대 응답자에 비해, 교육수준이 중졸 이하로 낮을수록, 한부모가 비취업인 경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부모들이 이러한 우울감을 느낄 때 해결하는 주된 방법은 '친구나 가족에게 이야기한다'(41.5%), '혼자서 참는다'(31.4%), '술을 마신다'(17.6%),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사회의 전문가와 상담한다'는 응답은 0.1%로 매우 낮았다. 우울감 해소방식으로, '친구나 가족에게 이야기한다'는 비율이 2018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지역 사회의 전문가와 상담한다'는 응답은 여전히 매우 적어 전문가 등 외부자원 활용을 통해 우울감을 해소하기 보다는 가족이나 친구, 혹은 혼자 참는 등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울감을 해소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혼자서 참는다'는 응답은 2018년에 47.1%로 약 절반 정도를 차지했었던데 반해,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술을 마신다는 응답은 2018년과 2021년과 비교했을때 거의 변화가 없고,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는다와 지역사회의 전문가와 상담한다는 응답은 2018년과 2021년에는 감소하다가 올해는 비중이 유지되었다.

한부모들의 건강검진 수진율은 79.9%로, 2022년 건강검진통계연보에서 제시한 일반 수검율 75.4%에 비하면 약간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이와 함께 2018년의 73.4%에 비교하면, 2021년(80.8%) 및 2024년(79.9%) 조사에서 한부모의 건강검진 경험은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건강검진 중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일반건강검진(62.9%)이 가장 빈도가 높았고, 뒤이어 무료 건강검진이 23.0%, 사업장 특수건강검진이 8.1%, 본인 부담 종합 건강검진이 7.9%로 조사되었다.

최근 1년간 응답자가 병의원에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한 경우는 10.5%로 조사되었고, 지난 조사와 비교해보면 가지 못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018년에 23.2%, 2021년에 16.1%로 꾸준히 감소세를 나타내었다. 병의원을 이용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로'(51.9%), '시간이 없어서(원하는 시간에 문을 열지 않아서, 직장 등을 비울 수 없어서,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등)'(44.7%), '병의원 등에 예약하기 힘들어서'(2.7%) 순으로 나타나 한부모 중 상당수가 시간 및 경제적인 이유로 병의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건강행태와 관련하여 규칙적인 운동(예: 걷기, 등산, 헬스 등) 수행 여부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8.3%가 현재 규칙적인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일주일에 1번 이상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다는 응답은 51.7%로 집계되었다. 집단별로 규칙적인 운동의 현황을 살펴보면,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한부모의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가구 구성이 모자가구인 경우, 막내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종사상 지위는 상용근로자를 제외하고 임시/일용근로자,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 비취업자인 경우, 정부지원유형은 저소득 지원가구인 경우, 소득수준이 100~200만원이거나 200~300만원 미만의 집단인 경우, 한부모가 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높게 나타났다.

2) 주거 및 주거환경

거주 중인 집의 형태에 대해 질문한 결과, 보증금 있는 월세로 살고 있다는 비율이 24.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기집(자가)가 23.6%, 공공임대가 19.4%, 전세가 19.2%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가 점유율이 57.5%로 나타난 「2022년도 주거실태조사」의 수치와 비교하면, 한부모가구의 자가 마련 수준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주거 안정성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전의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한부모가족의 자가 비율은 2018년에 24.1%, 2021년에 20.7%로 소폭 감소했다가 2024년에 다시 증가해 2018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전세를 꼽은 비중은 2018년 대비 2.8%p 증가했고, 월세 비중은 2.2%p 증가한 반면 공공임대는 5.1%p 감소하였다.

8개 영역(공간의 적정성, 통풍 및 채광, 난방, 방음, 생활편의시설, 대중교통 접근성, 교육환경, 치안)으로 분류하여 주거환경을 살펴본 결과, '대중교통 접근 용이'는 2021년에 2.9점, 2024년에는 3.0점으로 유일하게 상승한 문항이었고, 나머지 영역은 지난 조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한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정부의 주거지원정책 중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경험에 대해 살펴본 결과, 2024년 기준으로 제도를 알지 못한다는 비중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이 31.6%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이 31.%로 나타났고, '주거비 지원'이 13.8%, 공공주택 지원이 13.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난 조사들과 결과를 비교했을 때 제도를 모른다는 비중은 모든 제도에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공공주택 지원제도를 알고 있으나, 현재 이용하고 있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본 결과 '자기 집(자가), 전세 등으로 이용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26.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입주신청 절차가 어려워서'가 22.9%, '신청자격을 충족

하지 못하였거나 심사에서 탈락해서'가 19.8%, '직장 또는 자녀들의 학교와 거리가 멀어서'가 10.2%를 차지하였다. 지난조사와 비교해보았을 때, '직장 또는 자녀들의 학교와 거리가 멀어서', '공공임대주택단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좋지 않아서',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 관리비를 낼 형편이 못 되어서'의 응답은 2018년 대비 2024년 조사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다.

사. 일상생활 및 사회적 지지

한부모가족의 일상생활 및 사회적 지지망과 관련된 주요 분석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부모가 된 후 달라진 점을 경제적 어려움, 부와 모의 역할 혼자서 감당, 형제/자매/친척과 멀어짐, 건강상태 악화, 미래에 대한 부담 증가, 자녀와 긴밀해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6개 항목의 평균을 비교해보면, '부와 모의 역할을 혼자서 감당'(4.0점), '미래에 대한 부담 증가'(3.8점), '경제적 어려움'(3.6점). '자녀와 긴밀해짐'(3.5점) 순으로 평균이 높게 나타나 홀로 자녀 돌봄과 경제적 부담 등을 동시에 감당해내야 하는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1년 조사와 비교할 때, '경제적 어려움', '부와 모의 역할을 혼자서 감당', '미래에 대한 부담 증가', '자녀와 긴밀해짐' 등에 대한 어려움의 체감에 변화가 거의 없어 한부모 가족의 가족생계와 돌봄의 이중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 사회적 지지망과 관련해서는 집안일 관련(60.2%), 돈이 필요할 때(50.4%), 본인이 아플 때(67.7%), 아이가 아플 때(67.6%), 생활 관련(47.3%) '부모 및 친인척'으로부터 도움을 구하는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한편, 사회적 지지망이 부재한 한부모 가도움을 구할 수 있는 기관이나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항목별로 20~40%대로 이전 조사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사회적 지지망이 부재한 한부모가족이 상당히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항목별로는 집안일 관련해서는 36.9%, 돈이 필요할 때에는 44.6%, 본인이 아플 때에는 26.3%, 아이가 아플 때에는 26.0%, 생활관련은 28.8%의 응답자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돈이 필요할 때와 집안일 관련해서 도움을 구할 곳이 없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셋째, 한부모 본인과 자녀의 차별 경험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한부모 본인과 자녀에 대한 모든 항목의 응답에서 차별을 받지 않았다(전혀 차별을 받지 않았다+차별을 받지 않은 편이다)고 응답한 비율이 90% 이상이며, 이전 년도 조사결과(2018년 및 2021년)와 비교할 때 크게 개선되어 한부모가족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적 차별 분위기가 많이 완화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우선, 본인의 경우, 5개 생활영역에서

본인이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네나 이웃주민으로부터 차별('21년 20.0% → '24년 5.5%), 학교나 보육시설에서 차별('21년 21.1% → '24년 5.7%), 가족 및 친척으로부터 차별('21년 17.9% → '24년 5.9%), 직장/일터에서 차별('21년 16.2% → '24년 3.5%), 공공기관에서 차별('21년 15.2% → 3.4%), 모든 항목에서 감소하였다. 자녀에 대한 응답에서도 동네나 이웃주민으로부터 차별('21년 22.1% → '24년 5.4%), 학교나 보육시설에서 차별('21년 19.2% → '24년 6.5%), 가족 및 친척으로부터 차별('21년 15.2% → '24년 3.8%), 모든 항목에서 차별 경험에 대한 응답이 감소하였다.

아. 정책욕구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한부모들의 정책수혜 경험 및 탈수급 요인, 정책욕구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기초생활보장 지원 수급과 관련된 주요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부모 가족의 기초생활보장 지원 수급 경험과 관련해, 지원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8년 32.8% → 2021년 45.8% → 2024년 53.8%로 점차적으로 수혜율이 증가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금년도 조사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제도를 알고 있으나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8년 52.7% → 2021년 41.9% → 37.5%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를 종합해 보면, 한부모 가족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인식과 수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둘째, 한부모 가족이 지원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중 교육급여의 비율이 87.5%로 가장 높았고, 주거급여(73.3%), 생계급여(37.9%), 의료급여(36.2%) 순으로 수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교육급여(2021년 89.8% → 2024년 87.5%)와 주거급여(2021년 74.2% → 73.3%) 수혜율은 2021년 조사결과에 비해 1%p 내외의 소폭 증가/감소하는 수준으로 변화하였고, 생계급여는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그 수혜율이 증가해 금년도 조사에서는 그 수혜율이 37.9%로 2021년 조사 결과(32.4%)에 비해 5.5%p 다소 상승하였다. 반면, 의료급여의 경우, 2018년 이후 감소해오다가, 금년도 조사에서는 36.2%로 2021년 직전조사 응답률(57.9%)과 비교해도 21.7%p나 감소하였다.

셋째, 기초생활보장 지원 탈수급 예상 기간에 대한 응답에서는 '계속 지원받아야 할 것이다'로 응답한 비율은 44.2%로 2021년의 44.7%에 비해 매우 소폭 감소했을 뿐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반면, '5~10년 이내'로 응답한 비율은 23.3%로 2021년에 17.9%에 비해 5.4%p 증가하였고, '1~3년 이내'(2021년 5.7% → 2024년 5.2%)나 '3~5년

이내'(2021년 11.7% → 2024년 8.5%)의 경우 소폭 감소하여 2024년 조사에서의 탈수급 전망이 더 부정적으로 전망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과 관련된 주요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은 경험을 살펴보면 '현재 지원받고 있다'는 응답률이 59.8%로 이전의 조사결과 상 응답률('18년 25.4%, '21년 30.7%)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제도를 알고 있으나 받은 적 없음'과 '제도를 알지 못함'으로 응답한 비율은 각각 28.6%와 6.5%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를 종합할 때,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대한 인식과 수혜 모두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탈수급에 대해 질문한 결과, '계속 지원 받아야 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3.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10년 이상'(23.7%), '5~10년 이내'(19.0%), '3~5년 이내'(8.3%), '1~3년 이내'(4.7%) 순이었다. 이전 년도 조사와 비교할 때, '계속 지원받아야 할 것이다'라는 응답한 비율('21년 37.0% → '24년 43.9%)과 '10년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21년 21.7% → '24년 23.7%)이 모두 증가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탈지원에 대한 전망이 다소 더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셋째, 탈수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 받고 싶은 정책 내용으로는 '주거 관련 지원'이 응답률 36.3%로 제일 수요가 높았고, 그 다음으로 '자녀 교육비 지원'(28.5%)과 '양육비 지원'(26.8%)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특히 '주거관련 지원'의 경우, 2018년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수요가 증가·높게 지속되고 있으며, 자녀 교육비 지원과 양육비 지원 역시 2~3순위로 높은 응답률이 지속되고 있는 항목들로 지원 지속에 대한 정책수요가 높았다.

넷째,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불편 사항과 관련해서는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찾기 어렵다'는 응답률이 47.3%로 제일 높았는데, 관련 정보를 습득하는 경로를 살펴보면 '구청/주민센터'(45.6%), 인터넷/온라인 카페(23.6%), 여성가족부 홈페이지(12.5%) 순으로 많이 응답되고 있어 구청/주민센터 및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될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다섯째, 한부모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지원에 대한 1순위 응답은 '생계비, 양육비 등 현금지원'이 66.9%로 가장 높았고, 2021년 조사(60.0%)와 비교할 때도 가장 큰 증가폭(6.9%p)을 보여 높은 정책수요가 존재하는 항목임을 확인하였다. 한편, 2순위 응답에서는 '시설/임대주택 등 주거지원'이 29.9%로 가장 응답률이 높았는데, 2018년 조사 이후로 높은 응답률이 증가·지속되는 추세의 항목으로서 주목 필요하다.

Ⅲ

한부모가족지원 정책개선방향

1. 한부모가족지원 정책현황 423
2. 정책개선방향 466

1. 한부모가족지원 정책현황[20]

한부모가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저소득층에 속하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의 대상자가 되기도 하며, 여성가족부에서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등 특화된 사업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한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자녀돌봄서비스 지원, 현금 급여 지원, 양육비이행 지원, 직업훈련·교육 및 고용지원, 주거지원, 건강 및 상담서비스 지원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가. 자녀돌봄서비스 지원

1) 보육·유아교육서비스 지원

정부는 아동보육 지원과 관련하여 다양한 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0세에서 5세까지의 아동이 있는 가구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정규근로 시간과 관련된 보육뿐만 아니라 야간과 24시간 보육과 관련하여서도 지원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8; 김은지 외, 2018: 439). 이외에도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의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통해서 한부모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최근의 영유아보육과 관련된 정부의 지원은 2000년 초반과 비교해 크게 개선되어, 홀로 생계를 책임지며 아동을 키우는 한부모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2024년 기준 보육료 지원에 대해 살펴보면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연령이나 이용 중인 어린이집의 유형별로 정해진 지원단가에 따라 보육료가 지원된다. 이와 함께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방과후 보육료가 지원되기도 하며,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는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된다.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조금 더 높은 정도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

20) 본 절의 내용은 『2012 한부모가족 실태조사』(김은지 외, 2013)와 『2015 한부모가족 실태조사』(김은지 외, 2015), 『2018 한부모가족 실태조사』(김은지 외, 2018)의 제Ⅲ장을 최신화하고 보완한 것이다.

〈표 Ⅲ-1-1〉 보육료 지원 개요

■ 지원대상: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급여종류 및 지원금액

- 0~5세 보육료: 어린이집 이용 0~5세(소득수준 무관), 지원단가에 따라 지급

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적용시기)	지원단가		
				종일반	야간	24시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0~5세	100%	0세반 ('24.1.1~)	540,000	540,000	810,000
			1세반('24.1.1~)	475,000	475,000	712,500
			2세반('24.1.1~)	394,000	394,000	591,000
			3~5세반('24.1.1~2.29.)	280,000	280,000	420,000
			3~5세반('24.3.1~)	280,000	280,000	420,000

- 장애아 보육료(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 대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 따른 예외적 지원도 가능)
  - 지원단가:
    - ✔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587,000원
    - ✔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액(2세반 이하는 정부지원단가, 3세반 이상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 다문화 보육료(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0세~5세아 대상)
  - 지원단가: 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 방과후 보육료(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 일반아동: 월 10만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방비)
    출석일수를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지원(출석일수가 0일인 경우 미지원
    (※ 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 출석일로 미산정)
  - 장애아동
    - ✔ 교사 대 아동비율 1:3 준수 및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 장애아보육료의 50%(293,000원)(국비+지방비)
    - ✔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월 10만원,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지원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 야간연장 보육료: 시간당 4,000원, 장애아동은 5,000원(지원한도: 월 60시간)
  - 야간12시간 보육료: '0세반~5세반 보육료 단가표' 참조
  - 24시간 보육료: '0세반~5세반 보육료 단가표' 참조
  -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0~5세 부모보육료×휴일보육일수/해당 월 보육가능일수)
    ※ 휴일어린이집으로 미지정된 경우에는 지원금액(월 기준)의 150% 지원

- 가정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
  - 지원단가: 월령별로 10~20만원 월 정액지원(월·인)

자료: 보건복지부(2024b),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pp.330~366.

또한 보육료 지원과 발맞추어 유치원 이용비용에 대한 지원 확대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2012년 5세 누리과정이 도입된 이후, 현재는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학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상아동의 연령이나 이들이 다니고 있는 기관의 유형에 따라서 유아학비(유치원) 또는 보육료(어린이집)가 지원되며, 방과후 과정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충족하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유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유아학비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표 Ⅲ-1-2〉 유아학비 지원제도

〈유아학비 지원제도〉

■ 지원대상: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단,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 지원연령 및 금액
- 유아학비 및 방과후 과정비 지원

('21.3.1부터 적용)

구분	연령	지원액(원/월)		
		국·공립 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유아학비(유치원) 보육료(어린이집)	5세	100,000	280,000	280,000
	4세			
	3세			
방과후 과정비	만 3~5세	50,000	70,000	70,000

-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구분	자격	지원액(원/월)	비고
저소득층 유아학비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충족하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유아	월 최대 200,000	유치원 원비에 대한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신청: 유아학비 및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대상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

■ 지원금지급: 학부모 인증·신청에 따라 교육청→유치원 입금
- (유아학비·방과후 과정비) 학부모 인증을 거쳐 매월 또는 분기별 지급

자료: 교육부(2024a), 『2024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5세 추가지원 포함)』, pp.1-14.

2) 아이돌봄 지원

정부는 가구평균소득 이하이면서 생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위해서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서 정부지원금 비율과 본인부담 비율에 차이가 있는데, 저소득 한부모가족이나 그 외 한부모가족에게 서비스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고 있다.

그 가운데 '시간제서비스'에 대해 살펴보면 학교, 보육시설 등 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기본형서비스)를 비롯하여 아동과 관련한 가사(종합형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돌봄과 관련한 활동 이용을 지원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연 960시간 이내 시간당 기본요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의 정도가 다르다. 아울러 중증장애 부모의 자녀 또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는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제도가 달리 설계되어 있다.

생후 3개월 이상~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아종일제서비스'도 존재하는데 해당 서비스는 월 80시간~월 200시간 이내에서 서비스 비용의 일정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비율이 차등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영아종일제서비스는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지원이 이루어진다. 또한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비율이 더욱 높은 정도로 설정되어 있기도 하다.

이와 함께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에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는데 이는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도가 설계되어 있다. 해당 제도 또한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의 정도(가구의 부담정도)가 다르며, 이 또한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비율이 더욱 높게 설계되어 있다.

〈표 Ⅲ-1-3〉 아이돌봄 지원사업

■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 총 722,996,743천원(국비: 466,518,346천원, 지방비: 256,478,397천원)

〈시간제서비스〉

■ 지원대상: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이용 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돌봄 활동 범위

1) 기본형 서비스: 학교, 보육시설 등 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2) 종합형 서비스: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 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정부지원
- 정부가 연 960시간 이내 시간당 기본요금의 일부를 지원
  (단, 중증장애 부모의 자녀 대상 정부지원시간은 1,080시간)
-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다'형)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적용대상: 일반가정】

유형	기준 중위소득	기본형(시간당 11,630원)				종합형(시간당 15,110원)			
		A형		B형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886원 (85%)	1,7444원 (15%)	8,723원 (75%)	2,907원 (25%)	9,886원	5,224원	8,723원	6,387원
나형	120% 이하	6,978원 (60%)	4,652원 (40%)	3,489원 (30%)	8,141원 (70%)	6,978원	8,132원	3,489원	11,621원
다형	150% 이하	2,326원 (15%)	9,304원 (85%)	1,745원 (15%)	9,885원 (85%)	2,326원	12,784원	1,745원	13,365원
라형	150% 초과	-	11,630원 (100%)	-	11,630원 (100%)	-	15,110원	-	15,110원

【적용대상: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유형	기준 중위소득	기본형(시간당 11,630원)				종합형(시간당 15,110원)			
		A형		B형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0,467원 (90%)	1,163원 (10%)	9,304원 (80%)	2,326원 (20%)	10,467원	4,643원	9,304원	5,806원
나형	120% 이하	6,978원 (60%)	4,652원 (40%)	3,489원 (20%)	8,141원 (80%)	6,978원	8,132원	3,489원	11,621원
다형	150% 이하	2,326원 (20%)	9,304원 (80%)	1,745원 (15%)	9,885원 (85%)	2,326원	12,784원	1,745원	13,365원
라형	150% 초과	-	11,630원 (100%)	-	11,630원 (100%)	-	15,110원	-	15,110원

【적용대상 : 청소년부모·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유형	기준 중위소득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시간당 11,630원)		종합형(시간당 15,110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0,467원 (90%)	1,163원 (10%)	10,467원	4,643원
나형	120% 이하	10,467원 (90%)	1,163원 (10%)	10,467원	4,643원
다형	150% 이하	10,467원 (90%)	1,163원 (10%)	10,467원	4,643원
라형	150% 초과	-	11,630원 (100%)	-	15,110원

〈영아종일제서비스〉

■ 지원대상: 생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
- 정부지원 시간: ('가~다'형) 월 80시간 ~ 월 200시간 이내 지원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다'형)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 서비스 가격 및 본인부담금: (기본) 11,630원 / 시간

【적용대상 : 일반가정】

유형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서비스(시간당 11,630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886원 (85%)	1,744원 (15%)
나형	120% 이하	6,978원 (60%)	4,652원 (40%)
다형	150% 이하	2,326원 (20%)	9,304원 (80%)
라형	150% 초과	-	11,630원 (100%)

【적용대상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유형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서비스(시간당 11,630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0,467원 (90%)	1,163원 (10%)
나형	120% 이하	6,978원 (60%)	4,652원 (40%)
다형	150% 이하	2,326원 (20%)	9,304원 (80%)
라형	150% 초과	-	11,630원 (100%)

【적용대상 : 청소년부모·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유형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서비스(시간당 11,630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0,467원 (90%)	1,163원 (10%)
나형	120% 이하	10,467원 (90%)	1,163원 (10%)
다형	150% 이하	10,467원 (90%)	1,163원 (10%)
라형	150% 초과	-	11,630원 (100%)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신청사유: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정부지원금 중복지원 금지의 예외)
- 돌봄 대상: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12세 이하 아동
- 서비스 가격 및 본인부담금: (기본) 13,950원 / 시간당
- 정부지원
  - ○ A형('가', '나'), B형('가') : 이용가정이 정부지원 방법 선택(① 또는 ②)
    - ① 정부지원시간 차감 적용 : A형('가' 85%, '나' 60%), B형('가' 75%) 요금 적용
    - ② 정부지원시간 차감 미적용 : A형·B형 공통 정부지원율 50%
  - ○ A형('다', '라'), B형('나', '다', '라') : 정부가 기본요금의 50%를 지원
  - ○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다'형)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적용대상: 일반가정】

유형	기준 중위소득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시간당 13,950원)			
		A형(2017.1.1. 이후 출생)		B형(2016.12.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1,858원 (85%)	2,092원 (15%)	10,463원 (75%)	3,487원 (25%)
나형	120% 이하	8,370원 (60%)	5,580원 (40%)	6,975원 (50%)	6,975원 (50%)
다형	150% 이하	6,975원 (50%)	6,975원 (50%)	6,975원 (50%)	6,975원 (50%)
라형	150% 초과	6,975원 (50%)	6,975원 (50%)	6,975원 (50%)	6,975원 (50%)

【적용대상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유형	기준 중위소득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시간당 13,950원)			
		A형(2017.1.1. 이후 출생)		B형(2016.12.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2,555원 (90%)	1,395원 (10%)	11,160원 (80%)	2,790원 (20%)
나형	120% 이하	8,370원 (60%)	5,580원 (40%)	6,975원 (50%)	6,975원 (50%)
다형	150% 이하	6,975원 (50%)	6,975원 (50%)	6,975원 (50%)	6,975원 (50%)
라형	150% 초과	6,975원 (50%)	6,975원 (50%)	6,975원 (50%)	6,975원 (50%)

【적용대상 : 청소년부모·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유형	기준 중위소득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시간당 13,950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2,555원 (90%)	1,395원 (10%)
나형	120% 이하	12,555원 (90%)	1,395원 (10%)
다형	150% 이하	12,555원 (90%)	1,395원 (10%)
라형	150% 초과	6,975원 (50%)	6,975원 (50%)

자료: 여성가족부(2024a), 『2024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안내』, pp.63-65, pp.65-68, pp.69-71.

3) 가정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양육수당이 제공되기도 한다. 가정양육수당의 경우 월령별로 10~20만원 월 정액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어촌 양육수당과 장애아동 양육수당이 조금 더 높게 설계되어 있다.

〈표 Ⅲ-1-4〉 가정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

■ 지원금액: 월령별로 10~20만원 월 정액지원(월·인)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연령(개월)		연령(개월)		연령(개월)	
24~35	100천원	24~35	156천원	24~35	200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36~47	129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 지원기간: 시·군·구가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한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 취학유예한 경우에도 원래 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

자료: 보건복지부(2024b),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pp.358-360.

4) 초등돌봄지원

(1)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동복지법』 제50조~제52조, 제54조~제75조(설치근거 제52조제1항 제8호)에 근거하여 설치된 시설이다(보건복지부, 2024c: 2).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등), 교육 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적 지원(상담·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등으로 지역사회 내

아동돌봄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이나 종사자에 대한 기준 등이 법에 의해 정해져 있다.

이용아동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시설별 신고정원의 50% 이상은 우선돌봄아동이어야 하며, 일반아동은 50% 범위 내에서 등록이 가능(다만, 시군구청장은 지역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다음의 범위 내에서 임의구역 등으로 구분하여 일반아동 등록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음)하다(보건복지부, 2024c: 39).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지만 일반아동에 한해 지역여건 및 시설별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시설장이 매년 운영위원회와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거쳐 수납 가능한데 이용료는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수납 가능하며, 해당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비로 사용 가능하다. 이 경우 반드시 시설회계 세입처리 및 해당 아동의 이용료 책정 근거, 월별 수납액을 운영비 신청 시에 지자체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보건복지부, 2024c: 157).

〈표 Ⅲ-1-5〉 지역아동센터

■ 지원대상 시설
-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신고된 지역아동센터로서 24개월 이상 운영 시설 중 정기평가(신규시설)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

■ 지원내역
-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등), 교육 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적 지원(상담·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등으로 지역사회 내 아동돌봄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 제공

■ 이용료: 1) 이용아동의 지역아동센터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함.
2) 다만, 일반아동에 한해 지역여건 및 시설별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시설장이 매년 운영위원회와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거쳐 수납 가능

가) 이용료는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수납 가능하며, 해당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비로 사용 가능
나)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설회계 세입처리 및 해당 아동의 이용료 책정 근거, 월별 수납액을 운영비 신청 시에 지자체에 보고

자료: 보건복지부(2024c), 『2024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 p.2, p.157.

(2) 초등돌봄교실

초등돌봄교실은 핵가족화 심화, 여성경제활동 인구 증가 등 양육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차 증가하였고, 영유아 보육 지원에 비해 초등학생 대상 돌봄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방과 후·방학 중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유기적 협력과 연계를 통해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되기 시작하였다(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및 17개 시·도교육청, 2023: 15).

2004년 초등 저학년 '방과후 교실' 도입 정책이 발표되고 시범운영('04년, 28개교)이 이루어진 후 2009년에는 종일돌봄교실'(초등보육교실을 야간까지 운영)이 시범운영('09년, 300개교)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2010년부터는 초등보육교실을 '초등돌봄교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확대되었으며, 2014년에는 초등학교 1~2학년 희망학생 대상 돌봄교실이 운영(10,966실)되기 시작하였다. 2017년에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이 국정과제로 확정('17년 7월)되었으며, 코로나19 관련 긴급돌봄 운영('20년 3월~) 등 돌봄이 크게 필요한 상황에서 큰 역할을 하였다. 이후 교육과 돌봄의 통합 제공(늘봄학교)을 위해 '늘봄학교 추진으로 부모의 교육부담 대폭완화'가 국정과제로 확정('22년 5월)되었으며, 2023년 1월에는 '늘봄학교 추진 방안'이 발표된 후 2023년 3월부터는 늘봄학교가 시범운영되고 있다(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및 17개 시·도교육청, 2023: 16).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가정·저소득층가정·한부모가정·다자녀가정·다문화가정·담임추천대상자 등의 학생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학교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기준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이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운영비용과 관련해서는 간식과 급식의 경우 교육비 지원대상 학생은 전액 무상, 그 외에는 수익자 부담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매일 1개 이상의 무상프로그램 이외에 학부모가 별도로 돌봄교실에서 수익자 부담으로 추가 제공을 원하는 경우 유상 제공할 수 있는데 이 또한 교육비 지원 대상 학생의 경우에는 전액 무상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표 Ⅲ-1-6〉 초등돌봄교실

■ 대상 학생:

프로그램명	대상 학생
아침돌봄교실	이른 등교로 정규수업 이전 돌봄이 필요한 초등 1~6학년 희망 학생
오후돌봄교실	초등 1~2학년 위주에서 초등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하고 학부모 수요 및 학교 여건에 따라 대상 학년 선정 ● 맞벌이가정·저소득층가정·한부모가정·다자녀가정·다문화가정·담임추천대상자 등의 학생을 중심으로 운영
저녁(연장)돌봄교실	1~6학년(오후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연계형(틈새) 돌봄교실에 참여한 학생 중 추가 돌봄이 필요한 학생)
방과후학교 연계형(틈새)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1개 이상 참여하면서, 오후돌봄교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학생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이라도 돌봄이 필요한 '틈새' 시간 동안 방과후학교 연계형(틈새)돌봄교실에 입급 가능
방학 중 돌봄교실	1~6학년(학기 중에 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연계형(틈새) 돌봄교실에 참여한 학생 또는 방학 중 신규로 돌봄이 필요한 학생 등)

■ 운영 시간 및 장소

프로그램명	대상 학생
아침돌봄교실	■ 운영 시간: 학교 여건 및 대상 학생의 돌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규수업 전까지 운영 ■ 운영 장소: 오후돌봄 전용교실 및 특별실 ※ 학교 여건에 따라 운영 장소를 지정할 수 있음
오후돌봄교실	■ 운영 시간: 시·도여건 및 돌봄 수요 등을 고려하여 방과 후부터 17~19시까지 운영 권장 ■ 운영 장소: 오후돌봄 전용·겸용 교실
저녁(연장)돌봄교실	■ 운영 시간: 17시(또는 19시)부터 20시까지 운영 가능 ※ 학생, 학부모 수요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운영 시간 조정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22시까지 연장 운영 등), 지역돌봄기관과 연계 가능 ■ 운영 장소: 오후돌봄 전용·겸용교실
방과후학교 연계형(틈새) 돌봄교실	■ 운영 시간: 방과 후부터 17시까지 운영 ※ 학교 여건 및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시간에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 ■ 운영 장소: 돌봄 전용교실 또는 겸용교실(일반교실, 도서관, 특별실)
방학 중 돌봄교실	■ 운영 시간: 9시~17시 ※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은 학부모의 수요와 학교의 여건을 바탕으로 조정 ※ 오전부터 학기 중 돌봄 운영 시간까지 운영하는 것을 권장하되 학교의 여건 및 활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운영 장소: 오후돌봄 전용·겸용교실 및 방과후학교 연계형(틈새) 돌봄교실 ※ 수용 인원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한 장소를 적극 활용 가능

■ 운영비용

- 간식 및 급식: 교육비 지원대상 학생은 전액 무상, 그 외에는 수익자 부담 제공
- 프로그램 운영: 매일 1개 이상의 무상프로그램 이외에 학부모가 별도로 돌봄교실에서 수익자 부담으로 추가 제공을 원하는 경우 유상 제공할 수 있음(단, 교육비 지원 대상 학생은 전액 무상으로 제공)

자료: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및 17개 시·도교육청(2023), 「초등돌봄교실운영 길라잡이(개정판 2024)」, pp.43-55.

(3) 늘봄학교

정규수업 외 시간에 초등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과 돌봄 자원을 연계한 종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체제인 늘봄학교가 2024년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기존의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을 통합하고, 정규수업 외 시간에 초등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과 돌봄 자원을 연계한 종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체제로 '25년 초1~2학년부터 '누구나 이용' 대상이 되며, '누구나 이용' 학년은 2026년부터 모든 초등학생으로 확대가 예정되어 있다. 2025년 기준 초등학교 3~6학년은 선택형 프로그램(기존의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다(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및 17개 시·도교육청, 2025).

2025학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1~2학년에게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매일 2시간(차시) 무상 제공되는데 이는 저학년의 성장·발달에 맞는 재미있고 다양한 프로그램(학교 적응 지원 및 놀이 중심의 예·체능, 사회·정서 등)으로 기획되어 있다.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는 사교육과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미래역량 함양, 진로탐색(신체·건강·체육 활동, 문화·예술 활동, 사회·심리·정서 활동, 창의·과학 활동, 디지털·AI교육 활동, 기후·생태·환경 활동, 기초학습 활동, 진로 탐색 활동 등) 등 양질의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늘봄학교는 학교에 늘봄학교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인 「늘봄지원실」을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늘봄 프로그램은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내용으로의 편성·운영은 금지되고 있다(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및 17개 시·도교육청, 2025).

늘봄학교의 비전 및 목표 등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자료: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및 17개 시·도교육청(2025), p.23. p.25.

[그림 Ⅲ-1-1] 늘봄학교의 '비전 및 목표', '늘봄학교 한눈에 보기'

(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초등 4학년~중등 3학년의 청소년 가운데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 활동·복지·보호·지도 등을 통해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가정의 사교육비 경감 및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전국 355개소(2024년 1월 기준)에서 운영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4b: 20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가정·2자녀 이상 가정·맞벌이 가정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순위 지원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활동·복지·보호체계 역할을 수행하고자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청소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및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이의 운영시간은 방과후~21시로 주 5~6일 운영되고 있다.

〈표 Ⅲ-1-7〉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지원대상: 초등 4학년 ~ 중등 3학년

대상구분		지원대상
일반형	우선순위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가정·2자녀 이상 가정·맞벌이 가정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기타 지원대상	학교(교장·교사), 지역사회(주민센터 동장·사회복지사 등)의 추천을 받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에서 승인받은 청소년
주말형	지원대상	주말 돌봄 및 체험활동이 필요한 청소년(지원대상 구분 없음)

※ 지역 수요에 따라 (초등) 예비 초4(초3)/ (중등) 예비 중1(초6) 참여 가능(10월부터)

■ 운영형태: 지역 특성에 적합한 운영유형을 선택: 기본형, 농산어촌형, 장애형, 다문화형, 탄력운영형, 주말형

■ 시설 설치요건: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및 지자체·교육(지원)청 관할 공공시설, 민간운영시설 등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시설내 설치

■ 지원 내역

○ 운영시간: 방과후~21시, 주 5~6일 운영

○ 운영기간: 1월~12월

대상구분	지원내역
일반형	• 일 4시수, 주 5~6일 운영(주중 및 토요일 운영 권장) • 주중 활동(월~금): 1주 20시수 이상 (급식 5시수 의무, 그 외 프로그램의 편성은 기관 자율 편성) • 주말활동(토요일): 반기별 2회 이상(급식포함 5시수 이상)
주말형	• 일 5시수, 주말 1~2일(토~일) 운영(연간 70일 이상) • 학교 방학기간 중 평일 운영 가능

* 단, 급식시수 30분~1시간 내 탄력운영 가능

자료: 여성가족부(2024b), 『2024년 청소년사업 안내(Ⅰ)』, pp.201-210.

나. 현금급여 지원

1)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한국에서 저소득층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을 꼽을 수 있다(김은지 외, 2018: 446). 이는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가구단위 보장(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대상자가 되는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동시에 고려하여 산정되게 된다. 이와 함께 부양의무자(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등)의 부양능력도 함께 고려되는데 생계급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21.10.1.)되었으나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원(월 소득 834만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의료급여 등 각종 급여를 일괄 제공하여, '빈곤의 덫'의 문제를 가져온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이에 2015년 8월부터는 각 급여가 비교적 독립적으로 운용, 지급되는 '맞춤형 급여' 체계로 전환되었다. 이와 같은 전환에 따라 수급자 선정 기준도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 대비 비율로 변화하였고, 실질적으로 생계급여와 분리되지 않아 현금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지던 주거급여의 현물급여로서의 성격이 강화되었다(김은지 외, 2018: 44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Ⅲ-1-8〉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개요

- 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인정액 기준(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구분 \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2024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 \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4,257,497

② 부양의무자 기준: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부양능력 판정
(↳부양능력 없음: 수급자 선정 / 부양능력 미약: 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부양비 부과 / 부양능력 있음: 수급자 보장 불가)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에만 적용 / 생계급여('21.10. 폐지),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미적용)

• 급여 신청자에 대한 조사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1항]

(가)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조사대상여부
(나)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다)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라)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 급여의 종류 및 지원액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의료급여: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주거급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수급자의 가구원수, 거주 형태, 부담수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차수급자에게는 임차급여를 지급, 자가 수급자에게는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 비용을 상한으로 수선유지급여를 지급
- 교육급여: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지원비(교육급여 바우처),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지급
- 해산급여: 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지급(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장제급여: 수급자 사망 시 80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자료: 1) 보건복지부(2024d),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p.xii 및 pp.6-7.
2) 국토교통부(2024), 『2024년도 주거급여사업안내』, p.11.
3) 교육부(2024b), 『2024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 운영 방안 안내』, p.6.

2)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 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유지를 위해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4c: 166). 해당 지원에 대한 선정기준은 꾸준히 상향되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하였는데 2022년 10월 기준 중위소득 52%에서 58%로 상향되었고, 2023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의 60% 수준으로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소득기준이 높아졌다. 202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소득 한부모가족 증명서 및 복지급여 지원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63% 이하로 더욱 높아졌으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 연령 또한 18세 미만에서 고교재학자녀로 기준이 상향되었다. 이와 함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단가 인상(20만원 → 21만원)도 이루어지는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 등 지원 확대 노력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 등 지원사업의 급여별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Ⅲ-1-9〉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 등 지원 내용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1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지원비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자녀 1인당 연 9.3만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일시지원복지시설 포함)에 입소한 가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가구당 월 5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함.

자료: 여성가족부(2024c),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p.168.

한편 청소년한부모에게만 해당하는 사업도 존재하는데 청소년 한부모는 어른 한부모가 겪는 빈곤과 자녀양육·생계·가사 부담 외에 학업중단·취업훈련 부족 등과 같은 어려움도 느끼므로, 자녀 양육환경개선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필요성이 높다(여성가족부, 2024c: 178). 청소년 한부모 가구의 자녀양육환경 개선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2010년부터 신규 실시되었는데 제도 시행 초기에 비추어 꾸준히 지원금액과 지원폭이 상향되어 왔다.

그 가운데 최근의 확대를 살펴보면 2023년에는 지원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0%에서 65% 수준으로 상향하였고, 2024년에는 영아 육아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를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크게는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원대상 가구 및 지원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Ⅲ-1-10〉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현금급여)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 가구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4세 이하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 (0~1세 자녀) 월 40만원
- (2세 이상 자녀) 월 35만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 지원대상 가구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4세 이하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등

자료: 여성가족부(2024c),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pp.178-190.

다. 양육비이행 지원

비양육부모들의 양육비이행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은 200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우선 2007년, 2009년 두 차례의 민법 개정으로 협의 이혼 시 자녀양육사항 합의 의무화와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의무화가 도입되었다. 2009년에는 자녀양육비 직접지급명령과 담보제공명령을 주요내용으로 가사소송법이 개정되었고, 2012년에는 자녀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제정·공표되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한부모지원법」에 근거해 2007년부터 양육아동을 둔 이혼가족·미혼모부자 가족 등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및 이행확보 무료법률지원서비스를 시행해 왔으며, 2012년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법률구조단을 운영하였다(여성가족부, 2012; 김은지 외, 2018: 450).

이와 같이 법·제도 도입 및 개선으로 자녀양육비 이행제도가 점차 강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법원의 이행결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양육비 이행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4년)·시행(2015년)되면서,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 이행 전담기구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신설되어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김은지 외, 2018: 450).

〈표 Ⅲ-1-11〉 자녀양육비 이행 관련 법·제도 현황

연도	법령 및 제도	주요 내용
2007년	민법개정	협의 이혼시 자녀양육사항 합의 의무화
	여성가족부 무료 법률지원서비스 지원	•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이혼가족, 별거가족, 미혼모부자가족 등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을 대상 무료 지원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미혼부 상대 자녀 인지 청구소송 지원
2009년	민법개정	협의 이혼시 집행력 인정되는 양육비부담조성 작성의무화
	가사소송법 개정	• 가정법원이 재산명시명령 또는 재산조회 가능 • 가정법원이 사용자에 대해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 부여(직접지급명령) • 가정법원이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담보제공명령)
2012년	자녀양육비 산정기준표 제정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제정 및 공표
	여성가족부 법률구조단 발족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호사협회 공동으로 법률구조단을 발족해 운영 •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이혼가족, 별거가족, 미혼모부자가족 등 한부모가족 및 조손

연도	법령 및 제도	주요 내용
		가족을 대상으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미혼부 상대 자녀 인지청구소송 등 무료 지원
2014~ 2015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양육비이행관리원 설치('15.3.25)	•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양육비이행관리원' 설치
2016~ 2018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개정: 제14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15조(양육비 이행청구 및 조사) 등 • 본조신설: 제14조의2(긴급지원 종료 등), 제14조의3(긴급지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14조의4(비용환수) 등
2020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6.9.)	◇ 개정 및 신설 주요내용 가. 이행관리원의 장은 긴급지원을 한 경우 그 지급액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제14조제5항).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없이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신용정보·보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제1항 단서 신설). 다.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감치명령 결정이 있는 때에는 감치 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지원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의2 신설). 라.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수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양육비 전용 계좌 개설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제3항 신설). 마.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의3 신설).
2021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1.1.12.)	◇ 신설 주요내용 - 제21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1조의5(명단 공개)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21.1.12. 공포, '21.7.13. 시행)	•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출국금지 요청 및 명단공개 가능 •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가능

연도	법령 및 제도	주요 내용
2023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2.8.16. 시행)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으로 재혼한 경우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75% 이하로 확대 • 출국금지 요청 대상 확대(채무금액을 5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양육비 3기 이상 미납시 추가)
2024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24.3.26. 공포, '24.9.27. 시행)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으로 두었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된 기관으로 하여 그 역할과 책임을 강화 •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 강화(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대상을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 →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로 변경)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24.10.16. 공포, '25.7.1. 시행)	•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부·모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를 지급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 • 양육비 선지급금이 지급된 경우 양육비 채무자 본인 동의 없이 금융·신용·보험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자료: 여성가족부(2012),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안내』, pp.236-237; 김은지 외(2018), pp.450-451에서 재인용 및 여성가족부(2024c),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안내』, pp.6-12에서 재인용(2022년 및 2023년의 법령 개정 부분).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협의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는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 각각의 단계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을 일일이 찾아갈 필요 없이 이행관리원에 1회 신청만으로 종합지원 서비스가 가능하다(양육비이행관리원, 2024). 특히 최근 양육비이행법의 개정으로 그동안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이던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독립법인화되어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한 한부모 가정의 아동복리를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대상자 및 지원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Ⅲ-1-12〉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업 내용

• 지원대상: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기타 실질적 양육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취학중인 만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만 22세 미만 + 군 복무기간)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미혼모는 인지청구(자녀와 친부의 친자확인소송)부터 지원
  ※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모 미혼부도 지원
  ※ 저소득 취약 가정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경제적 안정을 위해 우선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단, 한부모/차상위/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 대상)

• 지원 서비스

① 법률지원: 한부모가족 자녀의 양육 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양육부·모가 법의 보호 아래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법률지원을 진행

② 추심지원: 양육비 채권자인 이혼·비혼 한부모가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채무자와의 원만한 합의진행 및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 가사소송법 상의 양육비 이행확보소송 등 양육비 추심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

③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행정 제재조치 지원: 양육비 미이행으로 인해 법원의 이행명령 또는 감치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행정 제재조치(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지원

④ 상담지원: 전반적인 양육비 문제에 대해 전화, 방문,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 진행

⑤ 양육지원: 가족센터와 협력하여 양육부·모, 비양육부·모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면접교섭 서비스 지원

⑥ 조사정보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능력을 확인하고 조사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채무자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송 및 채권추심에 필요한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근무지 조사 및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

⑦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25.6월)

⑧ 양육비 선지급제 :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18세까지) ('25.7월~)

자료: 양육비이행관리원(2024),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https://www.childsupport.or.kr/lay1/S1T10C11/contents.do)'. 및 여성가족부(2024d), '양육비이행지원 안내(https://www.mogef.go.kr/cs/opf/cs_opf_f101.do)'.

라. 직업훈련·교육 및 고용지원

1) 취업 및 직업훈련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으면 이용할 수 있는 취업 및 직업훈련 관련 지원제도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경력단절 여성, 청년 여성, 한부모 가족 대상 고용지원 및 직업훈련 서비스(여성가족부)' 등을 꼽을 수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경력단절 여성, 청년 여성, 한부모 가족 대상 고용지원 및 직업훈련 서비스' 등에서는 한부모가족에 대해 보다 완화된 요건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표 Ⅲ-1-13〉 취업 및 직업훈련 지원 제도

(1) 국민취업제도: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 도모

		요건심사형	선발형(비경제활동)	선발형(청년특례)
Ⅰ유형	나이	15~69세	15~69세	15~34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60% 이하	120%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15~34세 청년: 5억원 ↓)	합산 4억원 이하	합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취업경험무관
	지원내용: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부양가족수* 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차이가 발생) * 부양가족: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 [청년연령] 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Ⅱ유형	나이	특정계층(Ⅱ유형) 표 참조	15~34세(*)	35~69세
	소득	무관	무관	중위소득100% 이하
	재산	무관	무관	무관
	취업경험	무관	무관	무관
	지원내용: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청년연령] 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

* 특정계층(Ⅱ유형)

1. 기초생활수급자	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3. 북한이탈주민	4. 신용회복지원자
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6. 위기청소년
7. 구직단념청년	8. 여성가구주	9. 국가유공자	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1. 건설일용직	12.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13. 미혼모(부)·한부모
14. 청소년부모	15. 기초연금수급자	16. 영세자영업자	17. 산재 장해자
18.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19.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20.「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21.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22.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⑵ 국민내일배움카드

- ▸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⑶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 ▸ 금속, 동력, 전기, 전자 등 우리나라 중요 산업 분야에서 부족하거나 새로운 수요가 있는 직종에 대한 직업훈련 과정들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인력으로 성장 도모.
-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참여 가능
- ▸ 지원내용:
  - • 국민내일배움카드 일반직종 훈련과 달리, 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5년) 내에 1회에 한해 본인 부담금 없이 수강료 전액을 지원
  - • 안정적인 직장이 없고 140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매월 훈련장려금도 지급

⑷ 여성가족부의 경력단절 여성, 청년 여성, 한무모 가족 대상 고용지원 및 직업훈련 서비스

-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각종 경력단절 여성 대상 직업훈련 프로그램 및 고용지원 프로그램이 이에 해당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하여 공모하는 직업훈련 사업은 대부분 무료 직업훈련 사업들이며, 새로일하기센터에 직접 수강등록을 하고 과정을 선택하여 훈련 수강함)

자료: 1) 한국고용정보원(2024), '고용24' 누리집(https://www.work24.go.kr/ua/z/z/1300/selectEmssRqutIntro.do).
2) 대한민국정부(2024). '정부24' 누리집(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5007).
3) 여성가족부(2024e).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누리집(https://saeil.mogef.go.kr/hom/HOM_Main.do).

2) 청소년한부모 교육비 지원

2010년도 신설된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아동양육비 등 현금급여뿐 아니라, 검정고시학습비와 고교생교육비 등 교육비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김은지 외, 2018: 455). 고등학교 이하의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학력 취득 및 역량개발 기회를 지원하여,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청소년한부모를 위해서는 이들이 학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립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고등학교 학력취득 지원이 필요하나, 개인의 사정 등으로 인해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표 Ⅲ-1-14〉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교육비지원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지원대상:
○ (검정고시 학습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로서, 고등학교 및 이와 준하는 학력이 없고, 학업이 단절되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응시생
○ (재학생 학습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로서,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구(기초수급권자 포함)

■ 지원한도
- 가구별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내역
- 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교통비,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자격)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한도)	비고
검정고시를 준비 중인 청소년 한부모	학원비	월 30만원 이내 (실비지원)	연간 총 154만원 이내 지원
	교재비	연 20만원 이내 (실비지원)	
	학용품비	연 9.3만원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청소년 한부모	교통비	가구당 월 3만원	연간 총 154만원 이내 지원
	교복구입비	1회 50만원 이내 (실비지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꿈드림센터)〉

■ (지원대상) 학교밖 청소년
* ① 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②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③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 (지원내용) 상담, 교육* 지원, 직업체험 및 직업교육 훈련 지원, 자립지원 등
* 재취학, 재입학 등의 학교복귀 지원, 상급학교 진학 지원, 검정고시 지원 등
■ (문의처) 청소년전화(☎1388),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누리집(www.kdream.or.kr)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 (지원대상) 만 9~24세 이하 청소년 중 ①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② 학교 밖 청소년 ③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지원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생활지원, 건강지원), 중위소득 72% 이하(학업·자립·법률·상담·활동·기타지원)
■ (지원내용)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수업료, 학교운영비, 검정고시, 학원비),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활동지원, 기타 지원
■ (문의처) 청소년전화(☎1388),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자료: 여성가족부(2024c),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pp.184-185.

마. 주거지원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보장시설) 등의 지침에 의해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종사자의 자격이나 인건비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도록 관리되고 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는 출산지원시설, 생활지원시설, 일시지원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이 있으며, 시설에 따라서 지원내용 및 제공 서비스가 달리 운영되고 있다.

〈표 Ⅲ-1-15〉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별 지원내용

번호	시설별	지원내용 및 제공 서비스
1	출산지원시설	(가) 주거 및 식사 제공 (나) 분만의료 혜택 ○ 의료급여 대상자로 관리: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지원 대상자로 관리 ○ 지역 내 병원·보건소 등을 지정하여 산전·분만·산후에 필요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임신 및 출산 관련, 분만을 위한 병원 진료, 진료를 위한 병원이용료로서 의료급여 항목으로 적용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 미혼모 특수치료비 지원 ○ 미숙아를 분만하였을 경우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모와 아이의 질병 진단·치료·입원, 예방접종비 등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의료비 ○ 보장시설 수급자로 지정되었을 경우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 지급 가능 (다) 자립지원 ○ 직업교육, 학업지속(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운영, 검정고시 등) ○ 교양교육, 가사교육, 상담지도 등 (라) 자립지원 활동 중 양육공백 지원(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마)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연계 또는 정보제공)
2	양육지원시설	(가) 주거 등 생활 지원 (나) 자립프로그램 실시 ○ 직업교육: 시설 내에 교육과목이 없거나 비효율적인 경우 외부 훈련기관을 활용 ○ 양육교육, 가사교육, 교양교육, 상담지도 등 (다) 자립지원 활동 중 양육공백 지원(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라)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연계 또는 정보제공)

번호	시설별	지원내용 및 제공 서비스
3	생활지원시설	(가) 주거 등 생활지원 (나) 자립프로그램 실시 – 직업교육 연계, 양육·가사교육 등 자립준비 지원 – 교양교육, 상담지도 등 (다) 심리·정서적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라) 방과 후 아동지도, 아동급식비 지급 (마) 심리·정서적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바) 자립준비 활동 중 양육공백 지원(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사)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연계 또는 정보제공)
4	일시지원시설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숙식무료제공 – 자립프로그램 실시: 직업교육, 양육교육, 가사교육, 교양교육, 상담지도 등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연계 또는 정보제공)
5	일시지원복지시설	(가) 주거 및 식사제공, 생활보조금 지원(본 지침에 따름) (나) 의료혜택 : 의료급여 대상자로 관리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지원대상자로 관리 (다) 법률상담, 심리상담 (라) 퇴소 후의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 지원 (마)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지원 ○ 배우자의 면회 요청 시 입소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면회여부 결정 ○ 면회실, 경비실 등을 설치하여 외부인의 위협으로부터 보호 조치 (바) 자녀의 방과 후 지도, 아동급식비 지급 (사)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연계 또는 정보제공) (아) 자립지원 활동 중 양육공백 지원(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자) 학령아동이 인근학교에 출석을 원하는 경우에는 관련 교육기관과 협의, 수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조치(시설입소자 아동의 전·입학 문제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6항, 제73조제6항, 제89조제5항,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4 등 참조 ○ 시설입소증명 등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구비하여 교육장에게 전·입학을 신청 (차)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가능

자료: 여성가족부(2024c),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pp.236-24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한 생활시설은 무료숙식 혹은 무료로 주거공간이 제공된다는 특성이 있으며, 시설에 거주하면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다(김은지 외, 2018: 457). 다음표에는 각 시설의 수혜 대상과 거주기간, 입소정원이 제시되어 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거주기간은

6개월에서 최대 5년까지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부모에게 일시적으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표 Ⅲ-1-1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개요

(2023년 12월 말 기준 총 130개소(생활시설 121개소, 이용시설 9개소))

시설유형	시설수	입소대상 및 기능	입소기간 (연장가능 기간)	입소정원
출산지원시설	24	임신한 한부모와 출산 후(1년 이내) 한부모 및 그 자녀(3세 미만)에게 건강관리,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서비스 집중 지원	1년 6월 (6월)	536명
	2	출산 후 해당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	2년 (1년)	15명
양육지원시설	38	6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에게 자녀 양육 관련 서비스 집중 지원	3년 (1년)	314세대
생활지원시설	48	18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가족에게 주거와 자립을 지원	5년 (2년)	1,043세대
일시지원시설	9	배우자의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 양육과 모 또는 부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한부모가족	6월 (1년)	228명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9	한부모가족에 대한 위기·자립상담 및 문제해결 지원	이용시설	

*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

자료: 여성가족부(2024c).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p.235.

〈표 Ⅲ-1-17〉 지역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수

(단위: 개소)

	출산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	생활지원시설	일시지원시설	한부모가족복지 상담소 (이용시설)
계	26 (2)	38	48	9	9
서울	7 (1)	10	8	1	3
부산	2	1	6	-	-
대구	1	2	5	1	-
인천	1	3	3	1	-
광주	1	3	2	-	-
대전	1	3	1	1	1
울산	1	1	1	1	-
경기	4	5	2	1	2
강원	1	1	1	-	-
충북	-	1	2	-	2
충남	1	1	2	-	-
전북	1	1	5	1	-
전남	1	2	2	-	-
경북	1	1	6	-	-
경남	1	2	2	1	-
제주	2 (1)	1	0	1	1

* 괄호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 후단(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 시설

자료: 여성가족부(2024c).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pp.264-265.

2) 저소득한부모가족을 위한 주거지원: 공공임대 주택 공급

일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도 있다. 지원유형을 크게 나누어 살펴보면 주거 수요자 보조의 측면과 공공임대 주택 공급의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Ⅲ-1-18〉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구 분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총소득의 5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총소득의 70% 이하
지원 유형	수요자 보조	주거급여 (임차, 자가)	주거안정 월세 대출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버팀목 대출 (전세자금 대출 지원)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공공임대 주택 공급	영구임대, 다가구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대학생, 소년소녀 가정 등)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 주거안정 월세 대출의 경우, 실제 임차료에서 주거급여 지원금액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원 가능
자료: 국토교통부(2024), 『2024년도 주거급여 사업안내』, p.6.

이러한 공공주택 형태 중에서 가용할 수 있는 현금자원이 거의 없는 한부모들에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정책은 공공분양 또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실제로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공공(임대)주택의 우선입주 대상자에 해당되며, 입주자격을 유지할 경우 계속 거주가 가능하다(김은지 외, 2018: 460). 또한 매입임대 형태인 기존주택 전세임대와 기존주택 매입임대 제도에서 한부모가족은 일정 요건을 하에서 지원 우선순위 자격을 부여하기도 한다.

〈표 Ⅲ-1-19〉 저소득한부모가족 주거지원

〈공공주택 지원(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도시공사)〉

■ 지원대상: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계 법령상 자격요건을 갖춘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 주택 유형별 한부모가족 순위

주택 유형			순위 및 내용
공공분양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1순위)
	신혼희망타운주택*		가점제로 우선공급
공공임대	영구임대		1순위
	국민임대		우선공급 대상, 일반공급 시 가점 부여
	행복주택		일반공급 대상(일반형), 1순위(산단근로자)
	분양전환공공임대(5년·10년)		특별공급(기관추천)
	매입임대	기존주택 매입임대	1순위(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청년매입임대	1순위(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전세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1순위(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청년전세임대	1순위(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말함

자료: 여성가족부(2024f),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주거'. https://www.mogef.go.kr/cs/opf/cs_opf_f042.do.

3) 저소득한부모가족을 위한 주거지원: 수요자 보조(주거비 지원 정책)

한편 공급자 지원이 아니라 주택 수요자에 대한 수요자 보조(주거비지원)정책으로는 주거급여제도와 주택 전월세 자금 지원제도를 꼽을 수 있다. 주거급여는 2015년 7월부터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급여개편으로 개별 급여로 독립되었는데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 대해 통합 급여 체계로 지원되는 방식이었으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벗어나면 무조건 수급자격을 잃는 이러한 방식은 정책 사각지대를 야기하고 빈곤 계층의 욕구별 지원에도 한계가 있음에 따라 생계, 주거, 교육, 의료 급여를 각각 개별 급여로 분리 독립되었다.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의 대상자별·급여별 단계적 폐지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며,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에 따라 청년층의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청년 주거급여에 대해 분리지급이 시행되기 시작하였다(국토교통부, 2024: 5-6).

주거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데 수급자의 가구원수, 거주 형태, 부담 수준,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차 수급자에게는 임차급여를 지급하고, 자가 수급자에게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맞춤형 주택 개보수가 가능하도록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버팀목 대출, 월세 대출과 더불어 개편 주거급여 제도를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주거비 부담 완화,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주거복지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취약계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한부모가족들에게 이같은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상당한 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주택 전월세 자금 지원으로 버팀목대출과 주거안정 월세 대출 등 대출지원제도가 있는데 연소득 등에 따라 요건이 달리 설정되어 있으며, 대상주택도 일정 규모 이하로 정해져 있다. 이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Ⅲ-1-20〉 주거급여 및 주택 전월세 자금 지원

구분		지원대상	내 용
주거 급여	임차급여 (임차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8% 이하 중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전대차 확인서 포함)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 가구	▸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근거로 지역별 기준임대료, 가구원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 (혹은 실제 임차료) 전액 지원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 (혹은 실제 임차료) - 자기부담분 * 자기부담분 = 자기 부담률 0.3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임차급여를 산정
	수선유지 급여 (자가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8% 이하 중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	▸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등'을 소유하고 해당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자가가구에 한하여 지급함 ▸ '주택 등'은 「주택법」제2조에 근거하며,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비정상적인 거처에 대해서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주택 전월세 자금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 지원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자불한 자 등의 요건 충족시 -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원, - 수도권 외 8천만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70% 이내 -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의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의 추가우대 금리 적용
	주거안정 월세 대출	(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통)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1억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 전용면적 85㎡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 대출금리 • 우대형: 연 1.3% • 일반형: 연 1.8% - 대출한도 • 최대 1,440만원(월 60만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자료: 국토교통부(2024), 『2024년도 주거급여 사업안내』, pp. xi-xii.
주택도시기금(2024a). '버팀목전세자금대출'.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101.jsp
주택도시기금(2024b). '주거안정월세대출'. https://www.khug.or.kr/khmb/m/hg/lg/fp05020201_01.jsp.

보다 상세한 주거급여의 기준소득과 지원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이며, 지원내용은 실제 주거비로 지출한 내역 내에서 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현물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표 Ⅲ-1-21〉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주요 내용

■ 지원대상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8 이하가 주거급여 선정기준임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 \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24년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 지원내용

구분	종전 주거급여 (2015. 6월 이전)	개편 주거급여 (2015.7월 이후)
지급대상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기준선 (중위소득 33%) 이하	소득인정액이 중위 소득의 48% 이하
지원기준	•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지급 • 주거급여 지원금은 현금 급여기준 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의 22.032%임 * 현금지급 기준액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77.968%) + 주거급여(22.032%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주거 유형,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
최저 보장수준	• 최저 생계비, 현금지급 기준 -최저생계비 이하에서 현금지급 기준 금액이 최저 보장 수준임	• 임차가구: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급여를 지급 •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 비용을 상한으로 수선유지급여를 지급
급여의 종류	주거급여	• 임차가구: 임차급여 •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자료: 국토교통부(2024b), 『2024년도 주거급여 사업안내』, p.11, p.53.

바. 건강 및 상담서비스 지원

1) 임신·출산·초기양육기 병원비·건강서비스 지원

한부모가 임신·출산 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영양플러스 사업과 출산지원시설의 입소자에 대한 병원비 지원을 꼽을 수 있다. 먼저, 영양플러스 사업은 대상자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식품 공급, 정기적 영양평가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운영 보건소별 관할지역 내 거주하는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만 6세 미만(생후 72개월까지)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가 지원대상이다. 수혜대상 선정 시 영양이나 의학적인 측면에서 위험요인이 고려되고, 한부모가족일 경우에도 우선순위가 주어진다(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4).

〈표 Ⅲ-1-22〉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내 영양플러스사업

〈영양플러스사업〉

■ 사업목적
- 임신·출산·수유로 인해 영양 측면의 위험성이 높은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의 건강과 태아 및 영유아의 미래건강을 위해 맞춤 영양교육 및 영양지원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사업목표
-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빈혈, 성장부진, 영양불량 등) 해소
-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증진 도모

■ 대상자 자격판정
- 사업을 수행하는 보건소의 관할 지역 내에 거주하면서 대상 분류, 소득 및 영양위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하며,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의 참여 신청 접수 후 자격 여부를 판정함

■ 대상자 선정기준

분류	기준
대상 구분	• 영유아 : 만 6세(생후 72개월)까지 • 임신부 • 출산·수유부(*사업 참여 중에 유산 혹은 사산한 여성도 출산부의 범주에 포함)
거주 기준	• 사업운영 보건소 관할지역 내 거주자 * 국제결혼자의 경우, 부부 중 최소 1인 이상은 한국 국적이어야 함 * 본 사업은 가정단위에 대한 지원이 주 내용이므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는 제외
소득 수준	• 가구의 실제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 지역 여건에 따라, 소득판정 기준선 하향(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 조정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아동) 수당 대상 가구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 임신부의 경우, 소득수준이 해당될 경우 영양위험요인 판정절차 없이 대상자로 선정 가능

※ 단,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조제분유 지원을 받는 영유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사업'에 참여하는 임신·출산·수유부(영유아는 예외)는 중복 수혜 불가하므로 사전안내 필요

■ 대상자 구분기준

구분	기준
영아	• 생후 만 12개월까지
유아	• 생후 만 1세 ~ 만 6세(72개월)까지
임신부	• 출산 후 6주까지
출산부	• 출산 후 6개월까지
모유수유부	• 출산 후 12개월까지 * 완전모유수유부 및 혼합수유부 포함

■ 지원내용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대상자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보충식품 패키지를 제공하여 영양위험요인 개선 및 스스로의 식생활관리 능력 배양

자료: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2024), 『2024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안내(영양)』, pp.24-30.

출산지원시설의 입소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6(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지원)을 근거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원범위와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Ⅲ-1-23〉 출산지원시설의 입소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출산지원시설의 입소자

■ 지원범위
- 시설 입소 후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 이전까지의 병원비
  ※ 배우자 학대로 인한 외상 치료에 필요한 병원비 포함
-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비적용 병원비
- 건강검진, 질병 치료·입원, 진단서 발급, 일반의약품 구입 비용 등
- 병원 등 치료기관 통원 시 교통 실비(지역내 시내버스 요금 기준, 시외 지역 통원치료 시 교통비 실비 보조)
  ※ 미혼모의 임신·출산 관련 비용은 미혼모 특수치료비로 우선 지원하고, 심리치료는 상담·치료 예산으로 우선 지원

■ 지원내용
- 지원액 : 예산범위 내 입소자 1인당 연 35만원 이내 지원 가능 (지원한도액 35만원 초과 발생 시 사업수행기관의 예산소요계획 등을 고려하고 지자체 담당공무원과 사전협의 후 지원여부를 결정)

자료: 여성가족부(2024c).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pp.316-317.

한편 의료급여 수급자였던 차상위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와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을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관리하여 대상자가 종전 의료급여 수급자 수준에서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요양급여비용 본인 부담금 차액 및 건강보험료에 대해 국고지원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보건복지부, 2024e: 3). 이는 소득수준이 낮은 한부모가족이 이용할 수 있다.

〈표 Ⅲ-1-24〉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사업

■ 사업개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아동 중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주는 사업

■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자였던 차상위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와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을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관리

■ 지원내용 : 대상자는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건강보험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구분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입원외래	요양급여비용의 5%(중증), 10%(희귀) 식대의 50%	요양급여비용 면제 기본식대의 20%
	65세 이상 노인 틀니	요양급여비용의 30%	요양급여비용의 5%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의 30%	요양급여비용의 10%
	추나요법*	요양급여비용의 50%	요양급여비용의 30%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20% 식대의 50%	요양급여비용의 14% 기본식대의 20%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30~60%	요양급여비용의 14% (정액 1,000원, 1,500원) 단, 1세 미만 영유아는 5% 또는 면제
	65세 이상 노인 틀니	요양급여비용의 30%	요양급여비용의 15%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의 30%	요양급여비용의 20%
	심·뇌혈관질환자	요양급여비용의 5% 식대의 50%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수술시 30일) 기본식대의 20%
	추나요법*	요양급여비용의 50%	요양급여비용의 40%

※ 상급종합병원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의 2인실·3인실·4인실 및 정신과 입원실의 2인실·3인실·4인실 입원료의 본인일부부담률은 각 100분의 50·100분의 40·100분의 30이며, 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인 요양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요양병원으로 한정)·정신병원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의 2인실·3인실 및 정신과 입원실의 2인실·3인실의 경우는 각 100분의 40·100분의 30을 부담(일반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

* 복잡추나 중 디스크,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인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80% 적용

자료: 보건복지부(2024e). 「2024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pp.3-5.

2) 심리·정서지원 및 상담서비스

여성가족부에서는 2024년부터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7개 가족서비스(①가족상담, ②취약가족 사례관리, ③다문화가족 사례관리, ④1인가구 생애주기별 상담·교육·자조모임, ⑤청소년한부모 사례관리, ⑥방임(보호)아동-원가정 관계개선, ⑦양육비 이행을 위한 비양육부모-자녀 면접교섭)를 '온가족보듬사업'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기존의 가족서비스는 1인 가구, 다문화가족, 청소년한부모 등 가족형태별로 구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면 '온가족보듬사업'을 통해 어떤 형태의 가족이든 상담 등을 통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먼저 파악하고, 가족별 상황에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을 시도하고자 하였다(여성가족부, 2024m).

'온가족보듬사업'은 한부모·조손가족, 다문화가족, 1인가구, 손자녀 돌봄 조부모, 노부모 부양가족, 이혼위기가족, 긴급위기가족 등 가족기능 회복과 가족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모든 가족을 지원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를 통해 가족이 가진 복합적 문제 해결 및 욕구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경제적 자립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표 Ⅲ-1-25〉 온가족보듬사업

■ 사업개요
- 한부모·조손가족 등 가족기능이 약화된 가족과 위기가족이 가진 복합적 문제 해결과 욕구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한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경제적 자립역량 강화 도모

■ 지원대상
- (손)자녀를 둔 한부모·조손가족, 1인가구, 다문화가족 등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모든가족
  재난, 사고 등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위기가족
- 일부 서비스의 경우 대상·소득기준 충족 필요

○ 미혼모·부 출산·양육지원 :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가구 병원동행 : 중위소득 100% 이하(기준 초과시 유료 이용)

■ 지원내용
- 가족상담 및 심리·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사례관리
-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 부모교육, 가족관계, 자녀양육교육 등 프로그램 및 자조 모임
- 자녀 학습·정서 지원
- 생활도움서비스
- 긴급 위기지원

자료: 여성가족부(2024g), '온가족보듬사업' https://www.mogef.go.kr/sp/fam/sp_fam_f004.do.

아울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의 심리·정서적 전문 상담과 치료 지원으로 가족생활 안정 및 조기 자립 도모 및 출산지원시설 기본생활지원형 입소자의 신체·정신적 질병 치료 등을 위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건강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등의 입소자에 대해 심리·정서적 전문 상담과 치료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자 가운데 상담·치료가 필요한 한부모를 대상으로 심리검사비(검사도구 구입비, 검사결과 해석 비용 등), 집단상담 및 집단치료비, 가족치유캠프 등 운영비, 병원 등 치료기관 통원 시 교통실비 등이 지원되며, 사업수행기관이 시설이 아닌 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사업위탁의 규모·관리하는 시설 및 입소자의 수에 따라서 전임인력 인건비가 지원되기도 한다.

〈표 Ⅲ-1-2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의료 지원

■ 사업개요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의 심리·정서적 전문 상담과 치료 지원으로 가족생활 안정 및 조기 자립 도모
- 출산지원시설 기본생활지원형 입소자의 신체·정신적 질병 치료 등을 위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건강관리 강화

■ 지원대상
-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자
  ※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설 퇴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추가 상담 가능

■ 지원내용

(1단계) 〈사업수행기관〉	⇨	(2단계) 〈전문상담·치료기관〉	⇨	(3단계) 〈병원 또는 전문기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대상 초기상담, 심리검사 연계		전문상담·치료기관을 통한 상담 및 치료		병원 또는 전문치료기관을 통한 치료(약물 등)

○ (1단계) 시설 입소자들의 심리검사 및 초기 면접 실시
- 모든 신규 입소자를 대상으로 함
- 사업수행기관은 초기 면접을 통해 입소자의 심리치료 필요성을 파악하고, 필요한 심리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춘 자에게 의뢰
- 심리 검사를 의뢰받은 자는 수행기관이 작성한 초기면접지(intake sheet)와 면접 소견 등을 활용하여 적합한 심리검사 수행

○ (2·3단계) 전문심리상담 혹은 약물치료 실시
- 1단계 검사 결과 추가 치료가 필요한 입소자를 대상으로 함
- 전문 심리치료센터(2단계) 혹은 정신보건센터, 신경정신과, 정신과 등 병원(3단계)을 통한 상담 및 치료로 적극적인 치료
- 반드시 심리센터(2단계)를 거쳐 병원(3단계)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입소자 상태에 따라 가장 적합한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

■ 지원범위
- 심리검사비(검사도구 구입비, 검사결과 해석 비용 등)
- 외부기관 위탁 시 전문상담료 및 치료비
- 집단상담 및 집단치료비, 가족치유캠프 등 운영비
- 병원 등 치료기관 통원 시 교통실비(지역 내 시내버스 요금 기준, 시외 지역 통원치료 시 교통비 실비 보조)
- 사업수행기관이 시설이 아닌 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사업위탁의 규모·관리하는 시설 및 입소자의 수에 따라서 전임인력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음.

자료: 여성가족부(2024c).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pp.313-321.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에서는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사업도 펼치고 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인 지원자격이 주어지며,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의 발굴, 상담, 치료연계 서비스가 제공된다.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및 사이버도박 위험군 치유를 위해 사용된 치료비에 대해 치료비 지원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치료비 지급 기준에 있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한부모·조손가정 등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기도 하며, 인터넷·스마트폰 치유캠프 등의 참가비용 또한 면제되기도 한다.

〈표 Ⅲ-1-27〉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및 사이버도박 등 디지털 유해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진단조사를 통해 조기 발굴하여 단계적·체계적 대응 강화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및 사이버도박 등 디지털 유해환경 피해를 예방 및 해소하기 위한 단계별 상담·치료 지원 등 맞춤형 종합적 서비스 지원
-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및 사이버도박 위험군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대상자
- 연령 : 만 19세 미만 청소년
  ※ 만 19세 이상 청소년의 지원 여부는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또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결정 가능
  ※ 초등 1년 진단조사에 따른 초등 1년 미디어 관심군 및 보호자 대상 서비스 지원 가능
- 상담·치료지원 등 주요 서비스는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함

■ 세부사업 내용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및 사어버도박 청소년 조기 발굴
  • 초1 보호자, 학령전환기(초4, 중1, 고1) 청소년 대상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 실시

※ 사이버도박은 초4, 중1, 고1 청소년 대상 진단조사 실시
-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및 사이버도박 위험수준별 맞춤형 상담·치유 연계 서비스 운영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운영/지원
  • 추가심리검사, 상담 및 치유서비스, 병원 및 치료 연계 서비스 지원
  • 인터넷·스마트폰치유캠프, 가족치유캠프 등 기숙치유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미디어과의존 대응 전문상담인력 양성 및 교육콘텐츠 개발
-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사이버도박 포함) 예방 및 치유를 위한 부모교육 활성화

자료: 여성가족부(2024b). 『2024년 청소년사업 안내(Ⅰ)』. pp.845-846.

2. 정책개선방향

□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양육지원 체계 구축

저출생 문제 극복이 우리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에 있어 사회적 공감대도 비교적 높게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인구감소로 예상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 등에 비추어 보다 많은 수의 아동의 출생도 중요하지만 태어난 아동을 우리사회가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

저출생 추세의 심화 속에서 아동을 위해 이전에 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성장·발달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다. 저출생 경향의 지속과 맞물려 한부모가족(및 자녀)의 수 또한 꾸준히 감소하고는 있으나 한부모가족 및 이들의 자녀를 위한 정책 또한 정책범위가 지속적으로 확장되었고, 각종 지원제도의 종류나 금액 또한 확대되어 왔다. 단적인 예로 2023년과 2024년의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사업의 사업량과 예산을 살펴보면 사업량(30.2만건→31.1만건)과 예산(495,900백만원→535,595백만원) 모두 증가하였다(여성가족부, 2024c: 14).

이를 비롯해 한부모 및 그들의 자녀를 위한 다른 사업에서도 전반적으로 사업량 또는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수치를 놓고 보면 한부모가족 및 자녀를 위한 정책이 견실해진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사업량이나 예산의 증가가 물가의 상승폭이나 (아동의 양육 등과 관련한) 여타의 지원제도 등의 확대와 관련했을 충분한 정도의 자원투입이 이루어진 것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한부모가족을 위한 일부사업의 경우 사업량 또는 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여성가족부, 2024c: 14) 그 원인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피고 그와 관련한 어려움이나 문제를 해소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홍보 노력도 꾸준히 이어져야 할 것이다.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제도가 꾸준히 확대되어 오는 과정에서 일부 사업의 경우 당사자들이 알지 못하거나 제도활용 과정에서의 상당 정도의 복잡함, 불편함을 경험할 가능성도 있다.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기초생활보장 지원서비스나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53.8%와 59.8%로 나타나는 등 이전의 조사와 비교했을 때 꾸준히 높아졌다. 반면 '제도를 알지 못함'을 꼽은 비율은 각각 5.1%와 6.5% 수준으로 이전에 비해 상당히 큰 폭으로 낮아져 두 제도와 관련해서는 상당수의 한부모들이 이를 이용한 경험이 있거나 알고 있는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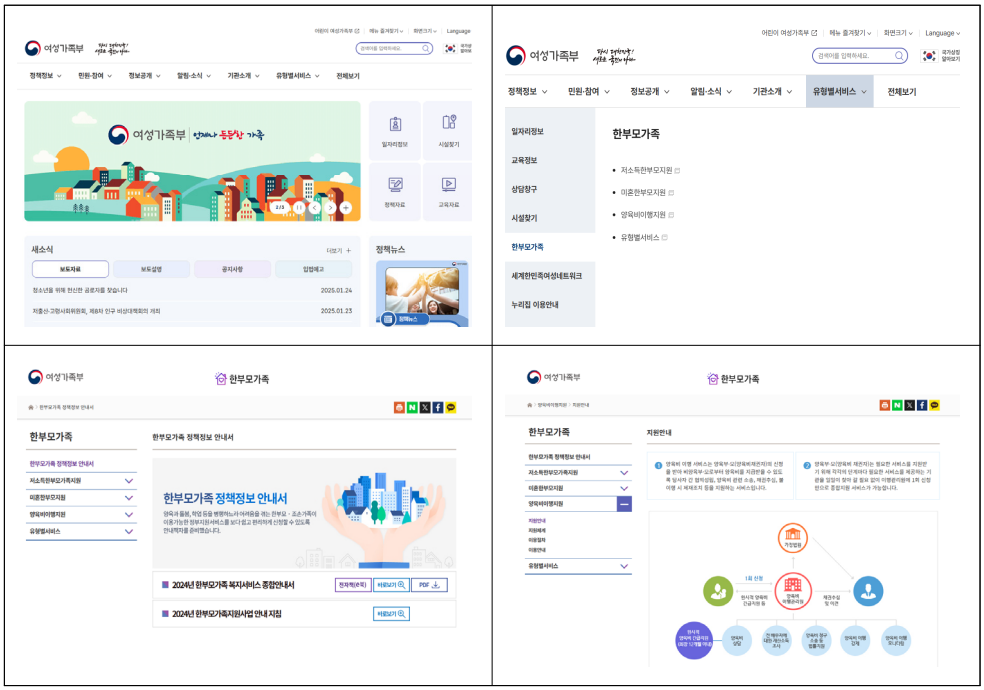
풀이할 수 있다. 다만, (저소득)한부모가족을 위해 비교적 오래 전부터 운영되어 온 위의 두 제도 외에 한부모 또는 자녀의 연령대 등 특성에 맞추어 이용가능한 지원제도들도 존재하며, 새롭게 시행되거나 개편되는 제도들도 존재한다.

제도의 개선과정에서 단기간의 확대, 확장도 필요하지만 아동의 발달 단계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효과적이고 체감도 높게 집중지원하는 방안 등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한부모가족을 위한 제도와 여타의 지원제도(부/모의 교육훈련, 아동의 학습·발달 지원 등) 간의 연계를 통해 제도의 효과성을 더욱 높이고 사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다양한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고민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부모관련 지원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 시 가장 불편했던 점을 살펴본 결과에서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찾기 어렵다', '내야하는 행정서류가 너무 많음' 등의 의견도 여전히 적지 않아 지원이 필요한 한부모가족이 이를 보다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고민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담당자가 정책을 잘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1.8%)은 매우 낮아 담당공무원의 해당 정책에 대한 관심도는 꾸준히 높아진 것으로 판단되며, 한부모가족을 위한 행정간소화 등의 적극적인 고민도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s://www.mogef.go.kr/index.do)에서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의 첫 화면에서 '유형별서비스→한부모가족'을 선택할 경우 한부모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에 대해서 크게 '저소득한부모지원', '미혼한부모지원', '양육비이행지원', '유형별서비스'로 나누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저소득한부모지원'의 경우 '양육/법률/자립/주거/한부모가족지원 신청안내'로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혼한부모지원'의 경우 '미혼모보호/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및 복지서비스 지원/미혼한부모교육'으로 나누어 정보가 게시되어 있다. '양육비이행지원'에 대해서는 '지원안내/지원체계/이용절차/이용안내'로 구분되어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며, '유형별서비스' 페이지를 통해서는 '1577-4206 가족상담전화/온라인 가족상담'과 관련한 정보가 담겨 있다.

이와 함께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종합안내서』와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도 함께 게시되어 있는데 이는 누구나 손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앞에서 언급한 지원제도들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들 자료의 경우 매년 업데이트 되고 있어 이를 통해서도 한부모가족 지원제도의 확장을 살필 수도 있다.



[그림 Ⅲ-2-1]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를 통한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소개

□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경제활동 유지 지원

안정된 가계 생활을 위해 경제활동을 통한 근로소득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특히 한부모의 경우 80% 이상이 40대 이하로 나타나는 등 대다수가 핵심근로연령층(25~54세)에 속해 있으며, 대부분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어 이들의 활발한 경제활동참여는 해당 가구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국가전체적인 인적자본 활용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행히 코로나19의 여파가 상당했던 2021년(77.7%)에 비해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3.9%로 코로나19 이전의 조사(2018년, 84.2%) 결과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아울러 비슷한 연령대의 고용률과 비교했을 때도 한부모의 고용률은 높은 수준으로 집계되었는데 단순히 고용률만 놓고 보았을 때 한부모 가운데 취업자 비율 자체는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의 직종, 종사상 분포나 소득수준, 재직 중인 사업장의 규모 등을 종합해 보면 전반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열악한 지위의 근로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와 관련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

소규모 일자리 또는 불안정한 고용형태로 근로를 하고 있는 이들은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상당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병가, 휴가 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부모의 경력 유지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이나 유급병가 지원과 같은 프로그램이나 휴가, 모성보호프로그램은 사업장의 부담을 크게 늘리지는 않는 상황에서 한부모의 고용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배호중 외, 2021).

일을 원하지만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는 직업상담, 취업과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소개, 개발하고 그 과정에서의 자녀돌봄이나 생계유지 등과 관련한 어려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일을 원하지 않는 이들은 건강문제를 제외하고는 '자녀를 돌봐줄 데가 없어서(21.9%)'였고, '현재 받고 있는 정부지원을 받지 못할까봐(7.7%)'를 꼽은 비율이 높게 나타난 만큼 이러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정부 지원(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원제도의 목적이나 취지에 보다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부모가족이 근로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는 등 근로소득과 지원제도 간의 관계가 보완재가 아닌 일종의 대체재와 같이 인식되는 경우도 존재해 왔다. 이와 같은 우려로 일부는 근로(소득)보다는 지원을 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처럼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이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문제는 비교적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2022년부터 한부모가족 지원 시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적용(여성가족부, 2024: 11)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근로의욕 고취와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과 함께 국가적으로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과 같은 제도를 통해 근로를 통한 생활을 장려해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근로활동과 지원중단 간의 상충관계 속에서 고민하는 가구가 여전할 수 있으며, 이를 둘러싼 지속적인 인식개선과 함께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확대, 장기근속(경력유지)에 대한 공제율 확대 등과 같은 근로지속을 위한 유인제공과 같은 제도적 개선(배호중 외, 2021)을 통한 문제해결도 계속적으로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사회적 논의와 함께 대규모의 자료를 활용한 분석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부모가족 및 이들과 비교가능한 집단 등의 표본이 충분히 담겨있고, 이들의 삶 또한 다각적으로 담긴 정형, 비정형의 다양한 자료를 발굴하고 활용하기 위한 노력도 어우러질 필요가 있다.

□ 한부모가족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의 발굴 및 연구 수행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사자들의 생활전반을 구체적이고 다각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증거기반 경제·사회 정책 수립에 대한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가구 및 개인의 특성 또한 다양해짐에 따라 이를 담아낼 수 있는 자료에 대한 요구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의 삶 또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만으로 파악하기에는 아쉬움이 따르며,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발굴해 여러 연구를 통해 이들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사회보장 데이터나 조세, 소비, 이동 등 다양한 원천의 자료를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식별화 조치를 취한 후) 활용한다면 한부모가족과 관련한 그 어떤 자료보다 방대하고 신속하며, 회고에 통한 응답조사에 비해 정확할 가능성도 높다.

특히 한부모가족과 관련한 그간의 실증연구가 주로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결핍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는데 행정자료와의 결합이나 공공-민간 협력을 통한 융합데이터 확충 등이 이루어진다면 한부모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 발굴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로 특정시점에서의 간헐적 실태파악에 초점을 두던 한계를 뛰어넘어 시의성 있게 대규모로 분석·연구할 수 있는 자료가 개발[21] 된다면 자녀의 수, 학령 등에 따른 지원 정도의 차이, 한부모가족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지원 기준의 설계[22],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의 삶의 질 변화, 양육비 관련 논의

---

21)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의 경우 표본의 수가 많지 않으며, 조사주기도 상당하며, 가구주의 회상을 바탕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이들의 생활전반에 있어 세밀한 부분까지는 논의를 하기가 어렵다. (매우 극단적인 가정이기는 하나) 만약, 한부모가족의 삶을 연속적으로 그들의 자녀와 연계해 대규모로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한다면 특정 구간에 소득이 집중되어 있는지 등을 파악해 실제로 한부모들이 근로와 지원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으며, 코로나19 이후 한부모가족의 고용률 자체는 어느 정도 회복한 것으로 보이나 일자리의 질, 고용유지, 소비, 저축 등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전과 비교해 큰 변화가 있었는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때 수혜가능성 등에 구조적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지 등과 같은 기존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다양한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22) 예컨대 (여타의 조건들도 함께 고려되나)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큰 기준 중 하나가 중위소득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한부모가족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다자녀가구에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중위소득이 다양한 지원제도 운영 과정에서 비교가능성이나 적용이나 계산의 용이성 등 충분한 장점을 가지고 있음은 분명하나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일정 정도 금액이 증가하는 형태로 계산되는 중위소득의 경우 "부 또는 모+자녀"로 구성되어 "근로 중인 1인+비근로 중인 자녀(n명)"와 형태인 경우가 많을 것인데 한부모가족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구조적인 차이가 발생할

등과 같이 보다 근원적인 논의를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정보통신 기술 및 컴퓨터의 발달로 이전에는 활용할 수 없었던 다양한 정보들도 이용 가능해졌다. 또한 데이터 개방·결합 등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으며, 이를 발굴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기관 등도 늘어난 만큼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간다면 한부모가족의 삶을 다각적으로 살피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양육비 이행을 위한 제도 발굴 및 개선 노력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통해 살폈을 때 상당수(84.2%)는 이혼 한부모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아동)의 안정적인 성장·발달에는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상황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인데 이러한 측면에서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은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이전의 조사결과에 비해 양육비를 받지 못하였다는 비율은 감소('18년: 78.9%, '21년: 80.7%, '24년: 71.3%)하였고,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증가('18년: 15.2%, '21년: 15.0%, '24년: 20.1%)하는 등 이전에 비해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가능성은 다소 개선되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전체 미혼·이혼 한부모 10명 중 7명 이상(71.3%)은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는 등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육비 이행을 둘러싼 문제는 비단 최근의 문제만은 아니다.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 이행률을 증가시키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2015년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설치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 이행 지원 종합서비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가능,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신용·보험정보 조회 가능, 양육비 채무자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징수('21),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출국금지 요청 및 명단공개 가능,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가능('22) 등의 제도마련을 통해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고자 노력해 왔다. 또한 2025년 7월부터는 양육비 채권이 있지만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양육비 지급 책임이

가능성도 있는 만큼 자녀의 수 및 학령, 장애여부 등에 따라서도 다각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인 만큼 실제 가용한 자료발굴이나 분석의 방법 등의 단계부터 차근차근 고민이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있는 상대방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시행도 예정되어 있다.

양육비 이행을 위한 제도적 노력은 고도화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비양육 부모와 얽히는 것 자체가 싫거나 비양육부모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경우 등에는 양육비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한계가 존재한다(배호중 외, 2021). 향후에도 이를 보완한 양육비 정책 개선이 요구되며, 이후에 진행될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서는 양육비 선지급제와 관련한 실태나 효과 등을 살펴보는 질문도 포함해 봄직하다.

□ 다각적 측면에서의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고민

홀로 생계와 자녀 양육을 책임지는 한부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도 높으며, 시간의 부족이나 고립감 등을 경험할 가능성도 상당할 것이다.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가능성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높은 우울감, 미충족의료의 가능성, 주거부담 및 취약한 사회적 지지망 등을 엿볼 수 있었다. 한부모가 된 후 부와 모의 역할을 혼자서 감당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나 미래에 대한 부담감 등도 나타났으며, 이전의 조사에 비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나 한부모 본인 또는 그들의 자녀가 차별을 경험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음을 생각해 본다면 경제적 측면의 지원정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다각적인 측면의 지원정책도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은 장시간 근로가 만연한 국가로 알려져 있는 바 근로를 하고 있는 한부모의 경우 시간부족과 같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상당하며, 역으로 자녀돌봄을 위한 시간부족이나 장시간 근로에 대한 우려로 인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존재할 것이다. 가족정책의 경우 현금지원, 시간지원, 서비스지원의 측면으로도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김사현, 2015) 한부모가족을 둘러싼 논의나 지원책의 상당수는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박탈감에 초점을 두고, 경제적 지원의 범위나 금액의 증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 경우가 많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이 매우 중요한 지원임은 부인할 수 없으나 의료지원이나 아이돌봄 관련 서비스 지원, 사회적 인식/차별 개선, 부모교육/상담 지원과 같은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한부모가족의 시간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시간확보 지원 정책 또한 세심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

물론 모든 한부모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원 정책은 존재할 수 없다. 또한 한부모가족만을 위한 별도의 지원체계나 지원기준 등을 마련하여 적용할 경우 이들 가족

에게 예상치 못한 낙인효과가 생겨날 수도 있다. 행정의 차원에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해당 인원이 적을 수밖에 없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별도의 기준이나 지원체계를 마련할 경우 과도한 행정비용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한부모가족의 경우 한부모 자체만으로도 그들이 처한 상황이나 욕구에 있어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일 가능성도 높고, 자녀의 수나 연령 등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 더더욱 다양한 정책적 욕구가 생겨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다른 유형의 가족 등과의 형평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두를 충족시키는 정책의 개발이나 확대는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일임은 분명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한부모가족이 처할 가능성이 높은 어려움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특히 가족의 유형에 따라 자녀(아동)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일은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부모가족들의 어려움에 대한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이들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다양한 자료발굴,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한부모가족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신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입하는 체계[23] 등과 같이 중·장기적 고민도 필요할 부분까지 지속적으로 고민이 이어질 필요가 있다.

---

23) 현재 국가지원사업의 상당수가 신청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소득, 납세 정보 등과 연계해 위기에 처한 한부모가족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될 필요가 있다(배호중 외, 2021).

참고문헌

교육부(2024a),『2024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5세 추가지원 포함)』, 세종: 교육부.

교육부(2024b),『2024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 운영 방안 안내』, 세종: 교육부.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및 17개 시·도교육청(2023),「초등돌봄교실운영 길라잡이(개정판 2024)」, https://www.afterschool.go.kr/databoard/databoardView.do에서 2024. 11.2. 인출.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및 17개 시·도교육청(2025),「2025 늘봄학교 운영 길라잡이(개정판)」,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72782&boardSeq=102686&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319&opType=N에서 2025.3.17. 인출.

국민건강보험공단(2023).『2022년 건강검진통계연보』. https://www.nhis.or.kr/nhis/together/wbhaec07000m01.do?mode=view&articleNo=10840505&article.offset=0&articleLimit=10에서 2024.11.28. 인출.

국토교통부(2023).『2022년도 주거실태조사』, 세종: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2024),『2024년도 주거급여사업안내』, 세종: 국토교통부.

김영란·최인희·주재선·정가원·김소영·배호중·박미진·권도연·최진희(2023).『2023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김은지·김소영·정수연·성경(2017).『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사전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김은지·장혜경·황정임·최인희·김소영·정수연(2015).『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김은지·최인희·송효진·배호중·최진희·배주현·성경(2018).『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김사현(2015). 가족정책 지원유형에 따른 성역할태도 변화: 현금, 시간, 서비스지원을 중심으로,『한국사회정책』, 22(1), 285-316.

대한민국정부(2024). '정부24' 누리집),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5007.에서 2024.12.1. 인출.

박종서·임지영·김은정·변수정·이소영·장인수·조성호·최선영·이혜정·송지은(2023).『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구)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수정본)』,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배호중·정가원·박미진·선보영·성경(2021).『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배호중·박미진·권도연·이서현(2023a).『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사전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배호중·최인희·박미진·권도연·강경주·정순둘(2023b).『2023년 조손가족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2024a).『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2024b),『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2024c),『2024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2024d),『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2024e).『2024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2024),『2024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안내(영양)』. 세종: 보건복지부.

양육비이행관리원(2024),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https://www.childsupport.or.kr/lay1/S1T10C11/contents.do에서 2024.11.2. 인출.

여성가족부(2012),『한부모가족 지원사업안내』,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2018).『한부모가족 실태조사 통계정보보고서』,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2024a),『2024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안내』,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2024b),『2024년 청소년사업 안내(Ⅰ)』,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2024c),『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2024d), '양육비이행지원 안내', https://www.mogef.go.kr/cs/opf/cs_opf_f101.do.에서 2024.11.2. 인출.

여성가족부(2024e).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누리집. https://saeil.mogef.go.kr/hom/HOM_Main.do에서 2024.12.12. 인출.

여성가족부(2024f).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 주거', https://www.mogef.go.kr/cs/opf/cs_opf_f042.do.에서 2024.11.2. 인출.

여성가족부(2024g). '온가족보듬사업', https://www.mogef.go.kr/sp/fam/sp_fam_f004.do에서 2024.11.3. 인출.

주택도시기금(2024a). '버팀목전세자금',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101.jsp에서 2024.11.26. 인출.

주택도시기금(2024a). '주거안정월세대출', https://www.khug.or.kr/khmb/m/hg/lg/fp05020201_01.jsp에서 2024.11.26. 인출.

질병관리청(2023).『2022 국민건강통계(국민건강영양조사 제9기 1차년도(2022))』. https://knhanes.kdca.go.kr/knhanes/sub04/sub04_04_01.do에서 2024.11.28. 인출.

한국고용정보원(2024). '고용24' 누리집. https://www.work24.go.kr/ua/z/z/1300/selectEmssRqutIntro.do.에서 2024.12.1. 인출.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기초생활보장 탈수급 예상 소요기간(「한국복지패널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1&tblId=DT_33109_A308&conn_path=I2에서 2024.11.26. 인출.

통계청(2023a).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집계결과’, https://www.kostat.go.kr/board.es?mid=a10301020200&bid=203&act=view&list_no=426429에서 2024.9.20. 인출.

통계청(2023b). ‘미성년자가 있는 자녀수별 가구(「인구총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C1601&conn_path=I3에서 2024.9.20. 인출.

통계청(2023c). ‘2025 인구주택총조사’, https://www.census.go.kr/cui/cuiDefView.do?q_menu=1&q_sub=31 에서 2024.9.20. 인출.

통계청(2023d).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2023.12.7. 보도자료)’, https://www.kostat.go.kr/board.es?mid=a10301040100&bid=215&act=view&list_no=428364&tag=&nPage=1&ref_bid=213,215,214,11860,11695&keyField=T&keyWord=2023%EB%85%84%20%EA%B0%80%EA%B3%84%EA%B8%88%EC%9C%B5%EB%B3%B5%EC%A7%80%EC%A1%B0%EC%82%AC에서 2024.11.28. 인출.

통계청(2024a). ‘주택종류별 자산, 부채, 소득 현황(「가계금융복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AAA02&conn_path=I3에서 2025.3.10. 인출.

통계청(2024b).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총괄(「경제활동인구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02S&conn_path=I2에서 2024.11.16. 인출.

통계청(2024c). ‘종사상지위별 취업자(「경제활동인구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10S&conn_path=I3에서 2024.11.16. 인출.

통계청(2024d). ‘2024년 사회조사 결과(2024.11.12. 보도자료)’, https://www.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219&act=view&list_no=433638에서 2024.11.28. 인출.

부 록

〈부록〉「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설문지

승 인 번 호
제154016호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펀칭 ID (SV 기입) | 리스트 가구 ID (조사원 기입)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인 사 말 씀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저희 연구소에서는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의뢰를 받아 한부모 가족의 생활실태 및 의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한부모들의 생활실태 파악과 더불어 현재 한부모지원정책의 성과를 진단하고, 앞으로 보다 좋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효과적인 한부모 지원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귀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6월

☞ **이 조사는 국가에서 지정한 국가승인(협의)통계이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6조(실태조사 등)에 의거하여 시행됩니다.**
☞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콜센터 운영시간 평일 10:00~17:00)
02-739-9849(수신자부담)

조사 안내 홈페이지
https://hanbumo.gallup.co.kr

※ 아래 부분은 조사원이 직접 작성합니다.

지 역						
	① 서 울	② 부 산	③ 대 구	④ 인 천	⑤ 광 주	⑥ 대 전
	⑦ 울 산	⑧ 세 종	⑨ 경 기	⑩ 강 원	⑪ 충 북	⑫ 충 남
	⑬ 전 북	⑭ 전 남	⑮ 경 북	⑯ 경 남	⑰ 제 주	

지 점 번 호 _____구/시/군 _____동/읍/면

SQ1 귀하는 현재 만 17세 이하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 자녀가 2006년생인 경우, 6월 1일 기준 생일이 지났으면 대상에서 제외함

① 그렇다 ② 아니다 → **조사 중단**

SQ2 귀하는 현재 배우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럼, 현재 혼인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 한부모가 된 시기 기준으로 응답하며, 전 배우자가 현재 '사망'하였더라도 이혼으로 인해 한부모가 된 경우 '③ 이혼'으로 응답

① 그렇다(배우자와 함께 거주/사실혼 포함) → **조사 중단**

② 미혼·비혼 ③ 이혼
④ 사별 ⑤ 별거(가출 또는 생사불명 포함, 단순 분거는 제외)
⑥ 기타(적을 것 : _____)

SQ3 귀하가 현재 같이 살고 있는 가구의 구성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모(본인)+자녀
② 모(본인)+자녀+기타 가구원(자녀의 조부모, 이모, 삼촌 등)
③ 부(본인)+자녀
④ 부(본인)+자녀+기타 가구원(자녀의 조부모, 이모, 삼촌 등)
→ **다음 페이지 1 번 문항으로 이동**

⑤ 조부/조모(본인)+손자녀
⑥ 조부/조모(본인)+손자녀+기타 가구원(손자녀의 이모, 삼촌 등)
⑦ 기타(적을 것 : _____)
→ **조사 중단**

주관 기관 여성가족부 | 연구 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조사 기관 한국갤럽

※ 조사 책임자: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장은혜 차장 (☎ 02-3702-2119)

조사표 작성 요령

※ **조사대상은 아동인 만 17세 이하(2006년 6월 이후 출생)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한부모입니다.**

- 각 항목별로 응답 항목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예 : ① 남자 ● 여자)
- 문자는 □ 칸 안에 정자체로 기입하고, 숫자는 오른쪽 칸에 맞추어 기입해 주십시오. (예 : 1 회)
- 응답 항목 중에서 「기타」에 해당되는 경우 (적을 것 : _____) 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 화살표(→)로 표시된 항목은 지정된 항목으로 가서 응답해 주십시오.
- 주된 응답은 1개만 기입해 주십시오.

Ⅰ. 가구 일반 사항

1 **귀하가 현재 같이 살고 있는 가구원 수는 본인을 포함하여 모두 몇 명입니까?**
현재 귀댁에서 함께 살고 있는 가구 구성원 각각에 대해 본인 포함하여 응답자 본인과의 관계, 성별, 연령을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 가구원 수에는 함께 살고 있는 친족 및 비혈연을 모두 포함함
☞ 연령은 만 나이 기준으로 응답하며, 연 나이 기준으로 생일이 지났으면 -1,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2로 계산

전체 가구원 수 : 총 [ ] 명

번호	응답자와의 관계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	① 응답자 본인	①	②	만 세
2	② 자녀 ③ 부모 ④ 형제/자매 ⑤ 기타 친척 ⑥ 친구 등 비혈연	①	②	만 세
3	② 자녀 ③ 부모 ④ 형제/자매 ⑤ 기타 친척 ⑥ 친구 등 비혈연	①	②	만 세
4	② 자녀 ③ 부모 ④ 형제/자매 ⑤ 기타 친척 ⑥ 친구 등 비혈연	①	②	만 세
5	② 자녀 ③ 부모 ④ 형제/자매 ⑤ 기타 친척 ⑥ 친구 등 비혈연	①	②	만 세
6	② 자녀 ③ 부모 ④ 형제/자매 ⑤ 기타 친척 ⑥ 친구 등 비혈연	①	②	만 세
7	② 자녀 ③ 부모 ④ 형제/자매 ⑤ 기타 친척 ⑥ 친구 등 비혈연	①	②	만 세
8	② 자녀 ③ 부모 ④ 형제/자매 ⑤ 기타 친척 ⑥ 친구 등 비혈연	①	②	만 세
9	② 자녀 ③ 부모 ④ 형제/자매 ⑤ 기타 친척 ⑥ 친구 등 비혈연	①	②	만 세

2 **귀하께서는 정규 교육을 어디까지 받았습니까?**

☞ 정규 교육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학력임

⓪ 안 받았음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대학교(4년제 미만)
⑤ 대학교(4년제 이상) ⑥ 대학원 이상

2-1 **해당 학교를 마치셨습니까? 이수 여부를 응답해 주세요.**

☞ 검정고시를 합격한 경우에도 '① 졸업'에 해당함

① 졸업 ② 재학 ③ 수료
④ 휴학 ⑤ 중퇴

3 **귀하께서는 장애를 가지고 계십니까?**

☞ '장애'는 의사로부터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정됨

① 있다 ② 없다

II. 자녀 돌봄

※ 다음은 미취학 또는 해당 연령(만 0~6세)의 자녀가 있는 경우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 미취학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가장 어린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 미취학 자녀가 없는 경우, 다음 페이지 9 번 문항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4 귀하는 미취학 자녀(만 0~6세 자녀)를 어떤 유형으로 돌보고 있습니까?
다음 중에서 주로 이용하는 유형을 두 가지만 순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보육시설(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학원		
④ 조부모		
⑤ 친인척		
⑥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⑦ 민간 베이비시터		
⑧ 학습지, 방문과외 등		
⑨ 본인이 직접 돌봄		
⑩ 기타(적을 것 : _____)		

5 귀하의 미취학 자녀는 평일 일과 후에 돌봐주는 어른이 없이 지내는 시간이 있습니까?

① 있다 → **5-1** 그럼, 어른 없이 혼자 지내는 시간이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입니까?
☞ 1시간 미만인 경우, 소수점으로 응답(예: 30분 → 0.5시간)
평일 하루 평균 [ ][ ] 시간

② 없다

6 귀하의 미취학 자녀가 평일 일과 후에 돌봐주는 어른이 없이 지내는 시간이 생긴다면,
그 시간 동안 어떤 서비스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야간보육 활성화	② 자녀 등하원 서비스
③ 식사 제공 서비스	④ 학습지도 도우미 파견서비스
⑤ 키즈폰 등 비상통신수단 지원	⑥ 아이 모니터링을 위한 가정 내 CCTV 설치
⑦ 기타(적을 것 : _____)	

7 귀하는 미취학 자녀 양육과 관련해 어려움을 얼마나 느끼십니까? 다음 각각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직접 자녀를 돌볼 시간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2) 양육비, 교육비용의 부담이 크다	①	②	③	④
(3) 자녀를 돌봐줄 믿을 만한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4) 자녀의 생활 지도에 어려움이 있다 (친구관계 갈등, 미디어 중독, 부정적 식습관 등)	①	②	③	④
(5) 양육 및 교육관련 정보가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8 **지난 1년 동안 미취학 자녀 양육과 관련해 귀하 가구의 월 평균 양육비는 얼마나 됩니까?**

양육비
「민법」 제4조에 따른 1인당 미성년 자녀(18세 이하)의 양육을 위한 직접적인 지출 비용입니다.

☞ 미취학 연령대(만 0~6세) 자녀들의 전체 양육비를 합산하여 기입
☞ 가족과 함께 지출하는 숙식비 등 공통지출액은 제외함

항 목	월 평균 지출액						
(1) 돌봄 비용(베이비시터 비용, 조부모, 친인척, 비혈연 포함)	월						만원
(2) 교육비(어린이집/유치원 이용료, 사교육비 포함, 학원비, 학습지 등)	월						만원
(3) 기타(의복, 장난감, 분유, 기저귀, 육아용품비, 용돈, 의료, 교통, 통신비 등)	월						만원
총 액	월						**만원**

※ **다음은 초등학생 또는 해당 연령(만 7~12세)의 자녀가 있는 경우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 초등학생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더 어린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 초등학생 자녀가 없는 경우, 5페이지 15번 문항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9 **귀하는 방과 후 초등학생 자녀(만 7~12세 자녀)를 어떤 유형으로 돌보고 있습니까?**
다음 중에서 주로 이용하는 유형을 두 가지만 순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초등돌봄교실, 방과후교실
② 지역아동센터
③ 학원
④ 조부모
⑤ 친인척
⑥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⑦ 민간 베이비시터
⑧ 학습지, 방문과외 등
⑨ 본인이 직접 돌봄
⑩ 기타(적을 것 : _____)

10 **귀하의 초등학생 자녀는 평일 일과 후에 돌봐주는 어른이 없이 지내는 시간이 있습니까?**

① 있다 → **10-1** **그럼, 어른 없이 혼자 지내는 시간이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입니까?**
☞ 1시간 미만인 경우, 소수점으로 응답(예: 30분 → 0.5시간)
평일 하루 평균 [ ] 시간

② 없다

11 **귀하의 초등학생 자녀가 평일 일과 후에 돌봐주는 어른이 없이 지내는 시간이 생긴다면, 그 시간 동안 어떤 서비스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② 초등돌봄교실방과후교실 활성화
③ 자녀 등하교 서비스
④ 식사 제공 서비스
⑤ 학습지도 도우미 파견서비스
⑥ 키즈폰 등 비상통신수단 지원
⑦ 아이 모니터링을 위한 가정 내 CCTV 설치
⑧ 기타(적을 것 : _____)

12 귀하는 **초등학생 자녀 양육과 관련해 어려움**을 얼마나 느끼십니까? 다음 각각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1) 자녀와 대화가 잘 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2) 자녀의 학업성적 때문에 걱정스럽다	①	②	③	④	⑧
(3) 양육비, 교육비용의 부담이 크다	①	②	③	④	
(4) 자녀의 진로지도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5) 자녀의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다 (이성, 학교폭력, 음주, 흡연 등)	①	②	③	④	
(6) 양육 및 교육관련 정보가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13 지난 1년 동안 **초등학생 자녀** 양육과 관련해 귀하 가구의 **월 평균 양육비**는 얼마나 됩니까?

양육비
「민법」 제4조에 따른 1인당 미성년 **자녀**(18세 이하)의 양육을 위한 직접적인 지출 비용입니다.

☛ 초등학생 연령대(만 7~12세) **자녀**들의 전체 양육비를 합산하여 기입
☛ 가족과 함께 지출하는 숙식비 등 공통지출액은 제외함

항 목	월 평균 지출액					
(1) 돌봄 비용(조부모, 친인척, 비혈연 포함)	월					만원
(2) 교육비(공교육 등록금,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학원비, 학습지, 과외비 등)	월					만원
(3) 기타(의복, 용돈, 의료, 교통, 통신 등)	월					만원
총 액	월					**만원**

14 귀하는 **최근 1년 동안 초등학생 자녀**와 **여가활동**을 함께 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럼, **연간 몇 회**인지 다음 활동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 없음 → 연 0회, 월 1회 → 연 12회, 주 1회 → 연 48회, 주 2회 → 연 96회로 기입

항 목	연간 횟수				
(1) 영화 및 공연, 미술관 등 관람(스포츠 관람 포함)	연				회
(2) 운동 및 나들이(등산, 놀이공원, 시민공원 등)	연				회
(3) 외식	연				회
(4) 쇼핑	연				회
(5) 여행	연				회

※ 다음은 중고등학생 또는 해당 연령(만 13~17세)의 자녀가 있는 경우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 중고등학생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더 어린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 중고등학생 자녀가 없는 경우, 다음 페이지 19 번 문항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15 평일 일과 후에 귀하의 중고등학생 자녀(만 13~17세 자녀)는 무엇을 하며 지냅니까?
다음 중에서 주로 하는 활동을 두 가지만 순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TV 시청, 라디오나 음악 듣기, 잡지나 책(만화책 포함)을 읽으며 지낸다
② 게임이나 컴퓨터, 스마트폰을 하면서 지낸다
③ 형제나 친구들과 놀며 지낸다
④ 가사를 돕거나 가족을 돌본다
⑤ 쉬거나 잠을 잔다
⑥ 숙제 등 공부를 한다
⑦ 학원이나 과외를 한다
⑧ 청소년수련관, 복지관 등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⑨ 아르바이트를 한다
⑩ 동아리, 봉사활동, 종교활동 등을 한다
⑪ 기타(적을 것 : _____)

16 귀하는 중고등학생 자녀 양육과 관련해 어려움을 얼마나 느끼십니까? 다음 각각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1) 자녀와 대화가 잘 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2) 자녀의 학업성적 때문에 걱정스럽다	①	②	③	④	⑧
(3) 양육비, 교육비용의 부담이 크다	①	②	③	④	
(4) 자녀의 진로지도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5) 자녀의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다 (이성, 학교폭력, 음주, 흡연 등)	①	②	③	④	
(6) 양육 및 교육관련 정보가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17 지난 1년 동안 중고등학생 자녀 양육과 관련해 귀하 가구의 월 평균 양육비는 얼마나 됩니까?

양육비
「민법」 제4조에 따른 1인당 미성년 자녀(18세 이하)의 양육을 위한 직접적인 지출 비용입니다.

☞ 중·고등학생 연령대(만 13~17세) 자녀들의 전체 양육비를 합산하여 기입
☞ 가족과 함께 지출하는 숙식비 등 공통지출액은 제외함

항 목	월 평균 지출액					
(1) 돌봄 비용(조부모, 친인척, 비혈연 포함)	월					만원
(2) 교육비(공교육 등록금, 방과후학교, 학원비, 학습지, 과외비 등)	월					만원
(3) 기타(의복, 용돈, 의료, 교통, 통신 등)	월					만원
총 액	월					만원

18 귀하는 최근 1년 동안 중고등학생 자녀와 여가활동을 함께 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럼, 연간 몇 회인지 다음 활동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 없음 → 연 0회, 월 1회 → 연 12회, 주 1회 → 연 48회, 주 2회 → 연 96회로 기입

항목	연간 횟수				
(1) 영화 및 공연, 미술관 등 관람(스포츠 관람 포함)	연				회
(2) 운동 및 나들이(등산, 놀이공원, 시민공원 등)	연				회
(3) 외식	연				회
(4) 쇼핑	연				회
(5) 여행	연				회

Ⅲ. 일상생활 및 사회적 지지

※ 19 귀 문항부터는 모든 응답자가 응답합니다.

19 귀하가 다음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이 있습니까?
(있다면) 주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은 누구입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항목	19-1 도움처 유무		19-2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 (보기)	
	있다	없다	1순위	2순위
(1) 식사준비, 장보기, 청소 등 집안일에 일손이 필요한 경우	①	②		
(2) 갑자기 돈이 필요한 경우	①	②		
(3) 몸이 아프거나 긴급한 일이 생길 경우	①	②		
(4) 아이가 아프거나 아이에게 긴급한 일이 생길 경우	①	②		
(5) 생활에 필요한 정보나 조언을 얻고 싶은 경우	①	②		

보기

① 부모
② 형제, 자매 및 친인척
③ 자녀의 비양육부모(전 배우자)
④ 친구나 동료
⑤ 이웃(종교단체 포함)
⑥ 공공기관(주민센터, 가족센터, 119소방서, 경찰서 등)
⑦ 민간기관(한부모관련 단체)
⑧ 한부모자조모임(동아리, 한부모관련 카페 등)
⑨ 기타(적을 것 : _____)

20 귀하와 귀하의 자녀는 평소 한부모가족으로서 부당한 일이나 차별을 얼마나 경험하셨습니까? 본인 및 자녀와 관련해서 다음 각각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20-1 본인	전혀 차별을 받지 않았다	차별을 받지 않은 편이다	차별을 받은 편이다	심한 차별을 받았다	한부모임을 밝히지 않음
(1) 동네나 이웃주민 (한부모라는 이유로 월세·전세 계약 거부, 한부모임을 밝힌 후 연락 끊김, 한부모에 대한 부정적 시선 등)	①	②	③	④	⑧
(2) 학교나 보육시설 (한부모라는 이유로 이용 불이익, 학부모모임에서 배제 경험, 양부모가족이 당연한 행사 개최 등)	①	②	③	④	⑧
(3) 가족 및 친척 (한부모라는 이유로 가족 의사결정에서 배제, 한부모에 대한 모욕적인 말 등)	①	②	③	④	⑧
(4) 직장/일터 (한부모라는 이유로 채용 불이익이나 휴가휴직 거부, 동료로부터 따돌림 등)	①	②	③	④	⑧
(5) 공공기관 (한부모라는 이유로 냉대, 공개된 공간에서 사생활 노출 등)	①	②	③	④	⑧

20-2 자녀 관련	전혀 차별을 받지 않았다	차별을 받지 않은 편이다	차별을 받은 편이다	심한 차별을 받았다	한부모 가정임을 밝히지 않음
(1) 동네나 이웃주민 (한부모 자녀임을 밝힌 후 연락 끊김, 한부모 자녀에 대한 부정적 시선 등)	①	②	③	④	⑧
(2) 학교나 보육시설 (한부모 자녀라는 이유로 이용 불이익, 또래 모임에서 배제 경험, 양부모가족이 당연한 행사 개최 등)	①	②	③	④	⑧
(3) 가족 및 친척 (한부모 자녀라는 이유로 가족 의사결정에서 배제, 한부모 자녀에 대한 모욕적인 말 등)	①	②	③	④	⑧

21 한부모가 된 후 귀하는 다음의 변화를 얼마나 경험하셨습니까? 다음 각각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1)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	①	②	③	④	⑤	
(2) 부와 모의 역할을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겼다	①	②	③	④	⑤	
(3) 형제/자매/친척과 멀어졌다	①	②	③	④	⑤	⑧
(4) 건강상태가 나빠졌다	①	②	③	④	⑤	
(5) 미래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	①	②	③	④	⑤	
(6) 자녀와 긴밀해졌다	①	②	③	④	⑤	⑧



Ⅳ. 경제 활동

22 귀하는 지난 1주일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셨습니까?
또는 함께 사는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나 농장 등에서 돈을 받지 않고 주 18시간 이상 일을 하셨습니까?

☛ 질병, 사고 또는 연(휴)가, 육아·가족적 이유, 노사분규, 사업부진, 조업중단 등으로 일시휴직 중인 경우에도 ① 예'에 응답

① 예 ② 아니요 → *10페이지 23번 문항으로 이동*

※ 다음은 취업자인 분들에 대한 질문으로, 여러 일을 한 경우 주업(주된 일자리)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22-1 귀하는 무슨 일(일의 직종)을 하셨습니까? 아래 보기에서 골라 주십시오.

① 관리자(국회의원, 임원/팀장, 교장/총장, 물류센터관리자 등)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종교 관련 종사자, 교사, 변호사, 행사전시기획자 등)
③ 사무 종사자(은행원, 프런트데스크안내원, 중개사무원 등)
④ 서비스 종사자(경찰관, 소방관, 요양보호사, 여행가이드, 요리사 등)
⑤ 판매 종사자(딜러, 보험설계사, 의류판매원 등)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벌목원, 돼지 사육자, 어부 등)
⑦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제빵사, 자동차 정비원, 재단사 등)
⑧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철도 기관사, 화학물 가공 장치 조작원 등)
⑨ 단순노무 종사자(배달원, 환경미화원, 주방 보조원, 가사도우미 등)
⑩ 기타(적을 것 : _____)

22-2 귀하의 종사상 지위(고용 형태)는 무엇입니까? 아래 보기에서 골라 주십시오.

① 임금근로자 - 상용근로자(고용 계약기간 1년 이상)
② 임금근로자 - 임시근로자(고용 계약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
③ 임금근로자 - 일용근로자(고용 계약기간 1개월 미만)
④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
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⑥ 무급가족종사자(함께 사는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 등에서 돈을 받지 않고 주 18시간 이상 일한 경우)

22-3 귀하 직장(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① 1~4인 ② 5~9인 ③ 10~99인
④ 100~299인 ⑤ 300인 이상

22-4 귀하는 현재 주로 하는 일(주업) 이외에 다른 일(부업)을 하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22-5 귀하는 직장에서 일주일에 평균 몇 시간 실제 일하십니까?

☞ 고용 계약상의 근로시간이 아닌, 실제로 평소 일하는 시간을 점심시간 및 출퇴근시간은 제외하고 응답
☞ 초과근무/재택근무가 정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포함하여 응답
☞ 일시 휴직 중인 경우 휴직 전 평균 근무시간을 응답

(1) 주업 : 일주일 평균 [ ][ ] 시간

(2) 부업 : 일주일 평균 [ ][ ] 시간 / □ 해당 없음

22-6 최근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귀하가 직장(사업체)에서 벌어들인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제외하고 귀하가 받으시는 실제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월 평균 [ ][ ][ ][ ] 만원

22-7 귀하는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몇 번이나 쉬고 있습니까?**

① 매 1주마다 이틀 휴무(주5일제 근무)
② 토요일 격주 휴무+일요일 매주 휴무
③ 매 1주마다 하루 휴무
④ 매 2주마다 하루 휴무
⑤ 정해진 휴일 없음(불규칙함)
⑥ 주로 격일로 근무(2교대 또는 3교대 근무 후 휴무 등)
⑦ 기타(적을 것 : _____)

22-8 *(22-2 번에서 '임금금로자(①~③번)' 응답자만,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는 22-9 로 이동)*
귀하가 현재의 직업을 구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① 취업정보가 부족하거나 잘 몰라서
② 나의 학력, 경력, 나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③ 한부모라는 편견과 차별 때문에
④ 수입이나 보수가 맞지 않아서
⑤ 근무시간이나 근무환경이 맞지 않아서
⑥ 자녀를 돌봐줄 데가 없어서
⑦ 기타(적을 것 : _____)

22-9 현재 귀하가 일을 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① 자녀양육시간의 부족
② 일하는 시간에 비해 낮은 임금
③ 장시간 근로
④ 불투명한 직업전망
⑤ 일과 가정생활 병행으로 인한 육체적인 피로
⑥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구하기 어려움
⑦ 한부모에 대한 편견과 차별
⑧ 기타(적을 것 : _____)
⑨ 특별한 어려움이 없음

☞ 응답 후, 11페이지 24 번 문항으로 이동

※ 다음은 미취업자인 분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 *22 번 문항에서 취업여부가 '아니요(=②)'인 응답자만 응답하고, 취업자인 경우 다음 페이지 24 번 문항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23 *(22 번에서 현재 취업여부가 '② 아니다' 응답자만)*
귀하는 지난 4주 내에 직장(일)을 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① 구해본 적 있다
② 구해 본 적은 없지만 일자리를 원한다 → *아래 23-3 번 문항으로 이동*
③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다 → *아래 23-4 번 문항으로 이동*

23-1 **그럼, 귀하는 주로 어떤 경로로 직장을 알아보았습니까?**

① 여성회관,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여성사회교육기관 방문
② 고용안정센터 등 공공 직업알선기관을 통해
③ 민간 직업알선기관을 통해
④ 대중매체(신문, 잡지, 광고 등)를 통해
⑤ 친척, 친구, 동료를 통해
⑥ 기타(적을 것 : _____)

23-2 **귀하가 일자리를 구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① 취업정보가 부족하거나 잘 몰라서
② 나의 학력, 경력, 나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③ 한부모라는 편견과 차별 때문에
④ 수입이나 보수가 맞지 않아서
⑤ 근무시간이나 근무환경이 맞지 않아서
⑥ 자녀를 돌봐줄 데가 없어서
⑦ 기타(적을 것 : _____)

23-3 **현재 귀하는 어떤 종사상 지위의 일자리를 가장 원하십니까?**

① 상용근로자(고용 계약기간 1년 이상)
② 임시근로자(고용 계약기간 1개월~1년 미만)
③ 일용근로자(고용 계약기간 1개월 미만)
④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
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⑥ 무급가족종사자

① 시간제 근로
☞ 직장에서 정한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주당 36시간 미만 근무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

② 전일제 근로
☞ 직장에서 정한 근로시간대에서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로하는 자로, 평소 주당 36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

☞ *응답 후, 다음 페이지 24 번 문항으로 이동*

23-4 *(23 번에서 '③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만)*
그럼, 귀하가 지난 4주 내에 직장(일)을 원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자녀를 돌봐줄 데가 없어서
② 가족 중 간호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③ 수입, 근로시간, 업무 등이 기대수준을 충족시켜주는 직장을 찾지 못해서
④ 지금은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⑤ 다른 직업을 위해 현재 학업 또는 직업훈련을 하고 있어서
⑥ 현재 받고 있는 정부지원(예: 기초생활보장,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등)을 받지 못할까봐
⑦ 건강이 좋지 않아서
⑧ 기타(적을 것 : _____)

※ 24번 문항부터는 모든 응답자가 응답합니다.

24 귀하는 최근 3년간 취업 혹은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정규교육은 제외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① 그렇다

24-1 그럼, 귀하가 받은 직업훈련은 취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②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③ 도움이 된 편이다
④ 매우 도움이 되었다

→ *25번 문항으로 이동*

24-1-1 그럼, 도움이 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전문성 부족
② 교육운영 및 관리부실
③ 실제 취업과의 연계 부족
④ 대상별 특화된 서비스 부족
⑤ 기타(적을 것 : _____)

② 아니다

24-2 그럼, 귀하가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시간이 없어서
② 근처에 교육훈련을 받을 만한 곳이 없어서
③ 교육훈련을 받을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④ 받고 싶은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없어서
⑤ 교육이나 취업정보를 어디서 얻어야 할지 잘 몰라서
⑥ 연령, 학력수준 등의 제약 때문에
⑦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⑧ 훈련기간 동안 생활비가 부족해서
⑨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⑩ 지금은 취업을 원하지 않아서
⑪ 해당 기간(최근 3년간) 취업을 하고 있어서
⑫ 기타(적을 것 : _____)

V. 건강

25 평소에 귀하의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① 매우 좋다 ② 좋은 편이다 ③ 나쁜 편이다 ④ 매우 나쁘다

26 귀하는 지난 2주 동안 아래 나열되는 증상들을 얼마나 자주 느꼈습니까?

항목	전혀 아니다	여러날 동안	일주일 이상	거의 매일
(1) 일하는 것에 대한 흥미나 재미가 거의 없음	①	②	③	④
(2) 가라앉은 느낌, 우울감 혹은 절망감	①	②	③	④
(3) 잠들기 어렵거나 자꾸 깨어남, 혹은 너무 많이 잠	①	②	③	④
(4) 피곤감(기력이 저하됨) 또는 식욕 저하 혹은 과식	①	②	③	④
(5) 신문을 읽거나 TV를 볼 때 집중하기 어려움	①	②	③	④
(6) 내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느낌 혹은 내 자신을 실패자라고 느끼거나, 나 때문에 나 자신이나 내 가족이 불행하게 되었다는 느낌	①	②	③	④
(7) 남들이 알아챌 정도로 거동이나 말이 느림 또는 반대로 너무 초조하고 안절부절 못해서 평소보다 많이 돌아다니고 서성거림	①	②	③	④
(8) 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등의 생각 혹은 어떤 식으로든 스스로를 자해하는 생각들	①	②	③	④

27 **귀하는 우울감을 느낄 때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합니까?**

① 혼자서 참는다
② 친구나 가족에게 이야기한다
③ 술을 마신다
④ 운동 등 취미활동을 통해 해소한다
⑤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는다(예: 의사의 진단, 약처방 등)
⑥ 지역사회(예: 가족센터, 지역복지관 등)의 전문가와 상담한다
⑦ 기타(적을 것 : _____)

28 **다음 중 최근 2년 동안 귀하가 받은 건강검진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항목	받음	안 받음
(1) 본인부담 종합건강검진	①	②
(2) 사업장 특수건강검진	①	②
(3)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①	②
(4) 무료건강검진(국민건강보험공단 이외의 국가건강검진 등)	①	②
(5) 기타(적을 것 : _____)	①	②

29 **귀하는 최근 1년 동안 귀하가 병의원(치과 제외)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29-1 **그럼, 귀하가 원하는 때 병의원에 가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경제적인 이유로
② 병의원 등에 예약을 하기가 힘들어서
③ 교통편이 불편해서
④ 시간이 없어서(원하는 시간에 문을 열지 않아서, 직장 등을 비울 수 없어서,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등)
⑤ 기타(적을 것 : _____)

30 **귀하는 요즘 규칙적인 운동(예: 걷기, 등산, 헬스, 축구, 자전거, 수영 등)을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십니까?**

☛ 운동 횟수는 1일 1회 기준임. 학생의 경우 학교 체육수업은 제외함
☛ 1회 운동 시 30분 이상 한 경우만 해당하며, 일상생활의 걷기는 제외함

① 전혀 하지 않는다
② 한 달에 2~3번 정도
③ 일주일에 1번
④ 일주일에 2~3번
⑤ 일주일에 4~5번
⑥ 매일

Ⅵ. 소득 및 지출

31 **지난 1년 동안 귀하 가구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얼마정도입니까?**
함께 사는 모든 가구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근로소득 뿐 아니라 양육비, 친지 도움비, 정부지원금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기입함
☛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는 제외한 실제 수령 금액기준으로 응답

월 평균 가구소득 월 [ ][ ][ ][ ] 만원

32 **지난 1년 동안 귀하 가구의 주 소득원을 금액이 큰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본인근로소득
② 전 배우자로부터의 양육비
③ 같이 사는 타 가구원 근로소득
④ 같이 살지 않는 가족, 친지의 도움
⑤ 정부지원(생계급여,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유족연금, 실업급여 등)
⑥ 저축이나 보험을 해약해서
⑦ 금융기관 대출
⑧ 기타(적을 것 : _____)

33 **지난 1년 동안 귀하 가구의 월 평균 가구지출은 얼마나 됩니까?**
함께 사는 모든 가구원의 지출을 합산하여 각 항목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항 목	월 평균 지출액						
(1) 음·식료품비	월						만원
(2) 의류·신발·가정용품비	월						만원
(3) 자녀 양육·교육비(어린이집유치원 이용료, 베이비시터 비용, 학원비, 아이학교 등록금 등)	월						만원
(4) 자녀 외 가족의 교육비(학비, 직업훈련비 등)	월						만원
(5) 주거 및 관리비(집세, 난방비,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월						만원
(6) 의료비(자녀의료비, 내 의료비, 다른 가족 의료비) 및 의료 보험료	월						만원
(7) 통신비(핸드폰비 등)	월						만원
(8) 교통비(대중교통 이용요금 등)	월						만원
(9) 차량유지비(자동차 구입비, 연료비, 수리비, 보험료, 자동차세 등)	월						만원
(10) 문화생활비(책값, 극장, 문화시설 입장료 등)	월						만원
(11) 기타(적을 것 : _____)	월						만원
총 액	월						**만원**

34 지난 1년 동안 귀하 가구의 **소비지출** 항목 가운데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음·식료품비
② 의류·신발·가정용품비
③ 자녀 양육·교육비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료, 베이비시터 비용, 학원비, 아이학교 등록금 등)
④ 자녀 외 가족의 교육비(학비, 직업훈련비 등)
⑤ 주거 및 관리비(집세, 난방비,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⑥ 의료비(자녀의료비, 내 의료비, 다른 가족 의료비) 및 보험료
⑦ 통신비(핸드폰비 등)
⑧ 교통비(대중교통 이용요금 등)
⑨ 차량유지비(자동차 구입비, 연료비, 수리비, 보험료, 자동차세 등)
⑩ 문화생활비(책값, 극장, 문화사설 입장료 등)
⑪ 기타(적을 것 : _____)

35 현재 귀하 가구의 **자산과 부채**는 얼마입니까? 각각 말씀해 주십시오.

구분	가구 총 자산 및 부채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1) 금융자산(예금, 적금, 통진 진고 등)							원
(2) 부동산(주택, 건물, 토지 등의 시가 금액/보증금 포함)							원
(3) 부채(사채, 금융권 대출금,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 등)							원

☞ *부채가 '0'원인 경우* **36** *번 문항으로 이동*

35-1 귀하 가구가 빚을 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주거비 마련 때문에
② 자녀 교육비 때문에
③ 가족(본인 포함)의 의료비 때문에
④ 생활비 때문에
⑤ 기타(적을 것 : _____)

36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 **자**동차 소유대수 기준은 명의기준임. 예를 들어 가구원의 명의가 아닌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는 그 가구의 **자**동차가 아니며, 가구원 명의로 된 **자**동차를 현재 타고 있지 않아도 그 **자**동차는 가구소유의 **자**동차임

① 있음 (총 ☐ 대)
② 없음 → *다음 페이지* **37** *번 문항으로 이동*

	첫 번째 차량	두 번째 차량
(1) 주된 용도	① 가계용 ② 사업용	① 가계용 ② 사업용
(2) 차종	① 승용**자**동차 ② 승합**자**동차 ③ 화물**자**동차 ④ 특수**자**동차 ⑤ 이륜**자**동차	① 승용**자**동차 ② 승합**자**동차 ③ 화물**자**동차 ④ 특수**자**동차 ⑤ 이륜**자**동차
(3) 배기량	① 경형 – 초소형(250cc 미만) ② 경형 – 일반형(1,000cc 미만) ③ 소형(1,600cc 미만) ④ 중형(1,600cc~2,000cc 미만) ⑤ 대형(2,000cc 이상)	① 경형 – 초소형(250cc 미만) ② 경형 – 일반형(1,000cc 미만) ③ 소형(1,600cc 미만) ④ 중형(1,600cc~2,000cc 미만) ⑤ 대형(2,000cc 이상)
(4) 연식	① 3년 미만 ② 3년 이상 5년 미만 ③ 5년 이상 10년 미만 ④ 10년 이상	① 3년 미만 ② 3년 이상 5년 미만 ③ 5년 이상 10년 미만 ④ 10년 이상

37 귀하는 **노후**를 위한 경제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37-1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복수 응답)

1 국민연금(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2 공무원 연금(교직원, 군인 포함)
3 개인연금(은행, 보험 등) 4 퇴직금/퇴직연금(퇴직저축, 기업연금, 지역연금 등)
5 예금, 적금 6 부동산 운용
7 주식, 채권 8 기타(적을 것 : _____)

Ⅶ. 자녀의 비양육부모와의 관계 및 양육비

※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가장 어린 자녀의 비양육부모**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38 귀하가 자녀의 **비양육부모**(전 배우자)와 **함께 산 기간**과 **한부모가 된 기간**을 각각 말씀해 주십시오.

☛ 가장 어린 **자**녀의 비양육부모(전 배우**자**)에 대한 가장 최근의 경험으로 응답
☛ 미혼·비혼인 경우 '결혼/동거 종료 시기'를 **첫째 자녀 탄생일 기준**으로 응답

구분	기간			
(1) 결혼/동거 기간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 3년 미만	③ 3년 이상 ~ 5년 미만	
□ 같이 산 적 없음	④ 5년 이상 ~ 10년 미만	⑤ 10년 이상		
(2) 결혼/동거 **종료** 후 한부모가 된 기간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 3년 미만	③ 3년 이상 ~ 5년 미만	
	④ 5년 이상 ~ 10년 미만	⑤ 10년 이상		

※ 다음은 이혼한 분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 SQ2 *번 문항의 '② 미혼·비혼' 응답자 경우, 다음 페이지* 41 *번 문항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 SQ2 *번 문항의 '③ 이혼' 응답자 경우, 아래* 39 *번 문항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 SQ2 *번 문항의 '사별, 별거, 기타(④, ⑤, ⑥번)' 응답자 경우, 20페이지* 51 *번 문항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39 귀하는 어떤 방법으로 이혼하셨습니까?

협의 이혼
☛ 협의 이혼이란, 부부가 협의하여 법원에 가서 판사의 확인을 받은 후 구청 등에 신고하여 이혼하는 것
☛ 협의 이혼시 양육비 집행권원: 양육비부담조서

재판상 이혼
☛ 재판상 이혼이란, 협의이혼 외 재판을 통해서 이혼하는 것
☛ 재판상 이혼시 양육비 집행권원: 법원의 판결문, 심판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 조정조서 등

① 협의 이혼 ② 재판상 이혼

40 귀하는 자녀에 대해 법적으로 **양육권**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면접교섭권 보유)

※ 다음은 혼인상태가 미혼·비혼, 이혼인 분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 SQ2 번 문항의 ② 미혼·비혼' 및 '③ 이혼' 응답자 경우, 아래 41 번 문항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 SQ2 번 문항의 '사별, 별거, 기타(④, ⑤, ⑥번)' 응답자 경우, 20페이지 51 번 문항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41 귀하는 자녀양육비 청구소송을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42 번 문항으로 이동

41-1 그럼, 귀하는 소송을 할 때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청구소송지원' 도움을 받았습니까?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청구소송지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청구소송지원이란 양육비 집행권원이 없을 때 집행권원 확보가 가능하도록 법률상담, 법률 소송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여성가족부의 지원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을 통해 이루어져 왔으며, 2015년 3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하면서 해당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42 귀하는 법적으로 양육비 이행확보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비해당(양육비를 주고받지 않기로 함)
→ 다음 페이지 43 번 문항으로 이동

42-1 귀하가 압류, 추심 등 법적으로 양육비 이행확보절차를 진행한 것이 양육비를 받는 데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42-2 그럼, 귀하는 절차 진행 시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지원'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지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지원이란 상대방이 자녀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확보에 필요한 법률적 지원(강제집행, 과태료, 이행명령, 감치처분 신청 등) 및 비용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지원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을 통해 이루어져 왔으며, 2015년 3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하면서 해당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43 **귀하는 양육비를 어떤 형태로 지급받기로 했습니까? 자녀의 비양육부모(전 배우자)로부터 법적으로 지급받기로 결정된 양육비(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조정조서 등)만 말씀해 주십시오.**

☛ 가장 어린 자녀의 비양육부모를 기준으로 해당하는 금액만을 응답

① 정기 지급
② 일시+정기 지급
③ 일시 지급
→ *44번 문항으로 이동*

④ 주고받지 않기로 함
⑤ 법적으로 결정된 바 없음

43-1 **자녀의 비양육부모(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주고받지 않기로 하거나 법적으로 결정된 바 없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낼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② 가정폭력 등 더 이상 비양육부모와 얽히는 것이 싫어서
③ 2009년 민법 개정(양육비용의 부담) 이전에 이혼해서
④ 출산 이후 비양육부모(전 배우자)와 연락이 끊어져서
⑤ 기타(적을 것 : _____)

43-2 **귀하는 자녀의 비양육부모(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은 적 있습니까?**

① 있다 → *다음 페이지 46번 문항으로 이동*
② 없다 → *다음 페이지 47번 문항으로 이동*

44 *(43번에서 '양육비를 받기로 한(①~③번)' 응답자만)*
귀하가 양육비를 받기로 한 자녀의 수는 몇 명입니까?

☐☐ 명

45 *(43번에서 '양육비를 받기로 한(①~③번)' 응답자만)*
그럼, 귀하가 해당 자녀들에 대해 법적으로 받기로 한 양육비는 얼마입니까?
결정된 지급 형태별로 각각 말씀해 주십시오.

☛ 가장 어린 자녀의 비양육부모에게 받기로 한 양육비 총액으로 응답(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합산)

지급 형태	금액	
(1) 정기	연 ☐☐ 회, 1회 ☐☐☐☐ 만원	☐ 해당 없음
(2) 일시	총 ☐☐ 억 ☐☐☐☐ 만원	☐ 해당 없음

46 *(43번에서 '양육비를 받기로 한(①-③번)' 응답자 또는 43-2번에서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은 적 '① 있다' 응답자)* **그럼, 귀하가 실제로 받은 양육비의 지급 형태는 어떠합니까?**

☛ 가장 어린 자녀의 비양육부모에게 받기로 한 양육비 총액으로 응답(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합산)
☛ 43-2번에서 '① 번(=양육비 받은 적 있다)' 응답자는 '⑥ 받지 못함' 응답 불가

① 정기 지급
② 부정기 지급
③ 일시 지급
④ 일시+정기 지급
⑤ 일시+부정기 지급
⑥ 받지 못함 → *47번 문항으로 이동*

46-1 **그럼, 귀하가 자녀의 비양육부모(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실제로 받은 자녀의 수는 몇 명입니까?**

☛ 가장 어린 자녀의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주는 자녀의 수를 합산

□ 명

46-2 **그럼, 귀하가 양육비로 실제 받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지급 형태별로 각각 말씀해 주십시오.**

☛ 가장 어린 자녀의 비양육부모에게 받기로 한 양육비 총액으로 응답(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합산)

지급 형태	금액	
(1) 정기	연 □□ 회, 1회 □□□□ 만원	□ 해당 없음
(2) 부정기	연 □□ 회, 총액 □ 억 □□□□ 만원	□ 해당 없음
(3) 일시	총 □□ 억 □□□□ 만원	□ 해당 없음

47 **귀하는 자녀의 비양육부모(전 배우자)의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가장 개선이 필요한 제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확대 또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양육비 미이행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양육비 채권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여 국가가 체계적으로 한부모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

면접교섭지원서비스 강화
비양육자와 미성년 자녀의 관계 개선을 위한 면접교섭서비스 강화

제재조치 강화
양육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 정지(100일), 출국금지(6개월), 명단 공개(3년) 등 수준 확대

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확대 또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
② 면접교섭지원서비스 강화
③ 제재조치 강화(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등)
④ 기타(적을 것 : _____)

48 귀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015년 3월 출범한 양육비 이행 전담기구로서, 비양육부모가 자녀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확보에 필요한 법률적 지원(강제집행, 과태료, 이행명령, 감치처분 신청 등) 및 비용 제공 등 서비스를 지원

① 있다 → 49번 문항으로 이동
② 없다

48-1 귀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자녀양육비 청구소송, 양육비 이행 관련 서비스 등)를 이용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있다 → 49번 문항으로 이동
② 없다

48-2 그럼,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양육비를 이미 충분히 받고 있어서
② 다른 국가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될까봐
③ 서비스를 받아도 양육비를 받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
④ 서비스를 받아도 양육비를 받기까지 오래 걸려서
⑤ 양육비 이행관리원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서
⑥ 비양육부모와 관계가 나빠지는 것을 염려해서
⑦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낼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⑧ 비양육부모와 얽히는 것이 싫어서
⑨ 기타(적을 것 : _____)

49 최근에도 귀하의 자녀는 자녀의 비양육부모(전 배우자)와 서로 연락하고 있습니까?
(있다면) 그럼, 주로 어떤 방식으로 연락하고 있습니까?

①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
②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만나고 있다
③ 편지, 이메일, 전화(카톡 포함) 연락만 하고 있다
④ 양가 친척 등을 통해 소식만 전해 듣는다
⑤ 연락을 원하지 않아서 연락하지 않는다
⑥ 소재파악이 되지 않아 전혀 연락이 닿지 않는다
⑦ 기타(적을 것 : _____)

50 최근에도 귀하는 자녀의 비양육부모(전 배우자)와 서로 연락하고 있습니까?
(있다면) 그럼, 주로 어떤 방식으로 연락하고 있습니까?

①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
②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만나고 있다
③ 편지, 이메일, 전화(카톡 포함) 연락만 하고 있다
④ 양가 친척 등을 통해 소식만 전해 듣는다
⑤ 연락을 원하지 않아서 연락하지 않는다
⑥ 소재파악이 되지 않아 전혀 연락이 닿지 않는다
⑦ 기타(적을 것 : _____)

Ⅷ. 주거 환경

※ 51번 문항부터는 모든 응답자가 응답합니다.

51 현재 귀하가 살고 있는 집의 거주형태는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① 자기 집(자가)
② 전세
③ 보증금 있는 월세
④ 보증금 없는 월세 또는 사글세
⑤ 무상으로 가족(부모), 친지, 친구 집에서
⑥ 공공임대(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⑦ 기타(적을 것 : _____)

52 현재 귀하가 살고 있는 집의 주택면적은 얼마입니까?

주택사용면적(전용면적) [ ][ ][ ] ㎡ / 또는 [ ][ ] 평 (1평=약 3.3㎡)

53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주거환경은 어떻습니까? 다음 각각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가구원 수에 비해 공간이 적당하다	①	②	③	④
(2) 통풍 및 채광이 좋다	①	②	③	④
(3) 난방상태가 좋다	①	②	③	④
(4) 방음상태(층간소음, 외부소음 차단정도 등)가 좋다	①	②	③	④
(5) 놀이터, 체육시설 등 생활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	①	②	③	④
(6) 대중교통 접근용이성이 높다	①	②	③	④
(7) 학교 및 학원 등 교육환경이 좋다	①	②	③	④
(8) 절도, 강도 등에 대한 치안상태가 좋다	①	②	③	④

54 다음은 한부모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주거서비스 지원 내용입니다.
귀하는 한부모가 된 후 해당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다음 각 항목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항목	현재 받고 있음	현재는 받지 않으나 받은 적 있음	제도를 알고 있으나 받은 적은 없음	제도를 알지 못함
(1)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보호시설, 자립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①	②	③	④
(2) 공공임대공공분양 등 공공주택 지원	①	②	③	④
(3)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	①	②	③	④
(4) 주거비 지원(전세자금 융자지원, 월임대료 보조)	①	②	③	④

☞ *(2) 공공임대공공분양 등 공공주택 지원의 ②, ③번 응답자 경우, (3)-(4)번 문항 응답 후 54-1번 문항으로 이동*
☞ *이 외의 응답자 경우, 다음 페이지 55번 문항으로 이동*

54-1 *(공공주택 지원을 현재는 받지 않으나 받은 적이 있거나 제도를 알고 있으나 받은 적은 없다(=②, ③번)는 응답자만)*
그럼, 귀하가 공공임대공공분양 등 공공주택 지원 서비스를 현재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직장 또는 자녀들의 학교와 거리가 멀어서
② 공공임대주택단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좋지 않아서
③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 관리비를 낼 형편이 못 되어서
④ 가구수에 비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규모(또는 방수)가 작아서
⑤ 입주신청 절차가 어려워서
⑥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심사에서 탈락해서
⑦ 자기 집(자가), 전세 등으로 공공주택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가 없어서
⑧ 기타(적을 것 : _____)

Ⅸ. 지원 사업

55 **귀하는 한부모가 된 후 기초생활 보장 지원 서비스의 도움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기초생활 보장 지원 서비스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생계비, 의료비,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한 가지라도 받으면 받는 것으로 포함함
☛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지원만 받는 경우는 제외함

① 현재 받고 있음
② 현재 지원 받고 있지 않으나 받은 적 있음
③ 제도를 알고 있으나 받은 적 없음
④ 제도를 알지 못함

→ *다음 페이지 56번 문항으로 이동*

55-1 **그럼, 현재 어떠한 급여를 지원받고 계십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 응답)

1 생계급여 2 의료급여
3 주거급여 4 교육급여

55-2 **그럼, 귀하 가구는 앞으로 얼마 후에 기초생활 보장 지원 서비스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① 1년 이내 ② 1년 후~3년 이내
③ 3년 후~5년 이내 ④ 5년 후~10년 이내
⑤ 10년 후 ⑥ 계속 지원받아야 할 것이다

56 귀하는 한부모가 된 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의 도움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는 저소득 한부모가족(가준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65% 이하)에게 자녀 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가족역량강화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55번의 '기초생활 보장 지원'의 경험은 제외하고 응답
☛ 55-1에서 '(1)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① 현재 지원받고 있음'에 응답할 수 있음

① 현재 지원받고 있음
② 현재 지원받지 않으나 받은 적 있음
③ 제도를 알고 있으나 받은 적 없음
④ 제도를 알지 못함

→ *다음 페이지 57번 문항으로 이동*

56-1 그럼, 귀하 가구는 앞으로 얼마 후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① 1년 이내
② 1년 후~3년 이내
③ 3년 후~5년 이내
④ 5년 후~10년 이내
⑤ 10년 후
⑥ 계속 지원받아야 할 것이다

56-2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중 귀하 가구가 수급대상에서 벗어나더라도 계속 받고 싶은 지원은 무엇입니까? 가장 받고 싶은 것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① 양육비(복지급여, 학용품비 등) 지원
② 자녀교육비(초중고 학생 교육비, 학교급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등) 지원
③ 스포츠 강좌 이용권·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④ 주거관련(복지시설 입소, 공공주택 지원, 주거비 등) 지원
⑤ 창업자금 지원
⑥ 취업교육(직업전문학교 입학,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등) 지원

56-3 귀하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가장 불편했던 점은 무엇입니까?

①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찾기 어려움
② 내야하는 행정서류가 너무 많음
③ 공개된 공간에서 내 정보를 밝혀야하는 부담
④ 담당자(공무원, 담당기관 직원 등)가 정책을 잘 모름
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가족센터 등)의 이용시간이 한부모에게 맞지 않음
⑥ 기타(적을 것 : _____)

57 **귀하는 한부모가족지원사업에 관한 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본 적이 있는 주요 경로를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② 인터넷이나 온라인카페, 유튜브 등
③ 구청 또는 주민센터
④ 가족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양육비이행관리원
⑤ 한부모복지시설
⑥ 지역복지관
⑦ 새일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⑧ 고용지원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
⑨ 방송보도 및 신문기사
⑩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⑪ 기타(적을 것 : _____)

58 **귀하가 현재 생활하는데 어떤 지원이 가장 필요하십니까? 필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생계비, 양육비 등 현금지원
② 아이와 부모 건강을 위한 의료지원
③ 아이돌봄관련 서비스 지원
④ 시설 및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⑤ 직업훈련, 취업, 학업계속 지원
⑥ 자녀양육비 이행 소송 등 법률지원
⑦ 사회적 인식·차별 개선
⑧ 부모교육 및 상담지원
⑨ 자조모임
⑩ 기타(적을 것 : _____)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편청 ID (SV 기입)					리스트 가구 ID (조사원 기입)					

조사 후 기록표

※ 이래 부분은 조사원이 작성합니다.

응답자 기본 정보	성 명		(답례품 인수 서명)
	전화 번호	① 집(유선번호) - -	② 핸드폰 - -
		☞ 전화번호는 추후 자료 확인을 위한 목적이며, 절대로 다른 목적에 이용하거나 유출되지 않습니다	
조사표 작성 방법		① 조사원 면접식	② 자기 기입식(조사표 유치 요청 포함)
응답 날짜		2024년 월	일
응답 시간		① 오전 시 분 부터	② 오후 시 분 까지
		총 분간 응답	

에디팅 및 검증 기록표

조사원	성 명		조사원 ID		
	현장(1차) 에디팅	1 완료	2 미완료	(서명)	
실사 감독원	성 명				
	2차 에디팅	1 완료	2 미완료	(서명)	
자료 검증원	성 명		검증원 ID		
	검증 여부	1 완료	2 미완료	(서명)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2024년 12월 13일 인쇄
2024년 12월 15일 발행

발행처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전화 / 02-2100-6000 (代)
인쇄처 : **(주) 두루행복한세상**
전화 / 1644-0728 (代)

발간등록번호 11-1383000-100044-12